

함흥고보(함남중학) 동창회 간행  
동창회지 반룡 제5호  
간행일 1994년10월  
총 574쪽

盤  
龍

(會誌5號)

盤 龍

(同窓會誌 第5號)

一九九四·一〇

咸高(南中)同窓會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 盤龍

(同窓會誌 第5號)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三線の意味


3번 列 高 普  
(京城, 平壤, 咸興)

知 德 体 3 育

智 仁 勇 3 德

日 月 星 3 辰

天 地 人 3 元



盤龍의 뜻 : 盤(蟠)龍...아직 하늘에 오르지  
않고 땅위에 서리고 있는 龍  
盤龍山...한남 함흥의 鎮山으로서 李太祖의  
騎馬 訓練場이었던 馳馬台가 있는 由緒  
깊은 산으로 一名 城串(천)山이라고도 불렀음.  
標高 31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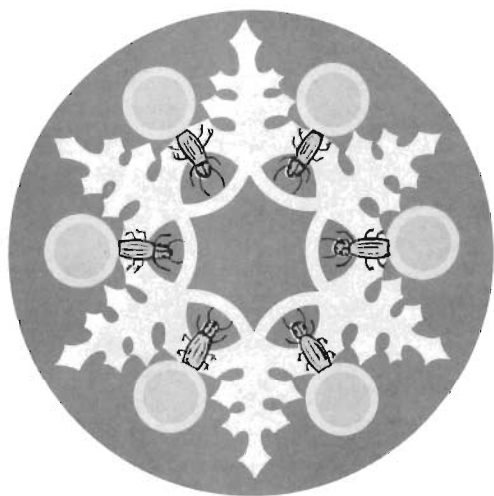
盤...대(台) 반, 소반반, 즐길반, 큰돌반  
蟠...서릴(몸을 휘감고, 앞드림) 반  
串...케미천, 어음천, 꼬치찬, 익을관, 꽃곶.

- 편집실 -



# 盤 龍

(同窓會誌 第5號)



1994. 10. 10

威興高普(威南中學)同窓會



表紙畫… 金興洙 作

標題字… 朴泳馥 書

螢雪圖… 李鎬植 畫

## I 部 畫報·發刊辭·沿革·校歌

---

1. 追憶의 母校
2. 그리운 故鄉
3. 두고온 山河
4. 同窓會 行事
5. 刊行辭
6. 學校沿革
7. 校歌

盤 龍  
(會誌 5號)

發刊을 衷心으로 自祝함

同窓會 任員

美洲支會 任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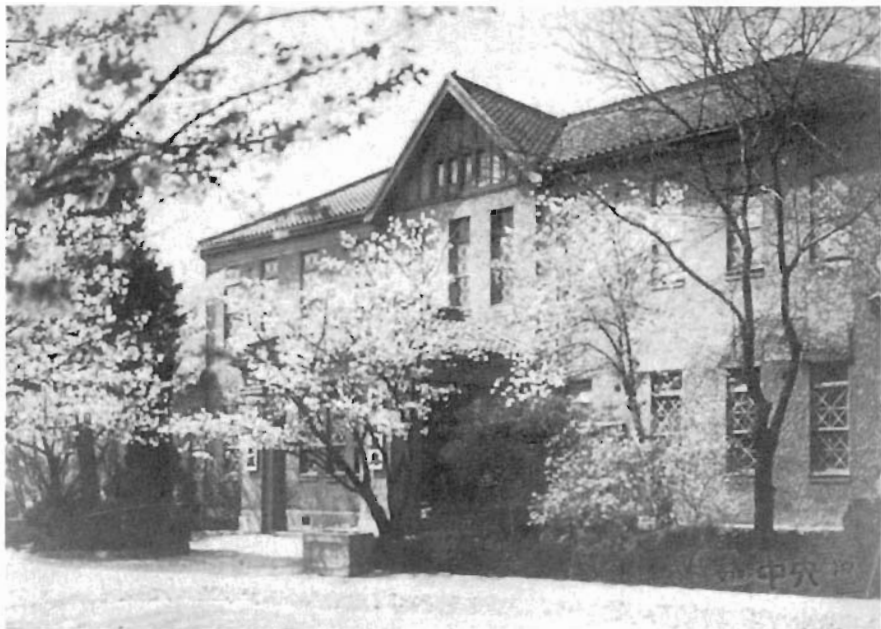
名譽會長 李東準 (1回) 423-1630	顧問 馬鍾國 (8回) (301)869-4157
會長 朴東昂 (23回) 589-0023	顧問 金子勳 (15回) (718)352-9436
副會長 朱仁鎬 (21回) 587-1597	顧問 金基惠 (15回) (718)939-1713
副會長 韓時坤 (24回) 716-5587	會長 金溼次 (15回) (201)585-0813
副會長 劉 鋼 (27回) 413-3276	副會長 李壽永 (20回) (201)385-9123
監 事 鄭哲周 (29回) 266-8305	副會長 玄鳳學 (23回) (201)755-5412
總 務 朴溶夏 (30回) 980-3100	副會長 朴浩高 (29回) (301)244-1111
副總務 金明哲 (31回) 916-8712	總 務 高勝榮 (30回) (212)923-2611

# 추억의 母校

校旗







옛 母校의 玄関



옛 母校의 正門



母校 校舎 正門에서



母校자리의 지금 모습 (89. 4)

○○○역대회장○○○  
★★★★★



初代會長 李東準



二代會長 金連珪



三代會長 姜洙楨



四代會長 金載元



五代會長 朴東昴

# 그리운 故鄉



만세교 (반룡산 끝에서서)



추억의 萬歲橋





반룡산 성터



〈本宮手植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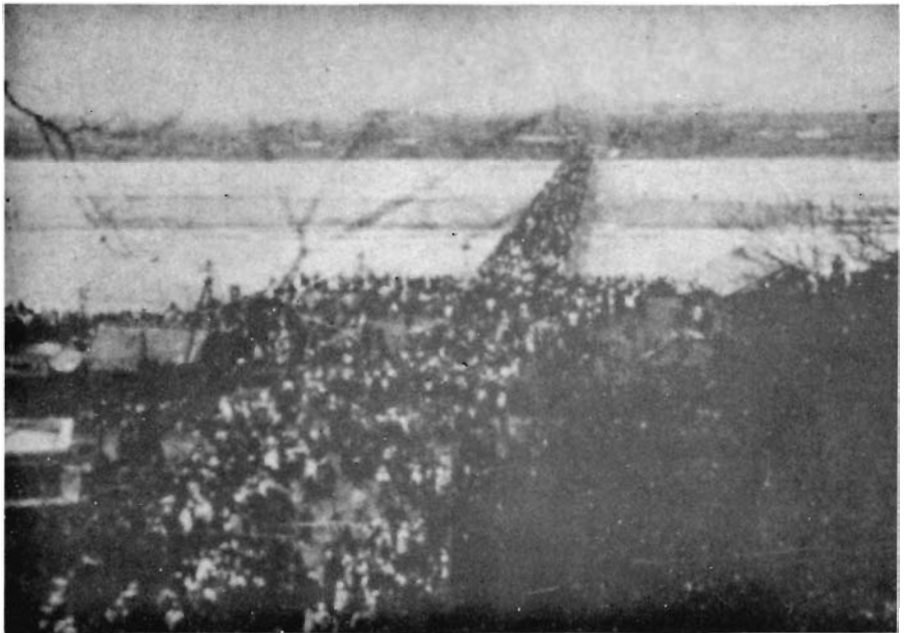
馳馬臺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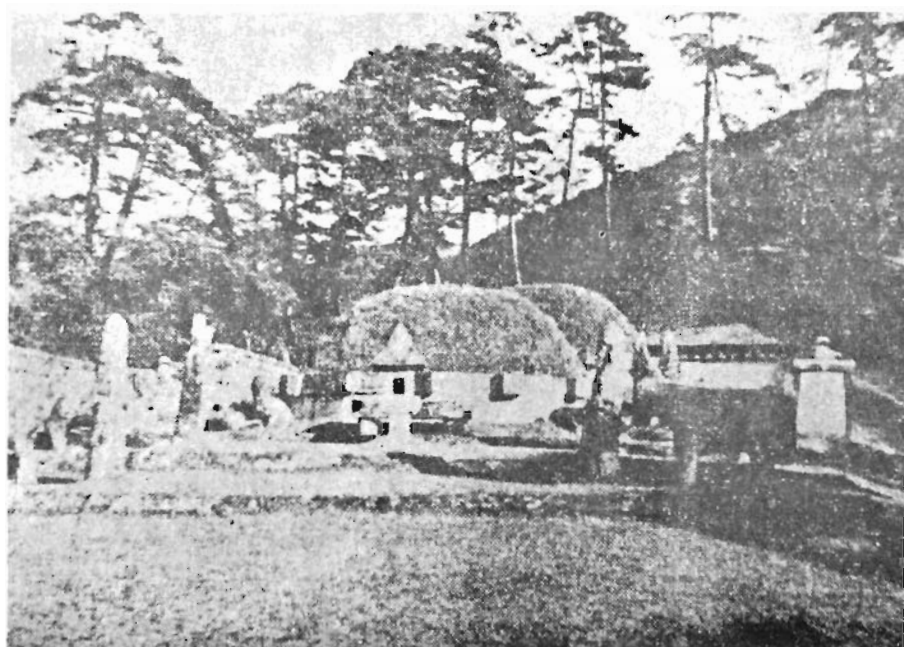
孔子廟가 있는 盤龍山全景



樂民樓에서 萬歲橋를 바라봄



萬歲橋 踏橋



定和陵



歸州寺 全景



赴戰嶺의 잉클라인



부전강발전소



〈서호진 해변〉



고향 뒷산의 노송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데.....



함남의 명물 명태덕





원산항



두만강 뱃사공

## 두고온 山河



날카롭게 솟은 압록강변의 바위





저 우람찬 덜떠진 山 덩어리를  
 한품에 답석 안고서  
 가슴 입을 맞비비는 황홀한 기쁨이여  
 메와 벌판 구석구석  
 강과 개울 그빛이 굽이  
 檀君 夫餘 市 鎭 挈 沃 沮 鞞  
 저래의 한배점 한배들의 숨소리  
 千年 이 萬年 이 번개치듯 가버렸어도  
 오늘 이 시간이 순간  
 내 혈관속에 배어들어  
 뛰고 용솟고 치밀고 후끈거리  
 새피를 꿸여 부은듯  
 새힘을 얻나이다  
 白頭 山 내 無量壽 꽃잎시여  
 얼과 생명의 근원이여  
 임은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심장 호흡이니이다  
 오늘 아침 임께 바치는  
 저래의 詩와 찬송을 받음음소서  
 統一을 위한 저래의 피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달픈 자손들로 하여금  
 몸소 달려가 끊어업디어  
 기도할수있게 해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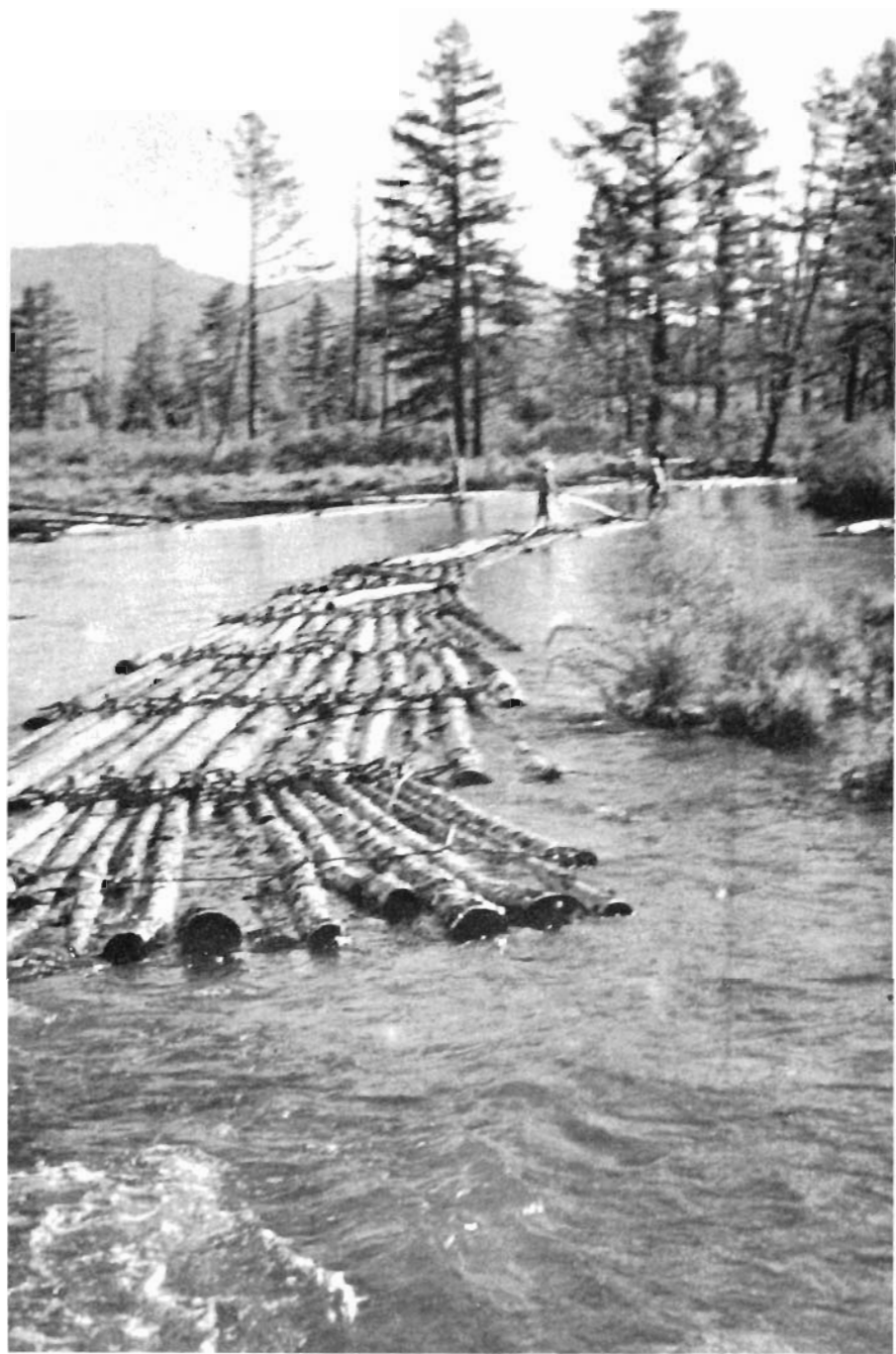
노산 이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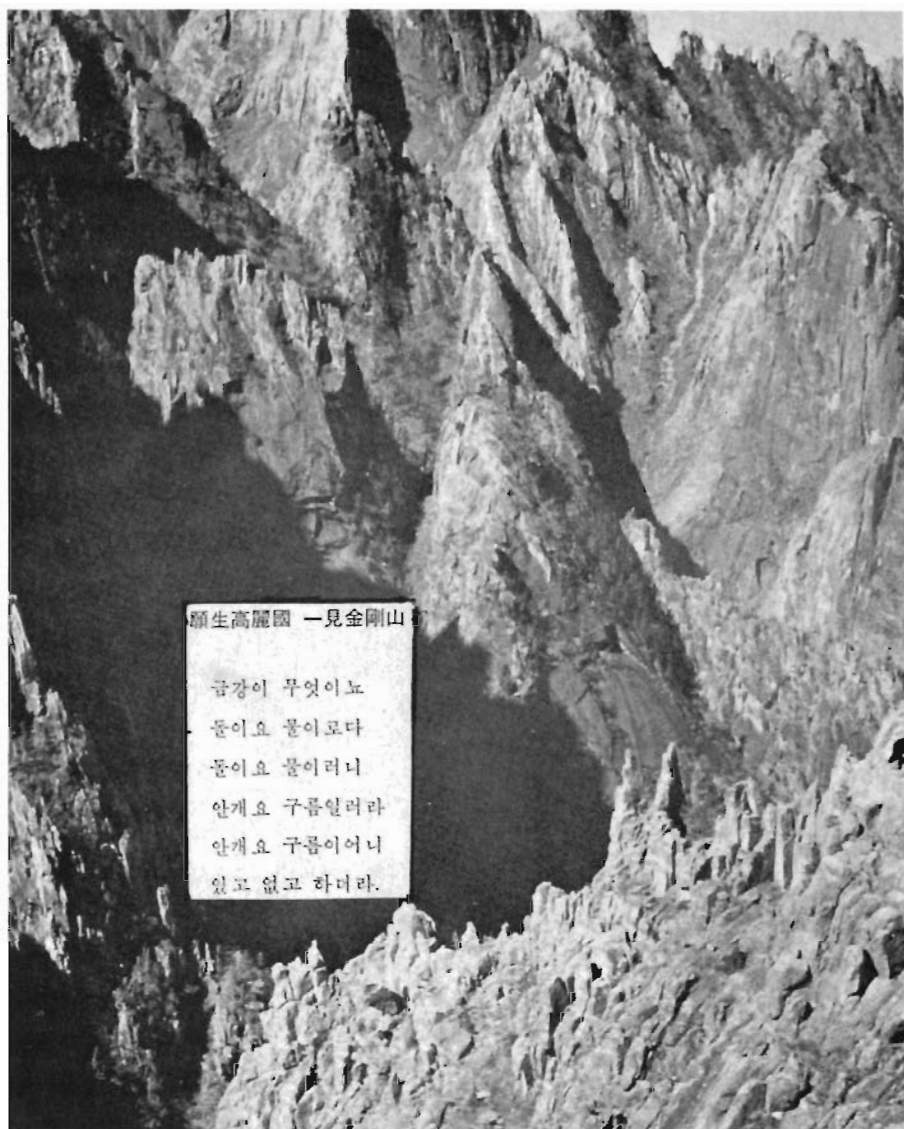
민족의 영산 백두산천지

## 白頭山頌

白頭山 / 내거룩한山 /  
 안개구름 자욱한 저기  
 一萬산악의 祖宗이시여  
 한배검 내려오사  
 弘益人間的 큰 教化를 퍼신  
 天帝의 寶座시여  
 내가 부르는 이름중에  
 가장 尊貴한 임이니이다  
 石乙水 江土水 豆滿江 건너 뉘면  
 千里天坪 배달겨래의 聖地  
 저 神市의 거룩한 역사의  
 첫장에 적힌 말씀과 은혜  
 햇빛같이 드리우고  
 바람처럼 가슴속에 스미나이다  
 오 꿈인적없는  
 자비한 햇빛이여 따스한 바람이여  
 꿈속에도 그리워 虛頂領兵使峰으로  
 노루사슴처럼 치달고 내리닫고  
 密林의 靜寂天地의 神秘를 마시며  
 후리새(岩燕)처럼 휘돌고 말아돌고  
 눈돌려 바라보면  
 南北千里 來西六百里



압록강 상류의 뗏목



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

금강이 무엇이뇨  
물이요 물이모다  
물이요 물이러니  
안개요 구름일러라  
안개요 구름이어니  
있고 없고 라며라.

신만물상(新萬物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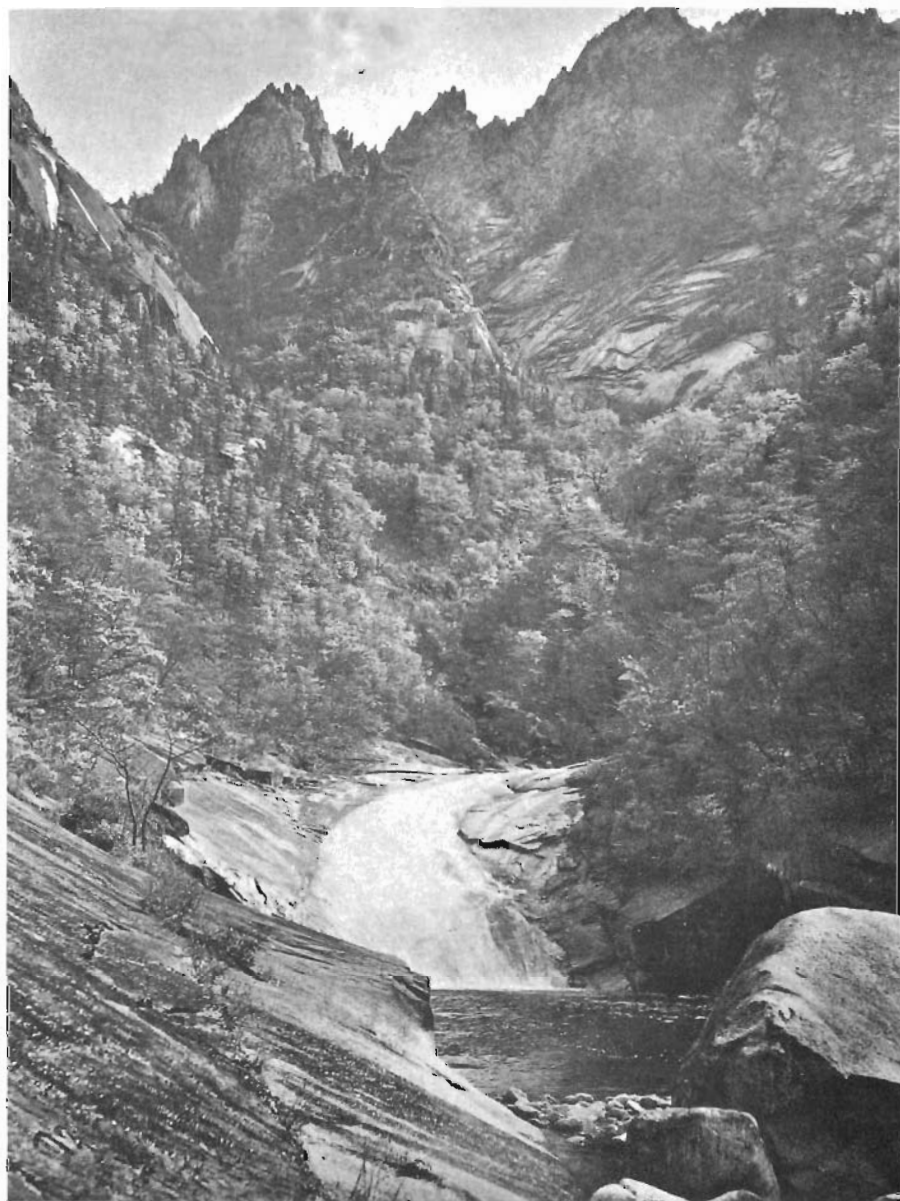


비로봉(毘盧峰) 전경



십이폭 신금강





외금강 옥류동(玉流洞)





구룡연(九龍湫) 폭포

# 동창회 행사



90년도 동창회 (세종호텔에서)



91년도 동창회 (그린파크호텔에서)



1992년 정기총회(세종호텔)



1993년 정기총회(호텔 소피스텔)



1994년 춘계임시총회(그린팍호텔)



미주지회 회원



회장단 및 편집위원 일동



회장단·기간사 일동



총회에서 인사하는 박동묘 회장



장기자랑 시상식광경(1)



장기자랑 시상식광경(2)



명가수에 멋진 디스코춤 (김흥수 화백)

## 동창회지「盤龍」을 내면서

朴 東 昴

五號회지「반룡」이 나왔습니다.

묵직한 크기에 알찬 내용이 담겨진 새로운 會誌를 손에 쥐고 보니, 학교 시절 그때가 더욱 그리워 집니다.

이번 會誌에는 많은 동문들이 기고해 주셨고, 아카시아 냄새가 물씬하게 풍기는 옛이야기들이 무게있게 실렸습니다. 會誌의 모양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會誌이름을 盤龍이라고 새로 지었으며 表紙에는 「念願」이라는 작품을 전재 했습니다. 盤龍이라는 題號는 박영복 동문이 써 주셨고 「念願」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자랑하는 김홍수 화백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盤龍」이라는 책이름은 고향山川을 그리워하는 뜻을 지녔고, 念願이라는 表紙그림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우리들의 애절한 所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소중한 작품을 제공해 주신 김홍수화백과 좋은 제자(題字)를 써 주신 박영복 동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글을 써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 을 드립니다.

혁신적인 5호 會誌를 내기까지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 해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에게 동문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젠 반룡산 기슭에서 전국에 흐터졌던 동문 모두가 모여 「盤龍」회지를 다시 발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해 주십시오.

1994년 8월 15일

同窓會長 朴東昞

## 咸興高普(咸南中學)沿革

1897 : 咸興鄉校에서 私立學校로 發足

1905 : 私立豐興學校

1908 : 咸興私立高等學校(豐興學校와 日新學校併合)

1911 : 咸興私立高等普通學校

1918 : 官立咸興高等普通學校

1925 : 咸興公立(道立)高等普通學校

1938 : 咸南公立中學校

1945 : 咸興中學校

1947 : 學制改編으로 閉鎖

# 校歌

Andantino

金東一 採譜 (29回)

(一) ひ が し の か た み は る か す  
 가 없 는 동 역 을 바 라 보 아 라

う な ば ら と く あ け そ め て  
 어 뎀 바 다 저 멀 리 먼 동 이 뜬 다

あ し た の ひ ぎ し は な や か に  
 찬 란 한 아침 햇 살 누 리 밝 히 고

の ぞ み の ひ か り み な ぎ り ぬ  
 회 망 은 님 - 처 서 천 지 를 덮 네

韓承五 옮김

一. 가 없는 東녘 하늘을 바라보아라  
 어둠바다 저멀리 먼동이 뜬다.  
 찬란한 아침 햇살 누리 밝히고  
 희망은 넘쳐서 天地를 덮네

二. 우람찬 盤龍을 우러러 보라  
 山靈氣 永遠히 살아 숨쉬어  
 그윽한 그 모습 눈(霧)에 어리고  
 숲(松)빛엔 千萬歲 榮光 빛나라

三. 호를도 헤맑은 君子江 물결  
 蒼空에 빛난 별 드리우고서  
 맑은 눈동자 빛나는 밤에  
 거룩한 使命을 일깨워 주네

四. 螢雪의 깃발 아래 다져진 터전  
 밝혀 모인 健兒들 意氣도 높아  
 報恩의 참뜻으로 마음 가꾸어  
 배움의 한 길을 닦아 나가세

校歌  
 麻生磯次作歌

一. 東の方見はるかす  
 海原遠く明けそめて  
 朝の陽光はなやかに  
 希望の光みなざりぬ

二. そがひに仰ぐ盤龍の  
 山靈永久に鎮もりて  
 ゆかしき姿雲に映え  
 松に千歳の榮あり

三. 流れも清き君子河  
 み空の星は影やどし  
 黙示の暁うるませて  
 尊き使命語るなり

四. 螢雪の旗なびくもと  
 集へる健兒意氣高く  
 恩恵にこたへ誠意もて  
 學びの業につとめばや

# 目 次

## I 部 畫報, 刊行辭, 沿革, 校歌

■ 추억의 母校 .....(3)	
(歷代會長)	
■ 그리운 故鄉 .....(7)	
■ 두고온 山河 .....(15)	
■ 同窓會 행사 .....(25)	
■ 刊 行 辭 .....(31)	
■ 學校沿革 .....(33)	
■ 校 歌 .....(34)	

## II 部 盤龍에 새긴 回想과 追憶의 文章들

(論述, 隨想, 思索, 詩文, 紀行...)

回 故黎堂 金載元박사를 추모하며	姜錫福(7回) .....2
回 日本 軍隊에서 體驗한 氣合들(其二)	金滄次(15回) .....13
훈도시檢査	
回 金熙春君을 哀悼함	金子勳(15回) .....17
回 第19回 卒業式의 追憶(1) 天池(2)	朱槿源(19回) .....20
回 L.A. 事件回想	崔閔煥(20回) .....24
回 명주수건과 할미꽃	이기형(20回) .....30
回 調型主義예술선언(1)	金興洙(20回) .....34
격랑속을 헤쳐온 나의예술(2)	

☐ 나의 故鄉	韓喬石(21回) ……50
☐ 에이즈(AIDS)의 심각성	朱仁鎬(21回) ……58
☐ 우리 咸興高普(咸南中學)蹴球부를 말해보면	金禧庚(22回) ……64
☐ 先進國의 社會病理現狀(Anomie)	安 霖(22回) ……69
☐ 盤龍山에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金瑛河(23回) ……78
☐ 나의 교단생활	朴東昴(23回) ……87
☐ 돌아가고픈 나의 故鄉 別天地	李漢淳(23回) ……94
☐ 1991. 함흥에서	玄鳳學(23回) ……106
☐ 美國旅行記의 二題	朴昌均(23回) ……118
☐ 咸南中學卒業有感	周喜銓(24回) ……134
☐ 살리지 못했던 특강西式 健康法の 回顧	한학륜(24回) ……139
☐ 두고온 女동생과의 첫 書信	廉仁必(24回) ……148
☐ 思 2言 (1) 소나무 송(頌) (2) 만남(그 因緣의 이야기)	韓時坤(24回) ……155
☐ 나의 書作品과 中國	朴泳馥(24回) ……164
☐ 解放과 恩師	韓承銀(24回) ……177
☐ 佐護先生	金世翊(25回) ……184
☐ 生地獄에 갔더니	劉長得(25回) ……189
☐ 隨想三題	韓承五(25回) ……196
☐ 나의 첫직장 — 대학재학중 공립여중교정교사	한정섭(26回) ……202
☐ 나의 영원한 벗 競을 추모함	權鎭城(26回) ……209
☐ 失鄉民의 녀두리	이삼열(26回) ……215

回 學校時節의 回想	석동수(26회) ……225
(1) 「하잔」선생님	
(2) 「洪兄께 진 빛」	
(3) 500m 스케이트 경기	
回 G형에게!	梁泰鱣(27回) ……238
回 知性人과 老年期의 健康	元章煥(27回) ……246
回 天 池 외1편	韓淳輔(27回) ……250
回 오! 어머니	韓泓模(27回) ……253
回 생각나는 日人恩師들	劉 綱(27회) ……259
回 나의故郷은 定平鳳台	박철선(27회) ……268
回 한 革新의 挫折	김명수(27회) ……276
人類의 終末은 언제쯤인가	
回 남북이산가족의 상봉문제	李命英(28회) ……302
回 실항민의 절규	趙東喆(28회) ……309
— 자유민주수호 大會를 마치고 —	
回 北으로 가는길	吳聖曄(28회) ……315
回 영상유회 「검은고양이」의 추억	주혁순(28회) ……320
回 越南 1世의 간절한 所望	韓炯周(28회) ……330
回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실수(失手)	金在楨(29회) ……342
回 五斗米折腰	김순옥(29회) ……344
回 이역의 기적소리에 추억을 싣고	張聖洛(29회) ……351
回 沐浴湯 이야기	韓鎭慶(29회) ……362
回 망향, 아내의 정성	김정재(29회) ……369
回 꿈이여, 다시 한번	임순균(29회) ……371
回 시각이 달라지는 미국영화	한재수(29회) ……383

☐ 열심히 사는 인생 - 젊은이들을 향한 제언 -	김용철(30회) ……394
☐ 나비 - 그의 이름은 날개달린 꽃 -	신유한(30회) ……397
☐ 國土統一 祈願塔	朴定仁(30회) ……405
☐ 無病長壽	崔嘉鳳(30회) ……411
☐ 中夏兩師訪古酒肆	李南杓(30회) ……417
☐ 시급한 생물 다양성과 습지보전의 우선 순위	元炳晔(30회) ……422
☐ 停年退任 有感	金秉喆(30회) ……428
☐ 鎮魂曲	李 河(30회) ……436
☐ 길	韓均弼(30회) ……440
☐ 더불어 사는 세상	金致敬(31회) ……442
☐ 追 想	金明哲(31회) ……452
☐ 雜想三題 • 금강초롱이야기 • 시간이야기 • 차이야기	高庚式(31회) ……457
☐ 燒 紙(망향시)	鄭源石(32회) ……466
☐ 의사도 만류한 해외여행	金東一(32회) ……468
☐ 咸鏡道사람	李七煥(33회) ……472
☐ 停年退職(공트)	徐潤煥(33회) ……479
☐ 水平思考方式(공트)	李大鍾(33회) ……489
☐ 歲月은 흘러가는데	朱宣淳(33회) ……494
☐ 「都市가스」小考	廉昌錄(33회) ……501

### Ⅲ部 會則, 名簿 其他

回 同窓會 會則 .....	509
回 同窓會 基金 贊助金 內譯 .....	512
回 同窓會員 名簿 .....	518
回 詩와 글 .....	563
回 作故者 名簿 .....	565
回 編輯後記：편집을 끝내면서 .....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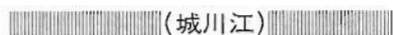


## II 部 盤龍에 새긴 文章들

(論述·隨想·思索·詩文·紀行…)

- |          |                  |      |
|----------|------------------|------|
| 7,15,19回 | 여당 金載元博士를 추모하며   | 外 3題 |
| 29回      | L.A事件 回想         | 外 2題 |
| 21, 22回  | 나의 故鄉            | 外 3題 |
| 23回      | 盤龍山에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 外 4題 |
| 24回      | 咸南中學卒業 有感        | 外 5題 |
| 25回      | 佐護先生             | 外 2題 |
| 26回      | 나의 첫직장(대학재학중…)   | 外 3題 |
| 27回      | G兄에게!            | 外 6題 |
| 28回      | 남북이산가족의 상봉문제     | 外 4題 |
| 29回      |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      | 外 6題 |
| 30回      | 열심히 사는 인생        | 外 8題 |
| 31, 32回  | 더불어 사는 세상        | 外 4題 |
| 33回      | 咸鏡道사람            | 外 4題 |

### 3. 성 천 강



도련포 천리장성 헐어졌어도  
都連浦 千里長城

성천강 만세교야 길기도하이  
萬歲橋

하란평 넓고넓다 끝도없어라  
哈蘭坪

사나이 큰숨한번 내쉬어보자

성천강(城川江)은 함경남도(咸鏡南道) 신흥(新興), 함흥(咸興) 두 고을을 흘러내리는 강으로서, 신흥 동북쪽 금패산(禁牌山)에서 근원(根源)이 되어 함흥 고을의 거의 중앙을 뚫고 동남으로 흘러 동해의 함광만(咸廣灣)으로 들어가는데 길이는 99킬로이다. 이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어구는 도련포(都連浦)로서 옛날 고려(高麗)때 여진(女眞)을 막기 위하여 유소(柳韶)란 이가 의주(義州) 압록강 가에서부터 여기까지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쌓았었고, 이 강가에 있는 함흥평야(咸興平野)는 우리나라 삼대 평야(三大平野)의 하나인데 하란평(哈蘭坪)은 그 옛이름이다.

7.15.19回

- ◎ 고 黎堂 金載元박사를 추모하며 …… 姜 錫 福(7回)
- ◎ 日本軍隊에서 體驗한 氣合들 (在美)金 澄 次(15回)  
(其二)훈도시檢査
- ◎ 金熙春君을 哀悼함 …………… (在美)金 子 勳(15回)
- ◎ 第19回 卒業式의 追憶 …………… 朱 槿 源(19回)  
(孫基楨選手 日章旗抹 消寫眞事件을 回想하면서)
- ◎ 天 池



# 故 黎堂 金載元 박사를 추모하며



姜 錫 福(7回)

## 1. 提 言

故黎堂 金載元박사의 銅像(胸部)을 새로 건축하는 中央박물관에 建立한다(咸興高普「咸南中學」同志)

黎堂 홀대에 가슴아파

(1) 金載元박사의 考古學 업적을 기리고 그의 청빈한 정신적 삶을 후세에 이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黎堂기념 사업회 설립을 추진하면 여하,

(2) 그는 日政下 천신만고로 독일등에 유학 獨逸文學博士 학위를 얻어 공부에 몰두하다가 만 11년만인 1940년 귀국.

(3) 韓國 考古學 第1人者

中央박물관장으로 25년동안 그의 귀중한 人生의 대부분을 박물관장으로 문화재 수호를 위해 불태웠다.

(4) 그의 위대한 국가공헌의 功勞

6·25동란 당시 이북에 약탈당할뻔 하였던 國寶급 문화재를 死守 보존 한 것

후배양성, 기타 많은 문화재 보존 공로

(5) 그의 明鏡止水같은 “청빈한 求道의 삶” 귀감

괴테의 生家인 “괴테하우스”(獨逸 프랑크푸르트)나 “로댕”이 살던 집(프랑스 파리), 셰익스피어 生家인 런던 동북쪽 셰익스피어 하우스에는 그들 銅像들이 서 있다.

벌써 提言하러 하였으나 現 中央박물관이 舊 總督府廳舍이기 때문에 민족정기 등 문제로 提言하지 못했었다.

## 2. 그 넓고 깊고 바른 의기와 지조의 黎堂!

그가 간지 어언 4년이나 지났지만  
이승에서 보이던 반가운 그대의 微笑  
그러면서도 나라일 그렇게 걱정하더니  
날아간지 네해째 하늘에 자리 했으니  
저승도 두루두루 반가와 하게 되었군요.

無限한 探求만이 人生 그것이었던 그대  
天職지킨 박물관의 산 歷史

### ● 광복후 불모지 우리 考古學 개척

국제적으로 유네스코가 불법유출된 문화재는 원소유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세계각국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는 15개국에 5만 2천점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대부분 박물관이나 도서관등 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것들.

그러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파악조차 어렵기 때문에 해외의 한국문화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우리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나라는 日本이다. 2만 8천4백여점이 넘는다는것이 당국의 어림 잡는

통계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공개된 곳에 진열된 것만을 파악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한국 문화재가 있는지는 짐작할 수조차 없다.

黎堂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으로 불법유출된 한국 문화재의 반환을 강력히 요청 했다.

지난 65년 한일회담때 협상에 의해 日本에서 돌아온 2천7백 50점이 고작이다. 우리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민간 畫家들에 의한 회수 노력도 중요하다. 현재 日本에 있는 문화재는 정작 우리나라에는 없는 국보급이 수 없이 많다.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는 거의 약탈해 갔거나 불법유출된 것들, 멀리는 임진왜란에서 부터 가까이는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우리의 문화재를 수 없이 빼앗아 갔다.

문화재는 원래 소유했던 그 나라로 되돌려 줘야 한다. 그래서 黎堂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반환해 주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었다.

문화재의 原產國 반환에 대한 전기한 유네스코 합의(79년)의 유엔 총회결의(83년)등 국제사회의 협약을 준수 하는 뜻에서도 당연하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지난해 9월 3백63점의 리디아 보물을 터키에 반환 했다. 고분에서 불법발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돼야 한다며 터키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한 때문이다. 이렇게 작년 한해동안 미국법원은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5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산국 返還 판결을 내렸다. 현재도 그런 소송은 10건 이상 계류돼있다. 이런 상황은 모든 문화재 산출국

에 朗報일밖에 없다.

제국주의가 발호하던 시대에 약탈된 엄청난 문화유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訪韓때 우리 古文書를 반환 약속하고 그중 한권을 가져왔다. 그런데 프랑스 일각에서 무리한 반발이 일고 있다니 우리로서 좌시할수만 없게 됐다. 프랑스가 1866년 우리나라로 부터 불법으로 빼앗아간 우리 文化財들은 그들의 戰利品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품이라는 것이다. 빼앗긴 우리 물건을 도로 찾아오는 것이야말로 「원칙」의 문제인 것이다. 약탈해간 물건들은 반환하는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빨리 프랑스와 반환협상을 시작해 우리것을 마땅히 돌려 받아야 한다. 「원칙」이 문제이며, 약탈해간 일본, 영국등에 대해서도 반환협상이나 소송이라도 해서 우리것을 돌려 받아야만 저승에 계신 黎堂의 空虛한 설음을 메우게 될 것이다.

黎堂은 한국 現代史의 考古學者로서 獨逸文學博士로서 또는 사회적 공적은 차치 하더라도 자연과 人生을 明鏡止水처럼 관조, 청빈한 刻苦의 삶의 귀감으로 그는 우리시대의 全人的 삶을 살다간 德人이라 하겠다.

### 3. 天職지킨 中央박물관의 산 歷史

金박사는 45년부터 70년 정년 퇴임까지 25년간 국립중앙박물관장직을 맡아 광복후 불모지인 우리나라 考古學을 개척 했다. 그는 일본으로 쫓겨가는 日人學者 有光教一을 붙잡아 우리나라 최초의 유적발굴인 경주 壺杆塚(호우총)을 발굴했다. 또 역사학



연구에 고고학적 접근 방법을 첫원용 『檀君神話의 新研究』란 논문을 내놓아 사학계에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그는 박물관장 재직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후진양성에 힘을 쏟아 지금은 고고학계의 대가가된 金元龍씨를 美 뉴욕대학원에 보내 학위를 받도록 했고 미술 분야의 젊은 연구생 元輝濬教授(서울대고고미술사학과)가 록펠로재단 지원으로 美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도움이다.

그는 中央박물관장 재직시 「발굴은 파괴이므로 되도록 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원칙을 고수, 유적보존을 위해 불가피 했던 긴급 발굴 이외에는 가능한한 손을 대지 않았다.

天職이란 말이 있다. 누가 뭐래도 자기가 맡은 일을 타고난 직분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하는 것을 말한다.

金박사는 승진도 좌천도 없이 국립박물관장 자리를 꼬박 24년 5개월을 지킨 분이다. 그것도 사회가 안정되고 조용했던 시절이 아니었다. 광복후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 6·25전란의 와중에서도 그는 귀중한 文化財를 지키며 그 자리를 고수 했다. 그는 언젠가 스스로를 가장 「무능한 기록」의 소유자라고 슬회한 일이 있었다. 당시 사무관도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長官을 거쳐갔지만 1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1급 공무원으로 끝마친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 말이다. 그러나 그의 「무능한 기록」을 아무도 탓하거나 얽잡아 보는 사람은 없다.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외길을 걸어온 그의 자기 직분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에 오히려 존경의 마음을 보냈을 뿐이다. 그게 바로 天職의 소중함이다.

6·25때 金박사가 국립박물관의 소장품들을 한점의 손실도 없이 고스란히 지킨 얘기는 유명하다.

당시 北韓 노동당 主席 직속기관인 「유물보존위원회」는 국립 박물관을 접수, 전황이 불리해지자 國寶級 등 중요문화재들을 平壤으로 실어나르려 했다. 그러나 金박사는 유물을 포장하는 껍적이 덜 되었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지연작전을 벌였다. 결국 北韓측은 돌연한 仁川상륙 작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유물들은 1·4후퇴 때 고스란히 釜山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그뿐아니라 金박사는 당시 開城박물관 소장품을 모두 釜山으로 옮겼다. 그때 그의 결단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박물관에서 그 많은 靑瓷유물을 대하기가 힘 들었을 것이다.

광복후 不毛地인 考古學系에 金박사가 끼친 업적은 이밖에도 많다. 최초로 우리 文化財의 해외전시를 마련 하는가 하면 前記한 바와 같이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유능한 젊은 학자들을 해외에 파견 연수 시키기도 했다.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간혹 독선적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러나 戰禍속에서 우리겨레의 文化遺産을 지킨 그 공로와 天職에의 신념을 일관한 그의 생애는 머리가 숙여진다.

#### 4. 景福宮 夜話

金박사가 중앙국립박물관장 재직시 회고록인 「景福宮夜話」가 지난 91년 출판되었다. 원래 「박물관신문」 4년에 걸쳐 연재 되었던 것인데 저자 자신이 序文까지 적어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生前에 미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뜬 후 저자의 뒤를 이어 우리 美術史를 전공한 長女金理那교수의 노력으로 저자가 別世한지 만 1년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저자는 해방 뒤에 자진하여 박물관장의 일을 맡았었다. 저자가 자신도 적고 있듯이 독일 박사학위의 명함을 내놓으면 보다 좋은 자리에서 영달도 하였을텐데 저자는 굳이 박물관장직을 택하여 정년퇴직할 때까지 약 25년간을 그 자리에서 봉직 하였다. 그러므로 이 관장 시절의 회고담은 그대로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인 셈이다. 당시 국립박물관은 우리나라 고고학과 미술사연구의 총 본산이다시피 하였으므로 이는 동시에 우리나라 考古學史, 美術史學史의 산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순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실 이책을 읽어 가노라면 저자가 아니면 전해주지 못했을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곧 알게된다.

박물관을 「접수하던 이야기, 경복궁 안에 美軍의 간이병사 건축에 반대하다가 견책장을 받은 이야기, 더구나 6·25의 전란 중에 우리의 文化財를 보호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 가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엮어 놓았다. 그밖에 우리 문화재의 海外전시에 관한 이야기도 상세히 적어 놓았다.

이 「景福宮夜話」는 바로 중앙박물관의 뒷 이야기들이며 그런 만큼 누구에게나 흥미를 끌게한다. 흔히 글은 그사람의 人品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 책을 읽어 가노라면 저자인 金載元박사를 대면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저자의 꾸밈없는 솔직한 이야기가 그러한 실감을 더 해 주는 것이다. 저자의 하고자하는 뜻을 명쾌하게 전하여 준다는 뜻에서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여 손을 놓기가 힘들게 된다.

저서는 「檀君神話의 新研究」 「壺杆塚과 銀鈴塚」 「韓國史」 등

이 있다.

## 5. 生寄死歸

黎堂 金載元 박사는 그의 말과 같이 해방후 독일박사학위의 명함을 내놓으면 좋은 자리에서 영달도 하였을텐데 그 출중한 능력으로 격변하는 사회상속에서 정치등 다른 길로의 유혹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80평생을 한결같이 한 자리를 지켜 「민족 문화의 발전과 수호」라는 天職을 고수한 것은 경외할만하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것은 잠깐동안 머물러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죽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淮南子』에 나오는 얘기다.

하루는 禹王이 江을 건너는데 배 밑에서 龍이 꿈틀거리려 사람들 은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에 禹王이 『生寄也 死歸也』라고 했다.

전기 「景福宮夜話」를 읽어 가노라면 저자인 金박사의 死生觀이 은연히 나타나 있는듯하다. 金박사가 他界하기 몇해 前부터 지팡이를 잡고 다니기에 지팡이 없이 못다니느냐고 했더니 「人生은 왔다 가는것 空手來空手去는 만고의 진리이다. 그래도 지팡이라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겨레를 위해 무엇인가 노력하여 보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불편하고 가난속에서도 威高同窓會를 맡어 동창회지를 발간하여 會員들의 회고담을 실어 상호간의 情懷를 새롭게 하였다.

## 6. 생각하는 사람

파리 로댕 미술관의 정원에 있는 조각 「생각하는 사람」앞에서면 마음이 숙연해 진다. 예술가의 魂에 압도당함인가. 마치 종교행사에라도 참석한듯 경건한 느낌을 받는다. 예술과 철학과 신앙이 하나로 응결된것 같은 심오한 감동으로 떨린다.

「생각하는 사람」엔 혼이 있고 그래서 고뇌가 있다. 思考가 없는 삶은 다른 생물과 다를바 없다. 생각이 없으면 고뇌도 없는 법이다. 고뇌 없이는 삶의 가치는 별것 아니다. 삶이란 결국 생각하며 행동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는 연속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는 철학의 진리이면서 인생의 깊은 뜻을 함축한 것이다.

## 7. 그렇게도 우리 문화재 보존을 걱정 하더니

金박사가 他界하기 몇해 前 世宗文化회관에서 전시된 以北 5道 서예전에 필자와 동참하고 귀로 광화문 앞을 함께 지난일이 있었다.

『6백년 서울의 얼굴이자 수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누구 하나 말하는 이가 없다. 그런데 문화유산을 복원한답시고 적지 않은 국고를 낭비하면서 광화문을 모래와 시멘트를 반죽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단청을 발라 놓았다. 마땅히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문이며 다락이며 처마를 옛 건축 양식으로 짓는것이 복원일진대 어찌 콘크리트로 서울의 얼굴을 망쳐 놓을 수 있는가...』라고 개탄하던 金박사의 말이 아직도 나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1395년(태조 4년)에 경복궁의 正門으로 세운것을 세종때 光化門으로 고쳤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864년에 대원군이

복원 했다.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면서 동쪽에 옮겨 지었다가 6·25전쟁으로 다시 파괴된 것을 1968년에 제자리에 다시 세운 것이다.

우리 국권의 상징인 경복궁 정전을 가리고 세워진 日本 침략의 상징. 구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는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줄 안다. 건물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기 시작하여 광복에 이르는 70년동안 日本 군국주의의 침략과 학살과 수탈과 수모의 고통을 상징할 유일한 사적이 바로 그 건물이기 때문이다. 의병 참살로부터 위안부 만행에 이르기까지 그 침략 물증을 보존할 침략박물관으로서 어딘가에 옮겨져 불망의 동산 구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金박사는 구 총독부 청사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옮겨져 없애지 않는것이 역사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고 말 하였다. 歷史가 헐리고 지워져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박물관 이전때 문화재는 멀쩡할까

한번 헐리고 나면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건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사가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며 역사를 모르는 민족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마냥 지워나가고 있다. 恥辱의 상징으로라도 구 총독부 청사는 철거 하더라도 옮겨 놓아야 한다.

## 8. 人生은 왔다 가는 것

80여 평생을 考古學人生으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해 생각하고 걱정하다 가시였네.

1990년 4월 12일 새벽 여의도 자택에서 82세를 일기로 考終

命 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고 하던 이 시대의 철인.

오늘이 그가 간지 어느새 만 4년.

부디 永生하시어 굽어 살피소서.

삼가 다시 한번 冥福을 비옵나이다.

甲戌年 一九九四年 四月 十二日

望白(만 90歲) 辯護士 姜 錫 福



## 日本軍隊에서 體驗한 氣合들(其二) 훈도시 檢査



金 澄 次(15回)

나는 早稻田大學 在學中 學兵으로서 廣島西部 第七部隊(工兵隊)에 1944年 1月 20日에 韓國學兵 13名이 入隊한 것은 前號에서 說明하였다. 우리들보다 一箇月前에 入隊한 日本學兵의 內務班에 韓國學兵은 一名式 分散配置되어서 嚴格한 初年兵教育을 받게 되었다.

前號에서 빵 한개 때문에 夜間戰鬪訓練에서 돌아온 日本學兵들이 全員 上等兵에게 빵을 얻어맞는 氣合을 받은것을 記錄하였다. 此號에서는 훈도시 檢査받은 것에 對하여 쓸여고 한다. 日本軍隊에서는 三個月間의 初年兵生活에서 每日 日夕點呼後 一品檢査를 받게 되어 있다. 自己가 가지고 있는 軍隊用品 銃, 帶劍, 배낭, 軍靴, 衣類 심지어 金錢出納簿까지 一品을 檢査받게 되니, 每日 긴장한 마음으로 檢査받을 準備를 하여야 되었다.

특히 우리는 韓國學兵이었음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韓國人을 욕되게 하므로 日本學兵들보다 더 긴장한 마음으로 一品檢査에 臨하여야 했다. 入隊後 一箇月半쯤 지났을 어느날이었다. 그날 저녁에는 一品檢査로서 훈도시檢査를 받게되었다. 初年兵들은 모두 어리둥절하였다.



軍曹인 內務班長은 「全員 차렷. 軍衣袴와 襦袢袴下를 벗으라」라고 命令하였다. 軍衣袴는 軍服의 上衣와 즈봉을 말하며, 襦袢袴下는 內服의 上下衣를 말한다. 그러하니 알몸에 훈도시만 차고서 쪽 늘어서 있는 꼴은 實로 可觀이었다. 훈도시를 차고 不動姿勢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內務班長과 上等兵은 앞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훈도시가 깨끗한지를 철저하게 檢査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중에서 京都帝大 出身의 加藤라는 日本學兵이 걸려들었다. 加藤는 內性的인 學兵이었다. 그의 훈도시가 多少 깨끗하지 못하였던 모양이었다. 「이거 언제 洗濯 했지?」 上等兵이 그에게 추궁했다. 그는 얼굴이 온통 새빨개진채 한참 우물우물 하더니 「어제 洗濯하였습니다。」라고 간신히 對答했다. 다음순간 上等兵은 그의 뺨을 때렸다. 上等兵은 怒氣뽀 音聲으로 소리를 질렀다. 「어제 洗濯했다는 훈도시가 이렇게 不潔한가? 正直하게 말하라」 加藤은 「實은 그저께 洗濯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上氣뽀 얼굴로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렸다. 上等兵은 「왜 처음부터 正直하게 말아니하였는가?」라고 말하면서 거칠게 외쳤다.

「옛날 武士들은 갑자기 죽었을때 萬一 그의 훈도시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는 武士로서의 몸가짐이 틀렸다고하여 그는 武士로서 取扱을 받지 못하였다. 저들은 언제나 武人의 마음가짐으로서 보이지 아니한 곳을 더 깨끗이 함으로서 만약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말을 듣지 않으려고 努力하였던 것이다. 너희들은 오늘의 武士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그꼴이나? 당장에 그 훈도시를 벗어들었!」라고 命令했다.

그는 숙였던 머리를 쳐들고는 이 맹랑한 命令에 얼떨떨한 表情을 지었다. 「훈도시를 벗으란 말이야! 여기는 男子의 世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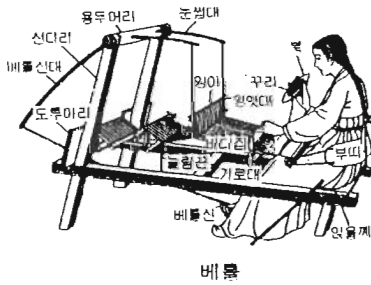
벗어도 부끄러울것 없다。」上等兵은 눈알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이렇게 되고보니 그도 어쩔수없는 노릇이었다. 命命一下에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만하는 판국에 그까지 혼도시쯤이야 어찌 벗지 않겠다고 고집할수가 있으랴. 그는 얼굴이 붉어진채 허리를 굽히고 몸을 꾸물거리면서 혼도시를 벗어 들었다. 그는 이제 完全히 알몸이 된 것이다. 實로 민망한 노릇이었다. 「네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라!」上等兵이 다시 命命하였다. 그는 발가벗고 선채 그 시늉을 해 보였다. 「냄새가 나는가?」「네, 냄새가 납니다」「좀 더 큰소리로 대답하지 못 하겠나?」 그는 영 죽은상을 하고는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예, 냄새가 납니다!」

上等兵은 다시 命命하기를 그 문제의 혼도시를 두손으로 높이 받혀들고 같은 內務班의 30餘戰友들 하나하나앞에 가서 보이면서 「나는 이 혼도시를 그저께 세탁했습니다. 깨끗하지요?」라고 큰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였다. 이쯤되니까 우리들까지도 고역이 아닐수가 없었다. 사실 그 혼도시는 깨끗하지가 못했다. 그런데 그런것을 바로 코앞에다 불쑥내밀고는 「나는 이혼도시를 그저께 세탁했습니다. 깨끗하지요?」라는 戰友의 告白을 받아야하니 當事者못지않게 괴로운 일이었다.

거기다 上等兵은 조금도 事情을 봐 주는게 없었기 때문에 예의 그 戰友가 조금이라도 힘없는 소리를 낼때는 다시 되풀이하여 시키곤 했다. 「그래도 音聲이 적어 더 큰소리로 해, 그따위로하면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다시 시킬테니까」하고 上等兵은 마구 호통을 쳤다. 그러면 그 학생은 더 큰소리로 다시 되풀이해야만 되었다. 그것이 軍隊였다.

나는 生覺해 보았다. 萬一 저初年兵의 父母가 지금 저場面을

보았다면 얼마나 마음아파 할 것인가? 아무리軍隊라고해도 이것은 너무나甚한 敎育이라고 생각하지아니할 수가 없었다.



◎人生은 意味을 갖는다. 그 意味를 찾는 것이 나의 唯一한 즐거움(듀란트)

## 金熙春君을 哀悼함



(在美)金子勳(15回)

生者必滅이요 世事無常이라고 하지만 올해(93年)처럼 얼마남지 않은 同門들이 연이어 작고한 해도 없어요. 이곳 美國에서 또 韓國에서, 모두 70~80歲였어요. 모든 故人들을 哀悼하는 마음 한결같사오나 나는 아침에 서울에 나가 있는 金滢次兄께서 金熙春 서울工科大學 教授의 訃告를 傳해듣고 첫마디 「아차! 늦었구나, 熙春君 容恕하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咸興第一普通學校와 咸興高普 同期同窓임에 틀림없으나 熙春君은 키가 第一 작은 班이고, 나는 키가 第一 큰 班이어서 在學中에도 서로 알고 있을 뿐 아기자기 지낸일은 거의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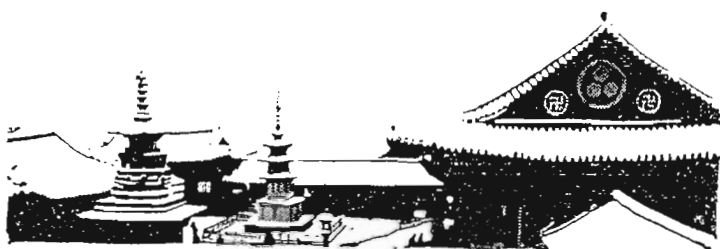
내가 서울醫大教授로 在職中에도 熙春君이 서울大學工大에서 꾸준히 研究하고 있는 消息을 늘 듣고 「本來 재기가 出衆한 작은 고추라서 참으로 훌륭한 發展을 하고 있구나!」 마음 튼튼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던중 서울大學總長의 첫 選舉를 앞두고 처음으로 서울大學 全體教授會가 열렸어요. 거기에 熙春君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반가히 만나 악수하고보니 그는 如前한 童顏에 그 독특한 미소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나를 서울醫大의 대의원으로 천거하면서 「나는 金兄박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였고. 그 素朴한 好意와 親切이 고마워서 나는 몇번이고 感謝하였고. 이때는 大學生 大多數는 勿論 教授들까지도 左傾한 時期였고, 우리 서울醫大에도 咸興高 普後輩가 있었으나 左傾이 아주 甚한 사람이여서 先輩를 핏뜯는 것을 일삼고, 相互不信의 참으로 不幸한 時代였어요. 게다가 나는 先輩 李東沂 博士와 함께 對共鬪爭의 한 旗手였기에 사람을 함부로 믿을 수 없는 環境속에서 熙春君의 純粹한 마음을 보았고 또 感動하였습니다.

以來 나는 「같은 사투리 쓰는 兄弟요, 小中學校同窓이며, 그리고 같은 서울大學校教授인데 우리는 서로 보다 더 사랑하고, 더 協力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번 만나는 機會에는 술이나 한잔하면서 회포를 풀어보겠다」고 늘 生覺하고 있던 터인데 이 悲報입니다.

「이런 돌대가리! 너무나 늦게 깨달았구나. 이제 저승에 가서나 만나보세». 나는 오래도록 自責하고 또 汗탄하였고. 그리고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20回

- ◎ L.A.事件 回想 ..... 崔 閏 煥(20回)
  - ◎ 명주수건과 할미꽃 ..... 이 기 형(20回)
  - ◎ 調型主義예술의 선언 ..... 金 興 洙(20回)
- 경랑속을 헤쳐온 나의예술



## 第 19 回 卒業式의 追憶

(孫基楨選手 日章旗 抹消 寫眞 事件을 回顧하면서)

(1)



### 朱 權 源(19回)

우리들 第19回 卒業式은 1937年 3月 6日(?)에 거행된 것으로 記憶된다. 그날 卒業式은 大講堂에서 順序에 따라 進行되었고 卒業狀을 各自에게 分配하는 때에 川田體育教官이 급하게 나를 나오라고 하더니 엄숙하게 怒氣에 찬 表情으로 卒業앨범 內容을 아느냐고 호되게 묻는다.

즉 孫基楨 選手의 올림픽 마라톤 制霸의 日章旗抹消寫眞이 우리 앨범의 첫 페이지에 게재된 事實이었다. 그때 내가 呼出된 것은 5學年甲組의 級長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內容을 손혀 모르고 지낸것도 事實이다. 여하간 卒業寫眞을 配布하기 直前이어서 內心 多幸이라 생각하고 配布를 保留시키고 川田教官 에게 갔다. 나는 이 時期에 잘 收給못하면 큰 不幸을 招來할 것 이라 걱정하면서 川田教官에게 잠시 다녀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부리나케 大竹配屬將校(陸軍小佐)에게 달려갔다. 昨年봄 滿洲修學旅行時의 大冒險劇(咸高同窓會誌 第1卷 게재)에 이은 危機였 다고 直感하게 되었다.

昨年 大竹教官이 解決해 준 그 넓은 雅量으로 다시한번 善處 하여 주실것을 간청하면서 始終 事實을 告白하였다.

이 當時 學校의 분위기는 今年卒業生인 우리 級友들이 上級 學校에 많이 合格하여 學校의 名譽를 회복해 줄 수 있는 機會라고 크게 期待하고 있는 때라 내가 大竹教官에게 善處를 빌고 있으니 事件을 擴大하지 않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쉽게 妥協이 이루어졌다. 즉 日章旗抹消寫眞을 除去하고 앨범을 配布하면 눈감겠다는 確約을 받았다.

나는 즉시 川田教官에게 달려가 이 事實을 告하니 川田先生도 내키지는 않은 듯 하였으나 승락하게 되어 앨범의 그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고 配布하였던 것이다.

정말 危機一髮의 어려운 事件을 解決한바 지금 생각하여도 아찔하기만 하다.

이때 이 問題를 擴大解釋하였더라면 큰 問題가 야기되었을 것이다. 나와 大竹教官의 妥協으로 圓滿히 解決된 바, 지금 생각해도 흐뭇하다. 우리 時代의 高普 5年生이면 成人들이었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卒業狀과 앨범을 든 全員이 누군가의 先唱으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게 이르니, 先生任들은 講堂에서 조용히 散會하기만 焦燥하게 기다리다 學生들이 三三五五散會하니 큰시름을 놓은 듯 安心하는 表情들이었다. 講堂은 道廳과 얼마되지 않은 거리에 있어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나는 川田先生과 大竹教官에게 作別人事를 나누고 雲興里 伯祖父 집에서 딴 곳으로 隱身하다 3月 15日 부티의 京城帝大 豫科 入學 試驗을 위해 上京하였다.

이때 이 卒業式 後의 處事가 圓滿하게 끝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受驗次 上京도 어려웠으리라 생각하면 몸이 떨리기도 한다.

그 時代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卒業班 大學生들 보



다 더 어른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咸興高普 萬歲!

1994. 2. 24



여름의 백두산

# 天 池

(2)

白頭山 天池 絶對美를 어떻게 說明하고, 形容할 수 있을까, 天池가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2,700m 넘는 高山 山頂에 있으리라고 想像하기 어려우며 그 水深이 보통 200m이고 가장 깊은 곳은 300m 넘으며 둘레가 16km나 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우리가 山頂에 오르려 하니 금세 그치고 한점의 구름도 없이, 또 물안개도 떠오르지 않은, 完全한 제모습을 드러내니 나혼자 보기는 아깝다는 感歎을 누를 수가 없었다.

天池의 濃紺色의 그 푸르름, 하나하나의 神奇한 바위, 天池 건너 보이는 北韓側 산봉오리, 모두 놓여있어야 할 곳에 놓여있고, 솟아 있어야 할 곳에 솟아있으니, 自然의 造化美에 驚歎할 뿐이다. 平生 가장 感激的인 瞬間이었다고 告白하지 않을 수 없다.

金剛山의 여러모습, 世界各國의 名勝地를 많이 보았으나 天池를 본 感動은 어느것과도 比較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가기 쉬운곳이 아니기에 한층 더 매력이 있는 것일까.

〈1991년 8월 19일 17:00경〉

## L.A.事件 回想



(在日本) 崔 閔 煥(20회)

L.A.暴動이 韓國人街에 集中되었다는 報道가 우리들을 驚愕케 하였지만 한편, 왜 그것이 韓國人街에 集中되었는지는 別로 納得이 갈만한 說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다.

美國에는 世界各國의 移民街가 있다. 그리고 아시아系가 많은 L.A.의 경우 만 하더라도 왜 中國人街나 日本人街가 아니라 유난히도 韓國人街만이 集中的으로 襲擊을 당했을까.

어떤 新聞에서는 黑人과 白人과의 抗爭의 불똥을 偶然히도 韓國人街에서 받았다 던가, 또 다른 新聞에서는 韓國系移民의 成功이 黑人들의 反感을 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等의 記事가 發見되지만 이것들은 매우 皮相的인 見解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八年前, 訪美했을 때 當時 美國住在 三十年 以上 되는 畏友 金氏의 體驗談을 中心으로 若干의 考察을 加해볼려고 생각한다.

一九八四年 여름, 小生은 用務가 있어 美國을 訪問하게 되었다. 그때 前부터 懸案이었던 大學時節의 畏友, 金舜敬氏를 찾아볼 것도 計劃하고 實際로 뉴욕에서 電鐵로 約 三時間 距離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金氏宅을 訪問하였다. 金氏는 거기에서 大學教授職에 있었고 專攻은 理論化學이며 그 當時는 主로 量子化

學, 特히 群論과 量子力學의 研究에 沒頭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金氏宅은 필라델피아 郊外의 아름다운 住宅街에 있었고, 綠色 짙은 잔디와 散在한 樹木이 서 있는 완만한 丘陵地帶에 띠엄띠엄 點在한 희맑은 優雅한 住宅들과 그 사이를 貫通하는 아름다운 田園道路들은 童話의 挿話에 나오는듯한 아름다운 環境이 었다. 집은 主로 白色을 칠한 簡素한 집이 었지만 매우 合理的으로 便利하게 지어져 있었고 壁에는 金氏婦人이 趣味로 그린 그림들이 여기저기 걸려져 있어서 金氏는 이집에서 充分히 幸福한 學究生活을 보내고 있다고 確信하고 친구로서 더없이 기뻐다. 밤에는 三更이 지나도록 快適한 金氏의 書齋에서 金氏의 最近의 研究에 關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낮에는 金氏와 캠퍼스(大學)의 研究室을 찾아보는 등 즐거운 時間을 보낸 일 들은 지금도 그림계 想起된다.

돌아오는 날이 되어 金氏夫婦는 매우 眞摯한 態度로 천천히 作別의 人事를 해주었다. 우선 金氏는 나에게 向해서 「貴兄이 우리와 함께 필라델피아에 滯留하는 동안 한번도 人種差別의 이거나 黑人 非難的인 言動을 하지 않은 것을 感謝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나는 이 金氏의 말에 매우 놀랐다. 나는 金氏家庭이 이와같은 일에 대하여 이토록 敏感한 霧圍氣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兼하여 말하자면 金氏도 나도 크리스트敎徒이지만 특히 金氏는 가장 嚴格하다고 하는 카도릭 敎徒이다. 金氏는 말했다. 얼마前에 韓國에서 高名한 神父가 訪問해 왔을때 여러가지 談話中에 나오는 말이, 旅行中 航空機에 탔는데 옆쪽에 웬 검은(黑人的 蔑稱)이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神父는 心中에 嫌惡感을 禁할길 없어서 旅行中 不愉快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 하더라는 것이다. 金氏는 內心, 왜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神父조차도 그와같은 基督教의 基礎的精神에도 違背되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奇異하게 느꼈다고 말 하였다.

어느때 였다고 金氏는 말을 계속하였다. 金氏는 教會(韓國카톨릭教會)에서 教會員들과 談笑하는 時間을 가진 일이 있었는데 때마침 金氏는 大學教授室의 秘書에 對한 이야기가 나와서 金氏는 그 秘書가 젊은 黑人女性인데 매우 賢明하여 일도 能率 있게 잘 하고 있어서 보건대 매우 귀여운 아가씨라고 말하였더니, 갑자기 一同에게 不快感을 사게되어 「金先生은 언제부터 그와같이 黑人派가 되었는가?」라고 反問을 받아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다. 나는 金氏에게 그때 어떻게 應答하였는지를 물었더니 衆寡不敵으로 결국 沈默을 지키는 수 밖에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金氏는 回想해 말했다. 韓國戰爭을 契機로 韓國人은 戰爭避難民의 資格으로 多數가 美國으로 移住하여 왔다. L.A.를 中心으로 해서 西部로 가장 많이 移住해온 것 같은데 東部에도 多數가 移住해 왔다. 移住民들은 最初에는 돈도 職業도 없이 매우 困境에 빠지게 되어 일자리를 求할려고 白人의 社會에 들어 갔으나 白人들은 金錢에 對해서 매우 細密하고 빈틈이 없기 때문에 避難民들은 要望을 채울만한 收入은 올릴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黑人들의 社會에 들어 갔다. 黑人들은 큰 雅量으로 그들에게 同情하고 協力하여 함께 일하며 도와 주어 收入도 所要에 다올 만큼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韓國人들은 勤勉하게 일하고 漸次 社會的基盤도 쌓을 수 있게 되어 一應 自立하는 사람들도 많게 되더니 이번엔 지금까지 協力해준 黑人들을 嫌惡하며 검둥이 라고 불러대며 差別하게 되었다. 黑人들도 漸次 이와같은 韓國人들의 變心을 알아차리고 또 검둥이가 自己들의 蔑稱이라는 것도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黑人과 韓國人과의 些少한 抗爭이 頻發하게 되었고, 黑人에 의한 韓國人 毆打事件까지도 이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다고 말하였다. 金氏는 이와같은 黑人들의 韓國人에 對한 反感이 큰 事件으로 번질 可能性을 指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L.A. 사건은 그 한 例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더우기 黑人에 對해서 있어서는 안될 일은, 近來 美國에 있어서의 有色人種에 對하여 보는 눈이 지난날과 매우 달라진 點이다. 卽 많은 곳에서 白人과 거의 같은 待遇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偉大한 黑人指導者들의 獻身의 努力의 結果라는 事實을 記憶해야 한다고 金氏는 強調하고 있었다.

金氏는 다시 말을 繼續했다. 金氏는 故鄉이 北韓으로서 實兄과 그리고 일찍이 大學研究室에서 함께 研究하였던 親舊를 만나기 위해서 그 前해에 北京을 經由하여 北韓에 旅行다녀 왔다고 말하였다. 歸路에는 平壤에서 電鐵을 타고 北京으로 向하였는데 車中에서 偶然히도 中國人의 젊은 青年과 同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中國人은 金氏가 在美韓國人인 것을 알고서 꺼리낌없는 마음으로 自己身上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韓國에서 나서 韓國에서 자라고 韓國에서 教育받았습

니다. 卽 韓國은 나의 마음속의 故鄉입니다. 學校를 卒業할 때 다른 學友들과 같이 就職을 希望하였으나 다른 學友들은 모두 就職이 定하여 졌는데 나는 어느 職場에서도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中國人이기 때문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던 지 自己를 되놈(中國人의 蔑稱)이 라고 말하여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 었다. 이것만이 라면 또 모르되 그 위에 동자를 붙여서 동되놈이 라는 말 까지 頻繁히 들려 오므로 이제까지 愛着을 느꼈던 韓國人에 對하여 슬그머니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中國領事館에 相談하러 갔던바 領事는 그렇다면 祖國中國에 돌아가서 短期의 再教育을 받으면 어디엔가 就職이 될것이 라는 말에 지금 中國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라고.

中國에 居住하는 朝鮮族은 매우 優待받고 自治區를 가지고 北京政府의 要職이나 學者職等に 拔擢되어 있는데 北韓人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며 金氏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나오지 않더 라는 것이다.

韓國戰爭時 北韓이 火急할때 中國의 젊은 靑年들이 義勇軍으로서 총을 메고 많은 犧牲도 마다 아니하고 救援하러 달려 왔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더우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韓國은 文化의 거의 全部를 中國에서 배워 왔다. 다시말해서 中國은 옛 恩師이다. 되놈, 동되놈 등의 品位를 害치는 말 따위를 恩師의 後裔들에게 내뱉는 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 될수도 없는 일이다.

單只 他民族에 對해서 뿐만 아니다. 近者 韓國에 있어서는 조금 成功하여 蓄財나 한 사람이면 自己들은 兩班의 家系라고 自稱하며 虛勢를 부리며 남을 卑下해 보는 風潮가 있다는 報道도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다.

金氏는 當時로 美國住在 三〇年 以上이 되었지만 大學教授職의 休職期(數年마다 約一年間)는 英國이나 유럽 및 中東, 이스라엘 등 各國의 大學의 客員教授로 여러나라에 居住했던 일들을 들려 주었다. 그리고 結論으로서 世界第一로 人種差別感이 甚한 民族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韓民族 卽 朝鮮民族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새삼 또 하나 世界第一 忘恩的 民族이 아닌가 하고 危懼心을 가졌던 것이다.

L.A.暴動과 類似한 事件을 豫想하며 念慮하던 韓國의 良心, 金畏友에 對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脫帽의 敬意를 表하면서 人間이 差別心을 품는 것은 人間이 人間을 侮辱하는 것이오, 그것은 또 自己 自身을 侮辱하는 일임을 強調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 글은 母校를 卒業하고 日本에서 學業(醫學)을 마친 後 지금까지 在 日僑民으로 있는 崔博士께서 同窓會消息을 듣고 激勵의 인사(우리말)와 함께 本人의 便宜上 日語로 寄稿한 글을 同窓들의 對日 情緒를 감안하여 우리말로 번역하여 掲載한 것임을 添記함. 編輯者註)





# 명주수건과 할미꽃

## 이 기 형(20回)

가물가물, 무명실오라기 같은 가느다란 기억입니다.

아차 빼딱하면 꿇길 것 같은 기억의 실오라기입니다.

흙벽에 노끈 칸 방에서 어머니는 친구분과 쓱쓱 삼을 삼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등 뒤에서

나는 파리와 놀고 있었습니다.

몇 살 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흘끗흘끗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의 눈에는 물방울이 고여 있었습니다.

더 커서 더 똑똑히 들은 기억입니다만,

아버님은 제가 나서 열석달만에 세상을 뜨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묘소를 웃고란 공동묘지에서 정개골 선산으로 옮긴다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졸랑졸랑 긴 골안 돌길을 걸어서 공동묘지란 델 갔습니다.

주재소 순사가 알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무덤을 다 파헤치고 관을 들어내더군요

높은 가지에서는 까옥까옥 까마귀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서 아버님을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인 단 한번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그 모습—

평 구멍이 두 개 뚫린 머릿통과 긴 다리뼈가 보였습니다.

내 눈은 그저 초롱초롱했습니다.

아버님의 높으심도 귀하심도 그리움도 통 몰랐습니다.

어머님의 눈은 흐려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께서 긴 명주수건 한 가닥을 치켜들었습니다.

계란 색깔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늘 쓰시던 목수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멀쩡했습니다.

새 관 속 아버님 곁에 다시 사려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집으로 갖고 가자고 조를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양지 바른 골짜기에 이장한 아버님 무덤은

비석은 없어도

푸른 때를 입혀

덩실하니 의젓했습니다.

나는 삼촌을 따라 나무 하러 갈 때나

큰비 뒤에도 아버님 산소를 찾았지요

추석 벌초에는 유독 정성을 들였습니다.

한식 추석 성묘는 빠지지 않았구요

봄이면 아버님 무덤 옆에는

할미꽃 두 세 포기나 하늘하늘 피어 있었습니다.

무심히 제 멧에 핀 꽃일 터입니다.

나는 그 할미꽃이 애닦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골짜기에서 푸드득 산땀이 날고

뼈꼭뼈꼭 뼈꼭새가 울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어언 60여년이 흘렀습니다.

조국의 허리는 잘려

남과 북은 반백년을 막힌 채로입니다.

올해 아흔셋 어머니는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요?

빠작빠작 가슴만 미어집니다.

이 아들도 어언 고희를 넘은 백발

그저 외마디 목소리

“어머님! 어머님!”

부르고 부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아버님 산소 옆에

또 한 포기 가너린 할미꽃마냥

백발을 풀어헤치고

오늘도 아들을 기다려

애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로

앉아계실 어머니의 가냘픈 모습을

하늘 저쪽 아득히 바라봅니다.

백발을 추스려 얼굴을 드실 기력도 없으시다구요?

어머님! 힘을 내세요

더 기다릴 수밖에 아, 딴 도리가 없잖아요

왜 한 무리는 통일을 가로막을까요?

왜 인간의 생명은 유한할까요?

무한하지 않구?

생명아 제발 무한해 주렴

그래야 나도 어머니를 만나지

그때—

어머님께 말씀을 올려

아버님 수건을 꺼내 받지 못한 것

새삼 후회막급이옵니다.

아버님의 체취가 스몄고 입김이 서렸고 손때 뵈

그 명주손수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 우리집 가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일 고향엘 간다면

제일 먼저 어머님을 찾고

다음엔 아버님 산소를 찾아갈 것입니다.

세월과 더불어 제 아무리 나무와 풀이 우거졌더라도

내 다리와 기억이 멀쩡한

아버님 산소는 억척으로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놈은 제 할머니와 할아버지 산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친척도 사연도 찾아낼 도리가 없겠지요

핏줄이 끊겨요!

뿌리가 잘려요!

급해, 하루가 급해요!

저 삼팔선은 끊어버려야!

분단벽을 무너뜨려야!

# 調型主義 예술의 선언

(1)



金興洙(20回)

음양의 철리는 상대성으로서의 절대치를 구명하는 것이다. 음이 있는 곳에 양이 있고 또한 양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음이 따라다닌다. 이것은 우주로 뒤덮인 삼라만상의 만고로 이어내린 원리이다.

또한 음양의 철학에 의하면 우주의 만물은 음과 양으로 구분된다. 예를들어 서와 북은 음이고 동과 남은 양이다. 또한 여女는 음으로 상징되고 남男은 양이며, 주관과 객관, 천과 지, 암과 명, 화와 북, 한과 온, 춘화와 추동, 청과적 등등 대조적인 모든 것들이 음과 양의 두 범주 속에 구분된다.

서로 상극인 듯이 보여지는 음과 양은 그러나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현상은 더욱 평화적이며 아름답고 멋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것은 언짢고 불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의 바램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스럽고 행복하며 희망적인 인생의 바탕은 바로 음양의 이상적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인생은 고통과 갈등, 그리고 절망 속에 놓여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 특히 우리 인생에 있어

서 이성의 동반없이 완벽한 행복과 미래를 바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 완벽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양과 조화, 내지 화합의 원리는 고귀한 예술작품으로서의 감동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양의 철리는 내가 조형주의 회화를 창안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힌트가 되고 있다.

50년대—그 때는 나의 20대의 후반에서부터 30대에 이르는 시기였다. 그리고 5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는 북위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분단된 채 한국전쟁이 한창이었고 그 때 나는 그 동란의 와중에서 전선을 전전하다가 임시수도 부산에서 피난 생활 중이었다. 당시 30대에 들어섰던 나는 2차 대전과 한국동란을 겪으며 약 10년간의 청춘을 허송하고 있었다. 더우기 동란이 끝날 무렵까지 거의 10년간을 세계의 화단과는 절연상태였다. 우리들은 미국에서 발간되는 주간지 TIME이나 또는 지금은 폐간이된 LIFE지 등을 통해 겨우 외국화단의 토막소식을 얻을 수가 있었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때 나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추상미술이 구라파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새로운 소식을 접한 것이다.

그 무렵까지 나는 오직 정직하게 사실주의적인 그림에 안주하고 있었으나, 점차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심한 갈등에 사로 잡혔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한국동란이 나에게 준 충격이며 전환의 계기였다.

한국전쟁은 남과 북의 병사들이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단순한 적대관계의 차원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서로가 혈통을 같이하는 형제 들임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역학관계의 제물로서 고귀한 인간성과 가족애·동포애가 이데올로기라는 허울좋은 탈을 쓴 무자비한 테러리즘에 의하여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 보라! 전선에서 마주친 형 또는 동생이 서로를 쓰지 않으면 자기자신이 죽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냉엄한 분단국의 현실을 단지 전투장면의 돌격전을 그대로 그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겠는가! 보다 다른 차원에서의 묵시적이고도 상징적인 표현방법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비극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방법과 양식의 모색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나에게 있어서 추상회화의 출현은 그 자체만으로 나의 흥미를 끄는 초점이 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새로운 양식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 있어서의 또 다른 비전을 찾아 나서서 누구보다도 먼저 확실한 입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것이 무엇일까? 르네상스 이후 프랑스에서 일어난 쿠르베의 사실주의회화는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세잔느 등의 후기인상파는 객관적인 사물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칸딘스키는 음악의 세계를 2차원의 화면에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화가가 되었다. 또한 살바도르 달리와 같은 모든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몽상적인 시의 세계를 극사실적인 수법으로 묘

사함으로써 주관을 객관적으로 객관화하였다. 따라서 만일 내가 주관적인 표현과 객관적인 표현을, 그리고 또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하나의 화면에 공존시킨다면 그것은 곧 이제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미술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기까지 거의 7년간을 아카데미한 교육만을 받아왔고 미술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약 10년간을 사실적인 기법을 그대로 고집해 왔던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기적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습성처럼 갖고 있던 나의 고식적인 예술관 때문에 나의 이러한 ‘새로운 느낌’을 작품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55년 2월부터 나는 폐허와도 같은 서울을 떠나 오랫동안 동경하던 파리에서 작가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파리에 오면서부터 파리화단에 체질적으로 동화하였다. 그것은 화풍에서라기보다 감각적인 면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 무렵부터 나의 화풍은 나의 체질속에서 구상으로 부터 반추상으로 조심스럽게 옮겨가고 있었다. 그것은 장차 구상과 추상을 하나의 화면에 공존시키는 방법의 모색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의 음양조형주의의 탐구는 73년 ‘음과 양’이라는 대작을 완성할 때까지 주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나의 그림이 완전한 추상에 도달하기를 화상으로부터 거부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나의 그림은 어느 쪽이나 하면 표현파에 속하는 그림이었다.

61년 한국에 돌아온 후 나의 그림은 화상의 간섭을 떠나 차



춤 모자이크 같은 수법을 도입하면서 더욱 더 추상화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완전한 추상은 아니었다.

무엇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을까? 급격한 변화는 혁명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때때로 작가 자신을 상실하고 세류에 아부하며 선두주자를 모방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나는 나의 화폭에 나 자신을 모색하고 거기서 묘출된 나의 혈통을 또다시 그 다음 작품에 주입시키며 새롭게 변하는 그러한 작화태도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그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미국의 모 예술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와 달라는 초청을 받고 67년 8월 나는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미국에서의 작가생활은 내가 조형주의 회화를 착안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이다.

70년대 당시의 세계화단은 60년대의 치열했던 구상과 추상의 대립적인 관계가 서서히 견히면서 개성적이고 창작적인 작품을 각자 추구하는 모습이 미국의 미술학도에게서 보이기 시작한 때였다. 그러나 기성화단의 추상파와 구상파 화가들은 그때까지도 서로 혈뜯고는 어울리지 않고 있었다. 73년, 대작 ‘음과 양’을 그리고 있을 무렵 어느날, 내가 가르치고 있던 미술학도들의 작품전시회에서 아주 극사실적인 작품과 추상작품이 나란히 진열 되어있는 것을 보는 순간 번개같이 나의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음양조형주의의 방법론의 발견이었다.

거의 20년을 두고 탐색해 온 조형주의는 바로 그날 밤 탄생을 보게 되었다.

화실로 돌아온 나는 이때까지 그려놓은 작품중에서 서로 별개의 화폭에 담은 추상과 구상의 작품을 끄집어 내어 나란히 놓아 보았다. 그러나 그대로의 그것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리가 없었으나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있어서도 작가들은 때로는 심각한 고민을 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한 점도 아니고 두 점 이상의 작품을 놓고 서로가 완전하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것은 요행이나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쌍의 작품을 따로따로 떼어놓기도 하고 또 다시 나란히 붙여놓기도 하면서 떼어놓은 상태보다 한쌍으로 나란히 놓은 것이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효과를 준다는 음양의 조화의 이치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질성에서 보다 두 이질성이 조화를 이룰때 그것은 더욱 감동적일 수 있으며 호소력도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그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인 것이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하여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77년 8월 Washington D. C.소재 IMF미술관에서의 나의 개인전을 앞두고 나는 77년 7월 7일을 기하여 나의 조형주의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조형주의 선언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선언문을 명문으로 번역해 주신 분은 미국 Philadelphia시 소재 UP(펜대학)의 북한문제의 권위자이신 이정식박사이며, 이것을 결정할 당시 언론인 신태민 박사의 도움이 컸음을 여기에 밝힌다.

내가 구태여 선언문을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긴것은 후일 누

가 나의 작품과 유사한 것을 제작하여 발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였다. 어쨌든 이 선언문의 덕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술평론가 피에르레스타니(Pierre Restany)씨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게 될 계기가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선적인 무아의 경지, 신비의 경지가 동양예술의 바탕이라면 고도로 세련된 감각의 순화가 구라파미술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미술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계산된 합리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의 이질문화가 나의 작품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77년의 IMF미술관의 조형주의 선언전은 당시 미국인들의 전적인 몰이해로 아무런 성과도 얻지는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발표전을 가졌다는 사실 그것으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후 미국화단에는 나의 작품과 유사한 작품들이 나와 활개를 치고 있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말이다.

79년 미국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진 나의 개인전도 젊은 미술학도들의 커다란 호응도에 비하면 기성세대의 반응은 역시 신통치 못했었다 그 후 10여년을 내려오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나의 조형주의 작품에 대한 호응도가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熱情의 畫家 金 興 洙 展에서

1994. 5.27~6.14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 격랑속을 헤쳐온 나의 예술

(2)

예술의 길은 뜨거운 여름날의 험난한 고갯길이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넘는 그 길은 가도가도 끝없는 외로운 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역사가 내게 가르쳐 준 절대적인 사명감 때문이었다.

청년기 내가 세상에 점점 눈 떠갈 때, 나의 눈에 비친 것은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문화나 예술이니 하는 낱말들은 아득히 먼 곳에서 아롱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문화의 황무지 바로 그것이었다. 물론 우리에게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반만년이라는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나 문화재에 대한 당시의 몰이해는 거의 미개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그때 난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 싹트기 시작한 나의 예술혼은 전선에서 조국을 지키는 전투병의 투혼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조국의 문화를 나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더 빛내 보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고 생명을 깎아 먹는 사투를 매일같이 벌이곤 했다. 당시 나는 몇가지 신조를 갖고 있었다. 백번 짝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평범한 진리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경쟁자가 많다 해도 일등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절대로 대충하지 않는다는 완벽주의적인 기질도 내 핏속엔 흐르고 있었다. 이것들에 나의 몸을 맡기며 불철주야 정성을 다하며 작

품을 가꾸어갔다.

예술이란 아름다움과 창조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더하여 작품 한점 한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색다른 감동을 주어야 하며 예술사의 새로운 장을 장식할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난 그것들을 나의 예술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 왔다.

작품 한 점이 이뤄질 때마다 나는 그 작품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를 치렀다. 그것은 새로 탄생하는 작품이 제작자인 나로 하여금 감동을 줄 때까지 제작을 계속하는 것. 나 자신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작품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작가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적은 지난 90년 파리 룩상부르미술관에서 있었던 나의 조형주의 작품 초대전 때였다. 오픈 때부터 밀려든 인파들 중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처음 본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곳이 세계 미술의 중심지 파리였는데도 말이다. 또 어느 관람자는 사인첩에다 ‘코리아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김수와 같은 미술의 천재가 있기 때문에...’라는 과분한 칭찬까지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몇시간이고 작품 앞에 앉아 감상에 여념이 없었으며, 몇번이고 다시 와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시회가 끝나는 날, 문을 닫을 시간이 넘었음에도 가지 않고 ‘오늘 끝나면 이 그림들을 언제 다시 볼 수 있느냐’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뒷걸음치며 나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나의 눈에 선하다. 예술가의 보람, 외롭고 고난에 찬 길을 걸어온 사람의 보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이 얘기는 결코 자화자찬만은 아니다. 많은 파리의 미술가들

이 나의 작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국내 평론가 중 한 분인 정병관씨도 ‘김홍수의 색채를 따를 사람은 없다. 보나르나 마티스가 있지만 그들은 우울한 색감인 반면 김홍수의 색감은 환희에 찬 감동을 준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평한 경지가 바로 내가 생각했던 예술의 종착점이었다.

나의 작품 중 60호 크기의 승무도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박물관의 마티스·피카소룸을 나서면 칸딘스키와 뷔페의 그림들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더 나은 것, 더 아름다운 것’ 그리고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추구해온 노력의 결실이라 자부한다. 러시아의 푸시킨미술관과 에르미타주박물관에서 초대전을 갖게 된 것은 앞서 말한 룩상부르미술관에서의 전시회와 계기가 되었다.

전시회가 시작되던 날, 사인 공세에서 겨우 해방되었을 때 장대와 같은 젊은 미남자가 다가오더니 자기는 유네스코 러시아 대표부의 알렉산드르 리프킨이라고 소개를 한 후 나의 하모니즘 철학이 고르바초프 전소련 대통령의 이념과 같으니 모스크바에서 전시회를 가질 수 없겠느냐고 제의했다.

그 후 한국의 함태영 유네스코 대사와 블라드미르 로메이코 유네스코 대사가 국가 차원에서 김홍수초대전을 푸시킨미술관에서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 다음해 가을, 러시아 문화성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나 전시회 개최는 그리 쉽지 않았다. 내가 모스크바의 푸시킨미술관의 이리나 안토노바 관장을 찾았을 때 안토노바 관장은 흥분된 어조로 내게 난색을 표했다.

“푸시킨미술관은 구라와 사람의 작품만을 전시하고 있으니 동양 사람들은 동양미술관에 가시오”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였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난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그렇소. 나는 분명히 동양 사람이요. 그러나 내 작품들은 국제성을 갖고 있소. 그렇기 때문에 동양미술관은 안되요.”

그러자 그녀는 다시, “푸시킨미술관은 살아있는 작가의 전시회는 하지 않습니다. 74년 꼭 한 번 야갈전이 열렸을 뿐입니다.”라며 ‘당신은 결단코 안된다는 것이였다. 나는 다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푸시킨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자는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이요 야갈과 같이 위대한 화가의 작품만을 전시하는 곳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요. 내 작품은 훌륭하오. 더욱이 나는 야갈이 해내지 못한 하모니즘을 창시한 사람이요. 당신들이 내 전시회를 1년 늦추면 그만큼 당신 나라 젊은 작가들이 손해본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라며 큰소리 쳤던 것이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난 생존작가로는 야갈에 이어 두번째로, 그리고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푸시킨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갖게 되었다. 93년 4월 28일. 개막일에는 약5백 명에 이르는 인파가 몰렸다. 미술관에서 30년을 일했다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많은 관람자를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내 그림이 진열된 중앙홀은 르느와르와 마티스의 작품이 걸려 있는 방 사이에 있었으며 보는 이들은 모두 나의 작품이 그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돋보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했다.

그날 저녁에 있었던 만찬회에서 러시아 예술가연맹 타이르사라코프 부주석은 축사에서, ‘김홍수 화백의 이번 전시회는 세계의 몇 안되는 정상급 화가 중에서도 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업을 달성했다'는 찬사를 보내주었다.

에르미타주박물관은 세계3대 박물관의 하나이다. 그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던 것도 내게는 빼놓을 수 없는 기억 중의 하나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 5천년전과 내 전시회를 그 박물관에 동시에 신청했는데, 박물관의 관장 스스로께서는 두 개의 전시회 가운데 나의 전시회를 선택해 주었던 것이다. 결국 나의 에르미타주박물관 전시회는 한국의 5천년 역사를 대변하는 격이 된 셈이다.

그때도 러시아의 수많은 신문들은 나의 작품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다. 특히 모스크바의 니자비시마야지는 '김홍수 화백은 현대 화단의 혜성이다'라고 격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하모니즘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까지는 너무도 긴 세월이 흘렀고 슬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나는 20대의 청년 화가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문화적인 식민지에서 탈출하고 우리의 것을 창조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 주역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다소 자만 섞인 자신감을 늘 지니고 있었다. 그 자신감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하모니즘이다.

세계 미술사의 흐름을 더듬어 볼 때 추상미술의 다음 단계는 주관적인 표현과 객관적인 표현인 구상이 한 작품에 공존하게 될 것이란 것을 이미 깨달았던 것이다. 그때가 50년대 초. 임시수도 부산에서 기거할 때였다. 그때부터 나는 긴 세월을 두고 한발한발 다가서며 결국 하모니즘에 정착하게 되었다. 나의 그림이 점점 더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나는 음과 양의 조화를 주장하는 동양철학에도 눈뜨게 됐다. 그때가 70년대 초기였으며 미국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였다. 그 후 77년 8월, 워싱턴 소재



IMF미술관에서 조형주의 작품 발표전을 앞두고 나는 77년 7월 7일을 기하여 조형주의(하모니즘)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하여 발표했다.

내가 구태여 선언문을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은 후일 누가 나의 작품과 유사한 것을 제작하여 발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였다. 그러나 77년의 조형주의 선언전은 당시의 미국인들에게는 이해되지 못했고, 따라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때 그 전시회를 가진 것만도 큰 의의가 있었다.

79년, 미국 전시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 덕수궁에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진 나의 개인전은 젊은 세대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기성세대나 화단의 거센 거부감은 요지부동이었다. ‘이것도 그림이냐’는 식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데이빗 샬레라는 젊은 작가가 81년에 내가 주창한 하모니즘과 똑같은 수법으로 한쪽에는 추상작품을, 그것도 내가 창안한 모티브와 똑같은 것을 사용, 발표함으로써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이 사실을 그의 작품이 실린 미국의 미술 잡지를 통해서 87년에야 알게 된 것이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실망 대신 ‘드디어 때가 왔구나’하는 희망감이 빠르게 스쳐갔다.

나는 나의 선언문이 들어 있는 화집과 그 데이빗 샬레의 그림이 실려 있는 책을 들고 현대미술관으로 갔다. 그러나 당시 미술관의 관장은 나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같은 시기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었다. 나의 77

년과 데이빗 샬레의 81년이 어찌하여 같은 시기란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 우리 화단의 현실이었다. 그렇지만 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86년에 있었던 한불수교 1백주년을 기념하는 서울·파리전에 나는 한국 작가로서 출품했는데, 바로 나를 지명한 사람이 저명한 미술 평론가 레스타니씨였다. 그 후 레스타니씨는 87년 여름 어느날 나의 화실에 찾아와서 나의 조형주의 선언문을 보더니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김수 선생! 이 작품들은 역사적인 작품들입니다. 절대로 팔지 마십시오. 이 작품들이 언젠가 당신을 유명하게 만들 것이요. 내가 파리미술관 전시를 주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의 하모니즘 작품들은 비로소 세계 화단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긴 세월과의 싸움이었다. 그 누구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 긴 세월을 두고 변절하지 않고 하모니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 그림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아내 수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없었던들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어찌면 좌절감에 빠져 용기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세계에다 선생님의 예술을 알려야 해요.”

“이때까지 노력해도 안되었는데...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소.”

이렇게 말하는 나에게 그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형주의 미술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타이르듯 몇번이고 되풀

이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게 되면 자기는 떠나겠노라 앞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나의 조형주의 작품과 유사한 데이빗 샬레의 작품이 실린 잡지를 사온 것도 아내 수였다. 그녀가 나의 그림을 그대로 모방한 데이빗 샬레의 그림을 발견한 것이다. 내가 하모니즘을 시작한 것이 74년경이었고 워싱턴에서 하모니즘 발표전을 한 해가 77년, 서울에서 화집을 찍은 것이 79년이었다는 것, 그리고 미국 동부지역에 그 화집을 뿌린 때가 80년, 데이빗 샬레가 그 작품들을 제작한 것은 81년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하모니즘의 창시자가 김홍수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준 사람이 다름아닌 수였던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수와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러시아 예르미타주박물관의 초대전시를 마친 후 수를 파리로 유학보냈다. 물론 이것은 지난해 텔레비전에서 시청자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그것을 실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는 5월 27일부터 19일간 나는 예술의 전당에서 1백 50점에 이르는 그간의 작품들을 모다 초대전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순회전을 가질 것이다. 내가 오래 전부터 꿈꾸며 계획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는 나의 예술 활동의 끝이 아니다. 출발점에 다시 서기 위한 결산일 뿐이다.

내게는 하모니즘을 온 세계에 알리는 큰 사업이 아직도 남아 있고 여전히 그 길의 험난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그 꿈이 실현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쉬즈(She's)

1994年 6月號에서

## ❖❖❖❖❖❖ 21. 22回 ❖❖❖❖❖❖

- ◎ 나의 故鄉 ..... 韓 喬 石(21回)
- ◎ 에이즈(AIDS)의심각성 ..... 朱 仁 鎬(21回)
- ◎ 우리 咸興高普(咸南中學) 蹴球部를 ... 金 禧 庚(22回)  
말해보면
- ◎ 先進國의 病理(Anomie) ..... 安 霖(22回)



## 나의 故鄉



韓 喬 石(21回)

故鄉이란 어떤 곳인가. 代代的 祖上이 묻혀 있고 父母兄弟와 一家親戚, 竹馬之友가 살고 있어 포근히 감싸 주는 곳, 山川도 이웃도 情답고 갖가지 追憶거리가 담겨 있어 언제나 그리운 곳, 이런 곳이야말로 무르익은 故鄉이리라.

그러나 自然도 社會도 곧잘 心術을 부려, 姜鏞訖의 鄉村은 洪水로 사나웠고, 事緣이 있어 Shakespeare는 鄉里를 등져야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맛갓잡은 故鄉, 억지 春香이 故鄉이며 地上地獄인 故鄉, 게다가 無故鄉이라는 故鄉마저 있다.

### 豐山이 나의 故鄉인가

나는 咸興 市外에서 태어나, 곧 安邊으로 옮겨갔다. 아버지가 自轉車로 다니신 郡廳 앞마당에 누나와 놀러 간 일, 낚시를 즐긴 兄을 따라 南大川?을 오르내린 일, 그 독에서 밤중에 호랑이가 송아지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친 일, 이 셋이 安邊살이 세 해의 總錄이다.

그 後 元山과 咸興에서 2, 3年씩 보내며 늘쌍 바라다녔는데, 어떤 아이들과 어떤 데에서 어떤 장난을 쳤는지는 도무지 감감하다. 오직, 어느 여름, 城川江이 말라붙어 한두 군데의 웅덩이

에서 小川魚가 필덕이던 珍景이 아직껏 눈에 선하다.

여덟 살 난 해 이른 봄, 어머니는 누나와 나를 데리고 威興을 떠나, 아버지가 먼저 가 자리를 잡으신 豐山으로 向하셨다. 豐山은 地名대로 山투성이 亞寒帶의 고을이다. 當時 全朝鮮 218? 郡 中, 郡廳 所在地가 가장 높아 千 數百 미터, 甲山과 北靑 두 郡의 一部씩을 떼어 新設한 고을로, 面積은 忠淸北道와 맞먹으나 人口는 고작 7萬, 郡廳이 있는 新豐里의 住民은 2千이었다. 이 곳에서 나는 꼬박 6年 지냈는데, 그 동안의 經歷은 또박또박 記憶하고 있다.

豐山에는 威興의 初여름에야 봄이 어정거리며 기어 오른다. 玲瓏한 종달새 노래가 陽春을 알리는 광파르, 나는 級友들과 종달새 등지를 찾으려고 해마다 덩불을 헤치며 헤매곤 하였다. 가시에 찢리기는 藥果, 毒蛇에 쏘일 뻔도 하였으나, 한두 번은 새끼를 잡아 냈다. 그 험벗고 虛弱한 놈을 精誠스레 키우면, 어느 사이엔가 깃털이 돋고 포동포동한 귀염둥이로 자라, 제법 主人을 따랐지만, 노래는 끝끝내 불러 주지 않았다. 암컷만이 걸려 들었나 보다.

그런데 나와는 雲泥之差의 秘訣로 꼬마 雲雀을 名唱으로 길러 낸 師匠이 있었다. 더욱이 어찌나 精巧로이 調教하였는지, 장에서 풀린 새가 中天으로 솟아올라 지지배배 부르다가 냉큼 제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所聞이 돌아 어느 日人이 사겠다고 나서자 千圓을 呼價하였다니 實로 氣가 찼다. 이 고장의 집한 채에 4, 5百圓이었다.

한 달인 봄이 가면 달포인 여름이 온다. 川獵에 安城맞춤의 時候다. 明太만한 자치가 貪이 났지만 잡기에는 力不足, 도루묵

크기의 팜팡어는 그런 대로 豐漁였다. 한낮의 이글거리는 太陽이 내리쬐어 달아 오른 옥돌에 올려 놓고 서너 번 뒤집어 설익힌 生鮮을 소금에 찍어 먹으면 季節의 別味로 遜色이 없었다.

溪谷의 涉歷에도 여름은 제철이어서, 심심하면 山허리의 골짜기까지 두리번거렸다. 마냥 따 먹은 곰딸기며 멥덕딸기, 머루며 다래, 따들죽(머루와 비슷하나 맛이 조금 신 들죽의 일종)의 佳味도 잊을 수 없다.

가을은 9월 한 달, 동기와(니와)에 넣어 말린 들죽은 乾葡萄를 뺀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다연(楊貴妃)씨가 군것질에는 斷然 으뜸 갔다. 卓球공 模樣의 軟綠色 열매에 數日 걸려 날카로운 칼날을 가볍게 돌려 진을 모조리 받아 내면, 滿身瘡痍가 된 껍질이 쭈글쭈글 바삭 말라 黑褐로 變色한다. 이 껍질을 찢고 털어 모은 좁쌀 같은 씨앗을 살짝 구워 먹으면 고소하기 짝이 없었다.

冬三은 3個月이기는커녕 長長 8個月, 零下 30度를 밑돌기도 하였다. 추위가 탈이었지 길이를 닳한 적은 없었다. 썰매 타기와 빙고 지치기가 신났기 때문이었다.

빙고는 한마디로 素朴한 스케이트다. 上部가 平面인 似而非나막신 바닥에 雙峰駱駝 꼴 類似 식칼의 두 봉우리를 박아 넣고 신의 兩側에 굵다란 못을 네다섯 3分の 2만큼 1列로 박아 세우면 스피드와 피겨 兼用의 完製品이 된다. 그 못에 끈을 걸어 발을 동여매고 어름을 지켰는데, 氷質이 워낙 단단하여 아무리 날을 세워도 일쭉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내 지쳐버렸다.

썰매는 마찬가지로 素朴한 1人用의 bob-sleigh였다. 하나, 終日 타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푸짐한 눈으로 폭신한 急傾斜 雪

面을 쓴살같이 滑降하는 氣分은 스릴 滿點이었다. 리프트가 없어 每番 用具를 메고 山등성이까지 썩썩거리며 걸어 올라가야 하여 성가시었을 뿐이었다.

이렇듯, 豊山의 6년이 나에게는 그리움에 사무치는 時節이다. 그러나 그 곳에 先祖의 墳墓가 없고 血緣도 없다. 벗도 아는 사람도 이제는 있을 리 없다. 아무튼 높은 山과 모진 추위, 厚한 人心과 착한 風習이 나에게 끼친 影響은 사뭇 크다.

### 咸興이 나의 故鄉인가

나는 解放 前에 7, 8年, 後에 5, 6年 咸興에서 살았다. 공교롭게 前期에도 後期에도 나에게 重大한 變故가 發生하였다.

咸興 高普에 들어간 지 열흘쯤 지난 어느 날, 같은 房에 下宿中인 L 先輩가 느닷없이 big news를 傳하여 주셨다. 「日本 第一의 소프라노 세키야 도시코가 왔으니 꼭 가서 들어라」는 것이었다. 卽刻 豫買所로 달려가, 선뜻 大金 3円을 내고 票를 한 장 샀다. 하루 세 끼에 한 달 下宿費가 8, 9円이었다.

公演開始에 훨씬 앞서, 텅텅 빈 公會堂에 홀로 入場하여 맨 앞 줄 한복판의 座席을 차지하여 놓고 은근히 意氣揚揚하였다. 한참만에 L 先輩가 찾아와 微笑를 짓고는 그냥 뒤쪽 窓가로 물러가셨다. 그는 脫帽에 變裝하고 계셨고, 나는 校帽와 普通學校 때의 洋服에 運動靴를 신고 있었다. 校服과 가죽 구두는 나중에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누구인가 나의 어깨를 툭툭 치며 帽子 正面의 「高」字를 確認하더니 「來日 아침 敎務室로 오너라」고 日本말로 命令하였다. 「하이」하고 나는 對答하였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지루히 기다리던 幕이 올랐다. 이어 새빨간 원피스 차림의 中年女性이 登場하였다. 작은 키, 통통한 몸, 얼굴은 곱지도 밍지도 않았다. 유달리 큰 두 눈이 유달리 印象的이었다.

드디어 피아노 伴奏, 뒤따라 깜짝 놀란 窸소리, 日本 女子의 목에서 窸소리가 나왔다. 窸소리만이 길디길이 울려 퍼졌다. 나는 넛을 잃은 채 舞臺 바로 밑 자리에서 始終 고개를 치켜들고 이 金屬性 連續聲을 傾聽하였다. 無我境을 아련히 스친 「가라타치노 하나가 사이타요」, 이 동강은 後日 이 노래를 川田 先生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永永 識闕下로 가라앉고 말았을 것이다.

이튿날 授業 前, 나는 天然스레 教務室로 들어갔다. 「너는 入學한 지 며칠 안돼 校則을 모른 것으로 認定한다. 앞으로 許可 없이 그런 곳에 가면 處罰하겠다. 注意하거라」 「‘하이」 따끔하였다. 訓放하신 분은 奥野德一 先生, 着帽가 潔白의 立證에 決定的이었다. 「누가 가라고 했나, 누구하고 갔나」고 물으셨다면 「L 先輩가 꼭 가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L 先輩는 나중에 오셨습니다」고 서슴없이 對答하였을 것이다.

以後 나는 校則을 대충 잘 지켰다. 咸興冷麵이나 호떡을 때때로 먹었고 아메리카 빵집에 가끔 들렀을 뿐이었다.

이 해프닝은 그 深層을 分析할 必要가 있다. L 先輩가 初動 段階에서 帽子를 쓰지 말고 가라거나, 犯行現場에서 帽子를 벗고 있으라고 일러 주셨더라면 어느 教示에든 그저 곧이곧대로 이 멍텅구리는 服從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脫帽로 들켰더라면 校則違反 構成要件이 充足되어 窸소리도 못 듣고 쫓겨 나와, 영락없이 1週間の 停學處分을 받았을 것이다.

L 先輩의 「네 帽子까지 알 게 뭐야」 德分에, 나는 學校 다니기 滿 16年 半 全皆勤의 大記錄을 樹立하였다. 德分인지 모를 德分도 있다. 난생 처음 소프라노를 듣고 혼난 以來 滿 60年, 音樂會는 勿論, 映畫館조차 敬遠하여 왔다. 그 結果 平生 觀覽한 映畫가 겨우 10篇 內外, 「시피오네」와 「明朗한 꽤거리」(蘇聯製)를 高普引率로, 「大地」와 「오케스트라의 少女」는 다음 學校에 가서 自由로이, 近者에 「바람 불어 좋은 날」, 「낮은 데로 임하소서」, 「무릎과 무릎 사이」(모두 李長鎬 監督)를 L 先輩의 懇曲한 勸誘로 鑑賞하였다.

後期の 變은 險하고도 길었다. 解放된 해 8月 나는 咸南民主 青年會를 結成하였다. 自由와 民主主義의 實現을 爲하여 組職한 地下團體로 會員은 約 3千名이었다. 나는 宣傳部長이었으나 綱領과 規約의 作成에서 祕密活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分野를 擔當하였고 거의 모든 計劃을 執行하였다.

그러나 戰術에 未熟하였기, 게·페·우의 奸計에 걸려 10月初, 大多數의 幹部가 逮捕되었다. 그 後 두 會員과 나는 咸興刑務所, 시베리아의 바로실로프 臨時監獄, 平壤刑務所, 다시 咸興刑務所에 갇혀 있다가, 1年 5日만에 풀렸다. 그 동안의 끔찍한 體驗은 月刊 「新東亞」 1967年 1, 2, 3月號의 「시베리아 幽囚記」에서 發表하였다.

千萬 뜻밖인 이 釋放의 要因으로 다음의 둘을 들 수 있다. 첫째는 拘束된 60餘名이 苛酷한 拷問에도 不拘하고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우리 便에 선 看手들을 通하여 全員の 調律이 可能하였다. 둘째는 붉은軍隊 進駐의 初期였다는 것이다. 占領軍은 當分間 宥和策을 썼다.

그 後의 4年余가 나에게는 더욱 峻嚴하였다. 感興醫大에 教授로 就職當한 나는 끊임없이 監視를 받았다. 나의 周圍에는 恒常스파이들이 붙어 있었다. 大學에서 宿直할 때 나는 學生들과 한 房에 있지 않았다. 졸다가 헛소리, 아니, 참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오면 萬事休矣, 잠꼬대로 加重處罰을 받은 青年을 바로실로프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南侵을 앞두고, 政治保衛部는 續續 反共人士들을 잡아들였다. 그들은 모두, 國軍이 入城하기 前에 無慘히 虐殺當하였다. 이 통에서 나는 살아 남았다. 이 때만큼 나의 온갖 智力을 부린 적은 前無後無하였다.

解放 前後의 咸興은 나에게 大略 이런 곳이었다. 거기에는 省墓할 山所가 없다. 버리고 온 父母가 安葬되셨을 리 萬無하다. 戚屬도 竹馬故友도 없다. 市內의 母校와 盤龍山과 萬歲橋, 市外의 本宮과 歸州寺가 이따금 떠오르지만 그다지 그림지는 않다.

### 서울이 나의 故鄉인가

나는 解放 前에 6年 서울에 있었고 休戰 直後부터 40年 남짓 서울에서 살고 있다. 6 더하기 40만도 46, 生涯의 半切을 10年이나 웃도니, 햇수로 치면 서울은 나의 故鄉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實相은 浬判이다. 나에게 서울을 咸興이나 豐山보다 더 故鄉답게 느낀 적이 한瞬間도 없었다.

나는 서울에서도 解放 前과 後에 酷毒히 當하였다. 1943年 初겨울은 몹시 추웠다. 날씨도 스산하였지만 僞裝 「學徒志願兵」云云의 날벼락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災難을 減食하고 斷食하여 決死的으로 克服하였다. 이 해 「朝光」(現<月刊朝

鮮>의 前身)의 送年號인가 이듬해 新年號엔가에 日本語로 時狀을 써 달라는 請託을 받고 詩의 形式으로 짚막이 지은 나의 글이 실렸다. 그 結句를 韓國語로 옮긴다.

「도파니 歷史는 矛盾을 푼다」

1961年은 5·16이 일어난 해다. 5月 末부터 長期間 어이없이 나는 留置場 신세를 졌다. 反共에서만은 둘째가 되라면 서러워 하여 온 내가 巨物 共產主義者로 烙印적혀 滿 21年 運身이 不自由스러웠다. 따라서 슬한 不利益이 따랐다. 就中, 한창 쓰던 글이 끝장 났다. 글짓기는 變함 없는 나의 所願이고 나의 글의 生命은 批判이다. 붓을 놓은 나는 날개를 잃은 수리가 되었다.

나는 아직껏 서울에 情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결같이 서울을 사랑하고 있다. 서울이 古雅한 現代都市로 成熟하기를 懇切히 祈願한다.

或者가 굳이 서울의 情다운 곳을 대라고 우기면 대 보겠다. 門안의 咸興麵屋 여남은이다. 이 冷麵을 먹다가 間間 咸鏡道 사투리가 들려 오면 저절로 興이 돋는다. 아마도 나의 故鄉은 咸興冷麵집인가 싶다. 그 집이 釜山에 있든 New York에 있든 相關없겠다.

(제가 數年間 받은 同窓들의 便紙에 漢字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漢字를 잔뜩 썼습니다. 諒解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4年 1月 3日

## 에이즈(AIDS)의 심각성



朱仁鎬(21回)

에이즈 즉 後天性 免疫欠乏症은 보균자와의 성접촉, 수혈을 통해서 감염된다.

이 병은 금세기 흑사병으로 세계적인 공포감을 불러일으킨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백신開發, 치료약 發見에도 아직 뚜렷한 서광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병균하고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으로 이 병의 感染經路는 밝혀졌다. 즉 保菌者와 성접촉, 수혈을 매개해서 전염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병의 發生地域이라고 일컫는 아프리카에서 1969~1985 장기간 열대병 퇴치사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에이즈 전염경로를 잘 살펴볼 수 있었다.

아래에 몇가지 중요 관심사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 1. 에이즈의 深刻性

병이 1980년초 중앙아프리카에서 유행하기 시작 中美 아이티, 북미 플로리다, 로스앤젤스, 뉴욕으로 번졌다. WHO를 비롯한 세계적인 방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촌에 만연하고 있다. 6년전부터 UN은 매년 12.1일을 에이즈 날로 정하여 홍보활

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대인은 에이즈를 임질, 매독과 같은 성병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1993년말 WHO에 따르면 세계 감염자수는 약 1,300만명에 이르고, 2000년까지는 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보다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속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만간 아시아에서의 보균자는 세계 전체환자의 절반이 넘을 것이라 한다.

한국에서의 처음환자는 1985년에 발견되었고, 지난 10년동안 310명의 보균자가 진단되었고 이 중 38명이 사망하였다. 5년전만 하더라도 태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약 50명 내외의 감염자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약 50만명의 감염자가 진단되어 당국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음으로 양으로 섹스관광을 장려하여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20만명의 태국 여행이 성행되는데 성병문제로 여론이 자자하다. 우리도 이 같은 일이 없는지 자성할 필요를 느낀다.

WHO 환자 추정방법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보균자의 약 10배나 되는 건강보균자가 그 사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균자란 보균자로 발병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잠복기에 있는 자를 칭한다.

WHO 계산방법에 따르면 국내 300명 보균자의 약 10배가 되는 3,000명의 잠복기 보균자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풀이가 된다. 앞으로 발병하기까지 약 10년간의 잠복기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보균자는 幾何級數로 폭발증가할 것이다.

병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미국에서는 연간

400조원의 경제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도 90년대 말이 되면 약 5만명의 감염자가 생겨 경제손실도 약 5조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사회적인 불안도 지대하다. 가정과 과 뿐만 아니라 外航船을 관리하는 해운업계, 해외 취업자를 관리하는 건설업계, 유흥가, 관광업계, 남녀가 밀집하는 工場地帶에 까지도 성병과 같이 에이즈 공포증이 감돌고 있다. 미국사회에서는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어디를 가거나 에이즈 희생자들이 있다. 결혼 상대방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결혼전 에이즈檢査가 강요당할지 모르겠다.

다음에 人口論적 견지에서 살펴 보자.

19세기초 malthus는 人口制限論에서 인구증가는 기아, 질병, 전쟁이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갈파했다.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으로 核戰爭, 環境汚染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에이즈를 꼽고 있는 사람이 많다.

에이즈는 섹스에너지하고 연결된다.

핵에너지하고 대칭되는 말로서 폭증하는 人口現象을 두고 하는 말이다. 地球는 하나뿐인데, 인구가 지금처럼 증가한다면 반드시 生態界 파괴와 더불어 인류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人口學者, 神學者들은 지구 수용능력에 맞추어 인구를 조절해 보려는 자연 형상일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물질주의, 행락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인에 대한 경각심이다. 하버드大學 모교수가 미국 上院公청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2010년에는 지구촌에이즈 감염자가 무려 10억에 달할 것이며,

그때 가서 지구 人口는 약 70억으로 증가된다. 우리 후손들 7명중 한 사람은 에이즈 보균자로 낙인이 찍혀질 것이다.

또 병의 심각성을 疫學的으로 해설해 보자. 에이즈는 20세기 흑사병으로 비유된다. 사실 흑사병은 4세기 중국 인도에서 발생, 순식간에 전유럽에 확산, 당시 유럽인구의 1/4이 흑사병으로 멸종되다시피 했다. 오늘처럼 치료약, 방역법이 개발되지 않았던 시대라 병에 걸렸다 하면 거의 사망했다. 병은 중세기에 일단 종식되었다. 오늘의 疫學者들은 흑사병이 종식된 원인으로 페스트菌을 매개하는 들쥐(野鼠類)가 모두 病死한 때문에 전염경로가 폐쇄되었다는 學說을 믿고 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에이즈병의 自然消滅을 생각해 본다면, 가공하게도 보균자인 人種이 멸종해야만 병이 자연 없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바로는 에이즈 保菌者는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방역의 효과적인 방법은 보균자와의 성접촉을 차단하는데에 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突然變異을 일으켜 無害한 菌種으로 전환될 것을 생각해 본다.

## 2. 에이즈 바이러스 特異性

병독은 Retrovirus라고 일컫는 매우 까다로운 종류에 속한다. 바이러스 細胞質 속에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가 들어 있어 효소작용으로 핵산의 RNA를 DNA로 바꾸어 무수한 遺傳形質을 발생시킨다.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 變異象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불안정한 抗原에 대응하는 백신개발이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유전공학 기술도입으로 노력중이나 난관이 많다.



역사적으로 1910년 록펠라연구소의 Rous박사가 처음 닭의 肉腫바이러스(Retrovirus)를 발견한 이래 금일까지 새, 소, 쥐, 고양이, 원숭이에서도 같은 종류의 병독을 분리했다. 지난 80년간 동물병의 백신개발에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에이즈 바이러스(HIV)는 다른 세균성 전염병과 달라서 抗原, 抗體가 체내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 감염, 잠복, 발병등을 血清學的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HIV균이 1983년에 프랑스, 미국에서 동시 발견되었으나 에이즈병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것이 사실이다. 열대병 死亡率이 아프리카에서 높은 까닭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으로 몸의 저항력이 감소된 탓이다.

같은 Retrovirus屬에 속한 일본의 淋巴球白血病 HIV 바이러스 抗體는 유행지역 국민 15%에 발견되나 이들은 거의 發病 없이 건강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프리카 원숭이(Green monkey)에서도 HIV바이러스를 분리했으나 동물들은 건강하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인체, 동물에 발병해도 증상이 매우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HIV병독이 인체내에 침입해도 병독 增殖은 숙주의 영양상태, 胸腺등 內分泌 ฮอร์โมน작용으로 조절된다. 대체로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다른 경우도 있다. 즉 노쇠현상, 유전적 감마 글로브린 欠乏症, 抗癌치료제, 방사선 치료시에도 면역기능이 떨어지며 또한 곰팡이, 바이러스 감염시에도 몸의 저항력이 감소된다.

에이즈 임상의 특징으로는 발병 1~2개월내에 급속한 체중감소, 발열, 호흡곤란, 정신불안을 호소한다. 갑자기 전신쇠약으로 말기 암환자 같이 보인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세포면역을 관장하는 CD임파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각종 세균, 곰팡이, 바이러

스 감염(機會感染)을 예방할 수 없다. 유행지역에서 폐결핵 이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BCG 예방주사의 면역효력을 상실한 까닭이다.

### 3. 대응책

이상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에이즈는 의학사상 가장 다스리기 까다로운 難治病으로 등장했다.

HIV바이러스 자체내에서 突然變異를 일으켜 인간에 해가 없는 種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감염은 대부분 性病으로 왕성한 연령층과 경제활동 인구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방역책이래야 예방 홍보 사업에 전적으로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자발적인 檢診을 유도하고 일단 발견되면 사회적, 인도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현재 민간단체로 에이즈예방연맹, 에이즈협회 등이 있으나 재정난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다. 국민 각자의 性倫理觀과 건전한 성생활을 하도록 국민의식 개혁이 앞장서야 하겠다.

(필자 에이즈연맹 고문)



Paris市 Pasteur연구소 montagnier박사를 찾아서(1983).  
씨는 1983년 세계 최초로 AIDS Virus를 발견했다.

## 우리咸興高普(咸南中學)蹴球부를 말해보면



金禧庚(22回)

昨年(1993)定期同窓會總會를 임버서더 호텔에서 할때 일이다.入室하는 나의 손을 덥석 잡고 “蹴球部는 우리 둘 뿐이요!”하는 23回 朱圭演學友의 툇툇한 말이 어쩐지 콧등이 시큰하는것 같았고, 나로 하여금 여러가지 追憶에 잠기게 하였다. 23期の 朱兄도 나를 보기만 하면 언제나 “어이 키퍼 키퍼!”하는데 그 소리는 여간 정답게 들리는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이력저력 健康을 維持하고 있는 것도, 工夫는 뒷전으로 熱心히 蹴球를 한것이 큰 보탬이 되지 않았는가 싶다.

運動場을 좁을세라 누비던 얼굴들이 走馬燈처럼 머리속에 떠오르니 黑色服時節의 李柱炯兄, 白萬吉兄, 늘 뒷바라지해주던 太廈基兄, “짱꿍” 崔仁根兄, 黃色服時節의 老人같이 沈着하던 全榮郁兄, 사람 좋고 正確한 공을 차던 朴在均兄, 표범같이 날래던 孫光柱兄, 同期인 朱乾, 李舜益, 朴演喜, 23回의 朱圭演, 金南鶴, 金基寅, 그다음해인 金鉉五들이다. 蹴球部長은 奧野德一先生이었다.

蹴球부와 野球部는 運動場을 넓게 써야되는 關係로 隔日로서로 交替하여 쓰는데 그때마다 野球部와의 連絡하는 심부름은

내가 하게 되었다. 運動場 들레에 심은 키다리 아까시아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을 쏘이며 한참 신나게 뛰다가 休息時間이되면, 先生님은 꼭 職員室에 다녀오신다. 이때 珍風景이 벌어지게 된다. “짱꿍”이라는 별명이 本名보다도 더 有名한 崔仁根兄은 野球그물 뒤로가서 “챜물챜물”하면서 鐵條網 건너에 있는 雲興里 冷麵집에다 사인을 한다. 그러면 그집에서 알았다는듯이 鐵條網 아래로 그릇을 살짝 넣어준다. 崔兄은 우람한 몸을 재빨리 날여 그릇을 부등켜안고 나무젓가락을 事情없이 冷麵속에 푹 푹는다. 그리고서는 두서너번 젓가락을 휘돌리고서 마치 아이스케이크를 빠는것처럼 젓가락에 감긴 국수를 입에다 쑤셔넣는다. 이렇게 재빠른 動作을 몇번 反復하고나면 그릇속의 국수는 간곳없고 국물만 남는다. 그는 남은 국물을 담숨에 드러마시고는 손으로 입술을 닦게되니 이로서 食事は 끝난다. 이러한 動作은 不過 몇분만에 일어나는 일이니 기네스북에 오를만큼 놀라운 솜씨였다. 우리는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그의 妙技(?)를 感歎할뿐이었으니 그때만해도 生徒들의 飲食店 出入은 校則으로 禁止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짱꿍”兄은 卒業後 “日體」로 進學하였는데 그의 怪力은 그 學校에서도 여러面에서 記錄을 세워 곧잘 報道陣의 話題꺼리가 되었다고한다. 그는 放學이되면 母校를 찾아오곤 했다. 石川實 敎務主任先生과는 交通하는것 같았다. 우리를 모아놓고는 日體의 學校生活 자랑을 한다. 그는 그 學校노래를 歌詞만 바꾸어 육중한 몸을 흔들며 부르는것이다. “도오세호레루나라 난쥬(南中)도 쇼세이상(書生樣)이로와 구로이가 나사께와 고자루…” 우리가 좋아서 拍手를 쳐주면 그는 머리를 굽으면서 滿足스러

운 表情을 짓기도 하였다.

우리가 對戰하는 相對는 永中과 咸農이다. 咸農의 蹴球部長은 英語의 趙先生(우리 同期인 趙成植父親)인데 奧野先生과는 잘 아는 사이였다. 咸農과 싸우면 別問題는 없는데 永中이 問題다. 우리의 同窓會長은 有名한 金明學博士고 永中の 會長은 崔명확博士다. 두분 모두 이름이 “명학”이고 , 거기다 같은 醫學博士다. 이려고 보니, 두 學校의 對戰날에는 應援이 大端할 수 밖에 없다. 永中에는 유레이(幽靈·고스트)라는 별명의 選手가 있었는데 어찌나 공을 세계 차는지 한번 그의 공을 받기만하면 가슴에 큰 衝擊을 주기도 하였다. 우리는 別로 이겨본 記憶은 없다. 다만 勝負보다는 運動을 즐겼을 뿐이다.

그러나 解放後 6·25前까지만해도 延大의 徐康國(처음엔 龍球選手) 高大의 洪德泳(우리同期인 洪德熙동생)이 韓國 大學蹴球의 兩大山脈인 兩校의 守門將(키퍼)으로 延高戰에서 活躍하였다니 그 어찌볼만하지 않았겠는가! 어디 그뿐이겠는가. 洪德泳은 우리나라 獨立後 처음 參加한 런던 올림픽大會에 韓國팀 키퍼로 뛰었으니 우리 蹴球部가 質的으로는 만만치 않았던 證據가 되지 않겠는가!

奧野 蹴球部長 先生, 그는 個性이 너무 강한 面도 있었으나 그와 같이 공차는 날이 많았다. 教室에서 工夫할때와는 달리, 땀을 뻘뻘 흘리며 純粹하게 人間對 人間으로 接할 수 있는 運動이야말로 서로 理解하고 情이 싹트게하는 좋은 媒介體라고 믿는다.

“짱꿍”兄이 아마 韓日國交가 正常化되기 前이라고 생각되는 때에, 韓國핸드볼팀을 이끌고 日本 遠征했을 때 그곳 體育界에

수소문하여 廣島에 先生이 사신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를 廣島驛에서 부등켜안고 “센세이”하며 感激의 눈물을 흘리는 場面이 當地 新聞에 “國境을 넘은 師弟愛”라 題하여 크게 報道되었다는 말을 崔兄한테서 直接들은 일이었다. 이것 또한 蹴球를 통한 人間愛의 發露가 아니겠는가!

數年前 奧野先生이 來韓한 일이 있었다. 그 까닭인즉 先生은 日帝末 全南 順天高女로 轉勤하셨다고 한다. 그때의 弟子들이 順天高女の 開校記念日에 日本으로 돌아간 先生들을 招請하였는데 그 消息을 우리 學校 同窓들이 알고 이 機會에 그분을 서울까지 모셨다는것이다. 그분과는 蹴球關係 뿐아니라, 五學年 卒業班의 우리 担任이었기도하여 仁寺洞의 어느 韓食집에서의 조출한 歡迎會에 參席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여러가지 이야기를 꽃피웠는데 自然스럽게 지난날의 母校校歌를 불러보자는 意見이 나왔다. 모두가 “헝가시노 가다미하루카스 우나바라 도오꾸 아게소메떼 아시다노 히자시 하나야까니 노조미노 히카리 미나 기리누 소가이니 아오구 반류노 산레이 도와니 시즈모리떼 유까시키 스가다 유끼니 하에 마쯔니 찌도세노 사까에 아레 나가레모 기요끼 군시가와…….”

歌詞는 좀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힘차게 불렀다. 話題는 끝이 없었으나 마무리를 지을 時間이 되자 또 누군가의 要請으로 蹴球部의 노래도 부르게 되었다. 우리가 공을 차기 始作할 때 가끔 부르던 노래 말이다. 「간(漢)노 고오소(高祖)모 히데요시(秀吉)모 덴가(天下) 도라나까 다다노 히도(人) 마시떼 본뿌(凡夫)노 오레자 모노, 보오루 게라나까 다다노 히도유메지(夢路) 다도레루 일레분(eleven)노 고포로와 히도쯔자 나이까이나…」

이 노래는 廣島高師에서 蹴球할때 불렀던 노래라고 한다.

우리 學校 運動部가 他校와 對戰할때는 으레이 應援部가 動員되기 마련이다. 그때만되면 우리 應援團長의 손놀림에 맞추어 熱熱히 拍手치며 歎聲을 울리며 青春의 精力을 發散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昨年(1993) 爰버서더 호텔에서서도 母校의 名 應援團長이었던 金興洙畫伯이 壇上에 올라가 往年의 實力을 發揮하는것이 아닌가! 큰 부채를 손에 들고 두팔을 활짝 펴고 “도오카이도(東街道) 고쥬산쓰기(53次) 니와카니 하꾸슈(拍手)”하던 그 숨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그의 둥근 얼굴엔 歲月이 많이 흘렀음을 나타내는 듯이 흰수염이 달렸고, 검은 校服은 흰 바지로 變하였으며 學生帽는 납작한 帽子로 變하기는 하였지만 숨씨는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한자리에 모인 同窓들은 까마득한 先輩로부터 보지못한 後輩들도 많았으나 應援拍手를 맞출 때는 一絲不亂한 소리와 動作으로 나타났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演奏하는 것 처럼……. 역시 選擇된 者들의 모였던 母校인지라 그 놀라운 潛在力은 녹슬지 않았음을 誇示하였다.

나는 그 瞬間, 옛날 中學生으로 되돌아간 氣分으로 꿈만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實로 半世紀만에 쳐보는 應援拍手였다.

우리들의 아쉬운 情은 限이 없어 時間가는줄을 몰랐다. 朴同窓會會長은 우리 同窓會를 母校에 가서 南北이 合친 總同窓會를 갖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祈願한다는 人事말이 있었다. 참으로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所願이다. 나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다. 우리가 다시 母校 運動場에서 蹴球를 하며 나의 단단한 가슴과 두팔로 날아오는 공을 힘껏 잡아 보았으면하는 간절한 所望을…….

## 先進國의 社會病理現象(Anomie)



安 霖(22回)

### (1) 先進國指標의 評價

高度한 경제성장의 결과로서의 先進國의 社會病理現象의 주요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가) 家族的, 共同體的인 아이덴티티(Identity), 즉 一體感 또는 連帶의식의 상실이다. 인간관계, 사회관계는 냉정한 金錢관계로 代置되고 인간의 分子의分裂을 深化하고 있다.

(나) 고도한 大衆消費社會에 있어서는 世代間的 價値觀의 격차와 人間疎外이다.

(다) 物神 숭배와 快樂주의가 낳은 정신적·도덕적 타락이다.

흔히 先進國指標로서는 重化學공업화의 완료에 뒤따르는 소위 「脫工業化」의 高度大衆消費社會, 完全고용, 高所得社會保障, 高學歷化, 都市化, 高齡化, 價値觀의 다양화, 국제화·세계화 현상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달성한 현대문명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이들의 指標들은 그 어느것도 손득과 明暗이 相反하여 선악의 판정을 내릴 수 없으며 보기에 따라서는 옳의 평가가 더 유력하다. 인간은 分子의분열을 계속하여 무국적·無社會



의 방랑아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지지않는 생물적 존재를 가속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지표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보자.

공업화로 부터 시작하여 완전고용, 고소득, 대중소비사회등으로 結晶된 현대의 선진사회의 正體는 무엇인가.

공업화는 에너지절제·주택·토지·교통 등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公害문제를 발생시켰다. 선진국의 자랑거리인 완전고용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94년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유럽의 평균실업률은 10.6%로서 30년대 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상태이며 미국조차 6%~7%이다. 2% 정도의 실업을 완전 고용상태라고 간주한 近代經濟學의 완전 고용의 이론 및 정책은 파산하였다. 실업의 증대는 노사분쟁을 비롯하여 주민운동과 소비자운동 등에 의한 분규를 증대시키고 있다. 고소득은 상대적이며 노사분쟁·재산분쟁·사치병·쾌락주의를 만연시켰다. 소위 「脫工業化」이후의 大衆消費社會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폭동·정신병등 山積한 文明病은 이글의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니엘·벨의 주장에 따르면 서비스노동인구가 50%를 넘으면 脫工業化된 대중소비사회라는 것이다. 다분히 社會工學的 견해이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1950년대 중반이후, 일본은 1975년에 대중소비사회에 진입하였다. 현재 선진국은 모두 대중소비사회인 셈이다.

사회보장은 재정적자·부담의 中産層에의 전가등 사회적비용 증대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경우도 있다. 경제대국인 미국·일본의 사회보장은 유럽보다 뒤떨어져 그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다.

고학력화는 학생범죄·교육인플레로 인한 대학생·교사의 질저하·학원분쟁·고등실업자의 증대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도시화는 커뮤니티의 사회연대의식의 상실·각종 公害의 확산·교통전쟁·유독폐기물의 퇴적·人心의 황폐화·정신병·슬럼化·마약상습화등 소위 文明病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고령화는 厭世자살·직장알선·평생교육·쾌적한 양로시설·실버타운의 건설등 많은 老人문제를 제기하고 남음이 있다.

價値觀의 多樣化는 종교적 무관심·에고이즘·구 도덕·질서에의 反逆·사회연대의식의 감퇴·物神숭배·페락주의·특정사상의 偏執과 脫이데올로기·반체제문화활동등 價値觀의 혼란을 결성하고 있다.

국제화·세계화는 상대적 빈곤의식·선진적 사회병리현상의 전파 超國籍기업의 횡포 등을 자극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선진국지표는 날이 갈수록 부정적 면이 부각되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선진국의 사회병리는 대동소이하므로 전형적인 미국의 사정을 요약한다. 물론 미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치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 美國등 先進國의 社會病理

50년대에 아이젠하워대통령마저 당황케한 軍產제국의 無所不爲의 절대권력과 赤色분자사냥의 막카시旋風은 미국의 자유정신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부쳤다. 61년의 케네디대통령의 뉴-프론티아의 開幕과 知性주의에 희망을 걸었지만 사태는 正反對였다. 미국의 世紀의 쇠퇴를 결정화한 越南戰 속에서 인종폭동, 狂氣노동, 사회불안등이 고조되었다. 비틀즈의 노음, 록뮤직을

통한 反권위주의, 컬럼비아대학생들의 反戰시위를 발단으로 하는 시민의 反戰사상, 枯葉작전에 대한 非도덕적 共犯者의식등이 확산하였다. 端的으로 反體制文化가 싹트게 된 것이다. 청년을 비롯한 이혼율이 50%수준에 달하였다. 68년에는 킹목사, 로버트·케네디의 암살로 스산한 사회풍조를 증폭하였다. 밖으로는 「프라하의 봄」의 좌절·비아프라의 대기근 등이 있었으나 세계는 보는체도 하지 않았다. 수수방관·도피·無力症등이 풍미하였다. 마약속에서 자기위안을 찾고자 하였다. 5월 파리의 학생혁명은 상대적좌절감을 더욱 부추겼다. 세계사의 선구자는 역시 프랑스라는 기묘한 열등의식말이다. 12년간에 걸친 월남전에서의 패전, 이로 인한 무력증·좌절감·마약·폭력·교육의 질저하등 정신적황폐는 손쉽게 치유될 수 없었다.

70년대에는 미국의 世紀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71년 닉슨대통령의「신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金과 달러의 交換정지」는 세계의 달러體制를 붕괴시켰다. 미국 스스로 국제通貨로서의 달러를 포기하였다. 2次의 石油波動(74년과 79년)은 쌍둥이의 赤字(실업율증대와 10%의 인플레이션)를 만성화하였다. 不況의 만성화는 민심과 사회의 불안을 더욱 조장하였다.

70년대 후반에는 종래 신주처럼 모셔온 「미국화된 케인즈경제학」이 처방한 미국경제再生의 정책을 포기하고 보수적인 通貨主義·合理的期待形成論·供給經濟등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등장하였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무슨 극적인 국면전환이 필요하였다. 배우출신인 레이건은 국민에게 즉흥적인 여흥·우습·즐거움을 줄 수 있었다. 強한 미국·新愛國주의의 호소-즉 내셔널리즘의 고취와 선동은 국민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였고

미국의 자존심을 만족시켰다. 레이건의 8년간의(1981~88년) 임기중 년평균 6%전후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여 케네디·존슨의 두 민주당대통령의 「黃金의 60년대」에 뒤이어 두번째의 번영을 맞이하였다. 미군은 세계최고의 金利를 내고 借入할 수 있는 한도까지 借入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이 가장 중요한 借入先이었다. 일본은 中短期의 財務省증권을 사서 미국에 협력하였다. 레이건이 再選된 85년 미국은 세계최대의 債務國으로 전락한 반면에 일본은 세계최대의 債權國으로 浮上하였다. 미국의 40代대통령 레이건은 8년이란 짧은 동안에 39명의 전임자들이 200년에 걸쳐 累積한 財務赤字의 債務를 일거에 3배로 늘렸다. 케인즈조차 상상할 수 없을 방법과 규모의 방만한 자금살포정책(Spending Policy)을 弄하였다. 經濟성장은 번영이 아니라 浮腫에 불과하였다.

1985년에 달러價値는 半減하였으며 일본의 円價値는 2배로 올라섰다.

달러價値의 低落은 「팩스·아메리카나」의 쇠퇴의 화폐적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성사한 1985년 9월의 「프라자」合意는 달러의 명예로운 後退를 유도하고 급격한 價値切下로 인한 충격을 막기위하여 선진국의 「協調介入」과 「共同管理」를 제도화한 것이다. 달러의 공동관리는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공동관리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強한 미국과 弱한 달러」는 兩立될 수 없다. 레이건을 이어받은 부시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집없는 放浪者, 자애로운 가정의 사랑을 모르는 어린이, 거리의 폭악스러운 범죄, 마약과 생활보호, 슬럼속의 인간타락등 사회적 병리를 환기하였다. 여전히 마약없이는

신나지 않는 사회인 것이다. 1992년의 로스앤젤레스 地震時의 黑人폭도들의 銃질·방화·약탈·살인은 비록 韓人상가에 집중되었지만 미국사회의 병리의 일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미국사회는 기본적으로 活火山같은 黑白인종분류가 잠재하고 있는 사회, 변호사들이 만사에 기웃거리는 사회, 銃器의 균형에서 민생치안이 유지되는 사회, 황금이 인격을 지배하는 사회, 마약없이 신이 나지 않는 사회인 것이다.

日本の 경우 70년대 中半이후의 脫工業化社會, 대중소비사회의 단계에서 사회병리현상이 突出하였다. 청소년들의 학교와 가정에서의 폭력사태·등교거부·自閉症의 속출·회사원의 자살풍조·노인의 자살과 치매증·각종 정신질환·世代間의 소외현상등의 선진국병이 줄시에 확산되었다.

### (3) 韓國의 경우

선진국이 아니면서도 선진국을 앞지르는 우리의 사회병리현상은 위험수준에 다달았다.

6·25전란, 급속한 重化學공업화, 30년의 군사독재정치를 겪은 韓國은 그에 상응하는 특수한 社會病理를 속출시키고 있다.

人命·人權의 무시, 도덕성타락, 사회공동체의식의 상실, 한탕주의에 의한 졸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위정자들의 전쟁놀이의 日常化(平和의 땀의 例), 權力型 不正·腐敗의 慢延, 民生治安의 死角化, 性범죄의 범람, 스포츠·섹스·스크린등에 의한 商業主義的향락의 조장 및 그 결과로서의 전국민의 白痴化정책 등등 反人間的·亡國的 風調가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다. 이외에도 폭력이 亂舞하고 있다. 밤 유흥가에서의 이권을 둘러

싼 폭력배들의 집단亂鬪, 중학생들의 교실에서의 級友살인, 젊은 층의 이유없는 반항, 오렌지族(부유층의 유학생)의 향락가에서의 폭행,,현장의 感性에서 행동하는 X세대의 輕兆浮薄, 백주의 婦女子남치, 마음놓고 택시를 탈 수 없는 婦女층, 음란전화의 성행, 이혼율의 년 10%증대, 殺人강도의 여전한 발호, 도박골프의 유행, 煽情的인 오락프로의 狂態, 暴走族의 등장 등등으로 불안과 공포가 만연되고 있다. 또한 老人치매症의 방치, 영터리 요양원의 非理, 버려진 孤兒의 해외入養, 대학생선발·교수채용에 있어서의 財團非理의 방치등은 외국에 볼 수 없는 社會病理의 극치이다. 심지어 94年 9月 불교 曹溪宗에서는 주도권을 둘러싸고 폭력배를 동원한 패싸움이 일어났다. 관헌은 정치헌금을 한 구 총무원측을 비호조차 하였다. 총체적으로 가족적 재벌의 횡포·엘리트의 몰락·무국적 문명의 범람등 정신적 황폐와 도덕적 타락은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범죄는 가깝고 法은 멀다」라는 自嘲섞인 TV용어는 우리의 사회불안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分斷한국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또 선진국이 될 필요도 없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이란 말은 소위 서구의 선진국들이 일인당 GNP의 高低등 의미없는 내용을 기준으로 제멋대로 만든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社會病理현상은 군사정권 30년간에 증폭되었고 이제 경쟁력증강이나 병력증강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國民大衆이 참가하는 共同體的인 민주국가를 회복하므로써 正義롭고 平等的한 사회의 自生力을 소생시켜야 하며 또한 민족통일을 완수하여 分斷으로 인한 사회적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밝고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사회는 민주통일의 의지와 실천에서 비

못된다.

先進國에서의 大同小異한 社會病理현상이 결과할 文明의 沒  
落은 누구도 感知할 수 있는 현대의 赤信號이다. 어쩔 수 없이  
한배를 탄 宇宙船의 難波가 시시각각 다가서고 있다.

「盤龍」發刊을 心祝합니다.

24回 玄堂 朴 泳 馥

電話 742-1331

韓國聯書藝家總盟 總裁  
大韓民國 社會教育文化賞 受賞  
玄堂書藝 院長

鍾路區 昌信洞 292 元豐빌딩 501호





## 盤龍山에 올라 가 보고싶습니다.



金瑛河(23回)

盤龍山에 올라 가 보고싶습니다.

누구나 모두 그러하겠지만 나도 어렸을때의 지난 날을 回顧하면 슬펐던 일도 아름답게만 느껴집니다. 가난한 生活을 하였지만 咸興高普에 다닐때는 즐거웠습니다. 지금 盤龍山과 城川江과 萬歲橋를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咸興에서의 生活을 咸興高普와 連結시켜서 特히 親舊들과의 交友關係를 中心으로 그려볼까 합니다.

나는 세살적에 江原道通川에서 咸興으로 이사왔다고 합니다. 通川에서의 記憶으로 分명한것이 하나 있는데 양쪽에 큰 눈이 달린 怪物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도로를 따라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자동차를 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咸興에 와서는 셋집을 여기저기 轉轉해 다녔을터인데 잘 생각이 나지않고 다만 가끔 어머니와 할머니가 말다툼을 하고있는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후에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男便을 만 女人에게 빼앗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노라니까 가끔 말다툼도 할만했다고 생각됩니다.

좀 커서 普通學校에 들어갈 무렵에 살던 집은 萬歲橋에서 얼마 멀지않은 곳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大路邊에 病院이 있고 그

病院옆 꽤 큰 골목길을 들어가서 우리집이 있었습니다. 그 病院門앞에 세멘트로 만들어진 네모난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나는 그 쓰레기통에서 모가지가 잘라진 주사약병과 그 병 모가지를 자를때 쓰던 조그만 쇠톱을 주워서 놀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病院이 훗날 咸興高普에 같이 다닌 金教吉씨 父親의 病院이었음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金教吉하고는 學校時節엔 가까이 지낼 機會가 없었고 教練時間에 늘 그가 약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던것이 생각납니다. 서울에서는 자주 만나서 대포잔을 나누었고, 그의 아들이 서울大學을 나와 就職을 하고 自家用專用車도 注文하게되어 좀 살만하게 되니까 그만 그는 世上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허전했던 마음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咸興第一普通學校에 入學하여 다니다가 3學年때에 北靑으로 이사가서 北靑城東普通學校를 卒業하고 咸興高普에 入學하였는데 그때 巷間에서는 咸興高普는 同盟休學이甚하고 思想的인 問題로 學生들이 卒業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고있어서 나는 어린마음에도 걱정을했던 기억이 납니다.

北靑에서 咸興으로 다시 이사나와 살게된곳이 주로 山手町과 春日町이었습니다. 맨처음 살게된 집이 公會堂쪽에서 올라와 咸興高普뒷길로 꼬부라지지말고 곧바로 水道水源池쪽으로 올라가다가 咸興高女 좀 못미쳐 오른쪽 길가 조그만 구멍가게가 달려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 뒷방을 세얻어 살았습니다. 그집 女主人이 男便은 없고 아들하고 단둘이서 살고있었는데 그 아들이 咸興高普 3學年에 在學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先輩가 되는데 그 先輩말이 「幾何」라는 學科가 있는데 너무나너무나 어렵다고 말하는 품이 공부하는것이 힘에 부치는것같이 느껴졌고

더구나 소화가 잘안된다고하면서 구멍가게에서 파는 카라멜종류를 몰래 먹고는 자기어머니한테 욕먹는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엾어보였는데 그 先輩는 그後 學校를 그만둔것같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뒷방은 울타리가 바짝 방문에 붙어있어서 대낮에도 물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1學年때 担任先生이 「一色」先生이었는데 家庭訪問을 왔다가 房門을 열어보고는 이런곳에서 어떻게 사느냐하는 의아한表情을 짓고있었습니다.

우리집 바로 길건너에 朱奎益이라는 同期生이 下宿하고있었는데 1年쯤 뒤에 學校를 그만둔것같습니다. 같은집에 朱槿源先輩님이 下宿하고 계시다가 다음해엔가 京城帝大豫科에 들어가신 것으로 저는 記憶하고 있는데 언젠가 總同窓會때 물어봤더니 잘 記憶이 나지않으신다고하셨습니다. 내 記憶에 錯誤가 있었는데 있는가 봅니다.

우리집으로 올라오다가 조금 못미처 왼쪽 길가집에 文道元이라는 同期生이 下宿하고있었는데 그도 中間에 學校를 그만둔것같습니다. 그때 들리는 말로는 下宿집 女主人이 과부였는데 그를 너무 좋아해서 그가 健康을 害치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勿論 眞否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 그가 매우 早熟했구나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던집에서 威興高女院 골짜기 길을 쪽 올라가면 水道水源池가 있는데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는 遊園地로 되어있었고 그아래 터널을 빠지면 相當한 높이의 急傾斜진 길이 있고 그 길을 내려서면 五老理로 가는 길인데 이길 넘어에는 城川江물이 悠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터널을 몇번이나 빠져나

가 城川江으로 미역감으로 다녔는지모르겠습니다. 터널을 빠지지 말고 더 올라가 盤龍山능선을 따라 咸南高女쪽으로 빠지던가 더 내려가 濟惠病院앞으로해서 永女高쪽으로 빠지던가하면 그 길은 그 이상없는 좋은 散策코스였습니다. 그때 盤龍山에 서있던 소나무가지들이 군데군데 말라있었습니다. 興南쪽에서 날아오는 工場煙氣때문이라고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濟惠病院 周邊은 外國風景을 聯想케하는 아름다운곳이었습니다. 나는 濟惠病院結核病棟에 얼마동안 入院해 있었습니다. 조금 나이먹은 西洋女子가 院長이었는데 매우 멋이있어보였습니다. 내擔當主治醫는 平安道사투리를 쓰는 분이었는데 내肋膜에 氣胸(?) (肋膜에 바람을 넣어 肺를 압축하는것)을 한다고 注射바늘을 꼽다가 失敗를 해서 唐慌해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教會信者들인지 가끔 조용한 病室복도에 찾아와서 患者들의 治癒를 위해 祈禱해주며 讚頌歌를 불러 주었는데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讚頌歌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수가 없었습니다. 25回인 내동생이 찾아와서 달밤에 病院庭園을 함께 걸으면서 앞날을 모르는 내 病勢를 걱정해주던 생각도 납니다.

언젠가는 咸南高女앞쪽 은행나무 잎이 셋노랑게 깔린 鄉校앞마당에서 어떤사람이 캔버스를 세워놓고 그위에 油畫로 鄉校를 은행나무와 결드려서 寫生하고있는것을 넋을 잃고 바라본일이 있습니다. 나도 同期生 崔相賦이랑함께 咸南高女윗쪽 盤龍山에서 咸南高女쪽을 내려다보고 寫生을 하던생각이 납니다.

5月下旬이면 咸興高普校庭을 둘러싸고 있는 그 큰아카시아나무들이 一齊히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꽃향기가 은은하게 四

方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 5月입니다. 생각만해도 내 가슴이 아련해집니다. 나는 山手町에서 한 3年가량 살다가 春日町으로 이사를갔습니다. 自然히 가까이 사는 崔敏煥, 黃忠炫, 鄭在燦, 池昌龍 等親舊를 자주 만난것같습니다.

崔敏煥이가 萬能運動選手였음은 누구나 알고있지만 特히 내 記憶에 남아있는것은 咸興農業인가 咸興商業인가를 相對로한 學校對抗 劍道試合에서 左上段姿勢로 서있다가 相對方의 面을 후련하게 내려쳐서 勝利했을때의 일입니다. 참말로 멋이 있었습니니다.

池昌龍은 우리집에서 그리멀지않은 距離에있는 큰 기와집 사랑채에 下宿하고 있었습니다. 안채 主人집딸이 永女高學生이었던것으로 記憶됩니다. 내가 놀러가면 池昌龍은 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自己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美男일터인데 눈이 작아서 遺憾이라고 말하면서 웃던일이 생각납니다. 그런그가 내가 지금 살고있는 山本東屋白頭아파트에서 걸어서 10分距離도 안되는 그의 막내딸집인 大林아파트에서 昨年 7月부터 살고있으면서 서로 連絡이 되지않아서 만나보지못하고있다가 今年初 그가 이世上을 떠난後에야 連絡이 되어 그집에 찾아가게된것이 두고두고 遺憾千萬입니다.

내가 咸興高普에 들어온後 몇번인가 北靑郡出身學生들이 모임을 가진일이 있습니다. 이때 同期生으로서는 許英範(北靑) 李根孝(陽化) 金南鶴(新浦)等이 參席했고 그리고 先輩몇분이 參席했습니다. 이런關係때문인지 李根孝하고는 가까이 지내게되어 物理化學教室에서는 늘 옆자리에 나란히 함께 앉은것같습니다. 이때마다 나는 그가 매우 머리가 좋구나하는것을 느꼈었습니다.

學校卒業하던 해 그는 京城帝大豫科에 들어갔는데 그해 함께 試驗을 본 어느 勢力家인 有名人士의 아들(咸興高普學生이 아님)이 不合格한것을 알고는 「여기에는 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구나」하고 快哉를 부르는것을 내가 直接 들은일이 있습니다. 그後 언제인가 放學때 故郷에 내려가다가 咸興에 들어서 또 나를 찾아준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尹君昌先輩하고 同行하고 있었는데 그날저녁 咸興高普뒷길 냉면집옆 골목을 들어가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먹은 그국물이 어찌나 맛이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보신탕이라고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신탕을 먹은시초인데 그후부터는 나는 보신탕을 잘먹는사람이 되었습니다. 그後 同期生인 崔承赫, 李仁堦이랑 萬歲橋 건너편 西上町에서 보신탕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 李根孝가 仔細히는 모르지만 解放直後 左傾했다는 理由로 仁川에선가 自然死 아닌 죽음을 當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咸興道立病院 正門앞 어느골목집에 同期生인 張斗煥이 下宿하고있었는데 나는 그집에 두어번 놀러간 記憶이 납니다. 그때 내가 놀란것은 그방에있는 꽤 큰 책꽂이에 日本新潮社의 世界文學全集을 비롯하여 文學에 關한 책들이 꽂차있었습니다. 아마 우리同期中에서는 그쪽 方面으로 가장 재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上級學校에는 進學하지 않고 咸南道廳에 就職하고 있었는데 課에서 글을 쓰는일이 있으면 그가 말아서 쓴다는 말을 들은것같기도 합니다.

咸南道廳에는 또 沈澤高이 就職하고 있었는데 6·25後 越南했으나 그의 딸 結婚式때 한번 그를 본일이 있을 뿐 그는 그後 親舊들과의 交流를 全然 하지 않아서 그의 消息을 아는 사

람이 없습니다.

道立病院正門에서 조금만 걸어나오면 咸興에서 第一가는 繁華街이고 中心地인 5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軍營通을 올라가다가 왼쪽에 良書閣이란 書店이 있는데 나는 이書店을 자주 찾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곳에 들렀더니 同期生인 韓鎬權이가 「발레리」인가 「베를레에느」인가 하는 사람의 詩集이 있느냐고 書店主人에게 묻고있었습니다. 그때 新刊書籍이 잘 入荷되지 않을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親舊 꽤 詩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본 그는 詩하고는 距離가 먼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표 신」인가를 日本에 輸出하는 貿易商을 하면서 南大門市場안에 事務所를 차려놓고 매우 바빴던것 같습니다. 그도 同窓들하고는 거의 連絡이 없었고 그가 世上을 떠난지 몇달後엔가 우리同期의 朱圭演會長이 同窓會일로 그의집에 電話를 걸었다가 그의 婦人으로부터 어느날 아침 자고 일어나보니 그가 世上을 떠나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同窓에게는 連絡이 없어서 아무도 그의 葬禮에 參席한 사람이 없습니다.

太平洋戰爭이 점점 末期에 가까와갔습니다. 韓國사람도 徵兵으로 日本軍隊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同期生인 楊德順은 興南인가 西湖인가에서 列車通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日本人 吉田絃二郎인가하는 사람의 隨筆集을 들고다니던 것이 記憶납니다. 나이가 나보다도 두어살 위였는데 出生申告가 잘못되어 徵兵一期에 걸려서 咸興聯隊에 入營하게되어 나는 그 聯隊에까지 歡送갔었습니다. 恒常 反日的인 이야기를 곧잘 하였었는데 入營한 後, 滿洲에선가 葉書를 보내왔었는데 「밝은日本, 밝

은日本」云云 적혀있어서 좀 이상하게 느껴졌었습니다. 或時 蘇聯軍이 滿洲로 進軍할때 그는 爆彈을 짊어지고 蘇聯軍 탱크밀  
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았나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그後 그의 消息을 들어본일이 없습니다. 勿論 들을수있는 機會도 없었습니  
다.

내가 咸興에서 마지막으로 살던 집이 咸興高普運動場 맨뒷쪽  
高鐵棒대가 서있는 곳 저쪽 도랑건너에 있었습니다. 道廳쪽으로  
내려가는 新作路에서 골목길로 들어와 마지막집이었는데 들어  
오다 두어번째 집이 同期生 玄鳳學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세브  
란스醫專을 나와 平壤基督病院에서 勤務하다가 發疹지프스를  
앓고 집에 와서 쉬고있을 때 인것같습니다. 내가 高熱로 몸이  
아파서 그를 불리와 診察을 받았더니 마라리아(학질)같다고하  
여 기니네를 사다먹고 病이 나왔습니다. 果然名醫라고 생각했지  
요. 지난번 그가 韓國에와서 同窓들이 大林亭에서 만났을때 그  
이야기를 그에게 했더니 그는 잘 기억을 못하고있는것 같았습  
니다.

太平洋戰爭이 거의 끝나갈 무렵 京城帝大에 다니다가 結核으  
로 집에서 쉬고 있던 同期生 金三彬이가 자주 우리집에 찾아왔  
습니다. 우리는 터놓고 時局이야기를 하였는데 日本이 亡할것은  
뻔한노릇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自由陣營에 加擔할 것인가, 共  
産陣營에 加擔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였던것 같습니다. 咸  
興高普와 咸南道廳사이에 나있는 新作路를 몇번이고 오르내리  
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解放後 金三彬은 咸興民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解放되기 數日前에 疏開한다고 江原道原州郡庫底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解放되고 며칠後 庫底驛에서 이삿집을 찾았는데 짐보따리가 모두 헤쳐져 있었습니다.

解放消息을 들은것은 通川과 庫底의 中間地點인 살래라는 곳을 흐르는 개울가에서 었습니다. 동생과 둘이서 부둥켜안고 좋아서 어쩔줄몰라 했습니다. 勿論 祖國의 解放이라는 그 기쁨도 있었겠지만 당장 동생이 軍隊에 끌려가지않게 되었기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은 徵兵2期로서 그 召集令狀이 나오는날이 오늘인가 내일인가하고 걱정하고 있을때였습니다. 동생은 얼마後 工夫를 한다고 서울로 떠나가고 나는 어머니와 다른동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庫底에 남아있었지만 6·25動亂때 南下하여 結局 家族들과 離散狀態에 놓이게된 것은 解放直後 먼저 떠난 동생하고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同窓여러분! 오래오래 健康하셔서 우리 모두 盤龍山에도 올라가보고 萬歲橋도 건너가볼 날이 올것을 기다려 봅시다.



## 나의 교단생활



### 朴 東 昴 (23回)

일제시대(日帝時代)의 국민학교선생. 해방 후의 중고등학교교사. 그리고 가장 동경했던 대학교수까지 나의 교단 이력은 비교적 다양했다고 볼 수 있다.

함경남도(咸鏡南道)의 함남중학교(5년)를 졸업한 후 약 일년 동안 용평(龍平)국민학교라는 6학급밖에 안되는 학교선생을 한 것이 교단 생활의 시작이었다.

용평국민학교는 함남 K군(咸南)의 운곡면(雲谷面)이라는 두메시골 높은 산속의 학교였다. 문자그대로 구름에서 제일 가까운 고산지대여서 그랬는지 화전민(火田民)과 광부가 많은 곳이었다. 국민학교라 해도 학생들의 나이는 거의 중학생 정도였다. 국민학교 선생이란 참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산간(山間)벽지의 교사는 더욱 그러한 것 같았다.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어렵고 연령이 고르지 않아서 교육의 기준을 세울 수 없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통거리었던 것은 재학생(在學生)이 시집·장가를 못가도록 설득하는 일이었다.

조혼(早婚)의 풍습이 뿌리깊게 퍼져 있던 곳이라 도저히 계몽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휴일에 무명옷을 입은 신랑이 조랑말을 타고 달랑달랑 소리 내면서 마을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어김없이 재학생이었다.

장가간 다음 날은 선생의 꾸지람이 두려워 처가집에서 가지고 온 닭다리를 슬그머니 나의 책상 위에 놓고 간다. 미안하니 용서해달라는 뜻이 담긴 것이다. 하도 답답해서 일일이 학부모를 찾아다니면서 계몽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말하는 조혼 이유에는 그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

며느리를 일찍 맞이하는 것은 노동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대와 징용에 남자들이 끌려가서 노동력이 부족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랑보다 나이가 많은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곤 했었다.

해방을 맞은 후, 얼마동안은 함남의 모(某)중학교에서 영어선생을 하게 됐다. 함경남도 K군에 있는 학교였는데 해방 후에 신설됐다. 하루는 관계기관에서 심사를 한다며 몇 사람이 교무실로 찾아왔다. 심사가 시작됐다.

“당신은 결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요?”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작된 심사였다. “늑막염 때문에 좀 쉬었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당신은 왜 영어를 가르치오?” 한 여자심사원(女性同盟)이 나를 꾸짖는 식으로 나무랐다.

“영어과목이 있으니 가르치지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당신은 부르조아 정신이 몸에 배어있고 미제(美帝)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영어 선생을 그만두시오.”

심사위원 한 사람이 결론을 내렸다.

내가 서울에 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이러한 데 있었다.

6·25후 나는 다시 고등학교 교원이 됐다. 부산 피난당시 J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부산수산(釜山水產)대학 강사를 겸직했다. 그무렵 J고등학교의 교무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어떤 학생 한사람이 호출되어 교관선생의 꾸지람을 받고 있었다. 그 학생은 교관의 매를 많이 맞았다. 다른 학생의 돈을 훔쳤기 때문이었다. 교관의 훈계가 끝난 후, 그 학생을 내 책상머리에 앉혔다.

그리고 그 학생이 훔쳤다는 만큼의 돈을 지갑에서 꺼내어 주면서 “학생이 가정생활이 아주 어려워 그러한 일시적인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잘 알고 있으니 이 돈을 받아서 그 학생에게 돌려 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라고 말하고 돈을 줬다.

학생은 그 돈을 받고 한없이 울었다. 나도 울었고 교장선생님도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교장선생님이 바로 고인이 되신 조모 선생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교원생활을 통해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1956년 나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商科大學)의 조교수로 임명됐다. 처음에 담당한 과목이 경제지리(經濟地理)였다. 옛날 동경상대(東京商大)에 다닐 때 좌등이라는 일본교수가 계셨는

데, 그 교수의 경제지리 강의가 꽤 인상적이었다.

나도 명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공부하였다. 무미건조한 과목일수록 흥미있고 내용이 있는 강의를 해야하니 고생이 많았다.

주로 입지론(立地論)중심의 강의를 했다. 그 중에서도 미작(米作)농업의 입지조건이 동남아의 경제발전을 정체시킨 원인구명에 주력했다.

「經濟地理」라는 대학교재도 출간했다. 경제지리를 강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자연히 농업경제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었고, 나의 전공이 「농업경제」로 바뀐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나는 농업경제의 이론을 개척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명교수(名教授)들을 모시고 학생들 앞에서 토론을 하기도 했다. 난 나름대로의 이론을 신문, 잡지에 많이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곡가(穀價)문제였다. 물론 절량 농가문제도 큰 정책과제였다.

곡가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농림차관(農林次官)을 역임한 주모(朱某)선생과 나의 지상논쟁이 시작됐다.

일주일이상 논쟁은 계속됐다. 곡가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했으니 논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향신문에서의 논쟁이었다. 누구의 견해가 옳고 그름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활발한 논쟁자체가 높이 평가됐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몇 가지 농업경제관계저서를 냈다. 주로 이론과 실체를 다룬 것이었다. 새로운

정책을 많이 소개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방향전환이라든가, 그 효과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어야 판가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교수의 연구는 현실과 유리된 이론의 유희에 만족 말고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에 까지 발전되어야 함을 절감했다. 특히 경제학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은 농업경제 공부를 하는 학생수가 많이 줄었지만 196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농업경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었다.

농업경제 연구와 강의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환경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서울 상대교수를 하면서 연세대(延世大), 고대(高大), 국민대(國民大)등에도 출강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까지 수시로 출강(出講)하곤 했다. 젊음을 다 바친 시절의 일이었다.

1970년 나는 성균관대학교의 총장(總長)에 취임했다.

성대총장(成大總長)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했다. 학생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고, 교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학교발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첫째, 학생의 질을 높이고 기풍(氣風)을 쇄신해야 하겠다.

둘째, 교수생활을 보장하고 교수들의 단합을 공고히 해야 하겠다.

셋째, 성대이미지를 사회에 부각시켜야 하겠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신입생 입학식 날이었다. 성대는 후기대학이어서 전기대학에 낙방했던 학생이 많았으니 의기소침하여 입학식에 참가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로였다.

나는 축사를 하다 다음과 같이 고함을 질렀다. “성대총장인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총장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제군들도 몇 점차 때문에 일차(一次)대학에 못갔지만 제군들의 능력은 결코 2류도 3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와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이 교정에서 재기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없는 학생은 당장 학부모와 더불어 교문을 나가시오…” 나는 진정으로 외쳤다. 박수가 터졌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희색(喜色)이 감돌았다.

강의를 철저히 해서 학생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했다. 고시합격(考試合格)자 수가 늘고 기업체의 입사시험에 많이 합격시켰다. 사회의 인식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미지 부각에 성공한 셈이다.

다음에는 교수대우문제에 관심을 쏟았다. 교수대우를 전국적으로 최고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른 대학이 봉급채정을 다한 다음에 더 높게 봉급을 책정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조합을 만들어 교사의 후생(厚生)사업을 지원했다. 교수들 가정에 매달 한가마니씩의 쌀을 보내 드렸다. 물론 봉급 외에 추가한 것이다. 춘추(春秋)두번 교수부부에게 옷감도 보내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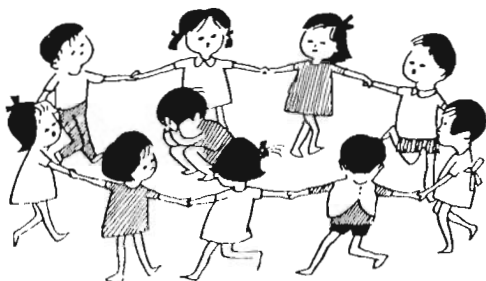
가정에선 웃지 못해도 학교라는 직장에 나오면 웃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전력했다. 결과는 상당히 좋았으며 친목과 단합

이 더욱 공고해 졌다.

역사는 사람이 만들고, 올바른 역사는 길이길이 남는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성대발전을 위해 한줌만큼은 기여했다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다. 현재도 나는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다. 역시 나의 천성에 맞는 직업은 연구와 교육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교원에게 바라는 요구는 너무 크고 교원에 대한 지원과 격려는 너무 보잘것 없다는 사실이다.

유능한 교육자들이 하나 둘씩 교육계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내일을 위해야 하는 교육이 오늘의 현실앞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슬퍼할 따름이다.





# 돌아가고픈 나의 故鄉 別天地



李 漢 淳(23回)

1. 序 言
2. 大陸에서 海上勢力圈으로 傳位된 韓半島
  - 1) 關北의 史的 背景
  - 2) 要地侵略을 위한 日本의 地下工作
3. 永興灣 虎島半島의 構造와 環境

## 1. 序 言

희생과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 그리고 이웃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생생한 추억의 고향山川이 그리워진다. 이것은 動物의 歸巢本能과도 같이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노래와 詩에도 수없이 언급되어온 것으로 보아 아마도 人生行路에 있어 共通性인가 싶다.

자라나는 2세들은 TV나 大衆媒體를 통해 全世界가 地球村化 되어감에 따라 先進外來文化를 흡수하거나 도취되어가니 老境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새삼 孤獨感에 故鄉생각이 더해지는 듯

하다.

한편 생각컨대 우리들은 中學入學 직후부터 우리말 우리성명마저 강탈당하고 흡사 병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글을 멀리하게 되고 民族的 矜持마저 박탈당하였으니 故鄉山川이 마음에 간직해있을 리 없음도 당연하겠다.

여기에 기다리던 光復의 기쁨도 한 순간, 國土가 兩斷된지도 벌써 일제 36년간을 훨씬 넘어서 반세기가 되니 이젠 避難民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모든것을 두고, 잊고 나아가 기억마저 희미하여가니 어찌하여야 될 것인가 싶으다.

찾아야지, 찾아야지. 이웃 친구와 옛날을 회상하며 될 수 있는 한 많은 참고자료를 정리하여야지, 우선 후세들을 위해 族譜나 家系譜를 정리하여 친척과 이웃을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마음의 고향은 찾아가야 하지 않겠소.

필자는 그동안, 韓半島 全體가 日帝에 強奪된데다 鎭海灣과 함께 2重의 굴레를 썼던 우리 故鄉 永興灣 要塞地帶의 내역을 찾아보았다. 우리 祖上은 北方異民族의 亂을 피해 海邊에 定着하였건만 일제하 日本軍要塞地로 이용되게 되었으니 地圖는 물론, 어디에서도 그 내역과 과정 등에 관련된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나는 迷兒를 찾는 어머니格으로 잊어버린 옛 고향, 즉 要塞地帶를 찾아보았으나 그 日帝의 軍用地는 철저히 封鎖되었기에 迷宮이자 別天地임을 새삼 알았다. 고향은 비록 그 소박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고향이야 어찌 변할 수 있겠소. 우리 고향에 관련된 흩어진 여러 자료수집이 諸兄에게도 다 소나마 參考가 될까하여 께맞추어 보는 것이다.

## 2. 大陸에서 海上勢力圈으로 傳位된 韓半島

### 1) 關北의 史的 背景

우리들 咸興高普同門들의 고향은 크게는 咸南道라 할 수 있는데, 咸鏡道는 李朝 8道시대 대부분이 산지인 관계로 인구가 희박하였다. 咸南道는 대략 最高峰인 白頭山 중심의 광대한 蓋馬高原에서 발달해온 산세가 急傾斜의 좁은 海岸平野를 거쳐 깊은 東海에 들어가는 지형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곳에 따라 발달해 있는 몇몇 하천유역의 작은 퇴적평야와 두만강이나 압록강변의 三水, 甲山등과 같은 盆地가 생활의 主舞臺가 되어왔다. 한편 옛적 8道中 永吉(永興, 吉州), 咸吉(咸興, 吉州), 永安(永興, 安邊), 咸鏡(咸興, 鏡城)道등의 옛 명칭과 같이 조선시대 關北 地方中心地임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곳은 과거 오랜 農耕文化에 있어서는 國內의 最北 最高 最大 및 最寒의 山岳地帶로서 南韓의 中部나 南部地方에 비하면 살만한 곳이 못되는 僻地로서 인구가 희박하고, 주민들은 火田耕作을 爲主로 生計를 영위해왔다고 보여진다. 그나마 北方 異民族의 침입에 대항하여 싸워야 했으므로 주민이 사나워진데다 일면 끈질긴 성품의 장점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무력으로 中央政權을 잡은 李成桂마저도 李朝 500년 중 근 390년간 西北人을 要職에 기용하지 않았으니 벽지로서 그간 流配되어오거나 慶尙道 등지에서의 移民이나 流民에 의해 개척, 개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북부지방이라도 平安道인 關西地方은 옛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큰 강에 큰 평야가 발달하여 많은 주민의 생활무대로서 문화가 꽃피웠다. 아울러 관서지방은 중국 황하유역

의 발달한 東洋文化의 中原地에 가까웠고 비단길을 통한 西洋文化의 交流도 있어 비교적 일찌기 개화되었다.

원래 古代文化는 우리나라에서 바다넘어 日本列島에도 전파되어갔다. 그러나 大陸中心勢力이나 그 문화가 지배하던 역사시대에는 科學武器의 發達로 海上國家勢力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大勢로 轉換되어갔다. 즉 스페인, 화란, 프란스, 영국 등 유럽해양국가들이 17세기 東南아시아에 植民地를 강탈하게 되었다. 海上國 日本도 재빠르게 大陸에 진출한 영국, 미국의 후원하에 근대화에 박차를 가해 1894년 淸日, 1904년 露日戰爭에서 승리함으로써 北方 大陸強國을 제패하게 되었으니 한국은 四面楚歌로 1910년 韓國國號를 朝鮮으로 改稱 合邦의 비운을 맞게 된 것이다.

새삼스러이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과거 大陸國家였던 高句麗의 역사는 크게 후퇴하였고, 西歐의 近代와 그 東洋侵略은 大國 淸國이 大敗하여 日本은 遼東半島(大連, 旅順 등)와 臺灣까지도 점유하게 되어 黃海의 制海權을 획득하였다. 또한 새로이 부상하였던 러시아의 大敗는 우리국토 38線의 分割까지 논의하게 되었고 樺太半島의 南部分割 그리고 韓半島에서 日本의 정치, 군사, 경제적 우월권마저 포오츠머스(1905) 條約에서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한반도주변에서의 연전연승은 미국과 동맹조약 즉 桂-Taft 秘密條約(1905)에 의한 遠交近攻의 戰略인 國際的 協助가 크게 작용되었다. 한편 일본은 두 전쟁을 통해 大陸侵略의 要港獲得을 위한 制海權 確保의 목적을 달성하며 한반도침략에서도 釜山(1876), 元山(1880), 仁川(1883) 등의 要港을 차례로 개항하여 3海面의 侵略基地를 確保하고 나아가

서는 政治經濟的 대륙침략에까지 이르렀다.

일본이 한반도를 세력하에 공고히 두기 위해서는 韓半島 東·西·南部의 각 港口와 內陸背後地가 線으로 연결되어야 함으로 일본은 京仁線, 京釜線, 京義線, 京元線 및 咸鏡線 鐵道の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나아가서는 南滿洲鐵道와도 연결하여 대륙침략에 들어섰고 이들 鐵道線은 支線 혹은 幹線道路와도 연결되어 大陸勢力圈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이들 生命線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그리고 적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地上은 물론 海上에서도 安全性 確保 즉 軍港要塞地帶의 건설이 필요했다.

일본의 대륙침략의 루트는 일본에서 釜山-新義州 경유의 韓半島線, 다음으로 黃海湖水를 거쳐 大連, 遼東半島에 이르는 黃海線 그리고 日本 西海上에서 元山, 清津港 등 東海線의 3개 路線이 고려되었다. 이들 3개 대륙침탈 루트중에서 東海 루트가 최단거리이면서 또한 大蘇전략에도 필요하여 여기에 3面海水의 湖水化 戰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韓日海峽의 鎭海港만, 西海의 仁川 旅順 그리고 東海의 元山港과 연결된 永興灣의 要塞地帶 설치가 필요하였다. 결국 일본은 일찌기 개항을 서둘렀던 仁川, 釜山, 元山の 虎島半島周邊 3개항에 이어 이곳에 일본인의 居留民確保와 海上連結 아울러 鐵道敷設로 경제군사적 침략기반을 확고히 할 수가 있었다.

한편 일본의 근대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滿洲確保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1920년대부터 南農北工의 政策하 關北地方의 開拓鐵道敷設로 풍부한 수력 및 각종 지하자원의 개발에서 咸南 工業

地帶가 조성되어 전국에서 많은 노동자가 집중되었다. 興南은 1944년末 人口 14萬으로 市昇格 가능등 京仁工業地帶를 앞지르게 됨에 따라 東海는 실질적인 日本海[Japan Sea, Sea of Japan으로 불리어 海域뿐 만 아니라 소속국까지 의미하게 되는 고로 상호 깊은 관계가 있는 日, 露, 韓國간에 고유의 명칭변경이 1992년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왔다]가 되어버렸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했던 赴戰高原의 수력발전소 그리고 南滿州를 우리들의 수학여행코스라 택하지 않았는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 2) 要地侵奪을 위한 日本의 地下工作

淸日戰爭後 日本과 러시아 兩國은 韓半島와 滿洲에 있어 주도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露日戰爭에서 日本代表의 38° 線에 의한 分割占領이 제시되는가하면, 露國의 39° 線 分割제외마저 있던 가운데 日本의 挑發에 의한 로일전쟁은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여기에는 英·美國의 도움이 컸다.

일찌기 일본은 중국진출을 시도한 영국·불란서·독일·러시아 등의 植民工作에 뒤질세라 1870년대 부터 軍事情報機關인 陸軍參謀本部의 測量諜報要員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은밀한 정보 수집 및 軍事地形圖 作成을 하여왔다.

즉, 參謀本部의 佐·尉官급 專門將校 20여명을 간부로 이미 韓日合邦의 30여년전 三南地方의 釜山을 비롯하여, 1876~80년에는 서울 부근을 탐험하면서 정보수집, 측량지형도 작성을 하여왔다. 그 후 부산, 원산 부근을 花房公使와 前內 總領事가 高雄號艦으로 1879년 영흥만의 수심을 실측하였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참모요원은 2~300명에 5~60명의 韓人測量使까지 데리고 조사하였으며, 이미 明治時代 征韓論의 대두와 함께 對韓

諜報活動이 개시되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對政, 對機關工作까지 있었다하니 놀랄 일이다.

일본정부는 主要港의 조사에 이어 개항(원산 1879)과 거류민(1880 원산영사주재) 정주도 진행시키면서 원산, 진해만을 要塞地帶로서 대여해 줄 것을 王室에 강요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朝廷에서는 德原, 安邊 等地가 王家 陵寢(穆祖, 翼祖를 비롯하여 智陵淑陵등)의 곳이며 국가 崇奉의 重地이므로 계속 이를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여세를 몰아 伊藤博文이 初代統監으로 부임한 1905년에는 乙巳保護條約을 맺고 1906년 8월21일 영흥만은 진해항과 함께 軍事要塞地帶로서 일본에 대여되는 形便에 노이게 되었다. 당시 京釜線이 개통되고 國運의 退勢에 德原, 文川, 安邊 등지의 儒林들은 격분하여 반대시위를 하는 등 비통한 분위기였다. 그 후 일본은 1910년 한국국호를 폐지하고 조선으로 개칭하여 한일합방을 체결한 뒤 그해 10월 1일 영흥만을 軍事要港으로 하였으며, 1911년 1월 1일부로 일본정부는 永興要塞港 設定과 그 境域을 공포하고 보안을 위한 여러 주민생활의 규제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 3. 永興灣 및 虎島半島의 構造와 環境

국토의 자연조건은 그 자체 변하지 않지만, 거주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의미적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변한다.

대륙과 해양에 면한 한반도는 항해기술의 발달 및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발전 등으로 國力伸張의 不均衡에서 大陸勢力과

海洋帝國 간의 쟁탈전에 휘말리게 되었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종래 虎島半島는 남부가 末應島라는 큰 섬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곳은 李朝時代에 와서는 新浦港의 馬養島와 같은 말목장으로 이용되어 왔고 그후 350m이상의 산 봉우리는 烽燧台로서 定平和 文川地方간의 傳信役割을 하여왔다.

오늘날의 虎島半島는 안으로 영흥평야를 흐르는 龍興江, 高原 및 文川郡內를 흐르는 德池江과 箭灘江의 3강이 합쳐 堆積三角洲와 안으로 長致串灣과 咸口尾灣 및 陸繫島인 末應島와함께 그 내부에 松田灣를 안고 있다. 虎島半島는 남쪽 원산의 葛麻半島와 함께 大薪島, 小薪島, 茅島, 松島 등 大小 10여개의 섬들을 안고 넓은 영흥만을 형성한다. 호도반도는 대체로 큰 폭 3~400m, 길이는 남북, 약 17km의 고구마形 半島로서 좁은 斗武里에서 砂邊으로 연육되어 이곳에서 靑松이 무성하다.

虎島半島의 큰 남부山地에는 비교적 높은 약 360m의 高地(과거 봉수대)가 영흥만을 監視할 수 있는 眺望的 位置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灣內의 여러 섬 및 동해를 통과하는 내·외해의 선박동태를 眼下에 看視할 수 있었다. 한편 灣內가 광활한데다 도서지형이 복잡하여 함대의 은폐, 그리고 수심 10m에 外海의 풍파가 미치지 못하며 干滿의 差가 3尺以內로 冬季에 結氷되지 않아 함대정박에 유리하고 용수 또한 충분하여 천연의 艦隊要塞地帶로서 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일본제국은 軍事要塞地帶化 과정에서 통제가 간편한 半島部만을 行政上 群小里를 만들어 虎島面으로 분리하여 독립시켰다. 그리하여 軍施設이 있는 南部에 面사무소와 일찌기 小학교



(1913년 군내 세번째)를 둔 남부의 芳久美里와 함께 北部에도 경찰과출소와 시장, 학교(1926)를 둔 남·북 2개 중심지를 만들어 이곳들은 군사도로로 연결시켰다. 그 결과 이곳 남반부는 海面利用 爲主의 水産業을 주로 하여 海路를 이용, 원산시장과 거래하게 되고 또한 북반부는 농업위주의 주민생활로 농촌의 큰 정기시장이나 철도를 이용하여 함흥과 연결되는 동시에 호도반도는 남북을 연결하는 군사도로로서 잘 정비되어 있었다.

그 결과 新生 호도면은 軍特別管轄區域으로 제정, 영흥군내에서 면적, 인구, 경지 등에서 最小面으로 운용되어왔으며 住民私生活에 있어서는 軍規上 細則에 있어 外地人의 出入統制 機密保安 및 賦役動員 등으로 제약되어 있었다.

필자는 북부 소학교 4년제졸업까지 이곳 부모님 밑에서 지내고 그 이후 형님을 따라 함흥 등 외지생활을 하여왔기에 방학때만 이곳 고향에서 지냈다.

영흥만의 반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관계로 나의 소학교 시절 해변가 생활은 풍파가 미치지 않는 內海(안界)와 외해인 동해(밖계, 外界) 그리고 외해 砂丘로 생긴 潟湖(lagoon)의 3개 水面과 깊이 관련되어있다.

소학교 시절은 영흥만의 안계수면에 따라 약 5km거리의 학교를 매일 통학하였으므로 4계절 수면상의 변화를 보면서 놀고 즐겼다. 여름방학에는 종일 해변에서 낚시질과 수영을 하고 배타기도 하였으며 덩장어망을 들추기도 하여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 실로 바다는 식욕을 돋구어 주는 각종 어·패류가 계절마다 새로히 제공되었다. 또한 추운 겨울에는 염분이 적어 쉽게 얼어 붙는 석호의 빙판위로 스케이팅하던 추억은 나 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영흥만에는 전국 제일가는 일본인(橫山) 굴양식장이 있어서 자연산 굴따기를 둘러싸고 종종 분쟁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쌍방간에 법적 투쟁까지도 벌어졌다. 가을에는 생산이 많아 해삼, 피조개등과 함께 찌말려서 수출되기도 하였고, 군것질거리가 되었다.

둘째, 온화한 기후에다 특히 여름이 海風으로 선선하다. 원산의 기후는 위도에 비해 온난하여 겨울철 온도는 서울과 비슷하다. 다만 눈이 훨씬 많이 와 삼방스키장이 유명하였다. 1월 등 온선이 서울과 원산근처의 안변과 연결되어 있고 안변이 수원등과 함께 감나무의 生育限界 線內에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계는 虎島半島에는 해풍과 해류의 영향으로 훨씬 선선하며 때로는 바다에서 풍파로 수영조차 하기 힘들 경우도 있었다.

셋째 호도면의 자연환경은 계절마다 다양하고 특이하여 원산의 갈마반도와 같이 관광유양지로 적합하지만 출발부터가 시장 및 교통기관이 적은 군 통제의 要塞地여서 域內 주민생활마저 중학교과정 수학과 취업을 위해서는 주로 영흥읍시장이나 함흥, 원산市에 의존하게 되어 외지에 나가게 되었다.

이점에서 우리집 長兄이 同生들을 威興에서 工夫시키고 수명이 마을 근대화에 선구자가 되어서 小部落에서도 중학교과정을 수명이 마치게 되고 마을에 새 농기구를 도입하고 과수나무를 심어 낙원으로 만들고 마을 기풍을 바로 잡았음은 참으로 크나 큰 업적이 재삼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거주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도움이 될 이

곳에서의 추억 몇가지를 회상코저 한다.

우리집 이문집안은 일찍이 수학하여 학교장이 된 선배의 선도하에 소학교선생으로 외지에서 활동하고 후배들이 따라서 진학하게 되었다. 자식들이 외지에 나간 종가의 부친은 농지가 적은 이곳 사정으로 자식들 진학에 축우를 번식시켜 학비를 조달하였다. 소 소작격인 새끼떼기로서 많을 때는 근 40두가 되었으나 흉년이나 병이 들때는 우리집에 몰려들어 종우 포함 4~5두까지 길러야 되기도 하였다.

축우 관리의 경험 많은 부친은 半獸醫로서 치병도 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드렛일을 할 목동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나는 방학때면 목동 역할을 하여야 하였고 비오는 날이면 참 고달팠다. 또 평시 집안관리를 위해 여러가지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일가족을 고용하여 사랑채 부엌방에 거처케 하였다.

방학이면 ‘소메기기’에 동네 꼬마들과 같이 산으로 들로 또는 해변가로 몰고 나가 몇몇이 무리지어 감시반을 편성하여 교대로 감시케 한 뒤 나머지는 감자구이, 콩쌀기 또는 수영, 씨름놀이 등을 하였다. 놀다보면 소무리의 행방을 잃어버리면 비상을 걸어 몇 조로 나누어 탐색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어둠이 깔릴 때까지 찾지 못하다가 소가 망쳐버린 논밭주인이 나타나 소들은 송림속에 묶어 감금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여름 동해에 고등어 또는 정어리 큰떼가 지나갈 때 바다색깔이 달라지는데 온부락인 이 후리망으로 고기잡아 올리는데 우마차로 동원 저장할 소금마저 부족하여 저장 처분하지 못해 논바닥에 처 넣기도 하였다.

나의 고향 동해안은 한마디로 束草, 襄陽해변가 자연과 같다.

기나긴 해당화 만발한 白沙場에 海風을 맞이하여 기우러진 松林에 파도치는 해변 그것도 갈매기가 소리지르며 날아들고 다른 한편에는 오리떼가 오가는 湖水가 고요하면서 특이한 바다 냄새는 가슴에 박찬 바로 나의 고향 그것이다. 노경에 이르러 뻘뻘한 아파트 숲속에서 그리고 탁한 공기에 타오르는 포장도로를 메운 人波가운데서 神仙같은 해변가의 고향은 생각만 하여도 그리워지고 가고파진다.



입석리(立石里) 해금강

## 1991, 함흥에서



### 玄 鳳 學(23回)

1991년 6월, 40여년만에 다시 북한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1950년 12월 크리스마스 전날 밤, 홍남을 떠난 이후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고향과 고향 사람들, 북한의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떠난다는 설레임으로 나는 벌써 흥분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함흥에서 철수할 때의 피난민의 대열과 표정, 혹독한 추위와 모진 바람, 그리고 홍남부두에서 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초조한 얼굴들...

10만의 동포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다 합한다면 어림잡아 100만의 헤어진 이산가족이 생긴 셈이라 그제 늘 가슴이 환으로 멎히어 통일을 염원했던 나날들,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마음을 안고 나는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재일교포 의사 김만유박사가 86년 평양에 1천2백 병상의 병원을 지어 일본의 기계와 새로운 의료기재를 갖춘 현대식 병원을 지어 북한에 기증하여 91년 개원 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

게 가지게 되어 나는 김만유박사가 직접 초청해주어 평양에 가게 된 것이다.

그 전에 교포들이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몇 번이나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닿아서 이번에는 꼭 방문을 하리라고 준비를 서둘렀다.

시카고 의과대학의 김운범박사와 필라델피아의 실업가 장수철씨와 내가 가기로 결정되었다. 목적은 단순히 병원 창립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6월 하순에 예정대로 떠났다.

홍콩을 거쳐 북경에 도착한 다음 날 북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찾는데 미리 연락된 뒤라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었다. 여권에는 아무 것도 적지 않았다. 다른 용지에다 비자를 따로 발급해 주었다. 북한 입국 허가증을 받고나니 기분이 묘했다. 현실 같지가 않았다. 정말 평양에 가게 되는 것일까하는 의문도 일어나 다시 비자를 확인하곤 하였다.

우리는 다음 날 6월 25일, 북경 공항에서 평양으로 가는 조선 민항기에 올랐다. 북한의 승무원들이 수수하면서도 다정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을 때 비로소 평양행이 실감이 났다.

10일 동안의 북한 방문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김운범박사는 내 옆 자리에 앉아서 몹시 흥분되어 창문을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는 하였다. 그의 감개무량함을 가늠하며 내 가슴도 뛰어들었다.

우리가 탄 비행기 안에는 병원 개원 5주년 기념행사에 초청 받은 사람들이 50여명 타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일본 각지에 흩어져 사는 재일교포들이었다.

평양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북한 땅, 실로 감개무량하기 이룰데 없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넘게 걸렸다.

평양 순안 비행장에 내리니 해외 동포 영접부에서 나와서 입국 수속을 해주어 간단히 마치고 짐 검사는 국빈 대우를 받는 김만유박사의 일행이어서인지 하지 않았다.

우리 일행은 버스에 올랐다.

나는 평양에 왔다기보다는 40년동안 오지 못한 땅에 내렸다는 사실과 북한에 왔다는 것, 이 땅에 드디어 도착했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하며 사람들이 서로 왕래해야 대화를 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생각으로 기뻐했다. 무엇보다 이 기회의 고향 함흥에 가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어쩌면 아버지 묘소에 찾아갈 수도 있으리라. 또 남과 다른 것은 함흥 홍남 철수 때 일이 떠올라 홍남부두에 꼭 가보고 싶었다.

옆 자리의 김운범박사는 나보다 더 감회가 컸다. 그는 평양 근처 평성이 고향이었고 평양의전 졸업반때 혼자 월남하였다.

고향이란 지나치면서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그토록 감동적인 곳이었다. 더구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나이 들어 찾아온 고향 땅은 그대로 감격의 출렁거림이었다. 쉽게 올 수 있는 곳이라면 감동도 줄어들 것이련만...

평양 대동문을 지나면서 대동문은 옛 그대로 남아 있다고 좋아하였다. 그는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였다.

들떠있는 김박사를 보면서 산천은 옛 그대로인데 사람이 변

했다는 옛시가 떠올라 잠시 쓸쓸해졌다. 사람도 산천도. 변한 평양이었다.

평양 시내에 버스가 들어서자 안내원은 여기저기 장소를 설명하는데 보통문 외는 옛날과는 전혀 달라 알 수 없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나보다 하고 나름대로 추측도 해보았다. 평양의 지하철은 잘 발달되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자동차나 버스가 뜸했다.

45년전에 내가 1년간 머물 때 거리에 다니던 정도의 차량이 보일 뿐이었다. 그때는 일반 관청에서나 자동차가 있을 때였다. 이따금 벤츠가 지나가면 저것은 고관이 탄 자동차인가 보다하고 짐작하였다.

도로는 아주 넓고 깨끗했다. 서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큼직한 건물들이 서 있었다.

우리는 45층 쌍탑 빌딩으로 된 고려호텔에 투숙했다.

평양시내와 묘향산, 그리고 학술대회와 기념행사와 초대 등으로 바쁘게 1주일을 보낸 후에 드디어 나는 고향 함흥에 갈 수 있었다.

7월2일밤, 평양역에서 안내원과 함께 함흥행 기차를 탔다. 침대칸에 누워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차창 밖을 내다보곤 했다. 이따금 불빛이 보였다. 마을의 불빛들은 참으로 포근하게 보였다. 나는 여행길에 나서서 밤이 되면 불이 환하게 켜진 집들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객지를 떠도는데 불이 켜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이 호뭇하게 연상되기 때문이다.

고단하여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기차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 왔다. 역을 지날 때 잠깐씩 멈추는 것도 헤아렸다. 마음 속에는 다시 고향 땅에 간다는 벅찬 기쁨으로 환희가 넘쳤고 가슴이 설레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길기만 하던 기차 여행은 새벽에 끝났다. 5시반 경에 기차는 함흥에 도착했다. 영흥과 정평을 지날 무렵에는 귀에 익은 지명들이라 감회가 깊어왔다. 친구 한 신과 이한순의 고향인 영흥을 지나며 같이 울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동녘이 밝아오고 만세교가 보였다. 만세교 아래 철교를 지날 때 나는 만세교를 감격으로 바라보았다. 함흥의 상징인 만세교는 옛 것이 아니라 새로 가설된 다리였다. 그 전의 다리는 6·25때 파괴되어 기둥만 남아 있었다.

성천강물은 질푸르게 흘렀다. 어린 시절 강에서 놀던 그때의 빛깔로 흘렀다. 그리고 만세교 건너편의 언덕이 보이고 우리가 살았던 낙민동의 기슭이 어렴풋이 보였다. 심장은 소리를 내며 뛰었다.

자동차로 호텔에 갔다. 4층 호텔은 썰렁했다. 커피를 마시고 싶었으나 없다고 했다. 이른 시간이라 한시간쯤 기다려 아침을 먹었다. 아주 고단했다. 기차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척 긴장하고 흥분된 뒤라 함흥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피곤이 몰려왔다.

안내원에게 함흥 의대에 갈 수 없느냐고 물으니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아 안된다는 것이다. 연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를 볼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내 의학 저서 두 권과 의료 기재와 자료들을 함흥 의대에 기증하려고 가지고 왔으니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으나 곤란하다고만 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기 위해 공동묘지로 갔다. 길을 잘 아는 함흥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갔는데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화장터가 있었던 곳에 가보아도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언덕에 올라서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알 수 없었다. 동생 피터는 71년에 여기와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나는 몇 시간을 헤메어도 끝내 찾을 수 없어서 허탈해하며 뒤돌아서야 했다. 아버님에게 송구스러웠다. 근처까지 와서 불민한 아들은 그 묘소조차 찾을 수 없어 죄책감이 일었다. 안내원은 다음에 다시 온다면 그때는 꼭 찾아놓겠다고 나를 위로했다.

나는 홍남에 꼭 가보고 싶다고 강조했다니 홍남은 지금은 함흥시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공업지대여서 외국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서호진에 가서 점심을 먹고 홍남을 바라보기만 하자고 한다.

함흥에서 홍남으로 가는 길은 넓게 띄어 있었다. 함주 평야를 지나면서 나는 석탄 연탄 사업으로 성공한 이장균, 유성연 두 삼천리 회장을 생각했다. 입지적인 인물로 함주군이 고향이며 서울에서 사업으로 성공했다. 그들의 입지전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감동하여 연락을 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여기 같이 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하는 생각에 혼자만 고향을 찾아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함흥서 10리쯤가니 본궁이 나왔다. 차를 세우고 본궁이 보이는 곳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그곳은 바로 내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동해쪽으로 달려가니 오른쪽에 홍남의 공장들이 많이 보였지

만 활발하게 가동되지 않는 것 같았다.

서호진에 도착하여 그 옛적 보았던 큰 섬과 작은 섬 사이로 멀리 건너의 홍남을 보았다. 홍남부두에는 작은배 몇 척이 떠 있는데 쓸쓸해 보였다. 1950년의 12월이 뭉클 다가왔다. 그때 10만명의 피난민을 11척의 LST에 태워 거제도도로 이송했을 때의 추억이 새로와졌다.

서호진, 국민학교 때 해수욕을 하기 위해 월사금으로 기차를 탔던 그 어린애가 이제는 흰머리를 날리며 그 바다를 내려다 본다. 어린 날에 벅찬 감동으로 안았던 바다, 물결, 파도, 햇살들... 아버지의 회초리와 무서운 얼굴, 환상처럼 아름다운 바다에서 나는 회상의 바다를 만들어갔다. 모든 언어를 잃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난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보상도 치를 수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도 엄격했던 어머니도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서호진 해변에서 좀더 간 곳에 마전리 해수욕장이 새로 생겨 있었다. 모래가 곱고 물이 아주 맑았다. 주변에는 아름답게 공원이 조성되어 피서지로서는 최고였다. 점심을 먹는데 털게 요리가 나왔다. 수십년만에 털게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털게는 이곳에만 나는 특산물이다. 맛있게 먹으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이 털게 요리를 잘 하셨고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기억이 새록해진다.

다시 함흥으로 돌아와서 함흥고보에 가보니 옛 건물은 3층 건물로 변했다. 내가 연습했던 정구장은 없어졌고 지금은 고보가 아니라 함흥 사범학교가 되어 있었다. 이 학교를 같이 다녔던 수재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우리 23기생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모두 같이 몰려와 옛 교실에서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하며 떠들고 싶었다. ‘정말 우리 고향엘 갈 것 같아?’라며 만나면 서로 확인이라도 하듯 되묻곤하던 흰머리의 친구들...

다음에 간 곳은 운흥리에 있는 영생고보였다. 영학 형과 동생 시학과 웅이 다녔던 학교이다. 영생고보는 많이 변모해 있었다. 운동장 구석에 400년 넘는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전 날의 학교 모습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모교인 학교를 둘러보는데 자꾸만 눈 앞이 흐려왔다. 나이 많은 학생으로 고향하며 학교에 다녔던 아버지의 고뇌가 떠올랐다.

박재인의 집이 운흥리에 있었는데 동네가 완전히 달라져 찾을 수가 없었다.

다음에는 반룡산으로 올라가 보았다. 아버지가 10년이나 아래였던 동급생 친구 김사익선생, 김상필선생과 함께 오르내렸던 산 기슭으로 향하다가 보니 낙민동 언덕에 있었던 영생소학교와 영생고녀, 제혜병원, 선교사들의 집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 자리에는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집이 있었던 곳에는 김일성동상이 크게 서 있다. 나는 안내원에게 내가 살던 집은 없어졌지만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상을 가리키며 저 곳에 우리 집이 있었노라고 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잃어버린 것들, 없어진 것들은 건물만이 아니었다. 회색 2층 집 한 채가 언덕에 남아 있어서 내려가보니 아버지가 늦은 공부를 하며 물지게를 지고 오르내리며 학비를 벌며 고향을 했던 바로 스콧트박사가 살던 집이었다. 그 주위는 사과 과수원이 있었고 어린 우리들은 철조망 사이로 몰래 들어가 사과 서리의

스릴을 즐기곤 하였다. 훌륭한 선교사였고 교육자였던 스콧 박사가 지금 나와 같이 저 옛집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감격해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반룡산 구룡각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니 길이 깨끗하게 잘 다듬어져 있어 보기 좋았다. 노인 넷이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나가니 한 사람이 카메라를 든 내 모습이 생소했던지 어디서 왔느냐고 말을 걸었다.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미국서 살다가 왔노라고 했다. 74살의 그는 6·25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남미로 이민을 떠났고 그후 자녀들이 미국에 정착하자 그도 미국에서 살다가 고향 함흥 땅에 꼭 뼈를 묻겠다고 3년전에 북한으로 와서 함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내와 자식을 뉴욕에 두고 혼자 건너왔다는 그에게 나는 흥미를 느꼈다. 아주 유쾌한 그를 만나서 내 기분도 상쾌해졌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때 고향 땅에 묻힌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 빨리 이룩되어 이산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기를 더욱 갈망하며 나는 그와 헤어져 산을 내려왔다.

뉴욕에 사는 그의 자녀에게 전화를 하여 안부를 전해주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는 함흥에서 허용된 내 시간 동안 6·25때 함흥철수시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뛰어다니며 역으로 나오라고 연락했던 그 길을 따라서 가보고 싶었다. 중앙교회에도 남부교회에도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었다.

초여름날은 점점 어두워오고 호텔로 돌아가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그날 아침에 안내원에게 함흥 의대를 방문할 수 없다면 확장

이나 병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저녁에 두분이 나를 만나러 와 주었다.

내 소개를 한 뒤에 함흥 의대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교재와 내가 쓴 책과 체온계, 청진기 등 몇개를 전했다. 학교 시설이나 운영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만족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분단의 시간이 길어 말이나 용어가 달라져 알아 듣지 못하는 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였다.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두 사람은 돌아갔다.

나는 안내원과 같이 역으로 나가 11시 밤기차에 올랐다.

홍남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북한 땅, 홍남이 함흥과 병합되고, 내가 태어난 성진 역시 김책을 기념하여 김책시로 이름이 바뀌어버렸다.

함흥역을 서서히 벗어나는 기차 안에서 나는 피곤한 몸을 길게 누이며 언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렇게 총총히 떠나지 말고 한가롭게 함흥을 거닐며 며칠이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바랐다.

눈을 떠보니 새벽이 뿌옇게 밝아온다. 부지런한 농부들이 벌써 들에 나가는 모습이 달리는 차창 밖으로 보인다. 옷차림이 초라해 보였다.

김윤범박사는 가족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평성으로 갔다.

평성에는 동생 넷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단신 월남한 김박사는 그들을 만나 얼싸안고 울었다. 그런데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그의 어머니는 3년전에 돌아가셨고 그는 통곡하며 땅을 쳤다.

3년전이라면 북한에 갈 수 있던 때였다. 가족 방문이 허용되고 있던 때여서 나는 그에게 북한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국제적인 면역학자여서 이리저리 사정만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때 갔더라면 어머니 생전에 만나 뵈 수 있었으려면, 그는 회한으로 어머니 무덤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었다.

면역학자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성공했다는 사실을 그 어머니가 아셨다면 평생의 한이 보상될 수도 있었으려면 동생들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해 들은 그는 오열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죄책감과 불효를 한 것에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이산가족이 꼭 만나야 함을 다시 한번 더 절감했다. 이산 가족을 만든 일말의 책임이 있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길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했다.

김박사의 모습은 바로 재미 의사 정동규 박사의 “3일의 약속”의 재현이었다. 내가 그 책을 읽고 그렇게 감동하여 눈물이 났는데 김윤범박사의 일을 보며 바로 현실로 인식되어 더욱 가슴이 쓰라렸다.

정동규 박사는 어머니에게 3일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피난을 간 길이 영영 헤어지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먼 훗날 어렵게 어렵게 고향을 찾아갔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는 없었다. 정박사가 터뜨린 오열은 바로 김윤범박사의 오열이 되었다. 어디 김윤범박사 뿐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

한에 어머니를 두고, 부모와 형제를 두고 회한의 세월을 한과 눈물로 보내고 있을까.

“남북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모든 국민의 염원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통일의 가장 가까운 길은 우리 동족이 사상적, 정치적 국경을 넘어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데 있다.

정동규 박사의 “3일의 약속”은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양심을 다시 깨우쳐 주고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더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크나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나는 영어판 “3일의 약속”을 읽은 후에 몇 해 전 교포 신문에 글을 썼다.

열흘 간의 북한 방문으로 나는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었다. 비행기가 평양 순안에서 이륙했을 때 나는 ‘이것이 출발이다. 이제 앞으로 좀더 길이 트일 것이다. 또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 되는 날을 간절히 염원했다.

김윤범박사의 눈은 흠뻑 젖어 있었고 나는 눈을 유리창 밖으로 돌리어 북한의 산하를 내려다 보았다.





## 美國旅行記의 二題



朴 昌 均(23回)

### 美國旅行記

1936年 4月6日 入學式을 치루고, 나는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에 入學하였다. 4月6日 入學式날이라는 것을 오늘날까지 記憶하고 있는 것은 이날이 마침 寒食날이기 때문이다. 아침일찍 山에 모신 할아버지 山所에 家族同伴하여 省墓하고와서 아침 食事を 마치고 처음 입어보는 校服을 입고 三線박이 校帽를 쓰고 징박은 구두를 신고 터벅터벅 걸어서 長興驛에 나가(長興驛—西咸興驛, 間 汽車通學) 汽車를 타고 登校하여 入學式을 마치고 一學年 乙組로 編成되어 처음 自己教室에 들어가서 擔任—色忠夫先生이 學生手帖을 配分하고 校則을 說明하던일이 어제 그제같은데 벌써 近 60年 歲月이 흐르게 되었다. 老境에 이른 나로서는 美國旅行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生覺으로 旅行手續을 하게 되었다. 寬鐵洞에 있는 旅行社職員과 함께 1993年 2月26日 具備書類를 가지고 美國大使館에 가서 提出하고 비자(入國查證)申請하였다. 비자 申請者가 普通때에는 室內에는 勿論 正門外까지 長蛇陣을 치고 順番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날

은 季節이 조금 이른 탓인지 室內에만 滿員(約 80名)을 이루고 있어 約 1時間이나 기다려서 書類를 接受시켰다.

이렇게 每日같이 海外旅行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其中에 나도한사람 끼우게 되었다. 3月 4日에 美國 비자를 大使館에서 發給받았다. 外務部에서 發給되는 旅券은 2月22日나왔다. 이리하여 美國旅行할 諸般手續은 完了되었다. 3月12日 旅行社에 가서 飛行機豫約을 마치고 航空券를 購入하였다. 이때 單獨海外旅行關係로 諸般案內를 付託하기 爲해서 大韓航空社에 特別案內를 要請하였다. 飛行機는 3月26日 大韓航空 002機11時30分 金浦空港發이었다. 이리하여 美國 南部都市 아틀란타市에 있는 TSI社(電子製品生産)에 勤務하는 長男집에 가게 되었다. 3月26日 金浦空港에서 次男의 餞送을 받으며 出國 審査를 마치고 出口를 나와 飛行機搭乘口앞에 있는 待機室에 왔다. 暫時 기다리다가 11時에 飛行機에 搭乘하여 指定된 座席에 앉았다. 定刻 11時30分에 飛行機는 移動하기 始作하여 約 20分後에 離陸할 滑走路에 到着하여 3分後 管制塔의 離陸指令에 따라 速力を 내면서 前進하다 約 10分後 離陸하였다. 30分 可量이나 上昇하여 飛行機는 正常航路에 進入하였다. 이렇게 거의 10分마다 飛行機는 離陸하여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飛行機가 離陸할때 不安感을 걱정하였으나 生覺보다 安全하였다. 高空에 올라가 창밖을 내다보니 날씨가 흐려 구름 바다만 보일 뿐이었다. 12時 좀 지나 機內食事が 提供되어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다. 緊張한 탓인지 食慾이 별로 없어 조금만 먹고 말았다. 約 1時間30分後 13時에 日本나리다空港에 到着하였다. 日本은 距離上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다시금 實感하였다. 飛行機

에서나와 다음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大韓航空機待期室로 가는데 한참 돌아다녔다. 마침 日本語가 通하여 많이 도움이 되었다. 1時間餘 기다려 大韓航空 002機에 搭乘하여 서울에서 指定된 座席에 다시 앉았다. 서울에서 同乘한 外國人을 만나 目禮하였다. 飛行機는 定刻 14時55분에 出發하기 始作하여 서울에서 出發할때와 同一한 順序로 離陸하였다. 約1時間後 飛行機는 正常航路에 進入하여 飛行하고 있었다. 이때 機長이 機體의 高度 11,000m, 時速 930km라고 機內放送하였다. 窓外를 바라보니 太平洋上空을 飛行하고 있을 것이나 雲海關係로 다른 物體는 全然 볼 수 없고 但只 飛行機날개와 엔진이 唯一한 同伴者였다. 機體는 生覺보다 安全하였다. 컵안에 飲料水는 조금도 波動없이 靜止된 狀態였다. 그리고 氣流變動이 있을 때마다 機體가 5分乃至 10分程度 不安하게 震動하였다. 이때 若干의 恐怖感이 있었으나 이것도 여러번 體驗하니 別 問題가 아니었다. 이때마다 機長이 氣流變動에 對하여 乘客을 安心시키기 爲한 機內放送을 하곤 하였다. 機內座席은 後尾가 震動이 甚하였다(吸煙者는 後尾가 指定席). 두차례의 飲食提供과 本人希望에 따라 飲料水와 酒類供給은 隨時로 있었다. 그래서 먹으며 마시며 자며 깨며하여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가 있었다. 비디오도 두편이나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日本을 出發하여 13時間이나 太平洋上空을 夜間 飛行하여 날이 밝으면서 로스앤젤레스空港에 定時인 3月26日 7時20分(LA時間)에 到着하였다. 機內男女職員들의 離別人事를 받으면서 機內에서 나와서 複道로 나오니 로스앤젤레스大韓航空支社女職員이 나의 이름을 쓴 종이 쪽지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얼른 그 女職員앞에 갔더니 自己가 特別案内員

이라고 하면서 案内함으로 이때부터 美國入國審査에서부터 아트란타로 가는 待合室에 가서 飛行機에 搭乘할 때까지의 모든 節次를 親切하게 案内받아 순조롭게 旅行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에서 飛行機豫約時 特別案内를 要請한 까닭이다. 案内料금도 航空料에 包含되어 支拂하였다. 美國入國審査는 相當히 複雜하였다. 다음 로스앤젤레스에서 아트란타로 가는 飛行機델타 178號機에 搭乘하여 豫定된 時間대로 10時50분에 出發하여 離陸하였다. 여전히 창밖은 雲海로 보이지 않고 但只 飛行機날개와 엔진만 보일 뿐이었다. 구름狀態는 雲海라기 보다 巨大한 구름山脈을 이루고 있었다. 機內에서 1回の 食사와 數次的 飲料水 供給을 받으면서 4時間만에 아트란타飛行場に 豫定대로 17時56분에 着陸하였다. 飛行機가 着陸으로 下降할 때 비로서 陸地가 보이기 始作하였다. 이때 第一 먼저 視野에 들어온 것은 廣大한 駐車場에 車가 櫛比하여 駐車하고 있는 觀景이며 둘째로는 울창한 樹林이었다. 우리나라처럼 建物사이에 樹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樹林사이에 建物이 있는 것이다. 西에서 부터 東으로 가는 大陸橫斷에 無慮 4時間이나 所要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美大陸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오는 途中에 機內食사는 洋食이 供給되어 食事方法을 잘 모름으로 옆자리 美國婦人이 하는대로 食事하였다. 그랬더니 그 美國婦人도 初行者라는 것을 알았던지 機內에서 내릴때 旅行가방도 챙겨주며 相當히 親切하게 代해주었다.

飛行機는 着陸한 다음 서서히 移動하여 出入口에 到着하더니 出入門이 열리면서 乘客들은 男女乘務員들의 餞送을 받으면서 機內에서 나가기 始作하였다. 待合室앞에 나오니 長男 며느리

孫子孫女 온家族이 마중나왔다. 나는 비로서 安堵感을 느꼈다. 마음속으로 感激의 喊聲을 지르면서 반갑게 맞았다. 特히 孫子와 孫女는 幼年期를 벗어나 少年期에 접어 들어 思春期에 이르러서 얼마나 컸는지 얼굴도 잘 모를 程度였다.

못본지 三年餘되었는데 이렇게도 많이 成長한 것이다. 待合室을 나와 地下鐵을 타고 駐車場에 와서 長男車를 타고 約1時間後 집에 到着하였다. 오는 途中에 信號燈을 못보았으며 信號로 因하여 停車한 일도 없고 繼續 時速 90km로 달려 왔던 것이다. 이것은 韓國과는 比較도 할 수 없는 全然 判異한 現狀이다. 그렇다고 하여 車가 적은 것도 아니다 10次線道路에 거의 연달아 進行하고 있었다. 이렇게 美國은 交通秩序와 道路網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다보니 道路兩便은 全部 나무숲이고 집도 別로 보이지 않으며 農場은 全然볼 수 없었다. 旅裝을 풀고 飯酒를 들고 旅行中 쌓인 疲勞를 풀었다.

3月27日是 土曜日이어서 學校나 職場이 休日이다.

美國에서는 土曜日도 休일로 定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 食事後 全家族이 居室에 모여 歡談하였다. 午後에는 孫子孫女들을 데리고 아범과 함께 自動車로 30分程度의 距離에 있는 發電所 貯水地에 가서 낚시를 하였다. 發電所退水가 흐르는데는 水溫이 높아서 송어가 있다고 하여 美國인들이 많이 와서 송어낚시하고 있었다. 가서 보았더니 바구니가 비어있어 잘 안잡히는 模樣이었다. 우리들은 場所를 옮겨서 貯水池로 갔다. 댐을 築造하여 막은 廣濶한 湖水여서 多數의 美國인들이 보트를 타며 놀고 있었다. 湖水邊에 자리잡고 잉어낚시하기 始作하였다. 잉어는 草食魚類임으로 植物性미끼를 끼워서 遠距離에 던지고 1時間이나

기다려도 消息이 없었다. 때는 午後6時이며 이슬비도 오고 있어 슬슬 갈 準備를 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낚시대가 끌리면서 消息이 왔다. 낚시줄에 感覺이 세계 옴으로 큰 物體가 걸린 것은 틀림없었다. 힘껏 잡아당겨 낚아 올렸더니 全長 50cm나 되는 큰 잉어였다. 집에 가지고와서 잉어湯을 끓여 飽食하였다. 美國人은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韓國에서는 잉어를 補藥으로 여기고 있다.

湖水周圍에서 成長하는 樹林을 보면 全部 垂直으로 成長하여 木材로서의 價値가 充分하였다.

住宅近處 道路邊 山溪谷 어디가든지 同一하게 垂直으로 成長하는 特徵이 있었다. 樹種은 95%以上 美松이며 樹齡은 30年에서 50年이며 株間距離 30cm程度밖에 안되는 密林이었으며 樹高는 大部分 20m以上이다.

3月28日 日曜日 10時에 出發하여 온 家族이 自動車로 1時間이나 걸려 天主敎聖堂에 갔다. 韓國人聖堂이라하여 아트란타에 居住하는 韓人敎인들이 約 150名程度 모였다. 宗教를 믿지 않는 나로서는 別로 實感이 나지 않았다. 聖堂은 禮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韓人끼리의 社交場役割도 하였다. 禮拜가 끝나고 中國집에가서 點心먹고 車로 約30分 距離에 있는 觀光地 Stone mount(石山)에 가서 觀光하였다. 이곳은 美國南北戰爭時의 遺跡地였다. 博物館에 들어가보니 南北戰爭當時의 遺物들이 展示되어 있었다. 주로 銃劍大砲等武器類와 軍服階級章 등이 陳列되었다. Stone mount는 서울에 仁旺山程度 높이며 山둘레도 비슷하였다. 前面에는 南北戰爭戰時 功이 많은 將軍들의 三人騎馬像이 彫刻되어 있었으며 人物像크기는 귀(耳)하나가 普通사람크

기만하니 과히全體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0分이나 所要되어 徒歩로 山頂上에 오르니 아트란타全市街地가 보였다. 高層建物は 別로 보이지 않고 푸른 樹林만 보였다. 山은 이름 그대로 完全히 돌로 된 山으로서 赤褐色硅岩系統의 바위山이다. 山全體가 풀한포기 나무한그루 날수 없는 完全한 바위덩어리였다.

3月29日 月曜日 아침 9時出發하여 接近處를 散策하였다. 通學生車關係로 相當히 交通이 繁雜하였다. 高等學校學生이 自己車를 타고 通學하기 때문이다.

韓國은 大學生도 交通量이 많아 自家用通學을 禁하고 있는 形便이다. 散策하면서 첫째로 느낀것은 한사람도 길을 걸어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自己車를 타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웃간에 接觸도 全然없으며 사람 來往하는 것도 볼 수 없었다. 完全히 自己만의 生活을 즐기고 있었다. 둘째로는 住宅外貌가 大部分 同一한 까닭에 처음 돌아다니는 사람은 집을 찾기 困難한 점이다. 洞內길은 마치 迷路처럼 되어 있어 番地數를 알고도 찾아가기 힘들었다. 住宅은 大部分 二層으로 되었으며 집크기 색깔 窓門模樣 車庫 花園等 거의 同一하였다. 나는 이날 洞內를 散策하다가 얼마가지도 않아서 다시 돌아오고자 하였으나 迷路를 헤매다가 거의 1時間만에 겨우 집에 찾아왔다. 住宅街에는 구멍가게나 公衆電話가 없음으로 물어볼 수는 到底히 없는 것이다. 午後에는 農水産物수퍼마켓에 가서 求景하면서 果實 菜蔬等을 사가지고 왔다. 슈퍼마켓 앞에 駐車場은 슈퍼마켓 建物보다 더 廣大하였다. 建物 및 駐車場 周圍에 심은 벚꽃나무는 꽃이 滿發하여 아주 壯觀이었다. 韓國보다 20日이나 빨리 開化한것이다. 美國 南部地方이어서 겨울에도 氣溫

이 零下로 떨어지는 날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슈퍼마켓 內部는 大端히 雄壯하였으며 이름모를 果實 菜蔬가 山積되어 있었다. 一般商店은 볼 수 없고 生活必需品은 全部 슈퍼마켓에서 購入하고 있었다.

3月31일 水曜日은 아틀란타市內 繁華街를 觀光하였다. 地下鐵驛前 駐車場에 駐車하고 地下鐵을 탔다.

賣票에서부터 乘車下車까지 驛務員은 볼 수 없고 全部 自動式이었으며 但只 볼 수 있는 職員은 電動車를 運轉하는 機關士 뿐이었다. 乘車하고보니 손님은 얼마 없고 거의 빈車였으며 黑人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白人과 同席하지 않고 自己들 黑人끼리만 모여 앉아 가고 있었다. 한참가다가 다운타운驛에 下車하였다. 이곳은 市內에서 이름있는 繁華街라고 하였다. 市廳을 바라보았더니 지붕이 黃金色으로 되어 대단히 豪華燦爛하였다. 實際 金으로 칠하였다한다. 길가에는 黑人들이 많이 보였다. 黑人과 白人과의 外貌差異는 韓國에서 보기보다 더욱더 差異가 甚하였다. 그래서 劣等感으로 黑人들은 白人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模樣이었다. 創造主는 참으로 不公平하게 人間을 創造하였다고 나는 生覺하였다. 이런 生覺하면서 한참 가다가 코카콜라 博物館에 到着하여 入場하였다. 全世界的으로 有名 國家의 코카콜라는 全部展示되어 試食할 수 있었다. 콜라歷史館을 돌아보고 참으로 美國式巨大함을 볼 수 있었다. 中國大陸에 제일 먼저 進出한 企業이 코카콜라會社라고 한다. 다음은 有名百貨店을 가보았다. 建物は 韓國처럼 高層建물이 아니고 二層建물이었으며 平面으로 相當한 넓은 面積을 차지하고 있었다.

땅이 넓어 建築費가 많이 드는 高層建物を 建築할 必要性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附屬駐車場은 建物垜地面績보다 더 廣大하였다. 內部에 陳列된 物件은 韓國과 別 差異가 없으며 韓國産 신발 時計도 陳列臺에 있었다. 한가지 다른 점은 어떠한 物件을 사든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1個月以內에 領收證과 物件을 가지고오면 다른 物件과 交換하든지 마음에 드는 物件이 없으면 現金으로 돌려준다고 하였다. 참으로 消費者爲主의 販賣方法이다. 韓國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生覺된다. 市內繁華街를 車를 타고 돌아보니 交通滯症은 볼 수 없으며 步行者도 別로 많지 않았다. 運轉者는 恒時사람을 먼저 通過시키고 난 다음 車가 지나가는 것이 體質化되어 있었다. 이 點 韓國과는 完全히 事情이 다르다.

4月3日 土曜日 아침 9時 出發하여 2時間 距離에 있는 차 타 누우가市에 가서 루비瀑布洞窟 Rock City, 터네시 水族館等を 求景하였다. 루비瀑布洞窟은 우리나라蔚珍聖留窟과 마찬가지로 石灰岩洞窟로서 空氣中에 炭酸가스가 물에 吸收되어 炭酸水로 變하여 石灰岩地帶地下로 숨어들어 數億年이나 되는 長久한 歲月을 지나면서 흐르는 사이에 石灰石이 鎔解되어 巨大한 洞窟이 生成되었는데 이때 고드름처럼 天井에서 아래로 向하여 자라는 것을 鍾乳石이라하고 땅에서부터 天井을 向하여 자라는 것을 대나무순과 같다하여 石筍이라한다. 鍾乳石과 石筍이 서로 자라서 붙은 것을 石柱라하는데 이것 모두 生成原理는 물에 石灰分이 녹아 떨어지는 사이에 石灰分이 乾固되어 生成되는 것이다.

루비瀑布洞窟은 聖留窟보다 全體的으로 規模는 若干 적으나 80m나 되는 地下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들어가는 것

이 特異하며 洞窟막장에 들어가서는 높이 15m나 되는 天井에서 떨어지는 瀑布는 水量이 豊富하여 마치 人工瀑布와 같았으며 아주 壯觀이었다. 鍾乳石과 石筍은 窟內一部에만 生成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聖留窟은 이에 比하여 窟內部가 狹트여 大端히 넓으며 鍾乳石과 石筍이 아기자기하게 그 模樣을 달리하여 窟內部에 全般的으로 生成되어 壯觀을 이루고 있는 點이 다르다.

Rock City는 이름 그대로 바위都市다. 自然의 造化로 生成된 깊고 狹小한 바위溪谷이며 깊이는 70m以上이나되고 한사람이 通過할 수 있는 通路가 人工을 加하여 마치 개미굴처럼 造成되어 內部를 돌아다니는데 約1時間이나 所要되었다. 下層中層上層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通路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볼거리가 많았다. 上層部로 가는 通路에 구름다리가 있어 나는 眩氣症이 나서 구름다리로 안가고 迂廻道路로 왔다. 絶壁欄干에서서 차타누우가市街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테니스水族館은 참으로 巨大한 規模의 建造物이었다. 自然岩石 絶壁을 移用하여 人工의으로 造成된 水族館이며 海水魚 淡水魚를 網羅한 稀貴魚種 및 악어 거북等各種水生動物을 기르면서 觀覽시키고 있었다.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한참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돌아서 漸次아래로 내려오면서 求景하였는데 第一 印象깊은 것은 海水에서 棲息하는 상어와 淡水에서 棲息하는 잉어의 飼料捕食方法이다. 상어는 浮遊하고 있는 動物性飼料를 捕獲하고 잉어는 地面에 있는 植物性飼料를 모래와 함께 吸入하여 모래만 아가미로 排出하고 있었다.

太公들은 많은 參考가 되리라고 生覺한다. 其外自然博物館 動

物園 各種 紀念館等 여러 個所를 觀光案内를 받았으나 紙面關係로 省略하고 旅行所感を 簡單히 적어본다.

美國은 西에서 東으로가는 飛行時間이 4時間以上 所要된다. 서울에서 東海를 지나 日本나라다空港까지는 飛行時間이 1時間 30分 所要되는데 比하면 얼마나 廣大한 大陸이라는 것을 實感하였다.

이러한 大陸에서 成長한 탓인지 美國人들은 대단히 悠悠自適하여 樂天的이었다. 韓國사람처럼 서로 앞서고져 아귀다툼하는 일도 없고 男兒選好라든가 老後生活을 憂慮하는 일도 없는 것이다. 公園散策이나 觀光地에서나 어디가서든지 儉素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成人은 95%以上 썬그라스를 쓰고 모자는 쓰지 않았다. 法秩序를 잘 지키며 他人에게 被害주는 일도 없고 오직 自己만의 生活을 즐기고 있었다.

3月26日부터 4月16日까지 22日間 美國旅行을 마치고 오늘아침 歸國길에 올랐다. 집에서부터 아트란타飛行場까지 約1時間 所要되는데 오는 途中暫時도 停車한 일없이 繼續時速 90km로 달려오게 되어 매우 爽快하였다. 出國手續을 끝마치고 長男과 헤어져서 出口로 나와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飛行機 델타(DL) 1565號機에 搭乘하였다. 8時37分 離陸豫定이었으나 整備不良으로 再點檢에 約 1時間 所要되어 9時 40分에 離陸하였다. 1時間 程度 飛行하니 하늘은 快適하여 地上의 景致를 10,000m上空에서 仔細히 볼 수 있었다. 나는 마침 窓 옆 座席에 配定되어 外部景觀을 바라보는데 有利하였다. 密林과 整地된 農地와 人家도 잘 보였다. 約 1時間飛行하니 沙漠地帶가 나타났다. 나무한그루 풀한포기없는 모래언덕과 모래溪谷이 보일 따름이다. 高空에서

바라보아도 沙漠은 끝을 헤아릴 수 없었다. 2時間 가까이 飛行하니 비로서 沙漠의 끝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人工湖水도 있고 農地도 廣大하게 開墾되어 있었다. 이곳을 지나니 美國의 太平洋 沿岸쪽으로 南北으로 뻗은 록키山脈이 나타났다. 4000m以上되는 高峰에는 白雪이 쌓여 있었다. 機長은 일부러 白雪이 쌓인 山峰을 觀覽시키기 爲해서 록키山脈上空을 飛行하다가 다시 方向을 바꾸어 로스앤젤레스로 向하여 約 30分後 空港에 着陸하였다. 沙漠橫斷에 2時間이나 飛行하였던 것이다. 大韓航空女職員의 案内를 받아 待期室에서 1時間이나 待期하다 KE17機에 搭乘하였다. 飛行機는 定刻 12時20分에 出發하여 祖國 大韓民國을 向하였다. 飛行航路는 美國北쪽 海岸을 거쳐 아라스가 海岸을 지나 베링海 오즈구海를 通過하여 太平洋쪽 日本 北海道 海岸을 지나 日本 列島 中間인 東京上空을 通過하여 東海를 거쳐 大韓民國 蔚山上空으로 入國하여 大邱上空을 지나 金浦空港에 着陸하였다. 이 航路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울에 오는 最短距離라고 하였다. 飛行時間은 12時間20分 所要되었다. 飛行航路는 機內스크린에 繼續나타나서 現在 飛行機 位置를 乘客에게 알리고 있어 仔細히 볼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飛行機 高度 速度 外氣溫度도 알 수 있었다. 베링海 日附變更線 上空에 와서는 高度 10,972m(36,000ft) 時速 968km 外氣溫度  $-69^{\circ}\text{C}$ 로 나타났다. 스크린에 나타난 最高 最速 最低記錄이다. 이리하여 12時間餘 機內에서 먹으며 마시며 자며 깨며 하여 別로 지루하지 않게 지내다가 金浦空港에 午後 5時15分 定時에 到着하였다. 太陽과 飛行機가 同一한 方向으로 進行하여 繼續 晝間에만 飛行하였다. 入國手續을 마치고 待合室에나와 次男의 歡迎을 받으

면서 歸家하였다. 이리하여 美國旅行을 無事히 끝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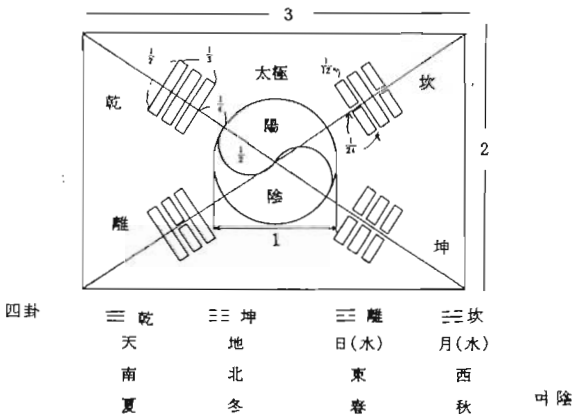
### 題一 太極旗

太極旗는 宇宙創造에서 生成消滅에 이르는 奧妙不可思議한 大宇宙造化를 圖形化한 最高傑作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國旗로서 世界 어느나라 國旗와도 比較할 수 없는 深奧한 뜻을 지닌 國旗인 것이다. 나는 某易學者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太極旗는 神祕하고도 不可思議한 힘을 發揮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太極旗마크를 달고 나간 우리나라 運動選手들은 西歐人에 比하여 體格은 적은 便이나 強靱한 精神力을 發揮하여 世界 여러 運動試合에 出戰하여 各種 競技大會에서 優秀한 成績을 올리고 있다고 본다. 韓疆土의 統一도 멀지 않아 太極旗 깃발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1. 太極旗圖案規格

中央에 太極의 直徑을 1로 하고 各 細部圖크기를 數値로 記入한다.

#### 太極旗圖形



3	2	$\frac{1}{2}$	$\frac{1}{3}$	$\frac{1}{4}$	$\frac{1}{12}$	$\frac{1}{24}$	$\frac{1}{2}$	乾	坤	坎	離	陰	陽	太極	1
四卦		乾				坤		坎		離					
		天		地		日(水)		月(水)							
		南		北		東		西							
		夏		冬		春		秋							

## 2. 圖形의 說明

中央의 圓은 太極으로서 陽陰으로 되어 萬物生成의 根源이며 陰陽이 首尾가 相交되어 造化無窮한 象徴이다. 四方위 卦는 ☰ 乾 ☷ 坤 ☲ 離 ☵ 坎이며 天地日(水)月(水) 南北東西 夏冬春秋를 뜻하여 太極을 둘러싼 形象으로 全體的으로 大宇宙를 뜻하여 天地萬物 森羅萬象의 大自然造化原理를 內包하고 있는 神聖한 價値觀을 지닌 圖案이다.

## 3. 國旗制定由來

1882年 8月 朴泳孝가 日本에 修信使로 갔을때 最初로 使用하였고 1883年 1月에 高宗20年 太極旗를 國旗로 使用토록 王命으로 公布하였으며 解放後 1949年 1月 大統領特命으로 國旗是正委員會를 構成한 以後 數次에 걸친 會議끝에 現行國旗를 確定하였음 其後揭揚方法과 禮節에 對한 規則이 一部改正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 4. 國旗에 對에 盟誓

나는 자랑스런 太極旗앞에 祖國과 民族의 無窮한 榮光을 爲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忠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고향길 그림기만 하다.

## 24回

- ◎ 咸南中學 卒業 有感 ..... 周 喜 銓(24回)
- ◎ 살리지 못했던 특강西式 健康法の ... 한 학 윤(24回)  
回顧
- ◎ 두고온 女동생과 첫 書信 ..... 廉 仁 必(24回)
- ◎ 思 2言(1.소나무송 2.만남) ..... 韓 時 坤(24回)
- ◎ 나의 書作品과 中國 ..... 朴 泳 馥(24回)
- ◎ 解放과 恩師 ..... 韓 承 銀(24回)





## 咸南中學校卒業有感



周喜銓(24回)

적은 體軀에 白色三線의 검은 咸興高普帽子를 우뚝 쓰고 入學한 바로 그 해에 所謂 支那事變이 일어났으나 中學校에 入學한 그 感激한 마음으로 時局의 흐름에는 別로 느낌 없이 나름대로 熱心히 工夫하였습니다.

3學年이 되면서(1939年) 學制가 變更되어 咸興高普가 咸南中學校으로 또 國防色 校服에 白色三線의 “中”字가 달린 國防色 校帽로 바뀌고 登下校時에는 脚絆을 치야 되는等 漸次 戰時體制로 움직여가는 듯 했습니다.

4學年이 되자(1940年) 그래도 그 봄에는 前例에 따라 約 2週間의 日本修學旅行도 다녀왔으나 時局은 漸次 激化되어 가면서 咸興驛에 나가 出征하는 軍人을 歡送하기도 하고 밤 등불行列에 動員되기도 하더니 드디어 그해 12月8日 所謂 大東亞戰爭(美日戰爭)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또 그 해에 內田先生이 돌러가면서 보라고 준 英語冊에 우리 級友한 사람이 所謂 不穩落書를 한것이 단 級友의 密告로 發覺되어 退學을 當한 事件이 일어나기도 하였지요. 그 密告한 級友

는 우리들에게 은근히 氣合도 받고 疾視도 當하곤 하였는데 아  
이러니칼하게도 4學年을 修了하면서 第5高等學校에 入學되어  
우리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5學年이 되면서(1941年) 學期初부터 卒業앨범事件(學校에서  
定한 앨범 외에 別途 앨범을 만들려고 했다고 主謀한 級友한사  
람이 退學當하였음)도 있었으나 가을에는 우리들의 집요한 성  
화로 學校先生任들이 道學務局에 어렵게 어렵게 許可를 얻어 1  
泊2日(往復은 夜間列車 利用)의 金剛山旅行도 하였으며 金剛山  
에서 歸校하는 夜間列車에서 客車一輛을 우리들이 獨占하고 一  
部級友들이 미리 準備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元山까  
지 왔었는데 이것이 그後 道警察局에 알려져 學校當局이 많은  
시달림을 받은 것으로 알며 多幸히 우리들에게는 無事했던 追  
憶많은 旅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卒業班에다가 上級學校入學試驗 準備등등  
으로 時局에 크게 흔들림 없이 熱心히 工夫해 왔습니다. 12月이  
되어 겨울放學에 들어가고 그 이듬해(1942年) 1月下旬에 3月卒  
業을 앞두고 3學期登校를 하였더니 學校週邊은 어수선하였습니  
다. 一部級友는 受験次 이미 東京 등 日本으로 떠났고 一部級友  
와 韓國人先生任 한분이 咸興警察署에 拘禁되었다는 소문이고  
우리들은 공연히 不妥하기만 하였습니다.

實은 우리가 卒業하는해부터 3個月 앞당겨 卒業하는 咸興農  
校는 12月卒業을 하면서 驛에서 驛員들과 衝突騷亂을 일으켜  
많은 學生들이 咸興警察署에 連行되는가 하면 이것이 導火線이  
되었는지 그 與否는 잘 몰라도 鄉友會 祕密結社등의 단서가 잡  
혀 咸興市內各學校 學生들을 爲始하여 많은 사람들이 檢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月中旬 어느날 午前授業을 끝나치고 下校하려고 할 때 學校에 이미 通告하고 待機하고 있던 咸興警察署 刑事에게 나는 5~6名の 級友들과 함께 不時에 連行되었습니다. 무슨 영문으로 連行되었는지도 모르며 恐怖에 떨면서 午後부터 取調를 받았는데 母校가 바로 附近이라 그때 每時마다 들리던 땡가당 땡가당하는 母校鍾소리는 너무나도 처량하게 들렸으며 只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純眞하게 저녁에는 歸家시켜 줄 줄만 알았었는데 우리들은 그날밤 警察署에 拘禁되고야 말았습니다. 留置場에는 이미 拘束됐던 級友들의 얼굴들도 보였었지요. 그로부터 3日間 밤중에 알몸으로 모진 매를 맞으며 拷問當하고 그리고 4日後에 여러學生들과 같이 釋放되었습니다. 그後에 어설피게 들은 일이지만 先輩들이 天道教 某種團體의 會員候補로 올려놓았던 모양인데 나는 이 事實을 숨혀 물랐고 그래서 取調 받으며 더많은 拷問을 當해던 것입니다.

이 事件으로 말미암아 一部 級友들은 拘束送致되고 警察署에 連行되지 않았던 級友들도 停學處分을 當하는등 참말로 어수선했던 霧圍氣였습니다. 나는 上級學校受驗도 못보고 그해 卒業도 어떻게 進行되었는지 記憶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 後 卒業된것만 確認되었지요. 듣건데 學校와 咸興高普同窓會(當時會長 金明學)의 積極의인 交涉으로 道當局의 諒解(?)를 얻어 卒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 한두가지만 말씀 드리면 내가 學生事件으로 警察署에 拘束된것을 알게된 故鄉집에서는 當時 面長으로

계시던 伯父任께서 前에 故鄉 安邊警察署長을 지내 面識이 있는 興南 警察署長을 찾아가서 事實을 이야기하고 紹介狀을 받아 咸興警察署長을 面會하고 善處를 간청한바, 署長은 面前에서 怒發하면서 푸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순허 몰랐지만 이 面談이 있던 그 다음날부터 刑事室에서 國帛도 얻어먹고 拷問도 當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釋放된 後 興南에 있는 집으로 歸家한즉, 父親께서는 勤務하시는 木材所에 火災가 나서 現場責任者로 興南警察署에 拘束되어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 다음날 興南警察署로 아버지 面會를 갔더니 刑事 한사람이 나를 보고 咸興學生事件으로 拘束됐던 學生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아버지 面會도 周旋해 주었는데 아버지는 그날로 釋放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그때 當時만해도 學生事件에 連累되었다면 韓國사람 社會에서는 同情을 받은 情況에서 우리 父子가 同時에 拘束된 이 情況에 對한 누군가의 나름대로의 善處가 있지 않았겠는가, 나나름대로 生覺되면서 마음 흐뭇했습니다. 解放後 越南못하고 北녘땅에서 苦生苦生하시다가 돌아가셨을 아버지에게 孝道한번 제대로 못한 나의 그나마 조그마한 孝道였다고 自慰해 보기도 합니다.

나는 只今 5年間の 中學校 學窓生活을 도리켜 볼때 그간 民族感情이나 反日感情이 多少 싹트기 始作은 했지만 부끄러우나 나나름대로 善良한 日本皇國學生이고 정말 日本말로 마지메(眞面目)한 學生이었다고 生覺합니다. 그런 내가 이런事件을 겪고보니 日本의 植民統治가 最小限 日本植民統治에 抵抗하는 勢力에게는 大小를 莫論하고 얼마나 苛酷했는지를 피부로 느낄수 있

었으며 民族 抗日 獨立運動을 하신 先烈先輩들의 그 鬪志와 苦  
生에 對하여 새삼 머리가 수그러지기도 합니다.

벌써 50余年의 歲月이 흘러 우리 24回級友들은 再昨年에 感  
懷 깊은 卒業 50週年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가장 젊은 同窓  
이라도 60代後半으로 들어선 우리 同窓님들! 그리운 故鄉과  
자랑스럽던 咸興高普時節들의 記憶들을 되새겨 보시면서 즐겁  
게 健康하게 또 幸福하게 餘生을 보내시기를 빌어마지 않은 바  
입니다.



◎人情보다 굳은 갑옷은 없고 뉘러움보다 튼튼한 城은 없다.(詩人 李仁石의 찬란한  
生命中에서)

## 살리지 못했던 특강 西式健康法の 回顧



### 한 학 료(제24回)

함흥고보(함남중학) 아마도 2학년이었던 것 같다. 전교생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넓직한 강당에 집합시키고 시오자키(당시 훈육주임)선생님의 건강에 관한 뜻밖의 특강이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졌던 것인데 한 동창 친구가 일깨워 주는 바람에 회미한 기억으로 되살아나게 되었다.

특강의 내용은 당시로는 상당히 先進的인 것으로, 지금 회상해 맞춰 보면 西式 건강법의 기본인 六大법칙에 관한 즉 - 딱딱한 자리에서 자라, 딱딱한 베개를 베라, 붕어운동, 모관운동, 합장합척운동, 등배운동을 하라는 것이며, 운동의 示範도 강당의 교단 위에서 직접 보여 주었다.

당시의 학생들의 일반적인 心情은 일본인 선생의 課外的인 지도는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히 빗나간 눈으로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순현선생(별명 한장이) 같은 이는 핏줄이 같다는 속셈이었는데 존경하였고, 일본인 선생과는 어딘지 간격을 두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專攻이 아닌 課外 과목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모처럼의 특강 내용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당시는 權威主義의 시대였다.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또 해당 문제의 핵심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등등.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를 나오기만 했으면 꼴찌로 나왔던 어쨌던 우러러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風潮의 시대였다.

그 건강법의 내용이 정통 의과대학에서 교육하는 권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創始者가 정식 과정의 의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병이라는 것은 당연히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약과 주사로 고치는 것이라는 常識이 머리를 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뭏든 모처럼의 좋은 내용의 특강이었지만 반응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50년 이상을 지난 오늘에 와서 보면 애석하기도 하고, 가릴 줄 몰랐던 당시의 眼目이 후회로도 되는 것이다.

지나간 일을 假想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지만, 혹시 만일 당시에 그 시오자키선생의 특강을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겼더라면 그로부터 얻는 혜택은 참으로 큰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하고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전혀 다른 계기에서 이 건강법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도 얼마 동안 한 동창이 그것은 그때 강당에서 특강으로 들은 것이라고 일깨워 주기까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의심할 정도로 당시의 關心은 빗나가 있었던 것이다.

조국이 分斷되면서 동창들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룡작

하나로 남하한 동창들은 강한 기질을 밑천으로, 고생속에 그럭저럭 살아 왔는데, 그 중에는 醫師로서 자리를 굳힌 친구도 여럿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의사 친구들이 하나같이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의사직이라면 병을 고치는 직업,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당연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병을 고치는 의사직 친구들이 도리어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다.

하나하나 들춰 가면서 말할 생각은 없다. 모두가 한때는 쟁쟁한 의사의 면목을 갖춘 친구들이었다. 죽은 원인은 대체로 혈압관계와 당뇨가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다.

필자가 한때 신경통으로 고생할 때 신세를 많이 진 의사 친구가 혈압으로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 친구에게 이번에는거꾸로 필자가 따르는 건강법을 권해 보았다.

내용인즉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 生水를 조금씩 자주 마시기를 하루에 1되 정도, 창자를 맑게 하기 위해 朝食은 폐지하고 점심 저녁에는 생야채를 되도록 많이 먹을 것, 그리고 毛管운동을 하기를 권했다.

이 중에서도 모관운동은 누워서 팔과 다리를 垂直으로 들고 1-2분간 微振動하는 것인데, 이는 혈액의 순환을 잘되게 하는 가장 적절한 운동이다. 그러나 잘 들어 주지 않았다.

물론 필자의 말이 說得力을 얻을 정도로 차분히 된 것도 아니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 왔더라면 이야기는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사라는 상당한 權威 의식에 젖어도 있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성을 알아는 들겠는데 지금의 형편이나 體面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남의 병을 돌보는 의사가 자기의 병도 못하고 건강법을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 듣고 보면 그렇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回生되어 일하다가 또 쓰러지고, 한때는 한의과 병원에 變姓名으로 입원도 하였다는 말도 들었다. 결국 좀더 살 수 있는 나이에 幽明을 달리하고 말았는데 건강법을 실천해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한 친구의 경우는 오래만에 만나보니까 몸이 엄청나게 비대해져 있었다.

속으로 이것 안되겠는데 하고 느꼈지만 본인은 오히려 육중한 몸을 뚱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도 하기에 말을 붙일 수도 없었다. 얼마쯤 뒤에 들으니까 당뇨로 신경을 쓴다고 했다. 당뇨면 건강법으로는 우선 食生活 개선 즉 生野菜食 위주로 나가야 하는데 상당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대 醫療에는 단식과 생야채식에 대한 이해가 적은 것 같다. 칼로리학설에 얽매어 영양 섭취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고혈압도 되고 당뇨도 되고 한다. 成人病이라고 하더니 근래에는 어린이에게도 미치고 있다. 영양 과잉의 해가 정말로 큰 것이다.

이 친구 역시 현행 의학의 권위 때문에 건강법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他界하고 말았다. 氣質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펴지 못하고 간 것같은 느낌이다. 이력저력하여 의사 친구들은 국내에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의사가 아닌 친구들도 죽은 사람은 여럿이다. 이미 죽은 것, 팔자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었지만 건강법의 눈으로 보면 아쉬운 바가 하나 둘이 아니다.

작년인가 박동묘 회장님의 동창회 인사말에서, 사람이 60세의 고비를 넘으면 한참 더 살 수 있으니까 70세 80세까지 오래오래 살자고 하였다. 이것은 건강법을 의식한 말은 아니지만 건강법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또 산다고 하여 목숨만 붙어 있는 것으로는 안된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움직이다가 잠자는 듯이 세상을 뜨는 것이 理想이다. 날개로 변해서 하늘로 오른다고 羽化登仙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건강법을 의식하면 어렵기는 해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러나 함흥고보 동창생은 이제 제일 아래가 65의 고개를 넘어서고 있다. 후계자 양성을 뜻하는 학교 설립의 意志가 있는 듯하나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통일의 이야기가 오고가는 중이니까 어찌면 夢床에도 그리던 고향산천을 밟아보게 될지도 모른다.

동창 제위는 이제 모두 老齡에 접어 들었다. 기약할 수는 없어도 80세 90세까지도 내다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까지와 같은 依他的 姑息的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건강을 이룩해 낸다는 自信을 갖고 방법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제부터라도 西式건강법의 실천을 권하고 싶은 것이다. 젊은 사람처럼은 못하더라도 정도에 맞게 해 가면 되는 것

이다.

원래 西式이라는 것은 男女老少의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연령이나 環境에 알맞게 하여 가면 되는 것이다. 西式건강법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약간의 설명을 드렸으면 한다.

지금부터 약 65년전에 일본에서 西勝造라는 사람이 公表한 것인데 그 견해가 현대의학과는 여러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증상(病狀)이 바로 요법」이라든가,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 모세혈관에 있다」든가, 동정맥문합(動靜脈吻合)이 전신에 있어서 혈액 순환을 조절한다든가, 「3대 영양소는 서로 교류한다」든가, 하는 것 등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는 9~16세에 걸쳐서 심한 대장염(설사병)으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의 치료까지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집 옆에 흐르는 냇물(생수)를 마시므로써 병에서 해방되었다.

다음에는 탄광에 근무중 바닷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 실험을 하다가 눈을 다쳤는데, 역시 일본 제일의 眼科醫에게 까지 갔으나 고치지 못하고 그 동안에 독학으로 얻은 지식인 단식과 생야채식으로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 뒤에 독지가의 미국 유학 장학생 시험에 혼자 뿔혀서 컬럼비아대학에 유학중 “허리슨”이라는 의학자와 접촉하여 현대의학 서적을 탐독하였는데 여기서도 생수와 단식 생야채식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그 후에 土木系에 종사하는 한편 연구를 계속했는데 독과한 책이 실로 7만여권, 의료법 연구가 362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건강의 원칙 4가지, 질병의 원인 4가지를 抽出하고, 질병요양의

기본 법칙으로 6가지, 특수 요법으로 수10 가지를 定立해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추출해 낸 건강의 원칙이 ① 피부의 강화 ② 적절한 영양 ③ 四肢의 건전 ④정신의 안정의 4가지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건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 질병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지적되었을까? ① 척추의 不整齊 ②혈액 순환의 不等速 ③ 신경의 不調和 ④ 體液의 不平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① 平床사용 ② 硬枕 사용 ③ 봉어운동(물고기가 헤엄치는 식으로 배를 땀) ④ 毛管운동(팔, 다리를 수직으로 들고 땀) ⑤ 合掌合蹠(개구리가 헤엄칠때와 비슷함) ⑥ 등배운동(등과 배를 동시에 움직임)의 6가지이고 이 외에 이에 附加하여 선택적으로 할 방법이 수십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평소에 각 가정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등이다.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면 될 정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 취재 범위가 서양·동양의학을 비롯하여 인도의 요가 및 각국의 민간요법 자연요법등 362 가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2,000년에 한 사람이라고 평하는 것도 그저 지나친 말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늙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는 글렀다고 諦念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뜨는 날까지 충실한 건강법의 시간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젊었을 때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방법은 있다.

쇠퇴해 가는 신체의 여건 속에서도 거기에 알맞게 건강을 지속하다가 終末의 때가 오면 미련 없이 羽化登仙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여기에 알맞게 건강법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길이 바람직한 것이다.

다음에 이런 방법에 대하여 所信을 적어 보겠다. 우선 피부 강화쪽을 생각해 보면 風浴, 冷溫浴이라는 방법이 있다. 풍욕은 벗고 앉아서 온몸에 공기를 쐬었다 가렸다 하는 것이고, 냉온욕은 목욕시에 냉탕 온탕을 1분 1분씩 왔다갔다 하는 방법이다. 잘 때에는 平床같은 딱딱한데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면서 자는 일도 중요하다.

둘째로는 營養 문제인데, 칼로리학설은 한물 간 것이므로 생각을 바꿔서 생야채 즉 섬유질과 V.C를 많이 섭취하며, 창자를 맑게 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암 고혈압 치매증 등등 모든 것이 창자의 불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四肢의 강화 문제인데 무리가 안될 정도로 산책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4지를 놀리는 것이다. 4지를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지켰을 때나 식사후에도 산책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네째로는 마음의 안정 문제인데 우리의 몸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라고 보고 있다.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고 반대로 육체가 건강하면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것이다.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 때 기분이 좋으며 몸도 좋아지는 것이다.

이상은 건강의 4대원칙인데 질병의 4대원인이나 보건요양 6대 법칙에도 그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모두 여기에서

늘어 놓을 수는 없으니가 일반적인 것 몇 가지를 예로 들고 원고를 그쳤으면 한다.

그것의 하나는 生水와 鹽分과 비타민C의 섭취에 관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생수 즉 끓이지 않은 자연수를 언제나 가까이에 두고 30분에 30g 꼴로 하루에 1되는 마셔야 하는 것이다.

다음의 염분은 많아도 안되고 부족해도 안된다. 0.85~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염분이 부족하면 생체가 대신으로 당분이나 알콜분을 요구하므로 이에 따라갈 때 당뇨나 고혈압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V.C이다. 양은 적어도 몸의 機能 조절에 필수적인 것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이의 결핍증에 빠져 있다. 특히 老弱者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생야채 김치 콩나물 과일등을 먹어야 하며, 감나무잎으로 만드는 감잎차를 이용하면 좋다.

땀을 24시간 내내 흘리고 있는데, 이 땀으로 몸에 필요한 수분 염분 V.C가 모르는 사이에 빠지고 있으니 이 보충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먼 곳,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까운 곳,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주제넘는 점 용서를 바랍니다.)



## 두고온 女동생과의 첫 書信



廉 仁 必(24回)

『面識도 없는 제가 書札을 올리는 失禮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利原郡出身으로서 少年時節에 故鄉을 떠나서 이곳 延吉에 온지 50餘年이 되는 延邊大學 退職教授이며 現在 醫師인 70才를 바라보는 老人입니다.

엇그저께, 延吉市內에서 정말 우연하게도 50年前의 옛 친구인 廉仁必氏를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꿈만 같아서 밤새도록 술잔을 주고 받으며 끝없는 情談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이번 長白山探訪團의 一員으로 왔으며, 來년에는 또 모스크바에 國際學術研究會議參席으로 간다고 하였으며 어제 惜別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故鄉 血肉中에서도 特히 동생인 廉○○동무를 몹시 그리워하며 눈물 짓는 많은 追憶들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生死도 모르시고 이미 作故하였을 父母님의 忌日을 몰라서, 동생의 食口들과 함께 每年 父母님의 生辰날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書札을 받아볼수 있게 될는지 걱정하면서 故鄉집 住所로 보내오니 받는 即時, 父母님의 忌日과 누님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라며, 回信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安寧히….

1990年 6月 24日 辛 ○ ○ 올림

廉 ○ ○동무에게

우리 越南 失鄉民들은 누구나, 우선 自己가 살아있다는 소식만이라도 故鄉에 알리고 싶어하는 共通된 애끓는 心情을 갖고있다. 나는 몇차례의 海外旅行때 마다 方案을 찾고 試圖했으나 번번이 허탕치고 말았다.

그러다가 中國을 通하는 것이 가장 可能性이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當時 企業家가 아닌 나로서는 中國旅行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多幸히 1990年 6月 一千萬離散家族再會推進委員會의 運營委員인 나에게 以北5道代表 10名(各道 2名씩)中の 1名으로 中國 遼寧省外交部 招請으로 訪中の 機會를 얻게 되었다.

瀋陽과 長春의 두 곳에서 公式行事を 마치고 20日間の 中國 本土 觀光日程中에 延邊朝鮮族 自治州 首都 延吉市에 들렀을 때 드디어 나는 年來의 所望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安全과 信用할 수 있는 人士 同鄉人인 辛○○教授를 찾는데 成功하였다.

그분의 적극적인 協調에 鼓舞되고 興奮되어서 바쁜 旅程中 남들이 잠자는 白山호텔방 탁자 위에서 이틀동안 고쳐쓰고 다시 쓰며 作成한 것이 겨우 위와 같은 짤막한 便紙였다. 하고 싶은 그 많은 사연들과 묻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을 썼다간 지우고



줄이고 하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편지를 完成지었다. 서울에 있는 내 身分이 밝혀지는 경우에 便紙의 傳達은 되지 않을 것이며, 辛教授와 故鄕家族들께 미칠 後患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쳤다.

勿論, 中國式 綴字法을 써야 했고 白頭山을 長白山으로, 모스크바 國際學術研究會議 參席은 나의 身分을 믿게하기 위한 意圖였다. 當時 모스크바旅行은 어려웠기 때문이었고, 女동생에게 辛教授를 의심하지 않기 위하여 女동생의 이름을 ○○으로 쓰는 데까지 神經을 썼다.

住所를 알리가 없었지만 우리 男妹의 故鄕인 農村마을에 보내면 그가 出嫁한 곳까지 傳達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는 咸南 高女出身이고 6·25戰爭때 高級中學校 紅一點인 女教師여서 쉽게 住所를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믿었다.

便紙文 作成에 잠을 못갔고 다 쓰고 난 뒤에는 40余年間の 所願이 成就되는 기쁨과 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血肉들을 想像하면서 또 잠을 설치게 되었다.

그후 20日間の 中國觀光을 마치고 7月上旬 歸國하고 나서 꼭 2個月後인 90年 9月 8日 드디어 辛教授에게서 온 國際郵便物을 받았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女동생이 辛教授에게 보낸 答狀을 北韓 봉투까지 그대로 同封하여 보내 왔다. 故鄕마을이 아닌 ○○에서 사는 60代後半의 아마이 女동생의 便紙를!

『신성생님께 드립니다.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전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나셨겠다고만 생각하여 오던 오빠가 지금 살아 계시다니 꿈만 같구만요.

선생님의 편지의 구절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앞서 끝까지 다 읽지 못하고 여러번 중단하였으며 혈육간에 서로 회포를 나누기는 고사하고 생사 여부조차 알길 없이 만들어 놓은 미제국 주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오빠를 만나 뵈을 기회가 있겠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행여나 하여 이곳 소식을 간단히 전하려 합니다.

저희 양친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1978년 6월 18일에 어머님은 1970년 2월 25일에 별세하였으며, 그 영구는 지금 고향 옛집 뒷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둘째 오빠는 1950년도에 인천전투시에 전사하였으며, 아저씨는 1978년에 사망하셨으나 언니는 지금 생존하여 ○○역전에서 아들 딸 7명을 잘 키워 모두 다 시집 장가를 보내고 근심 걱정 없이 여생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1955년에 ○○의 오빠이며 ○○의 형님인 ○○○과 결혼하여 5남매를 키우면서 두 내외간이 회갑이 넘도록 이날 이 때까지 후대교육을 위하여 교편을 잡고 있다가 지금은 연금보장으로 국가적 배려를 받으면서 집에서 손자들의 손목을 이끌고 여생을 재미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혈육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선생님께서 오빠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쪼록 민족적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깨끗이 살아 계시다가 조국이 통일된 그날에 김일성수령님 광장에서 자식들의 손목을 이끌고 꼭 만나 뵈옵자는 것을 전하여 주실것을 부

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70고령이 되시는 선생님께서 옥체 건강하시어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빕니다. 경의를 포함합니다.

(오빠의 필적을 보고 싶습니다.)

함경남도 ○○군 ○○반

1990년 8월 12일. 련○○ 올림』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하염없이 흐느껴 울었다. 누구든지 마 찬가지일 것이다. 卽時 男동생을 불러서 數차례 되풀이 읽으면서 겨안고 우리는 영영 울었다. 눈물을 닦고 우리 兄弟는 한 구절씩 分析하여 보았다. 여기 살아있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내동생을 仁川戰鬪에서 戰死하였다 하고 내 편지에서 동생食口와 함께 父母님의 祭祀를 올린다고 했지만, 이것은 分明히 비밀을 지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假名을 쓰게 되었으며, 後日 누님에게도 假名 便紙를 보내며 寫眞까지 보내면서 戰死한 동생이 그림다는 등의 쇼를 부리게 되었다.

아버지는 12年前 81才로, 어머니는 20年前에 78才로 姉兄은 12年前, 아버지와 같은 해에 恨많은 이 세상을 하직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한 해에 두 喪을 당하신 누님의 斷腸의 슬픔이 또 한 눈물을 자아내게 하였다.

北韓엔 墓地가 없다는 所聞도 들었는데 先山에 父母님의 유해를 마련하여 모셨다니 내 마음은 또 先山墓所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多幸스럽게도 우리 4男妹는 비록 南北으로 갈라져서 살고는 있

지만 오늘까지 그래도 生存하고 있는 것만도 오로지 父母님의 加護의 德分이라고 感謝하며 自慰하였다.

옛날의 백로지 같은 누런 종이에 쓴 이 편지를 아들놈이 읽어보더니 “고모님이 빨갱이군요”하기에 바빠 北韓의 郵便物 檢閱과 우리들이 學窓時節에 日帝의 檢閱이 두려워서 편지의 序頭나 末葉에 日王이나 大東亞戰爭의 必勝을 써 넣던 옛말을 들려 주어야만 했다.

나는 即時 감격어린 答狀을 써서 中國旅行에서 찍은 桂林漓江의 遊覽船上(中國旗를 背景으로)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멘 獨寫眞을 同封하여 보냈고, 이듬해에는 모스크바大學 正門에서 찍은 寫眞도 보냈으며 우리 4男妹는 家族寫眞까지 주고 받고 하였다. 그런데 그 家族寫眞에서 南北의 生活像이 天地差異로 나타났다.

黑白寫眞에 그분들의 초라한 옷차림이 우리들의 60年代初葉에 흡사하기에, KBS 南北의 窓의 텔레비에서나 또는 그 누구의 筆舌에도 北韓國民의 生活像에는 나는 속지 아니한다.

反面, 누님과 女동생의 家族들은 우리 兄弟 家族들의 寫眞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들은 내가 서울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職業과 身分은 일절 밝히지 않았으니, 觀光旅行이란 말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이 오빠가 대단한 人物인양 생각할른지도 모를 일이다.

도대체 어떤 身分이기에 이런 家族들의 옷차림이며 또 中國이니 러시아니, 유럽이니 中南美니 世界の 各地를 돌아다니니 말이다. 나중에 알게 되면 별 것이 아닌데!

社會主義란 얼마나 가없는 것이고 資本主義란 얼마나 멋이 있는 것인가!

편지마다 인사처럼 쓰고 있는 祖國統一의 그날, 相逢의 그날까지 健康하게 살자고 하면서, 昨今の 國際情勢는 왜 자꾸만 그날이 멀어져 가는것만 같고, 만나보기도 前에 어느날 갑자기 누님이나 女동생의 悲報가 날아 올런지도 모를 杞憂마저도 든다.

이 글을 쓰면서도 혹시 만일의 경우를 걱정하여 人名을 밝히지 못하고 ○○○으로 표시하면서 해마다 南北을 날아 다니는 기러기떼만도 못한 우리 處地가 분통하기만 하다.

내 살아生前에 마음 놓고 故鄉血肉에게 便紙라도 쓸 수 있다면! 정말 원통하다.

盤龍의 出發刊을 衷心으로 祝賀합니다

24回 廉仁必

電話 579-9146

서울學院 顧問

咸鏡南道 새마을運動協議會 會長

## 思 2言

### 1 소나무 송(頌)



韓 時 坤(24回)

우리강산 소나무여  
배달민족 상징하는  
고순(高淳)한 소나무여

토박한 바위땅에  
힘들게 뿌리박고  
굽은 등 펼새없이

설한삭풍에 눌리고 찌들어서  
단단하고 향기로와  
오염조차 모르고  
변절도 불용(不容)한 채  
만고에 청청하여

하늘 보고 백세충절(百世忠節)  
땅을 보고 낙락장송(落落長松)  
건곤(乾坤)에 홀로 고고(孤高)  
인고(忍苦)와 감내(堪耐)로서  
일편단심 붉은 절개(節介)

살아서 이 강산 살찌우고  
죽어서 잘리고 다듬어져  
가진 뭇(재목) 다해주고

때로는 황천객(黃泉客)담아안고 ①  
청산으로 돌아가  
함께 묻혀 흙이 된다.

열매송이 잎가지는 아궁이에  
지퍼져 두들짱 덥혀주고  
상처에 뿜어 흘린 진액(진液)은 ②  
송명(松明)되고 영약(靈藥)된다. ③

바닷가에 무리지어  
거센 풍파 몸으로 막아주고  
동네뒤에 모여서서  
모진 한파 등으로 막아준다.

마을앞에 옹기종기 높이 자라  
스스로 수문(樹門, 守門)되어 ④  
멈춰지는 마음 스쳐가는 바람에  
가는님 정겨히 보내주고  
오는손 반가히 맞으면서

한평생 신념과 저항으로  
꿇꿇하게 버틴 지조(志操)  
이 겨레의 상징이요 사표로다.

한반도 우리지세(地勢) ⑤  
그모양 그형국(形局)이

적송(赤松)\*모양 너무 닮아  
이 마음에 더더욱 미더워라

동해쪽에 뻗은 줄기 ⑥  
동북으로 휘어져서 ⑦  
서와 북에 가지 뻗어 ⑧  
그 능선 그 계곡 따라  
금수강산 이뤄놓고  
문전옥답 살찌우며  
년년세세 울울창창  
백의의 이겨레 지켜왔네

푸른절개 높이 솟아  
백두영봉에 머리 추켜  
장백줄기 저 너머로  
발해옛땅 쳐다보면  
요동만리 저 별관이  
모두가 우리강역(疆域)

고조선의 옛 강토가  
배달족의 눈에 어러  
한가슴을 메워 주네

우리 강토 닮은 적송  
우리 겨레 지킨 적송  
이 나라와 함께 자라  
천세고절(千世高節)다져가며  
온갖 풍상 뛰어 넘어  
만고상청(萬古常青)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세

적송이여! 그 절개 그 단심(丹心)  
그대는 정녕! 이 강토에 솟아난  
이 겨레의 사표요 상징이여라!



註:

- ① 육송으로 짠 棺을 생각하며
- ② 여기 진액은 송진을 말함
- ③ 松明은 광솔불
- ④ 주북 齋官골 집앞 적송樹門을 생각하며
- ⑤ 우리나라 지세조감도
- ⑥ 태백산맥(旧白頭大幹)을 줄기로
- ⑦ 함경산맥(旧長白正幹)쪽으로 휘어져
- ⑧ 낭림산맥.차령산맥등 여러지맥

\*赤松은 우리토종의 소나무중 으뜸

## 2 만남(그 因緣의 이야기)

만남은 인연이 맺어준 이야기  
이승에서 소매 한번 스쳐도  
전세에서 500번 만난 인연이라고  
인연이 있어 만나고  
만남이 또 인연을 맺어준다.

고독속에 나타난 놀라운 만남  
기다림에 지친 꿈속의 만남  
인파속에 부딪히는 우연한 만남  
만나는 인연 그 인연속에  
서로는 추억의 이야기를 남긴다.

인연과 만남 그리고 이야기는  
형제 자매인가 친구인가  
서로가 떼일 수 없는 다정한 사이  
사람이 서로 만나 인간(人間)이요  
인간이 서로 만나 인연(關係)을 맺고  
서로를 신장하고 확대해 간다.

전생의 연분으로 짝을 만나 ①  
종족을 보존하며 생존을 이어간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서로 만나 우주를 열고

열린 우주에 빛을 채우니 ②

만물이 그안에 비치어  
삼라만상이 천태만별이다.

만남에 시간과 공간이 마주쳐  
거기에 인연을 맺고 이야기를 낳는다.  
만남은 역사를 낳고, 로고스를 열어 ③  
문화를 일구고 천재도 부른다.

천재는 한낱 돌덩이를 만나 ④

혼신의 힘과 혼을 쏟아서  
무아지경으로 쪼아대는 정끝에  
불세출의 성자(성모)를 재현하여  
마리아의 사랑을 가슴에 전한다.

신기(神技)의 화필이 원지단에 색을 풀어 ⑤

심필(心筆)이 하나되어 찍어대는 붓끝에  
모나리자의 미소가 창출되고  
산사(山寺)의 노송벽화(老松壁畫)에 ⑥  
학이 날개를 부딪 친다

악성(樂聖)이 빛어 엮는 ⑦

고저장단의 오묘한 음향의 교차가  
영혼을 흔드는 신비의 선율로  
메인 귀를 뚫고 가슴을 두들긴다.

신명난 연기자의 혼신의 몸부림에 ⑧

너와 내가 그 자리에 하나되어  
희비의 재현에 함께 울고 웃는다.

우리는 생활속에 글(책)을 찾아  
그속에 선지와 대덕을 만나  
지(知)를 쌓고 덕을 닦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하여  
자신을 높이고 남도 세운다.

인간은 애초부터  
땅과 시대와 민족과의 만남의 ⑨  
숙명적 인연속에 태어나  
서로를 사랑하고 개척해간다.

너와 내가 인격으로 만나  
그 만남이 우정으로 꽃피어  
지란지교(芝蘭芝交)에 향기를 뿜고  
금석지교(金石之交)를 다져가며  
지혜롭게 서로를 바로 도와  
풍요로운 자유속에 조화를 이루어  
곧은 길 당당하게 바르게 살아간다.

사람이 셋이 만나  
문수(文殊)의 지혜(智慧)를 낳고 ⑩  
동족의 얼이 예지로 서로 만나  
민족혼(民族魂)에 불붙여

내나라 내강토를 밝게비취  
한결같이 굳건히 지켜준다.

때로는 영웅이 시대를 만나  
역사를 주도(主導)한다지만  
충절(忠節)은 난세를 만나  
신명(身命)을 던져 정의를 건진다.

음(陰)과 양(陽)은 서로 만나  
만물의 조화(調和)와 공존(共存)을 이어가고  
오행(五行)은 서로 만나  
변전(變轉)과 순환(循環)의 질서를 지탱한다.

서로 만나 하나가 안될바엔  
차라리 만남엔 이별이 따르고  
그 이별은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며  
만남속에 이별을 이별속에 만남을  
반감게 마지하고 아쉽게 헤어지며  
그 만남과 이별의 애환(哀歡)속에  
세월은 가고 이야기만 쌓인다.

인간은 아마도 만남과 이별의  
숨바꼭질 속에 서로의 인연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만나고 또 이별하고  
다시 만나자고 다짐하며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그 만남과 이별에 얽힌 사연을  
 또 이야기로 엮어가면서.



註: <다가 서는 두 像 No. 1> 무우어(1898~ ) 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암.수(雌雄)의 배합을 말함</li> <li>② 日月星辰과 光明을 말함</li> <li>③ 로고스는 진리. 길. 이데아 말<br/>    씀등 의미</li> <li>④ 미켈란젤로의 마리아像(결자)<br/>    을 연상하며</li> <li>⑤ 세계적 화가와 명필. 특히 레오<br/>    나드다빈치의 모나리자상을 연<br/>    상하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신라시대의 영험의 화가 率居<br/>    이야기 皇龍寺의 老松 그림에 학<br/>    이 날라드렸다는 전설</li> <li>⑦ 귀메인 樂聖 베토벤의 신기의<br/>    음악적 영감</li> <li>⑧ 명배우 명연기자의 영감어린<br/>    연기</li> <li>⑨ 철학자 헤겔의 말</li> <li>⑩ 여래의 왼쪽에서 지혜를 맡은<br/>    보살</li> </ul> |
|---|---|

## 나의 書作品과 中國



### 朴 泳 馥(24回)

나는 1991年 5月 24日 난생 처음으로 中國 땅을 밟게 되었다. 그것도 單純한 觀光이 目的이 아니라 分斷된지 50年이나 된 南 北韓이 한 자리에 모여 歷史的인 合同書畫展을 여는 뜻깊은 자리에 參席하기 爲해서였으니 더욱 感激스러웠다. 안그래도 한번 中國旅行을 해보고 싶었던 터라 감지덕지였다. 우리 一行의 旅行日程表가 더욱 마음에 들었다.

1991. 5. 23日 出發하여 6. 6日까지 14日間 香港, 北京, 萬里長城, 瀋陽, 延吉, 白頭山, 龍井, 西安, 桂林, 廣州等を 巡訪한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어둡게 한 것이 있었으니 北側 代表者들의 旅費를 負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陸路로 北京까지 오는고로 그렇게 큰 負擔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착잡했다. 아뭏든 이 行事は 北京에 所在하는 國際高麗學會(會長 北京大學教授 李應九)의 周旋으로 아주 어렵게 이루어진 터였다.

설레이는 가슴을 鎮靜시키며 旅程에 올랐다. 北京이라면 서울에서 空路로 잠간이면 갈 距離인데도 우리는 香港을 經由해야 만했고 그 不便과 時間과 費用을 甘受해야 했다. 우리는 機上에서 그 無邊廣大한 領土를 내려다 보며 다시금 놀라움을 禁치

못하며 北京에 到着했다.

우리 一行은 모두 28名, 北側에서는 10名이 招請받았다. 여기에 옮겨버려 延邊을 비롯하여 北京에 居住하는 僑胞作家 및 學者들 中國의 著名作家등 都合 100名 假量의 人士들이 모인 큰 잔치였다. 나는 우리側의 團長으로 參席하게 되어 더욱 緊張했다. 兩側을 招請한 晚餐會는 정말 盛大했고 제각기 隔意없는 對話를 나누며 서로 混席을 해가며 마치 오랜 歲月을 떨어져 살던 離散家族끼리 만나기라도 한듯 끈끈한 情을 滿喫하면서 情談과 술잔이 오갔다. 北京市 中心에 있는 裕龍餐廳에서의 晚餐場은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품안같이 느껴졌다. 한창 무드가 무르익어갈때 나는 이 자리에서 南側을 代表하는 答辭演說을 해야할 차례가 되었다. 참으로 눈물겨웠다. 그 要旨는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왜 우리의 아름다운 祖國땅을 마다하고 남의 땅 中國에 와서 이런 行事를 치뤄야만 하는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부터는 우리땅 平壤과 서울을 오가며 열도록 하고, 아예 남의 땅에선 열지 않도록하자. 그리고 그 기틀을 이 기회에 세우도록 하자.

둘째, 우리들 文化藝術에 從事하는 사람처럼 純粹性을 지닌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體制와 理念을 超越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고로 隔意없는 交流는 쉽게 이루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자주 이런 機會를 만들어 서로 만남으로써 統一의 그날이 앞당겨질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들은 그의 牽引車의 役割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우리 南과 北은 왜



이토록 오랜 歲月을 두고 分斷되었어야만 했는가. 南과 北이 سحق고 손을 잡는다면 世界 그 어느 나라인들 우리를 당해 내겠는가. 또 우리는 그들을 앞지를수도 있는 才能과 頭腦와 底力を 갖고 있지 않는가. 여기 모인 우리들부터라도 먼저 앞장서서 합쳐 질 수 있는 쉬운 일부터 풀어 나가자.

이렇게 力說하면서 『이번 이 行事が 嚆矢가 되어 統一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기게 하는 뜻깊은 모임이 되기를 빈다』는 要旨로 끝을 맺었습니다.

展示는 亞運村國際會議室에서 열었다.

豫想했던대로 우리쪽의 作品과는 對照的인 面이 많았다. 繪畫쪽의 作品內容을 살펴보면 素材가 主로 勞動하는 現場을 그려낸 具象畫가 많았고, 鬭爭的印象을 주는 急進的인 그림이 두드러졌던 것 같다. 우리가 자주 보는 平壤市內 곳곳의 壁畫가 그랬듯이 過激한 口號를 외치며 깃발을 흔드는 그림을 聯想시켰다.

書藝作品도 우리쪽과는 아주 捰판이다. 우리는 風流的인 詩句가 많이 引用되는가 하면 그쪽은 아주 過激的인 面이 두드러졌다. 例컨대 “怒壽” 라든가 “大河” 등은 사람의 마음을 激動시키며 煽動시키는 듯한 印象을 풍겼다. 또한 한글 글씨도 우리와는 아주 捰판이다. 族譜에도 없는 激烈한 글씨는 우리가 TV에서 자주보는 板門店의 “판문각”이라는 懸板글씨 그대로다.

會食席上에서 그쪽의 書藝人이며 “글씨체 연구실장”이란 직함의 최용진(崔勇進)에게 물어보았지만 그쪽에는 職業的書藝家가 몇명이나 되느냐는 質問에 대략 15,000名 程度는 되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생각해 보았지만 그말은 믿어지지 않았다. 北韓實情에서 볼때 非生産的인 書藝를 職業삼는 사람이

있을수가 있을까 하고…。到底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 書藝人이란 무엇하는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혹은 거리에, 혹은 건물에 혹은 군중행사때 懸垂幕에 口號를 쓰는 것을 職業으로 삼는 사람을 통털어 書藝家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結局 書藝家라는 概念부터가 다르다고 보았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3日間을 꼬박 함께 지냈다. 作品展示도 그랬고 學術세미나도 그랬고 北京市內名勝古蹟(紫禁城天安門廣場 人民大會場 歷史博物館 景山公園 故宮博物院等) 觀光도 같이 하고 萬里長城도 함께 갔었다. 특히 合同會食때는 너무나도 感激스러워 兩側 모두 울어버렸다. 3日間의 行事が 끝나는 날 惜別의 情을 나누면서 열렸던 會食…。우리가 주고 받은 술잔속에는 알큰하게 저러 들어오는 民族愛를 너나없이 느꼈을 것이고 뜨거운 피가 용솟음쳤을 것이다.

서로가 손에 손을 붙잡고 圓을 그려가며 빙빙 돌면서 불렀던 아리랑, 도라지, 고향의 봄, 눈물젖은 두만강, 통일의 노래, 끝없이 連唱하면서 헤어지기 아쉬워 했던 그때를 回想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 行事が 契機가 되어 나는 많은 中國著名作家들과 僑胞作家들을 알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다. 其中에서도 中國書法家協會 國家機關分會 祕書長인 王祥之先生은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 行事を 통해 親해진 그와는 作品交換과 書信交流로서 서로를 잘 理解하고 人格과 書風을 尊重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中國에서 隸書體로서는 他的 追從을 不許하는 重鎮作家이다. 그러나 그는 또 나를 稱讚하기를 行草體로서였다. 그러는 동안 그는 中國書藝新聞에 나의 書風에 對한 記事를 실어 紹介

해 주었고 (한마디로 나의 書는 “沉雄逾勁 功力深厚”라 評하였다) 繼續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事由로 해서 저의 作品을 必要로 했다.

1. 山東城 肥城進修學校編 “師魂頌” 海內外書畫名家作品集에 收錄케 하였고
  2. 北京故宮博物院 國際書法聯展에 招待作家로서 出品케 하였고.
  3. 安徽省 黃山市의 黃山碑林에 碑石으로 새겨 永久保存토록 해주었고(이 作品은 別圖와 같이 拓本해서 보내 왔음)
  4. 北京日報社에서 作品을 收藏하게 되었다.
- 이토록 그의 活動은 熱烈했다.

黃山碑林에 收刻되어 中國땅에 永久保存케 된 作品에 대해 錦坡 高柄德씨는 다음과 같은 詩로 稱頌하였다.

玄妙書風刻苦功  
 堂堂品格振西東  
 黃花放馥憐幽菊  
 山葉吐紅尤美楓  
 碑表奇文華韓傳  
 林塘影月古今同  
 頌聲秀作通青史  
 祝慶詩魂爲老翁

中國黃山碑林에 收刻된 作品의 拓本



나는 여기서 黃山에 對한 紹介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옛부터 이 山의 아름다움은 唐代의 大詩人 李白 杜甫等에 의하여 稱頌되었었다. 또 明代의 地理學者이며 旅行家인 徐霞客이란 사람은 30년에 걸쳐 中國 山河를 遍歷하고 나서 黃山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하였다. “五岳(泰山 衡山 恒山 嵩山, 華山)을 돌아본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보통산 따위는 갖다 뭉칠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黃山에서 돌아온 사람은 그 五岳따위가 뭐가! 어렵도 없다 하였다. 이토록 멋진 山이란 애기다 이렇듯 이 山에 魅了되었던 나는 觀光도 할겸 碑林에 刻된 나의 作品도 불검 갈 機會를 노리고 있던 中 마침내 93年 8月 25日 부터 30日까지에 韓中修交 1週年記念 書畫展이 中國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機會다. 그러니까 두번째의 中國行을 맞게 되는 셈이다.

王祥之先生과의 連絡으로 만반의 準備를 갖추고 때를 맞추어 떠났다. 이번에는 前番과는 조금 달랐다. 上海를 經由하는 比較的 短距離였다. 이번에 열리는 修交一週年記念行事에는 40餘名の 우리 書畫人이 參席했으며 駐中韓國大使를 비롯 駐中各機關의 高位幹部들도 많이 參席했다. 中國側에서도 政府高位職을 비롯하여 有名書畫人들이 많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幕을 올렸으며 王祥之의 主管으로 열린 이 展示會는 北京故宮博物院 繪畫館에서 였다.

開場行事가 끝나자 나는 다음날 王先生과 같이 一路 黃山을 向해서 出發했다. 4泊5日の 빠듯한 日程이기에 서둘러 다녀와야 했다. 나외의 一行은 처음 구경하는 中國旅行者들이라 白頭山 延吉을 포함한 다른 곳으로 旅程을 잡았다. 일단 헤어졌다가 北京에 돌아와 그들과의 다음 行事에 合流해야 하기때문에 바빴

다.

直行 飛行機便이 있었지만 時間이 잘 맞지 않아 南京行을 타고 南京에서 다시 黃山行으로 갈아타야 했다.

黃山에서의 迎接은 대단했다. 黃山市政府 所在地는 屯溪라는 都市였다. 明媚秀麗한 新安江에 둘러싸여 있는 작으마한 都市로 黃山の 南麓에 位置한다. 黃山 飛行場도 勿論 屯溪에 있다.

黃山の 觀光은 여기서 부터 始作된다. 屯溪에서 約 2~3時間 自動車를 타고 가면 黃山大門에 이른다. 여기서부터 벌써 絶景이다. 우리는 通常 아름다운 山이라면 雪嶽山을 聯想케 한다. 그러나 黃山엔 比較할 바가 못된다. 그저 아름답다는 말 以外에는 할 말을 잇는다.

이토록 黃山이 稱頌을 받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總面積 154Km<sup>2</sup> 周圍는 120Km에 이르며 72개의 봉우리가 숲처럼 서있고 이 가운데 1,500m 以上の 山 만도 30個 以上이다.

이것이 또 구름과 바위와 소나무의 奇異함과 어울려 그림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여기에다 溫泉마저 有名하니 錦上添花다. 그래서 이것을 四奇라고 일컫는다. 어찌보면 사람의 形象, 어떻게 보면 動物의 모양... 가지가지다. 이것들이 합쳐서 푸른 하늘과 大地를 映像하여 수없이 아름다운 情景을 繡놓으니 더할 나위없이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 나의 作品이 碑石에 새겨져 세워진단다. 한마디로 榮光이다.

여기서 碑林에 對한 얘기도 곁들여 하고 넘어 가야 하겠다.

碑林이란 글字 그대로 碑의 숲이라는 뜻인데 知性人들의 旅

행이라면 으레 실크로드의 始發點이기도 하며 11個朝에 걸쳐 千百年의 首都였던 由緒깊은 西安을 빼 놓지 않고 돌아본다. 이 西安에 바로(190年間을 서울로 삼았던 唐만은 長安이라 하였다) 그 有名한 西安碑林이 있다. 이 碑林에는 250餘年에 걸쳐 蒐集한 漢, 魏, 隨, 唐, 宋, 明 清朝에 이르는 書藝作品들이 1,095個의 碑에 새겨져 保存되어 碑의 숲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作品들의 作家는 한결같이 名筆임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또 이 碑文의 拓本들은 오늘날 書學徒들의 좋은 敎本으로 使用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와 같은 일은 옛 名筆들의 作品을 永久保存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은 近世에 와서도 活性化되어 全國의 名勝古蹟地에도 곳곳에 現代作家들의 作品을 保存하는 碑林도 볼 수 있다. 이런 事業의 一環으로 山水가 아름답기로 有名한 安徽省 黃山에도 碑林을 세우자는데 意見이 모아진것 같다.

王祥之씨의 周旋으로 黃山市當局으로 부터 正式으로 作品의 徵稿書를 받은 나는 너무나도 感激스러워 어쩔줄을 모르면서 作品을 보내게 되었다. 其後 刻이 되어 그 拓本을 보내 오므로 서 事實임이 確認되었다.

그 拓本을 받는 瞬間 나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나의 자랑이자 家門의 자랑이며 우리 韓國의 자랑일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기가야 우리 韓國人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직껏 中國땅에 우리의 作品이 碑에 새겨져 세워졌다는 所聞을 寡聞한 탓인지는 몰라도 들은 바 없으니 말이다.

畫家の 榮譽는 佛蘭西의 著名한 博物館에 自己의 作品이 所藏되는 것이고 書藝家로서의 榮光은 中國땅의 碑林에 作品이

收刻되어 永久히 保存되는 것일 것이다.

紀行文이 아니기에 대충대충 얘기하게 되지만 케불카를 타고 雲谷寺에 오르고 仙境에 醉하면서 登山길에 올랐다. 終日토록 걸어도 지칠줄을 몰랐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景致이기에 歡聲만 連發이다. 그 有名한 始信峰의 奇松을 돌아보고 北海賓館에 머물면서 排雲亭을 찾았다. 어찌 말로 다 表現할 수 있으랴. 千丈의 벼랑에서 내려다 보는 奇岩怪石들 雲海들 奇松들... 가는 곳마다 奇景에 발 걸음은 저절로 멎는다.

黃山の 最高峯인 蓮花峰은 이 黃山の 하이라이트다. 몇千個의 階段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개미떼같다. 그리고 또 한번 놀란것은 너무나도 잘 돼 있는 景觀管理다. 登山路가 너무나도 잘돼 있고 깨끗하다. 휴지 하나 담배꽂초 하나 볼수 없다. 우리의 본받을 바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지친 몸을 끌고 雲谷山莊에 내려와 1泊하고 다음날 저녁 黃山市文化局長(曹芷生)이 베푼 晚餐會에 參席하여 山海珍味の 참맛을 보았다. 너무나도 응송한 待接이 었다.

그 자리에서의 일이다.

中國사들은 知性人끼리라면 會食이 있을때마다 別室에 마련된 揮毫場으로 引導된다. 紙筆墨硯이 잘 準備되어 있다. 서로가 一筆揮之하며 風流를 즐기는 것이 常例이다.

나도 例外없이 會食前에 別室로 案内되었다. 나는 무엇을 쓸까하고 망서렸지만 얼른 다음과 같은 句가 떠올라 卽席에서 一筆揮之했다.

雲奇石奇又松奇

奇奇總是黃山奇 라고

이와 같이 貴賓待接을 받아가며 즐기는 旅行가운데 時日은 자꾸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市內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碑林으로 案内되었다.

中國內의 著名書家は 勿論 台灣作家까지 包含된 훌륭한 作品들이 收刻된 碑林을 보고 참 잘 찾아와서 잘 確認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가노라고 自肯하면서 屯溪를 떠나야 했다.

오던길에는 汽車便으로 南京에 들렀다. 시간이 없어 孫文의 墓所만을 잠깐동안 돌아보고 北京에 되돌아와 一行과 合流하여 歸國길에 올랐다. 이 旅行을 하면서 다시한번 王祥之氏의 仔細한 性格과 幅넓은 交際와 가는곳마다의 歡待에 놀랐다. 참으로 뜻깊은 추억을 남겨주는 꿈같은 旅行이었다.

이러던 中 1994. 4. 26부터는 5日間에 걸쳐 韓中作家 200人展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지난해의 修交 1周年紀念展의 화답形式으로 열리는 展示會였다.

이번에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차례다. 이 行事に 招請받은 中國側 人士는 王祥之씨를 비롯하여 胡長淸 李尙齋, 張晗等 4名이다.

그런대로 우리로서는 誠心껏 接待하노라 하였는데 프레지덴트 호텔에서의 5泊6日は 너무나도 짧았다. 公式歡迎行事は 소피텔암버서더에서 盛大히 열어 주었고 展示場인 서울역 갤러리에서는 開場行事を 盛況裡에 마쳤다. 나는 이들을 接待하는데 여간 神經을 쓴것이 아니었다. 꼬박 5日間을 그들과 같이 지내야 했다. 市內觀光, 仁寺洞거리, 市場, 百貨店等を 둘러보는것은 勿論 韓國傳統料理에도 招待하고



같이 즐겼다. 이때도 卽席揮毫의 場은 例外없이 벌어졌다. 다들 名筆이다.

그런데 韓國에 온 記念으로 나는 우리 農村의 發展相과 시골 風景도 보여주고 싶었다.

하루를 割愛하여 議政府지나 長興이라는 遊園地로 갔다. 오가는 途中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山河. 산과 들을 넘으며 주고 받는 즐거운 談笑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드디어 어느 閑寂한 숲속의 料亭인 “山村”이라는 집으로 찾아들었다. 韓國飲食의 眞髓를 맛본다. 다들 飲食맛을 極讚한다.

土俗酒의 술맛도 좋단다. 其中 斗酒不辭의 두 친구와 더불어 마시고 또 마시고 醉하고 또 醉했다. 마치 李太白이라도 된듯이.

서툰 中國말과 筆談으로 오고가는 情談에선 杜甫의 詩도 나오고 王維의 詩句도 나온다. 高聲放歌도 나온다. 정말로 재미난다. 해가 저물어 올 무렵 興에 醉하고 술에 醉한 몸을 가다듬어 臨津閣으로 向했다. 國土分斷의 아픔을 보여 주고 싶어서 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깊은 感懷에 젖으며 一路 歸京했다. 뜻있는 하루였다고 생각한다.

여기 特記할 사실을 하나 더 追記하면서 끝을 맺으려 한다.

이번에 온 中國作家 4人中 胡長清씨는 저 有名한 洞庭湖가 있는 湖南省이 故鄉이다. 그리고 中華人民共和國의 國務院의 宗教局副局長이며 北京大學의 兼職教授이다. 이분은 全國의 名勝古蹟의 管理도 맡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洞庭湖一帶도 勿論 그의 管轄下에 있다.

또 그와 나는 前年 修交紀念展때 익히 잘 親해진 사이였다.

그는 自身을 酒鬼라 할 程度로 豪酒家다. (그는 또 나를 酒聖이라 해가며 서로가 一杯一杯復一杯다). 그는 나의 글씨를 認定해주고 나는 그의 博識함에 驚嘆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불쑥 이렇게 말한다.

“洞庭湖畔의 岳陽樓를 아느냐고” 묻는다. “그 岳陽樓의 碑林에 당신의 글씨를 收刻하여 保存하고 싶다”는 것이다. 놀라고 또 感謝했다.

나는 대뜸 杜甫의 “登岳陽樓” 詩를 종이에 써 보았다.

昔聞洞庭湖 今上岳陽樓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  
親朋無一字 老病有孤舟  
戎馬關山北 憑軒涕泗流 라고

이 외에도 張均의 “岳陽晚景” 賈至의 “岳陽樓重宴別王八員外貶長沙” 等の 많은 詩가 있는것을 얘기하니 놀라며 感嘆한다.

나는 다시 한번 感激했다. 中國 곳곳에 나의 글씨를 심어 넣게 되는구나 하고. 그런데 또 잇따라 다음과 같은 말을 해 오는 것이 아닌가. 놀라운 일이다.

그는 李自成이란 사람을 아느냐는 것이다. 잘은 모르지만 明末의 農民烽起의 領袖가 아니냐고 대답했다. 맞다고 하면서 그는 李自成에 對한 얘기를 해 가며 그의 圓寂地인 湖南省石門縣의 夾山碑林에도 나의 作品을 收刻하여 立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두 곳의 碑林에 立碑케 하겠다는 確約을 받아놓고 너무나도 기뻐 雀躍했다.

아직 正式으로 徵稿書는 받아 놓고 있지 않지만 早晚間 作品을 準備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날 갑자기 中國北京日報社에서 해묵은 郵便物이 날아왔다. 開封하니 당신의 作品을 珍重하게 所藏하고 있다는 收藏證書였다(別添).

## 北京日報

---

### 收 藏 证 明

韩国著名书法家朴泳馥先生所作的  
书法一幅，珍藏于北京日报社。

北京日报社社长：



北京日报社

1993年11月

喜消息의 連打다 그리고 또 한번 洞庭湖의 그 아름다움과 故人들의 詩意를 吟味하면서 周遊할 날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 解 放 과 恩 師



### 韓 承 銀(24回)

解放을 맞아 제가 軍(日本軍)에서 除隊하고 歸家한 日字는 1945年 8月 21일이었습니다. 제가 學徒徵兵으로 入隊한것은 同年 2月 初였으니 겨우 6個月만에 二次大戰은 끝나고 無事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中國의 奧地戰線이나 南太平洋地域에 配置되었더라면 끔찍한 苦生에다 희생을 當했을지도 모를일이 있었었습니다. 多幸히 咸鏡北道地域에 配置된 것이 무엇보다도 運이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 一年先輩까지는 學徒志願兵에 해당되고 우리나라(甲子生)부터는 徵兵一期로 入隊하게 된 것입니다.

日本東京의 C大學豫科에서 修學中 入隊했기에 入隊中에는 見習士官候補生으로 待遇가 좋았고 比較的 便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當初의 入隊는 咸北 鏡城이었으며 몇個月後 羅津에 再配置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8月 9日 蘇聯軍의 宣戰布告와 同時에 空軍의 大大的인 폭격을 계속 받으면서 淸津쪽으로 南下의 後退를 거듭하다가 城津에 와서 日本의 降伏으로 終戰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5日後에 現地에서 部隊가 解放하게되면서 저는 即時 避難民車를 타고 咸興집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一트 집에 돌아와 보니 끔찍하게 不安定하고 어수선한 解放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면서 生活의 方向조차 견잡을수 없고 따라서 어떻게 할바를 제대로 종잡을 수 없는 每日每日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우기 蘇聯軍의 進駐와 함께 새로운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無秩序는 極度の 混亂을 亂舞하게 했고 따라서 市民들은 말할수없는 虛脫한 生活을 보낼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結局 저는 하루빨리 서울에 가서 學業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決心을 내리고 여기에 對한 여러가지 準備를 着着 進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나날의 어떤날의 일이었습니다. 正確히 記憶에 남는 것은 9月初旬의 어느날 午後였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玄關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나가 門을 열고 보니 어떤 허름한 모자와 勞動服차림의 中年(4,50才가량)의 한 乞人이 새끼로동여맨 도끼를 어깨에 멘채, 失禮합니다, 나무를 팔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日本語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그 얼굴 그 모습! 아! 塩崎(시오자끼)先生이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란채 「글쎄 들어가서 물어보고 올테니 잠깐만 여기에 앉아 계시지요」라고 해 놓고 房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南中을 卒業한지도 三年이나 지난만큼 相對쪽에서는 그 많은 卒業生中에서 내 얼굴을 記憶하고 있을 理가 없습니다.

저는 即時 兄嫂님한테 「우리 南中の 恩師인것 같은데 食糧이나 돈붙이 같은것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正面으로 다시 復習기 困難한만큼 代身 말씀 잘해서 보내 주십시오」라고 付託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該의 房의 門틈으로 그 얼굴을

다시 確認하려고 했습니다. 塩崎先生이 틀림 없었습니다.

中年의 그 허스키한 목소리, 많이 쇠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健壯했던 그 體格의 흔적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食糧과 돈붙이를 받고 몇번이나 허리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戰爭과 平和 民族과 人類, 스승과 弟子…. 옛적에는 威容도 堂堂하시던 그 모습이至今 이렇게 하나의 乞人으로 變해버린 歷史的 現實을 앞에 두고 萬事를 豫見할 수 없는 人間의 運命에 對해 새삼 깊은 想念에 잠길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4回의 通學當時에는 橫田(요꼬다)校長先生下에 教務主任에 英語를 擔當하던 石川(이시카와)先生이 있었고 塩崎先生은 歷史를 擔當하시면서 訓育主任을 맡고 있었습니다. 塩崎先生은 萬事に 無難하시고 擔當科目인 歷史外에도 訓育主任으로서 教養講座까지 擔當하시고 隨時 各學年別 또는 全校生을 講堂에 集합시켜 여러가지 教養講座를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特別히 記憶에 남는것은 없지만 “精神이 健康해야 肉體도 健康해진다” 라고 하던 말씀이 아직도 어렵듯이 記憶에 살아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든 塩崎先生이 이렇게 우리집을 다녀가신 後 저는 이웃이나 가까운 동네의 여러 同窓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하나의 이벤트라 할까 해프닝이라 할까를 이야기했더니 모두 깜짝 놀라면서 어떤親舊는 「先生님의 집이라도 찾아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意見도 있었지만 大概의 意見은 「지금 모든 日本사람들의 事情이 그러한 狀況속에서 右往左往하고 있는 판

에 本人의 體面을 살려주는 意味에서라도 가만히 自己들의 處身에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事實 그 當時에는 蘇聯軍의 進駐에 따라 우리 現地 韓國人들의 生活도 이것저것 不便하고 不安한 속에서 東奔西走하던 때인지라, 敗戰國인 日本人들의 苦生이야 말할수없는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每日같이 들려오는 말에는 어느 골목에서 日本人 處女가 몇명이나 능욕當한채 죽어있더라던가 어느골목에서는 日本人家屋에 쳐들어가家具를 부시고 珍品이나 家財를 強奪해 갔다라던가...등등 이런저런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하고 또 직접 눈에 띄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해서 이 조그마한 해프닝이 점점 내 머리에서 잊혀져 가는 10月中旬에 저는 우리 親知 3,4명과 함께 咸興驛에서 汽車(말이 汽車이지 完全한 避難列車)를 타고 越南의 길로 떠났습니다. 겨우 滿2日間の 列車生活끝에 鐵原驛에 숨어내리고, 신탄리 대광리 連川 全谷까지 단숨에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避難길가에는 數많은 日本人 難民들이 길가에 들어누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韓國사람들은 그란대로 列車도 타고 먹을것도 어느程度 準備한채 越南길에 올랐겠지만 敗戰 日本人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列車같은것도 타보지 못한채 여기저기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女人들은 어린애를 안은채 먹을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울고 있었고, 어떤 老人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처럼 뼈만 엉성하게 남은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塩崎先生의 모습이 내 腦裏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누워있는 日人들의 얼굴이 全部가 塩崎先生인 것만 같이 보

이기에 차마 더 이사람 저사람들을 쳐다볼수 없어 내 발길을 南쪽으로 재촉했습니다. 그 當時에는 蘇聯軍의 監視도 허술한 때인지라 全國에서 夜陰을 타서 한탄江을 건너 새벽녘에 東豆川에 겨우 到着했던것입니다.

드디어 以南에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解放을 맞이한것도 來年이면 50년이 되어갑니다. 내 自身の 親戚이나 親知와 헤어진것도 50년이 되어갑니다. 塩崎先生을 最後에 만난것도 50년이 되어갑니다. 解放과 더불어 各自의 人生에 數많은 苦痛과 즐거움의 經倫이 쌓이고 쌓였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직도 그 작은 塩崎先生과의 해프닝은 지금도 決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每年같이 8·15가 다가오면 그 생각이 나고 同窓들 모임에서 옛날 學窓時節 이야기가 나오면 亦是 또 그 塩崎先生이 떠오릅니다. 올해도 지난 6月 中旬에 우리 24回의 同期同窓會가 송추계곡(의정부)에서 있었습니다. 亦是 그 자리에서도 그 塩崎先生의 해프닝이 큰 話題거리가 되었습니다. 萬一에 塩崎先生께서 살아 계셔도 이제는 90을 훨씬 넘은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삼가 冥福을 빌어올리는 바입니다.

◎人間은 宗教, 藝術, 哲學에 있어서 비로소 完全 自由한 解脫을 얻을 수 있다.(헤겔)





비포름 가는 길

## 25回

- ◎ 佐護先生 ..... 金世翊(25回)
- ◎ 生地獄에 갔더니 ..... 劉長得(25回)
- ◎ 隨想三題 ..... 韓承五(25回)



## 佐護先生



金世翊(25回)

나이가 많아지면 젊은 날을 회상하거나 과거의 추억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동창회지의 성격상 어쩔수 없는 일이지는 하나 남중이나 함고 시절의 추억과 회고담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우리 남중 동창들도 많은 월남 실항민과 같이 오랜 세월동안 무서운 세상을 살아왔으며 가난과 모멸과 굴욕 속에서도 자멸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 마땅하다. 우리 일생에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꿈 많던 남중 시절이었을 것이다.

가난도 모르고 선택된 엘리트로서 남중 모자를 쓰고 산수정, 군영통, 황금정 등을 설치고 다니던 그 시절이 우리들의 황금기였기에 동창회지에 글을 써도 그 남중 시절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 다보면 본의아니게 제 자랑을 하게 되거나 남에게 뜻하지 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또 동창회지라고 해서 추억담, 회고담 일변도라면 지겨울 수도 있으니 이

글에서는 과거가 아닌 오늘적(今日的?)인 이야기 한 토목을 소개함으로써 여러 동창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도 남중 시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나는 30여년 학교에 있다가 65세가 되어 정년 퇴임을 했는데 동경에 있는 아세아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오라는 초청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 대학은 무사시노(武藏野)에 있으며 여기서 가까운 하찌오지(八王子)라는 곳에 사고(佐護)선생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고선생은 우리가 남중 3학년인가 4학년 때에 한 학기인지 두 학기 동안 영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50년 전의 일이다. 강산이 다섯번이나 변했는데 지금에 와서 남중 시절이 그리다는 개인적인センチ멘탈리즘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대해 망설여졌다.

모든 학생이 그러듯이 나도 사고 선생을 선명하게 기억하지만 그 분이 나를 알아볼 까닭이 없다. 남중 시절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영어는 더욱 엉망이었는데 그의 기억 속에 내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해도 또 몰라본다 해도 옛날 은사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유교적인 에티켓인데 80세가 넘는 노인을 함부로 방문하는 것도 뜻하지 않은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 80이 넘는 노인은 개인차는 있을지라도 제자고 나발이고 다 귀찮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 기본적으로 제자라고 다 반가운 것도 아니다. 나도 30여년 학교에 있어서 제자가 수 천명이 되지만 제자라고 만나서 다 반가운 것도 아니며 부담스러운 때도 있다. 모든 선생이 다 반갑지 않은 것처럼 모든 제자가 모두 반갑지 않다는 사실은 서로가 약점 많은 인간이기 때문일게다. 그에게 있어서 나는 하늘의 별만큼 많

은 제자들 중의 이름도 번지수도 모르는 평범한 옛 제자의 한사람에 지나지 않으니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폐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러웠다. 그러면서도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고선생을 만나 보고 싶은 심정의 원천은 50년 동안이나 골수에 사무친 기막힌 노스탈자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인상과 함부로 학생들을 패대는 야만인적인 데가 없었다.

남중 시절에 나는 두번 선생님에게 두들겨 맞았는데 한번은 수학시간에 흑판에 나가서 문제를 푸는데 집에서는 풀었는데 흑판 앞에 서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래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니 뒤에서 한장이 선생이 그 큰 나무 콤파스로 머리를 마구 때렸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공부를 쓰게 못한 죄니 누굴 탓할수도 없었다. 또 한번은 「N선생이」라는 화학선생이 마구 패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맞아야 했는지 그때도 지금도 모르고 있다. 이 선생은 「야마모도 무사시」처럼 양손을 써가며 때로는 발길질도 하면서 학생들을 패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이코 환자였던것 같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살벌한 시대에도 사고선생은 온순하고 실력있는 분이어서 학생들의 신망이 높았다.

사고선생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내가 일본 땅에 와서 일본말로 일본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천박한 속물근성도 있었을 것이다. 미리 편지를 냈더니 곧 전화로「반갑다. 만나고 싶으니 곧 찾아오라」고 하시면서 전차타는 방법까지 소상히 설명해 주신다. 일요일날 하찌오지의 야엔자카(野猿坂)라는 버스 정류장에 내리니 사고선생이 나를 기다리며 서 계셨다. 그는 내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지만 나는 금방 알수 있었다.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보이지만 옛날과 같이 그는 동안이

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약 10분 거리에 조용한 주택가에 그의 집이 있었다. 서울의 벽제같은 인상을 주는 마을이었다. 그다지 넓지 않은 마당에는 여러종류의 봄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정원 손질도 잘 되어 있었다. 집안의 인테리어도 수준급이며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 참 집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고 했더니

「 우리 와이프는 화도(華道)의 선생이라서 그렇다」 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딸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혼자서 살고 있어 노부부 두분만이 살고 있다고도 한다. 사고 선생은 82세인데도 현재 동경 시내의 두 곳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비상근(非常勤) 강사(우리나라의 시간강사)이지만 80세가 넘도록 교단에 선다는 것은 그의 기력이나 체력이 좋다는 것 외에도 영어 실력이 대단한 것 같다. 80이 넘도록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것은 실력이 월등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선생은 나에게 기미, 기미(君) 하시면서 반말을 하신다. 일본말의 기미는 우리말의 군과는 다소 뉴앙스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70세가 된 나에게 철저하게 반말을 하며 기미 기미 해야 할까하고 처음에는 다소 의아하게 여겼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자를 손수 집어 주시면서 먹으라고 권하거나 직접 차를 따라 주시는 태도에는 제자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깔려 있음을 느끼게 한다. 스승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견지하면서도 농도 짙은 제자 사랑의 진정을 느끼게 한다. 그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고선생은 교양인이라는 점이다. 교양 있는 노부부가 간소하지만 풍격 있는 환경 속에서 질 높은 노후를 조용히

살고 계셨다. 그날의 사교선생과의 많은 대화 중에서 한 토막을 소개한다.

「자네는 어떻게 일본말로 강의하는가, 어렵지 않아?」

「옛날 함남중학에서 일본말을 철저히 배워서 지금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그는 피식 웃는다.

저녁때가 되어서 귀가하려고 나왔더니 부인께서 현관 다다미에 정좌하고 공손히 작별인사를 하신다. 이런 광경은 오늘의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다. 해방후에 일본에서는 강해진 것은 나이론 양말과 여자라고 하는데 일본의 전통적인 여인상은 아마도 사교선생의 사모님의 세대가 마지막인성 싶다.

옛날에 야생 원숭이들이 뛰놀았다는 야엔자카의 언덕길을 80세의 스승과 70세의 제자가 봄비를 맞으면서 별말없이 걷고 있다. 흥원에서 태어나서 함흥에 유학을 와 5년 동안 명문 함남중학에서 꿈 많던 소년시절을 보내고 1943년에 졸업, 몇 차례의 낙방 끝에 간신히 서울의 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징병 2기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해방, 그리고 실항민, 무서운 가난과 모멸과 굴욕을 겪다가 한국전쟁과 군대... 인생의 뒤편길을 구비구비 헤메다가 나이 70이 되어 이렇게 이국 땅에서 옛 스승과 부슬부슬 봄비를 맞으면서 언덕을 오르고 있으니 운명의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선생님은 나와는 다르겠지만 20대의 젊은 시절을 보낸 산자수명한 함흥을 회상하시는 것 같았다. 봄비는 계속해서 우산을 적시고 있었다.

1994. 6. 30

## 生地獄에 갔더니



### 劉長得(25回)

1946年 2月 28日 밤의 反共舉事로 同年 3月 7日 檢舉되어, 反動分子로서 獄살이가 始作되었다. 그 混亂期の 아팠던 일, 괴로웠던 일들은 다 빼고, 어떻게 보면 우습고 또 쉽게 풀리던 일들을 심심풀이로 回想하겠다.

#### 1. 檢察官을 가르치다

1946年 3月 9日 밤 子正頃에 當直署員에게 連行되어 留置場에서 取調室로 갔다. 檢察官의 相부터 살폈다. 덜 다듬어진 村사람 같았다.

取調를 하는데, 問 “ 너희들이 우리를 개 돼지 같은 놈들이라 했지?” 答 “ 예”. 그런데 調書에는 犬자를 쓰더니 머뭇거린다. 이윽고 “ 여보시오, 돼지란 漢字를 어떻게 쓰지?” 하고 물었다. 개를 犬으로 쓰는 것을 보고, 漢字만 쓰면 有識한 줄 아는 水準以下の 人物임을 얼른 눈치채고, 슬그머니 놀려줄 생각을 했다. “ 東洋에서 生月日時를 적을 때 쓰는 十二支 中の 亥字요” 하고 卓子 위에 써 보였다. 그랬더니 “ 아는데” 한다. 다음에 “ 멧돼지 豬字요” 하면서 써 보였다. 그러자 “ 그 字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양돈이란 돈字 있지 않소?” 한다. “아 예” 하고 豚字를 그려 주었다. 그 字를 받아쓰는데, 月자를 쓰고 오른쪽을 잊어버리고 또 물었다. 천천히 豕을 그렸더니 겨우 썼다. 그리고 나서 “요 부르쥬아 새끼야, 너는 父母가 돈이 많으니 工夫를 많이 했지만, 우리 푸로레타리아는 가난해서 工夫를 못했다.” 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때 逆攻을 했다. “여보시오, 옛날부터 선비는 가난했소. 그래 晝耕夜讀이란 말도 있소. 가난한 사람은 工夫 못한다는 法은 없소. 나는 富者집 아들이 아니오. 그리고 지금 쓴 調書는 表現이 틀렸소. 우리말은 한글로 써야 理致에 맞고 寫實的이요. 건돈 같은 놈들이란 말이 어디 있소. 글을 가르친 사람은 先生인데 이렇게 忽待해도 되는거요.” 그랬더니 그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다른 用紙에 한글로 썼다.

그 모양새가 惻隱해 보였다. 아무리 世上이 바뀌었기로 이런 水準未達者 檢察官이라니... 참 寒心하였다.

## 2. 꺼삐딴의 피스틀

內務署에서의 두 번의 取調를 마치고 이틀 뒤 署員에게 이끌려 蘇聯駐屯軍本部에 갔다. 二層의 房은 잘 整頓되었고, 端正한 차림의 슬라브族으로 보이는 잘생긴 大尉가 正面에 앉아 있었고, 그 左便에 옆으로 通譯員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大尉와 마주 앉았다. 이 날의 調査는 蘇聯軍 拘置所에 移送되고 軍事裁判에서 刑이 確定되면 시베리아 收容所에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었다. 反蘇로 물리면 큰 일이다. 또 三人의 代表로서 呼出되었으니 責任이 莫重하였다. 마음 準備를 단단히 하였다.

大尉는 身上審問에 이어 “共産主義를 反對하는가” 라고 묻는다. “아닙니다. 階級과 搾取 없는 平等과 福된 삶을 追求하는

思想을 왜 反對하겠습니까.”라고 對答하고 動靜을 살폈다. 괜찮다 싶었다. 이어서 “그런데 왜 共産黨을 反對하는 壁報를 붙이고, 各 機關 團體의 看板을 지웠는가”라고 묻는다.

이 고비를 벗어나야 했다. “事實은 共産黨을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一部 過激한 젊은이들이 解放된 祖國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살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몽둥이와 깃발을 들고 高喊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서, 施設의 破壞와 物品의 掠奪 등을 일삼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들의 集團을 誹謗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마음이 좀 놓였다. 이어서 “蘇聯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稱讚해야 살지 하고 “日本帝國主義者들에게 苦痛을 받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救해 준 偉大한 解放軍입니다. 萬一 蘇聯軍이 이 땅에 進駐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日本놈들에게 끌려가 죽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大尉는 通譯員의 말을 듣더니 가볍게 한마디 했다.

그런데 通譯員이 “야 이 惡質反動分子 새끼야, 너는 우리의 敵이다. 우리가 人民을 爲해서 밤낮을 鬭爭하는데 왜 그것을 反對하느냐. 너희들은 앞으로 무서운 懲役을 살 것이다” 하고 辱說과 脅迫을 했다. 瞬間 젊은 血氣에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시오, 當身은 저 러시아 사람과 나 사이의 말을 그대로 通譯해서 傳하기만 하면 될 일이지 왜 욕하는 거요. 러시아말 한마디가 우리말로 그렇게 긴가요. 또 大尉는 욕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當身은 뭐요, 건방지게”하고 덤벼들었다. 사나운 말들이 오고 갔다.

그러자 大尉는 뭐라 소리를 질렀다. 고개를 돌려보니 Pistol

銃口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아찔했다. 瞬間 機智가 發動되었다. 微笑를 지으면서 손짓을 섞어가면서 낮은 목소리로 영터리 英語를 했다. “Captains speech is short, Translators speech is very long, I don't know, I am sorry sir.” 알아들은 듯 꺼삐딴은 피스틀을 놓고 調査카아드에 署名하라 했다. 內容은 露語여서 몰랐다. 한글로 이름을 쓰고 돌려 주었다. 눈치로 狀況을 判斷하니, 大尉의 調査가 끝났다는 한 마디를 通譯놈이 虛勢를 부리면서 제멋대로 말한 것이었겠다. 그저 참아야 하는 건데... 야, 살았다.

### 3. 敎化所의 敎官(看守)들

1946年 3月 下旬부터 敎化所 살이가 始作되었다. 이 곳에서는 收監者들을 다스리는 看守를 敎官이라 부른다. 敎官들의 사람 됨됨이에 따라 獄苦의 程度가 달라진다. 解放後 얼마 안된 混亂期라 그런지, 敎官中에는 過激한 言行으로 말미암아 收監者들의 憤怒를 일으키는 惡質도 있었고, 그저 말은 일이나 要領껏 하면서 눈치나 보는 者도 있었고, 또 우리를 마음 속으로는 人間的으로 對해 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다. 나는 그 中에서도 참 좋은 敎官을 만나는 幸運을 얻었다.

우리 棟의 責任敎官 L氏는 내게 반말 한마디 안하고, 가끔 돌아보며 “不便하지요. 좀 참으시오.” 한다. 어느날 어머니가 보내주신 私食을 눈물겹게 맛있게 먹었다. 얼마 後 食事官이란 者가 오더니 “이 새끼야, 왜 私食을 몰래 먹었어” 하면서 뺨을 몇 차례 때렸다. 소리를 들었는지 敎官이 뛰어와서 “이 사람을 왜 때리는 거요, 私食은 許可 받고 들어온 것이요. 알지도 못하면서 罪 없는 사람에게 손지검을 하다니, 돌아가 當身 일이나 하

시오” 하고는 “어디 다친데는 없어요” 하면서 慰勞해 주었다. 아, 내게도 고마운 사람이 있구나.

獄살이도 그럭저럭 며칠이 지났다. 그 때가 春耕期라 일손이 모자라 未決囚들도 모두 開墾作業에 動員되었다. 運動場을 밭으로 만드는 일이었는데, 괭이로 찍으니 어떻게나 딱딱한지 잘 파지지 않았다. 그런 일에 익숙하지 못해 終日 죽을 苦生을 했다. 손바닥이 터지고 팔이 쭈서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튿날 너무 아파서 動員擔當者에게 터진 손을 보이면서 오늘은 일할 수 없다고 했다가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無數히 맞았다. 그런데 그쪽의 욕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教官部長이 달려왔다. 대뜸 動員擔當者를 보고 “이 사람은 未決囚야, 일을 안해도 돼 왜 때렸어, 法도 모르면서” 라고 나무란다. 때리던 놈은 슬그머니 돌아서 사라졌다. 部長은 “어디 크게 다치지나 않았어요?”. 하고는 등을 어루만지면서 念慮해 주었다. 이 때 처음 눈물이 났다.

이윽고 部長이 벽돌運搬場 구석으로 대러가더니 “여기서 폭쉬시오” 하고는 現場教官에게 “이 사람에게 一等 밥(重勞動者에게 주는 밥으로 監房 밥보다 量이 두배나 됨)을 주시오” 하고 떠났다. 그냥 監房에 있게 하면 작은 밥덩어리가 支給되니, 큰 밥덩어리를 주기 爲한 配慮인 것이었다. 이때 나는 部長에게 兄弟의 情 같은 것을 느꼈다. 어느날 棟責任 L教官이 203號(내가 갇혔고, 또 監房長을 맡았던 곳)로 찾아와서 버스 車庫에 가서 일하겠는가고 물었다. “正門 바로 右側에 있어 바깥 世上도 볼 수 있으며, 運轉教官도 좋은 분이고 일도 쉽다”고 했다. 믿을 만한 「教官의 말이라 快히 應諾을 했다.」

車庫에 갔더니 運轉教官과 運轉手 出身의 30代 收監者가 버스의 木炭가스 發生爐를 떼고, 液體燃料機關으로 再整備하는 中이었다. 「教官의 紹介로 運轉教官과 人事를 나누었는데, 사람을 對하는 態度가 恭遜했다. “오늘은 구경이나 하시오. 이분(收監者)과 같이 하는 일이 끝나면 當身하고 들어서 이 車庫를 맡을 거요”라 한다. 그러니 部長이나 教官과의 事前約定이 있는 것 같았다.

車庫 안 小黑板을 보니 英語로 Plug, Carburetor, distributor, head light, room light 等 部品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中 distributor가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當身이 英語를 아는구먼, 어느 學校 나왔소”라 했다. “예, 咸南中學校 卒業했습니다.”고 對答했다. 그는 “야, 반갑소, 咸南中學校 學生들이다 秀才요, 나는 東京에서 工業學校에 다녔소. 解放되자 歸國해서 教官募集을 한다기에 무슨 先生을 시키는 줄 알고 應試해서 붙었는데, 와 보니 刑務所 看守더군요.

그래 그 일은 到底히 할 수가 없고, 配給이나 타고 用돈이나 벌어야 하겠기에 學生 때 學費벌이로 하던 運轉手일을 自願했소. 앞으로 서로 배우고 도우면서 잘 지냅시다.”라 했다. 그래 나는 “저는 鈍才올시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무슨 말씀” 하면서 웃었다. 두 사람은 굳은 握手를 했다.

나는 혼자서 每日 아침 車庫에 出勤했다. 車庫에서 하는 일은 버스의 清掃, 冷却期에 물 넣기, 工具整理, 며칠에 한번의 유리 窓닦기, 車가 檢察所나 裁判所에 갈 때 始動을 걸어 주는 일 등 인데, 쉬는 時間이 大部分이다. 別 할 일이 없을 때에는 運轉教官이 빌려준 自動車工學책도 보고, 車庫에 놀러오는 本部職員들

과 談笑도 하고, 正門 蘇聯軍 步哨 뽀또루戰士와도 親했다.

車庫勤務를 하면서 나는 저절로 獨步가 됐다. 獨步란 監督없이 所內를 혼자 다닐 수 있는 模範囚이다. 나는 혼자서 職員浴室에 물길러 가면 낮에는 沐浴하는 職員이 없으니 獨湯도 하였고, 食堂에 가서 큰 밥덩어리와 豆腐도 타 먹었고, 게다(日本나막신)工場, 다비(日本버선)工場 사람들과 親해서 신발, 버선을 자주 얻어 신었고, 用度係에서 한달에 두번씩 새 作業服도 供給받아 그럭저럭 足하게 지냈다. 우리 203號 監房 안에서 배고파하는 收監者에게 밥을 몰래 갖다 주기도 하고, 作業하다 다친 사람에게 病院에서 머큐롬이나 요오드징크를 얻어다 발라 주기도 했다. 새 옷이 생기면 입던 먼정한 옷은 우리 監房 사람들에게 차례로 주었다.

나는 異狀한 契機와 妙한 因緣으로 生地獄에서도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 便하게 지냈다. 그러면서 「歲月아 빨리 가거라 自由의 그날이 온다」라면서 살았다. 이 反動分子를 돌봐 주던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 隨 想 三 題



韓 承 五(제25回)

### I. 回春頌(金聲進군의 快癒를 빌며)

夙夜強勉盡仁術  
何事不顧汝養生  
雷聲一進天地靖  
萬鳥爭鳴頌回春

※ 밤낮 힘써 仁術을 베풀었지만  
어찌타 그대 養生은 돌보지 않았는고  
천둥소리 한번 지나니 天地는 다시 고로와  
못새들 입을 모아 그대 回春을 기리네

## II. 題 金(珉河)君 閑居

閑居楊平郊  
草徑入龍門  
清風弄琴瑟  
白鶴游樹海  
舉首分天色  
移步別地景  
長去還來此  
幽期莫負志

※ 그대 楊平郊外에 閑居한다기에  
풀숲길 헤쳐 龍門山 자락에 들어서니  
清風은 거문고를 뜯고  
白鶴은 너홀너홀 樹海에 노니누나  
머리를 드니 하늘 색깔이 다르고  
걸음을 옮기매 땅 멋이 유별나다.  
오랜 세월 떠나 살다 돌아 왔으니  
이젠 행여 그 뜻을 어기지 말게나



### III. 街路樹의 獨白

은퉁 잿빛에 둘러싸인 이 거리  
메마른 아스팔트 길가에  
싸움에 지친 老兵인가  
줄지어 선 삶의 껍질들  
나 한 그루 가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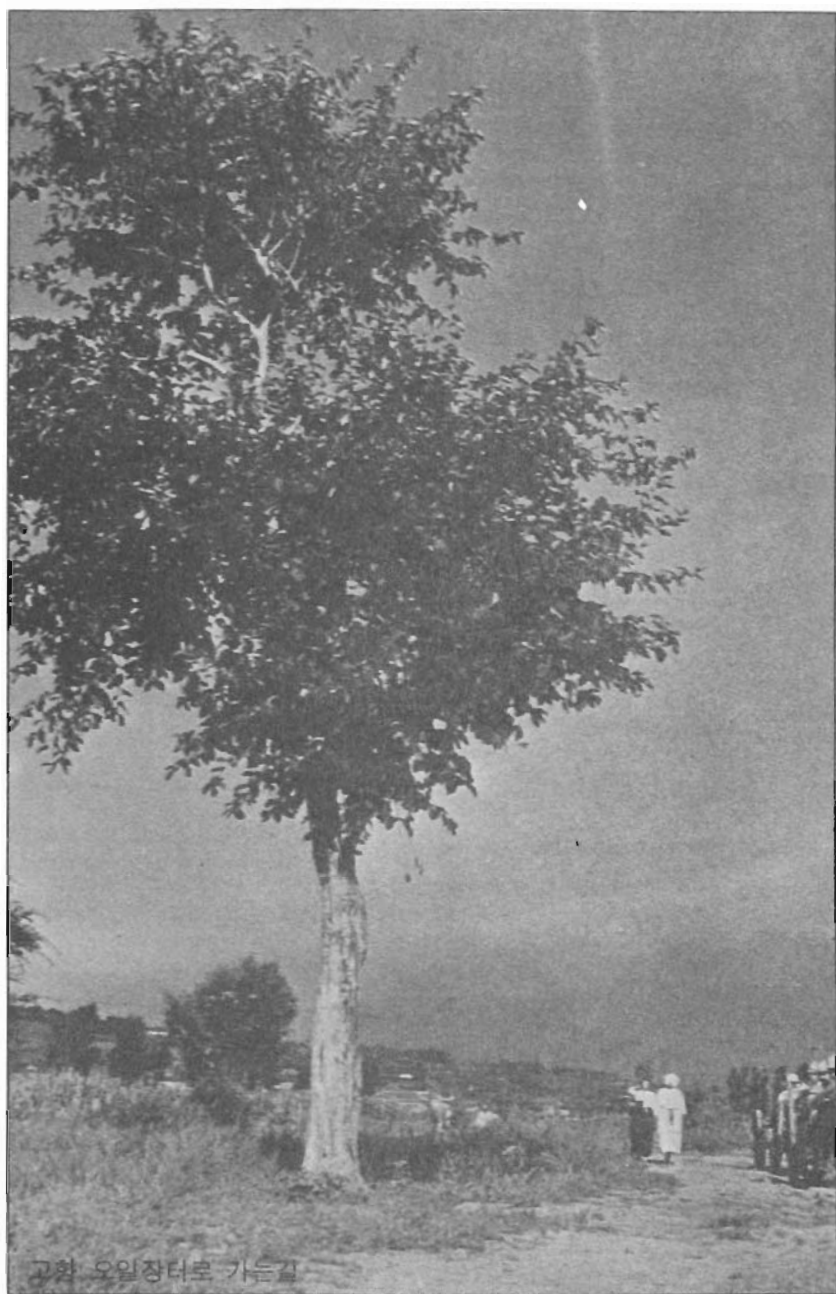
상그러운 山의 내음도  
상큼한 용달샘의 물맛도  
그리고 그윽한 숲의 소리도  
모두 아릿한 꿈의 추억  
잘리고 찢기운 앙상한 몸동아리  
모진 찌들음에 숨이 막힌 채  
時間도 멈춘 텅 빈 이 空間에  
나 여기 서 있다.

해마다 흐려만 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  
그래도 내 곁을 스쳐 간  
그리운 얼굴들이 있어  
밤 하늘에 별빛되어  
아롱아롱 빛나기에  
또 한 해  
새 봄을 기다릴거요

먼 훗날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는 그 날  
뒤 있어 물어 오기든  
「그리움」 새겨 안고 化石되어  
저 달맞이꽃 길 옆에  
고이 묻혔노라 일러주오  
나 한 그루 가로수

※ 1993年 12月 在美弟子들의 招請을 받아 在美同窓會  
謝恩會席上에서…





고향 오일장터로 가는길

## 26回

- ◎ 나의 첫직장 ..... 한 정 섭 (26回)  
- 대학재학중 공립여중고 정교사 -
- ◎ 나의 영원한 벗 柳兢을 추모함 ..... 權 鎭 城 (26回)
- ◎ 失郷民의 녀두리 ..... 이 삼 열 (26回)
- ◎ 學校時節의 回想 ..... 석 동 수 (26回)  
- 「한장」선생님 外 二題
- ◎ G형에게! ..... 梁 泰 鱣 (26回)



## 나의 첫 직장

—대학재학중 공립 여중고 정교사—

### 한 정 섭(26回)

8·15해방직후 공부하려 월남한 나는 일인들이 버리고 간 소위 적산가옥의 2층 한칸을 빌려살던 누이집에 얹혀 살다 뒤따라 월남한 부모형제들과 함께 역시 적산가옥 한두칸을 빌려 몇번 이사다니면서 간신히 서울대 예과를 수료하고 서울공대 건축과로 진학하였다.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던 우리 가정형편에 3형제가 한꺼번에 학교에 다녀야 했으니, 말이인 나는 어디 취직이라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함흥에서 한 교회에 다녔으며, 한동네에 살던 영생중학 김능근 선생이 무학여중고 (후에 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로 분리되었으나 한 구내에 있었음)의 교감으로 부임한 것을 알고 아버지가 부탁해 그학교의 교사발령을 받게 되었다.

대학생이 공립여중고의 정식교사로 발령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당시는 급속히 늘어나는 중·고교생들 때문에 교사수가 태무족이어서 예과 수료증으로도

교사자격을 인정받았고, 정교사로 발령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교사발령을 받은 나는 3월 새학기에 첫출근을 해야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었다. 어렵게 돈을 마련해 남대문시장에 나가 일인들이 버리고 간 헌 검정색 신사복 한벌과 소창직 와이셔츠 그리고 넥타이 하나를 구해 난생 처음 신사복차림으로 학교에 나가 취임인사를 하였다. 총각선생이 어떻게 그런 꼴로 여학생들 앞에 설 용기가 있었는가 하고 요즈음 젊은이들은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그당시의 우리실정은 그랬었다.

총각선생이 첫 사회경험으로 여학생들 앞에 섰으니 학생들을 똑바로 바라보기도 어려웠으나, 한남중학교에서 배운 기초지식이 괜찮아서 그랬는지 그런대로 별 탈없이 대수, 기하등 과목을 가르쳐왔는데 교사생활 일년이 좀지난 50년 6·25가 터졌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직장에 계속 나가느냐 마느냐 망설이다가 나가보았다.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고, 교장 교감 기타 우익으로 몰릴것 같았던 교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전에 이학교 교사였다가 좌익계열 교사로 몰려 밀려났다는 함흥고보출신 한모교사가 학교책임자로 와있었고, 북에서 왔다는 사람이 회의때마다 한교사 옆에 앉아 사사건건 참견하고 있었다. 한번은 전 교사가 모인 회의에서 사회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뜻있는 교사는 의용군을 자원하라는 것이었다.

모든 교사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무거운 분위기가 한참 계속되었는데, 갑자기 나이 50을 넘었을 가사담당 노 여선생님이 일어서면서 의용군에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 여선생님은 내가 처음 이학교에 취임해 배정받은 교무실 책상 가까이에 자리가 있었는데, 햇병아리같은 나에게 이것저것 자세히 알려주던 인자

한 여선생님이었다. 그런데 이 여선생이 해방직후 어떤 미군정 기관의 요리 담당일을 맡은 일이 있었다하여 괴뢰군 남침 직후 인민군에 붙잡혀가 몇일간 문초당하고 풀려났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여선생의 지원에 속이 뒤집힌 나는 일어서서 사회자인 한선생을 바라 보면서, 저같은 노 여선생이 의용군을 지원하는데 우리 젊은교사들이 어찌 가만이 있을수 있느냐 사회자인 한선생을 위시하여 전원이 자원하자고 비꼬는 말투로 발언하였다. 이것이 원인이었던지 수복후 발견된 블랙리스트에 내가 C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어쨌든 그날 회의에서는 실제로 자원해 나간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음날 부터 나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마침 그날인가 다음날인가 미군기가 원효로 공장지대에서 부터 용산 중학교 뒷산에 있던 해방촌까지 폭격을 가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서울 수복후 학교에 나갔더니 동료직원들은 그때 우리집이 용산중학교 정문앞에 있었으므로 내가 폭사한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때 과학계 교사들에게는 후방요원증이 발급되어있어 징병을 면하고 있었는데, 1.4후퇴가 임박해지면서 모든 청년들에게 국민병 소집통지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우리 형제들에게도 침구, 식기등을 준비해가지고, 동회인가 어딘가로 나오라는 통지서가 몇번 나왔다. 이런 무질서한 판국에 그통지서대로 나갔다가는 고생은 말할것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개죽음을 당할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책을 강구하던중, 누군가가 국민방위군 사관학교에서 사관후보생을 모집하는데 거기를 졸업하면 그 사령부에 근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듣고 매부, 내동생과 함께

셋이 지원해 온양에 있던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여기서 고생하던일, 부산으로 후퇴하던일, 졸업후 대구사령부에서 고생하던일 등을 회상하면 할말이 많으나, 본고 주제내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제2국민병 사건으로 사령관, 부사령관들이 붙들려가 재판을 받는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서 나는 부산으로 출장갔다 사령부에 귀대하지 않았다.

그때 부산에 피난해와 옛 일본절이었던 큰 건물속에 수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철사줄에 천을 드리워 구획한 좁은 공간에 거주하시던 부모님과 함께 묵으면서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수소문해보니, 서울에서 피난해 온 몇개 중학교가 피난학교를 시작하였는데, 그때 무학여중 차교장은 보수동거리에서 광주리 사과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찾아가 의논하니 자기혼자 힘으로는 개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할일없던 나는 차교장에게 내가 전적으로 노력할테니 우리도 학교를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그리고는 다음날 부산시청 내에 있던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찾아갔다. 책상하나를 배정받아 서울시 교육위원회 일을 보고 있던 공작학사를 만나 의논했더니, 어디 학교용지로 쓸만한 곳을 찾아내면, 천막 한개를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학교장을 찾아가 보고하고, 다음날부터 차교장과 함께 용두산, 본수산 기슭 일대를 찾아다니며 천막을 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았다. 며칠 돌아다니는 끝에 보수산 중턱 높은 곳에 사대부고가 천막을 치고 개교하고있는 골짜기 맞은편 밤나무 몇구루가 있는 공유지 산언덕을 찾아내 그곳을 피난학교 자리로 정하고, 부산 및 그주변에 피난해 와있던 선생님 몇분들을



모아 무학여중도 피난학교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피난은 선생,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발통신으로 서로 알리고 날짜를 정해 보수산 기슭에 있는 어떤 공터에 모이게했다. 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학부형이 사무실용 작은 칠판 한 개를 갖다주어 개교초기 긴급하게 썼다.

다음 날 부터 자진해 모인 학생들과 선생들은 미리 정해두었던 자리에 여섯구루 밤나무를 중심으로 몇개의 단을 앉을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나는 다시 공작학사를 찾아가 영도 어디엔가에 있던 창고에서 큰 천막(운동회때에 쓰이는 흰 천막)하나를 지급받아와 터를 닦고 설치해 교무실로 썼다. 천막 교무실과 노천교실이 준비돼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간을 알릴 종이 필요했다. 어느 학생이 사무소명이 적힌 네모난 동판을 하나 구해와 이것을 나무에 매달고 종대신 쳤는데, 그 소리는 골짜기 건너편 사대부고에서 종으로 쓰고있던 포탄 탄피소리에 비해 너무 초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수도 늘어나고, 따라서 학교재정 형편도 좀 나아져 천막을 추가로 사들여 천막교실을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판자교실로 개조해 나갔다. 여기 쓰인 목재들은 산아래 목재소에서 사서 학생들과 선생들이 한두개씩 만들고 가파른 언덕길로 날라올렸다. 건축을 공부하던 내가 자연히 공사의 총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후에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품 의류들을 각 선생에게 한벌씩 나눠줄때 교장선생은 나에게 교실 짓느라 수고했다면서 상의하나를 더 주었다. 아래위 색도 다른것들이었던 흰 상의 두개와 바지 한개는 내 몸에는 너무 커서 시장안 양복수리점에 가서 줄여 입었다. 이웃은 수복후에도 몇년동안 입었

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물자가 귀하던 시절이었다.

서울이 탈환되고, 국군이 북진하면서 서울에서도 학교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나는 나보다 몇살 위였던 어선생이란 분과 함께 선발돼 먼저 상경하게 되었다. 난생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까지는 편하게 왔는데, 한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노량진 역전 허술한 여관에 묵으면서 수소문해보니, 철도원들에게 부탁하거나 몰래 철도 화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 용산역이나 서울역에 도착해, 그곳에서 감시하는 철도원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면 도강할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도 썩매이었지만 어선생도 마음이 어지간히 약한 분이어서 필요할때 돈을 어떻게 건네주어야 하는지 몰라 서로 그 책임을 맡아달라고 미루던 생각이 난다. 돈을 주었는지 그냥 부탁하였는지 지금은 기억나지않지만 어쨌든 2~3일후에 도강에 성공했고, 학교로 찾아가 보았더니, 교실건물 두동중 앞에것은 완전히 불타버려 벽만 앙상히 서 있었고, 뒷동은 그런대로 수리해 쓸만하였으며, 그 뒤에 있던 강당은 미군들이 점유해 쓰고 있었다. 수소문해보니 그때 서울에는 임시 종합 중교교가 개교되었었고 몇몇 학교들이 개교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개교준비를 하였고, 소문듣고 학생들과 선생들이 모이게되, 이력저력 개교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실부족이 심해졌는데, 마침 강당을 점유해 쓰고 있던 미군과 교섭해 목재, 시멘트 등 건축자재들을 꽤 많이 지원받아 불타버린 건물도 수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동안에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휴전협정에 조인하던날 마침 우리학생들로 구성된 국군위문단이 동해안 간성에 있던 부

대를 방문중이었다. 몇년전 화진포 북쪽에 세워진 통일전망대를 찾았을때 진부령과 간성 해변가 도로를 지나면서 감회가 깊었다.

피난도중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정국이 차차 안정되어가자 장래를 생각해보니 생활방편을 택했던 학교생활을 하루빨리 그만두어야겠는데, 그당시에는 마땅한 직장도 없어 고민하던중, 다행히 아버지가 침례교회당의 설계와 공사를 맡게되어 가정형편도 좀 풀리게되어 건축을 공부한 나는 일도 배울겸 학교에 사표를 냈다.

6.25사변을 전후한 5년여에 걸친 나의 첫직장 여학교 선생노릇은 이것으로 끝났다. 이글을 쓰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일, 즐거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그때 같이 근무하던 남,여 선생들중 아직도 교류가 있는 몇분도 있지만, 그외 소식이라도 들을수 있는 몇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의 생사를 지금 알수 없다. 그때 발랄하던 앳뎨 여학생들은 지금 모두 할머니들이 되었겠지. 나를 지나칠정도로 따르던 그 여학생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있는지?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다.

## ‘나의 영원한 벗 劉 兢을 추모함’

### 權 鎮 城(26回)

아- 내가 왜 오늘 이 글을 써야하는가. 글은 쓰기에 앞서 淸의 얼굴이 아롱거리며 그리운 정이 앞선다. 먼지 敬虔하게 머리 숙여 淸의 冥福을 빌면서 지난날 우리들의 자취를 더듬어 내 마음의 空虛함을 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淸과 나와 사이에 서로 친분을 가진것은 100여명의 入學同期生중에 왜 유독 가까와졌는지를 알 수 없구나. 우리들은 누가 친분을 가지자고 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家庭環境이 비슷하여 사귄것도 아니고 그저 만나고 좋아하였으니 하늘이 우리를 짝지워 준것이라고 밖에 表現할 방법이 없구나. 너와 나는 매일 같은 方向으로 下校길에 올랐었지. 淸은 城川町, 나는 黃金町... 淸의 집 病院 이층엔 우리들이 만나 미래를 설계하고 討論하는 장소였지. 아마도 그 2층방이 우리들의 친분을 두텁게 하여준 보금자리였는지 몰라.

이렇게 5년동안 淸과 柳榮海淸과 나는 서로 엮어 뺏어진 사이였으니...

함흥의대 시절, 우리들은 더욱 서로의 사귄을 두텁게 하여 이

제는 서로 떨어져서는 못살 깊은 관계가 되고 말았으니... 해방의 감격이 우리들을 더한층 희망과 사명감을 부채질하였지. 그런데 君은 오래전 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우리들은 종교와는 문외한이었는데 해방과 더불어 기독교를 알고 싶어 공부하였지. 기독교학생 勉勵會員으로 우리들은 가입하여 기독교를 연구하던 일은 잊을 수 없는 일이었네. 威興學生 事件으로 榮海君과 내가 붙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고 나왔을때 영해군을 越南하라고 권하고서 “함께 가자”고 하니 “나는 안간다”고 拒絶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후에 나의 身邊이 危態롭다고 共産黨員 친구로 부터 들었을때 君은 강력히 나를 越南하라고 권유하였지. 그때에도 함께 가자고 하니, “나마저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둘이 밤새도록 붙들고 울었지. 그때 君이 나에게 내어준 600원이라는 北韓지폐를 건네준 것을 기억하는가? 이것은 君이 내게 베푼 마지막 선물이며 무엇인가 豫感있는 행위였다고 여겨지네. 나는 그 다음날 강원도 鐵原에 도착하였네. 대부분이 越南民이어서 保安隊員들이 모두를 심문하는데 내 주머니에서 이북화폐가 나오니 이는 월남하려는자가 아니라고 석방하여 주어서 쉽게 월남하였네. 그때 만일 붙잡혔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아마 君은 이런것을 豫測하였는지 모르겠네. 지금 생각하여 보니 君의 배려깊은 해동에 놀라웁고, 고맙고, 내 永遠히 갚을길 없는 마음의 빛이 되었네.

정말 우리는 이렇게 離別해야 하였던가. 만일 이때의 이별이 영원한 우리들의 나누어 짐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필사적으로 함께 왔을 것인데,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인간의 無知가 야속할 뿐이고 두고두고 한스럽기만 하네.

세월이 흘러 이제 古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淸이 23년 전에 他界하였다는 悲報를 몇해 전에 들었을 때의 내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을 다 잃은것 같았다네. 내가 고향에 제일 가고싶은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淸을 만나는 기쁨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꿈도 무산되고 말았네. 하늘이 너무 無心하고 야속하기만 하네.

어머니와의 만남.

함흥에 사시던 劉兢의 어머니께서 중공군의 침입으로 UN군이 다시 후퇴하게 되었을때 國軍과 더불어 以南으로 避難오신 후에 서울에서 兢의 어머니를 뵈게 되었다. 너무도 오래간만이고 너무도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슬퍼서 한참동안 말을 못하고 보고만 있다가 “어머님”하고 부르니 “아- 진성이구나”하시던 그날을 회고하면 이글을 쓰는 나의 눈이 눈물로 엉켜져 안경을 벗고 닦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님은 年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아하고 자비스러운, 그리고 너그러운 모습이 그때도 여전히하셨다. 옛날 내가 淸의 집으로 매일같이 놀러가도 언제나 한결같이 반갑게 맞아 주셨고 내가 新約聖書를 스스로 공부하다 잘 理解하기 어려울때면 항상 가르쳐 주시고 믿음에의 용기를 주시던 어머님!! 내가 간절히 묻고 싶었던 것도 淸의 소식 이었고, 어머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淸의 이야기였음에도 우리는 한동안 말머리를 돌려 말하지 못하였다. “어머님 淸이는 왜 같이 오지를 못하였습니까” “진성아 너희들이 내가 함께 못 온것을 원망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애의 성질을 잘 알지 않느냐?”하시고는 어머님은 어찌하여 厄難을 오지 못했는지 연유를 설명하셨다. 눈물을 지

으셨다. 君과 대화하시던 과거의 그날과 그 장소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어머님은 당신의 아들 공을 그리워하는 표정이 흰히 느껴졌다. “내 아들 넷중에서 세째되는 공의 성격은 너희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는 공산국가에 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고 또 철저하게 믿어서 敎會가 없어졌고 믿음을 박해하는 일이 심하여졌어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하니까 공산당 지도층에서도 예수교, 교회, 예수쟁이는 밋지만 유공氏에게는 두손을 들었다고 말하는 모양이었다”고 한다.

이남을 거의 해방시켰다던 해방군이 패전하기 시작하여 후퇴하기 시작할때에 함흥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함북성진에 있는 인민군 사단의 군의관 총위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도 못하였던 공이 돌연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는 멀지않아 함흥이 UN軍의 손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할 때다. “너무도 놀랍고 반가워서 껴안고 그저 울었었지.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 있기를 바라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공은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별로 말이 없지 않아... 그저 미소를 띄우면서 나를 자꾸만 쳐다보고만 있더라”

“잘왔다 공아, 모든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자. 공아 UN軍의 힘으로 인민군이 후퇴하고 있으며 함흥도 곧 UN軍 손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다. 그러니 며칠만 숨어 있다가 통일만 되면 얼마나 좋겠니 하고 좋아 하였네.” 공이도 의례히 “어머님 잘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었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이 어미의 예측과는 너무나 달랐다. “어머님, 어머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부대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가겠다는 것은 그냥 죽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아니냐?”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되돌아 가야 합니다. 첫째 이유는 전투가 시작된 후 우리 사단에서는 누구도 휴가를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사단장이 나에게만 특별휴가를 주시면서, ‘노모님을 뵙고 오라면서 내가 돌아온 후에야 다음 장교에게 휴가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나 때문에 다른 장교들이 부모, 처자를 볼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둘째번 이유는 더욱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UN軍은 무력뿐만 아니라 의학력도 뛰어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인민군은 싸울 힘도 없고 수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한 환자는 말할것도 없고 약이라던가 간단한 수술로 치료될 수 있는 환자들이 말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리고 피난을 가겠습니까? 그 불쌍한 아이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내가 할일이 더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사정이 허락되면 兄님(劉喆)과 아우(劉鋼)가 살고 있는 서울로 피난을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지낼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때 보라도 더 많습니다. 어머님. 제 걱정은 마시고 어머님의 건강에 꼭 조심하세요.”

“진성아 공이 이렇게 말할때에 나는 그가 내 아들이라기 보다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내 아들이지만 더 내생각을 말할 수 없었고 어미로서의 권위도 권면도 상실하고 그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리고 하



룻밤을 집에서 보내고 걱정말라고 미소를 띄우며 손을 흔들던 것이 내가 공이를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다.”

나는 어머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원망스럽기에 앞서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임을 다시 느꼈다.

兢君! 백번이고 천번이고 한없이 불러보고 싶은 君의 요절은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그리고 이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다. 北녘땅에서 君이 行한 업적은 우리가 君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아마도 久遠의 불길처럼 그 업적이 타올랐으리라.

이제 君은 한 聖者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슴 속에 남아있고 북녘땅에도 君을 흠모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그곳에 남은 유족의 행운을 빌며 이남에 있는 동창일동이 머리숙여 명복을 빈다.

아— 통일이 되는 날, 君의 묘소에 한송이 꽃을 바치는 것이 남아 있구나.

이제 한 시인의 詩句처럼 살다간 君의 영전에 바친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失鄉民의 녀두리



내고향 내어린 시절

이 삼 열(26回)

인간은 역시 하나의 群生動物인듯 하다. 굳이 나를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내 어린 시절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으니 그게 허전한 것이다. 이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계시다. 함께 자란 형제들도 以南 천지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 어린시절을 멋대로 마음대로 꾸며 적은들 알아차릴 사람도 없다. 거꾸로 내 아무리 고지식하게 진실을 적은들 진짜로 공감해 줄 사람도 없으리라. 그것이 서글프다. 인간은 역시 서로 맞장구도 치고 싸우기도 하면서 살아야 하는 동물인성 싶다.

나는 1926년 4월 8일, 陰曆으로는 丙寅年 2월 26일, 2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막내도 막내 나름인데 나는 아버지가 내 나기도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된 억울한 막내이었다. 이른바 遺腹子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소리가 무척이나 싫었다. 아마도 그소리와 함께 지어지는 어머니의 어두운 표정이 싫었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님은 1899년생이시니까 나를 낳으신 1926년은 滿으로 28세가 된다. 그러니까 그전해

동짓달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부르는 나이로 스물여덟살, 셋과란 새댁이었을게다. 참으로 홀로나기에는 너무나 젊은靑孀寡婦였다.

아버지의 사인은 아무도 정확히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어른이 되고 의사가 되고난 후에도 굳이 나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어렴풋이 듣고 느낀것은 심상치않은 병으로 입원하였다가 갑자기 돌아가신듯하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新文化에 접한 새세대였고 할아버지는 그렇지 못한 舊世代 인물이였다. 아버지는 곱게 자란 부잣집 장손이였고 할아버지는 당대에 自手成家한 努力家였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에서 帝政러시아 지폐를 많이 발견한 적이 있다. 한때 海蔘威무역을 경영하였었다고 들었다. 이런 진취적인 아드님이 농사밖에 모르시던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을리 없다. 이 세대간의 격차, 성격상의 차이등이 결국 원만한 부자지간을 이룰수 없었고 급기야는 불행한 破綻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다.

내가 철들어 살던 고향은 咸南咸州郡東川面會陽里 라는 곳이다. 이름 그대로 한쪽으로 東川(瑚漣川)이 흐르고 햇살이 모이는(會陽)듯한 밝은 마을이였다. 통털어 100가구나 될까 말까 싶은 시골이였다. 전통적으로 鄭씨 姓이 많던 마을에 우리집이 이사온것은 내가 나기 2-3년전 일이였다. 마을에서는 우리집을 “고을집” 이라고 불렀다. 邑(함흥)에서 이사온 집이라는 뜻이였다. 고을집은 유난히 큰집이였다. 네모 뻗듯한 기와집에 둘러친 사랑채며 穀間들까지 합치면 족히 2000평대지에 300평건평은 넘었을 듯하다. 앞마당이 어찌나 넓었던지 안방에 있다가 대문따라 나갈때면 마루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야 나갔던 생

각이 난다. 백일몽을 꾸다고 믿지않은 사람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6.25때까지 우리친척들이 이집에 모여 살았다니 아직은 증인들도 남아 있을성 싶다. 그것보다도 공산당들도 이집만은 빼앗지 않았다니 신통한 일이다.

좌우간 會陽里에서도 다소 이질적인 우리집은 여러모로 마을의 화제가 될만하였다. 과수원을 크게 벌렸으니 이색적이였고 예수믿고 주일날은 예배당 다녔으니 벌났었다. 聖守主日이 엄하던 그시절 우리집은 거느리던 일꾼들까지도 모두 놀렸다. 주인집이 예수쟁이다보니 일꾼들도 예배당에 다니는척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진짜로 예수쟁이가 되고만 사람들도 있었다. 그당시 예수 믿는 기준은 술담배 끊는것이였다. 술담배를 끊고 착실히 살다보면 대체로 잘살게 되어갔다. 결국 내가 철들어 살던 회양리는 술집이 없는 그런 마을이 되어 있었다.

내 할아버지는 꽤 일찍 예수믿기 시작한 선각자였다. 함흥남부교회의 초대 세분 장로님중의 한분이였다. 어떤 동기로 선교를 받아들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캐나다 선교사들과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보아 직접 그들의 선교를 받은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아마도 복음과 함께 생업수단도 전수받은듯 하다. 과수농업 기술 말이다. 캐나다 선교사들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농기술도 전하였다.

즉 함흥지방의 기후조건이 캐나다와 비슷한 점에 착안하여 사과농사를 권하였던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인 분이 두분 있었다. 후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韓東一씨의 할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였다. 그때까지 두분 모두 함흥市內에 살던 소시민들이였다. 있는 재산을 털어 밭을 사고 과수를 심었다. 선교사

들의 말만 믿고 모험을 한 셈이다. 이것이 적중하여 수년후부터 수지가 맞은 것이다. 우리집은 그렇지도 못하였지만 韓장로님네는 일제때 벌써 자가용 굴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치던 부잣집이었다. 나는 그저 봄이되면 우물까 복숭아나무에 분홍꽃이 피고 가을이되면 뒷뜰 사과나무에 빨간 紅玉이 익어갈때 다만 그것이 좋기만 하였다.

### 興文學校시절

나는 유치원을 못 다녔다. 會陽里에는 유치원같은것은 없었다. 여섯살맞이 우리 宅珪형은 읍내에서 유치원을 다니다 이사왔다고 하였다. 그는 끝내 세발 자전거로 통학하면서 유치원을 졸업하였다. 나는 어릴때 그것이 몹시 부러웠다. 그래서 어른들은 나를 동네 학교에 일찍 입학시키고 말았다. 만 여섯살이 되어야 입학하는 소학교에 일년 일찍 넣은 것이다. 우리 동네에는 제대로 된 소학교도 없었다. 4학년까지만 있는 사립학교가 있을 뿐이었다. 이름하여 興文學校라 하였다. 유치원삼아 넣은것이 낙제도 하지 않고 2학년까지 진급하고 말았다. 집안에서는 기왕 다닐바에는 읍내로 제대로의 학교를 다녀야 하지않겠느냐는 의론이 돌게 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이 학교에 대한 인상은 껍이나 부정적인 것뿐이었다.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다. 나이탓도 있어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아이들 또한 같이 어울리기에는 수준이 너무나 차가웠다. 께재재하게 차려입은 아이들 틈에 범털 오바에 즉꾸(운동화)차림의 내모습은 완전히 그 학교에는 異邦人格이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 고을집 잡간나 ” 였다. 이 별명이 어찌나 싫었던지 결국 일년만 다니고 학교를 옮기고 말았다.

## 永信普通學校 시절

2학년에 편입한 학교는 함흥에 있는 기독교학교였다. 아이들 주목을 받지 않아도 되는것이 편이나 편하였다. 아침이면 겨우 여섯살된 꼬마가 십오리 길을 매일 통학한다는것이 예사일이 아니었다. 아침이면 우리집 일꾼들이 자전거로 태워다주었다. 하학때는 장터로 우리집 수레를 찾아가야했다. 소 달구지를 얻어타고 집에 돌아오기 위하여 서었다. 농사 짓고 과수원을 하던 우리집은 으레히 아침이면 무엇인가 수레에 싣고 장터로 떠난다. 한나절 지나서 팔것이 팔리면 다시 살것들 사서 싣고는 돌아오는것이다. 비록 소거름의 완행차일망정 우리집 정기화물차가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 자가용에 나는 편승하는것이였다. 일제시대에는 참 별란 법도 다 있었다. 나는 타도 되는데 수레에 일꾼아저씨가 살짝 걸터앉기만하여도 순사가 야단치곤 하였었다. 소가 힘들다나?

최우간 이런 함흥통학을 나는 소학교 2학년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하였다. 물론 우차를 이용한것은 잠깐이고 곧 빨간 자전거를 스스로 타고 다니는 소위 자전거통학이 시작되였다. 그당시 조선사람살림에 자전거를 굴리고 산다면 요즘세상에 자동차 굴리고 산다는 정도로 부러운 생활이였다. 그런 자전거를 나는 일곱여덟살때부터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이면 宅珪형과 함께 떠난다. 어린이용 작은 차로 큰차를 따라가기란 쉬운노릇이 아니였다. 동생을 보호하고 다닌 형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였으리라. 하학때도 혼자 돌아오는 수 밖에 없었다. 자동차가 많지않은 시대이기는 하였으나 버스도 다니고 택시도 다니는 길이였다. 아마 우리 어머니의 걱정은 태산같았을 것이

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정도의 나이도 못된 철부지는 곧잘 만짓하다 늦곤 하였다. 한번은 이런일도 있었다. 돌아오는 하학길이 몹시 덥고 피곤하여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고 간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깨어났을때는 해가 이미 서산에 기운 저녁때였다. 집에서 난리가 난것은 물론이다. 그래도 옆에 둔 자전거를 집어가지 않았으니 일제시대의 민생보안은 철저하였다고나 할까. 여하튼 이렇게 하여 나의 영신보통학교시절은 흘러갔다. 한가지 지금 생각하여도 아쉬운 것은 나를 전학시킬때 한학년 낮추어 같은 나이또래끼리 어울리게 못해준 우리 부형들의 인식부족이었다. 2학년에서 같은 2학년으로 옮겼으니 여기서도 나는 남들보다 한살 아래인 꼬마밖에 못되었다. 공부는 그런대로 따라갈수 있었으나 그보다도 놀이로나 싸움질에 있어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다. 鷄頭가 될망정 牛尾는 되지말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도 결국 牛尾노릇을 하다만 셈이 되었다.

### 進學과 再修生시절

요즘은 재수생이란 낱말이 정착되었지만 일제시대는 이것을 浪人이라고 불렀다.

浪人이란 벼슬자리를 얻지못한 선비 아니면 뜻을 세우지못한 칼잡이정도의 뜻이다. 대개 대학낙방생을 이렇게 불렀지만 나는 중학교 낙방생 浪人이 된 것이다. 그 당시 함흥에는 인문계 중학교(지금의 중·고등학교)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공립이고 하나는 기독교계 사립이었다. 기독교계 영신보통학교를 나온 나는 같은계통 사립학교로 가는것이 순리였다. 그런데 공립학교쪽에

다니던 형이 우겨서 결국 함남공립 중학교에 지원서를 넣었다. 이것은 예시당초 좀 무리였다. 영신학교에서는 매년 겨우 한두 사람이 이학교에 갈 정도였는데 내성적이 거기 미치지 못하였다. 그보다도 만 12세가 못된 내원서를 받느니 못받느니 시비서 부터 일곤하였다. 결국 나는 떨어지고 일등한 李圭元군 만 붙었다. 묘하게 이친구하고는 그후 또 같은반에서 만나 함남중학 졸업은 같이하게 되었다.

내가 소학교를 졸업한것이 아마 1938년 3월 인듯하다. 한두 달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나는 陽化소학교로 보내졌다. 당시는 재수생을 위한 학원같은것이 없었다.

재수생들은 재간껏 다시 공부하고 응시하는것이였다. 나는 叔父의 주선으로 좋은 선생 따라 집을 떠나게 된 것이였다. 내 작은 아버지는 서울에서 보성고보를 나오고 東京에서 수학을 전공한 분이였다. 한때 소학교 교편도 잡은일이 있어 그때 사귄 동료 韓선생에게 나를 부탁한 것이였다. 한선생은 정규사범학교 출신으로 당시 소문난 우수교사였다. 시골소학교이기는 하였으나 교감직책에 있었고 6학년 담임이였다. 나는 그학교 방청생으로 편입이 허락된 것이였다. 陽化는 명태고장 新浦邑다음에 위치한 조그만 어촌이였다. 그래도 기차정거장도 있었고 우편국도 있어 우리시골 會陽里보다는 훨씬 개화된곳이였다. 나는 이곳에서 지낸 몇개월의 생활을 한평생 잊을수가 없다.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다른 어느 학교생활보다도 기억에 남는다. 아마도 牛尾가 아니고 鷄頭노릇을 한 탓일상 싶다.

우선 나는 교감선생님집에서 기거하는 귀하신 몸이였다. 대도시 함흥서 왔다는 프리미엄도 있어 순진한 시골아이들에게는



제법 인기였다. 거기다 6학년 공부를 다시하다보니 처음 배우는 아이들보다는 공부도 뛰어났다. 나이도 제나이가 찼으니 신체적인 조건도 뒤지지 않았다. 양화소학교에는 야구팀이 있었다. 매해 가을에 北靑郡내 소학교끼리의 야구시합이 있었다. 나는 운동 좋아하는 형님덕분에 야구도 다소는 할 줄 알았다. 연습하는 팀에 끼어들어 대뜸 선수후보로 뽑혔다. 지도교사는 역시 韓 선생이었다. 때로는 재수생의 주제도 잊은채 야구연습에 열중하기도 하였었다. 우승은 못하였지만 여하튼 그해가을 北靑邑에서 열린 시합에 2루수로 뛰었던것은 즐거운 추억거리다. 陽化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는 그외에도 많고 많다. 풀을 베어다가 퇴비를 만들던 근로봉사, 매일아침 도마도 순을 잘라주던 원예실습, 바닷가 바위위에서 굴치를 미끼로 던지던 바다낚시의 멋, 선생따라 다니던 가정방문의 이모저모등 그 어느 하나도 그립지 않은 것이 없다.

### 南中入學과 臥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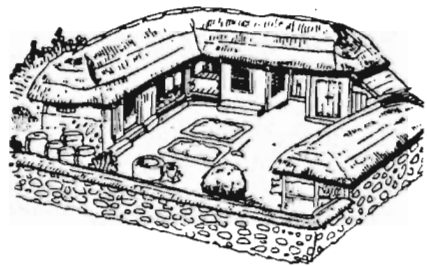
1939년 3월 나는 대망의 함남중학 모자를 썼다. 비록 국방색 일색이 였으나 금단추 제복에 만또를 걸치고 나서면 천하가 내 것인양 싶었다. 그러나 好事多魔라던가 입학후 얼마안되어 나는 병석에 눕는 신세가 되었다. 폐문임파선염 듣기 좋게 그렇게 표현하였지만 결핵에 걸렸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비록 초기라 하여도 항생제가 없던 일제시대의 이야기이다. 결핵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죽고사는 문제보다도 당장 하늘높은 줄 모르고 날아오르던 독수리의 다리를 붙잡아 매어놓은 격이었다. 함흥제혜병원에서 내린 처방은 절대안정, 영양보충, 자외선치료같은 것이었다. 한마디로 꿈쩍말고 침대에 누워있으라는 것이었

다. 기약도 없는 이 명령이 참으로 죽을 맛이였다. 당시 제혜병원원장은 Dr. Muray. 내과과장은 조창호박사, 외과과장은 고병간박사 그리고 간호부장은 Miss Schandel였다. 조박사는 합흥서 개업하였지만 나머지분들은 후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모두 크게 활약하시던 분들이다. 이런 좋은분들의 각별한 진료 덕분에 예상보다도 빨리 퇴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서부터가 문제였다. 아마 1학기말 가까이 되어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되듯한데 학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영어라는 과목도 처음이고 기하라는 과목도 생소 하기만 하였다. 이미 동급생들은 발음기호를 모두 배운후라 나만 영어 시간에는 병어리노릇이었다. 첫 시작을 배우지 못하였으니 기하문제를 풀수 있을리 없다. 이때 내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아직 얼굴도 채 익히지 못한 어떤 짓곳은 친구가 “야! 너 무엇 좀 알겠니?” 하고 남의 아픈데를 건드린 것이다. 이때 그래도 내 어린 마음에 좌절보다는 오히려 “그래 어디 두고보자”. 하는 투지가 생기곤 하였다. 그래서 나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합흥서 사시던 숙부님댁으로 숙소를 옮겼다. 저녁마다 영어와 수학을 개인교수하여 달라는 것이다. 누가 시켜서 한것도 아니고 스스로 분발하여 시작한 노릇이니 내 열의는 대단하였다. 다행히 숙부는 당시 신혼때라 귀찮기도 하였을텐데도 마다 않고 저녁마다 내 공부를 도와 주셨다. 자기전공인 수학은 말할것 없고 영어실력도 대단하였다. 영어 단어를 和英사전 아닌 英英사전에서 찾는것을 가르쳐 준것도 학교선생 아닌 숙부였다.

하여튼 시간은 흘러서 1학기말 시험을 치렀고 그 성적이 발

표되었다. 120명중 내 성적이 23등으로 나왔고 나를 조롱?하던 친구는 90등 밖으로 밀려나 있음을 알았다.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을 얻은것도 이때였고 공부하는 버릇을 몸에 익힌것도 이때였다. 2학기에는 더욱 분발하여 10등 이내에 들었고 이래로 내 위치는 5%내외에 고정되었든듯하다. 역설적으로 만일 내가 병이 나지 않았었다면, 그리고 그 어느 고마운 친구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었다면 아마도 나는 그저 그렇게 지내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轉禍爲福이란 말도 있지만 내南中시절 첫출발은 분명 喜悲가 엇갈리고 明暗이 교차되는 격동기였음이 틀림없다.



## 學校時節의 回想

「한잔」선생님

(1)



석 동 수(26회)

남중에 오랫동안 수학교사로 계셨던 선생님이 있었다. 나이도 50은 되었고, 여러선생님가운데서 가장 연로자였고 또 선배가 되신다. 그런데 술을 너무나 즐기시어 성이 한씨어서 별명이 그 옛날부터 「한잔」이었다. 그는 술을 들지 않으면 손이 떨리는 때가 많으니, 낮에도 필요에 따라 술을 드실때가 있었다.

한잔선생님은 한국이 일제에 합병이되어 서양학문이 시작될 때에 성장하시어 소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 사범학교에 들어갈려고 입학시험을 쳤다. 그때 서울로 갈려면 함흥에서, 영흥, 고원, 철원을 지나 1주일이나 걸어나는 것이었다. 10살을 조금 넘었을 소년 「한잔」선생님은 서울로 혼자 걸어가면서 마음은 설렁하고 겁이 잔뜩 났을 것이다. 작고 멀어지는 반룡산을 뒤로 쳐다보면서 계속 걸어가 영흥가까이에서 반룡산의 마지막 소나무가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며, 그때 대단히 슬펐다고 한다.

서울에서 사범학교의 입학시험을 끝내고 며칠후 입학자발표를 보니 자기 이름이 없었다. 이때 사범 학교에 다니는 것이 모

두 관비였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어디 갈데도 없고 더구나 집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부모님을 창피하게도 시험에 떨어진 얼굴로 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자기가 시험에 떨어진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때까지 공부를 항상 잘했고, 이번의 시험도 잘쳤는데 낙제라니! 한잔선생은 이대로 떠날 수가 없었다. 자기가 시험을 쳐서 2등이되었다고 해도 용서못하는 성격인데 낙제가 되었으니 이런일은 이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그에게는 생각되었다. 그래서 지금 서울거리에 나가 죽던가 거지가 될 형편이니 그전에 있는 용기를 다내서 교장실을 찾아가 닳자긱자 큰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갔다.

그때 마침 교수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어린 한국소년이 눈이 충혈되어 무어라 호소하는 것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모두 놀라 보았다. 한잔 선생은 일어를 못했으니 「나를 왜 떨어뜨렸는가?」라는 말을 했으나 선생들은 똑똑히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고 가까이에 있던 선생은 한잔선생을 붙잡고 방밖으로 내보내느라 힘을 썼다. 그래서 한참 반항하다가 할 수 없이 교장실에서 쫓기어 나와 교문앞을 터벅 터벅걸으며 이제 어떻게 하나 강통을 옆구리에 차고 거지를 할까 등등의 망상을 하면서 눈물을 씻고 가는데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 뒤돌아 보니까 학교소사가 뛰어오면서 교장선생님이 만나자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면서 교장실에 들어가니 아동, 소년들의 교육자인 교장은 이 시골 어린아동이 죽을 용기를 내고 교장실에까지 들어와 호소하는 것을 이대로 거저지나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사연을 잘 듣고 한잔선생의 입학서류를 가져오게 해서 낙제가 된 사유를 직접 알아보니 시험성적은 대단히 좋았으나 몸이 적고 체중이 적어서 몸이 병약하다고 視診으로 진단을 내리고 신체검사에서 낙제시켰던 것이었다. 여기서 교장선생은 담임교사와 의논하고 우선 입학시키고 만약에 병에 걸려 하루라도 결석한다면 그만둔다는 약속을 하였다.

한잔선생은 몸은 약하게 보였겠으나 매일 냉수마찰을 오래전 부터하고 있어 감기를 한번도 앓지 않은 건강체였다. 그리니 입학후 매일 학교에 나왔고 학기말마다 성적순으로 교실에 성적을 발표할 때면 언제나 제일앞에 자기 이름이 나오고 있었다. 참 적은 순간적인 판단이 한잔선생을 서울거리의 거지의 운명에서 그를 건졌다. 사람사는데 용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일에서도 잘 깨닫게 한다. 이것과 비슷하게 용기를 내어 일제때 교장을 찾아가 따진일이 심봉섭교수(가톨릭의대 생화학명예교수, 한국학술원상수상자, 남중27회졸업)한테도 있었다.

심교수는 일제의 전쟁말기때인 1944년, 1945년에 함흥의대에 입학시험을 쳤는데 1944년의 경쟁이 대단히 심할 때 시험에는 합격되고, 2차에서 떨어졌다.

1945년은 8·15해방 6개월전이라 입학시험은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정했다.

그런데 심교수는 여전히 낙제였다. 심교수는 남중을 다닐 때 전교서 인정해준 우등생이었으니 학교성적은 가장 좋았는데도 함흥의대에 입학이 되지 않으니 그때 교장이었던 小林晴美교수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 물론 그래도 입학은 못했으니 이런 용기를 심교수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할 만하다.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심교수가 상급학교에 입학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학생때 사상이 나쁘다고 일제로부터 점을 찍히

운 때문이었다. 그당시 학생하나가 단파라디오를 만들어 거기서 들은 「미국의 소리」를 친구들한테 이야기한고로 流言蜚語를 터트렸다고 한학년의 반이나되는 학생이 함경남도고등계(사상범을 취급하던 부처)에 잡히어 갔다. 심교수도 여기끼어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심교수는 유치장에 감금되어 형을 받을 뻔했는데 영어교사였던 津田先生이 신원보증을 해주어 풀리어 나왔으나 상급학교에 들어갈 길은 그때 완전히 막히고 말았던 것이었다.

한잔선생님이 한번은 국가 경축일에 남중강당에서 식을 거행할때 교장도 없고 교무주임도 없어 서열이 3번째가 되는 한잔선생님이 교장을 대신해서 명치천황이 내린 「교육칙어」를 낭독하였다. 우리학생들은 손도 떨고 일어도 척척하지 못하는 한잔선생이 이 큰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큰 흥미를 가지고 슬적 슬적 보니깐 한잔선생은 노안경을 쓰고 「교육칙어」를 멀리 밑에 들고 줄줄 읽다가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덜덜 떨니 페이지를 꾸겨 잡아쥐고 넘기고 있었다. 어떤 학생은 말하기를 손에 침을 묻히고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것은 보지 못했다. 손이 떨지 않기 위해서 틀림없이 술을 한두잔들고 오신 것에는 틀림 없었을 것이다. 그는 생각한것 보담 손을 떨지 않았다.

한잔선생님은 옛날 사람이 모두 그랬듯이 어려서 장가가서 일찍이 아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두번째로 장가가서는 거저 계속 딸만 낳았다. 그래서 딸이 6~7명은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들을 보겠다고 자꾸 아이를 가져보니 부인이 해산하는 날은 옆방에서 거저 안절 부절 못하면서 아들이나 딸이냐를 기다렸다.

운이 나쁘게도 나의 모친이 언제나 산파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 곤란한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6번째인가 7번째 딸이 낳았을 때'도 그랬다. 그래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구 건강한 아이면 되지 않소? 라고 대답하시었다. 이때 해산하기전에 한잔선생님이 술에 잔뜩 취하여 밤중에 우리집에 오셔서 할머니보고 물을 마신다고 수도물을 들고 실컷 시원하게 찬물을 마신다음 어머니를 찾았다. 그다음에 출산한 아이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었다.

그날 아침 남중의 넓은 교정에서 우리들은 조회를 받고 있었는데 한잔선생은 늦게 출석했다. 나는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등교한고로 한잔선생의 태도를 잘보았는데 얼굴은 웃는 얼굴이 아니어서 좀 실망을 했다. 그후 사변이 나고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을때 남중동창회가 있어 참석을 했더니 나이 많이 드신(그래도 환갑전이였다) 한잔선생님이 출석하셨고 자랑하는 어린아들(6~7살였을 것이다)을 데리고 오셨다.

나는 선생님께 인사를 올리고 처음 보게된 아들을 그때 직접 보았다. 한잔선생은 만면에 기쁜 웃음을 담고 아드님을 소개하시는데 아들은 잘생겼고 수줍어하고 있었다. 그후 서울에서 한잔선생님의 환갑잔치때 자택에 찾아가서 인사한 것이 한잔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본때였다. 한잔선생님의 장남은 나보다 10세정도 위인데 나의 둘째 삼촌하고 일본 동경에서 무사시노(武藏)공업대학(그때는 전문학교)에 함께 다니 나는 자주 만나보었는데 나의 삼촌과 마찬가지로 술을 좋아하시어 밖에서 늦게까지 삼촌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삼촌집에 오셔서 주무실때가 왕왕 있었다. 부인은 치과의사였다. 마지막에 본것은 나의 부모의 환갑잔치를 「아사원」에서 크게 가졌을 때 오셨는데 매우 여위었고 술은 입에다 대지도 않았다. 나는 옛날부터 그 아드님이 술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한잔술을 억지로 드



렸더니 그술을 받고 뜻밖에도 쪽 다드시었다. 틀림없이 간경변  
증에 걸려 있었을 것인데 그적은 술한잔이 아드님의 건강을 더  
나쁘게 하지 않았을 것을 바라고 아드님을 쳐다 보고 있었다.

한잔선생님의 많은 딸중의 한분은 나의 누이동생과 국민학교  
도 같고 함남고여고 같은 반으로서 내가 남중을 다닐 때 몇번  
본일이 있는데 눈이 매우 빛이나며 똑똑하게 생긴 학생이었다.  
단지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학교서는 우등생이었고 수학은 특  
별히 잘했다고 나의 누이동생이 말하였다. 한번은 여름방학때인  
가 일요일에 누이동생이 여러친구하고 서호진에 해수욕하러 갔  
을 때 나도 그래서 만났는데 그 똑똑한 딸이 중심이되어 모두  
함께 수영하면서 노는것을 보았다.

그딸이 25살 가까운 나이로 아직 독신일때 나는 이미 약혼을  
한다음 한잔선생님의 환갑잔치날에 만났는데 눈은 옛날보다 더  
똑똑하고 키가 작은 것을 보며 나의 고모(한남고녀교사)가 상  
기되었다. 나의 고모는 너무나 똑똑하고 키도 작은 편이었는데  
시집가서는 남편한테 잔소리는 무섭게 심하게 하였다. 내생각에  
지나치게 똑똑한 여자는 대개 행복한 가정생활을 가지는 경우  
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았다.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을 그 딸님  
은 어디서 살고 계신지 나는 잘 모른다. 원컨대 모든 자손들이  
그후 행복하게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 있다.

1993년 12월 28일

## 『洪兄께 진 빛』

(2)

그때가 남중 4, 5학년때인가 한다. 한참 무덤게 더웠던 여름이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지고가고 있을 때였으니 우리 젊은 중학생들에게 군사훈련(교련)이 가중되어가던 때다. 그래서 함흥에서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중무장(총은 없이)을 하고 이십리를 뛰는 경주를 열게 되었다. 배낭에는 돌맹이를 넣어 일정한 무게를 갖게 해서 끝까지 메고 달려야 한다. 한학교에서 3명정도의 선수가 참가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 담임교사가 우리들을 모아놓고 지망자를 고르게 되었는데 이 더운 여름에 거저 뺏쓰하나만 입고 뛰라고 해도 희망자가 있을 까말까 하겠는데 중무장하고 이십리를 달리라고 하니,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담임선생은 가장 유망시되는 학생을 지명해서 반은 강제로 출전하게 했으나 한사람이 부족되었다. 그래서 몇번이고 전학급생을 두루두루 돌아다보며 나갈 학생이 있는가고 물어봐도 소용이 없었다. 그당시 나는 기계체조 선수를 하고 있었고 마라톤 등 장거리를 뛰는데는 좀 잘하는 편이었으니 한번 인내력의 한계선까지가는 이 힘든 경기에 나가볼 생각이 나서 일어서서 내가 나가겠다고 지망했다. 전학생들은 깜짝 놀라는 시선을 일제히 나한테 돌렸다. 그러나 나를 용감하다고 칭찬하는 것보담 대부분은 불상하다는 애처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담임선생은 선수의 숫자가 겨우 채워졌으니 거저 안도감이 더 큰것 같이 반가워하며 내이름을 적고 나설려할 순간 홍兄이 일어서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兄은 축구선

수였고 만능 운동선수였으니 나보다 더 책임인 학생이었으니 선생님은 내 대신 洪兄을 넣어 주었다. 洪兄은 내가 불상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한 것보다는 전교생이 인정한 남중을 대표하는 체육인인데 운동선수로서는 비인기종목이었던 기계체조선수인 내가 유명체육인인 洪兄을 제쳐 놓고 당당히 학교대표로 나간다니 洪兄은 길가에서 가만히 서서 구경만하는 자기를 도저히 참지못하여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나한테는 큰짐이 없어졌으나 그 짐이 얼마나 큰것이였는지는 경기날에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날 우리 학급의 반은 출발점인 공회당에 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십리 떨어진 후지능(陵)에 미리가서 우리선수들을 응원하게 되었다. 나는 후지능에 갔다. 날은 여전히 전과같이 무더운 여름날씨였다. 한참 있으니 각 중학교의 선수들이 뜨문 뜨문 달려와 돌아갔다. 그리고 우리선수가 한사람 뛰어오는데 특별히도 강하게 잘 달리고 있었다. 그 친구는 시골서 자전차통학을 하고 있던 친구로서 이렇게 까지 뚜렷하게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그때 처음 보았다. 그는 용감하게 노래를 큰소리로 부르며 뛰어갔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그렇게 까지 건강하고 남자의 表象같이 빠기고 날뛰던 우리의 영웅인 洪兄이 다 죽은 것 같이 창백한 얼굴에 겨우겨우 작은 발길로 걸어 오는 것과 같은 속도로 뛰어오고 있었다.

우리 응원단은 일제히 일어서서 가까이에 뛰어가 부축이라도 할러하니 洪兄은 자기를 다치지말고 이대로 가만 놓아두라고 다죽어가는 가느다란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계속 그 잔잔한 발걸음으로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어느새 저멀리에 사라졌다. 나는 洪兄이 이제 다시 십리를 갈수 있을 까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결국 시간은 많이 들었으나 공회당까지 가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자리에 실신한 것 같이 앉아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다. 그날 「후지능」까지 오지도 못하고 쓸어진 선수도 많았고 물론 종점까지 오지못한 선수도 많았다. 모두가 脫水症과 熱射病으로 혼이 낮고 죽은 선수가 없는 것은 큰 다행이었다. 그리고는 이런 무모한 경기는 다시는 거행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생각해보았다. 그렇게 건강한 洪兄이 저렇게도 녹초가 되어 버렸으니 내가 뛰었다라면 얼마나 크게 혼이 났으며 고생했겠는가고 차차 차차 머리속에서 실감이 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洪兄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게 들게 되었다.

또하나의 빛은 내가 교실에서 담임선생에게 무슨 설명을 하면서 조선말 일본말이라고 말했더니 일본말은 그때는 일제였으니 우리들은 국어라고 말해야 할 때였으니 담임선생은 이것을 들어 나를 나무라면서 학교당국에 말을 안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특별히 민족정신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엉뚱한 말 한마디로 민족주의자가 되었고 일제의 눈으로는 반역자같이 될 뻔 했는데 그때 洪兄이 일어서서 「그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말로 보통 조선말, 일본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일어로 그대로 말한 것뿐일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담임선생이 안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겠군」라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교실을 나가셨다. 혹시 그 교사가 교감선생께 처음대로 알려주었다해서 내가 보통때 민족주의자의 과격한 언사를 전부터 하고 있었다면 이기회에 정확이나 퇴학 정도의 벌을 받

을지 몰라도 나는 무난하고 아무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90%의  
똥 보통학생과 같았으니 아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겠으나 그  
래도 나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洪兄이 부탁도 하지  
않은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 나를 위기에서 빼주었던 것이었다.

학급에서 가장 나이 어린 내가(한전숙과 내가 가장 연소자였  
다) 생각도 안한 사상범에 말리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용감하게 나를 구출해 주었을지 모르겠다. 나는 洪兄의  
높은 기사도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바이다.



## 5000m스케이트 경기

(3)

중학교때 우리들은 1학년때부터 겨울에는 체육시간에 으레이 스케이트를 지치고 있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전구코트로 쓰이던 장소에 겨울에는 수도물을 채워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아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번있는 체조시간에 모두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주말이나 겨울방학때는 성천강이나 탄 큰강에 가서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체조는 항상 잘하였고 4, 5학년때는 학교대표선수를 지냈는데 스케이트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것은 그당시 스케이트선수들은 함흥의 많은 여학생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지치게 되니 자연히 인기 남학생들이 되어 그들중에는 불량학생이 많았다. 그당시 중학생들은 밤이되면 외출도 금지였고 극장구경을 하거나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면 일주일 이상의 정학을 받게된다. 그러니 요즘 학생들에게는 보통일상생활인 그런 행동을 우리시대에 하며는 불량학생으로 일반이 보고 있었다. 그러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극장구경도 하지 않고 데이트도 안하는 것이 우리들 시대사람들의 매일이었다. 게다가 나는 그런 연파(軟派)에 들어 있을 정도의 재치도 재간도 없었으니 거저 평범한 스파타식 그시대의 중학생생활을 밟고 있었으니 그런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생활스타일은 완전히 배타적인 고지식한 중학생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강가에 전교생이 나가 교내스케이트경기시합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경기가 진행되어 있는 사이 내가 혼자

스케이트를 해보니깐 꼭 선수같이 멋있게 스케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 매우 반가웠다.

그때 마침 최종종목인 5천미터시합이 시작된다고 발표가 있으면서 희망학생은 참가하라는 것이다. 5천미터라면 가장 장거리의 경기가되니 힘이 들것이고 선수가 많이 모이지 않았다. 나는 5천미터가 얼마나 힘이 들 것이라는 인식은 하나없는 데다가 지금 처음으로 멋있게 신나게 스케이트를 할 수 있으니 용감하게 시합에 나섰다. 그리고 처음 몇 바퀴는 제대로 멋있게 스케이트를 했는데 차차 차차 나같이 일주일에 한번씩 스케이트를 하는 아마추어는 하나씩 탈락하기 시작했다. 나도 다리가 장작개비 같이 말을 하나들어 주지않고 꼭 스케이트를 가지 시작한 사람같이 모양이 형편없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도 그만둘려고 생각했으나 숨어있던 함경도 기질이 나오면서 계속 형편없는 스타일로 스케이트를 지치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정 힘이든데다가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엉망의 모습으로 스케이트를 하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 이만 그만둘려고 했는데 한국인 교사 한분(배쥬구)이 큰소리로 「끝까지 분발하라!」고 격려하는 바람에 이를 악물고 바보온달같이 끝까지 스케이트를 결국 지치고 말았다. 우리 중학시대 육상경기서는 보통 가장힘든 경기가 만미터경기였고 빙상경기서는 5천미터였으니,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가장 힘든 경기였다. 그것을 갑자기 마음이 난다고 뛰어들어와 스케이트를 한 것은 나의 무지의 탓이었다. 나는 경기가 끝나니 정신은 반이 없어진 것 같이되고 조용한 장소에 넘어지는 것 같아 가서 앉아 생전 처음으로 힘든 경험을 한것에 거저 혼이나서 아픈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 나의 경기모양은 꼭 마라톤

결선점에 정신이 거의 다없어진 것 같이되어 허들 허들하면서 들어오는 기진맥진한 선수들의 모양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의 무모한 5천미터스케이트경기는 나의 일생을 통하여 엄격한 교훈을 언제나 주게 되었다. 즉 운동선수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며 기나긴 힘든 꾸준한 훈련이 있는 결과이며 특히 기초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천천히 몸소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은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과 꼭 같다는 것도 차차 잘 알게 되었다. 단기간에 벼락 시험공부하는 것은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나는 중학시절에는 공부를 썩잘하지 않았으나 의대생이 된 후는 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데 이것은 중학때 수학선생(스네이크)께서 자기는 학생시절 매일 8시간(학교수업 시간외에) 공부하였다는 말씀을 따른 것이었으나 내가 그 마음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틀림없이 그 힘들었던 5천미터 스케이트경기가 가져다준 산 체험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들은 TV에서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이나 직업선수들이나 대학선수들이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가끔 보고 들을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옥훈련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 국내경기든가 국제경기에 승리하려면 이런 심한 연습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남보다 더 오랜 시간을 더 열심히 한자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뒷골목 흥정을 한다던가 소비자의 눈을 속여 거부를 쥐는 것은 운동과 공부 연구의 세계서는 만에 한번도 통하지 않는다.

「洪德泳兄에게 내가 진 2개의 빛」



## G형에게 !



梁 泰 鱣(26回)

봄비 내리는 조용한 아침입니다. 森羅萬像이 촉촉히 젖어 生氣를 더해갑니다.

들풀은 힘차게 大地를 향하여 하늘로 뻗어 올라갑니다. 나의 젊은날의 希望과도 같습니다. 兄과의 交分은 겨우 학창시절의 5年 뿐이고 卒業후에도 한번도 만나지 못하고 나는 南으로 내려왔으니, 내 人生의 한 적은部分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G兄!!

오늘은 왜 이렇게 憂愁에 잠기는 걸까요. 兄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프고 아쉬움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사의 덧없음을 느끼게 합니다.

3.8線이라는 魔의 障壁이 한없이 원망스럽습니다. 兄이 50세도 채 되기전에 他界하였다든 소식을 들었을때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픔으로 밤을 지새우며 지난날의 兄과의 인연을 더듬으면서 괴로워하였고, 人生無常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인연의 作戲치고는 너무나 야속합니다.

내가 댁을 안 것은 철없는 中學時節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以心傳心으로 통하는데가 있었습니다. 나는 댁에게 아무것도 배운것이 없었는데도 댁은 나에게 너무나 어른스러웠고 배운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方式을 가르쳐 주셨기에 댁을 戀慕하는 정이 그치지 않는것 같습니다. 城川江 모래사장의 달빛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매혹되어 함께 나가 놀자고 댁의 집에 갔을 때 댁은 나에게 참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놀러 나가게 되면 내일 또 나가고 싶으니 오늘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고 타이르셨던 댁의 어른스럽던 말은 중학생의 철부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려깊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햄릿이 어머니에게 三寸의 침실에 가지말라고 타이르던 말처럼...

오늘날까지 내가 어떤 유혹이 있을때는, 문득 문득 형의 얼굴을 떠올리며 참고 산 일도 있습니다.

金剛山 여행을 떠나는 날까지 어찌된 일인지 내 本家에서 용돈이 오지않아서 걱정하였는데 下宿집에 가니 마침 전신환으로 송금된 것이 와서 여러가지 먹을것을 준비하고 학교로 갔는데 형이 나에게 와서 이제부터 행동을 같이 하자고 하기에 무심코 그렇게 하자고 하였더니 형은 “내가 네 먹을 間食을 다 준비하였다”하고 하였지요.

내가 돈이 없는것을 感知하고 말없이 준비하여 온 형의 따뜻한 마음은 나를 感動시켰고, 형의 思慮깊은 溫情과 행동에 저속이 놀랐습니다.

보기에는 연약한 女性같은 댁이 이런 온정만 있는것이 아니었습니다. 金剛山 여행중 몇몇 학생의 기분으로 약간의 술을 마

섰는데, 학교로 돌아오는 도중에 기차안 별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형을 불러내어 여행중에 음주한 학생을 적발할 목적으로 형을 다구쳐 물었을 때 형은 함구하여 끝내 말하지 않았을때 선생님이 “술을 마신 학생을 아느냐?” 라고 물으니, 형은 “압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말을 못하냐고 하니 차라리 벌을 받을 망정 친구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완강히 거절한 형의 모습은 어쩌면 殺身成仁 하는 숭고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뿐 입니까? 下級生이 건방지다고 5學年인 우리들이 그들을 처벌하자고 모든 중론이 돌고 있을때 꺾연히 일어나서 반대하며 우리 學校의 傳統에는 하급생 체벌을 한 先輩들이 없다고 하여 “너희들이 꼭 그렇게 하려거든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던 그 용기는 너무나 강인함이었고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그때 체벌을 주장하던 학생이 그의 뺨을 후려쳤을때에도 아무 반항을 하지 않던 그 모습은 무저항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金元擇군이 일어나 동급생끼리 주먹을 휘두르는 나쁜놈이라 항의하므로 모든일이 無爲로 돌아간 것을 생각하면 兄은 정말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려깊은 벗이었습니다.

G兄!! 많은 친구들이 越南하였고, 兄을 그리는 벗이 많은데 형은 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었기에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 오기로 권하였건만 거부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쉽기 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도 형이 할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고, 형에게 기대되는 밝은미래가 한량없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만나서 옛정을 나누자고 마음먹고 있던 우리들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먼저 가시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형의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돈독하여 우리들의 상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한 정신으로 그곳에서도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북에 있는 同胞들에게도 깊은 감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나는 형의 입으로는 한번도 신앙을 가지라고 권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신자로서 형을 본받을려고 하여도 도무지 형과 같은 생을 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하며 兄만을 그리워 합니다.

이제 幽明을 달리한 형의 명복을 남하한 친구들이 모두 아쉬워하며 빌고 있습니다.

형!! 남아있는 이북의 가족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그리운 정을 여기에 적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榮光스럽게 지내소서.

당신의 永遠한 친구 태전이가 祈禱합니다.

부기) 이 글은 G兄이 자기이름을 밝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국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글을 쓴직후 필자는 숙환으로 타계했음을 애도합니다.(편집자)

##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며

(이 글은 第26回 故 梁泰鱸同門의 長男이

아버지의 임종을 슬퍼하며

보내온 글임)

아버지이름 : 양태전

1924년 9월 13일 생

1994년 7월 14일 졸

저는 일전에 집으로 함남중학교 동문회로 부터 “동창회지 제 5호에 실릴 원고를 받았으며, 기고한 동문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통지문을 받아보고, 이제는 아버지가 더이상 이세상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난 7월 14일 방광암으로 여러번의 수술과 투병속 끝에 운명하셨습니다. 외아들인 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의연합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확신을 잃지않고 인생을 마감하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한 함남중학교 출신이라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셨던 학교의 동창회지에 아버지의 마지막 글이 실릴수 있도록 하여주신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1924년 함경남도 이원군 차호읍 유진리에서 출생하시고 함남중학교 26회 및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이후 1990년 충주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임하시기 까지 약 40년동안 후학양성에 일생을 바치셨고,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장로로써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작년 소변에서 피가 나와 진찰결과 신장결핵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아 신장 1개를 제거하였으나, 계속 소변에서 피가나와 재검사결과 방광 안쪽에 암이 있다고하여 또한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후 수술결과도 좋고 소변에서 피도 보이지 않아 모두 안심하고 있었는데 금년 4월말 허리가 몹시 아파 검사하여보니 암이 방광 외부와 척추, 간등 전신에 퍼졌다는 판정과 함께 얼마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내용을 역시 함남중학교 친구인 이삼렬 박사님으로부터

터 즉시 전달받았습니다.

모든가족이 놀라고 슬퍼하는 가운데 의외로 아버지는 담담하셨습니다. “모든사람이 살다가 죽는것은 자연의 섭리인데 왜 슬퍼하느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복에서 내려와 결핵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하겠더라던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1남4녀를 모두 남부럽지않게 길러 부모로써 역할을 다했으며, 사회적으로 평생 한눈팔지않고 많은 후학을 양성했으며, 교회장로로써 하나님일을 열심히 하였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느냐?”고 인생을 회고하시며 오히려 슬퍼하는 가족을 위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바라고 기도하신것은 고통없이 갈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고 늘 7월 이내에 죽었으면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이 삶에대한 애착이 있어 좀더 살고 싶어하는데, 이렇게 죽음에 대해 담담해하는 것은 평생 지켜왔던 자존심때문에 실제로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실제로 인생에 대한 확실한 신념 때문인지 부족한 저로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단들이 있을때 아버지의 두눈을 직시하며 여쭙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어떠한 불안감도 초조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저는 그때서야 삶에대한 아버지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임종전 통일이 되면 만나보아야될 친척(물론 다 세상을 떠났겠지만)이름과 임종후 연락해줄 사람의 명단과 비석

에 새길 글등을 일일히 챙겨 주셨으며, 특히 마지막 봉사로 죽은후 앞뭇보는 사람을 위하여 두눈을 기증 하겠다고 유언하시던 아버지는 마침내 평안한 얼굴로 웃으시며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시신은 충주 선산에 안장되었으며, 두눈은 즉시 기증하였습니다. 분명히 앞뭇보는 2사람이 아버지로 인해 새 희망을 찾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침 안장후 소나기가 쏟아져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잔디가 죽지않고 거의 잘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달라고 유언 하셨습니다.

“여기 고향을 떠나 후진 양성을 위해 생애를 바치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영전에 드립니다”라고. 저는 “여기 고향을 떠나 후진 양성을 위해 생애를 바치시고 웃으시며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아버지 영전에 드립니다”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 가셨지만 남은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살려고 다짐하고, 또한 아버지가 그렇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함남중학교 동창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셔서 통일후 그리운 학교를 다시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4년 8월

유족 : 처 : 강도근

장남 : 양성우 자부 : 김월선, 손자 : 정관, 정화

1녀 : 양현우 사위 : 차혁진 외손녀 : 차예준

2녀 : 양선우 사위 : 최승우 외손자 : 최민규

3녀 : 양신우 사위 : 박영일 외손자 : 박민석

4녀 : 양혜우 드림.



# 27回



- ◎ 知性人 과 老年期の 健康 ..... 元 章 煥(27回)
- ◎ 天池(外 1편) ..... 韓 淳 輔(27回)
- ◎ 오! 어머니 ..... 韓 泓 模(27回)
- ◎ 생각나는 日人恩師들 ..... 柳 鋼(27回)
- ◎ 나의 故郷은 定平鳳台 ..... 박 철 선(27回)
- ◎ 한 革新의 挫折, ..... 김 명 수(27回)

人類의 終末은 언제쯤인가





## 知性人科 老年期の 健康



### 元 章 煥(27回)

저는 法律을 工夫한 사람이며 醫學을 專功한 사람도 아니며 또한 健康管理學을 깊이 研究한 學者는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書籍(특히 中國文言)을 살펴보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事實을 알게되어 다같이 늙어가는 저의 同門들에게 多少나마 參考가 된다면 多幸으로 생각되어 이 글을 씁니다. 樂觀이 “健康의 秘訣” 이는 中國의 改革主義者 鄧小平의 境遇를 살펴보면 獨逸의 前 總理가 1985年 5月 中國을 訪問하여 鄧小平을 만났을 때 11億 人口의 事實上의 統治者이며 權力者인 改革의 旗手였던 鄧은 1904年生으로서 當時81才였다. 前이 물었다. “조금도 늙으신건 같이 않습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등이 對答하였다. “비결은 없소” 다만 나는 즐겁고 낙관할 따름이지요. 라고 對答하였다. 이 境遇의 鄧小平은 老化 특히 頭腦 老化의 防止를 爲한 秘訣中の 秘訣을 갈파한 것이다. 그 自身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이고 또 時代的 要請과 歷史的 進운과 附合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國家發展의 展望이 밝다는것이다. 그는 12億 人口를 保有하고 있는 巨大 中國을 引導하면서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安樂死를 誘導하는 過程에서 衣食住 問題中 비록 住宅問題解決은 아직 未盡하나 먹는것과 입는것은 解決한 셈이다. 鄧은 80고개를 넘고도 頭腦가 명석하며 步行이 不自然스럽지도 않고 또한 유모아 感情이 豊富하여 樂觀的인 性格 形成이 可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樂觀의 으뜸은 爲先 분노하지 않는다는 데 있으며 反對로 분노에 依하여 채색되는 悲觀은 自他에 對하여 至極히 危險하다고 알려 졌는데 마음의 평온을 維持하기 어렵다는 眞理를 알고 있다고 할수 있다.

아시는 바와같이 분노라면 심장이 거세게 뛰는데 심장 擴張時의 血壓上昇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高血壓 병발증이나 심장병 등으로 比較的 빨리 世上을 하직하고 만다. 또한 각종 암으로 죽는 確率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모든 記錄과 統計는 한결같이 머리를 쓰는 知性人이 單純한 知識人이나 肉體 勞動者에 비해 長壽를 누린다는 事實을 特記하고 있다. 유연하게 머리를 쓰는 동시에 섬세하게 손과 팔을 많이 움직여야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비롯하여 發明家 作家 藝術家 學者 教師 宗教人 言論人 政治人 經營人 法曹人 등이 長壽한다는 것이다. 16世紀 以後 西歐의 著名 한 科學者 發明家 400名의 平均 壽命은 79才였다고 한다. 勿論 長壽만 能事일수는 없다. 사람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活動領域이 問題된다. 그 點에서 畫家 피가소는 91才에 죽을때까지 畫筆을 들고 있었다. 또한 歷史學者랑케(世界史)는 16卷을 쓰기 시작한 것은 85才였다고 한다. 괴테가(파우스트) 第2部를 脫稿한 것은 82才

中國의 鄧小平은 적어도 88才까지 政治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괴테가 72才 때에 19才 少女와 깊은 연애에 빠졌던 事實도 널리 알려진 逸話이며 우리나라에도 有名人士들의 例는 許多하다. 이같은 事例는 頭腦 活動이 人間의 健康과 長壽를 爲해 必要不可缺하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것이다. 老人病中에 痴呆病(치매病)이 있다. 卽 노망이다. 저의 大學 同窓中에 이 病에 걸려서 病院에 入院시켰더니 밤 2時에 病院에서 脫出하여 他人집 처마 끝에서 잠을 자고있는것을 家族들이 發見해서 집에 데리고 가는등 그 苦楚는 말할수 없다고 한다. 노망의 으뜸가는 증세는 記憶力の 消滅 判斷力の 유치화 自生力の 喪失로 풀이된다. 노망에 걸리는것 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지만 막상 그 病에 걸리면 自殺 할만한 勇氣도 엄치심도 사라지고만다고 한다. 그런데 痴呆病은 좀처럼 完治할 수 없으나 豫防할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다.

方法은 知的인 頭腦活動이다. 身體의 모든 器官은 쓰지 않고 放置할때 退化되고 만다. 頭腦는 特히 그렇고 活動의 持續性이 야말로 老化防止의 必須的 要件이라고 한다. 그 要諦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독서는 연필을 들고 읽어야 한다.

② 知的 對話

③ 사랑의 人間關係

讀書研究는 人間을 폭넓게 理解하며 自身の 生活을 윤택하게 하며 趣味의 多樣化와 더불어 讀書를 生活化 하는 努力이 切實이 要請된다.

이 글은 中國의 文言을 參考하여 記述한 것이오니 諒知하시

고 우리同門들이 樂天的 性格의 所有者가 되어 다같이 長壽 하  
여야 한다는 念願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健康하게 餘生을 보내  
기를 祈願하면서 이 글은 끝맺습니다.

祝 盤 龍 誌 發 刊

韓皮膚泌尿器科 醫院  
院 長 韓 鎮 慶 (29回)

鍾路區 崇仁洞 1051  
(신설동 로-터리 시외전화국 건너편)  
電 話 923-5043

## 天 池 · 外 1편



韓 淳 輔(27回)

환구름 스치자 純粹가 다가온다  
깊은 못 비늘이 번쩍, 太古가 드러나고  
神祕가 취기로 돌아 그만 눈을 감았다.

물과 불이 빚어 만든 阿斯達의 물너울과  
神檀樹 바람 몬다, 내리 꽃은 長白瀑布  
心臟을 풀어헤친 것, 大陸이여 바다여.

세월에 지친 言語 白樺껍질 되었구나  
北쪽의 아린 바람 몰고 가던 高麗魂이  
물줄기 골라 잡으며 거문고를 통기던 곳.

그 옛날 불을 뿜어 새 물 얻던 슬기로  
열여섯 봉우리로 에워싸게 했도다.  
저 멀리 南쪽을 본다, 異國 땅을 딛고 서서.

※ 1993. 8. 15

中國땅에서 白頭山에 올라

## 慕 情

질그릇의 사연을  
정안수로 행구던 날

어머님 젓가슴은  
李朝白磁 닦았더이다

샘물이  
너무 맑아서  
그러했나 봅니다.

미역 한 꼭지를  
끓여 마시던 그 날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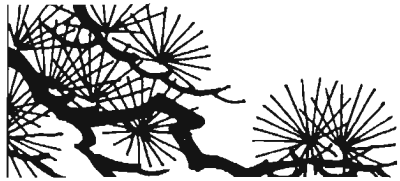
어머님 젓줄도  
뜨락으로 편안했습니다.

바람도  
세월을 알아  
폰수껏 불었습니다.

푸나무 한 지게로  
子正을 데우던 밤

어머님 젖무덤은  
숨보다 보드랍고요

慕情은  
강변을 도는  
철새 깃이 되었습니다.



## 오! 어머니



韓泓模(27回)

毎年 三・四月頃 들녘에서 아지랑이피어올때면 나는 불현듯 어머니生覺이 간절이 난답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에 出動할때도 그 깊은 안개속에서 어머니의 幻想엔 哀愁에 젖기도 한답니다.

젊었을때는 特別히 關聯된 일이 있으면 어머니 生覺이 낮습니다만 인젠 나이 古稀에 가까운 至今은 주책스럽게도 몸아플때나 苦憫있을때는 한없이 어머니가 그림고 보고싶어 눈물이 나온답니다.

나의 머릿속에 그린 어머니는 현재의 나보다 젊었습니다. 實際 어머니와 헤어질때의 어머니의 나이는 五十초반이었으니 내가 더 늙은 것이 現實입니다. 내가 二十歲 되던해에 어머니와 헤어져서 오늘까지 四八個星霜이 지냈습니다.

그 當時에는 學校關係로 세번이나 三八線을 往復했지요. 마지막 떠날때는 四六年 늦봄이었습니다. 現在永東에서 開業하는 K博士와 같이 越南했는데 K博士는 淸津出身으로 나와 日帝時 咸興醫專에 다녔습니다. 나의 勸誘로 同行하게 되었고 明太장사꾼 같이 꾸며갖고 咸興을 새벽車로 出發했습니다. 그땐 유달리 안개가 짙어 事물分間이 힘들程度였답니다. 父母의 承諾없이 떠나



니 食口들 눈치차리지 못하게 隱密히 準備하여 북어를 가득 넣은 背囊은 전날밤에 大門기둥꼭대기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눈치 차렸는지는 모르나 그날밤은 父母任사이에서 자라고 야단이어서 하는 수 없이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도둑고양이같이 살금살금 밖에 나와 大門에 올라가 背囊갖고 驛에 가는데 黃金町新作路엔 먼동이 트기 始作하고 안개는 유달리 자욱하였답니다. 뒤돌아 보지도 않고 가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흠짓하여 뒤돌아 보니 어느 사인가 어머니가 서계셨습니다. 나는 다가서서 “꼭 가야만되요. 어머니”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말없이 어머니는 치마올리고 주머니 찾더니 나의 손에 紙錢을 꼭 쥐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旅費도 장만했고 서울가서 몇달먹을 것도 있어요. 살다가 힘들면 큰姑母집에가서 살아도 되요” 했더니 그냥 갖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받아 갖고 가다가 뒤돌아보니 짙은 안개속에 어머니의 모습은 그림자같이 아스란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母子間의 永遠한 離別의 場面이였습니다. 驛에가서 보니 朝鮮銀行券 百円짜리 석장이었습니다. 그땐 서울에선 中古品피아노 한대가 百円할 때였습니다. 層層侍下 시집살이하신 어머니가 그 돈 장만하는데 몇달이나 걸렸을까 至今도 生覺해 봅니다.

저의 집은 黃金町國民學校앞에 있었습니다. 本宅은 咸州郡東川面東興里였고 咸興에서 二十里 못된 距離였습니다. 밤나무 발亭子에선 咸興市街가 뻗어 내려다보인 곳이었습니다. 兄과 누나가 이곳에서 咸興高普와 永生高女에 通學했다고 합니다. 막내동인 나는 어릴적엔 매우 病弱해서 어머니가 每日업고 道立病院各科를 巡廻할 程度여서 어머니의 발뒤꿈치가 성한 날이 없었

답니다. 內科系統일뎨 咸濟醫院 毛鶴福先生이 主治였고 每번 計算하지 않고 몇個月마다 決濟할 程度로 자주 다닐 程度였습니다. 六·二五后 毛先生任도 저의 아버지와 같이 越南하여 釜山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國民學校에 就學하게되니 아버지가 學校앞에다 洋屋을 新築했지요. 그 時代엔 꽤 훌륭한 집이었던 것 같았어요. 집에서 學校까지 五分도 걸리지 않아 國民學校時節에는 單 한번도 도시락을 갖고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點心時間엔 집에와서 먹고 豫備사이렌이 나와 學校에 가게 했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國民學校入學前까지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입는 洋服을 改造해서 입었고 심지어 帽子(烏打帽)도 어머니가 만들어서 썼답니다. 어릴때 빛바랜 寫眞을 보고 있으면 洋裝도 배우지 못한분이 용케도 잘 만드셨다고 느꼈답니다. 어머니가 시집와선 할머니와 같이 얘기서리했답니다. 兄과 여섯째 삼촌과는 同甲이요 그 밑으로 일곱째 삼촌과 두 姑母가 더 있으니 알만하지요.

시골집엔 果樹園 일이나 糧穀打作꾼 뒷바라지하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어머니는 일에 과몰입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시집와서부터 손톱깎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일 때문에 손톱이 닳아 자랄사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사이에도 土曜日 午後에 나는 咸興에서 시골집에 자주 간답니다. 故鄉집과 周圍의 아늑한 霧圍氣가 좋아서지요. 가을 맑은 날에는 同級 三·四名이 말타고 시골집에 가면 넓은 뜰엔 打作한 벧나같이 짝 차있고 일꾼들이 왁짜찌거리고 있으며 부엌에는 어머니를 위시하여 여러 동네 아낙내들이 食事準備에 바쁜데도 저희들이 들어닥치면 어느사이에 어머님은 대나무광주리에 누룽지를 기름에 튀겨 설탕

쳐서 가득 내놓으면 그 고소한 맛은至今도 잊질 못합니다. 일  
군들이 많으니 밥은 큰솥에 짓다보면 누룽지가 많이 나오지요.  
예나 至今이나 나는 이빨이 좋지 않아 누룽지도 그냥 못먹고  
꼭 튀겨 먹곤했답니다. 아주 어릴 때 記憶엔 겨울밤에 할머니가  
누룽지를 씹어서 나와 四寸들에 골고루 입에 넣어준 것도 生覺  
난답니다.

小學校는 아주 가까웠고 中學校는 黃金町 三丁目에서 學校까  
지 먼 距離였지요. 어머님이 威興에 계시면 點心반찬은 깔끔하  
고 맛깔스러웠습니다만 시골가시면 兄嫂나 누나가 도시락싸주  
면 반드시 반찬물끼가 밥통에 넘어 밥알이 뿔어터져 입맛이 나  
질않지요. 그럼 나는 먹지않고 반찬과 밥을 뒤섞어 갖고 집에  
온답니다. 一種의 示威였지요. 장조림같은 반찬은 반드시 채에  
놓아 간장물이 빠진다음에 넣곤했으니 장물이 흐를턱이 없었지  
요.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내 冊床밑엔 恒常 과일과 엿을 깨어  
콩가루에 묻어서두면 工夫하다가 먹던 記憶도 새롭습니다.

어머님은 各倉庫열쇠를 가는 허리에차고 다니니 어머니가 걸  
어다니면 恒常열쇠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지금도 나의 귓전에  
생생하게 들린답니다.

其後 서울에서 大學다니면서 所謂三八장사 아주머니를 通해  
집消息과 學費도 받곤했답니다. 六·二五가나자 나는 八字에도  
없는 軍醫官生活하게 되었답니다. 日帝때 理工系다니면 徵兵이  
免除된다하여 아버지의 強勸에 못이겨 醫學의 길을 擇했습니다  
만 至今까지 이길에 後悔해 본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兄과 두 조카가 越南했습니다. 그럼던 어머니는 故鄉  
에 계신채로.

난 그땐 釜山水晶國民學校에서 軍醫官訓練 받던中이었습니다. 그때나온 十三歲 조카애가 現在 狎鷗亭洞에서 크게 齒科開業하는 博士이지요. 이 조카도 벌써 孫女本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이같이 歲月이 많이 흘러서도 내 머릿속의 어머니像은 예나 지금이나 變함이 없군요.

어머님은 할아버지가 中風에 걸려 起動不便하시니 큰며느리로서 越南못했고 어머니가 越南못했으니 兄嫂와 어린조카들도 그곳에 그냥 남게 되었답니다. 完全한 離散家族이 바로 나랍니다.

一九五四年 내가 原州에 있는 一軍司令部醫務參謀部 保健係長在職時 하루는 꿈에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山中에 들어갔습니다. 山길가엔 깨암나무가 아담스러운 열매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님께 드리겠다고 주머니 가득 따가지고 어머님 뵈는데 그곳은 큰 法堂같이 느껴졌고 호텔 로비같이 넓고 大理石간 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안에서 나오시는데 그다지 반가운 表情이 아니었고 僧服같은 것을 입으셨답니다. 난 엉겁결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주머니속에 있던 까암알이 흘러 바닥에 떨어지는 청량한 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오! 어머니 어데 계시오니까?

그 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啓示가 아니었는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단 말씀입니까? 恨이 맺힌 어머님의 靈魂이 定處없이 北天을 헤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착하시고 仁慈하신 어머님은 天堂에서 安住하시어 이승의 일이 보고프지 않아 꿈엔들 나타나질 않는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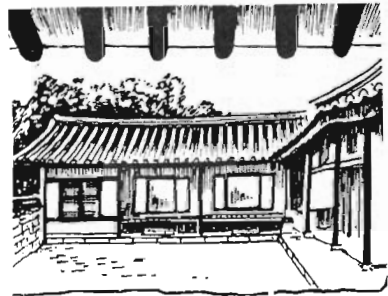
어머니가 보고픈 이 心情, 한번이라도 꿈속에서나마 相逢했으면.

至今 盤龍山을 爲始한 故鄉의 山川에도 진달래가 滿發하겠지

요.

어머님이 묻힌 곳엔 소쩍새도 울고 진달래도 滿發하였으면.

一九九四年 四月 二十六日



## 생각나는 日人恩師들



劉 鋼(27回)

### ●小野慶太郎先生

나의 5年間の 中學時節 三乙, 四乙, 五甲 三年間 担任하였고 修身과 公民을 擔當한 바 있다. 三學年에 進級하니 李永珽先生 (創氏名 德原 永)이 担任을 맡았는데 三宅右祐校長이 데려 온 心腹인 小野先生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마침 佐方先生의 動物時間에 뱀을 잡아 먹는 망구스(mongoose)에 대한 것을 배울 때라 스네이크(snake)란 別名의 德原先生을 몰아내고 担任자리를 차지하였다 하여 別名을 망구스라 붙이고 부지런히 불러댔다.

日本軍國主義 注入의 忠僕으로서 講堂朝禮때는 坐禪이라는 것을 主導하였고 日本神社에서나 읊는 呪文같은 것을 先唱하던 꽤 큰키에 앞이마가 사무라이같이 벗겨진 품이 떨어지는 教師相이었다. 子女는 많아 가난하여 항상 憂鬱한 便이었다.

三年 繼續 担任을 하였으니 꽤 情이 들었어야 하나 그렇지도 못했던 것 같다. 출근 日軍 航空隊나 軍需工場으로의 勤勞動員 引率者로서 勞動과 굶주림, 추위속에서 같이 지냈던 不遇한 生活의 連續이었다. 勤勞動員되었던 곳에서 나오는 밥에 콩이 많이 섞여 나와 마치 刑務所의 罪囚밥과 恰似하다고 했다. 우리들은 每日 繼續되는 콩밥에 질려서 食事때마다 상위에 콩을 골라

빨으면서 먹었는데 食事が 끝난 다음 小野先生은 이 것을 모두 모아 낮에 일하러간 동안 햇볕에 말려 자루속에 모으곤 했었고 이 것을 歸郷時 몇자루나 메고 집에 가져가 食糧不足을 補充해 갔다고 한다. 우리는 그에게 “食心棒”란 別名과 더불어 비아냥하는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同情도가 고 어떤 面에서 尊敬心같은 것도 있다. 融通性없는 日人, 權力의 指示에 따른 植民地支配의 下手人格밖에 되지 않았다고 본다.

卒業을 앞둔 五學年 마지막 2個月을 우리는 興南 本宮에 있는 日本航空燃料株式會社에서 보냈다. 여기서의 勤勞動員時에 나를 비롯한 지리꼬리패들은 小野先生에게 못할 짓을 하였다. 이 工場은 카바이트에서 알콜을 뽑아 飛行機燃料를 生産하는 곳이었는데 工場內에는 이 에틸알콜을 調達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낮에 슬쩍 조그만 瓶에 모았다가 退舍時 가져 와서 點呼時間뒤에 물을 타서 마시고 며들기도 했다. 二週間에 한번씩 外泊이 있어 土曜日에 咸興으로 올라오면 그리운 家族품에서 營養補充을 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이 담배 調達이었다.

어렵게 求한 담배를 몇갑씩 日曜日 午後 寄宿舍에 가져와 벽장속 天井에 감춰 놓은 것이다. 그런데 小野先生은 月曜日 午前만 되면 作業場引率을 韓恂炫先生께만 맡기고 寄宿舍 各房을 檢査한다. 豐足히 準備한 二週間分을 몽땅 押收해 갔으니 問題가 컸다.

우리 패거리들은 그날밤 가지고 나온 알콜을 點呼前에 마시며 憤慨했다. 醉氣가 돈 蠻勇이 發動하여 나와 다른 한 사람이 代表가 되어 小野先生房으로 들어 갔다. 웃옷을 벗고 이를 잡고

있던 先生은 놀래며 “무엇이나?”라고 묻는다. 다짜고짜로 “이泥棒야. 主人없는 房에 들어와 物件을 훔쳐 갔으니 내 놓으시오. 도적질하지 말라고 修身時間에 가르치던 先生께서 弟子들의 것을 無斷으로 훔쳤으니 告訴하겠소”. 참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아무리 合成알콜을 마셨기로서니 이런 賊反荷杖이 어디 있나? 그런데 小野先生은 무릎을 꿇고 빌면서 트렁크를 내 놓는다. 담배와 떡, 미수가루같은 것이 나왔다. 이 先生이 愆心났던지 담배以外的 間食에도 손을 댔던 모양이다. 그러기 때문에 當然히 押收한 담배를 問題삼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더 오래 있기가 민망하여 담배만 손에 잡히는대로 주어 나오고 말했다. 이 것은 凱歌가 아니었다. 悲劇이었다. 精神이 번쩍 들었다. 그뒤 小野先生을 바로 쳐다 볼 수 없었고 先生도 우리를 避하곤 했다.

解放後의 日人들의 殘酷像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어느날 집집마다 장작을 패러 다니는 日人들中에서 小野先生을 發見했다. 너무나도 마르고 수척한 그를 보고 눈물이 났다. 弟子의 집인줄 모르고 들어갔다 융숭한 待接을 많이 받았다는 그분의 表情에서 우리 咸南人의 따뜻한 情을 느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겠지. 살아 계시다면 90을 훨씬 넘었을 것이다. 나는 平生을 教鞭生活을 하면서 後悔되는 일이 많았다. 혹시 이런 記憶의 글의 主題가 되거나 않았을까? 철없던 時節의 잘못을 빌 뿐이다.

### ● 重住芳男先生

日語教諭中에서 最高를 뽑으라면 아마 五十嵐高之先生에 異論은 없을 께다. 그러나 이 美男型의 早稻田大學 高師部 出身의



重住先生도 배 놓을 수 없다. 주로 文法과 作文을 擔當하였는데 三學年때인가 講讀을 맡은 일이 있어 “万葉集”나 “枕草紙”等, 名講義를 했던 걸로 記憶된다. 美男에 멋쟁이었다. 키도 컸지만 손가락이 각별히 희고 길었으며 粉筆을 들고 멋진 書體로 칠판에 “万葉假名”를 쓰는 모습에 나는 魅了되었고 나도 커서 저렇게 되었으면 하면서 教鞭職을 憧憬하기도 했다.

우리집이 黃金町 二丁目으로 登校時에는 本町 二丁目の 遊廓 거리를 지나게 된다. 어느날 아침 先生께서 어떤 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菊池 寬의 小説을 耽讀했던 나는 比較的 早熟한 편이기도 했으나 이 일을 어떻게 解釋해야 할지 몰랐다. 勿論 先生은 그때 總角이었다. 얼마뒤 重住先生은 美人과 結婚했는데 어쩐지 그 夫人이 불쌍하게 생각되기도 했다.

1944년 天長節의 事件으로 特鍊隊에 編成되어 學業 代身 勞動을 하던 때 校長室에서 反省文을 내고 說教받고 풀이 죽어 나오는 나를 보고 “勇氣를 내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고 激勵해 주셨다. 얼마나 고마운지 어머님을 졸라 계란 30個를 상자에 담아 들고 官舎로 찾아 간 일이 있다. 茶를 마시면서 “네가 한 일은 옳은 일을 한거야. 日本은 罪를 알아야 한다. 얼마 못가서 이 전쟁도 질 것이다. 너희들 갈 길은 따로 있다”라고 激勵을 또 해 주셨다. 特鍊隊員은 工夫는 안 시켰지만 試驗은 보게 하고 成績은 나쁘게 나왔다. 그런데 重住先生은 서슴없이 “優”를 주셨다. 뜻밖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얼마뒤 敗戰의 氣色이 질자 日人教諭들이 소리로 없이 한두분씩 召集되어 갔다. 重住先生도···, 그러면서 卒業했고 解放을 맞았다.

뒤에 들리는 말에 終戰後 重住先生은 歸國했다고 한다. 뜬 소문이 그는 共產主義者란 개운치 않은 소문을 남겼다.

### ● 佐護恭一先生

英語先生이지만 “國語常用先生”으로 通한다. 그에게서 英語를 배운 記憶은 드물다. 敵性語라고 時間이 자꾸 줄어든 탓도 있지만 教室밖에서의 記憶이 많이 남아 있다. 朝禮時間에 登壇하여 “國語常用의 心得”라고 先唱하면 우리는 “發音を正しく, ゆっくりと 明瞭に”라고 復唱하곤 했다. 月一回씩 國語鍊成大會란 것을 開催하여 雄辯도 發表도 아닌 怪常한 試合을 創案해 내기도 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筆者도 班代表로 뽑혀 2等を 한 經驗이 있다. 또 朝鮮語 不使用運動을 벌려 校內에서 우리말을 쓰는 學生을 發見時 모든 先生은 “朝鮮語를 使った”라고 머리를 때리게끔 制度化했다. 이 일에 제일 忠實했던 것이 體操의 齊藤先生이었다. 나는 이 先生에게 단골로 많이 맞았다.

佐護先生은 勤勞動員 引率教師로서 가장 많이 따라 다녔다. 日本軍隊에 小池曹長이란 惡質이 있었는데 佐護先生은 이 사람과 어찌면 步調를 잘 맞추는지 기가 찰 程度였다. 小池曹長의 단골메뉴가 “對抗뺨타”였는데 連帶氣合의 가장 惡辣한 것이다. 指揮者는 손 하나 까딱않고 最大의 效果를 얻게 되는 日軍 獨特한 氣合이다. 그런데 先生은 우리 學校에 이 方法을 輸入하여 國語常用方法의 武器로 愛用했다.

어떻게 戰時에 끝까지 召集되지 않고 咸興에서 終戰을 맞은 것 같다. 解放된 얼마뒤 軍營通에서 마주쳤다. 特連隊 出身이요, 朝鮮語使用常習犯으로 단골로 氣合을 주던 나와 마주친 先生은

그래도 堂堂했다. “너희 나라의 獨立을 眞心으로 祝賀한다. 祖國의 큰 일꾼이 되어 다오. 지난 날의 나를 탓하지 말아다오. 이 佐護는 내 祖國 日本에 忠誠하였던 것이니 理解해다오.” 조금도 卑屈함이 없었다. 이것이 敗戰 日本이 오늘날의 日本을 만든 精神인가 싶기도 하다. 여하튼 典型的인 日人으로 머리에 남는다.

● 津田文平先生

入學後 맨처음 英語時間이었다. 다짜고짜로 알아 들을 수 없는 英語를 쭈욱 말한다. 우리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落第生인 崔某君이 일어나더니 英語로 뭐라고 했다. 津田先生은 버럭 화를 내시며 “네가 落第生주제에 英語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까부느냐, 나는 지금 너희들을 만난 첫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英語를 배울 것인즉 첫인사를 英語로 하는게 當然하지 않느냐”고 타이른 뒤 이 때까지 한 말을 日語로 말해 주셨다.

外貌가 꼭 西洋人같았으며 눈동자는 좀 파랗고 入門하는 우리들에게도 꼭 美國人이 말하는 것 같았다. 훨씬 뒤에 안 일이지만 母系가 歐美쪽인 混血二世였다고 한다. “지스이즈 아 북구. 잣도 이즈 아 독구”式으로 가르치던 英語先生과는 확실히 差가 났다.

點心時間이면 新聞紙에 싸 온 빵조각을 보리茶와 함께 들곤 했다. 아마 貧困하여 밥을 싸오지 못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同情도 했으나 그 분은 빵을 主食으로 삼고 있었던 것 같다. 옷도 너절하고 목깃에는 때국이 배어 있었고 약간 神經質적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故人이 된 兢兄이 驛에 누구를 餞送 나갔다가 津田先生을 만났는데 느닷없이 “니의 同生 鋼君은 입이 무겁고 등직해 참 좋더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왜 그랬는지 모르나 津田先生이 괜히 좋아졌고 教室안팎에서의 이 분의 言動에 尊敬이 갔다. “참는 者만이 살아 남는다. 絶對 卑屈하지 말라. 거짓말은 죽어도 하지 말라” 이 것이 거듭되는 津田先生의 座右銘이었다. 어쩌면 敵性國家의 血統을 일부 받았다는 絶叫였는지도 모른다.

아주 뒷날 1960年代 어디에서 흘러 들은 이야기로는 終戰後 聯合軍司令部에서 크게 活躍하였었다는 것이다.

#### 日置加賀夫先生

入學時 “히오키先生”인 줄 알았는데 “헤키”란 것이다. 日本人의 姓은 정말 모를게 많다. 東海林太郎란 有名한 歌手도 “쇼지 타토”라는 것이니 어리둥절하다. 이 日置先生은 美術先生이다. 훗날 世界的인 美術大家가 되신 先輩님들도 이 분을 상당히 높이 評價하는 것을 보니 대단한 분이었던 모양이다. 美術家의 印象같은 것은 전혀 없는 키도 작으만 하며 度數높은 안경을 끼고 콧수염을 조금 기르셨던 걸로 생각된다. 美術에는 워낙 素質이 없던 터라 핀잔도 많이 받았다. 二學年때인가 寫生時間에 警察署 높은 消防塔을 앉아서 그리게 했는데 나는 쳐다 보이는 塔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構圖하고 있는데 “야, 너는 머리가 거꾸로 되었는가”하면서 자세히 고쳐 주셨다.

官舎가 正門에서 가장 가까운 距離에 있었던 關係로 當時 出征軍人 歡送이 한달에 여러번 있었는데 非常召集된 學年の 指

揮를 자주 맡았다. 어떤 일인지 우리 學年이 걸렸을 때는 “高山君. 앞으로”하고 나에게 校旗手를 命하는 것이다. 分列式때 맨 앞에 式刀를 차고 校旗를 든 校旗手가 그렇게도 부러웠는데 미리 해보게 되니 기쁘지 않았겠는가? 恒常 美術成績은 乙이었으나 五學年때 特鍊隊時節 어떤 일인지 “優”를 받은 일이 있다. 理由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記憶에 남을 수 밖에 없다.

### ●五十嵐高之先生

꽤 오래 계셨기 때문에 가장 우리 同門들과는 因緣이 깊은 분이다. 農夫같은 印象에 假飾이 없고 率直한 분이셨고, 名講義로 이름나신 분이다. 咸興高普에서 咸南中學으로 改名되면서 그 有名한 세줄의 白線이 校旗와 帽子에서 사라지면서 校歌의 四節 下半節이 바뀌었는데 바뀐 곳이 先生의 作詞이다. 그 뒤 生徒歌, 應援歌도 作詞하셨고 우리들은 즐겨 불렀다. 講義는 流暢하며 유머러스한 名講이었다. 어느 時間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움을 禁치 못했다. “天皇陛下도 人間이다, 밤이면 皇后陛下와 같이 자고 子女만드는 일도 하며 오줌이 마려우면 우리와 똑 같이 쉬도 하고 밥도 먹는다. 단지 이 나라의 象徴이기에 尊敬할 따름이다”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앞뒤 連結에 對한 記憶이 나지 않는다. 所信이 있었고 人氣에 左右되지 않는 자랑스런 모습이 지금도 淸하다.

咸興高普(咸南中學)人の 記憶속에 가장 남는 日人恩師였던 것 같다.

### ● 白井政雄教官

이 분을 모를 同門은 없을 게다. 나는 한마디로 이 先生을 尊敬하고 그에게서 質儉과 誠實을 배웠다. 자기보다 階級높은 現役中尉 配屬將校 밑에서 굶은 일, 힘든 일을 온갖 말아 하시던 분이다. 豫備役少尉이기 때문에 으리으리한 配屬將校 책상앞의 나무책상이 白井教官의 教務室안 座席이었다. 日軍將校服은 사지服地에 짙은 카키色에 깃도 스텐칼라다 하여 모여진 앞에 조그만 階級章을 나란히 붙인데다 바지는 乘馬服모양에 가죽長靴로 멋있었다. 그러나 白井少尉는 누른 똥빛갈의 담요地 비슷한 것에 깃도 쓰메에리로, 階級章도 양쪽 어깨에 커다란 걸 달고 가죽長靴 대신 고무長靴를 늘 신고 있었다. 가죽指揮棒도 없이 항상 낙시대같은 대나무장대로 指揮하였다. 勿論 國慶日같은 때는 아끼고 아끼는 正裝에 가죽長靴도 신었다. 어떤일인지 우리가 五學年때부터는 이 正裝이 平常服이 되었다.

基本學識이 不足한 때문에 가끔 失手도 있었다. 브라스밴드를 그라스반도라고 불렀다. 그는 率直하고 勤勉했다. 虛飾이 없고 惡質이 아니었다. 그리고 熱心이었다.

마치 乃木大將을 聯想케 하던 이 어른도 이제는 別世하셨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世代에 이런 분이 계셨다면 여러 면에서 龜鑑이 되었을 것이다.

## 나의 故鄉은 定平鳳台



### 박철선(27回)

高麗 千里長城이 끝나는 옛 定川 都連捕(只今の 廣浦)를 東쪽으로 멀리보이는 鳳台山 앞 기슭에 자리잡은 富裕한 農村의 富者집에 태어나 어린時節에는 病苦로 九死一生으로 回復되어 再修까지 하여 南中에 入學한 그 자랑스러운 校服에 말(馬)을 타고 봄에는 鼻白山の 滿發한 진달래꽃을 꺾어들고 靑少年의 기쁨을 旺歌하고 여름에는 鳳台川에서 沐浴하며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고 빙판을 질주하며 廣浦까지 가서 心身을 鍊磨하고 南中の 秀才들과 工夫하며 教友하고 富貴와 名望을 한몸에 안고 成長하였다.

定平에는 十五, 六個의 古城이 高麗王朝를 前後하여 築造되어 千里長城의 東北쪽 防禦 指揮所와 主陣地가 鼻白山이고 海拔은 160m程度이며 北쪽 咸興方面에 前哨基地로서 鳳台古城(海拔 100m程度)과 鳳台山(一名圓峰)이 있으며 古城에는 烽火台와 騎馬兵의 訓練場 食水場이 只今도 生水가 噴出되고 鳳台山은 弓道射擊場이며 射線으로 使用하던 盤石이 三, 四個가 있었다. 또 標的板을 세우던 丘陵이 北쪽에 있어 南中時節 활을 만들어 쏘아 보았으나 三分의 一의 지점까지도 못갔다. 다른城은 千里長城의 豫備 또는 補助陣地이고 70리밖에 第二防禦線인 古城이

있고 이 城이 모두 四邊防禦 또는 烽火로 信號하고 支援 或은 危急時에는 出動하여 救出 하도록 戰術에 立脚하며 縱橫으로 編成되어 長城은 西쪽으로 平安北道 義州까지 이르며 絶壁과 巨石을 잘 다듬어서 築造되었으며 定平邑내는 거의 허물어져 堤防처럼 보이고 農夫들이 소(牛)를 放牧하여 平和스러운 風景이었다.

都連浦는 水軍의 先進基地이며 東海의 干滿의 差를 利用하여 배가 나가고 들어 오고 하며 李成桂도 여기서 水軍을 이끌고 吉州까지 가서 女眞族을 征伐하였다. 나는 小學校 다닐때 고르 멩洋服이나 세루바지, 저고리, 세루두루마기 털신을 신고 好食하고 할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다니던 저가 할머니 돌아가신後에 南中에 入學하여 下宿집에 가니 食事不便 環境에 적응되지 못하여 견디기 어렵고 一, 二學年때 熱病으로 故人이 된 姜洙滿博士病院에 入院 治療를 받고 난후 100m 경기에 氣絶도 하고 18초 걸리고 手류탄을 던질때 20m 또는 25m를 던지니 小學生 보다 못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體力檢査時 나만 全校에서 丙種이며 清掃時 책상도 잘못들고 물통을 들다가 쏟아놓고 짓궂은 同級生들이 몰아칠때 故人이 된 丁基範이가 늘 내便을 들어 그 들을甚히 나무랐다. 그는 入學試驗時 옆 책상에 앉아 잘 親하게 된 사이이다. 担任인 韓鼎五先生님께서 몹시 걱정을 하였고 齊藤體操先生님 白井, 道津教官님께서 잘 보살피 주었다. 三學年 初부터 몸이 回復되어 下宿집을 水道局 옆 山水町으로 옮기니 沈鳳燮의집 부근이요, 張元龍下宿집도 옆에 있어 마음 좋고 공부잘하는 同期生이므로 나도 힘을 내어 參考書도 사서 熱心히 공부하여 韓恂鉉先生님의 數學의 難問題도 흑판에 나가



종종 폰 기억이 나며 運動도 하고 南中에 入學된 보람을 찾은 氣分이었다.

定平鳳台 집옆에 26回인 金鍾鳴(太原秀男)집이 있어 나와 定平小學校의 同期이며 熱病으로 死線을 헤매다가 回復되어 돌이 단짝이 되어 古城과 鳳台山에 올라가 달밤에 노래 부르며 즐거운 여름放學을 보내며 古城 西쪽은 萬人德山(海拔 800m程度)이고 人跡이 없고 森林이 우거져 民族獨立의 熱辯을 吐하고 三千宮 눈물적은 豆滿江 荒域의 옛터 等의 歷代王朝의 盛衰榮枯의 哀切한 노래를 부르고 東쪽으로 下山할때는 日本流行歌 軍歌를 부르며 歸家하는 것이 우리들의 南中生으로서 大端한 自負心이었다. 이렇게 高聲放歌하며 洞里 개가 짖어서 잠을 못자고 시끄러워도 名家의 名門中學生이니 말도 못하였다.

어느날 밤인지 鳳台山에 올라가 있는데 나의 누나(威興高女)와 鍾鳴의 親族누나(威南高女)가 와서 왜 공부도 하지 않고 밤마다 떠드는가? 洞里사람들이 무어라고 하는가? 하며 꾸짖기에 우리들은 女子가 아니고 夜밤에 山中에서 膽力을 키우고 心身을 鍛鍊해야 男兒라고 하며 英國의 “지스레리”宰相, 獨逸의 “비스마르크”傳을 읽어 보았는가? 하니 큰소리 말고 下山하자는 것이다.

우리들은 古城에 간다고 떠나니 하는 수 없이 누나들은 갔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누나 한테 붙들려서 공부한 기억이 난다. 나는 七男妹中 六死하고 唯一한 生存者이며 九歲때 生母와 死別하고 엄마를 부르며 올때는 할머니, 고모도 눈물을 흘리고 그 때부터 고모가 누나를 보내어 놀고 공부하고 親男妹間처럼 자랐다. 누나는 定平小學校 開校以來의 秀才요, 威興高女의 一等

생이며 그 누나하고 같이 공부하니 나도 咸南中에 入學되었다.

겨울 放學때는 鳳台川氷판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廣浦까지 질주하며 定平邑에서 온 學生들과 合流하여 氷上大會도 하였다. 鍾鳴은 노래를 잘 부르고 스케이트도 잘 탔다. 이렇게 情든 누나들과 親舊들이 以北땅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는지 半世紀間이나 나의 간을 태우고 있다.

鳳台山은 老松과 잔디로 덮이고 소(牛)를 放牧하니 自然的으로 管理되고 소똥은 農夫들이 收去하여 肥料代身 使用하니 깨끗하고 廣浦와 咸興平野의 展望이 좋아서 春秋로 探訪客이 많고 큰 기와집이 세채이고 우리집의 처마끝의 芙蓉과 三寸집의 용마루의 曲線美는 서울의 古宮을 능가하며 近代 木造建物の 絶佳를 表하며 옛날 부터 富者가 많고 李朝五百年間에 級第 3명 進士 5명 名筆 1명이 났으며 우리집터는 韓級筆이 난터라고 하여 할머니께서 古家를 사고 아버지께서 돈을 모아 大闢같은 기와집을 지었다.

나의 四寸 동생이 越南하여 美國에 移民가서 그의 딸이 Virginia 州立大學과 America Univesty에서 首席을 席卷하고 辯護士試驗에 合格하여 Washington D. C에서 女流辯護士가 되니 할머니께서 古家를 산지 約百年만에 生前에 所願을 풀어드렸다.

나는 寒食 秋夕때 30里밖에 있는 할머니 山所에 갈때는 말(馬)을 타고 다니고 放學때 집에서 공부하다가 秀麗한 古城 鳳台山 鼻白山 廣浦까지 가서 물새가 날으는것을 보며 머리를 식히고 貴族의인 生活을 하였다.

四學年末에 서울에 가서 上級學校試驗을 보았으나 徵兵과 徵

用을 피하고자 二, 三修生이 普通이며 朝鮮學生을 30, 40명 뽑는데 數千名 모이니 初年生도 못되는 나는 失敗하고 집에 돌아와 피로에 지쳐 熱病으로 있을때 咸南道の 警察局의 南中 五學生의 檢舉施風이 나에게도 미치어 피하고 있을때 東京留學中에 있던 누나가 여름放學이 되어 돌아오니 참 반갑고 나는 學校도 못가고 要監視學生이니 근심이라고 하니 피할때로 피하고 日本이 敗亡하면 渡美留學의 길을 떠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나가 권하는 冊으로 讀書로 消日 하던中 徵兵召集을 당하여 咸興에 가서 下宿집과 몇분의 先生님집을 밤에 찾아가 作別의 人事를 하고 病苦에 시달리고 死別의 슬픔으로 눈물 젖은 소매자락을 어루만지던 初年時節과 富貴와 榮光스럽던 南中の 學窓生活의 幕을 내리고 情든 秀麗한 故郷山川草木과 宮闕같은 生家에 一毛의 未練도 없이 苦難과 逆境이 連續되는 風波 많은 人生航路의 旅程에 오르기 爲하여 定平驛에서 歡送하는 住民들과 親舊 親戚 家族 四寸누나들의 哀切한 눈물에 손을 흔들어 答하고 汽車에 오르니 26回인 崔昌彬先輩가 같이 召集되고 누나는 서울까지 와서 龍山部隊 前門에서 作別하였다.

우리들은 곧 軍用列車에 실려 中支戰線을 向하여 鴨綠江을 건너 南滿洲 西滿洲에 이르니 左右地平線에서 해가 뜨고 지는 廣潤한 平野가 展開되어 東西南北을 분간도 못하며 山海關을 넘을때 萬里長城이 視野에 들어오니 그 雄姿함은 萬世까지 統治를 하고저 하는 秦始皇帝의 英雄의인 野望과 偉容은 東北亞 細亞를 制壓하고도 남으며 古代 帝王들이 百姓을 勞役に 酷使시킨 暴君들의 證據 遺跡地이며 犧牲된 壯丁들의 鬼冤이 지금 어느곳에 잠 들고 있을까?

驀進하는 車窓을 내 밀어보니 큰 市邑은 勿論 小邑과 큰 農村部落까지도 城壁에 둘러 쌓이고 數百마리 염소, 돼지, 오리가 放牧되고 運河가 있어 汽動船 한척에 배 20척~50척까지 달고 步行보다 느리게 가는 風景이 수없이 되풀이 되며 北京과 山東省 부근에 山이 있고 無限한 平原이며 우리 祖上들은 저 땅을 차지 못하고 좁고 山 투성인 한 모퉁이에서 나라마저 維持 못하고 우리들이 被迫을 당하고 他國의 戰場에 가니 恨스러웠다. 저 平原에서 駿馬를 타고 雷聲같은 號令을 치며 疾風같이 달리고 兩江을 넘고 또 넘어 數많은 英雄 豪傑 勇將 力士들이 北伐南征 西侵東攻을 일삼던 戰塵 歷代王朝의 興亡盛衰의 喜樂哀切함과 名主들의 善政治下의 華麗하게 꽃핀 文化와 藝術의 照影 聖賢들의 萬世까지 傳하는 遺訓이 들리는 듯한 黃河 揚子江에 悠悠히 흐르는 물결은 世上事의 虛無함을 말 하였다.

汽車가 徐州에 到着하니 國府軍과 日軍이 絶天地의 怨讎가 되어 兩百萬大軍이 雌雄을 다투는 곳이며 城壁 陣地 交通壕 市内外의 民家의 破壞 山野를 뒤 덮은 砲彈의 흔적 切斷된 樹木 數十萬壯丁들이 戰死한 激戰地이며 그 荒廢는 筆舌로 表할 수 없다.

우리들은 6日만에 大海같은 揚子江을 건너니 積雪은 무릎까지 오고 南京을 지나 蘇州와의 中間地인 尙州에 駐屯하는 獨立大隊 重機關銃中隊에 配屬되어 內務班에 日人 3명 朝鮮人 1명 우리들을 監視하기 爲한 配置임을 나는 直感하였다. 新兵訓練을 받는데 機關銃의 銃身이나 500發 든 彈藥箱子를 메고 뛰며 포복하며 어깨가 붙고 팔굽치와 무릎에 피가 나오며 內務班에서는 氣壓이 連續되고 잠을 재우지않고 惡意에 찬 “스파르타”式

教育이며 毆打를 當하여 齒牙가 흔들리어 밥도 못먹고 아침 五時 起床하여 밤 11時 或은 12時까지 日人新兵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帝國을 爲하여(ミクニノタメ) 天皇陛下을 爲하여(テンノウヘイカノタメ)할때 나는 마음속으로 病身같은 쪽발이 놈들 이 地境이니 바로 生地獄이고 너 놈들은 하늘의 罰을 받고 亡하고 우리 나라는 獨立된다고 이를 악물고 忍耐에 忍耐를 하며 참고 같이 온 親舊들이 落伍될까봐 참아라 참아라 激勵을 하여 주었다.

이런 千辛萬苦의 新兵訓練이 끝나고 나는 大隊本部 衛兵 勤務할때 崔先輩가 3中隊에 있는 것을 만나니 참 반가웠다. 南原에서 온 學徒兵이 巡察을 같이 갈때는 나지막한 소리로 三千宮女, 가고파, 아리랑 등의 노래를 부르며 浪漫的인 兵營生活도 하였다. 外出하여 市內에 가니 山積한 農畜物 布木 비단等 中國의 富饒함은 말할 수 없으며 天然寺에 가보니 七層되는 巨大한 木造建物 그안에 安置된 佛像은 크고 新羅, 百濟, 日本의 巨僧들이 '留學하는 곳이고 天台宗의 本山이고 僧侶만 五萬名이라고 하였다.

나는 轉屬되어 蘇州에 無線通信教育을 받으러 가니 이 部隊는 잠을 안재우고 夜間教育에 진저리 나고 달밤에 古仇山에 올라가니 三國時代 吳나라의 宮闕과 城壁은 허물어져 간곳없고 몇 개의 돌만 있으며 그 옛날 天下를 三分하던 孫權의 權勢와 榮華는 老樹木의 그늘에 잠들고 庭園의 湖水에 달빛이 고요히 비치니 吟風弄月에 荒城의 옛터의 노래가 저절로 읊어짐을 禁하였으며 城壁이 있던 周圍의 湖水는 階段式으로 二, 三重되어 市內外는 어디를 가나 運河로 갈 수 있으니 湖水의 都邑이었다.

나는 解放을 이 部隊에서 12時에 日皇의 눈물진 목소리로 放送되고 곧이어서 蔣總統의 日軍司令官은 國府軍司令官의 指揮下에 들어 가라는 青天雷聲에 秋霜같은 命令이 放送되니 氣勢堂堂하던 日人將兵들은 落淚하며 땅에 주저앉은 물골은 雨雹에 맞아 떨어진 落果와도 같으며 나는 10年 묶은 滯症이 내려가는 기쁨이었다. 留置場에 있던 中國人들은 병든 할아버지 모시던 人力車로 굶신 거리며 釋放하니 人間의 虛弱함을 보여 주었다.

우리들은 上海 楊樹浦에 있는 浩강大學에 集結하고 市內에 外出하여 近代文明이 꽃핀 “가든부리치”옆의 劇場에서 처음 原色映畫인 琉黃島上陸作戰을 보고 그 옆에 있는 16層되는 建物 上海灣의 數百척의 商船과 漁船, 다리를 건너 紅公園의 憂國志士들의 墓 佛租界地에 있는 臨時政府廳舍를 求景하고 金九先生님과 臨政要員들이 歸國時에는 우리가 있는 곳에 와 有益한 講演도 하였다. 美七艦隊가 上海灣에 集結할때 155m, 200m 巨砲를 積載한 航空母艦의 偉容은 壯寬이었다. 上海에서 25回의 朴순진先輩를 만나니 참 반가웠다.

46年 3월에 上海에서 釜山을 經由하여 서울에서 定平 南中先輩를 만나고 그리웠던 故鄉집에 오니 凱戰將軍처럼 환영 하였다. 長期旅行으로 疲勞에 지쳐 熱病으로 苦生하다가 回復될때 同期인 元章煥이 찾아 와서 반갑고 咸興에 가 同窓生들을 만나고 下宿집에 갔다 왔다. 나는 “마르크스”唯物論이나 共產主義理論에는 一考의 價値조차 없음을 알며 土地革命과 赤色宣傳에 民族主義者들을 失望시키고 있을때 上京하여 成均館大學 法科에 入學하니 나의 第二의 學窓生活이 始作되었다.

# 한 革新의 挫折

(1)



金 明 壽(27回)

一. 性理學	1
二. 大司成 文毅公	3
三. 革新策	4
四. 絶命詩	7
五. 衣帶疏	7
六. 文毅公 廟庭碑	8
七. 終章	11

## 一. 性 理 學

性理學에 의하면 宇宙萬物은 모두가 形面上의 <理>와 形面下의 [氣]의 結合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한다.

<理>는 物性を 결정한다. [氣]는 物形을 결정한다.

여기서, <理>는 人間을 포함하는 宇宙萬物에 根源的으로 內在할 뿐만 아니라 宇宙萬物을 超越한 窮極的 根源이기에 <理>는

超越性和 內在性的 兩面을 갖는다.

한편, 〈同一한 理〉에 根源을 둔 萬物은 〈平等〉하지만, 氣의 結合이나 作用如何에 따라 萬物은 [差別相]을 이룬다.

또한, 〈理〉는 人性形成의 根源이요, [氣]는 人體形成의 根源이다.

人間에게 固有하며, 人間이 人間다운 所以를 이루는 〈理〉즉 〈性〉은 仁 義 禮 智로 대표되는 純善無垢하다는 것이니, 이를 〈本然의 性〉이라 한다.

그런데 人間은 또한 [氣]를 타고 났으므로 그 [氣]의 작용에 따라 그 〈本然의 性〉이 흐려져 情欲이나 惡을 쫓아 行하기도 하며, 이를 〈氣質의 性〉이라 한다. 나아가 性理學에 있어서의 〈理〉는 事物의 理致 즉 自然法則임과 동시에 人間의 道理 즉 道德規範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宇宙의 自然秩序인 存在의 法則과 社會의 人間秩序인 當爲의 法則을 〈理〉안에서 合一시킨다. 이것이 〈天人合一說〉이다.

이런 理由에서 人間의 社會의 基本課題가 自明해 진다.

즉 人間은 [氣質의 性]을 變化하여 온전한 〈本然의 性〉을 되찾아 發揮해야 하며, 人欲을 除去하여 〈天理〉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人間이 비록 不完全하나마, 人間이 社會의 生活의 主體로서, 經濟的 生産의 主體로서 成長해 오에 따라서 定立된 새로운 中世的인 〈認識〉이었다.

性理學이 政治的 敎學으로서 朝鮮王朝 社會에 確實히 定着하여 機能을 發揮하기는 15世紀末에서 16世紀로 이어지는 士林派



의 成長과 더불어서였다. 이제 性理學規範의 社會的實踐, 그 日常化가 國家政策의 次元에서 이루어졌으며, 聖賢의 追慕, 書院의 建立이 推進되어 갔다.

士林은 聖君政治 爲民政治를 내세움으로서 政權의 自衛的인 手段을 막으려 하였고 社會教化機構로서의 鄉約을 制定하여 被支配民衆의 逸脫을 防止하러 하였다.

性理學은 高麗후기 社會의 構造의 矛盾을 새로운 각도에서 再編成함으로서 朝鮮王朝의 새로운 封建體制를 秩序化하는 이데오로기의 機能을 다하였다.

그러나 朝鮮후기로 들면서 이 體制의 構造의 矛盾 또한 점차 尖銳化가기에 이르렀으며 性理學을 운용하던 士林의 일부 分裂이 극심해짐으로서, 이제는 閥閥의 獨占的인 政權의 이데오로기로서 한층 硬化되고, 中世말기 社會의 諸矛盾을 隱蔽하기 위한 非現實的인 世界主義로 孤立되어 갔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矛盾을 解決해 보려는 새로운 <實學>의 學風이 成長 發展되어 갔다.(인용문헌: 한국사연구입문 제2판 金泰永)

性理學의 大宗은 高麗末의 鄭夢周이었고, 그 正統을 이어 받은 이는 燕山朝때의 金宗直이다. 다시 新進學者 金宏弼이 그의 文人으로서 學通을 이어 받았는데 金公과 趙光祖公은 함께 金宏弼에게 學問을 배웠다.

史學家들은 公등이 性理學을 主唱하였던 時代를 性理學의 開化期라고 말한다.

性理學은 주로 道理를 窮理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學問인데, 이 窮理라는 것은 오늘날의 『認識』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知識을 確實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性理學은 人間本位로 宇宙

와 人間의 根本이 무엇이며 宇宙와 人間生活의 關係를 探究하여 人間의 當然한 本務를 發見하고자 有形無形 萬物의 理致를 窮極까지 파고들어, 거기서 얻은 知識과 體驗을 主軸으로 삼아, 모든 일을 『實踐코자 하는 儒教哲學』이다.

性理學은 儒教에 바탕을 둔 學問으로서 朱子學, 程朱學, 宋學, 理學, 道學이라고도 이름한다. 儒學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지는 오래지만, 性理學은 高麗末期에 들어와 儒學의 學風을 變케 하였으며, 後日에는 性理學이 儒學의 正統이 되었다.

## 二. 大司成 文毅公

도도히 흐르는 漢江의 물굽이가 아스라히 펼쳐지는 天摩山기슭 京畿道漢金市三牌洞金村 마을앞 天摩山줄기 야산을 오르면 己卯土禍때 억울하게 숨진 朝鮮 中宗朝의 性理學者(大司成) 文毅公 金湜의 墓가 자리잡고 있다.

- 그는 理想政治改革 : 1. 賢良科(人才등용법)  
 2. 政丞천거법(광범위하게)  
 3. 呂氏鄉約(지방자치제)  
 4. 理學(性理學)의 崇尚과 先賢의 文廟  
 5. 女樂(美女歌舞團)廢止  
 6. 異教肅清  
 7. 勳功削除

등의 實現에 失敗하여 己卯土禍때 善山에 流配되었으나 다시 絶島로 옮겨진다는 소식을 듣고 慶南居昌으로 避해 있다가 有名한 <衣帶疏>(옷깃에 쓴 上訴文)를 남기고 自殺하고 만다.(39

세 1520)

『大司成 金湜公을 善山이 있는 淸風으로 모시기 위해 棺을 실은 배가 南漢江줄기를 거슬러 오르던 도중에 奇異한 事件이 發生했지요. 느닷없이 일진광풍이 일더니 장대 위에 매어놓았던 붉은 명정이 바람을 타고 天摩山쪽으로 훨훨 날았다는 거예요. 大司成公의 墓자리가 그 명정이 떨어진 곳이지요』 이 마을이 文毅公(諱湜字老泉淸風人) <文>글월문 道德博聞 <毅>굳셀의 剛而能斷 後孫들이 들려주는 明堂자리의 傳說이다. 野山의 形勢가 成佛한 부처님이 연꽃위에 좌정한 모습이요, 墓를 쓴터는 바로 부처님의 가슴 부분이니 어찌 明堂이라 아니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 들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後孫에서 金 堉(領議政), 金佑明(兵判), 金佐明(顯宗國舅, 名聖王后), 金時默(正祖國舅, 孝懿王后), 金 權(戶判), 金聖應(兵判), 金晚植, 金允植 등 쟁쟁한 人物들이 나왔다. 이들의 墓所 또한 이 일대 앞뒤 野山에 자리잡고 있어 三牌洞은 淸風金氏의 聖城이자 마음의 故鄉이 되는셈.

淸風金氏는 孝宗~正祖代에 王妃 2名, 相臣 8名, 大提學 3名 등을 配出하였으며, 朝鮮朝의 文科及第者數는 總 110名이다.

『3代 政丞』, 『父子領相』을 내어 長安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歷史上 3代 政丞을 낸 家門은 靑松沈氏와 達城徐氏등 3집안 뿐으로, 이것이 淸豐金門의 큰 자랑이기도 하다.

### 三. 革新策

文毅公이 提唱하고 推進한 革新策은 다음과 같다.

① 人材登用을 위한 賢良科實施

종래 科擧에선 主로 詩調와 文章으로 優劣을 가져오던 것을 止揚하고, 漢나라의 賢良正方科를 본따 널리 推薦받은 사람 가운데 思想的體系와 實踐的道德性이 충출한 선비를 뽑는 制度이다.

새로운 學說을 알아야 하고, 質朴剛健하며 進取的氣象이 尊重되었으므로 자연히 性理學의 研磨여하가 左右되게 마련이다.

一部反對가 있었으나 채택되었다.

## ② 呂氏鄉約

中國 北宋때에 地方共同體의 育成 및 教化를 위한 規約이며 相互協力과 秩序安定을 위한 自治制의 원형인바, 聖人의 길이 본시 백성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만드는데 있는 뜻에 따라서 백성들 스스로 自發的으로 生活向上을 도모케 함이 目的인즉 그렇기 위하여 널리 教育을 진작시키고저 한것이요, 道義나 禮法 教育에만 전력하는 것은 아니다.

改革에는 古今 언제나 教育이 우선되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오직 士農工商, 班常의 階級制度가 무너지다하여 이 民主的革新 策은 守護派들의 障壁을 뛰어넘지 못하였다.

## ③ 女樂(美女歌舞團)廢止

古代 齊나라에서 女樂을 보내오자, 魯나라 季桓子是 이것을 받고 일락에 빠져 삼일동안 政事를 보지않자, 孔子께서는 벼슬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女樂을 보낸것은 魯나라로 하여금 화려한 잔치 놀이에 탐닉하여 勤勉精神과 倫理紀綱이 해이되게 하려는 齊나라의 陰謀였던 것이다.

당장 사치와 낭비풍조가 미만할 것이므로 文毅公등은 聖人의 길을따라 廢止할 것을 철저히 고집하였다. 中宗도 부득히 승낙

은 하였으나 燕山君때 노상 베풀던 女樂의 취미를 과감히 떨쳐 버리지는 못하는 凡俗人情이었다.

#### ④ 異教肅清

昭格署는 星辰에 제사지내고 조정의吉凶을占치는 國家機關이었다. 원래 老子·莊子の 道教哲學이 始源이었으나 永生不死의 神仙敎따위가 派生되어 그것이 土着巫俗과 癒着되어서는 共同體意識을 떠난 개개인 저마다의 禍福을 占치고 비는 迷信으로 墮落하였다.

新進 革新派들은 뿔뿔이 흐터진 民心을 수습하고, 非生産的의 行事를 追放하여 傳統儒敎의 復興인 性理學의 眞理로 國政의 求心點을 삼고져 하였다. 公등에게 昭格署는 도저히 용납 안되는 機構였으므로 弘文館 藝文館의 少壯간부들과 합세하여 집요하게 强청하여 결국 貫徹되었다.

中宗은 마지못해 승낙은 해놓고도 임금 개인 생활면의 취미 오락등도 일체 거부된 것 처럼 느껴지면서, 숨 돌릴 사이없는 革新推進자체에 권태와 혐오감을 품게 되었다.

#### ⑤ 勳功削除

勳功의 實質에 견주어 과당하거나 부당한 것을 삭탈하여 國庫에 반납시켰다. 公正性을 天下에 밝히고 獨寡占을 해체하여 耕者有田으로 貧農을 도와주고자 한 意圖도 있었으나, 勳功 2, 3, 4등 전체의 4분의 3, 총 76名의 靖國功臣을 삭감케 하였다.

그 餘波는 奸臣 沈貞과 南袞등으로 하여금 勳舊派는 물론, 재래 無能한 官僚輩들, 그리고 世代交替水位에 不安한 多數 保守性 사람들까지 一時에 拘捕할 수 있게 하였다. 反動의 聯合戰線을 펴놓고 한편으로는 中宗의 愛姬를 시켜서 勳功削除로 不利

해진 제아비의 처지를 때마다 泣訴하여 임금의 心思를 혼란케 하더니, 온나라 人心이 趙씨에게로 돌아 간다는 流言蜚語를 궁중에 퍼뜨리는 동시에 秘苑 나무앞에 꿀물로 走肖爲王 네글짜를 써서 벌레가 먹게 하였다. 이것을 본 中宗은 深思할 겨를도 없이 激怒하니 처침한 己卯士禍의 도화선에 불은 불고야 말았다. 領議政 鄭光弼公과 左相 安塘供의 救命呼訴로 極刑까지 안갈것 같더니 優柔한 中宗의 理性은 끝내 無道한 奸黨의 魔手を 벗어나지 못하고 公의 道義政治로의 遠大한 革新抱負는 그 첫 段階에서 처참히 抹殺된 것이다. 그 思想에는 구석구석에 民本主義 啓蒙主義 平等主義의 核이 北斗七星처럼 반짝이고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亡命 여섯달에 路毒과 허기와 憂愁로 파리하게 야윈 公은 이곳에 앉아 山脈과 구름과 새들을 바라보면서 이 世上萬物에 대한 마지막 눈요기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셨으리라. 萬物에 공히 生命意慾이 관통했기에 同氣요 兄弟처럼 포용하던 森羅萬象, 그리고 때로는 同甲이요 同志인 鄭庵公이 남기고 간 絶命詩를 읊으셨으리라.

日暮天如雲 山溪谷似雲

君臣千載議 惆悵一狐憤

公의 悲憤함과 冤痛함에야 屈原의 신세인들 비길만하랴. 奸臣의 농간으로 내침을 받아 放浪은 하였어도 쫓기는 몸이 아니었고 自重하여 조급하지 말라는 漁夫의 권고도 있었건만, 야속한 마음이 스스로 겨운 나머지 自暴自棄한 것이었다. 마지막 날을 접지 하면서 公 또한 〈絶命詩〉를 쓰신다. 그 絶句를 陰刻한 조그만 詩碑, 지금은 술한 歲月이 이끼에 덮여 오두마니 서 있는 것이 외롭게만 느껴지는 것은 500년 고인 情으로 말미암는가,

그 앞에 가서 詩篇의 〈속 뜻〉을 한글로 헤아려 삼가 바친다.

#### 四. 絶命詩

日暮天含雲 해가 저물어 하늘은 검은 빛 머금고  
 (고은님 빛을 잃으니 어쩔고, 온 세상 장차 어둠을)  
 山空寺入雲 산은 텅비고 구름에 쌓여, 절은 쓸쓸히 아니 보인다.  
 (텅빈 朝廷 원통한지고, 奸臣에 에워싸여 가려진  
 모습)  
 君臣千載義 나라위한 君臣大義 千年인들 가시라  
 何處有孤墳 끝내 가는 이 肉身야, 아아 그무덤에 어디메 있건  
 말건.

#### 五. 衣帶疏

亡命한 臣 “滉”은 삼가 머리를 조아려 小臣의 조그마한 精誠을 殿下께 숨김없이 사죄나이다. 臣이 이미 殿下를 저버리고 亡命하였사온즉, 極히 不肖함을 아는 바이오나 헛되이 지질거림은 오로지 臣의 亡命이 또한 空然한 것이 아니오매 이 그릇된 所見을 簡略하게나마 實吐하여 殿下의 遠慮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臣이 비록 배운것은 없으나 옛사람들의 處身하는 方法을 대강들어 알고 있으므로 亡命의 부끄러움과 守節해야 할 것을 모르는바 아니오나,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것은 凶惡한 盜賊들이 將次 나라를 危殆롭게 할 것을 보고 조그마한 忠義나마 바치고자 함이오, 殿下를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願컨대 殿下는 굽어 살피소서. 어찌 臣의 正義를 特히 알아

주시는것 뿐이겠나이까.

臣이當初에 罪를 입을때 禍를 일으킨 原因을 들었습니다. 沈貞은 本來 貪慾 많고 狡猾하기 짝이없는 小人으로서 清議에 容納되지 못하여 가슴속에 怨恨을 품고 亂을 일으키려고 生覺한 지 오래였습니다. 다만, 그 틈을 얻지못해 하다가 光祖가 殿下의 信任을 받아 學者들이 그를 따르고 또 小民들이 讚揚함을 보자 虛妄한 諷(讖)文으로써 隱密히 殿下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不平을 가진 몇몇 宰相들을 教唆하여, 드디어 士林의 禍를 얻어 만들어, 선비가 한가지 이름이 있는 이는 모두 黨籍에 올리고, 드디어는 利益이나 貪내는 沒廉恥한 무리들을 朝廷에 채워서 그들의 姻戚인 李빈을 大司鍊으로 삼아 臺官중에 苦干이라도 청론을 하는자가 있으면 (빈)을 시켜 곧 攻擊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서게 함으로써 殿下의 耳目을 가려놓고, 또 南袞과 더불어 많은 武士들을 모아 밤낮 그들의 집에서 들끓고 있음은 그 속셈이 어찌 士林들을 除去하는 데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그러 하온즉

『朝廷은 殿下의 朝廷이 아니옵고

沈貞의 朝廷이니 殿下의 形勢가

또한 외롭고 危殆하지 않겠습니까』

臣이 이때문에 隱忍하고 亡命하여 奸凶한 무리들이 殿下께 逼迫함을 기다려 몸을 빼쳐 달려가서 殿下의 깊은 恩惠를 갚으려는 것이 臣의 本뜻이 옳습니다. 또 臣은 殿下께옵서 光祖를 疑心하시는 것이 本心이 아닌것과 臣을 罪주신것도 殿下의 本心이 아닌것을 깊이 알고 있사 옳기에 이같이 懇切히 아뢰오니 殿下께서 多幸히도 小臣의 眞正을 깊이 살피시어 朝野의 情勢



를 觀察하시면 奸凶들의 한 짓을 가히 아실 것이오.

萬若 끝내 깨닫지 못하신다면 나라일을 어찌 하시렵니까. 名士를 모두 죽이고도 나라가 保存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小臣의 한몸은 돌아볼 바 아니오나 臣으로 因하여 罪없는 사람에게 禍가 미치게 되므로 殿下께서는 卽時 英斷을 내리시기 바라오며 감히 이로써 上達하나이다.

## 六. 文毅公 廟庭碑

李朝 第11代, 中宗 14年(1519年).

士禍를 입은 趙光祖(文正公), 金湜(文毅公), 奇尊, 韓忠, 金絳, 金淨, 金安國, 金正國등을 己卯八賢이라 일컫는다.

그 中 文毅公의 遺跡은, 慶南居昌郡 主尙面 浣岱里 3區너터 (修道山 남쪽, 먼 長白山의 支脈이 열기설기 완만하게 오르내리는 稜線으로 감싼듯한 山골)에 들어서서, 그곳 언덕 길을 얼마 오르지 않으면 외따로 우뚝히 서 있는 碑石이 보인다. 文毅公 金先生의 廟庭碑이다.

廟庭碑라 함은 宗廟에 부제하는 功勞있는 臣下의 碑이다.

지금으로부터 473年前 그날의 公의 悲憤이 이슬처럼 몸에 베어드는 것을 느끼면서 歲月의 風雨에 시달린 碑文을 더듬어 읽는다.

資惠大夫 禮曹判書 兼 知經筵事 弘文館大提學

知春秋館成均館事 世孫左副賓客 趙景源撰

外裔 通政大夫 前行弘文館副提學□□□

知經筵參贊官 春秋館修繕官□□□年

九世孫 通訓大夫 行司饗院僉正 特默謹書

(文毅公 15代孫 象壽 譯)

1520년 5월 16일 成均館大司成 文毅公은 居昌縣 白巖 아래에서 他界하고 6월 모일에 楊州金村里(平邱)에 葬事를 지냈다.

公은 文正公 趙光祖선생과 共謀하여 政權을 전횡할 목적아래 作黨하였다는 罪目으로 처음엔 善山으로 流配 되었다가 얼마 안있어 巨濟島로 移配되더니 뒤이어 賜死의 命을 받기에 이르렀다.

使喚이 치달아 善山에 도착 했을때 公은 마침 울적한 심사로 술에 大醉하였었는데 힘센 奴僕 우음산이, 上殿이 罪도 없이 죽는것이 불쌍타 하여 몰래 公을 업고 사잇길로 昌寧까지 갔다.

使喚은 돌아가고 居昌에 닿아서야 公은 비로소 賜藥처분을 듣고는 마지막으로 <衣帶疏>와 <詩>한 編을 쓴다음 自決 하니 觀察使가 와서 살피고 朝廷에 報告를 올렸다.

돌이켜보면 옛부터 私慾과 僞善의 탈을 쓴 小人들이 善政을 베풀고 한 君子를 朋黨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謀陷으로 죽인 일이 많았다.

東漢의 李元禮는 奸臣을 除去하려다가 거꾸로 陋名을 쓰고는 裁判場에서 모진 拷問끝에 죽었고, 그와 同志인 杜密은 逮捕命을 듣자마자 自殺하였다.

한편 後漢의 張儉과 漢馥 및 岑晷의 세사람은 亡命해서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세사람이 李元禮, 杜密과 더불어 世上사람으로부터 받는 評價에 다른것이 무엇이라.

나라를 사랑하는 君子가 貫徹하는 義理의 強韌함은 죽거나 살아 있거나 오직 한길뿐인 것이다.

公이 賜死를 당하기에 이르러서도 비록 亡命은 하였으나 마음은 나라를 위한것 뿐이었고 그 個人的 목숨을 아낀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물며 그 命을 듣고 며칠 안가서 自決 하였으니 그 節操가 어찌 크나 큰 것이 아니라.

公의 諱는 <湜>이요, 字는 人倫의 太古적부터의 源泉에 부쳐서 <老泉>이라 하였으니 淸風家門의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端正하며 學問에 薦寶하며 배운바를 힘써 實踐하여서 文正公 趙光祖선생과 의기 상투하는 자별한 親舊였으며, 當世에 이름이 높았다.

公은 進士及第로 廣興倉主簿, 戶曹佐郎이 되었고 司憲府特平, 掌令으로 전직되고, 賢良科試驗에 壯元及弟하고는 弘文館直提學 副提學으로 특진되고 이어서 成均館大司成이 되었다.

이무렵 中宗 14年 32歲의 젊은 임금계선 燕山暴政이 문란하고 腐敗한 綱紀를 바로 잡아 王道를 펼치고서 良心이 剛直한 선비를 좋아하고, 先賢들의 文學을 崇尚하였는데 때마침 趙光祖先生을 만나 곁에두고 堯舜時代의 精粹하고 奧妙한 中庸의 哲學理論과 政治大本을 배우고 있던차에, 公 또한 특히 拔擢되어 經筵官參贊으로 王道를 講義하게 되었다.

이때 온나라 사람들이 그 眞實한 道義政治의 惠澤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이가 없었다. 그러나 눈동자가 二重인 小人 南袞과 沈貞등은 既得權을 잃고 쫓겨날 것을 지레 두려워한 나머지 內心 憎惡하고 機會만 노리더니 守護勢力들을 糾合하여 流言蜚語를 뿌리고, 심지어는 奸才를 써서 走肖爲王의 앞서가까지 바쳐 올리고 참소하니 公과 文正公은 監獄에 갇히게 되었다.

아아, 진실로 王道가 實行되지 못한 것이 오랜 歲月이었다.

그것을 回復하려 하였으나 公이 비록 아무리 어질고 슬기롭다 한들, 頹廢한지 오래된 美風良俗을 어찌 일으키어 理想政治를 이룩할 수 있으랴. 그렇다. 文正公이 王道를 주창하다가 朋黨이란 謀陷에 빠졌고 나아가서 公마저 犧牲되었으니 실로 國運이 暗澹하여 걱정되지 않으랴. 公이 監獄에 갇혀 있음에 그 門人 申命仁등 百餘名이 公을 위하여 처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하려고, 領議政인 貞光弼公은 몇차례 울면서 거듭 간하여 간신히 死刑을免케 許諾을 받았으나, 달포 지나서는 고삐를 놓지않는 奸臣들의 極惡한 弄奸으로 文正公은 賜藥을 받아 他界하고, 그 後 6個月만에 公도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그때 나이 39歲이다.

착하고 사욕없으며 正直한 君子들을 죽이는 것이 이다지도 심하였으랴. 만약 公이 賢良科에 합격 안하고 미관말직에 無事安逸로 있었다면 小人들도 公을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것은 事實이리지만, 그러나 公은 朝廷要職에 당당히 서서 온 精誠을 기울여 王道를 몸 바쳤으니 그 우뚝한 이름은 百世에 꺼질줄 모르는 光榮인 것이다.

1545年 仁宗即位의해 公卒後 25年만에 특히 紅牌와 職牒을 도루 내주고 1773年 英祖 22年에 議政府左贊成에 贈職하고 <文毅>라는 諡號를 내렸다.

居昌의 선비들이 白巖아래에 浣溪書院을 짓고, 나(持默)에게 碑銘을 위촉하여 왔기에 비록 우둔하고 고루하여 公의 德을 심분 알지는 못하나, 公이 남기신 行蹟을 昭詳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公의 마지막 <衣帶疏>와 <詩 函編>을 읽으니 슬픈 마음을 가늘길 없어서 사양하지 않고 碑銘을 썼다.

崇禎三癸巳(1773年 英祖 49年)

日暮天如雲 山空寺入雲

君臣千財義 何處有孤憤

文毅公의 革新策을 繼續하였다더라면 훌륭한 政治가 되었을 것이라고 훗날 退溪公은 宣祖께 아뢰었다고 한다.

## 七. 終 章

돌이켜 보면 文毅公의 理想政治改革은 結局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이와같은 일들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恒常 일어날 수 있는 事件으로 單純히 보아넘기기는 쉬우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다시한번 이 일에 대해서 冷靜한 批判을 해볼 必要를 느낀다. 그것은 單純한 事件과 經緯로만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기에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要緊한 教訓을 이 時代에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日帝로부터 解放하고 主權을 되찾은지도 來年이면 半世紀가 된다. 그 間의 歷代政府는 數많은 華麗한 革新策을 내 놓았었다. 그러나 가장 核心이 되는 親日陰弊勢力은 單 한번도 속쉬원하게 適切한 策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反民法의 挫折도 그 한 例로 들 수 있겠으나 日帝強占下에서 나라위한 一片丹心으로 家事를 돌 볼 여지도 없이 몸바쳐 온 數 많은 愛國志士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無關心은 오늘 이 時點에서도 속으로만 들끓고 있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정한 國際化를 위한 政治改革은 正統性있는 內的인 精神姿勢와 아울러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機構改善으로부터 이루어

저야만 할 것이다. 多幸이도 새 文民政府는 韓國病을 고치는 깨끗한 改革을 내세웠음을 記憶하고 있다. 좀 더 두고 보아야만 할 것 같다.



# 人類의 終末은 언제쯤인가?

(2)

- 一. 孫悟空의 比喻
- 二. Energy 보다 더 重要的 것
- 三. 섞임과 不規則性
- 四. 情報量과 Entropy
- 五. 反Entropy 創造
- 六. Entropy와 社會
- 七. 未來의 世界

## 一. 孫悟空의 比喻

人類가 滅亡한 뒤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내던져 버리는 것도 하나의 見解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의 知的好奇心은 宇宙의 終末 내지는 그 未來를 알고 싶어 한다. 그 答으로서 熱的終末을 생각하는 것이 物理學에 있어서 하나의 學說이다. 특히, 統計力學이 대두된 今世紀初에는 이런 學說을 <믿는>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科學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최근 점차 實證的인 색채가 짙어진 宇宙論은 아직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게 實情이다. 인간의 知的好奇心은 멈출 줄 모르며, 여기에 努力과 叡智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알지 못할 것으로 錯覺하여 實은 언제까지나 부처님 손바닥에서 맴돌던 孫悟空의 比

喩가 뜻밖에 들어 맞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宇宙의 現在狀態를 특징짓는 여러 部分들의 〈年齡〉을 우선 알아보자.

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原子는 얼마나 늙었을까? 現存하는 放射線元素의 相對的 存在比에 의하면 Th나 U(238)은 태어난 지 數拾億年으로 알려졌으며, U(235)는 60億年이 걸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② 지구의 地殼을 이루고있는 岩石의 年齡은, 우라늄과 같은 방사선물질 속의 〈납〉의 分量에 의해서 最小한 27億年이 됐다는 결론이며, 地球의 年齡은 35億年으로 보고 있다.

③ 海水의 鹽分이 주로 하천이 운반하는 〈소금〉에 의한 것이라는 바탕을 두고 河川의 浸蝕作用을 고려하면, 海水의 年齡은 數拾億年으로 推定되며, 이것은 가장 오랜 岩石의 年齡과 一致한다.

④ 地球와 달 사이의 距離는 매년 10cm 늘어나고 있으므로, 約 40億年前에 지구의 太平洋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大陸漂動說과의 견해의 일치는 興味있는 일이다.

⑤ 銀河系의 年齡은, 별들을 뜨겁고 빛나게 하고 있는 Energy의 根源을 조사함으로써 알게 되었다. 平均年齡은 約 50億으로 計算된다.

⑥ 太陽은 장년기에 있으며 앞으로 50億年후에는 마침내 죽어버리게 될 것이다.

## 二. Energy보다 더 重要한 것

物理學은 Energy推移를 研究하는 學問이며, 工學은 어떻게하



면 Energy를 人間에게 有效한 形態로 變換하는가를 고안하는 學問이라고 말할 수 있다. Energy연구는 現時點에서 물론 重要하다. 石油資源은 금후 몇拾年안에 다 消費된다고 한다. 原子核 融合實驗을 推進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Energy 以外에도 重要的 것이있다. 飮食을 먹을 때 『칼로리』이외에 身體內의 代謝를 원활하게하여 섭취한 營養을 더욱 有效한 形態로 만드는 <Vitamin>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量的인 의미로는 『칼로리』가 必要하지만 質的인 의미에는 <Vitamin>이 더 重要하다.

물리학이나 공학도 進歩하면 할수록 연구대상은 [量的인 의미의 多寡]로부터 <質的인 多樣性>으로 바뀐다.

自然科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社會機構의 複雜化라는 생각에서 봐도 단순한 量을 비교하기 전에 質이 좋고 나쁨을 判斷할 必要에 부딪친다.

自然界에서는, 量的인 의미에서는 Energy가 문제되나, 質的인 면에서는 알기 쉽게 표현하면 <情報>, 어렵게는 <Entropy>가 문제시 된다.

### 三. 섞임과 不規則性

雪糖과 소금을 半씩 섞으면 調味料로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混合한 것이 잘못이지만 이것이 混合을 싫어하는 本質的인 理由는 아니다. 실제로, 分離된 것을 混合하는 것은 쉽지만 혼합된 것을 다시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分離>된 것을 더 좋아한다. Entropy가 적은 狀態이다.

① 茶房에서 Coffee를 주문하면 雪糖과 Milk를 따로 가지고

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② 원숭이가 나무에서 落下하는 것은 아래로 힘이 作用하는 탓이라고 해도 되지만, 나무 위 보다는 땅의 位置 Energy가 작기 때문이라고 해도 된다.

③ 그럼, 熱水와 冷水를 混合하는 것도 分子간의 Energy가 減少하기 때문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다소 그런 傾向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擴散現象을 설명할 만큼 유효하지는 않다.

요컨데 「섞인다」는 現象은 “自然界는 位置 Energy를 減少시키는 方向으로 移動한다”는 法則만 가지고는 「解決이 안된다」.

④ 混合現象을 說明하기 위해서는 確率論에 바탕을 둔 統計力學이 必要하다.

熱的現象과 力學的研究를 一括하여, 그 사이의 Energy 保存性を 주장한 것이 熱力學의 第一法則이며, 이에 대해 分離狀態 즉 규칙상태는 결국 混合이라는 不規則 狀態의 結果가 되는 것이 熱力學의 第二法則이다.

熱力學의 第二法則은 自然界現象의 進行方向을 가리키는 法則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달리 표현하면 Entropy가 增加하는 方向성을 뜻한다.

熱은 高溫에서 低溫으로 흐르기 마련이며,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이것은 熱로서는 쓸모없는 狀態로서 (섞이기前)에 비해서 Entropy가 많아진 無秩序의 狀態가 된다.

#### 四. 情報量과 Entropy

<예>와 『아니오』라는 答만으로 알아 맞출수 있는 數効는 둘

中에서 1회의 質問으로(1 bit), 2中에서 4회의 質問으로(2 bit)로 할 수 있다. 즉  $W=2^n$  또는  $n=\log W$ 로 표시할 수 있으며, 3 bit는 2 bit 보다 情報量이 많다. Radio 프로의 〈스무고개〉를 빈틈없이 해나가면  $W=2^{20}=1,048,576$ 으로 104萬 이상의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를 알아내는 셈이 된다.

情報理論에서는 Entropy는 자연계의 양과는 관계없이 單純한 數이지만 物理學에서는 모르는 정도 또는 無秩序의 程度라고해도 이것을 Energy등과 比較해가야 한다.

物理的Entropy  $S=K \log w$ 는 결국 體系속의 粒子의 多樣性的의 모르는 정도 또는 無秩序의 程度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과적으로는 같으나 古典的인 熱力學에서 定義되었던 Entropy는  $S=\int \delta Q/T$ (체계가 얻은 熱量/체계의 絶對溫度)이다.

체계가 熱量을 얻고 일의 形態로 이를 放出하지 않으면, 自身의 Entropy는 높아진다. Entropy를 어렵게들 생각한다.

똑같은 10萬원(=熱量)을 橫財했다고 해도, 富者(높은 온도의 체계)가 얻는 것 보다는, 貧者(낮은 온도의 체계)가 얻는 쪽이 훨씬 愉快하다.

그러나, 가난뱅이는 분수에 넘치는 큰돈을 얻었으므로 금방 浪費를 하고 放蕩해져서 生活이 無秩序하게 된다.

반드시 熱은 高溫에서 低溫으로 흐름으로서 Entropy는 增加하기 마련이다.

## 五. 反Entropy 創造

彫刻家は 석고를 새긴다. 단순한 흰 덩어리로부터 머리가 만들어지고 가슴이 나타나고 배가 생기고 손발이 만들어진다. 彫

刻家の 이마의 <땀>대신 아름다운 <누드像>이 완성된다.

藝術家の 숨씨가 뛰어날수록 그의 靈感은 그대로 反映한 藝術作品이 나타난다. 그림도 書藝도 마찬가지이다.

颱風은 猛威를 떨친다. 이만큼 強力한 Energy는 아직도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태풍이 建築設計를 하고,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비바람에 내맡겨진 石膏나 자연계의 岩石 등은 Entropy가 적은 狀態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人間이란 反Entropy의 創造者이다.

이 創造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물리학의 입장에서 말하면 人間도 결국은 物質界 法則에 支配된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그 情報量의 豊富함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反Entropy의 偉大함을 생각하면, 生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說明이 必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 六. Entropy의 社會

統計學에서의 事項의 多樣性이란 물리학만의 개념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社會가 複雜해졌을 때는 더욱 그렇다.

社會問題에 대해서는 Entropy란 情報量이라 생각하면 된다. 自轉車보다는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보다는 飛行機쪽이 選擇해야 할 計器의 버튼이 <증가>하므로 操縱士에 대한 Entropy는 增加한다. 歷史의 흐름을 보면 專制君主時代, 封建時代, 帝國主義, 民主主義라는 <順序>를 더듬는 일이 많다. 제도적인 또는 정신적인 平等化에 의해서 Entropy는 增加一路를 더듬는다.

2次 世界大戰경까지는 Energy가 問題였다. 어떻게 하여 자연계에서 人類에게 쓸모있는 Energy를 꺼내는가 하고 사람들은

지혜를 짜냈다.

오늘날 人間은 어떤 성질의 일을 하는가? 힘을 쓰는 일은 機械에 맡기면 된다. 企業이 크면 클수록 會社는 막대한 Entropy를 떠 맡는다. 課長級이면 販賣價格 문제를, 重役들은 會社經營全般에 대한 처지를 검토해야 한다. 누구나 職責에 따라 反Entropy의 增大에 勞力한다. 原稿를 쓰는 것도 그렇다. 설사 Entropy가 極甚한 狀態인, 우주전체가 熱的으로 平衡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먼 未來의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의미에서 <人類의 終末>이 바로 눈앞에 닥쳐 올지도 모른다는 일이다. <自然>으로 부더의 위험에 의하여 人類가 滅亡할 것으로 생각되는 시기보다도 더욱 가까운 將來에 人類의 終末이 豫想된다.

19世紀에 들어와서 人間社會의 飛躍的으로 發展하였다.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화였고, 열역학적으로 말하여 Energy文明이다.

그러나 이제는 Entropy文明으로 變했다.

Energy開發에 이어 어떻게 하면 感도가 좋은 FM 放送을 들을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畫面이 아름다운 TV를 볼 수 있는가 따위가 더 重要視되고 있다. 月給장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出勤하기 까지의 時間은 分秒까지 神經을 쓰게 된다. 많은 電話番號를 기억해야 하며, 메이커라면 1개월간의 生産量, 바이어라면 販賣量, 증권회사라면 上場株의 최근의 動向등 數字의 洪水이다.

複雜한 數라면 Computer에 記憶시키고 計算시키면 된다. 그러나 무엇을 計算시키고, 어떻게 活用할 것인가는 사람이 生覺

해야 한다. 세상은 바로 情報時代이다. 새로운 낱말도 무척 늘었다. 情報化도 아직은 初期段階이다. 일상생활에서는 判斷해야 할 재료가 增加해 가고 있다. 人間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어디든지 會議라든가 討議가 늘어, 개인은 좋은 싫든 이에 많은 時間을 빼앗기게 된다.

단순 勞動者와 農村에서는 아직 Entropy가 적다. 그러나 이것도 時間問題이다. 全國 坊坊曲曲까지 巨大한 情報量인 큰 Entropy의 波濤가 밀어 닥칠 것이다. 갑자기 커다란 工場이 서게 되고 公害問題가 일어나게 된다.

人間은 反Entropy의 創造者라 했었다. 이런 의미에서는 人間이란 참으로 뛰어난 生物이다. 어쩌면 神의 獨特한 被創造物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이 集團을 이루면 Entropy는 增大하기만 하다. 때에 따라서는 人間の 賢明함이 Entropy 增大에 오히려 拍車를 加할지도 모른다.

統計力學의 권위자인 어느 學者는 人類의 壽命은 200~300年 정도가 아닐까? 라고 말하기도 한다. 單之 200~300年이다. 아직도 人類의 破滅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만 Entropy 過多에 의한 人間生活의 崩壞는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다.

## 七. 未來의 世界

地球上의 人口는 現在 약 35億, 陸地의 面積이 15億平方km, 따라서 1人當 平均 所有面積은 4.3萬平方km이다.

人口增加率이 2.5%라면 지구상에서 바다 위로 露出되어 있는 全面積에서 1平方km에 한 사람씩, 살게되는 것은 고작 430年후이다. 물론 이런 狀態에서 人間은 生存할 수 없다.

이 問題는, 어떻게 해서라도 社會科學的인 解決策이 강구된다  
고 치더라도 문제는 人間集團內部로부터 發生한 거대한 Entropy에 壓殺될까 두렵다. 만일, 이 問題를 解決할 길이 있다면 그  
것은 人間 스스로가 救世主의 役割을 다하는 길 밖에 없으리라.

빠른 人間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自己運命을 타고  
태어나는 것이다.

..... 괴테

## 28回

- ◎ 남북이산가족의 상봉문제 ..... 李 命 英(28回)
- ◎ 실향민의 절규 ..... 趙 東 哲(28回)
- 자유민주수호 대회를 마치고 -
- ◎ 北으로 가는 길 ..... 吳 聖 昱(28回)
- ◎ 영상유회 「검은 고양이」의 추억 ..... 主 赫 順(28回)
- ◎ 越南 1世의 간절한 所望 ..... 韓 炯 周(28回)





##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문제



李 命 英(28回)

落葉이 歸根이란 말이 있다. 잎은 떨어져도 뿌리로 돌아가듯이 사람도 나중에 혈육과 친척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일가친척을 잊지 못해 하는 것은 고금동서를 막론한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옛부터 越鳥는 巢南枝(남쪽 월 나라에서 온 새는 둥지를 틀어도 남쪽 가지에다 틀고)요, 胡馬는 嘶北風(북쪽에서 온 오랑캐 말은 북풍에 대고 운다)이란 글귀가 소중한 여겨져 왔던 터다.

사실 인생살이에 있어서 평생 고향땅을 밟지 못하며 평생 친척들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에 더한 불행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불행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비극이다. 그런데 그 비극속에 사는 사람이 전체국민의 몇 프로만 된다 해도 이는 벌써 커다란 사회적 문제요 정치적 대문제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 그런 비극 속에 사는 사람이 남북을 합쳐 족히 1/3을 넘는다 하니 이 어찌 민족의 대비극이요 국가가 전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당면과업의 첫째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이산가족이라 부른다. 떨어지고

흘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란 뜻이다. 왜 우리나라엔 그렇게도 많은 이산가족이 생겼는가. 한마디로 말해 분단 때문이다. 일제 때의 그 치욕의 세월 속에서도 한 덩어리 땅이었던 강토가 축복 받아야 할 해방의 계절에 이르러 두동강이 난 것이다. 북에는 공산주의제도가 들어섰고 남에는 자유주의제도가 들어섰다. 공산주의가 싫은 사람들은 남으로 빠져 나왔고 공산주의가 좋은 사람들은 북으로 들어갔다. 6·25전쟁 때 이와 같은 이동은 절정에 달했다.

분단은 왜 생겼으며 6·25는 왜 났던가. 해방후에 유엔 결의대로 남북총선거에 의해 통일정부를 세웠더라면 공산제도가 되었던 자유제도가 되었던 분단은 없었을 것이다. 소련과 김일성정권의 반대로 총선거를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왜 총선거를 반대했는가. 자유선거로서 공산당정권이 세워진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혁명의 천재 레닌은 1917년 11월 7일에 혁명에 성공하자 자신만만하게 그달 25일에 혁명을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제정의 회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했다. 결과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당의 득표율이 24%로 참패했다. 다음해 1월 18일에 개최된 제헌의회는 다음날 19일에 볼셰비키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말았다. 이래로 소련에는 자유선거란 것이 있을 수 없었다. 공산당의 선거공포증 선거불신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유엔 결의의 총선거를 반대한 소련과 김일성정권에게는 ‘선거로는 공산혁명이 되질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만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전략노선이 있었다. 그것이 스탈린의 ‘1945년 9월 20일 지령’이란 것이다. 소련군의 북한 진주는 1945년 8월 26일로 완료되었다. 군사작전이 끝났으면 정치과제가 나와야 한

다. 그것을 9월 20일자로 스탈린이 지령한 것이다. 이른바 民主基地路線이란 것이다.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북한을 공산주의 기지로 만들어 나중에 남한을 공산통일한다는 전략이다. 즉 선분단 후통일노선이다. 이에 따라 1945년 12월 17일에 북조선 공산당의 책임비서로 들어 앉은 김일성은 ‘민주기지노선’을 당면의 최고 과제라고 선포했으며 다음해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김일성정권을 세웠던 것이다. 그들로서는 그것을 육성 강화해야지 총선거로서 사태를 혼미 반전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분단은 이렇게 하여 시작됐다. 따라서 이산가족이 생겼다. 분단을 통일로 전환시키는데 6·25남침전쟁이 그들로서는 불가피했다. 목적을 위해 수단에 구애 받지 않는 공산당의 윤리관에는 안명피해나 재산파괴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다.,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들이 모두 합해 2~3백만, 그들이 모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었으니 이산가족은 족히 1천만은 될 것이다. 거꾸로 남에서 북으로 간 사람들은 남로당원 15만 동조자 15만 그 가족들 20만 도합 50만이다. 이들이 모두 가정을 이루었으니 족히 2백만은 넘을 것이다. 고향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남북합해 1천2백만, 이들과 상봉하고 싶은 친척들이 또 적어도 그 정도는 될 것이니 모두 합하면 남북에 이산가족이 2천4백만이나 있는 것이다. 온 민족의 1/3도 더 된다.

남북은 사상과 체제가 정반대이다. 이러한 상극에는 중간형태의 타협점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으로 편입되든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양쪽이 평화공존을 하든지 하는 수 밖에 없다. 남쪽은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쪽은 통일혁명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공존의 가장 두드러진 징표가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상봉이다. 이것이 실현될 때 그리고 그 규모와 범위에 따라 북쪽의 속셈은 확연해 진다. 이산가족의 상봉이 너무나도 절박한 인도상의 문제이며 너무나도 막중한 민족적 숙제인 까닭에 북쪽도 이를 표면상으로는 반대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하자고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안하겠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마지못해 응하더라도 장소를 평양에만 한정하려 하고 규모도 될 수 있는대로 제한하려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는 피폐한 북한의 참모습을 남쪽에 노출시킬 수 없다. 둘째는 미국의 착취로 신음한다는 남한이란 곳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낙원에서 사는 북한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잘산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 셋째는 북쪽 이산가족이 남쪽의 발전상을 견문하고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넷째는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인인 바 남북의 이산가족은 모두가 실은즉 북쪽의 적대계급 또는 적대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북에서 남으로 빠져 나온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는 분명히 공산당에게서 적대계급 타도의 대상이다. 남에서 북으로 간 사람들, 이들은 공산주의를 동경하여 간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들은 남로당 출신 및 그 동조자들이다. 남로당계열은 북에서 모두 숙청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적대계층으로 규정되어 심한 감시와 차별대우 속에 있다. 공산당은 이러한 성분이 나쁜 분자들에게는 인도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북쪽은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및 상봉에 응하는 척하면서 실은 여러 가지 난관을 조성하는 술책을 쓴다. 예컨대 이

인모 노인을 북으로 보내라는 요구 같은 것이 그것이었다. 그는 공산주의혁명사상을 가진 채로 장기복역을 마치고 나왔다.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적인 노력에 의해 그의 가족들이 북쪽에 있음이 알려졌고 서로 안부를 교환했다.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70넘은 그를 북의 가족들에게로 보내 주는 것이 인도주의 아니겠느냐 하는 소리가 남쪽에서 나왔다. 이에 발 맞추어 북은 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의 전제조건으로 이 노인의 북송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이 노인을 보내는 것도 좋다. 그것은 그것대로 뜻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특정인의 문제를 일반적 사안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나올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것대로 딴 안건으로 남북이 토의하면 될 것이다.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이 노인 말고도 여럿이 있을 것이다.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다.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따로 한데 묶어서 교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북은 불응할 것이다. 북에는 정치 사상범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온 저들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노인 문제 거론은 북쪽이 이산가족 왕래를 가능한 한 실현시키지 말자는 속셈에서 내놓았던 것이다.

북쪽은 이산가족 왕래 같은 것은 인도주의문제로 보지 않는다. 적대계급에게 베풀 인도주의란 공산당에게는 없다. 그들은 말한다. 남쪽이 정 인도주의를 떠들었다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통일 부터 하자고. 통일만 되면 모든 이산가족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말인즉 맞는 말이다. 통일되면 해결된다. 문제는 어떤 통일이냐다. 공산통일, 김일성부자지배하의 통일, 그것을 북쪽은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민족의 절대다수가 그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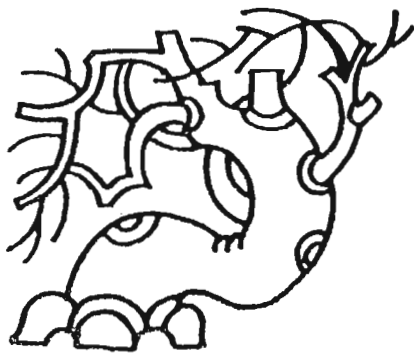
좋아했었다면 애당초 이산가족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남북총선거로도 북쪽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절대 다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저들은 왕래에도 총선거에도 응할 수 없다. 여기서 나온 것이 '통일혁명'노선이다.

남북통일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일 수 있게 하는 노선이 통일혁명인데 그 길은 남한에 김부자를 흠모하는 사회주의정권이 서면 되는 것이다. 바로 다음날에 통일이 성사되겠지만 때문이다. 북한은 이 통일혁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남북회담도 이를 위해 하는 것이다. 남북합의서도 비핵선언도 이를 위해서이다. 만약에 교환방문이 성사된다 해도 이를 위해 잇점이 있다 할 때 성사되는 것이다. 저들은 통일혁명을 위해 '남조선 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지부인 통일혁명당이 남쪽의 지하에 조직된지 오래이다. 지금은 한국민족민주전선이란 이름을 쓰고 있다.

이 지하조직의 공작에 의해 지상에는 많은 민족민주혁명을 공공연히 부르짖는 단체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민족과 민주를 독점물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인 인민민주주의의 정권창출을 위해 혹은 합법적으로 혹은 반(半)합법적으로 혹은 비합법적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들 활약의 기본 수법이 통일전선전술이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남북통일의 통일이 아니고 남한의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북쪽의 기본노선으로 남한의 많은 민중들을 행동통일시킨다는 통일인 것이다. 상당한 지식인 상당한 인사들도 그것이 북한이 노리는 방향이라는 것을 의식치 못한 채 어디서부터 올려오는 북 소린지 피

리 소린지도 모른채 행진하고 춤추고 소리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이다.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은 레닌이 그리고 모택동이 개발한 혁명공작의 일등품이다.

이 전술의 전형적인 전개가 남북여성지도자회의라든가 범민족대회라든가 남북교회지도자회담이라든가 청소년 학생 통일한마당 놀이라든가 남한 기업과의 합작이라든가 하는 것에 나타난다. 이런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치고 이산가족의 무조건 왕래실현에 열을 올리는사람은 없다. 이런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치고 이 노인의 무조건 송환에 열을 올리지 않았던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남한은 뿌리에서부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마치 越鳥巢北枝요, 越馬嘶北風의 풍경이다.



시

## 실향민의 절규

—자유민주수호대회를 마치고—



趙東喆(28回)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찾아,  
잔뼈가 굵고, 조상의 얼이 숨쉬고,  
술한 사연과 추억이 가득 담긴  
정들고 언제나 그리운 고향 산천에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정다운 형제  
자매와 애지중지하던 자식들을 남겨두고,  
붉은 마수를 탈출하여 사선을 넘어  
남쪽의 이역타향에 왔노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거리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에  
좌경화, 용공이 활개치고  
시위장마다, 농성장마다, 파업장마다에는  
붉은 머리띠와, 붉은 깃발이 판을 치고,  
폭력이 미친듯이 날뛰고,  
화염병이 도깨비 불처럼 꼬리를 흔들며 난무하니,  
아, 우리를 또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정치쓰레기를 좋아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실향민이 되었는지,  
무슨 까닭에 이산가족이 되었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슴이 터지는 괴로움과,  
피눈물나는 쓰라림과, 뼈깎는 아픔을,  
강산이 네번 변하도록 어금니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아왔는지를 아는가.  
우리는 결코 한발자욱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신명을 다바쳐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리라.  
그리하여 자유의 깃발과 함께  
두고온 고향산천에 돌아가 민주를 꽃 피우리라.



## 봄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워 못잊는 님이 계시기에  
나는 삶을 놓지 못하고  
꿈을 안고 살고 있음에라.

삭풍이 휘몰아치고  
잔물이 유리판같이 얼어붙는  
겨울의 북판에서  
어서 봄이 오기를 초조히 기다린다.

산들 바람에 움이 트고  
꽃이 피는 그런 봄 말고,

훈훈한 정이 샘물 같이 솟아 흐르고  
웃음이 함박꽃 같이 활짝 피어나는  
그렵고 정다운 고향의 봄을 기다린다.

움트고 꽃이 피는 봄은 또 오련만  
찬란한 고향의 봄은 언제 오려나,

풀이 돋지 않고 꽃이 피지 않아도  
더없이 좋은 고향의 봄 환상의 봄  
기다림에 지친 애뜻한 망향심사  
어디에도 가눌 길 없어라.

## 잠 못 이루는 밤

노을이 서산을 돌아 가버린 뒤  
어둠이 제멋대로 짙어지니  
가로등은 홀로 서서 조을고  
바람도 잠들고 길도 잠들어  
밤은 잠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데,

속없는 별은 깨어서 배시시 웃고,  
철없는 바다는 저 멀리서  
듣는이 없는 자작곡을  
목선 소리로 끊임없이 흥얼거리고,  
이웃집 파수꾼 멍멍이는  
잠이든 밤을 지키느라  
설틈없이 어둠을 짚어대니  
잠 이룰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탁자에서 암전히 조으는 담배를 깨워  
불로 당근질을 하니  
하염없이 연기만 내어뿜는데,  
연기속에서는 그리움만 오락-가락-  
앉았다 누웠다 서성대며 잠을 청하니  
잠은 허공에서 왔다-갔다-  
  
그대로 자야만 하느니

밝아오는 새날을 위하여,  
새벽 닭이 울기전에 잠들어  
새벽 닭이 울면은  
꿈속에서 더듬던  
정다운 님 곁으로 가야만 하느니.

# 祝

同窓會誌

第5號 發刊

祈願 祖國統一  
母校再建

電話：486-1923~4

皮革衣類製造輸出  
泰信通商株式會社

代表理事 趙東喆(28回)



경성선의 어느 간이역

## 北으로 가는 길



### 吳 聖 暉 (28回)

「한 줄로 서서 왼 손에는 공민증, 오른 손에는 차표를 들고 나오시오.」

鐵原에서 70里, 하루 종일 달린 列車가 고작 왔다는 것이 복계(福溪)였다. 車票살 때도 공민증을 보자더니 내릴 때도 또 提示하라고 한다. 공민증을 갖지 못한 내가 以北에 들어서면서 맨 먼저 부딪힌 관문이었다.

「짐을 여기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 볼게요.」

짐 임자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보안서원이 보는 앞에서 「룩색」을 풀어놓고 화장실로 향했다. 들어서 보니 안쪽과 바깥쪽이 두꺼운 판자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 둥그런 큰 구멍이 나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다. 얼른 그리로 고개를 내밀었더니 소피를 보고 있던 웬 사내가 「아이고 깜짝이야!」하고 놀라 소리쳤다.

「췌!」

나는 얼른 그 구멍으로 무사히 빠져 나와서 一行을 기다렸다. 내겐 지금도 그 허술했던 警備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그때가 1947년 1월이었다. 몹시 추운 날이었다는 記憶밖엔 없다. 午後 늦게야 一行과 함께 東豆川行 列車에 몸을 실었다. 자꾸 앞길에 대한 不安이 엄습해 왔지만 그럴 때마다 굶주린 食口들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무모하게도 공민증도 없이 威興까지 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무사히 到着할 수 있을지? 前途에 對한 保障이 없었다.

東豆川까지는 百里길이라 했지만 기어가다 싶이 느린 當時의 列車로는 밤이 이숙해서야 닿을 수 있었다. 우리 一行은 나와 40代 사내 3명과 尹楚玉이란 妙齡의 아가씨였다. 그녀는 威北 鏡城 태생으로 나보다 한살 위였다.

젊은 두 사람은 쉬 친해져서 다정하게 二重唱도 했고 時間가는 줄도 모르고 抱負와 希望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래서 青春은 神의 祝福을 온통 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東豆川에서 靑신으로 갈아 신었다. 이제부터는 눈에 덮인 산길을 가야 하니까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채비를 단단히 한 것이다.

美軍 哨所가 있는 언덕 아래를 살살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다. 美軍에게 發覺되면 後送된다기에 哨所 바로 밑을 기어서 그 눈을 피했던 것이다. 「등장 밑이 어둡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일게다.

길 아닌 길을 더듬어서 臨津江에 다달았다. 여기를 건너면 以北땅이다. 白沙場에 「北緯 38度」라는 팻말이 하나 덩그러니 서 있었다. 콧등이 찡해왔다. 말없이 돌아보니 尹楚玉의 눈도 젖어 있었다. 그것은 가슴에 응어리진 弱小民族의 설움과 恨을말해주는 것이었다.

이윽고 다달은 鐵原에서는 車票사기부터가 어려웠다. 以南사람은 아무도 이런 苦痛을 모른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全國을 누비고 다녔고 海外 나들이도 여러번 했지만 驛에서나 空港에서나 호텔에서 住民登錄證 提示를 要求받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1946年 겨울부터 公민증없이 는 활개치고 100m도 가지 못하는 以北 땅이 아니었던가.

福溪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元山까지 票를 끊으면서 또 남의 신세를 졌다. 公민증이 없으니 별 도리가 없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줄을 서야만 했다.

列車가 出發한 뒤에서 그날부터는 咸興까지 票를 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을 어찌겠는가. 그러나 이 元山 票가 나를 求해 준 決定的인 구실을 할 줄이야 神이 아닌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바로 이런 경우를 塞翁之馬라 한다던가. 人生 모든 것이 無常하니 그 吉凶과 禍福도 항상 바뀌어 豫測할 수 없다는 뜻이다.

元山驛에 到着했다. 화장실은 福溪驛과는 달리 어디나 빈틈없이 못질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모든 出入門에는 着劍한 軍人들이 엄중히 지키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15名정도가 남았을 뿐이었다. 제일 나중에 調査받으면 퍽 까다로울 것 같았다.

「나는 公민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려다가 행여나 하는 생각에 그 말을 꿀꺽 삼킨 채 그냥 앞으로 한발 나섰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표를 쑥 내밀고는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한발, 두발, 아무말이 없었다. 열 발까지도 무사하길래 나는 그제서야 虎口를 벗어난 줄 깨닫고 쏙살같이 뛰어나갔다. 지금 생각해도 그



驛員이 왜 공민증을 보자고 하지 않았나 궁금하다. 아마 이런 것을 일러 天佑神助라 하던가?

다음날 아침 驛에는 車票사려는 사람이 長蛇陣을 이루고 있었다. 난 일부러 새치기라도 할 듯이 시끄럽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驛員이 어리둥절해하는 틈을 타서 「威興 한장!」하니까 공민증 보자는 말도 잊은 채 엉겁결에 車票 한장 내주었다.

元山에서 尹楚玉과도 헤어져서 외톨이가 되었다. 이윽고 다달은 곳이 高原이었다. 여기서 車가 하루 또 묵는다.

그때 어디서 그런 勇氣가 솟구쳤는지 改札을 기다리고 있는 出入門으로 달려가서 훌쩍 뛰어넘었다.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지만 아슬아슬했었다. 蠻勇을 부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 땀이 흐른다.

이번 北行길엔 처음부터 神의 加護가 뒤따랐다. 말이 없고 消極的이던 내가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性格으로 탈바꿈한 것도 이때부터다.

다음날 아침 驛에 나가니 어느 客車고 모두 콩나물 시루였다. 우연히 소련군 專用客車를 보니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리로 다가가서 똑똑 노크를 했다. 소련군 將校가 웬일인지 문을 열어 주었다.

「함께 타고 갑시다」고 한즉 알아들었는지 생긋 웃으면서 앉으라는 시늉을 해 주었다.

威興에서 50리길에 있는 定平에 다달았을 때였다. 아까부터 내 아래 위를 유심히 훑어보던 웬 軍人 하나가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오오?」

「元山에서 옵니다.」

「어디 票를 봅시다.」

나는 살았구나 싶어 마음놓고 票를 내밀었다.

「공민증을 보지요.」

「안가져 왔습니다.」

「왜 아이 가져왔소?」

「車가 떠난 뒤에서 공민증놓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홍에 닿으면 部隊까지 함께 가지요.」

「예 그렇시다. 威興保安署에 勤務하는 ○○○동무가 나를 證明해 줄거요.」

그때 내가 댄 것은 전혀 記憶에도 없는 이름이었다.

列車가 威興에 닿았다. 웬지 軍人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나는 改札口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 달리면서도 내가 그렇게 빠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었다. 참으로 놀라운 速度였다.

용케도 千里길을 無事히 突破하고 여기까지 왔다. 밖으로 나오니 盤龍山에서 불어오는 威興 特有的 強風이 싸- 하고 매섭게 몰아쳐 왔다. 그러나 여전히 머리위엔 太陽이 찬란히 비치고 있었다.

◎藝術이란 有限한 現象中에 있어서의 無限한 이데아의 實現을 보여주는 것(빈델만드)

# 연상유희 「검은 고양이」의 추억

(1)



주 혁 순(28回)

시간이 남아돌기 시작하면서 부터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하찮은 일인데도 자꾸만 연관된 일들을 줄줄이 연상하고 그 연상 속에 함몰되는 고약한 습관이다. 초로의 문턱에 있을 뿐인데도 다 늙은 척, 미래에의 계획은 아예 외면하고 지난 과거에만 매달리려는 퇴영적인 자기가 미워지기도 한다.

어제(1993. 7.23)의 조선일보에 한·중·러 접경지 琿春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두만강하류개발계획과 함께 클로즈업된 중국(만주)측 도시가 훈춘이어서 이 도시의 순방기가 실린 것이다.

UNDP후원하의 이 개발계획이 처음 매스컴에 등장했을 때, 김윤열이라는 이름의 UNDP최고고문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국내신문에 소개된 일이 있다. 그런데 이름은 그때와 하나도 바뀐데가 없는데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백발의 사진에선, 비린내가 나서 당시의 우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우유를 반룡산 기슭의 목사관 목장에서 잘도 마시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김군은 우리 고장의 출신이다. 필자와는 함흥의 금정소학교(제일보통학교)의 같은 학급에서 지낸 사이로, 보성중학교를 거쳐 8·15이후 통역관계 일에 종사했고, 미소공위시절에는 채 20세도 되지 않은 나이로 당시의 신문지상

에 제법 그 이름이 났었다. 정부수립후 한때 외무부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으나, 국내 UN기관으로 곧 옮겨졌고, 6·25직후 UN본부로 전임했다. 그도 이제 65세 나이가 되니, 「고문」에다 「최고」라는 딱지까지 붙혀져, 현역에서 명예제대당한 것 같아 부질 없는 세월, 감회가 깊어진다.

각설하고 조선일보의 기사 가운데, 훈춘 시가지엔 한글간판도 많은데(그럴것이 인구 20만의 47%가 조선족이라 한다), 나이트클럽 「검은 고양이」도 그 하나라 한다.

「검은 고양이」는 등소평의 고양이논쟁에서 따온 이름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70년대말에 잠간 유행했던 동요조유행가 「검은 고양이 네로」를 생각해 한다. 음악담당 기무라(木村)선생은 우리 악동들에게 거시선생으로 통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가름한데다가 몸이 호물호물하게 보인다고 진상한 별명이다. 「거시」란 한자어 「蛔蟲」과 표준어 「거위」의 우리고장 사투리다. 지금 아이들은 표본실에서나 상면할 수 있는 이 기생충은 당시의 우리에게 퍽 친숙(?)한 이웃아닌 동반자였었다.

지금과 같은 당의정은 고사하고 당시의 특효약인 산토년도 품귀여서 건축용 접착제와도 흡사한 해초의 일종을 삶은 국물을 한컵씩이나 코를 꼭 잡고 정기적으로 마셨던 학교행사를 우리들은 잊지 못한다. 당시 우리 학교엔 교사의 사랑을 독차지하거나 앓은 학우에게 그교사의 별명 내지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는 습관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라이(白井:백정) 교관의 아들들이다. 제식교련을 잘하고, 총검술을 잘하고, 절도있는 그야말로 「教練甲」의 친구들이다. 그래서 학년마다 한, 두명 있었다. 지금의 우리주변에도 당시의 「백정아들」이 있어서 주석에

서 당시를 이야기하곤 한다. 음악선생에게도 별명의 아들이 있었다. 28회의 홍현결군이다. 얼굴과 신체와 그 동작이 기무라선생과 흡사한데다가 크라리넷을 잘 부는 음악반원이었다. 이 「거시」홍군의 편곡작이 「검은 고양이 네로」인 것이다. 그래서 음치가 더 많은 우리 28회 동문이지만, 우리는 모교애의 표상으로 노래를 사랑했었다. 이런 모교애적인 성원에도 불구하고 음악전공자가 드문 게 우리들 동창인데, 서울대음대의 최고선배인 홍군마저 별로 양명함이 없이 병약한 몸으로 늙어만 가니 아쉽기 한량없다.

그때 우리는 문학소년이었다. 그렇다고 문학적 소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남의 나라 글로 공부하던 우리가 문학을 이야기할 무슨 자격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읽었던 소설은 일본소설이 전부였다. 에도가와·란보(江戸川亂歩)라는 작가의 추리소설(당시에는 탐정소설이라 했다)이 흥미위주의 단골소설이었다. 후일에야 이 작가의 본명은 히라이·타로(平井太郎)이며, 근대 추리소설의 비소 Edgar Allan Poe를 숭배한 나머지, 그의 필명으로 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미국작가의 출세작의 하나가 바로 「검은 고양이」인 것이다.

필명이야기에 연유한 아카시아동산의 추억이 있다. 그때 우리는 일본국어시간이었다. 담당교사는 혈기왕성했던 가네세기(金關)선생, 그는 일본국사도 맡았었다. 훌쭉한 몸에 신경질적인 선생이었지만 몸에 비해 담력은 있었던 모양이었고, 재기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글라이더(활공)반 지도교사도 한 것으로 생각나는 선생이다. 나이도 젊어서 우리들과 수업시간에 실랑이도 많았다. 수업시간에 까불고 덜렁거린다고 우리 반의 정군에

계 즉석에 옷쫂꼬쫂이(オツチヨコチヨイ)라는 별명을 하사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나쓰메소세기(夏目漱右)의 「붓짱(坊ツチャン)」의 주인공과 흡사한 선생이었다. 아마 모르긴 모르거니와 교무실에서도 화제의 주인공이었으리라. 그시간의 독본의 문장은 후다바데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글이었다.

가네세기선생은 먼저, 작가의 소개부터 하셨다. 「이는 필명인바, 그의 부친이 문학하겠다는 아들이 달갑지 않아, 말을 듣지 않고 문학을 고집하려면 『구다밭데 시마에(クダバツテ シマエ…똥죽어버려라!)』라고 야단쳤었는데, 그는 한사코 문학의 길을 걷게 되었고, 부친의 야단을 명심한다는 뜻에서 필명을 “구다밭데 시마에”에 맞추어 “후다바데이 시메이”로 했다”는 것이다.

이 가네세기선생은 도령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 방학때 일본에 건너갔다가 영영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다. 들리기는 뚜거비 미야케교장과 싸우고 보따리를 샀다고 하지만, 공식 설명은 없었다. 당시 주변일지라는 것이 있었다. 주변근무를 기화로 주변일지에 선생이 취임, 퇴임할 때에는 조회에서 취·이임사가 있게 마련인데 가네세기선생의 경우는 기기괴괴하다고 간접항의했던 일이 기억난다. 여기서 「기기괴괴」하다 함은 3국방공협정을 체결해 놓은 독일이 일본에 비밀로 소련과 갑자기 불가침조약을 맺음에 당시의 히라누마(平沼)내각이 구라파의 변동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총사직하면서 남긴 말, 참으로 “기기괴괴하다”를 빌린 치기였다.

그러나 필자가 23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이 잡문을 쓰게 된 동기는 다른 곳에 있다. 함흥 대화정통의 「바-, 크로초고」

를 기억하고 있는 동문이 적지 않으리라. 일본 가다가나와 한자 「黑猫」가 검은 글씨로 적혀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를 중학생으로 보냈던 필자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알 수 없었지만, 문앞에 서성대던 일본 기모노 차림의 여급이 눈에 띄곤 했었다. 이 「구로네꼬」의 옆 골목을 조금 들어가면 우리고장의 3대극장(명보, 마사고관, 함홍)의 하나인 함홍극장이 있었고, 그 골목을 다 돌아나가면 군영통의 삼성당(?)문구점에 도달하는데, 이 골목길이 바로 일인 유곽촌이다. 그들 특유의 양식인 별난 2층구조의 건물이 즐비했고, 그 정문엔 무슨무슨樓의 당당한 간판이 걸려있었다. 이름이 樓인지라 하루밤의 외도가 유객들에게 거창한 이름의 쟁樓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낮에 이 골목을 걷다보면, 늦잠을 잔 일인 유녀가 대낮의 목욕을 즐기다가 목이 길게 빠진 일본 기모노차림으로 돌아오는 요염한 모습과 자주 마주쳤다. 그래서 이 골목은 탐미파(耽美派)인 谷崎潤一郎의 작품 「거리」를 연상케 했다.

「4월이 가면」의 비련의 주인공, 최아무개의 통명 「요시야 준」의 「준」이 일인작가의 「潤」에서 따왔고, 「요시야」는 「여자의 우정」의 여류작가 吉屋信子에서 빌렸다니, 예술엔 국경이 없다는 하지만 배알도 없구나! 그래서 그는 지금도 일본의 구석진 술집에서 섹스폰을 불고 있다고 한다.

이왕 이야기가 옆길로 샀으니, 좀더 외도를 하자. 우리 28회 동기의 94년도 「총동창회」가 1월7일 패시픽호텔에서 있었다. 여기서 굳이 「총」동창회라는데는 사연이 있다. 우리 28회엔 격월제로 모이는 아카시아회가 있다. 5년이나 남북에 갈려있던 8·15남하파와 6·25남하파가 환도한 서울에서 만나, 55년도에

10명으로 발족한 동기생의 코아격인 모임이다. 아카시아회란 모교의 아카시아를 못 잊어 붙인 이름임은 물론이다. 당시 함북출신의 공학사 만화가 신동현 화백과 함께 인기절정이었던 이학사출신 만화가 김경언회원이 제의한 이름이다. 김군은 미국에 이민간지 15년이 되는데, 병상에 있는지도 역시 15년이 가깝다. 제발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40여년이 지나면서 모임의 산파역이었던 김용구사장, 송영면의박을 포함해서 발기회원 10명중의 반수가 유명을 달리했다. 오호라! 그래서 우리는 아카시아회와는 별도로 1년에 한번 갖는 일반동창의 모임을 거창하게 총동창회라고 잠칭하고 있는 것이다.

28회 총동창회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으나 이름만 거창했지 모인 회원은 얼마되지 않았다. 예약인원에 훨씬 미달한 참석인원 탓으로 우리나라 생산성문제의 개척자이기도 한, 흑자경영연구소장인 오철구회장은 호텔측과의 비용정산에 다소나마 곤혹했을 것이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임진수 학형을 비롯한 근년에 사별한 동기생의 명복을 빌고 한형주의박에게 장수건강법에 대한 비결을 피로할 것을 요청했었다.

한박은 요새는 약의 시대니 약박의 노일협동창의 이야기를 듣는게 더 유익할 것이라며 고사하다가 마지못해 그가 오끼나와의 주점에서 보았다는 재미나는 「長壽心得(현지표현)」을 소개했다. 이제 여기에 쓰고자 하는 것은 이 장수심득중의 일부(장수심득원본은 60대에서 시작해서 123세에서 끝난다)로서, 함흥극장 골목의 樓와의 유관부분이다.

그 오끼나와의 주점의 のれん(노렌, 포럼)엔 「60대에 저승사가 찾아오거든 작업중이라고 여쭙어라」라고 쓰여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작업이란 바로 성스러운 성작업의 뜻이란다. 성스러운 성작업중인데 어떤 몰인정한 놈의 호출이라는 짜증도 되고, 아직도 성작업 한창인 나이인데 「웬, 염나대왕!」이라는 질타도 된다.

한박의 사족에 의하면, 그래서 그 좋은 시절엔 일본식 색촌의 「방」은 「작업중」이라는 표찰로 무례한의 침입을 막았다고 한다. 당시의 소년이었던 필자야 그 진위를 알 수 없지만, 한박의 사족이 사실이라면, 이 골목의 樓에도 「作業中」이라는 문패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을게고, 패전의 오끼나와에 진주한 미군을 위한 야마도나데시꼬(大和撫子)의 위안소엔 「UNDER WORKING」이라는 사인보드가 부지런히 점멸했을 것이다.

각설하고, 이 삼성당문구점은 일인부부가 경영하는 합흥 최대의 문방구점이었다. 이 가게의 점원은 금정소학교의 고등과(소학교과정 6년을 마치고 추가로 2년 더 이수한다)졸업생의 차지였다. 그런데 이놈의 가게에선 점원의 이름을 함부로 다로(太郎)니, 지로(次郎)니 바꾸어 불러댔다. 아마 입점한 순서로 부르기 쉽게 붙인 이름인것 같다. 어쨌던 꽤 안이 깊은 이 가게로 들어서면, 점두의 계산대에서 안쪽을 향해 외쳐대는 다로야, 지로야 하는 여주인의 앙칼진 목소리가 우리들의 등을 안으로 떠밀곤 했었다. 이 여주인의 금속성 소프라노는 손님이 왔다는 점원에게의 신호치고는 너무나 컸다. 그 골목을 찾아들어가는 외출 중인 일인병사가 놀랐던 소리였으니까.

시게즈미(重住) 선생은 이가라시(五十嵐)선생이 퇴임한 후로는 명실공히 우리 남중의 일문과주임교사였다. 실력면에서도 그랬고 열성면에서도 그랬다. 흥기뒤흔 얼굴에 키가 큰 가름한 몸

매의 미남형이었다. 그래서 불품없는 당시의 국민복, 전투모의 복장도 어색함이 덜했다. 그 어려운 시대에도 얼굴엔 늘 새파란 면도자죽이고, 비누냄새와 향수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더라면 모던보이고, 스타일리스트였을 선생이었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학생들의 면도는 엄격히 단속했다는 점이다. 그때 우리의 모교에선 면도하는 것도 교칙위반이었다. 그래서 시게즈미선생의 면도단속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선생의 분위기와는 통 어울리지 않았다. 3학년때의 어느날 아침 조회시간이었다.

우리 3학년갑조의 종대 위치는 4학년을조 바로 옆이다. 종대의 제일 앞자리는 급장의 뒤편이다. 그때 4학년을조 앞자리엔 이현영선배가 서 있었다. 후미부터 복장검사를 해오던 시게즈미선생이 이선배의 옆에 도달했다. 이선배의 옆머리엔 면도자리가 확연하다. 선생은 선배의 면도자리에 인지를 대면서 「オメカシシテ、イロケダシテ キサマ ナンナル!」하면서 야단치는 것이었다. 그 시대는, 지금은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야단 맞을 옆면도도 화장이고 멋부리기에 속하는 이상한 암흑의 세월이었다. 이 시게즈미선생의 야단은 어쩌면 그 시대에 대한 일종의 반항의 표출이었던지도 모르겠다.

어느날 오후, 대화정통을 서에서 동쪽으로 걷고 있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시게즈미선생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검은 고양이」 앞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나는 머뭇머뭇 발거름을 늦췄다. 때마침 「검은 고양이」의 문이 열리자 요염한 여급이 나온다. 순간 선생을 발견한 이 여인은 「アラ センセイ オメカシシテ ドチラヘ? チカゴロハ オヨリナサランデ!」 코맹맹이 소

리를 내는 것이었다. 거수경례를 하고 지나가는 필자에게 보인 선생의 쭉스러워 하시던 모습이 어제만 같다. 아마 이때의 풍경이 선생과 제일 어울리는 그림인지도 모른다.

중국 훈춘에도 검은 고양이가 등장하였는데 우리 고향이라고 해서 그때의 검은 고양이가 회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제 연상유희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신문의 기사 하나에도 줄줄이 추억이 이어나오는 요즈음, 나날이 늙어간다는(선배님들이여, 동창생 가운데서는 아직도 청준이어야 할 후배의 나 이타령을 용서합시오) 느낌에, 지지부진한 통일의 길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고향의 산천이, 부모 형제가 또 고향의 동문들이 그림습니다. 그리워서 죽겠습니다. 아니 그리워서 죽으려도 못 죽겠습니다. 만나볼 날 있기만 바랍니다. 생을 이어가는 유일한 보람이 어찌면 그날을 기다리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니다. 서로 만날 그날까지 억지로라도 건강합니다.

이런 습작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역시 중학시절을 그리고 귀향의 날에 지친 심경을 표현한 습작입니다.



## PROTOZOA이고 싶어라

(2)

PROTOZOA이고 싶어라  
단세포인 PROTOZOA는  
삶에 지치면 아포가 되어  
휴면을 한다.

따뜻한 햇빛이 쏟아지던 오후  
10번 교실은 생물시간이었다.  
휴면은 하등생물의 은신처  
선생님은 설명하셨다.

휴면을 하다가 PROTOZOA는  
세상이 좋아지면 잠에서 깨어  
다시 목숨을 이어간다  
휴면 · 가사 · 재생이 자유롭다고

10번교실의 그 소년은  
주름살 70고개를 바라보는데  
고향에도 못가보고 부모도 못만나고  
PROTOZOA도 못되면서

PROTOZOA가 되고 싶어라  
아포가 되었다가 고향가는 날  
다시 살아나고 싶어라

1993년 7월 24일

## 越南 1世의 간절한 所望



### 韓 炯 周(28回)

금년 봄부터 가끔 아침 출근때 현관문을 나서기전에 “鄉愁”  
한곡을 듣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

전주곡이 시작되면서 벌써 나의 마음속에 차분한 향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곡은 정지용시인의 시에 김희갑작곡으로 되어  
있다. 노래 취입은 테너 박인수와 가수 이동원의 두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언제 들어도 시가 좋고 작곡이 멋지고 노래 또한  
잘 불렀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발에 밤바람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든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러  
풀섬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카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꿈엔들 잊힐리야!

이노래의 여음이 머리속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근하는 나

는 하루의 시작을 향수로부터 출발하는 결과가 된다.

내가 고향 함흥을 뒤로 월남한지 어언 50년이 되어온다. 일제에서 광복되던 1945년 10월에 38선을 넘었으니 내년이면 50년 즉 반세기에 접어든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50년이면 다섯번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다. 옛날 같으면 인생 50세 살면 장수하였다고 생각할 터인데 내가 18세에 월남하여 50년을 향수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으니 과연 오랜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다고 느낀다.

세상에 1세(世) 2세 3세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미국 이민사(史)를 논할 때도 이민 1세는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갔고 현재는 2세와 3세, 4세가 대부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들의 38선을 넘어온 월남사(越南史)를 살펴보면 우리들이 월남 1세가 되겠고 현재 우리의 자손인 2세와 3세가 남쪽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1세와 2~3세사이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1세들은 낯선 땅에 홀로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몸을 던져 피땀나는 생사를 건 처절한 생활여건을 극복하고 가정을 일군다. 그들이 겨우 정착하고 가정다운 가정의 터전을 마련하면 그 때엔 벌써 세월이 덧없이 흘러 백발노인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모두가 황혼빛에 물들어 누렇게 그리고 뿌옇게 보이게 된다. 인생이란 단 1회용인데 1세들은 모두 누구를 위하여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을까? 그것의 가장 적절한 해답은 인간의 귀소본능(歸巢本能)에 돌릴 수 밖

에 없다.

이북땅에 고향을 두고 월남한 1세들의 마음을 2세나 3세들이 알 수는 없다. 안다고 치더라도 반만 알고 반에 반만 안다고 보아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향수”에 눈물짓는 일이 없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나이의 눈물이란 여간해서는 함부로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에 못이겨서 정 의 폭풍속에 휘말려서 몸부림치면서 흐느끼며 흘리는 눈물이다. 38선을 넘고 50년간 망향과 향수속에 살면서 고향그리움과 부모형제생각에 한번도 눈물져 본일이 없는 1세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모든 동물이 향수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들에게 감명을 주는 “연어의 모천(母川)으로의 회귀(回歸)”는 나에게 강렬한 암시를 던져주어서 때에 따라 회상치 않을 수 있다. 자기가 태어난 어느 고향의 개울을 잊지 못하여 몇년이 지나 성어가 된 어느날 생의 종말을 알리는 산란을 위하여 태평양을 쓴살 같이 헤엄쳐 건너와서 모천에 산란을 하고 드디어 일생을 마치는 극적인 연어의 일생에서 우리들은 고향이 무엇인가 하는 교훈을 새삼 얻는다.

우리 함흥고보(함남중학이란 일본식 냄새가 풍기는 교명을 사용하기 꺼린다) 28회 졸업생으로 월남 1세들의 모임인 『아까시아회』회원들은 매월 28일에 함흥 냉면집인 흥남옥에서 만나고 있다.

1945년 제2차대전의 일본패망의 해에 중학교를 졸업한 우리들은 졸업생의 3분의 1정도의 많은 동기들이 38선을 넘어 월남하였다. 그간 상당수의 유명을 달리 한 사람도 있어서 현재 10여명이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이제는 70세를 눈앞에 바라보는



노인들로 변모하였다.

우리들이 모이면 근래에는 주된 화제가 이북땅의 고향이야기가 되고 언젠가 고향을 찾을 날이 살아 생전에 올 것 같다는 희망에 찬 이야기가 대두되고 고향을 찾고 그리운 사람들과 상봉한다는 소망에 얼굴에 생기가 돋는다. 끝에가서는 앞으로 고향 찾는 날까지 어떻게 하든 연명하고 살아 있어야 할터인데 매년 늙어가며 체력이 달리는 것이 걱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 몇년만 더 살아가노라면 고향소식을 듣거나 고향땅을 밟거나 그리운 혈육들을 힘껏 껴안고, 싶도록 울어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 1세대들이여 눈 감을 수 있겠는가! 건강에 유의하고 장수를 누리며 우리모두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때까지 그런 뜻에서 나는 금년에 간행되는 함흥고보 동창회지 제5호에 그간 隨筆公苑이란 수필계간에 발표한 『長壽心得』이란 글을 재수록하는 마음이 되었다.

### 長壽心得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원한다. 노인이 되어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우선 인생이 짧다는 생각이 들고 늙어서도 건강하게 수를 누리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 “이젠 빨리 가야지”하며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는 노인들의 말은 대개의 경우 속마음과는 다르게 “죽지 말아야 할텐데”라는 뜻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옳다. 한번 죽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라 노인이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두면 새삼 생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 없겠다고 생각

이 간다.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선진국대열에 가까이 다가섰다. 70세를 웃돌게 된 것이다. 그만큼 사회전반의 생활조건이 호전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장수는 세계적인 추세로 선진제국의 평균수명은 80세를 전후한다.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달갑지 않은 여러가지 현상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어서 곧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 선진국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어서 국민 각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여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일본의 경우 세계 최장수 기록인 123세(1991년도)의 노인을 보유하고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선 현재 각 가정마다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인문제는 복합적이어서 간단치가 않다. 윤리도덕등 인간관계가 결부되어서 누구나 소홀히 다룰 수도 없고 잘 모시라니 어린아이 다루기보다 몇갑절 신경이 쓰인다. 더구나 노인은 마음과 몸이 쇠약한 상태여서 엄밀한 관찰을 하면 누구나 환자에 속한다. 심신이 성치 않은 환자를 다루기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는 익히 아는 사실이다. 특히 중풍이나 치매에 걸린 노인을 모시는 가정은 비참하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인구의 7%를 넘어서면 노인사회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선진국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년도의 우리나라의 현황은 5%정도가 된다. 아직 노인사회국가는 아닌 상태에 있다. 그러나 조만간 우리도 그 대열에 끼일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여러면으로 장수문제를 생각

해보면 장수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장수는 남의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살다가 간다면 그것이 바로 적절한 장수가 될 것같이 생각된다. 그 연령이 몇살이 되는 가는 각자의 건강과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다. 낚시꾼인 나로 말하면 그토록 좋아하는 낚시를 할 수 없게 되면 바로 그때가 아닌가 혼자서 생각해 본다.

사람의 한계수명은 대체로 120세로 인정받는다. 거북이는 수백년, 학은 몇년하고 따질때 사람은 건강을 이상적으로 관리하고 수를 누리면 능히 100세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장수를 남녀 성별로 관찰할 때 어느 나라건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여성이 약 5세~10세 더 길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만하다.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근원적인 차이에서 오는 여러가지 인자가 관여하겠으나 후천적으로 겪는 생활태도와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들면 술이나 담배를 얼마나 즐겼으며 성생활의 문란이나 식생활의 차이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빼어놓을 수 없는 사실은 전쟁이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단연 남성에게 많으니 통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이 장수하려면 보건의학적 견지에서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먹고 마시는 문제 즉, 맑은 공기와 깨끗한 식수를 위시하여 영양이 고루 섞인 이상적인 음식물의 섭취가 좋은 조건으로 손꼽힌다. 다음으로 적절한 운동이 건강유지에 필수요건으로 거론된다. 모든 기계도 쓰지 않으면 녹슨다는 평

범한 이치가 인체에도 해당되는가 보다. 이와 같은 몸에 관한 문제이외에 근래에는 마음의 문제가 크게 논의되게 되었다. 즉, 건강을 유지하려면 마음의 건강도 함께 생각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인이 되면 몸과 마음이 노쇠하여 약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연히 오해도 잘하고 노여움도 잘타고, 실망도 잘한다. 이와 같은 마음의 분노나 증오나 우울한 감정은 곧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우리 신체의 병에 대한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모든 질병에 쉽게 걸리게 한다. 감기를 위시하여 위장병이나 고혈압 심장병 등의 순환기장애도 유발하고 해소병과 같은 호흡기질환도 올 수 있다. 특히 근래에는 스트레스가 암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노후를 마음의 부담없이 즐겁게 사이좋게 살아야하며 특히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멀리하고 사는 노력과 지혜를 지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있어 의학은 물론이고 종교나 철학이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1991년 8월에 일본의 오키나와에 다녀왔다. 3박4일의 일정이었다.

오키나와는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나에게서 생소하지 않은 곳이다. 그곳은 일본의 최남단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현(우리나라의 도에 해당)으로 우선 장수의 고장으로 유명하고 세계 3대독사(毒蛇)의 하나인 「하부」라는 뱀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최대 해외군사기지의 소재지로도 유명하다.

그곳에서 관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전날 어느 토산품 가게에 들렀을 때 장수와 관계되는 흥미있는 물건을 하나 사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어로 「노렌」이라고 부르는 천으로 된 작은 현수막 같은 벽거리로 거기엔 「長壽心得」이라는 제자(題字)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진한 청색바탕에 흰 붓글씨로 염색되어 있었다.

### 長壽心得

人生은 60세에서 70세사이에 데리러 오거든(註. 죽음의 사자가) 「作業中!」이라고 큰 소리치고 쫓으라.

80세가 되어서 데리러 오거든 「아직 너무 빠르다」라고 잘라서 말하라.

90세가 되어서 데리러 오거든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타이르라.

100세가 되어서 데리러 오거든 「좋은 時節을 보아서 이쪽에서 알아서 슬슬 갈터이니 그리 알라」라고 말하라.

123세가 되어서 데리러 오거든 「長壽의會와 相談하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라.

오끼나와 豊見城村長壽里謹製

여기에 적힌 내용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노인이 되어도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에 떨지 말고 죽음에 대하여 태연한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라는 뜻이 되겠다.

이 노렌은 오끼나와에서도 유명한 장수마을인 豊見城村의 長壽里에서 제작한 것으로 그곳 사람들은 으레 90세이상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죽음의 사자를 우습게 알고 지내는 느낌이다.

나는 장수문제를 생각할 때 이 글속에 담겨있는 해학이나 풍

자를 머리속에 떠올리게 되었다. 과연 노인성 우울증에 빠져들기 쉬운 노년의 인생에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일깨워주는 오끼나와의 장수마을사람들의 장수심득이 좋은 치료제가 되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소개하게 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면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되면 가까이에 다가온 죽음에 대하여 생각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처하는 마음자세의 여하에 따라서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의의와 살아가는 기쁨을 명심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 간다면 여기에 소개한 장수심득의 마음가짐이 되어서 능히 탈없이 즐겁게 우리들의 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앞날의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정립되게 되어 있다. 실버타운(Silver Town)이나 실버산업도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면 장수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지금처럼 고역으로만 느껴지지는 않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생각은 실버층의 나이에 접어든 나의 바램이기도 하다.





## ❖❖❖❖❖❖❖❖❖❖ 29回 ❖❖❖❖❖❖❖❖❖❖

- ◎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실수(失手) 金 在 楨(29回)
- ◎ 五斗米折腰 ..... 김 순 욱(29回)
- ◎ 이역의 기적소리에 추억을 싣고 ..... 張 聖 洛(29回)
- ◎ 沐浴湯이야기 ..... 韓 鎭 慶(29回)
- ◎ 망향, 아내의 정성 ..... 김 정 재(29回)
- ◎ 꿈이여 다시한번 ..... 임 순 균(29回)
- ◎ 시각이 달라지는 미국영화 ..... 한 재 수(29回)





##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실수(失手)



(在美) 金在楨(29回)

그날 새벽에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두고 여유있게 일찍이 일어났는데도 지나치게 마음을 놓고 우물우물하다가 결국 예정시간보다는 늦게 되어서 조급하게 비행장으로 달려야만 하였다.

비행장에 도착하여 겨우 수속을 마치고는 급한 마음으로 소변(小便)을 보아야만 하였다. 조금히 변소에 뛰어 들었더니 소변보는 장치(서서 보는 便器)가 없었다. 모두가 앉아서 보는 변기(便器)뿐이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토록 불편한 공중변소(公衆便所)는 처음으로 보는 탓으로 나는 직각적(直覺的)으로 『設計를 더럽게도 하였구나』라고 設計士를 나무라면서 하는 수 없이 大便器에 소변을 보고는 물을 내린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을 때에 젊은 女子 한분이 나타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내가 男子便所に 왔는가?(Am I in the men's room?)”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런가 보지요 그럴수

도 있는 거지요 뭐.(May be. That is O.K…)"라고 응답(應答)할 때까지도 자기의 실수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내 응답이 끝나는 순간에야 내가 女子便所에 왔음을 느끼고는 "Maybe I came in the wrong Place." 라고 말하면서 머리빗을 손에 든 채로 변소에서 뛰어나왔다.

그때에 다른 女子들이 변소에 들어오는 것을 만났다. 내가 변소에서 나오자 女子들이 억제(抑制)없는 高聲으로 웃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급하면 침착성을 잇기 쉬웠던 威南中學 어린시절의 버릇이 가지지 않고 아직도 나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변소 입구의 男女 표식을 보지도 않고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그 女子들은 알 수가 없었으리라.

그들은 나를 변소 입구의 표식을 잘 읽을 줄을 모르는 서투른 外國人(東洋人)이라고 생각 하였으리라 본다.

나는 지금도 이 일을 회상하면 『 왜 男子들의 小便器가 없는 곳은 女子便所라는 직각적인 판단력이 없어 設計士를 나무라는 -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는 사고방식을 가졌을까?』 라고 자기 자신의 失手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본다.

나는 이 일을 회상 할때마다 人間社會에는 絶對的이고 완전 무결이라는 것이 있을수 없다는 것과 人間은 나이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실수(失手)로서 새로운 教훈(教訓)을 받으면서 사는것이라고 다시 느껴본다.

1994년 3월

## 五斗米折腰



김 순 욱(29回)

옛날에 중국에는 고용인의 월급을 쌀몇말로 정하는 제도가 있었다. 하기가 일본의 다이묘도 쌀몇백석, 몇만석하는 것으로 지위에 따라 영토를 주었던 것이다. 월급이 쌀다섯말(五斗米)이면 과히 높은 직분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직위가 중국 진(晉)나라때의 유명한 도연명(陶淵明)의 보수였다. 다 알다시피 도연명은 중국이 낳은 위대한 시인으로 62년의 생을 향유하고 (서기 365-427년) 이름은 잠(潛), 일설에는 이름이 연명이고 잠은 진의 멸망후의 이름이었다고 한다. 그는 젊어서부터 「고상한 취미에 박학하였고 文을 잘하였다」 하고 그러나 동양의 위인들이 대개 그런것처럼 가세가 곤궁하였다. 그의 대표적시인 귀거래사의 서문에는 이런말이 쓰여있다.

「나는 집이 가난하여 농사를 짓기는 하나 자급자족하지는 못하며 어린것은 실내에 차고 독에는 곡식이 없으니 생활의 자료를 얻고자하나 그 방도를 알지 못하겠다. 친구들이 많이 나에게 관리가 되기를 권하니 급히 그 뜻을 내었다가도 그것을 구할 길이 없었다. 이따금 사방에서 일이 있을때는 諸侯들의 혜택을

입었는데 가속이 나의 빈곤함을 돌보아 소읍에 임용케하였다. 때에 풍파가 아직 진정하지못하여 마음에 먼곳에 나가 일을보는 일에 꺼림이있었다. 평택은 집에서 백리를 떨어져있으며 이덕으로 술잔마시기에 족하였다 그런가답으로 이자리를 취하였다... 도연명은 이리하여 다섯말의 쌀에 목을매어 평택의 縣令이라는 자리에 앉았는데, 하루는 그의 직속상관이 사람을 보내어, 내가 내일 평택에 시찰을 나가겠으니 그대는 의관속대하고 성문밖 5리까지 나아와 나를 맞으라는 전갈이왔다. 연명은 그때 이미 그 상관의 사람됨을 좋지않게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이 통지를 받고 「너같은 소인에게 내가 오두미로 인하여 허리를 꺾을 수(折腰)없다하고 즉일로 인수를 풀고 직을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지은 시가 귀거래사이다. 관에 재직하기 80여일, 나이 41세때의 일이다. 귀거래사의 辭는 시의 한형식이며 귀거래란 돌아가자, 돌아가야지의 뜻이다. 그는 집이 가난하였으나 도를 즐기고 술을 즐겨마셨으며 산수에 노닐어 유유자적하였으며 스스로 밭갈아 전원생활을 시로 읊어 전원시인으로 알려졌다. 연명이 귀거래사를 지은후로 오두미절요란 낱말을 절개있는사람의 자존심을 일컫는 대표적어휘가 되었다.

기왕 귀거래사가 나왔으니 그시에 생소한 독자를 위해 조금 소개하여도 과히 나쁘지 않을상싶다. 첫구절이 歸去來兮 귀거래혜로 시작한다. 來는 助詞이며兮는 強意, 詠嘆의 助字이다. 돌아가리 즉 현령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자. 전원이 바야흐로 목정밭이 되려고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을것인가. 이미 스스로 마음으로서 육체에 사역을 하였으니 이모두 나의허물인바 어찌 근심하여 혼자서 슬퍼하고만 있겠는가. 지난일은 뉘우쳐도 고칠

수 없는줄을 깨달았으니 장래에 닥치는 일에는 추급하여 틀리지 않을것을 알았다.

실로 길을 잘못들어 방향을 어긋났다하더라도 그리 멀어진것은 아니니 이제부터는 옳고 어제까지는 글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략…이에 내집근처에 도달하여 나무를 가로지른 보잘것 없는 문간이며 처마를 바라보니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간 즉, 하인은 반가히 마중나오고 어린아이들은 문에나와 기다리고섰다. 문을 들어서니 정원은 잡초가 자라 거칠기 시작하였으나 술이며 국화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어린것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니 술이 통에 차있다. 술단지과 잔을 끌어당겨 스스로 잔질을 하면서 창가에 앉으니 무릎을 겨우 들여놓을만한 좁은 장소지만 이렇게도 마음편할수가 있겠는가…후략

귀거래사의 시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두미절요로 돌아가자. 내가 다섯말의 쌀에 매여 소인에게 허리를 꺾을수 없다는 이 오두미자존심은 가히 동양적선비의 높은 지조로 칭송받는 그런 스피릿이다. 그것이 요새처럼 물질이 흔하고 물질문명에서 나온 비뚤어진 마음에서 생기는 자존심이 아니라 도연명이 영위하는 가난한살림에서 「방에 그득한 아이들」과 「빈쌀독」의 처지에서 필사적인 자아보존같은 자존심인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요즘의 市井자존심은 성격이 좀 다르다.

하루는 내가 퇴근하려고 옷을갈아입고 있는데 어느직원에게서 전화가왔다. 내가 가는길에 어느어느 과에가서 우리가 청구한 아무 물품을 타서 갖다줄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면서 전화에대고 소리를 지르는것이였다. 「너는 내가 사환인줄 아느냐. 아무개가 할일인데 어째

서 내가 해야하느냐. 사람을 무시하지말라.» 상대방의 목소리가 한층 가라앉았다. 「아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 그런다. 나는 네가 그럴 의사가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할뿐이지 강제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그는 실제로 나의 아랫사람인것이였다. 나는 큰숨을 쉬고 의자에 앉았다. 건방진놈같으니... 그런데 퍼뜩 이런생각이 드는것이였다. 「가만있거라 내가 너무 화부터 냈는가, 하긴 이걸 내가 과거 오래 해오던 독선적사고인지모른다」.

그렇지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선 그런지모르지만. 도연명의 오두미절요를 거절한 자존심과는 질이 다른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오만일런지모른다. 따지고보면 자존심과 오만은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때로는 구별하기 어려울때가 있다는것이 솔직한 표현일런지모른다. 도연명이 오두미절요를 거절하고 관직을버린것을 안 그의상관은 아마 「교만한놈 같으니라고」하고 분노했을지 모른다. 사실 나는 그날 자존심과 오만을 혼돈하고 있었다고 나 자신이 느꼈던 것이다. 결국 나는 그가 부탁한일을 무슨 큰일이나 한것처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씩씩하고 부끄러운마음을 한동안 떨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툭터놓고 그에게 사과하지도 못하였다.(독자들이여. 아랫사람이 윗사람보고 이런말을 한국에서는 못할런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서양에서 일어난일이며 그다지 희귀한일도 아닙니다.)

하기는 여러분도 기록영화같은데서 보았겠지요. 서양의 대통령은 비행기서 내릴때 자기소지품, 손가방같은것을 손수 들고 결의사람, 경비원은 빈손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소지품을 들고내리는걸 본일이 없거든요.)

나는 헬스크럽에 다닌다. 보통은 후론트에서 싸인만하고 들어

가는데, 때로는 사람이 지켜서서 회원권카드에 적힌 유효기간과 또 더러는 사진이붙은 증명서를 보자하고 기어이 운전면허증을 내보여야 할때가 있다. 나는 얼마전까지 이런것들을 보자고하면 불쾌한 얼굴을했다. 그리고는 내보이면서 그사람의 얼굴을 못마땅하다고 째히 드러다보는것이다.

이녀석 나를 못믿겠니 하듯이.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다. 만일 멤버가 아닌사람들이 아무나 마구들어오면 그룹측도 곤란하겠고, 분위기도 말이 아닐것이다. 현관에는 이렇게 표시가 있다. 「당신의 멤버쉽카드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멤버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는 카드를 내보이면 내자존심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자존심이 어디있는가. 그리고 오두미절요의 자존심을 떠올리는것이다. 왜 虛若實의 정신을 실천못하는가고 되뇌어보아도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니 耳順의 나이를 지난지 한참되었어도 이렇게 허행만하고 있는것이다. 아아 오두미절요의 자존심이여.

내가 아는이는 며느리를 본후 독려하고 또 며느리도 애많이 써 공부하여 미국내 어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 독려한 시부모도 그렇고 의학교에 기어이 들어간 며느리도 여간 극성이아니고는 이일을 해낼수없다. 이미낳은 애기를 시부모가 키우고 고생고생 졸업했을때의 기쁨은 입학했을때보다 더했으리라. 시아버지되는 내친구는 텍사스시골에서 학교도다니고 집도있고 아들도 살고있고하니 텍사스내의 가까운 곳에서 인턴수련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며느리에게도 이르고 또 그렇게 될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며느리는 슬쩍 샌프란시스코에 신청하고 그리고 가게되었다고 시부모에게 알렸을 때 그시아버지의 노여움은 대단

한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게 전화로 화풀이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있는가요. 내가 어찌고 저를 키웠는데 내 자존심이 말이 아니지요.

그는 아이들이 아직 자기 지배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배력을 잃었다고 느끼자 자존심을 손상당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목에다 힘주었던 일들은 다 자존심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기 괜히 대소사에 우쭐대지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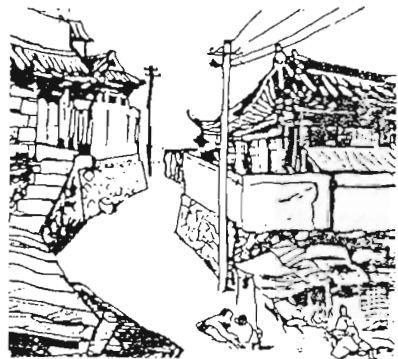
함경도 사람들의 강한 자존심은 특히 소문나 있다. 어느 선배의 “비함경도” 부인은 나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일이 있다. 함경도 남편은 가정적이고 좋은 남편감이예요. 단순하고, 함경도 사람은 다루기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자존심만은 안 됩니다.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되요. 그것만 잘 비위 맞춰주면 나머지는 다 좋아요.... 한국인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함경도 사람은 더한 것일까. 우리는 길을 걷다가도 서로 눈이 마주치면 자식 왜 똑바로 쳐다봐 하고 불쾌해하고 성난 얼굴을 한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눈이 마주치면 꼭 미소를 짓고 “하이”나 “헬로우”를 한다.

눈이 마주치고 상대가 자기를 쳐다보면 왜 자존심이 상하는가.

선진국이라 자랑하고 수백년 지배하던 불란서를 전투에서 이겨 내쫓고, 대신 들어온 미국의 행복을 받아낸 월남은 빈곤한 나라지만 자기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자존심은 대단하다고 하며, 반면 미국의 자존심은 크게 손상되어 아직도 그 치욕을 잊지 못하고 분해하고 있다. 1992년 필리핀의 공군 및 해군기지 차용재계약을 진행할 때 금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두 나라의 국민 여론이 분분하였다. 필리핀은 경제가 넉넉지 않은 나라인데 이 두



미국기지에 의존하는 현지주민의 취업과 연간 임대료는 그나라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필리핀측의 요구가 엄청난데 비해 미국의 제안액수는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필리핀국회는 이 임대계약연장을 전격적으로 비토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왈 「필리핀국민의 자존심에 걸어서 이 치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일수 없으며 재계약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제의 일시적어려움을 감수하고, 부결하니 미국은 이 두기지에서 즉각 철수하라」.



## 이역의 기적소리에 추억을 싣고



(在美) 張 聖 洛(29回)

나이든 탓인지 자정이 넘으면 잠이 깬다. 그러면 그리멀지 않은 곳에서 기적을 울리면서 달리는 기차소리가 밤하늘을 뚫고 요란스럽게 들려온다. 미국의 한도시근교를 달리는 야밤의 기차소리가 멀고도 먼 함흥평야를 달리던 옛 철마(鐵馬)의 포효(咆哮)속에 겹쳐 지면서 나의 회상의 날개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나의 뇌리에는 함흥역의 옛 모습, 조그마한 시골정거장들, 방학이 되어 고향으로가는 기차간에서 가졌던 즐거운 담소, 시골에서 있었던 일 등이 주마등 같이 나타나고 또 사라진다.

함흥역이 떠오르면 두가지일이 늘 생각한다. 남중(南中)에 입학하고 난후에 부친께서 처음 만나러 오시던 날 나는 아침 일찍 함흥역으로 나가 부친을 맞이하였다. 교복을 입고 가죽구두(編上靴)를 신은 나를 그야말로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시던 일이 어제일 같기도 하다. 역전보도에 부딪쳐 빠져거리는 구두소리가 그날은 유난히도 요란스러운 것 같았고 나의 가슴은 자랑과 기쁨으로 가득차 있었다.

또다른 하나는 함흥역 매표구앞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마 2학

년 여름방학이 시작된 날이 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함흥역에 일찍 도착한 나는 매표구앞에 길게 늘어선 줄의 앞부분에서 있었다. 뒤를 돌아다 보니 낮익은 얼굴을 한 여학생이 맨 뒷줄에서 있었다. 1년전까지만 해도 같은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소학교 동창생이었다. 나는 그동안 눈에 띄게 어른스러워진 그녀가 약간 거북스러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옆으로 다가가서 앞줄에 있으니 차표를 함께 사준다고 하였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양손가락을 비비면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다시한번 말을 건넸더니 이번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들어갈 듯 말문을 열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앞에서 남학생으로부터 친절한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난처했던 것이다. 주변 학생들이 재미있다는 얼굴로 실실웃고 있더니 급기야 폭소를 터트렸다. 헛 웃음을 치면서 내자리에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남녀학생이 서로 얼굴을 안다고 해서 사람들앞에서 함부로 친절을 베풀다가는 호기심과 웃음의 대상이 되기 쉬운 시대였다.

1년사이에 부끄러움을 타는 여학생이 되어 나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든 그녀가 지금도 가끔 뇌리에 떠오르는 것을 보니 내가 아마 그녀를 좋아했던 모양이지... 하며 혼자 웃어보기도 한다. 그후 그녀를 또다시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제 나같이 60대의 반을 넘었을 것이고 어떤 노인한 사람이 이역땅에서 기적소리에 잠이 깨어 옛날의 자기모습을 떠올리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고... 방학이되면 학생들은 남으로는 원산, 안변까지, 북으로는 이원, 단천까지를 향해 함흥역을 떠났다. 안변방면

에는 이호윤군이 있었고 단천방면에는 김재범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호윤군은 마음이 너그러워 “형님같은 동기생”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김재범군은 비바람 뚫고 수천리라도 당장 달려갈 듯 기개가 있었고 영웅숭배론에 곧잘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수년전에 기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그에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였다. 귀성길에 오른 학생들의 담소는 그칠새가 없었다. 함흥평야지평선으로 저물어가는 태양을 차창 밖으로 바라보며 우리들의 가슴은 다시만날 부모형제와 친척, 그리고 즐거울 방학에 대한 생각으로 부풀어 있었다. 영흥역에는 늘 어머님이 동생과 함께 마중나와 계셨다. 우리는 읍내에 살고 있었지만 나의 귀성길은 그이튿날 부친님과 함께 강을 건너 장씨가문이 모여 살고 있는 본고향에 도착해야만 끝난다고 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큰집에 계신 할머니에게 큰절을 리고 동네 윗어른들에게 인사올리고 나야 나의 방학이 시작되는 것이다. 젊어서 남편과 사별한 큰어머니는 논밭일을 해가시면서 자그만치 2남5녀를 혼자서 뒷바라지하느라고 무척 고생하셨고 얼굴에 어려운 세월자국이 역력했지만 원래가 미인인데다가 서글서글한 성격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특히 머슴들이 그러했다. 농한기에는 머슴들이 큰집에 드나들기를 자기집처럼 하였다. 큰어머니는 그들과 농담도 잘주고 받고 하셨으나 그들속에 끼어들어 같이 떠드시는 일은 없었다.

머슴들과 동네 젊은이들이 자주모여 앉아 노래자랑들을 했다. 그들의 노래는 대개가 애조를 띤 슬픈곡들이었다. 야밤에 화투 치다가 곧잘 10여리되는 국수집을 향해 떼를 지어 떠나기도 했

다. 동네입구에 있던 서낭당(城隍堂)을 지나 한참가면 바람소리 사나운 시꺼먼 솔밭이 있는데 이솔밭 가운데 길을 거닐때는 등골이 오싹오싹했다.

그러나 시골아가씨들은 화투만 잘치는 것이 아니라 밤길도 잘 걸었다. 겁도 없이 날아가는 듯 빨랐다. 이솔밭을 지나면 사면이 확트이고 평탄한 시골길이 계속된다. 낮에 햇빛이 화창할 때 이길을 걸으면 달구지타고 소목에 걸린 딸랑대는 방울소리에 맞추어 소리높이 한곡조 뽑아 대는 농부들과 자주마주친다. 그 달구지 굴러가는 소리, 그방울소리, 그농부들의 화창한 노래 소리가 지금도 내귀에 들려온다.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동네를 이룩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면에서 좋았다. 결혼식에는 온동네가 함께 들뜨고 함께 바빴고 제삿밥은서로 돌려가면서 먹었다. 밤중에 큰어머니가 깨워서 먹던 돌려온 제삿밥의 맛은 영영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도저히 견딜수가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마을에 상사(喪事)가 생겼을 때 언덕옆 촌막에둔 행상(行喪)을 꺼내어 메고다니는 상여꾼들의 상여소리였다. 그 행렬이 논뚝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산기슭으로 향할때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고 제발 그 상여소리가 더이상 바람을 타고 내귀에 들려오지않기를 원했다.

이런일이 있으면 며칠동안 동네근처의 묘석(墓石)들이 이상하게 내눈을 자극하였고 숙명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저렇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구슬픈 상여소리를 안듣는 어떤 먼곳으로 빠져나가야지하고 속으로 외치곤 하였다. 그럴때는 옛날 부친께서 시골에서 그냥 파묻히는 것에 공포를 느껴 할아버

지의 땅문서를 일부훔쳐 처분하고 처자를 시집에 둔채 일본으로 향학의 길에 오르셨다는 이야기가 수궁이 갔다.

큰어머니는 한번 “너의 아버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결과 읍내에 사는데 너의 큰아버지는 노는 데만 정신을 팔았으니 이렇게 시골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도 고생한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하셨다. 큰아버지는 사람이 좋고 낙천적인 분이셨다고 한다. 소학교때 동생(저의 부친)과 함께 아침에 집을 나서기는 하나 출발에만 오면 그냥 떨어져 만나절을 야외에서 뛰놀며 도시락도 잡수시고 하다가는 다시 동생과 합쳐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한 큰어머니의 말씀은 일찍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였을 뿐이고 시골생활에 대한 푸념은 아니었을 것이다. 땅문서 훔쳐판 죄책감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부친께서는 할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대단하셨다고 생각된다.

할아버지에게는 생전에 작은할머니 또한분이 계셨다. 귀성했을 때는 한번도 빠짐없이 나를 데리고 작은 할머니를 찾아뵙고 인사올리도록 하셨다. 아버지와 아들사이의 의리(義理) 또는 남자와 남자끼리의 굳은 묵계(默契)라고나 할까, 그런것이 할아버지와 저의 부친사이에 있었던 것 같다.

머슴들과 격의없이 잘지내시던 큰어머니는 공산정권이 들어선후에 별탈 없이 무사하셨다. 그러나 옆동네에 살던 땅 많고 과수원을 갖고 있던 집은 그렇지가 못했다. 그집에는 원산에서 여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나는 여름방학에 특하면 그집 옆에 있던 언덕위에 올라가 과수원쪽을 내려다보곤 하였다.

막연한 기대... 혹시 그녀와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그러나 해방후 몇달안되어 재산을 몽땅 잃고 가족전

체가 월남해 버렸다는 이야기를 후일에 들었다.

큰집에서 며칠 지낸후에는 읍내에 있는 내집으로 돌아와 독서도 하고 극장출입도 하면서 보냈다. 나는 원래 연극을 좋아했으나 그 당시에는 소위 국책(國策)영화가 판을 쳤고 가끔시골에 찾아드는 서커스는 중학생체면에 관람하기가 거북했다. 나의 흥행물에 대한 흥미는 서너살때 둘째누나를 따라 신파(新派)와 서커스구경을 했을 때부터 생겼다. 누나는 자기 또래 아이들을 곧잘 집에 끌어드려서는 자기들끼리 신파를 꾸미곤 했다.

나도 졸라서 한역활을 맡기도 했는데 하루는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을 달리는 기차에 손수건을 흔들면서 우는 시늉을 하다가 진짜로 울어버린 일까지 있었다. 낙랑(樂浪), OK, 황금(黃金)뽕뽕등 갖가지 이름을 가진 유랑(流浪)극단, 순회곡마단들이 찾아들기만 하면 온시골이 들썩거렸다. 나팔을 불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흥행을 알리는 대열이 지나갈때 어린 내가슴은 풍선처럼 부풀었다. 그때들던 그 나팔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웠던지! 골목대장에 이끌리어 자칫하면 깃발을 메고 다닐뻔 했다가 극장옆을 서성거리던 누나한테 들키어 집에 돌아온 일도 있었다.

코를 훌쩍훌쩍들이키는 아이들이 깃발을 메고 다니고 나면 손바닥에 도장을 찍어 받는데 저녁에 그 손바닥도장을 보이기만 하면 무료관람이 되는 것이다. 더운 여름날에는 손바닥도장이 땀에 지워질까봐 우리집뒤에 있던 콩마당(수매한 콩, 미곡 등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던 넓은 공터)에서 아이들은 공차기도 하지 못했다.

어린시절의 이야기에서 중학교때로 다시돌아오자. 긴방학동안 극장구경을 실컷하고 학교에 다시돌아오면 몇몇학우들과 영화

배우의 이름을 대가며 또 영화평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동급생들은 그다지 영화에 흥미가 없었던 것 같다.

박승택군이 영화주제가였던지 영화대사였던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차창밖 저산(山)의 모습도 호숫가의 물결도 조용히 조용히 사라져 간다”로 시작하여 “나는 이추억들을 가슴에 안고 혼자 나그뱃길을 떠난다”로 끝나는 구절(대략 적은 구절)을, 줄줄 암송하고나면 주변 동급생들은 모두 경의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박승택군은 “유우머”감각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았다.

영흥에 친척(고모?)이 계셔서 방학때 그곳을 방문한 그를 뿔뿔 따는 아가씨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길을 따라 찾아간 일도 있었다.

큰차들이 철마(鐵馬)같이 달리던 함경본선(咸鏡本線)에 얽힌 추억은 이제 그만하기로하고 서함흥역을 중심으로 흥남과 오로리사이를 왕래하던 기동차에 얽힌 기억들을 더듬어보자.

해방후 거의 1년을 오로리 바로 앞정거장인 장흥에서 성냥갑을 이은 것같이 자그마한 이 기동차를 타고 통학을 했다. 성천강(城川江)과 반룡산(盤龍山)을 양옆에 바라보며 차창가에서 따가운 아침햇살을 또는 붉은 석양빛을 온몸에 받아가며 통학하던 일이 어제일 같고 기차가 연발(延發)할때 “플랫폼오음”을 거닐면서 바라보던 달빛들이 눈에 선하다. 기차는 아침저녁으로 술한 남녀학생들을 뺄고 또다시 실어나르고 했다.

연애편지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누나에게 들킨것도 이때다(극단깃발 멜쩍하다가 들킨것 처럼). 용기가 없어 편지를 건네지 못하다 하루는 산수정(山手町) 아주좁은 골목길에서 2



년 선배님이 지나치던 여학생의 손목을 덩석잡더니 “몇시지요” 하고 묻던 장면을 목격하고나서 다시 용기가 북받쳐 오르는 참이었던는데... 선배님들 가운데서 혹시 이말에 마음이 쏠리시는 분이 계시면 다음회지에 그때 이야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농담).

학도동원때 성대예과(城大豫科)형님들과 함께 홍남공장에서 일했는데 내가 큰 병에 걸려 입원하기 며칠전에 가깝게 지내던 오(吳)씨 성가진 형님으로부터 “니이체”에 관한 책을 선물받았다.

삽화도 있고 아주곱게 장정된 책이었고 또 생전처음 받아보는 어른스러운 책선물이었기에 나는 오로리 기차통학시에도 늘 그 서적을 갖고 다녔다. 내용을 잘 알리는 없지만 이 철학자의 잠언(箴言), 경구(警句), 시적 표현들이 매우 아름답고 멋이 있는 것 같아 째째 읽곤 하였다. 그래서 여학생들사이에서 “철학동이 철학자” 또는 “나홀 모자라는 철인”이라는 별명을 받았다(왜 하필 “나홀”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공연히 심각한체 하고 철학서적을 끼고 다니는 모습이 꼴사나웠던 것 같다.

오로리의 동창들은 어딘가 낭만적이고 예술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다. 나는 특히 김재필군과 친했는데 그는 자주 “베르레-느”의 시를 읊었고 또 둘이서 주북의 산골짜기를 헤메고 돌아다닐 때는 그의 입에서 그 당시 애창되었던 대강 다음과 같은 취지의 시구절이 터져나오곤 했다.

“산 저편 하늘 멀리 행복이 산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나는 벗과 함께 그곳을 찾아 나섰는데

그냥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저편 하늘 멀리 행복이 산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오로리파의 또 하나의 거장 최석훈군은 해방후 일찍 월남했기 때문에 기차통학을 같이해 본적은 없었으나 이런 종류의 시구절을 그도 아마 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고인이 된 도중호군도 십여리되는 차길을 따라 일요일에 가끔 우리집에 찾아왔다. 그는 마음이 착했고 휴전후 전방에서 서울로 휴가나오면 술도 곧 잘 사주었다. 이방수군은 “The use of Life”같은 영어책을 열심히 기차칸에서 읽었고 서로이야기 할때는 교훈이 될 말들을 자주인용하였다. 서함홍역으로부터 첫번째 정거장에서 타고 내리고 하던 한진경군은 암전하고 학교성적이 좋았고 늘 사람을 웃음으로 대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제일 가깝게 지낸 오로리친구는 역시 김재필군이였다. 그는 문학소년이었고 주북의 산과들을 거닐면서 “지—드”의 작품을 이야기했고 “아리사”니 뭐니하면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주북에는 사과밭이 많았고 나도 역시 옛교과서에 있던 할아버지와 손자의 다음과 같은 대화를 암송하곤 하였다.

“할아버지 죽으면 뭘이 되지?

응, 죽어서 흙이 되지.

흙이 되어서 또 무엇이 되노?

응, 저빨간 사과를 맛있게 만드는 비료가 되지.”

무엇보다도 나는 김재필군에게서 “음악감상”이란 것을 배웠다. 그의 집에서 자게되는 날에는 방안의 불을 끄고(꼭 밤에 감상할 때는 불을 켜다) 기와집 처마끝에서 흘러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면서 고전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엄숙한 분위기와

재필군의 진지한 얼굴에 짓눌려 나도 진지한 얼굴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말버릇처럼 “마도로스”가 된다고 했는데 결국 원산에 있던 선원을 양성하는 해양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6·25가 터지고 해군으로 편입되어 전사했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다. 그것이 뜬소문이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졸업후 많은 동창생들이 남한으로 내려갔으나 함흥근처에 남아있던 29기생들은 계속 서로의 접촉을 유지하였다. 선비같이 곧고 점잖은 한의천군이 결혼할 때 7~8명이 그의 시골집으로 몰려갔고 집주변 넓은 뜰을 흐르는 시냇가에서 천렵을 하며 놀았다. 변구하군의 결혼식을 위해 10여명이 선물로 마련한 체경(體鏡)을 교대로 메고 50리길을 걸어 갔던일도 있었다. 또 얼굴이 곱게 생기고 언제나 단정한 몸차림을 한 김재정군집을 7~8명이 찾아들어 쌀귀할때 몇끼를 퍼먹고온 생각도 난다. 이모든 기억들이 아직은 생생하지만 더 나이를 먹으면 점점 의미해 질까봐 걱정이다. 나이가 들면 자기자신의 소년시절모습도 아리송하게 된다.

내가 동기들의 옛인상을 이름을 들어가면서 애써 적고 있는 것도 이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저러나 미국 한도시의 근교에서 야밤의 공기를 울리면서 지나가는 기찻소리가 있는한 이러한 나의 추억들은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확대되어 갈 것 같다. 언제 고향땅을 밟을 수가 있을까?

앞으로 내가 찾아갈 고향길은 함흥에서 부터 달리던 기찻길, 또 달구지 끄는 소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딸랑대던 시골길만

이 아니다. 그것은 태평양을 건너 38선을 넘어서 달려가는 더  
넓고 긴 길이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실향민들의 대열이 자기고향을  
찾아갈 날이 하루바삐 오기를 바란다. 많은 실향민들이 노쇠해  
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또 그들의 부모님들도 아마 이제는 거  
의 다 타계하셔서 묘소만이 슬프게 남아 있을 것이지만...

1994년 6월 26일



## 沐浴湯이야기



### 韓 鎮 慶(29回)

나에겐 오랜 生活慣習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月曜日 아침마다 大衆목욕탕으로 가는것이다. 대개 일곱시경에 동네 목욕탕으로 가는데 한시간가량 걸린다. 요즘은 아파트生活을 하는 家庭이 많고 單獨住宅도 웬만한 집엔 大部分 샤워나 浴槽시설들이 있어 손님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거의 늘 그 時間帶에 만날 수 있는 낯익은 얼굴들을 볼수있어 자연스럽게 인사도 교환하게되고 世上돌아가는 이야기도 주고 받게된다. 庶民的인 보통사람들의 體臭같은 것이 느껴지는 霧圍氣가 감돈다. 盧전대통령이 任期를 채우고 靑瓦臺를 떠나게 될 무렵 빨리 私邸로 돌아가서 동네 목욕탕에도 자주 다니고 싶다고 말 하였다는데 바로 이런 霧圍氣를 좋아했기때문이 었으리라 생각된다.

대중탕의 제일 魅力的인 점은 널찍하고 뜨끈뜨끈한 탕속에 온몸을 푹 담글때일 것이다. 한週日동안의 굳어진 筋肉과 마음의 疲勞가 봄날에 눈녹듯이 풀리는듯 하는 瞬間이다. 지그시 눈을 감고 冥想에 잠겨보면서 지난 一週日동안의 生活을 反省도 해보고 새로 始作되는 今週의 主要한 계획도 세워본다. 그 다음

엔 내가 물속에서 하는 몇가지 水中動作이 시작된다. 양쪽 어깨關節 휘돌리기를 하는데 교대로 각각 백번씩 한다. 다음은 팔꿈치와 무릎關節을 폼다 구부렸다하여 左右 각각 백번씩 한다. 옆에 딴사람이 없을때는 발로 힘차게 물장구도 쳐본다.

내가 이 水中 팔다리運動을 시작한것은 아마 十年가까이 될성싶다. 처음에는 오른쪽 팔꿈치關節이 느닷없이 아프면서 팔에 힘도 줄수 없게되고 조금만 무거운 것이라면 들어올리 수도 없었다. 所謂 “테니스 엘보우”라는 것이다.

손쉬운方法으로 이약 저약 먹어보았지만 잘 듣지 않았다. 아직 手術도 해야하고 손수運轉도 해야하는데 은근히 걱정이 됐다. 결국 個人病院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權威있다고들하는 S大學病院整形外科까지 찾아 關節內에 注射를 맞는 治療를 받으면서 어지간히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한시름 놓았다 했는데 山넘어 山이라던가. 이번에는 그 病勢가 오른쪽 어깨關節로 올라갔다. 늙어가는것도 서러운 판에 五十代에 많이 생긴다 하여 이름붙여진 五十肩이 온것이다. 이病은 어깨關節 주위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老化현상으로 退行性變化를 일으키는데 통증때문에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면서 어깨關節은 점점 더 굳어져 더욱 活動에 지장을 받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이런 증세때문에 五十肩을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은 어깨라해서 凍結肩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누가 제기洞 漢醫院골목에 鍼術이 아주 용한 漢醫院이 있는데 漢方醫學을 그리 과소평가만 하지말고 한번 맞아보라고 권유해 가보기도하고 東大門 근처의 鍼術院에도 가보았지만 効果는 別로 없었다. 이러면서 시작한것이 앞에서 말한 목욕탕안에서 하는 運動療法이 物理治

療를 겸하는 제일 실속있는 治療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보았다. 처음에는 남들의 눈을 意識하여 쑥스럽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그럴 必要가 없었다. 목욕탕에서보면 여러 風景들이 많다. 여러가지 徒手體操를 하는 사람. 제자리驅步를 하는 사람 엎드려팔굽히기를 하는 사람 熱湯과 冷湯을 부지런히 왔다갔다하는 사람, 汗蒸室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 唄이나 흘러간 流行歌를 흥얼거리는 사람. 그야말로 가지각색이다.

元來 목욕의 가장 단순한 것은 모발이나 몸을 씻어 더러움을 제거하는 동기에서 나온것이다. 人類는 먼 옛적부터 宗教的인 因習에따라 목욕文化를 지켜왔다. 원시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不潔의 관념이 농후하다. 이 不潔에는 사람이 죽을 때 動物을 죽일 때 出産할 때 結婚 등 未知의 사람을 만날 때 近親相姦과 같은 不倫 女性의 月經이나 妊娠할 때 病에 걸렸을 때 특히 농후하다고 한다. 不潔에는 個人的인 것도 있고 集團的인 것도 있으나 이를 放置하면 災殃을 받는다고 믿기때문에 이것을 淨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로 목욕하는 方法에는 물을 퍼붓는 方法, 물이나 물에 어떤 藥物을 탄 물 또는 뜨거운 물을 채운 浴槽에 들어가는 方法 蒸氣浴, 江물이나 海水를 利用하는 方法들이 있다. 힌두敎에서는 갠지스江을 신성하게 보고 더러움을 제거하고 淸淨을 얻기위하여 목욕하는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슬람敎의 寺院앞에는 목욕장이 있어 參拜하기전에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規則이 있다.

印度의 佛敎에서는 淸淨을 얻기위하여 가까운 江에 뛰어들어 가기도 하고 基督教에서도 洗禮 浸禮를 중요시 하는 宗派가 있

다. 아프리카의 골드코스트族은 屍身을 매장한 후에는 근처의 江에 가서 물로 몸을 적셔야하는데 장례에 있어서 이와 같은 風習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에스키모의 產母는 完全히 몸을 씻어야하고 北美의 인디언은 江가에 마련된 집에서 蒸氣浴을 한다. 또 목욕을 子息의 획득 疾病의 豫防治療의 수단으로 행하는 일도 있다. 인도네시아東部の 스란고르 고른 안本地方에서는 자식을 얻으려 할 때는 夫婦는 정해진 方法에 따라 목욕을 한다. 南아메리카의 히바로族은 어느 집에서 초상이 나면 죽음을 복으로 마을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때 모든 집에서는 표주박으로 물을 퍼서 아이들의 머리에 끼었는데 그러면 아이는 病魔에서 모면된다고 믿고 있는것이다.

물이 象徴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오스트렐리아의 쿠르나이族들이 하는 成年式에서 볼 수 있다. 이때 어머니와 성년식을 받는 아들에게 물을 퍼붓는데 이行事は 母子의 분리를 상징하고 이후 아들은 어머니의 支配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돌아볼 때 물이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當然하고 常識的인 理致이나 宗教的으로 물은 神性, 生命力 美의 觀念이 있고 淸淨하는 힘 呪力, 不死의 힘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나의 이러한 목욕탕을 利用한 運動療法은 현저한 效力을 가져와 不便한 증세들이 없어진 후에도 꼭 계속하고 있다. 몸도 청결히 씻고 關節病도 예방하고 前날의 登山에서 생긴 筋肉긴장도 풀어주는 一石三鳥의 利点을 얻고 있는 것이다. 나는 日曜日에도 午前 열시에서 열두시까지의 두시간동안 患者들을 診療하고 있다.



나의 이러한 진료시간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일요일인데 아침부터 쉬라는 勸誘도 많이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患者 또는 일요일밖에 時間을 낼 수 없다는 患者들을 위해서 지금껏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午前일이 끝나면 한시경부터 登山을 하는데 시간도 짧기때문에 主로 僧伽寺로 올라간다. 거리도 비교적 가까운 데다가 登山路도 험악하지않고 시끌시끌한 놀이꾼들도 없으니 혼자 조용한 마음으로 두세시간정도 걸기에는 안성맞춤인 코스다. 所持品이래야 어깨에 멘 조그마한 가방속에 김밥도시락과 물병 하나면 족하다. 더우기 山門에서 가파르게 올라가 大雄殿옆을 지나 높다랗게 뻗친 百八階段을 한발 한발 숨차게 올라가면 市內에서 각종 公害로 오염될대로 오염된 공기만을 마시던 氣管支나 肺를 한바탕 시원하게 “보링”하고 山寺의 깨끗한 공기를 肺胞 구석구석까지 채우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同時에 이 階段을 오르면서 우리 衆生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백여덟가지나 된다는 百八煩惱를 조금이나마 털어버리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願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頂上의 磨崖大佛앞에서 멀리 아득하게 보이는 汝矣島 六三빌딩까지를 한눈에 내려보면서 넓다란 浩然之氣같은 것을 가져본다. 東山에 오르니 唐나라가 작고, 泰山에 오르니 天下가 작다고 하였던가 이렇게 일요일 午後의 山과 월요일 아침의 목욕탕물은 나의 生活에 여러모로 그 어떤 의미를 주는 것같다. 얼마전에 涅槃한 性徹스님의 말 대로 정말 山은 山이요 물은 물이로구나 하고 그 뜻을 내 나름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가끔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는 사람들 때

문에 氣分이 상할때가 있다. 처음부터 탕 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사람 아무데나 가래침을 함부로 요란하게 뱉는 사람 샤워 옆에서 면도를 하면서 더운 물을 그냥 계속 틀어놓고 흘러보내는 사람 목욕을 끝내고 젖은 몸을 닦으면서 목욕탕에서 제공하는 마른 수건을 몇 장씩 마구 써대는 사람 扇風機를 틀어놓고는 끄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 수건 한장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물과 세제 그로인한 環境汚染을 생각한다면 物資節約과 요새 흔히 말하고 있는 그린精神을 끊임없이 계몽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國民의 平均 教育水準이 높은 나라인데 목욕탕 風景이 그나라 教育水準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곤란하다. 오늘의 목욕탕에 우리의 民度가 있다고 생각하면 先進國에의 길은 까마득할것이다.

나의 診療室을 찾는 患者들을 보면 너무 목욕을 자주 해서 생기는 皮膚疾患들이 많다. 患者들은 목욕탕에 갔다온 후 그 증상이 생겼다하며 마치 만 사람한테서 傳染되어 걸린 것처럼 呼訴하는데 大部分 그렇지 않다. 비누를 너무 심하게 使用하든가 때를 말끔히 없앤다고 깔깔한 所謂 이태리타올 같은 것으로 너무 심하게 문질러서 오는 알레르기性 또는 刺戟性 皮膚炎등이 많고 그렇지않아도 空氣가 차고 乾燥한 겨울이나 이른 봄철 비누를 너무 자주 대면서 皮膚가 더욱 건조해져서 오는 皮膚搔痒病이 많다.

人體의 皮膚表面에는 酸膜이라는 外部로부터의 病原體의 浸入을 막아주고 皮膚에 柔軟性도 주는 保護膜이 있는데, 너무 목욕을 자주 하거나 알카리性인 비누를 자주 使用함으로써 이 防禦裝置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이다. 患者들한

데 목욕을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타일러 줄 때면 每日같이 목욕을 한다는 사람들이 意外로 많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래야 文化的인 生活을 하는 階層에 속하고 있는 양 錯覺하고 있는 것 같다. 每日같이 목욕탕에 가서는 목욕이 끝난후 까운을 걸치고는 잘 꾸며진 휴게실에서 낮잠이나 자면서 빈둥빈둥 無爲徒食하는 사람들. 按摩시술소라는 看板이 함께 붙어있는 무슨 무슨 莊旅館 같은 곳에 뻘질나게 드나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야 어찌 健全한 社會風土와 목욕文化를 이룰 수 있겠는가.

로마가 목욕때문에 滅亡했다는 歷史的 敎訓을 다시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도 제대로 없는 劣惡한 住居환경에서 不便하게 살던 때 그리 많지도 않고 施設도 빈약하기 짝이없는 대중탕에 가면 언제나 바글바글 사람들이 몰려있어 어렵게 한쪽 구석 빈 자리를 차지하고는 그동안 밀린 때를 정신없이 벗기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호강을 하고 있다. 경제水準이 높아져 호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의식水準이 못 따라가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社會는 지금 여러 分野에서 제도와 의식의 改革運動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生活에서 흔히 겪는 잘못된 慣行부터 하나 하나 改善해 나가야 한다. 지금 전개하고 있는 새秩序 새生活운동에 대해서도 그전運動? 往年에 다 해본것 아니냐는 식으로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參與努力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때 나의 월요일아침 대중탕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될 것이고 그 걸음 또한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 망 향



김 정 재(29回)

작사, 작곡

*Andante*

간 밤에 꿈-길에서 찾아간 배-고-향  
 갈 때 기 넘나드-는 비고 함 저하늘마 래

타 완 땅 철 리길-을 이이 하여 홀로 왔던 가  
 지 음 도 변 함 없-이 잘 앓-는 내 령 제 들 사

그 리 읍 에 배 타는 소리 정든 산천 그 고 향에 매 려 처가 도  
 뭉 게 이 게 울 부 째 이 도 소 식 조 차 전 할 것 없 는 안 락 가 음 들

길 - 앓 은 나그 내 서 름 그 누가 달 래 주 려 나  
 갈 때 기 아 전 회 주 려 마 그 리 운 여 버 남 소 식

한 - 많 은- 타 향 사 길 에 청 춘 만 뉘-어 가 네  
 불 호 자 는- 자 읍 태 켜 도 황 혼 이 지-러 가 네

# 아내의 정성

김 정 재 작사 작곡

Andante

그 옛 날 - 철 무진 어린 시절 이 느닷 새창든가 고  
 그리움 - 못 가신 나발들을 혼자서 이겨내면 서

곱갈이 - 아득-한 못 앓을 그리운노 래  
 어려운 - 살림살이 꾸러운 망신 정성 이

신혼 할 - 떠나던 그머 모습 지 굶도 그려보면 서  
 커가 는 - 아이들 웃음 속에 곱-게 피여 있는 듯

못다 한 - 사-랑 속-에서 주름살 늘어만 가 도  
 경다운 - 아 이들 마음 속에 사 랑을 심어 주면 서

꽃은 일- 마 다- 양-교- 애 써온 당신 정성 을  
 못다 한- 정 섬을 쏟아가며 애 써온 당신 모습 은

언제 나- 내 맘속 깊은 못에 곱-게 안착 하- 리  
 영농한- 장미꽃향기 속에 홀 로 핀 수선화여 라

## 꿈이여, 다시 한번



### 임 순 균(29회)

외길 40년의 교직생활의 마지막을 공립학교(중학교)에서 보내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해가는 사회의 한단면을 보는 듯하여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교직원만이 모인 자리에서한 퇴임사에 다소의 수정을 가하였으니 문장에 기복이 있음을 이해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 넘으면 혹시나 하고 살아오기를 65년, 세월을 쫓기를 40여년 때론 너무 무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참으로 오랜 세월 억세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 다른 길에 접어들었다면 지금쯤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모진 풍상을 겪으면서도 「오늘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심정으로 살았으니 큰 후회는 없지만 젊은 날의 시련속에서 잃히게 된 변증법적사고는 어느새 나의 가치관의 중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사람은 본래적으로 선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의 힘으로 선악이 크게 뒤바뀌는 것도 아닌 듯 싶다. 너무 이지적으로만 살면 모가 나고 정에 치우치면 흘러가기 쉽고 합리성만 찾으려면 정이 없게 되고 효율에 지나치면 인색해

지니 살기란 쉬운일만도 아니다. 더욱 성취에는 집념이 필수적이지만 지나치면 모든 이에게 누를 끼치니, 사람은 사물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의미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 의미부여는 나 자신이고 보면 나는 자신의 주인임과 동시에 세상 모든 것들의 가치의 주인이 아니던가. 행, 불행을 느끼는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어찌하였거나 60후반에 접어들었으니 생명의 위경감에 머리 숙이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존중하고 아끼는 나이가 되었다.

나이 따라 세상보는 눈도 달라지지 않았던가. 인생은 무엇을 이루지 않고 있기에 길지만, 무엇인가를 이루기에는 짧더라. 또 세상은 깨끗한 것만도 아니고 공평한 것만도 아니더라.

복잡한 세상 살다보면 모르는게 약이 될때도 있다. 온갖 것 다 보고 다 알면 名과 利에 이로울지 몰라도 속으로는 오히려 번뇌가 쌓인다. 자신에게나 나라에 중대한 일이 아닐 바에야 석양을 관조하는 자세로 대범하게 사는 것도 어떠하리. 정치가 허망해 보이고 현실이 어두워 보이는 것도 맹송맹송한 정신의 탓이지 술에 취하고 나면 분홍색인생인데 술에 취하지도 못하고 대작할 벼도 사라지니 음악에나 취해 보자.

46년 5월 우울한 심정으로 중학졸업, 대학재학중에 6·25동란이 발발하였다. 발생 2개월전 부터 인민군의 38선 근방에로의 대이동 1개월전부터의 병원간호원의 동원등 이북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을 오늘까지도 남침이니 북침이니 하는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지식인에게 환멸을 느낀다. 중국의 오학겸이 한국에 와서도 겨우 「한국전쟁북침」의 수정을 시사하고 있으니 그들이 나쁜가 우리가 무력한 탓인가. 언제 중국이나 일본

이 대국적안목에서 아세아 평화에 이바지한 역사가 있었던가. 덩치는 커서도 경제력은 있어도 자기만을 아는 옹졸한 국가들이다. 남쪽에서 쳐들어왔다고 우겨대고 지금도 I.A.E.A.의 사찰은 원만하게 끝냈다고 우겨대는 그들에게 당근이니 채찍이니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그것도 이성가진 나라인 경우이지.

「패트리오」미사일배치는 이북 온건파를 자극한다느니 하는 말은 이북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치이다. 오직 불상한 것은 북한동포들 뿐이다. 길어서 1개월이라는 약속만 믿고 가족과 헤어져 홀로 눈보라 치는 홍남부두에서 고향을 등지는 신세, UN군의 함포사격에 오히려 걱정되는 가족, 부두에서의 화염, 배에 올라타려는 피난민의 아우성... 승선한 배위에서 흐르는 눈물에 두고온 가족, 그리고 산하가 뽕양게 보이던 기억 지금도 뇌리에 선명하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그런 것만도 아닌 듯 싶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 전보다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은 나이 들어 이승과 저승의 연결고리로 느껴지는 까닭일까. 죽기전에 헤어진 혈육을 만나고 더욱 어머니앞에 사죄하고, 돌아가셨으면 영전에 실컷 울고 싶다.

군복무를 마치고 부산송도의 「바락그」교실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하였다. 환도후에는 서울 東北高(15년 재직)에 근무하였다. 비록 환경이나 시설은 보잘 것 없어도 오직 조국재건이라는 명제아래 정열만으로 살던 시절이었다. 가난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희망을 상실할때 불행해지는 것이다. 사제간의 정도 동료간의 우의도 깊고 교무실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하여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즐겁기만 하였다. 이 시절의 교육방법은 주로 주입식에 스파르타식이었지만 인격적으로 대할려고 언어에도 조심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교육은 후퇴한 듯 싶다.

그후 재단분규로 근무처를 東星高(15년 재직)로 옮겼다. 학생들은 스파르타식방법 보다는 자주적인 공부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청소같은 것을 기피하여 한때는 청소부를 고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사람심성의 복잡성을 알듯 하였다. 「스파르타」식에도 「자주적」인 방법에도 장단점이 있고 그것은 부모와 사회의 「콘센서스」와 관계있어 보였다.

뜻하는 바가 있어 55세에 공립학교로 옮겨 생의 마지막보람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였으나 그것은 이미 죽어가는 공용이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젊었을 때는 정열에 세월가는 줄 몰랐고, 40대는 아르바이트로 세월 가는줄 몰랐고, 50대는 참된 교육을 해 볼려고 마음 먹었으나 이미 세상은 너무 달라져 있더라. 처음에 공립학교에 부임하면서 놀란 것은 우주공산에 여선생이 많다는 점이었다. 쉽게 말하여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들만 뛰노는 격이었다.

간섭 없는 것이 좋은 점이었다라고나 할까, 민주주의 요람이어야 할 학교가 비민주적운영으로 구성원간에 협동심도 없고 관리직에 있는 분들의 부패(금전과 결부된 비리와 인사관리)로는 학교운영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더라. 교장은 선생의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기강이 설 까닭도 없고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고 있다면은 윗사람과의 연결골의 유지 뿐이다. 교육감사는 교장의 인맥과 돈에 관계될 뿐 학교발전과는 무관한 점이 많다. 장학지도도 형식뿐이지 선생에게 학생에게 도움될 것 별로 없다. 학교가 교

장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직원회의가 활성화될 수 없고 행사가 낙하산식이니 마지못해 참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 교장의 사고방식의 낙후가 더욱 문제를 꼬이게 하고 교무실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면 수용하기는 커녕 말한 사람만 미운오리가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니 복지안동 요즘에 시작한 이야기는 아니다. 교장은 선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교장과 교사 상호간에 불신만 있으니 인화가 조성될 리가 없다. 더욱 여선생이 많은 상황에서는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기아이를 키우기에 바쁜판에 정열이니 신념이니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심권에서 벗어난 선생은 시류에 따라 움직이면 되지 열심히 한다고 하여 봉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신통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 자기중심적이고, 편리한 대로 행동할 수 밖에. 세월이 가면 봉급은 하루도 어김없이 나오지 않은가, 내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그만이다. 책상위에 책은 없어도 Coffee통은 있으니 언제라도 Coffee는 마실수 있지 않은가.

학부형이 촌지를 가져다 주면 좋은 말로 또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밖에서 「아르바이트」하기란 힘 들지만 평생 보장받은 「학교 아르바이트」 여자로는 적격이다. 과보호로 자란 젊은 여고사일수록 그 의식구조와 형태는 실로 가관이다.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교실에 「하이힐」신고 들어가는선생, 커피잔을 들고 교실로 가는 선생, 짧은 치마, 겨드랑이 드러나는 윗옷, 주렁주렁 달린 귀고리...등 선생과 학생 구별도 없다. 교장이 무어라 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니 학생들의 지도가 제대로 될리 없다. 교사로서의

기본틀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피곤한 것은 그래도 다소나마 사명감이 있는 중년선생들, 그중에서도 남선생의 처신은 더욱 어렵다. 「프로」와 「아르바이트」의 만남에서 신나는 고풍이 벌어지겠는가, 또 순환근무제라도 선생님들의 질을 하향편준화 시키는데 한목한다. 4년마다 바뀌는 이 제도는 외관상 좋게 보이니 그것은 기강이 확립되었을때의 이야기이고 학교적응에 일년정도 가느라고 일년정도 도합이년은 어수선하다. 어떻게 보면 학교중심을 잃게 하고 주인정신을 못갖게 된다. 모두가 중간정거장의 대합실에 모인 사람같다. 오전에는 Coffee, 오후에는 집에 가기 바쁘다.

학생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학교의 질은 교장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선생되기는 쉬워도 선생다운 선생은 드물다.

또 학부모, 사회에서도 문제는 많다. 나라의 장래, 교육전체를 보지 않고 내 아이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 그 행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 되었든간에 내아이에게 유리하면 전혀 문제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 삼는 쪽을 나쁘다고 몰아부치는 어머니, 진학지도에 교사의 의견을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는 어머니, 학생의 적성능력을 도외시 하고 오로지 인문계, 일류대학진학을 최종목표로 하는 「제치고 올라가기」가 유치원시절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현실 여기에 가르치고 기른다는 교육이 있겠는가 우리 교육풍토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교육이란 생각할 수 없다. 있다면 출세주의 요령주의만 있고 세계로 응비한다는 기백은 꿈도 꾸지 못한다. 더욱 하향편중화제도 하에서는 켜켜한 속물을 양산할 따름이다. 학생의 선발방법 평

가방법 등도 달라져야 하겠고 매스컴에서의 수석합격이니 졸업이니 어느학교가 일류대학에 몇명합격시켰다는 등등은 자제됨이 옳고 매스컴의 지나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패륜적인 보도가 학교교육을 압도하는 마당에 어느 누가 독야청청하리라고 기대하는가.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사회에서의 격심한 경쟁은 국가적차원만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까지 확대되는 가혹한 논리가 판을 치는 마당에 자기자식이 격렬한 경쟁에 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이 못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까지 낳게 하고 공동체사회가 무너지는데 있다. 내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고 내자식이 잘되려면 남도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어야만 된다. 학력에 대한 인식전환,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없이 는 교육의 정상화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관행 제도 의식의 전환없이 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도 없다. 온천지가 성적올리기에 매달려 있으니 생활의 기본틀이 형성될 수도 없고 그런 학생이 사회에 나가니 온세상이 어지러울 수 밖에 공중도덕 질서가 없다고 개탄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의 소산이다. 교육의 목표는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경험과 실천은 가정과 사회에서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질서를 가르쳐도 어머니가 무시하거나 이 선생이 가르쳐도 저 선생은 무시하거나 TV화면에서 학교에서 배운것과 상반되는 언행이 나온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가치를 내면화 시키지 못할 뿐더러 가치의 혼란을 이르고 성장하여 준법이 통하지 않는 비극적사회로 되는 것이 아닌가.

서양에서는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면 교실로 뛰어가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것은 뛰면 충돌하는 것을 우려하는 점도 있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급하게 뛰어 다니는 것을 무질서로 보고 종치기전에 교실근처에 가 있어야 하고 서두르는 대신 미리 계획하여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고 들었다. 우리는 좁은 복도에서 경주하듯 뛰어 다니고 심지어 축구, 농구도 하고 선생들과 충돌하여도 별것 없었던 것처럼 표정을 서로 짓고 있으니. 중학 시절 강당에서 나오는 많은 학생들에게 白井교관이 「좁은 장소를 넓게 써라」하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선생도 없다. 해방후 오늘까지 교육의 목표가 구체적각론 없는 추상적총론으로 전인교육이니 민주교육이니 하고 역사적배경과 현실을 도외시한데서 국적없는 교육으로 모호한 불투명한 사람을 양산하고 지금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역사에 영욕은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영광을 어떻게 어디서 찾는다는 것인지. 인재양성에 너무 소홀했다.

다양화 전문화에 치달는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교사는 사고방식의 폭도 넓히고 개방적이면서 전문성을 띠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학교는 아이들 위해서만 있다」라는 사고는 좀더 음미됨이 옳고 적어도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일차적으로 나라 또는 사회를 위해 국민전체를 위해 있는 존재로서 과거의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요컨대 중학교는 아이들을 자기실현과 함께 바른 시민을 만드는 양성기관으로서 나라를 위해 필요한 존재임을 냉정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표를 생각하면 교사란 개인의 주관과는 별개로 도덕적 「엘리트」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 더욱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 오직 젊어지기를 사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원숙한 중후함을 추구하여야 사회가 보다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회가 너무 경박하다. 또 전체 학생을 위해 꼭 해야 할 것은 일부반대가 있더라도 꼭 해내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미 사회가 「그래샴」법칙에 지배된 지도 오래 되지만 학교가 이래서는 안된다.

교사는 권위 없이는 지도할 수 없는 존재로서 교사의 말에 「별소리 다하는 구나」식의 표정을 학생이 짓는다면 이미 그 교사는 학생지도가 불가능하다. 또 오늘과 같은 조직화와 대중정보수단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한 학생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큰 해악을 사회에 끼칠 수 있으니 기본생활 습관과 합리적인 사고가 정착되지 않으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기본덕목을 키울 생각도 없으니 상황은 점점 심각해 갈 뿐이다.

UR은 한마디로 국제시장경제의 구조를 바꾸어 game의 논리나 Rule를 선진강대국 중심으로 만드는 것으로 명색은 자유경쟁을 위한 개방이지만 속 뜻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국가주의 내지 민족주의 표출로서 신흥공업국이나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담겨져 있다.

W.T.O체제에 대한 우리의 불안은 단순히 UR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있다. GR와 BR은 다소의 명분도 있으나 앞으로 닥쳐올 CR와 TR에서는 경제제도, 체제, 관행 등을 선진국에 맞추어 통합하겠다는 심한 횡포다. 우리처럼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현실에서는 어렵고도 사활에 관한 문제다. CATT체제에서는 우리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우등생이 아니던가.

W.T.O체제는 세계각국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지의 세계다. 60년대의 한강의 기적을 우리는 이루지 않았던가. 운명보다 강한 것은 용기다. 자유경제체제의 짐체를 벗고 무역의 새질서를 만드는 발전과정에서 지역적 분쟁, 갈등은 있어도 대세는 정해졌다. 세계는 더욱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역사에서 우리는 「강자는 변화에 앞서 간다」라는 것도 배웠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되는 「제일의 개국」은 우리선대들의 해외정보 무지와 기존질서속에 안주하여 변신의 필요성과 기회를 놓치고 수구파와 개혁파의 권모술수적 궁정정치로는 개국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런 백년전의 망국사를 기억한채 또 다시 세계단일시장화의 태풍앞에 직면하였으나 오늘의 지도층은 국제화의 의미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보수니 진보니」 「국가발전 먼저냐 통일 먼저냐」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니 주석을 만나야 한다느니」 「UR협정을 반대하여야 한다느니 패트리올미사일을 못들어 오게 하여야 한다느니」 「4·19주최는 우리 몫이다 아니다」라는 등등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당쟁, 개인정치적 생명등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역사의 재앙을 맞게 됨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이 되지 않을 까 걱정이다.

국가와 개인의 운명이 이렇게도 밀접하게 연결된 때도 드물다. 협상능력이 부족하면 중지를 모으고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솔직해야 된다. UR이후 더욱 불확실해진 국제경제환경을 헤쳐 나갈려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전략도 도출해야 한다. 토인비박사는 역사의 연구의 「위

대한 문명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내부혁신을 통해 극복할 때 창출된다」고 하였다. 위기에 찬스도 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평화애호국이라는 도덕적 우월성도 정당성도 힘이 없으며 모멸과 비극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역사적 사실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지금 세계는 냉전종식후 가치를 상실한 자유민주주의의 지루한 이전투구를 보는 듯 하지만 선진사회에 통제하는 여러제도가 하나의 형태로 수렴되고 경제성장으로 인류의 균질화가 이루어진다면 종교, 민족의 선, 악의 외견상 차이는 역사발전의 특정한 단계에서의 문명의 유물임도 말할 수 있으리라.

또 통일은 우리민족이 잘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6·25도발자인 김일성이 인민이 뽑은 통치자로 바뀌고 북에서 민주정치가 실현될 때까지는 군사감축이나 미군철수는 있을 수 없고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대화와 교류는 가능하나 통일은 되지 않음이 분명해졌다. 통일에 앞서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인권과 경제적인 풍요이다. 통일지상주의, 감상주의 환상은 북의 통일전선에 말려들기 십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모택동)고 믿고 있다. 그들은 힘을 의식하기 때문에 상대가 강하면 후퇴하고 약하면 밀어 붙이는 속성을 갖고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때 한미연합군이 강력한 군사력을 시위하고 개성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했을 때 북측은 백기를 들고 김일성이 사과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체제로 되어 있다. 북한과의 문제에는 그들이 우리를 선불리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



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성급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탈출동포를 수용하는 것과 같은 변방을 두들리는 전략도 필요하다.

힘을 바탕으로한 강온전략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시켜면서 통일에 이르는 길이다. 김학철씨는 「통일 통일 하지말라 독재자가 살아 있는한 불가능하다.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오는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통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질서가 경제전쟁으로 재편성되고 올라운드 플레이어만이 강자로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냉엄한 역사의 와중에서 우리는 이 땅의 운명을 어떻게 껴안으려는가, 한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혼재하는 개성과 가치관을 국가 경쟁력강화라는 보편성위에 올려 놓고 일류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처자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바람이 불려야 하고 그것도 강하게 불어야 산다.

끝으로 나를 오늘에 있게한 부모님, 대한민국, 교육계동료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젊은 선생에게는 자유와 평등의 긴 인류사적 실험에서 자유에 무게를 둔 나라가 승리하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고하는 현실에서 폭 넓은 교양으로 균형감각을 가지기를 당부하며 합리적사고로 문제해결에 힘쓰기를 바라고 교직사회 동료들에게는 바르게 강하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국제적인면에서도 민족적인 인간이 되어 조국의 21세기를 멋있게 이끄는 어엿한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시각이 달라지는 미국영화

## 한 재 수(29回)

### 불교도 큰 몫을

영화에 왜 에로티시즘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오래전에 미국 잡지가 한 적이 있다. 그 대답은 대부분이 영화 사업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영화에서의 에로티즘을 강요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반면 예술을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 적은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였다. 그럼 폭력은 영화에 왜 필요한가? 거의 마찬가지로 답편이었다. 언젠가 “트루 로맨스”를 감독한 스콧을 만나 약 한시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이 “트루 로맨스”는 무자비할 정도로 잔인한 작품이다. 그래서 난 폭력을 영화에서 그리는 이유는 돈을 버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가? 했더니 그는 대뜸 아니라 했다. 그리고 현실 사회에 폭력이 난무하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진실을 그리는 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폭력을 미화하고 영광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선 영화가 폭력을 영광스럽게 장식해야 큰 돈을 버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큰 돈벌이가 그것

에 걸려있으니 안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최하의 투자를 한 낮은 예산의 영화를 제외하곤 일천오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데 돈을 벌 수 없다면 정신 나간 이야기이다. 그러니 정신없이 섹스와 폭력을 이용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거기다 또 다른 이유는 영화관객이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미국영화가 최근에 와서 그 방향을 바꾸어가고 있다. 이를테면 폭력물과 섹스물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TV에서 폭력물을 제거하자는 논쟁이 있고 백악관이 폭력물에 언급하고 하니가 그런 뜻에서 폭력물이 영화에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미국은 나라님이 뭐라하던 상관이 없다. 그 이유로는 TV의 종사하는 중역급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폭력을 그리지 말라니 이것은 새로운 검열이나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나선 것이다. 이를테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폭력물이 줄어드는 데는 이런 사회문제나 도덕문제와 전혀 다른 경제적 문제가 내재하기 때문이다. 극장에 영화를 부치는 것 보다 비디오를 전 세계에 파는 쪽이 훨씬 수입이 큰 것이다.

미국영화는 국제적 흥행루트를 갖고 있지만 비디오를 전 세계에 파는 쪽이 수입이 큰 것이다. 그 비디오를 전 세계에서 사서 보는 층이 10대 20대가 아닌 훨씬 연령이 위인 어른들이 사본다는 것이다. 이 어른들은 폭력물이나 섹스물보다 인생의 문제나 또는 다른 종류의 희극물을 많이 보는 것이다.

영화가 비디오 판매 전쟁에서 패하면 커다란 손실을 스튜디오에 갖다 준다. 그러니 최근에 와서 영화사가 주로 희극물에

전력을 다하고 많은 길높은 영화에 주력을 기우리는 것이다. 설령 폭력물을 만들더라도 그 폭력물에 철학 비슷한 메세지를 삽입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좋은 예로 크린트 이스트우드의 “Perfect World”나 “카리토스 웨이”같은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이다. 이 두 작품엔 아주 강한 멧세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재미나는 일은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른 곳에 설정하는 일이다. 백인 중심의 미국 영화계는 서부의 활극물을 만들면서 미국 영화를 전세계에 군림시켜왔다. 미국의 백인들이 오만해서인지 늘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 자기쪽에서 선과 악을 멋대로 결정하고 세계 제일의 국민임을 내세운다. 어디가더라도 이 오만이 많은 사람들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안다. 따라서 비행기가 납치 당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미국인이다.

이들은 서부활극을 늘 영화에 그리면서 순진무구하고 용감한 아메리칸 인디안을 늘 악인으로 그려왔다. 따지고보면 백인들이 이 나라에 침범한 사실을 얼버무리기 위해 그렇게 그랬는지도 모른다. 서부활극은 권선징악이 주가 되는 멧세지 이지만 따지고 보면 엄청난 거짓말을 저질러 온 역사이다. 물론 양심적 시각으로 본 영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그 좋은 예로 “Soldier Blue”(푸른 병사)가 대표적인 것이 된다.

이 영화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국에도 와 상연되었다. 왜 내가 이런 소릴 하는가 하면 이 영화를 보던 카스터란 악마같은 미국장군이 병사들에게 인디언 여자의 젖가슴과 성기를 도려내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검열에서 완전히 컷된채 한국에 온 것이다. 한 병사가 미국대학교과사에서 미국은 정의의

나라요 거짓이 없는 나라란 것을 배웠는데 이 전쟁 현장에선 거짓과 위선과 사이비와 배신을 본 것이다. 그는 그래 항거하다 체포되어 손목이 묶여 마차 뒤에 매어져 끌려갔다. 일종의 반체제의 영화이다. 그리곤 그후 이 영화가 미국 영화에서 자취를 감추고 만 것이다.

몇간의 이런 양심적 영화를 제외하곤 거의가 다 위선과 거짓에 찬 서부극이 많다. 세계일등 국민인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소 달라져 가고 있다. 그것은 미국인이 일등국민이란 그런 생각이 흔들리고 자기 이외의 다른 곳에 많은 좋은 것이 있고 또 미국에서 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다.

그 좋은 예로 중국영화가 미국에 와 새로운 시야와 사고와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문화와 생활양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 있다고 미국인이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살 수 없고 함께 세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동이나 구라파의 어떤 곳에선 미국을 또는 미국인의 사고방식을 호되게 비판하는 일이 많다고 듣는다.

거대한 자본과 장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영화는 구라파인의 눈에서 보면 아주 값싼 문화의 편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거 “크레머 대 크레머”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구라파의 비평가들은 그 영화의 값싼 센타리즘과 인간감정의 매너리즘을 호되게 비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니 과히 아카데미의 수준을 알겠노라 빈정댄 적이 있다. 그럼 이곳에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의 변화한 관점을

소개해 보겠다. 첫째로 아메리칸 인디언의 아파치족의 영웅을 그린 영화“Geronimo”를 들 수 있다.

John mllius가 쓴 줄거리를 Water Hill이 감독한 “제로니모”는 1885년에서 86년에 거친 아파치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이며 백인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제로니모를 그린 영화이다. 아파치의 전사며 지도자인 제로니모를 맡은 “Wes Studi”는 “마지막 모히컨”과 “Dances with Wolves”에서 본 낯익은 얼굴이지만 그는 역에 굽주리고 있는데 제로니모가 날려들어온 것이다.

1886년 9월 5일 전 미국을 긴장시킨 뉴스가 전국에에 전달된다. 아파치의 지도자 제로니모가 멕시코 국경근처에 있는 아리조나의 스케레톤에서 마침내 항복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부인들과 어린이들까지 끼어 있는 30명 정도의 아파치를 항복시키는 데 5,000명의 미국정규 군대가 파견된 것이다. 참으로 우습고 창피한 이야기이다. 제로니모는 백인들(White Eyes)과 맞서 자기의 나라인 이 대륙을 지키고 아파치의 존속을 재확인 시키려고 했고 이 나라의 정신인 인디언의 넋이 죽어가는 것을 위해 싸운 것이다.

이 영화에 미국 기병대의 중위인 찰스 게이트우드를 하는 Jason Patric이 등장하는데 그는 백인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장교이다. 그는 직접 목숨을 걸고 아파치의 진중을 찾아가 제로니모를 만난다. 그때 제로니모가 “너는 누구냐”하니까 “나는 사람이다”라 답변하는데 이 장면에서 그는 꽤 관객을 감동시킨다. 그 중위는 백인정부의 약속을 제로니모에게 전한다. 그 약속이 일정한 지정된 지역을 주어 잘 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제로니모는 백인에게 너희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하

라. 한때 나는 바람처럼 날아다녔다. 지금 나는 너에게 항복한다. 이것이 전부이다라 한다.

마침내 백인들은 항복한 아파치에게 아무런 약속도 지켜주지 않으며 그들은 살륙한다. 백인의역사에 이것으로 또 위선과 거짓을 한 자라는 커다란 오점을 남긴다. 그리하여 또 한번 백인들이 그들의 종교와 함께 피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결국 미국역사의 큰 오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육군중위인 제이슨·페트릭은 괴변을 늘어 놓은 사령관 앞애가 아니라 미국역사앞에 모자를 벗고 군대를 떠나고 만다.

오래전의 영화 “솔저블루”나 이 영화는 미국의 역사를 미국인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디언의 입장에 서서 냉정한 제삼의 비판의 눈으로 본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철도 건설중 죽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아메리칸 인디언이 이유없이 죽어갔는지 그 아메리칸 인디언은 우리 한국인과 같은 종류의 종족인지도 모른다.

또 다음으로 소개할 영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Heaven and Earth”이다. JFK The door.살바돌 The Platoon, Born on the fourth of July(독립기념일에 태어나다)등등의 명화만을 만들어 온 올리번 스톤(Oliver Stone)감독이 제작 겸 감독한 특이한 시야로 본 월남전 영화이다.

이 영화 “Heaven & Earth”는 월남전을 여태껏 미국인 시야로 보고 미국식인 기독교위주로 해석해 온 월남전을 월남인의 눈으로 전쟁을 보고 부처님을 믿는 월남인의 철학으로 월남전을 해석해 간 작품이다. 올리번 스톤이 동양여인과 살아서 그런지

는 몰라도 얼마 전 “Joy Luck Club”의 제작을 맡아해서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그런 그가 이번엔 불교의 눈으로 월남전을 해석한 “하늘과 땅”을 손수 감독한 것이다.

이 영화에서 부처님을 주님(Lord Buddha)으로 부르고 있고 월남인의 머리와 생활속 깊이 들어 앉은 극(極)에 흐르지 않은 부처님의 중도사상(中道思想)을 전개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모 및 조강에 대한 존경심을 부처님의 부모의 존경을 기본으로 전개하고 있다.

스톤이 자신이 월남전에 보병으로 참전한 장본인이라서 그 곳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탓으로 고통과 인간의 고뇌를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스톤은 월남인들이 농업이야말로 천하지대본인걸 잘 알고 있는 터라 우선 조그마한 아릿다운 시골의 농토가 보이는 마을을 선택하고 한 가족과 전쟁과이 상관관계의 건딜 수 없는 운명을 그려가고 있다.

아다시피 불란서가 백년을 월남을 점령하고 전쟁과 못쓸짓을 도맡아 하는데 견디지 못한 월남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공산주의자 호치명의 밑에 들어가 항쟁한 것이다. 어찌하여 이것이 잘못된가? 마침내 불란서가 전쟁에 패하고 쫓겨나자 미국 자본주의의 어리석음으로 전쟁에 뛰어들어 공산주의와 카피타리즘의 이데오르기 전쟁처럼 그것을 만들어 버린것이다. 사실은 한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더욱 더 큰 문제였는데도,

평이라 불리우는 아릿다운 아침의마을에서는 한 농사꾼은 자기의 가족의 운명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이 영화는 이 마을 평 가정의 여섯번째 막내로 태어난 Le Ly Hayslip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녀가 12세가 되었을 때 미국 헬리콥터가 처음 이곳에 내



러왔고 16세가 되면서 밥을 굶고 형무소 생활에 고문까지 당할 뿐 아니라 간강마저 당한다. 전쟁이 일면서 남과북이 갈리고 그 어느 쪽도 동쪽인데 서로 살육하는 이야기다. 이것은 철저한 평화만을 사랑하는 불교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릿다운 여인의 오뎃세이와 같은 인간행로를 그린 영화이며 40년간의 그녀의 뒤죽박죽된 생활과 절망과 터득의 승리를 그린 영화이기도 하다. 고통과 절망속의 어느날 그녀는 그의 도움으로 미국에 오게 되고 결혼하게 된다. 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전쟁을 불러 일으켜 온 역사가 없는 평화만을 오로지 사랑한 불교 신봉의 여인이 미국에서 부딪친 일은 그녀를 당혹속에 밀어넣는다. 기독교적 도전적 인간형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사회구조와 그 인간형에 부딪치자 그녀는 실의에 찬다. 남편은 아직도 무기를 사랑하며 전쟁을 하나의 놀이로 아는 것을 알자 그녀는 간곡이 그에게 그것을 말리나 그가 말을 듣지 않자 이혼하고 만다.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날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한다. 그러자 토미 리 존스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니 그날 자기 차속에서 나체가 된 채 자살한다.

기독교적 정열과 인간자아속의 감정—이런 것이 세속의 허탈것 없는 애착이나 집착에서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세계에서 어려서부터 커온 토미는 피할 길이 없다. 실의와 우울과 절망 그리고 자살로 이른것이다. 참으로 처참한 이야기다. 카메라도 중도(中道)의 사상을 본 받았는지 늘 역각이나 예각이나 삐뚜러진 포지션에 거의 서지 않고 밀고 가는것이 재미있다.

다음으로 또 불교의 사랑으로 그려진 영화가 있다. 그것이 What's Love got to do With it란 흑인 가스 티나 타나의 영화이다. 영화 첫머리에 부처님 말씀이 나온다. “연꽃은 어지러운 진흙탕에서 더욱 아름답게 핀다”란 것이다. 분명히 이 영화엔 부처님의 말씀이라 씌어져있다.

미국에서 가정의 폭력이 말이 아니다. 70% 이상의 주부들이 남편에게 수없는 구타를 당하며 산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걸으론 신사이지만 뒤론 부인을 구타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한다. 이 영화에서 티나는 마약과 술에 취해 자기를 휘저어 놓은 남편에게 수없이 구타를 당하지만 늘 부처님 말씀처럼 꺾지 않고 견디고만다. 물론 나중에 이혼하고 말지만 그녀의 인내력과 인간다운 순수한 아름다움이 화면에 넘쳐흐른다. 아름다운 영화였다. 이런 영화를 보다보니 과연 한국인은 이런 영화를 만들수 없는가 하는 반문이 생긴다.



# 영 동 제 일 병 원

## 노경병, 명예원장 (제25회)

### 진료내용

- 시험관아기센터      • 불임클리닉      • 복강경식 레이저수술
  - 부인암클리닉      • 습관성 유산클리닉
  - 류마티스클리닉      • 비만클리닉      • 갱년기클리닉
  - 여성종합검진센터
- (유방암, 부인암, 골농도측정, 위장/대장촬영, 초음파촬영, 여성 갱년기호르몬측정, 비만도측정)
- 직장여성을 위한 Evening클리닉

### 전문의

- 산 부 인 과 : 노성일(원장), 조정현(부원장)  
이인국, 심현남, 이승현, 이윤태, 장영건
- 내      과 : 민현기, 한인권
- 가정의학과 : 이규래, 배철영, 최종태
- 방 사 선 과 : 정균순, 정승혜
- 마 취 과 : 남승철

## 영 동 제 일 병 원

### Women's Hosp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21-4  
Tel : (02)561-6100, 561-9101

# 30回

- ◎ 열심히 사는 인생 ..... 김 용 철(30回)  
- 젊은이들을 향한 제언 -
- ◎ 나비 - 그대이름은 날개달린 꽃 - ..... 신 유 한(30回)
- ◎ 國土統一 祈願塔 ..... 朴 定 仁(30回)
- ◎ 無病長壽 ..... 崔 喜 鳳(30回)
- ◎ 中夏兩師訪古酒肆 ..... 李 南 杓(30回)
- ◎ 시급한 생물 다양성과 ..... 元 炳 昨(30回)  
습지보전의 우선 순위
- ◎ 停年退任有感 ..... 金 秉 喆(30回)
- ◎ 鎮魂曲 ..... 李 河(30回)
- ◎ 길 ..... 韓 均 弼(30回)



# 열심히 사는 인생

-젊은이들을 향한 제언-



김 용 철(30回)

인생을 긴 여로로 비유하여 보는 눈이 비단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인생은 온갖 고난과 유혹을 잔뜩 내포한다는 암시가 짙다. 호머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밟은 긴 여정을 보아도 그렇고, 변연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던 길도 무척 험난하였다. 귀여운 자식에게는 여행을 시키라고 부모들에게 강권하는 동양의 속담도 있다. 이 모든 것에서 집약되는 의미는 인생의 길은 곧 여행의 길이요, 여행의 길은 쓰라림과 고생의 길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즐거운 여행의 길에 올라섰다가도 뜻했던 뜻하지 않았던 고생을 겪고 지쳐 돌아오는 우리 주변의 여행객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더러 체험하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여행을 회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설마 고생 그 자체를 회구함은 아닐 것이다. 있다면 그 모든 고생과 험난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것을 이겨 넘을 정도로... 우리를 매혹시키거나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이 여행이라는 경험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고난이

많음을 알면서도 그런 여행을 희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또 고난으로 잔뜩 싸인 인생이라 하여도 그 인생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한다.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우리를 매혹시키거나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을... 찾으려 무진히 애를 쓴다.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 나는 '열심히 사는 인생'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그런데 사람이 그의 평생을 통해 꾸준히 이런 '열심히 사는 인생'을 살기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의미를 아직 체득하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좀더 설득력 있는 인생론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나는 더러 해본다. 위에서 말한 '열심히 사는 인생'에 대해 크게 반론을 제기할 젊은이는 별로 없으리라. 다만 그런 인생을 어떻게 간단없이, 지속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회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을 단번에 긴 여로로만 보고 생각하거나 계획하기 보다는 짧은 여로들의 집합으로 우선 생각하라고. 우리는 같은 여행을 해도 개개의 여행마다에서 추구하는 바가 같을 수가 없다. 인생의 여로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된다.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내놓고는 20대 인생의 여로가 바라는 바가 반드시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인생전반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굳건히 지키는 한에서 어떤 단기간에 걸친 인생계획을 그 기간에 알맞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들의 인생전반을 두고 하는 거시적인 계획도 중요하거니와 목전에 있는 수년간의 대학생활을 놓고 하는 미시적인 계획도 등한시할 수가 없다. 이 양자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 4년의 생활을 열심히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긴 인생전반을 사는 가망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인생이든 여행이든 어디를 향해 간다는 목표의식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어디에 도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중요한 것이다. 사실 말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은 인생 여로의 ‘과정’을 열심히 체험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이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현란한 비행기 여행으로 이국적 정서가 많은 제주도에 까지 갔다 오는 것도 좋지만, 많은 여행객들이 그러듯이 가는 길 오는 길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주로 즐기고 서울에 돌아와서는 제주도에 갔다 왔다는 기록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생 전반에서 현란한 통계적 숫자나 목표달성의 기록에만 많은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기가 쉽다. 반면에 똑같이 제주도 여행에 나섰어도 가는 길 오는 길에서는 물론 제주도의 구석구석에서 풍습과 자연을 관찰하고 음미하고 때로는 도중에서 겪은 여행 경험이 너무나도 황홀하다 보면 종착점에 이를 계획을 꽤히 수정하여도 좋은 그런 사람들... 그런 여행자들이야말로 여행을 즐기면서 여행하는, 인생을 값지게 즐기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 나비- 그의 이름은 날개 달린 꽃



신 유 향(30回)

헤르만 헤세는 나비를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꿀도 모으지 않는 빈둥거리는 방랑자’라고 했고 ‘날개 달린 꽃’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또 어떤 이는 나비는 ‘신이 지상에 뿌려 놓은 보석’이라고 적고 있다.

이렇듯 나비는 바퀴나 지네, 진드기와는 달리 아름다운 생물의 대표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들의 물질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며 정감을 풍부하게 해주는 다양한 자연의 혜택 중에서도 나비는 그와 같은 측면을 대표하는 생물인 것이다.

우리 겨레는 “나비야 청산 가자/범나비 너도 가자/가다가 저물거든 꽃에서 자고 가자/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앞서나 자고 가자”라고 읊고 있다. 나비와 함께 사는 기쁨을 노래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풋풋한 풀냄새 나는 풀밭에서 이리저리 춤추며 나는 나비와 더불어 어울려 지내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진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들은, 적어도 도심 속의 우리들은 날이 갈수록 나비하고는 거리가 멀어져만 가고 있다. 바늘 있는 곳에 실이 있게 마련이고 꽃 있는 곳에 나비가 있게 마련



인 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꽃이 피었는데도 나비가 날아오지 않는다. 우리들이 얼마나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 ‘나비’라는 이름

곤충들의 이름에는 그들의 생김새나 빛깔 또 울음소리, 움직이는 모습에서 따 지어진 것이 적지 않다. ‘귀뚜라미’, ‘매패’우는 매미 등이 그 보기가. 나비는 나불나불 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옛적에는 ‘나부’라고도 했다. 1481년에 나온 ‘두시언해(杜詩諺解)’에는 ‘나비’또는 ‘나뵈’로 나오며 1527년에 나온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나뵈로 나온다. 또 숙종시절(1675~1720년)에 나온 ‘시몽언해물명(時夢諺解物名)’에는 ‘남이’로 나온다. 그후부터는 ‘나뵈’또는 ‘나비’로 불리우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나비가 표준말로 쓰이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에 따라서는 ‘나부’ 또는 ‘나베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곤충들이 살고 있으나 나사모양의 긴 주둥이를 가진 것은 나비와 나방무리뿐이다. 이들은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날개에는 비늘가루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 나비와 나방은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나비는 주로 낮에 날아다니고 나방은 밤에 활동한다. 낮에 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나비이고 밤에 불빛에 모여드는 것은 나방이다. 우리나라엔 밤에 불빛에 모여드는 나비는 한 종류도 없다. 나비의 더듬이는 곤봉모양으로 끝으로 감에 따라 굽어지나 나방은 실, 빗살 또는 깃털모양을 하고 있다. 나비는 날개에 비해 몸통이 가는 편이나 나방은 굵은 편이다. 이처럼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는 여러 기준을 들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들의 구별점은 명확하지 않다. 또 나비와 나방은 지구상에 모두 20만여종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나비가 2만여종이 된다.

### 나비의 아름다움과 그 수수께끼는

꽃과 꽃 사이를 누비고 지나가는 나비의 자태도 아름답거나와 나비가 우리들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은 그 날개의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이다. 나비의 날개의 비늘가루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날개의 색깔은 이 비늘가루의 색, 즉 색소에 따르는 것도 있고 오색나비와 같이 비늘가루에 쪼인 빛의 반사나 굴절, 그 간섭에 의한 것도 있으므로 색이 나타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아무튼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색깔이 너무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색깔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무늬가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도저히 미치지 못할 멋진 디자인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 감탄할 뿐이다.

물론 나비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비는 지구상에 약 1억5천만~2억년 전에 나타났으나 사람은 겨우 2백만년 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비는 사람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비의 색과 무늬의 비밀은 아직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그 일부는 밝혀지고 있다.

나비는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 나비들이 날고 있을 때는 윗면이 보이지만 앉아 있을 때는 날개를 위로

접고 앉기 때문에 아랫면만이 보인다. 물론 나비 가운데는 날개를 펴고 앉는 팔랑나비종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위로 접고 앉는다. 따라서 날고 있을 때 보이는 윗면의 색은 나비들에게 동족을 식별하고 암수를 구별하게 한다.

나비 가운데는 암수의 색깔이 거의 같은 것도 있다. 배추흰나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암수가 거의 흰색이어서 식별하기 어려우나 나비의 눈은 사람의 눈과는 그 구조가 달라 날개 윗면에서 반사하는 빛의 파장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쉽게 암수를 구별해낸다. 한편 꽃이나 나무줄기에서 나오는 수액을 빨아먹을 때는 날개 아랫면만이 보인다.

또 나비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방어수단이 없으므로 주위 환경의 색을 닮음으로써 적의 눈을 피하는 보호색을 띠고 있다. 예컨대 참나무류의 나무줄기에서 나오는 나무진을 빨아먹는 청띠신선나비나 들신선나비, 네발나비 등의 날개 아랫면 색깔은 참나무류의 나무껍질 색깔과 거의 같다.

산이나 들에서 날고 있는 나비들을 주의깊게 관찰해 보면 날고 있는 곳과 날개 색깔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양지 바른 풀밭에서는 흰색, 노랑색 아니면 밝은색이 섞인 나비들을 볼 수 있으며 제비나비 같은 검은 색나비는 볼 수 없다. 설혹 풀밭에 검은색나비가 보인다고 해도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러나 나무그늘이나 산길 같은 곳에서는 검은색나비들도 천천히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검은색나비들은 양지바른 곳보다는 그늘진 곳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늘 숲속 그늘진 곳에서만 사는 나비들은 암갈색계통이 많다. 이런 현상은 생리적인 것으로, 짙은 날개는 태양의 복사열

을 쉬 흡수하니 양지 바른 곳에서는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 열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같은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것도 볼 수 있다. 즉, 일년에 두 세대 이상을 지나는 나비 가운데 봄에 나는 것을 봄형, 여름에 나는 것을 여름형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일지라도 봄형과 여름형은 색깔과 무늬, 모양이 다른 것이 있다. 호랑나비나 산호랑나비가 그 좋은 보기다. 봄형·여름형이 생기는 원인은 에벌레 시기에 햇빛을 쬐는 일조시간의 길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봄형을 인위적으로 여름에 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실험결과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모든 것을 살펴 볼 때 무늬와 색깔은 체온조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색깔과 무늬의 다양성과 그 수수께끼는 나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다양성에 그 비밀의 일부가 숨겨져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나비의 사랑

산과 들에 나가 나비들의 암수가 서로 속삭이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아주 흥미있는 일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제비나비나 호랑나비는 암수가 서로 쫓고 쫓기면서 하늘 높이 나는 가운데 사랑놀이를 하고 있고, 노랑나비는 꽃에서 암수가 더듬이를 맞대고 비비면서 무엇인가 비밀스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 같고, 부전나비 무리들은 암수가 양지 바른 풀밭에서 살랑살랑 날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본다. 배추흰나비는 수컷이 암컷 위에서 팔랑거리면서 날면 암컷은 밑에서 배끝을 치켜들고 수컷을 받아들일 채비를 하면서 평화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랑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처럼 나비들은 이꽃 저꽃 춤추며 날면서 바람깨나 피우는 곤충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성생활에도 대단히 엄격한 면이 있다.

곤충 가운데는 사마귀처럼 짝짓기가 끝난 뒤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따위의 잔인하고 비정한 사랑을 하는 종류도 있으나, 나비처럼 평화롭고 다정한 사랑을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나비 중에는 짝짓기가 끝난 뒤에 암컷이 두번 다시 짝짓기를 못하도록 배끝에 주머니를 씌우는 엄격한 종류도 있다.

봄의 여신이라 불리우는 애호랑나비는 이른봄에 잠시 모습을 나타냈다가는 사라지는데 이 나비의 수컷은 짝짓기 중에 분비액을 암컷의 배끝에 발라 균힘에 따라 짝짓기가 끝난 암컷은 반드시 이 부속물을 달고 있다. 이 부속물을 교미낭 또는 수태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주머니 때문에 암컷은 두번 다시 짝짓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옛날 중세기에 십자군 병사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면 아내의 부정을 염려하여 정조대를 채웠다고 한다. 이 수태낭은 마치 십자군 병사들이 사용한 정조대와 꼭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암컷은 자연히 절개를 지키기 마련인데 수컷은 그렇지도 않다. 부인 의심하는 데 있어서 나비가 사람보다 훨씬 앞선 것 같아 이런 면에선 우리 남성들이 선배대접을 해야 할 지도 모른겠다.

### 이 땅에 사는 나비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우리나라는 한대성 나비에서부터 아열대성 나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살고 있으므로 나라 크기에 비하면 나비종류가 많은 편이다.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나비는 모두 2백44종이고 이중에서 북한에서만 살고 남한에선 볼 수 없는 것이 49종에 이르므로 남한에서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나비는 1백95종이 된다.

그럼 이들 나비들은 남한 어디에서나 언제나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신선나비는 설악산 정상 부근에서만 볼 수 있고 살굴뚝나비는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만 살고 있다. 청띠제비나비는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와 같이 남쪽의 부속 도서에서만 살고 있다. 배추흰나비는 언제나 평지의 양배추·무·배추밭에서 볼 수 있으나 줄흰나비는 산기슭에서 산다. 이렇듯 종류마다 사는 곳이 다른가 하면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도 다르다. 쇠빛부전나비는 4월 초순에서 하순까지 이른봄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가 하면 네발나비는 이른봄에서 늦가을까지 세대를 되풀이 하면서 살므로 꽤 오랫동안 볼 수 있다. 나비들은 사는 곳, 나타나는 시기·시간, 먹이, 습성, 개체수 등이 종류마다 다르므로 우리들이 산과 들의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나비종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 나비와 사람

사람들은 나비의 아름다운 자태에 마음이 끌려 시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수집하여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공예품으로 만들어 즐기기도 한다. 나비 가운데서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배추나 양배추를 해치는 배추벌레, 굴나무 잎을 갉아먹는 호랑나비 애벌레, 벼잎을 갉아먹는 줄점팔랑나비 애벌레 등이 직접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종류지만 이들의 성충인 나비들은 꽃가루받이를 도와주므로 일방적으로 해충

이라고 몰아붙이기는 어렵다. 더욱이 요즘처럼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마구 뿌려대는 세상에서는 배추벌레 한두 마리 있는 배추가 없는 배추보다 사람을 안심시켜 준다. 배추벌레도 먹지 않는 배추를 사람은 먹어도 되는가에 생각이 미치면 배추벌레는 배추에 얼마만한 살충제 독성이 남아 있는가를 가름하여 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비는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그림이나 TV화면에서 보는 생물이 되고 말았다. 예전에는 도심도 나비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터전을 사람들이 빼앗아 버렸으므로 나비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 곁을 떠나 버렸다. 근대화·산업화되면서 나비들의 삶의 터전은 좁혀져 가고만 있고 농작물에 뿌린 살충제가 본뜻과는 달리 나비들을 죽이고 있으므로 나비의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나비 없는 세상보다 나비 있는 세상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 보인다. 이것이 어찌 나만의 생각일까?☆



## 國土統一 祈願塔



朴 定 仁(30回)

國土統一祈願塔이 除幕된 것은 1972年 9月 18日.

當時 나는 陸軍步兵 第3師團(白骨師團) 사단장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나는 白骨師團 OP에서 敵陣 北쪽에 있는 新高山을 바라볼때마다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곤 하였다.

6·25戰亂時 白骨部隊가 咸鏡南道를 收復하였다.

歷史的인 戰勝記錄을 되새기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여 주던 咸南道民의 모습이 되살아나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문득 생각이 나는것이 咸南人에게 『故鄉으로 돌아갈 意志力을 심어 주어야지』하는 義務感을 절실히 느꼈다.

8·15解放과 더불어 北에는 蘇聯軍이 進駐하여 解放軍 행세를 하며 갖은 약탈과 수탈을 일삼았다. 日帝 보다도 殘忍한 蠻行을 저질러 住民의 분노를 사게 했다. 더욱기 咸興 일원에 걸친 젊은 血氣에 찬 學生들이 蘇聯軍의 착취 강탈등의 野蠻的인 行爲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드디어 咸興學生義舉事件이 터지고야 말았다. 1946年 3月 13日 그날 나도 咸南中學校(30期) 級友들과 함께 義舉隊列에 끼어 싸웠다. 무차별하게 사격하는 蘇聯軍 및 內務署員들의 銃彈에 쓰러져간 學友들을 生覺하면 至今도 그들의 蠻行에 치가 떨린다.



옛날 부터 우리 關北 사람들은 北方오랑캐의 侵攻을 막아 격퇴시킨 강인한 關志力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바로 咸鏡道民의 生存을 爲한 희생적 敢鬪 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UN軍의 1·4 후퇴 作戰으로 咸南道民이 自由大韓의 품에 안긴지도 44년이 되지만 지나거나 故郷收復에의 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냉혹한 國際情勢下에 무너졌던 38선의 障壁이 다시 休戰線으로 말미암아 南北으로 갈라지는 悲運을 맞이 하였다.

우리의 2世, 3世들은 잘 모르지만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世代도 마찬가지지만 2世, 3世들도 할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故郷을 收復하는 精神哲學 내지 生活哲學을 몸에 익혀 실천하여야 하겠다.

어디까지나 失地回復과 勝共精神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行動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나도 外아들을 故郷收復을 爲한 隊列에 끼이게 하여 軍門에 入隊시켜 至今도 領官將校로 복무케 하고 있다. 나는 休戰線 前方 OP에 오를때마다 以北땅을 바라보며 國土統一祈願搭을 세울 꿈에 부풀고 있었다.

母校와 咸興公會堂(市民會館)을 向하여 세울 設計를 머리속에 그려보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政訓參謀를 當時의 林鍾協·咸鏡南道 道民會會長에게 보내어 희생된 咸南反共勇士를 慰靈하며, 또 故郷收復의 意志를 굳히게 하는 國土統一祈願搭 建立趣旨를 전달하였다.

1976年 6月 17日 마침내 나의 뜻을 林鍾協會長을 비롯한 도민회 회장단 및 여러 有志들이 받아들여 주어서 白骨師團과 咸鏡南道道民會가 姉妹結緣을 맺기에 이르렀다.

1972年 6月 17日을 姉妹結緣記念日로 定하고 國土統一祈願搭起工式을 白骨師團 最前方 休戰線 白骨OP 后方高地에서 가졌다.

除幕될때까지의 工事費用은 咸南道民會의 誠金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때 申泰河事務局長이 主務를 맡아 勞苦가 많았다. 搭에 쓰일 화강암은 全北 禮里에서 石材를 구입하여 慰靈碑에 까지도 使用하였다.

이 工事의 敷地 및 進入 道路 作業은 白骨師團에서 담당하여 將兵들의 勞苦가 또한 至大하였다. 이처럼 國土統一祈願搭 및 反共慰靈碑가 建立된데에는 6·25動亂 당시 白骨部隊가 北進하면서 咸鏡南道를 收復하였다는데에 더욱 큰 意義가 있었다. 1972年 9月 18日 除幕式 때에는 많은 咸鏡南道 有志 및 道民들이 參席하여 感激어린 눈물을 흘리며 望鄉祭 및 反共義士의 慰靈祭를 舉行하여 故鄉의 祖父母님과 反共義士들의 명복을 빌고 일가 친지들의 建승하심과 國土統一의 聖業이 早速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손모아 기원 하였다.

해마다 秋夕을 앞두고 全體咸南道民들은 市郡單位로 버스편을 利用하여 望鄉祭를 지내려고 白骨師團을 찾는다.

남달리 反共精神이 강한 咸鏡道民들의 統一意志와 團結心에 나는至今도 마음이 흐뭇함을 禁치 못한다.

#### 「국토통일기원탑」비문

오천만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의 전위대로 여기 영광스러운 대한의용사 백골사단 장병들이 국토를 지키고 있다. 조국의 빛나는 간성으로 겨레의 굳센 도량으로 성스러운 사명을 이룩하기 위하여 추위도 잊었다. 죽음도 몰랐다. 사변이 일어나매 자

유의 전사로써 함경남도를 해방시켜 북쪽 부전고원에서 압록강  
변 혜산진까지 최전방에서 그 늠름한 기상을 만방에 과시하며  
돌진한 혁혁한 정공도 세웠다. 평화와 자유를 애호하는 배달의  
열을 가슴에 지니고 오늘도 용감히 싸우는 장병들의 노고를 두  
손모아 찬양하노라. 함경남도 도민은 청사에 길이 빛날 백골사  
단 장병들의 무훈을 겨레와 더불어 길이 기념하고자 여기 탑을  
세우노라.

1972年 9月 18日

함경남도 도민일동

모기운 지음 신하균 씀

이 탑은

1972年 6月 17日

함경남도민회와

육군제3사단과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함.

함경남도민회

회장 임종협

육군제3사단장

준장 박정인



「통일을 위하여」

〈박경석 시집에서〉

남과북을 잇는지맥  
끊을 수 없는 혈맥인데  
반세기 흐름 차단된  
녹슨 철책에 막혀  
바람마저  
머물러 서는곳

저만치서 들리는 원혼의소리  
동족상잔의 기억 일깨우지만  
북쪽 까딱않아  
하늘과땅 숨소리맺는다

수천년이 훨씬넘어  
통일 조국코리아  
한순간 잘못으로  
두동강이 나고  
통한의세월 수천만이  
눈물짓는 겨레의비극인데  
베르린 장벽허물듯  
브란덴부르크 문열듯  
철옹성 동토의 북녘이여  
반세기 닫힌 빗장을풀어라

통일보다 소중한건 없을진데  
탐욕의독재자가 부귀 권력 지위에  
연연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의 문을 열자  
진정 통일이 소중함을  
깨닫는 실천을 보여라  
아 통일은  
가장소중한 민족의 소망인데  
가장소중한 우리실향민의 소망인데  
가장소중한  
북한 부모형제의 소망인데



## 無病長壽



崔嘉鳳(30回)

인간이 건강하고 오래살기를 원하는 것은 원초적본능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욕구와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비법과 비결이 끊임없이 연구발표되어 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우려 찾아낸 無病長壽의 비결은 「옳바른 생활습관의 실천」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며 또한 「몸에 해로운 것은 하지 않는다」는 말로도 표현된다.

“건강의 비결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정명(定命)을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생활 가운데 무언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병은 생기지 말아야지 일단 발병하면 고치기 힘들거나 못고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체에는 자연치유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든 후 치료보다 체내 자연 치유력을 북돋우워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심신의학(心身醫學)에서 강조하듯 “마음이 편해야 병이 없다”는 말도 또 한번 음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인은 병에 대한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 요즘 의학의 발달로 좋은 약이 많이 나오는데도 병은 줄지않고 환자만 늘어나기만하는가. 그것은 환자들이 의사와 약에만 의존하고 또한

약을 맹신 남용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칼로리는 만점인데 왜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병이 생기는가 그 원인 또한 反自然의 문명생활에서 비롯된 火食, 大食, 高칼로리 섭취 등에서 오는 잘못된 식생활방식이 병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

여기저기 건강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엮어 보기로 한다. “一命一生”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니고 오직한번뿐인 인생을 산다. 중국 宋나라의 학자 朱新仲의 人生五計를 보면 첫째 生計요, 둘째 身計, 셋째 家計, 넷째 老計, 다섯째는 死計다. 이중에서 둘째 身計는 어떻게 나의 몸을 관리할 것이냐를 말하며 넷째 老計 역시 老年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일컫는 말로서 모두가 건강과 직결되는 人生座右銘이다.

美國의 두 의학자 보레슬로와 벨로는 지극히 평범한 몇가지 생활관만 지킬 경우 평균수명이 무려 11년이나 늘어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들이 밝혀 낸 「無病長壽」의 비결은 다음 일곱가지로 집약된다.

〈無病長壽 金言〉

1.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할 것
2. 아침은 반듯이 들도록 할 것
3. 규칙적인 식사
4. 표준체중을 유지할 것
5. 週 二, 三回 적당한 운동
6. 상습적인 음주는 금물
7. 금연

우선 첫째비결인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휴식이라는 점에서 첫째 조건에 뽑힌것 같다. 미국 암협회가 실시한 연구에서도 하루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만큼 수면시간과 건강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잠들기가 힘들때 간단한 운동을 소개하면 우선 想念을 떨쳐보려고 평온한 마음으로 양쪽 귀를 36번 문지른다. 건강매트를 3~5분 밟아 발바닥에 자극을 주면 자연스럽게 熟眠으로 유도할 수 있다.

「아침은 반드시 들도록 할 것」이라는 말은 活動的인 靑, 壯年時節에 필요한 基本的인 이야기이나 老年期의 우리들에게는 過食은 禁物이며 一日 二食主義(朝食과 夕食)를 본인은 권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消化力이 減退됨으로 小食이 成人病 예방에 도움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본사람들의 평균수명이 80세를 육박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인들의 小食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成人病人 위장병, 당뇨병, 간장병,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심장병 등도 식이요법으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론이 요즘 각광 받고 있다.

균형잡힌 식사는 물론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우유, 해조류(다시마)를 많이 먹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하는 것이 좋으며 취침전 많이 먹으면 熟眠도 방해된다. 老年期에 食卓에서 추방해야 할 음식 3가지는 다름아닌 白米, 白鹽, 白雪糖이다. 이들 식품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有害食品임을 명심하여 멀리 하길 바란다.

「규칙적인 식사」를 권장하는 뜻은 간식이 칼로리의 과다섭취



와 식사습관을 불규칙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알아두어야 할 일이며, 특히 밤늦게 먹는 간식이 체중조절을 실패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규칙적인 식생활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필자는 간식을 피하는 좋은 방법중 하나인 老  
化방지에 으뜸가는 補藥으로 “찬물” 生水를 하루 2ℓ씩 마실  
것을 권하고 싶다.

찬물인 “六角水”는 體內 칼슘배출을 막아줄뿐 아니라 生水  
는 칼슘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으나 끓인물은 증류수와 같아  
생수와는 전혀 다르며 살아 있는 생체의 세포에는 生水가 효과  
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쉽게 입증된다. 즉 금붕  
어나 盆裁에 끓인 물을 식혔다가 주면 쉽게 죽거나 말라버리게  
된다. 따라서 생수가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표준 체중을 유지할 것」이라는 말도 역시 평범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암학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비만남성에게는 대장암,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표준체중 산출방법은 자신의  
身長에서 일백을 빼값에 0.9를 곱해 나온 수치를 말한다. 體重  
減量에는 공복時 運動이 最高이며 잉여脂肪소비에 중점을 두어  
실행하길 바란다.

「週 二, 三回 적당한 운동」이라는 다섯번째 비결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규칙적 적당한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기능  
과 폐활량을 높여 줄 뿐만아니라 당뇨병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  
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기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찾아  
내어 過하지 않는 범위에서 週 二, 三回 하여야지 갑자기 무리  
한 운동 즉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有害酸素를 生成(酸素毒)하  
여 成人病을 유발한다. 이 有害산소는 세포막과 세포안에 들어

있는 유전자효소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히고 결국 몸안의 질병  
 대항 메카니즘을 붕괴시키면서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 有害 산소가 일으키는 질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화축진을 비롯해 발암, 류마티스, 백내장, 당뇨,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기미, 주근깨등의 피부질환도 유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平常時 잠자리는 요가 얇고 딱딱한 寢床이 좋으며 목욕(냉온욕  
 - 1분씩 7회)을 자주할 것과 옷은 헐렁한 것을 입어 風浴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감(柿)잎차(100mg中 Vitamin-C 600~  
 800mg함유)를 다려 마시도록 권하고 싶다.

「禁酒 또는 적당한 음주」는 역시 평범한 말이지만 상습적인  
 음주는 비만증과 영양결핍을 초래하며 뇌기능 장애와 간경변증  
 을 포함한 간, 심장, 위장질환등 우리건강을 해치는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적당한 음주량을 논한  
 다면 맥주는 한병, 정종은 한컵, 소주는 1술(半병) 정도를 말하  
 며 그것도 休肝日을 정하여 음주후 2日間은 쉬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순간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피우는 담배 한 개비가 우리  
 의 수명을 5분 30초씩 단축시키며 하루 한갑 이상씩 65세까지  
 담배를 피울 경우 비흡연자보다 사망율이 두배나 되며 폐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10배이상 높다는 학회보고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므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전적인 素因이  
 있어도 좋은 습관을 가지면 발병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성인병도 예방이되고 평소규칙적이고 절제있는 생활습관  
 으로 우리의 영원한 꿈인 「無病長壽」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여 꾸준히 실천해 주길 건강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健康十戒命)

1. 少肉 多菜
2. 少塩 多酢
3. 少糖 多果
4. 少食 多咀
5. 少煩 多眠
6. 少怒 多笑
7. 少衣 多浴
8. 少慾 多施
9. 少言 多行
10. 少車 多步

“健康에 參考되는 추천도서”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이명복췌(의학박사)

洪文和박사의 건강교실 홍문화췌(약학박사)

기적의 니시 건강법 와다나베췌(의학박사)

## 中夏兩師訪古酒肆

李南杓(30回)

夏日明洞暑氣多  
一醉逸興不滯久  
移於景昌古酒肆  
其時長安肉肴絕  
內室老主古稀姿  
唯有三者期徹夜  
萬里東溟咸興野  
盤龍馳馬長川橋  
喬師回憶初行次  
英邁俊秀縉紳士  
駐北蘇軍拉喬師  
悽絕死地克其禍  
威重豪風東湖師  
每逢樽酒意未滿  
連飲鎖煙夏夜長  
談論未熄至曉天

解渴大杯幾回斜  
次寄都順北青家  
夕陽對坐痛飲辭  
此家貯藏豐而多  
叩門來客不迎入  
笑談清話往今事  
高普時節元氣壯  
春風秋雨幾山河  
若冠十九在豫科  
浩然風流氣宇雅  
流配受難於露領  
達於生死如一境  
經國濟民力說破  
不意如如及叱唾  
莫問再逢可期何  
天下爲寶同硯詞

高密度의 人口와 高層建物の 숲속에서 살고있는 오늘의 都市生活이 단조로운 탓으로 우리는 짜증스럽다. 속알머리가 좁은 사람들이 우굴대고 있다. 너무 打算的인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 대개 이들은 近視眼的이다. 그래서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것이 매 한가지이다.

産業化過程에서 사람들도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不知不識간에 단순화 低質化 되어가는 것은 不幸한 일이다.

名門威興高普를 거쳐간 俊秀하고 豪放한 大先輩人物記를 많이 들으면서 畏敬之心을 품었던 體驗을 가진 나로서는 오늘 世態에서 보는 사람들의 단순화 저질화를 개탄하게 된다.

個性이 넘치는 그분들의 生涯記와 그 뜻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無氣力한 나의 生活이 活力素를 얻어야 한다고 自責하기도 한다. 이 再活力의 源泉은 참으로 高貴하도다

☆ ☆ ☆

却說하고 冒頭의 雙韓老師라 함은 韓喬石과 韓東湖 두분 大先輩이다. 이분들은 啣字에서부터 벌써 俗氣를 떠난 超一級人物 특유의 個性味를 풍기고 있다.

老少同樂을 개의치 않는 豪放한 氣象으로 許交하시니 後學의 나로서는 同席기회가 매번 尊敬과 感興의 값진 體驗으로서 腦裡에 記銘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會同은 지금으로 부터 四半世紀前 두분을 모셨던 行事이다. 威興高普 大先輩 가운데서도 天下가 아는 우리나라 第一流의 人物이신 두분께서는 단연 또한 우리나라 第一級の 酒豪이다. 나에게는 天衣無縫에나 비겨볼 수 있는 이

분들의 華麗하고 活氣찬 酒歷을 筆舌로서 전달할 能力이 없다. 可謂痛歎之事이다. 나의 拙辭가 그 酒歷의 一端을 소개하면서 同硯諸位の 破顏微笑를 부르는 破寂의 好題가 되어지이다 合掌.

☆ ☆ ☆

그날 우리는 明洞의 麥酒홀에서 解渴삼아 큰 잔을 여러차례 기우리고 나서 우선 찾아간 곳이 都順의 北靑집이었다. 그곳은 東湖師께서 無常 出入하는 곳이어서 酒肴 酒債 酒席에 관한 한 年中 無事通過임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 그 當時 이른바 소고기波動을 또한차례 겪느때여서 夏日長 해는 中天에 걸려 있되 夕陽인데도 都順은 閉門休業이었다. 그렇다고 우리의 出入까지 막는 것은 아니어서 都順은 성심성의것 在庫供出을 하였다. 喬石師께서 及其也 東大門 밖으로 方向提示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興仁門을 나서자 昌信洞으로 들어섰다.

喬石師의 향도를 받아 닿은 곳에는 작은 韓屋이 있었다. 돌층계를 세개 올라선 대문기둥에 立春榜처럼 景昌屋이라는 세글자가 팻말에 적혀 있었다. 오랜 歲月을 두고 風霜을 겪은 옛집인데 이곳 역시 閉門休業이다.

☆ ☆ ☆

그러나 喬石師의 來意傳喝이 안으로 전달되자 門빛장이 풀리고 酒客을 맞아 들였다. 內室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늙은 主人은 喬石師가 건너는 問安인사에 默默不答 눈짓으로만 和答하였다. 主人의 指示로 우리 세사람 來客만이 이 집을 그날밤 독차지 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三十年前 城大豫科에 入學當時 十九歲의 端雅한 俊秀青年을 맞았던 이집 主人은 오늘도 縉紳酒客 喬石師를 예

나 다름없이 好酒佳肴로 대접한다. 古稀의 주인이나 종이나 당시 長安의 소고기과동에 대해서는 一言半句 言及도 없었다.

☆ ☆ ☆

樽酒와 佳肴를 갖추어주고나서 深夜三更 이집 內室의 불도 꺼졌다. 즐담배 愛煙家 喬石師를 위한 卷煙준비도 충분하다. 실로 萬籟空寂인데 나는 두분 酒仙께서 나누시는 往今事를 귀담아 들으니 그 속에 天時人事 俱存이라 하겠다.

때로 悲憤慷慨어린 東湖師의 詠嘆이 “李後輩”하고 語聲높은 一喝叱唾로 번지다말뿐 太古적 고요와도 같은 喬石師의 낮은 音聲은 夜半靜寂을 깨치는 종이한장의 무게와도 비할까 無量酒에 寂更寂 可謂 神仙境에 이른다고 함은 바로 이런 境地일 것만 같아였다.

木枕만큼이나 두터웠던 喬石師의 테스 譯本 華麗한 공부의 幽玄境을 결코 自負하지 않는 喬石師께서는 解放後 咸興에서 民主運動의 地下組織을 主動하는 人物로서 적발되어 蘇聯땅 凍土의 시베리아로 流配되어 生死를 期約할 수 없는 囹圄의 몸이 되었다.

九死一生으로 이 처절한 境地에서 풀려난 喬石師께서는 生과 死를 별다르게 보려하지 않는다. 俗人은 이를 達道者라 하지만 本人은 그런 稱號를 원치 않는다. 이와같은 自己超越의 生死如一觀은 天性的 所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우러러 보는 咸興高普出身 第一級人物이 “死境萬里的 勝利者”라는 식의 實話雜誌의 英雄的 主人公과 同序列일수는 없다. 當時 某人輩는 天下大權을 잡은 英雄을 자처하며 妓坊에서 數萬錢手票를 뿌리며 豪遊하였지만 都是 이런 雜輩들의 小

英雄主義같은 것이 眼中에 없었다.

이와같은 天性을 타고난 咸興高普出身 第一級人物에게서는 日帝의 植民地 教育도 그 毒牙를 박아 넣을 수 없었음을 볼 수 있다. 日帝下의 暗黑期에 植民地教育을 받으면서도 이를 越克하는 遠大한 비전을 우리들 愚昧한 後學들에게 明暗裡에 비쳐준 모든 第一級人物 先輩들을 나는 존경한다.

☆ ☆ ☆

그런데 이 名門母校는 이제 歷史속으로 沈澱하고마는 셈이다. 國土兩斷 半世紀의 悲哀를 그대로 지니고서 말이다. 哀惜하도다 南北離散의 第一級엘리트 資源을 融合하여 國運隆盛의 壯大한 事業을 꾀함즉도 하건만 時不利의 嘆聲이 저절로 나음을 禁할 길이 없다.

噫라! 그날 그때 그밤 景昌屋에서의 우리의 清談이 오늘 나의 이러한 恨嘆으로 이어지니 痛恨事 아닐 수 없도다 擱筆.



## 시급한 생물 다양성과 습지보존의 우선순위



元 炳 晔(30回)

리우에서 선포한 지구 정상들의 생물 다양성 협약은 절박했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범세계적인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조류를 비롯한 생태계 보호는 초점을 생물다양성 보존으로 맞추어 지구의 열망에 기여하는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고 확실한 하나의 과제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잔존하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내어, 식별하며 감정하고 그 곳에 대해 입증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것은 곧 중요한 잔존하는 조류의 서식지를 위시한 중요 생태계 지역을 발굴하여 그의 상태를 밝히며 필요로 하는 관리와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류보호는 그와 같은 목적에서 뚜렷한 기여를 해 왔으며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조류는 생물 다양성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효과적인 자료가 된다는 충분한 이유에서 그의 주장이 성립된다. 조

류는 여타의 여하한 생활양식을 지닌 생물보다도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일반의 지지와 인식을 더해준데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연생태계는 한정된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데 확실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자연보호 학자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확실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보내어 그들의 실행을 통한 생태계 보호의 성패를 가늠하여야 한다. 멸종된 조류의 대부분은 지난 200년 동안에 일어났다. 오늘날 약 1,000종 이상의 조류가 절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주된 위협 요인은 서식지의 상실이다. 그것은 곧 유일한 가치와 취약성을 지닌 지구상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분쟁지역을 발굴하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 사업은 그의 목적을 위해서도 확실한 우선순위가 마련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행동(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요구되는 서식지와 종의 완전한 범위(분포권)를 포함하는 상응한 생태계 보호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즉 비유지 토지 이용에서 결과하는 것과 같은 개체군 집단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특수지역의 중요한 종의 집단 레벨을 알아야 한다. 그의 실행을 위한 활동은 곧 위협받고 있는 종들의 집결지와 위협한 지역들을 포함하는 중요한 생물다양성 지역과 직결된다.

그러한 중요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 1) 중요한 지역에는 유일한 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위협받고 있는 절종위기의 종이 서식, 체류 또한 번식하는 지역, 3) 집결 또는 집단 번식하는 중요한 지역, 4) 위에 포함되지 않은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서식지 등. 단, 일부 지역은 토지

이용에 상충되는 곳도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보호로 최대한의 경제적 추구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 생물다양성 지역 23개소를 선정했다. 국토 면적 1,072.4km<sup>2</sup>의 약 1.1%에 해당하는 107,239.7헥타의 면적이다. 이 중에서 8개 지역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일부 보호지역에서부터 지속적인 유지토지 이용의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에 이르는 적절한 보호책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자연자원 조차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에 밀려 보호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계 보호에서 조류는 여타 야생생물에 비해 가장 이상적인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편으로 접근해 왔다. 1) 직접적인 박해로부터의 종의 보호, 2) 보호지역 즉 자연보호 지역(또는 특별보호지역)의 설정을 통한 생태계 보호-동식물상 보호를 위한 관리 보호, 3) 경제적 활동 즉 서식지와 경관의 파괴나 변화(악화)를 규제하여 공기, 토양 및 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등 환경의 보존이다.

무릇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낱말은 동물학자 E.O. Wilson에 의해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이란 구(句)를 요약해서 만들어낸 단어이다. 생물다양성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든 범위 즉 유전적 다양성(Genetic variety) 종의 다양성(Species variety) 및 생태계의 다양성(Ecosystem variety)을 내포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명의 다양성(variety of life)를 뜻한다.

생물다양성을 촉자는 일반 대중이나 정책 수립자들로 하여금

어딘가의 남다른 특별한 곳에서나 또는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보전은 자국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의 국외행동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는 150정부 대표가 참석했었다. 한국과 EC를 포함하는 153개국 정상들은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그의 주요 내역을 보면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지 이용을 위한 각국의 전략과 기획 및 프로그램 등의 수립을 통한 환경보호와 유지개발의 통합적 수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선포인 것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목적은 국가 정책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농업, 임업, 수산업, 운수업, 지역개발 및 에너지 등 경제의 주요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생물다양성의 저하는 멈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난 날의 손실은 최소한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 정상들의 생물다양성 협약의 서명을 기화로 행동을 위한 실질적 기획을 창출해 내야 한다. 종과 생태계의 다양성 보존에서 우선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여 그의 위협요인 규명과 대응조치 내지는 대안과 차선책 까지도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수요를 따를 수 없는 자원의 공급을 지속적인 이용(유지수획)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와 이용으로 그리고 개발과 보전이 통합적으로 성취 될 수 있도록 만남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濕地의 保護

한국에서의 습지(Wetland)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갯벌만 해도 1983년 이래 2001년까지의 면적이 73개 지역에서 무려 418,368헥터에 이른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마다 연간 105,218헥터의 비율로 습지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물새(水鳥類)들은 발붙일 곳을 잃어가면서 보다 적고 좁은 면적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한 집결은 물새들에게 먹이 부족과 함께 그들 행동, 생리 및 생존에 위험과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습지의 상실은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물새들을 위해선 잔존하는 습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은 자연에 대서 수문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와 같은 변화는 흔히 습지의 생산성을 저하시켜왔다. 습지의 기능과 생산성의 원상복원을 위해서는 물의 분포, 배출 등 자연수문 체계와 맞먹을 수 있는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의 生物多樣性 保存을 爲한 主要濕地 地域

1. 강원도 화진포 적호
2. 철원분지
3. 台城洞 및 板門店 일원
4. 漢江河口
5. 용진군 新島
6. 강화도 일원(南岸)
7. 영종도 해안 일원(남안, 북안 및 삼목도 일원)
8. 漢江 서울水域(성산대교—일산신도시 입구의 한강하류 일원)
9. 양수리 八堂일원(수원지)

10. 남양만 일원
11. 牙山灣일원(삼교 汎月포함)
12. 천수灣 일원
13. 錦江河口 일원
14. 금강, 만경강 및 당진강 하구 일원
15. 西大邱 및 달성군 일원(화원 및 달성군 일원)
16. 우포(牛浦)습지 일원
17. 山南, 注南(春山) 및 동파 저수지
18. 洛東江 河口 일원
19. 巨濟島 鶴洞 해금강 일원
20. 濟州島 城山浦 저수지 일원
21. 제주도 북제주군 사수(泗水)島
22. 전남 신안군 七發島
23. 전남 신안군 九窟島
24. 전남 진도일원
25. 제주도 해안 일원



## 停年退任有感



### 金秉喆(30回)

서울 江南 南端 九龍山과 大母山の 기슭, 開浦洞에 자리잡은 우리나라의 優秀한 技術人力養成의 道場인 首都電氣工高(韓國電力公社가 維持, 管理)에서 6年間 校長職을 奉職하다 1993年 8月에 停年 退任했다.

中國古典에 學然後知不足, 教然後知困이란 말이 있다. 배우고 나면 더욱 自己에게 不足함이 있음을 알고 가르치고 난後에 困窮함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즉 공부하는데는 終局이 없다는 뜻인것같다. 가르치고 난後에 困窮함을 안다함은 가르치는 立場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理解하기 어렵겠지만, 남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는 쪽이 몇배의 努力이 必要하다는 뜻이다. 남에게 틀린것을 가르칠 수 없으므로 熱心히 研究하고 準備하게 되며, 그래도 充分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自己의 未熟함을 느끼게 되고 困窮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 「곤궁」을 용수철로 삼아 研究와 讀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不足함을 아는 것」이나 「困窮함을 아는 것」이나 모두 自己를 向上시키는 動機가 됨을 알수있다. 이제 敎職을 물러나는 마당에 새삼스럽게 그 뜻을 되새기게 된다.

本人은 後任 學校長에게 引繼引受를 하는데 흔히 하는 形式대로 校長室에서 미리 作成된 文書에 도장을 찍는 그런 形式的인 節次를 취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登山服 차림으로 學校를 높은 곳에서 굽어볼 수 있는 九龍山과 大母山에 登山하면서 引繼引受를 했다. 그것은 本人이 15年前 麻浦孔德洞에서 移轉하여 새로운 이 學校의 터전을 잡은 때, 바로 이 산에 올라서 여러모로 綿密히 檢討하고 決心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 둘은 멀리 아득히 펼쳐지는 서울 市街地와 그 학복관을 가로 지르는 漢江, 그리고 江南의 가장 明堂자리에 位置한 이 學校의 現位置, 즉 首都電氣工高70年史에서의 現在의 位置를 確認하고, 그리고 앞으로 學校를 어느 方向, 즉 目標로 向할 것인가 하는 目標設定과 그러기 위해서 어느 길을 擇할 것인가, 즉 推進方法을 진지하게 論議했다.

어느 有名한 作家의 「自己는 높은 빌딩 屋上에서 땅위를 달리는 自動車를 바라보는 姿勢로 글을 쓴다」고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混迷로운 世上에서 進路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재빨리 捕捉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方向을 發見하는 發想이기도 하다.

混迷에는 3段階가 있다. 첫째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망설임이다. 즉 方向性의 상실이다. 두번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位置不明이다. 現位置를 모르고 있으면 磁石도 使用할 수 없다. 셋째는 方法의 問題이다. 方向과 位置는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망설임이다. 自己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이게 된다는 사람들의 大部分은 實은 이 3가지 망설임의 區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狀態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學生生活이나 비즈니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大學을 志望할



것인가를 망설이기 前에 무엇을 專攻할 것인가를 方向性的 問題가 先行되고, 다음에 自己의 레벨, 學力의 位置의 把握이 必要하다. 聯合考査의 偏差値가 낮은데도 一流大學을 志願하고 僥倖을 바라는 것은 僥倖이다. 現在의 位置와 射程距離를 생각해야 한다. 本人은 校長在職中 가끔 學年別로 全員을 이끌고 九龍山과 大母山에 登山하여 山上 精神訓話를 하여 이런 理致를 머리속에 박히도록 努力하기도 했다.

本人은 또 平素에 教育을 펌푸(Pump)물에 비유해왔다. 地下水가 있을만한 곳에 파이프를 박아놓고, 한 바가지의 물을 펌푸에 注入한 다음 힘차게 펌푸의 손잡이를 上下로 움직이면 無限定한 地下水가 팔팔 쏟아져나오게 된다. 學生各者는 無限한 才能과 潛在力을 갖고 있는 것이다. 從前의 지나친 暗記式 工夫보다는 各者의 숨은 能力과 素養은 開發하는 밸런스(Balance)가 잡힌 그런 工夫를 하도록 強調하여왔다. 學歷보다 學力增進을 尊重하는 그런 授業을 하도록 特別히 實習과 實技에 力點을 두고 推進해 왔다.

本校는 全國에 오직 하나 뿐인 電氣特性化工高이다. 그래서 먼데서 眞理나 教訓은 찾을 것이 아니라 電氣에서 뭔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電氣에서는 첫째로 빛이 나온다. 빛은 光明이요 希望이요, 公正이요, 明朗이요. 先見之明이다. 우리 모두 밝고 맑은 性格으로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열(熱)이 나온다. 熱은 情熱이요. 熱心이다. 純情이요. 靄氣요, 끈기이다. 우리 모두는 情熱의 사나이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電氣에서는 힘이 나온다. 힘은 精力이요. 實力이요. 努力이요. 迫力이요. 創意力이다.

우리모두 生産하는 組職의 一員이 되자 넷째로 또 電氣에서는

電波가 나온다. 電波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남과의 關係에서 意思  
 悚通과 情報交換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電氣는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야만 빛·熱·힘 그리고 電波가  
 發生한다. 이것은 바로 東洋哲學에서의 陰陽의 調和이기도 하다.  
 恒常 양보하고 調和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하루의 日課를  
 마치고 家族들과 저녁食卓에 둘러앉아 단란한 때를 보내면서 환  
 하게 房안을 비추주는 電燈을 바라보며 나는 果然 오늘 電氣의  
 敎訓은 얼마나 實踐했는지 反省하고, 그리고 또 밝아오는 來日을  
 尙해 달음질치도록 하자고 機會있는 때마다 強調하곤 했다.

近間 靑少年들의 問題行動이 急增하고, 심지어 悖倫行爲까지  
 連달아 發生하여 온통 世上을 驚愕하게 만들고 있어, 敎職生活을  
 했던 사람으로서 낯을 붉게 만들고 있으며, 민망스럽기만 하다.  
 살무사[殺母蛇]도 아닌데 自己 아비와 어미를 죽이는 背恩忘德  
 한 悖倫兒가 있으니 末世의 感이 든다.

漢文에 梟獍(효경)이란 單語가 있다. 「梟」는 어미새를 잡아먹  
 는 새, 「獍」은 아비짐승을 잡아먹는 짐승, 여기에서 “凶惡無道하  
 고 恩惠를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을빼미[梟]는 그 어미새를 잡아먹는 不孝한 새라고 믿었기에 이  
 를 잡으면 나무끝에 매달아 그 不孝함을 世上사람에게 보였으며  
 語源도 거기에서 緣由했다고 한다. 靑少年의 生活指導를 위하여  
 家庭과 學校와 社會가 三位一體가 되어 꾸준한 努力을 傾注해야  
 한다. 한알의 씨앗이 成長하는데는 첫째, 흙에 適當한 溫度와 濕  
 度, 둘째, 養分 등 基本條件이 있다. 問題行動이란 自己自身の 欲  
 求를 充足시켜서 自我를 實現하는 人間으로 成長하기 위하여 取  
 해진 行動인데, 단지 그것이 그릇된 判斷에서 나온 것이다. 問題  
 行動樣式에는 ① 關心이나 注目을 끌기 위해, ② 힘 겨루기 行動,

③報復과 앙갚음하는 行動, 自暴自棄하는 行動等を 들 수 있으며, 그 種類로는 盜癖, 暴力行爲, 性非行, 飲酒·吸煙, 藥物乱用, 暴走族, 家出, 自殺等 多樣하다.

指導上 配慮할 点으로는 保護者와 教師, 그리고 靑少年間의 價値意識의 差가 問題이며, 發達期特有의 心理 즉 「어른들에게 권찮는데 우리는 왜 안대」, 「스트레스解消을 위한 곳은 여기뿐」이라는 反抗이라고 할까 自潮랄까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不健全한 行爲나 場所에의 出入은 常習化의 危險이 있으며, 學習意慾의 喪失, 金錢浪費, 生活習慣이나 能度の 紊亂 등을 招來하고, 급기야는 問題行動으로 發展하며, 또한 거리의 暴力組職이나 不良그룹과의 接觸의 機會도 많아짐으로, 問題徵候의 早期發見에 힘써야 한다.

恒常 學生과의 接觸機會를 많이 갖도록 힘쓰고 顔色·表情·言語態度·服裝 따위에 細心한 注意를 갖고 視察을 持續化해야 한다. 또한 有害環境의 淨化活動을 學校와 行政當局 그리고 學父母會가 協力하여 強力히 推進해야 하나, 보다 重要的 것은 어떤 有害環境이나 誘惑에도 빠지지 않는 씩씩한 精神과 건전한 判斷力을 갖도록 徹底히 指導하는 일이다. 學父母나 教師는 寬과 嚴, 愛와 威의 精神을 發揮해야 하며 體罰은 一切 禁해야 한다.

흔히 學父母들은 自己의 子女教育을 學校와 擔任先生에게만 依存하는 경우가 많은데, 子女教育 基本은 어디까지나 家庭教育에서부터 이루어짐을 分明히 銘心해야한다. 옛날에는 嚴父慈母라하여 家庭教育이 人材養成에 큰 役割을 擔當해왔었는데 요새는 아버지의 家庭教育은 失蹤된 狀態이고, 지나치게 子女에게 빠져버린 어머니만 남아있고, 子女의 成績만이 幸福의 바로미터가 되어버렸다. 어려서부터 TV의 一方의 音聲속에서 자라나서 自己

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고 있으며, 「우리애들은 집에 오면 통말이 없다」는 것이 요새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實吐이다. 食事は 可及의 食口들이 같이 먹어야 한다.

아이들은 獨食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 TV가 家族을 破壞시키고, 父母의 權威를 喪失시켰으며 아이들의 孤獨을 招來시켰다. 食事中에 우리 人間은 柔順해진다. 그래서 비지니스맨들이 食事하면서 交渉을 하지 않는가. 배가 부르면 人間은 덜럭스해지며, 親近해지고, 입도 가벼워진다. 各房에 싸고 작은 TV를 備置해놓고 各者 視聽時間을 嚴格히 定하도록 해야 한다.

TV의 漫畫나 野球를 같이 본다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된다고 생각함은 큰 誤算이다. 父母라는데 說教나하고 「工夫잘해라」고 야단만치는 存在만이 아니다. 自己經驗과 생각에 대하여 때로는 아이들과 議論과 討論도 하고 부드러운 對話도 나누어야 한다 (TV가 이것을 妨害하고 있다). 요새애들은 單語만을 늘어놓는다. 「엄마 돈!」 自己생각을 要領있게 正確하게 發表하는 能力이 不足하다. 이래가지고 어찌 國際人이 되겠는가.

아이들이 어렸을때 父母들도 꿈을 가진다. 健康하고 創造性이 旺盛한 사람이 되어야 할터인데하고 생각하고 너글너글 구김살 없게 자라기를 바라게 된다. 有名한 朴魯植氏의 CM “개구쟁이라도 좋다 健康하게만 자라달라”가 생각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父母들도 젊어서 遊園地·놀이터·하이킹·피크닉등 많이 따라가고 쫓아다닌다.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잘 記憶하는 것은 10才以上 되었을 때이다.

中高生이 되면 知識·智慧·感受性도 強해지고 學校工夫外에도 보는 것, 듣는것이 모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나 이때쯤되면 아버지는 바빠지고, 會社에서의 地位가 높아지고, 歸家도 늦

어지고 休日勤務에다 쉬는 날이면 잠만 자고, 어머니는 「애들이反抗한다」라든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不平不滿만 털어놓게되며, 아이들의 反發·反抗이 두려워서 分明하게 「NO」라고 말못하게된다. 왜 아이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未成年者이기 때문에 「NO」는 어디까지나 「NO」다. 아이들은 「돈이 없다」고 그 理由를 說明하면 納得하는 法이다.

어렸을때부터 嚴한 教育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嚴父時代에는 그것이 可能했었다. 지금은 무너졌다. 어머니가 「여보 너무 그러지 말아요」라든가 「당신에게 그럴 資格이 없다. 집에 있지도 않고 關心도 없으면서…」라고 無意識中에 내뱉는 버릇이 있다. 게다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잘 말해줄께」라든가 「여기 내돈을 줄께」라고 깊이 간직했던 돈을 주며 孫子들의 눈치를 본다. 子息을 낳았으면 養育에 關한 方針은 夫婦가 서로 協調하여 役割分擔을 決定해야 한다.

子息은 學校나 社會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낳은 父母가 기르는 것이며, 學校나 社會는 거들어 주는 곳이며, 知識과 技術과 教育은 심어주는 곳이다. 美國하버드大學에 應試한 우리나라 留學生이 學科成績이 優秀했는데도 不合格이 되어 學父兄은 學校當局에 가서 理由를 따졌더니, 學校當局者말이 「당신子弟는 分明히 成績은 優秀하다. 그러나 內申書의 特別活動을 살펴보니 社會奉仕活動(獻血, 孤兒院 및 養老院訪問, 各種 自願奉仕生活 등)을 全혀 하지 않았으니, 우리大學은 그런 學生은 所用없다고 했다한다. 또 우리나라 어린이에 比해 美國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積極的으로 집시닦기, 동생봐주기 父母의 自願奉仕의 심부름, 落葉 쓸기, 除雪作業등 家事 돕기를 하여 용돈을 타쓰는데, 우리나라 學生들은 家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다.

어느 社會건 絶對的인 養育方法이란 없다. 各집마다 家統(歷史)이 있고 생각이 서로 다른 夫婦는 各家庭마다에 나름대로의 人生이나 養育에 關한 方針을 서로 合議해야한다. 이때까지 放任主義였다가 어느날 冊을 보고 感動하여 갑자기 스파르타식이 되거나 TV드라마의 影響으로 「禮節바르고 착한 어린이가 되라」고 야단만 친다면 아이들은 오히려 父母를 없인여진다. 父母는 絶對로 強해야한다. 「너는 이웃집 애들과는 달라. 우리집은 이런 方式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것이 우리집 멤버의 任務이다. 너도 어른이 돼서 獨立했을때 너희나름의 方針을 세워시 살아가라.

이집의 멤버인 以上 이집方針에 따르는 것은 當然하다」고 峻嚴하게 타일러야 한다. 他人이나 學校에 自己子息을 야단쳐달라고 하거나 說得시켜달라고 생각해선 絶對로 안된다. 方針에 맞지 않으면 斷乎하게 「NO」라고 해야하며, 아버지의 主義·主張은 끝까지 貫徹시켜야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란 自己기만은 이젠 버려야 한다. 子女教育이란 最善을 다한後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의 現實이 이렇진데 南北統一이 되었을 때, 北韓의 靑少年의 指導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課題는 참으로 泰山 같다.

◎銅으로 거울을 삼으면 나의 외모를 볼수있고 玆를 거울로 삼으면 나의 내면의 得失을 볼 수 있다. (唐·太宗)

## 鎮 魂 曲

李 河 (30回)

여름이 한창인가 보다.

큰 길가 푸라타나스 가로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 매미가 자동차 소음에 질세라 목청을 도꾼 노래소리는 큰 빨딩숲에 가려 있는 나의 진찰실에 까지 요란하게 들려 온다. 그것들은 저렇게 소리 높이 울고서 이세상을 하직 한다고하니 아마도 그들끼리의 짧은 생애를 보내는 이별을 애석해 하는 장송곡인가 보다.

요사이의 실리위주의 풍조가 만연되어 어제 까지도 피와 죽음으로 대치하던 인간들이 오늘에 와서는 죽음으로 자기를 도와주던 혈우를 버리고 소위 중국과 국교를 맺자 마침내 청천백일기가 이 땅에서 사라져 갔으니 세상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 사뭇 감회가 깊어진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긴장된 머리를 시키느라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에 매료되어 한참 음악에 심취되어 있었던 지난날 나는 몇장의 진혼곡판을 모은 적이 있다. 진혼곡이란 주님과 크리스도에게 사자의 영원한 안식을 탄원하며 그의 가련함을 호소하고 그의 죄를 지옥에서 면하게 하여 끝내는 사면하게 이르게 하는, 기원하는 뜻을 담은, 주님에게 바치는 곡을 말하며 미사의 교리 외에 신자와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교리가 가미되어 있어 사자를 위하여 기도 드리면 그 은혜로 살아 있는 교우에게

도 미친다는 교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조용한 방에서 혼자 이 진혼곡을 들노라면 그 절규와 애원이 담긴듯한 유연한 리듬의 노래소리 속에서 기도하는 이의 숭고하고 애처로운 모습이 연상되어 때로는 마치 나 자신이 지은 어떤 죄를 속죄하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잠겨 오랫동안 내 마음은 숙연해 지기도 한다.

어느날 저녁에 애주하는 친구가 부인을 모시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찾아 왔기에 나는 술친구가 생겨 반가히 맞아 드리고 얼른 주석을 마련하였다.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문외한인 그의 성화에 못이겨 며칠전에 입수한 Brahms의 독일진혼곡을 틀었었다.

한참듣고 있던 그들은 「이 곡은 너무 서글퍼서 틀렸다」고 하면서 다른 곡을 틀라기에 판을 바꿨으나 그것 역시 마음에 안든다고 하기에 음악을 듣는것을 그만 두기로 하고 전원을 꺼버린 적이 있다. 역시 주석에서의 음악은 흥청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들어야 마음에 양이 차는 것이며 진혼곡 또한 혼자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들어야만 그 곡의 맛이 나는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었다. 진혼곡에는 대개 재미 있는 일화가 있다.

이상한 옷차림의 사자가 가져온 편지로 청을 받고 작곡 하였다는 Mozart의 미완성의 백조의 노래인 유명한 진혼곡을 비롯하여, 프랑스혁명으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루이16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루이18세가 명하여 작곡된 Cherubini의 진혼곡, Berlioz의 사자를 위한 대 미사곡은 카톨릭교회의 미사곡 형식으로 라틴어로 가사가 쓰여져 있다. Verdi는 그의 스승 Rossini의 사망후 12명의 이태리 작곡가를 규합하여 Rossini



를 위해 진혼곡을 쓸려고 계획 하였으나 Mazzucato의 권유에 못이겨 혼자서 진혼곡을 완성하여 그의 오페라 Aida에 버금가는 걸작으로 Verdi 특유의 극적인 효과를 간직한 종교음악으로서 극찬을 받고 있다.

Brhams의 Ein Deutches Requiem은 라틴어 대신 독일어로 가사를 적어 카톨릭교회의 예배용이 아닌 음악회용으로 아버지와 이별한 어머니의 죽음에 자극이되어 이 곡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였다는 일화가 있으며 Faure는 아버지의 죽음이 동기가 되어 그의 진혼곡을 작곡 하였다고 한다.

영국의 천재작곡가 Britten의 전쟁진혼곡은 카톨릭의 의식문 형식과 Owen의 반전내용의 영시를 잘 조합하여 2차대전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배형식이 아닌 자유형식의 음악회용 곡으로 작곡하였으며 이 곡은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성미카엘 성당이 제2차 대전중 1940년 독일의 대폭격으로 파괴된후 22년이 지난 1962년 5월 30일 대교회의 새로지은 성당낙성 축하 헌당식에서 초연되었다. 당시 작곡가 Britten은 전쟁 당사국인 세 나라의 명가수 한사람씩으로 테너에 영국의 미성가수 Peter Pears, 바리톤에 독일의 Fisher-Dieskau와 소프라노에 소련의 Galiana Vishnevskaya를 지정 하였다. Vishnevskaya의 사정으로 Heather Heaper가 대신하여 초연 하였으나 후일 영국의 Decca사에서 처음 계획대로 영, 독, 소의 세 사람 성악가의 노래를 취입하여 최초로 Decca판으로 출판하였다.

나는 내가 보던 환자중에서 오래동안 병마에 시달리다 끝내 이 세상을 떠나 사망진단서를 써 주었거나 혹은 그런 소식을

들은 날 밤에는 고요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술잔을 들고  
진혼곡을 울리면서 가신 이를 그리며 그의 영혼을 위로 하기도  
한다.

이제 더위가 가시면서 계절은 성숙의 문을 열려고 한다.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그들의 죽음을 서러워 하는 듯한 서글픈  
귀뚜라미의 울음 소리가 가슴 끝까지 깊이 숨어 들것이니 나는  
조바심 처럼 아직 여름이고 싶어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그러나  
우주의 오묘한 섭리와 인생의 무상함을 어찌하랴.

오늘 학우 李善植사장이 지병으로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하여  
귀국 하였다기에 문상하고 이글을 정리 하노라니 고향친구 李  
景業사장이 Canada여행중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듣고  
그들과의 지난일들을 머리속에 그리면서 다시 한번 명복을 벌  
어 마지 않는다.





韓 均 弼(30回)

노을진 석양 빛은  
언덕을 넘어가고  
단상의 비탈엔  
집념과 체념이 엉킨  
길이  
망각 속으로 멀어만 지는데

내 어이 이제  
명예를 벗고  
다들 헐벗고 간  
저 먼 길에  
뉘라서 같이 서리

이제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  
말없이 지키고 서 있는  
허수아비의 숨결이  
우습지 않구나

## ❖❖❖❖❖❖ 31. 32回 ❖❖❖❖❖❖

- ◎ 더불어 사는 세상 ..... 金 致 敬(31回)
- ◎ 追 想 ..... 金 明 哲(31回)
- ◎ 雜想三題(금강초롱 이야기) ..... 高 庚 式(31回)
- ◎ (망향시)燒 紙 ..... 鄭 源 石(32回)
- ◎ 의사도 만류한 해외여행 ..... 金 東 一(32回)



## 더불어 사는 세상



### 金 致 敬(31回)

더불어 살긴, 웃기는 소리 말어! 서로가 속이고 속는판에 무슨 소리여. 일자리 찾아 서울가는 딸에게 차조심허구, 사람조심 혀야 해 라며 당부하는 판에 무슨 얼어죽을 소리여!』 흥분한 동네 영감의 푸념이다.

날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세상인심도 각박해져 가고 있다. 계층간에 파인 위화감의 골도 깊어만 가는 요즈음이다.

서로 합심해서 잘 살아보자는 뜻으로 하는 말인데 오늘같이 물질지상주의와 금전만능풍조로 저마다 제 이익만을 챙기는 판에 『더불어 살자』는 구호는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일상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존재로 태어나며 서로가 공생하는 공동체의 한 개체로서 매사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앞서 남의 처지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해야 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겪지못한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서투른 면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아침저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나

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현안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귀찮아하는 기사의 말투에서 하루는 시작된다. 이른시각이라, 비좁은 만원버스에 간신히 서 있어야 하는 일도 지겹지만 자리문제로 벌이는 승객들의 신경전—질시어린 눈매와 반목, 냉소—을 보면서 더불어 살기에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교수(그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나와는 각별한 연하의 교수이다)에게 물어 보았다.

“여보 서교수! 마을 버스안에서 앞자리가 비어 있을 때 먼저 타는 사람은 나중 사람을 위하여 뒤로 들어 앉는 게 옳아? 아니면 자신이 내리기 편한 길목을 미리 지키고 앉아 나중사람을 뒷자리로 비비고 들어가게 해야 옳아?” 하였더니 “그야 먼저 탄 사람의 마음이지요. 앞자리에 앉는다 하여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라는 명쾌한 대답이다.

역시 실용주의제도가 정착한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다운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미국처럼 좌석간의 거리가 넉넉하다면야 문제삼을 일은 아니겠으나 허구한날 뻑뻑한 틈새를 비비고 앉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곤혹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편하기만을 위하여 나중 타는 사람을 안으로 비벼 넣는 알팍한 이기심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욱이나 살찐 총각품의 남자가 통통한 처녀의 무릎사이를 비비고 뒷좌석으로 끼어드는 관경은 보기에 민망할 지경이다.

도대체 학교나 가정에서는 무엇을 가르쳤기에 저다지도 무지

하고 무감각할까?

자신이 편히 내릴 생각만하는 그 뱃심은 바로 무지의 소치요, 파렴치라 할만한다.

항상 먼저 탄다는 보장이 없는 한, 자신도 나중에 겪을 불편을 생각해서 안쪽으로 앉아 주면 서로가 편하고 기분도 좋을 것을….

내릴때도 그렇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내리려하면 편하게 앉아 온 앞자리 승객도 가벼운 기분으로 비켜 줄 것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친절에 대한 보답은 하고살게 마련이니 조금씩만 남의 처지를 생각(易地思之)하는 사려가 있다면 서로가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으련만. 그 알량한 이기심 하나때문에 서로가 불편을 겪어야 하나 하니 서글퍼진다.

매사가 그렇듯이 우리는 서로가 친절하지 못한 탓으로 절대 부족한 좌석의 혼란외에 마음고생이란 2중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만 한다는 서글픔을 지울 수 없다.

한참후에 서교수는 “『種子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수십년을 하루 같이 받아온 푸대접인 것을…. 오랫동안 몸에 배인 타성인데… 이미 숙명처럼 굳어벌인 무감각인데…혼자서 어찌자는 겁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일을 가지고… 한가한 고민입니다.”라며 체념섞인 탄식을 내 뱉고 만다.

한참 전에 읽은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한 반면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정하리만큼 냉담하다.”는 記事도 더불어 사는 일에 서투른 우리네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한국 방문의 해』를 정해 놓고도 많은 외래관광객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겪은 불친절한 한국방문을 꺼리고 있는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란단다.

그래서인지 요즘 대기업에서는 사원들에게 친절한 예절과 인사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사원을 채용하는 기준도 예전과는 달리 인성면을 중요시한다고 들었다. 늦기는 하였어도 다행한 일이다.

진작에 온 국민이 이같은 점에 착안하여 가르쳤더라면 오늘 처럼 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친절한 봉사 하나로 대성했다는 일본 실업가의 수기를 읽고 공감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렇다. 친절하나면 그리도 좋아하는 돈을 산디미같이 벌 수 있는 데도 우리는 친절과 서비스에 너무 인색하다.

매사에 화난 사람마냥 굳어있다. 하기싫은 일을 마지못해 해주는듯한 얼굴이니 돈인들 벌어 지겠는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서교수 말대로 정말 種子탓일까. 天性탓일까.

인사할 줄도 모르지만 받을 줄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실상이라면 지나친 말일까?

버스에서 내릴때 운전기사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해도 반응이 없다. 묘한 얼굴로 쳐다 보다가 그제서야 네!라고 받는 게 고작이다.

관공서와 통화할 때 『수고하십니다.』라고 시작하면 으레 『네? 거기 어딴니까?』라며 기이하다는 말투다.

이토록 인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의사표시하는 데 서툴러서야 어찌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지하철에서 눈감고 있는 신세대를 나무라기에 앞서 자리를 선듯 내주는 젊은이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는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시대라고는 하지마는. 모든 이의 입에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때가 되어야 비로서 모두가 즐겁게 더불어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다.

禮없이 아무일도 이루지 못한다. 禮記에도 예절이 아니면 道德이나 仁義도 이룰 수 없다 하지 않는가?(道德仁義 非禮不成)

禮는 인간사회의 기틀이라 할만하다. 따라서 禮없이 쌓은 文物은 사상누각일 수 밖에 없다.

매일같이 보도되는 사건사고의 根源은 家庭과 學校에서 더불어 사는 예절이나 친절한 봉사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고 저마다 이기심만을 앞세워 온 우리사회가 겪우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든다.

禮를 저버리는 일은 인간이기를 마다하는 일로 결국 총체적 위기를 자초하고 말게 되므로 禮는 반드시 일으켜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라 믿는다.

교통질서만해도 그렇다. 아무리 난폭운전을 삼가라. 양보운전을 하라 해도 도무지 지키지를 않는다.

하루는 우리말을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가 “ 김교수님! 한국에서는 주차금지의 의미가 바뀌었나요? 팻말이 있는 곳에 의례 주차하고 있으니 말이요.” 라는 익살에 나는 할말을 잇고 말았다.

담배꽂초를 마구 버리는 젊은이들의 나쁜버릇, 공중전화를 私

物인 양 길게 통화하는 몰염치, 장마철에 맞추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버려진 양심등 병든 우리 마음의 실상을 어찌 다 열거할 수 있으랴.

승차거부하는 택시나 정류장을 지나쳐 버리는 버스의 횡포, 혼잡한 도로에서 끼어드는 운전자, 전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도 전에 타려는 양체, 경고등을 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 무지, 버스뒷쪽에 공간이 있어도 출입문쪽에만 몰려있는 승객들의 성급한 이기심과 양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슬퍼하며 화나는 수십년을 참아왔다.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을 기다리며 말이다.

심판이 公正해야 멋있는 게임이 되듯이 法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하면 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만다. 아무리 경성화한 법으로도 다스리기 어렵게 된다.

法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데도 목전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탈, 불법등 온갖 부정을 자행한다면 법치주의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게 되어 법은 어기기 위해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르고 만다.

준법하지 않은 국민은 민주시민일 수 없으며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하루빨리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질서의식과 준법정신만은 반드시 회생시켜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를 성급하고 다투기를 잘하는 국민이라 평하고 있다. 온갖 미풍양속으로 얼마나 상부상조하며 유우자적하던 조상들이었는데... 이말에 항변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뿐이다.

恒産恒心이라는데, 굶주리던 때에도 하지않던 다툼이나 불친절을 잘살게 된 요즘에 와서 외국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한 대서야 말이 되는가.

물질적인 욕구가 지나치면 다툼이 있게 마련이다. 정신적인 소양도 가르쳐야 한다. 가장 요긴한 일은 남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토록 공동체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익히는 일이다. 즉 공중도덕과 질서에 관한 예절과 봉사정신등 바른 마음에 관해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일이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으로 태어난다. 천연한 인류문물도 인간의 집요한 이기심의 소산이라 볼때 이기심은 탓할 일만도 아니다. 다만 그 이기심은 이타적인 삶(합리적 이기주의)안에서 성취된다는 이치를 가르쳐야 했고 또 그같은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는 무엇인가 남에게 줄 것이 있다고 믿는 삶의 주인공은 될 수 없는 것일까?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사랑의 실천자는 될 수 없는 것일까?

나의 시간과 건강, 지식과 재산, 이모든 것이 필요로 하는 그 누구를 위해 있다는 생각을 갖는 이웃이 많아질 때 비로서 진정 더불어 사는 세상이 오고야 마는 것이리라.

그러나 헌법기관의 장등 최고급 인사들이 예외없이不正에 연루되는 사회풍토에서 합리적 이기주의니 공동체의식이니 친절과 봉사니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른바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先公後私를 외면한채 憑公營私로 私利私慾과 독직을 자행하는 현실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

엇인가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命題는 필시, 냉소를 자아내게 될 것이다.

富裕層도 그렇다. 분수껏 산다는 구실로 촌스런 사치와 낭비 등 돈뿌리는 추태를 국제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판에 근검절약이란 가르침이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

百貨店도 예외가 아니다. 그 속임수와 뱃짱은 속고 속이는 오늘의 인간관계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터에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는 말에 귀 기울일 젊은이들이 있겠는가?

실추된 商道義를 바로 잡아야 할 백화점이,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지도층과 부유층의 체통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일반 대중들의 행태야 불문가지가 아니겠는가?

더불어 살자면서 萬人에 의한 萬人의 不信이 이토록 팽배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향방은 어디여야 하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민망한 일이다. 통곡할 일이다.

세계에서 둘째가는 교육열은 자랑하면서도 더불어 사는 예절 하나 가르치지 않으며 애지중지한 자식이라 하여 善惡正邪등 최소한의 생활지침도 일러주지 않는 잘못된 자녀관이나 교육관은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養育과 飼育을 구분치 못하는 무원칙한 과보호는 마침내 헛수고로 끝날 것임을 단언해 둔다.

『듣는대로 말하고 본대로 행하는』 아이들이다. 부모없는 자식이 없고 자녀없는 어른이 없는데도 正體性을 잃은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말세적인 소용돌이에 방황하고 있다.

더불어 살기 위한 가르침같은 건 아예 관심밖이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관한 소신도 없다. 참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저 아이들한테 전전공공, 남이 하는대로 유행따라 표

류하고 있을 뿐이니 한마디로 가정교육의 부재를 실감케 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체험적인 공감대가 모든 이의 마음에 자리잡고 내가 저지른,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Copernicus적인 통회 또한 모든 이의 가슴에 솟구칠 때에야 비로서 그 실현이 가능해 질거라는 생각이다. 요는 거듭나는 각자의 인격개조에 달렸다는 말이다.

南北이 가까와 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20대에 월남하여 반세기를 실향의 고초를 겪으며 살아온 우리동문들이다.

自由하나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 고향에 가서 할 말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 왔노라. 이제 온 겨레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꾸어 가자.” 이렇게 외칠 준비를 하자는 말이다.

南北間의 현안문제를 경제력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후일을 위하여 상책만은 아닌듯 싶다. 그에 못지않게 요긴한 일은 민주시민들이 이루어 놓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델과 실상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믿는다.

일찌기 島山은 우리 겨레의 마음과 얼굴을 훈훈한 마음, 빙그레 웃는 얼굴이라 했다.

우리는 東方禮義之國이라는 부러움을 샀던 이 겨레의 후손들이다. 島山의 말처럼 저마다 主人意識을 지니고 正直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오늘의 主人이라는 자긍심으로 務實力行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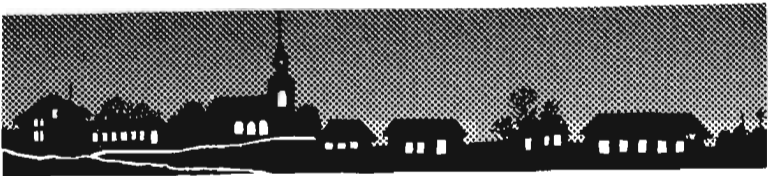
사람은 원래 좋하게 태어난다. 이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태어나는 人間復權을 합심하여 이루자.

이기심을 버리고 상냥한 예절과 친절한 언행으로 서로가 감사하며 살자.

인도의 詩人 타골도 일찌기 우리를 동방의 등불이라 일컫고 東北亞時代의 주역으로 빛날 것을 예언하지 않았던가?

이 모든 수척은 내 탓이라 自省하는 나부터 실행해야 할 행동강령임을 명심하자.

以北同胞들에게 보여줄 모델을 장만하기 위하여, 50년을 하루같이 그리던 고향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말이다.



## 追 想



### 金 明 哲(31回)

1944年 11月 3日. 咸興刑務所에서 어마어마한 脫獄事件이 일어난 날이다. 내가 南中 1學年때의 일이다.

지금은 1929年の 같은 날에 있었던 光州學生事件을 기려 “學生의 날”로 定하여 紀念하고 있지만, 日帝統治下의 當時엔 이날이 日本의 明治維新을 이룩했던 明治天皇의 誕生日로 所謂 明治節이라 불리워, 元日(1月 1日), 紀元節(2月 11日, 日本의 初代天皇인 神武가 나라를 세웠다는 날로 지금 日本은 이날을 建國記念日로 함), 그리고 天長節(4月 29日, 昭和天皇의 誕生日)과 같이 四大名節의 하나였다.

永興郡 仁興面(范捕)에서 咸興으로 留學온 나는 曙町에 있던 親戚집에 下宿하고 있었다. 四大名節엔 學校의 授業이 없었고 講堂에 全校生이 모여 儀式만 치렀으므로, 그날 아침 나는 다소 들뜬 마음으로 下宿집을 나섰다. 馳馬台國民學校 앞을 지나니 刑務所 쪽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 주위엔 巡査와 憲兵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學校에 늦지않으려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學校에서 儀式을 마치고 下校길에 다시 보니 刑務所에서 연기는 솟아오르지 않았으나 望樓에는 執銃한 軍人이 보였고 登校때 보다는 많은 巡査와 憲兵들이 刑務所 뒤에 配置되어 있었다. 더러는 盤龍山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下宿집에 돌아오니 親戚할머니께서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셨다. 그날 아침 罪囚들이 刑務所에 불을 지르고 銃擊戰을 벌린 후 脫獄하였다라는 것이다. 巡査들이 집집을 뒤졌고 盤龍山쪽으로는 軍人들이 脫獄囚를 찾아 올라갔다고 하셨다.

이것이 내가 본 咸興刑務所 脫獄事件의 全部이다. 當時 咸興刑務所엔 朝鮮語學會事件으로 丁泰鎮, 李允宰, 李熙昇, 李克魯, 崔鉉培 等 20餘名이 收監되어 있었고, 그밖에 많은 獨立鬪士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들 가운데 몇몇이 그 어마어마한 事件을, 1789年 佛蘭西革命의 導火線이 됐던 바소틸의 脫獄事件에 비길만한 反日鬪爭을 主導하였으리라. 그것도 日帝의 敗亡前 9개월에 마치 그것을 豫言이라도 하듯이.

그런데 나는 寡聞한 탓인지 咸興出身의 우리 모두가 자랑할만한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이나 그 어떤 글도 읽은 일이 없다.

同窓諸賢께서 그런 記錄이나 資料를 갖고 계시거나, 또는 그 所在를 아시면 알려 주셔서 저의 이 事件에 대한 궁금중... 누가 主導했으며, 몇명이 脫獄했고, 그분들은 그後에 어떻게 되었는지 등... 을 풀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解放後 나는 이 刑務所에 며칠동안 收監된 일이 있다.

1946年 3月 13日의 咸興學生 反소 데모에 參加하여 軍營通行進하던 중 소련軍의 威脅射擊에 魂飛魄散하여 길 한쪽의 가계 유리문을 부수고 逃亡, 朝日町의 李哲範, 李英鎬 下宿집에



잠시 머물다가 저녁때가 되어 下宿집에 가려고 道廳앞에 이르렀을때 保安署원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保安署(舊警察署)에 끌려가니 거기에는 이미 많은 學生들이 붙잡혀와 있었다. 毆打 當하는 上級生들도 있었다. 29回の 鄭炳殷先輩를 그중의 한사람으로 記憶한다. 나는 下級生이어서인지 매는 맞지 않았고 별로 물어보는 것도 없었다. 그날 밤에 거기에 있던 學生들과 같이 刑務所로 移送되었다.

監房에 들어가니 한쪽 구석에 놓인 木製便器가 제일 먼저 눈에 띄웠다.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하루를 지나니 監房門의 銃眼같은 구멍으로 配食되는 콩밥이 맛이 있어졌다. 벽에 햇살이 비친 자리를 손톱같은 것으로 금을 그어 시간을 표시한 자국이 있었다. 벽을 두드려 옆 房과 交信하는 監房先輩들은 別天地의 사람같이 보였다. 나는 絶望感에 사로잡혀 그저 답답하기만 하였고 언제 풀려날지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며칠후, 아마도 3日後에 獄門을 나섰는데 난생 처음으로 解放과 自由의 기쁨을 느낄수가 있었다.

3月 13日 咸興學生 事件 얘기를 하니 22回の 先輩이며 우리에게 英語를 가르치셨던 陳忠國先生님의 생각이 난다.

그날 아침 우리는 授業을 거절하고 舊咸興高女의 좁은 運動場에 모였다가 隊伍를 지어 데모에 나섰다. 그런데 體軀가 그리 크지도 않으신 陳先生님이 校門에 버티셔서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닌가. 양팔을 벌리시고 달려나가는 우리앞에 서서 “나가지 마! 나가면 다 죽어!”라고 외치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先生님을 뿌리치고 달려 나갔다. 陳先生님의 그때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先生님은 東京外國語學校 支那語科 出身이기 때문에 英語實力이 대단치 않으시리라는 所聞이 우리들 사이에 떠돌았다. 別名도 China라고 불렀다. 이런 所聞을 들으셨는지 하루는 “내가 支那語科를 나왔다고 英語를 못해?”하시면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英語 몇마디를 流暢하게 하시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先生님은 赴任하신지 얼마 안있다가 結婚하셨는데 婦人是 咸南高女出身의 美人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結婚後 한동안은 한복에 세루두루마기를 입으시고 學校에 나오셨는데, 가끔씩 머리를 뒤로 제치시고 눈밑에 까지 내려온 앞머리카락을 손으로 올리시던 모습이 멋이 있어 보였다.

先生님은 우리 學校를 몹시 사랑하셨다. 解放直後였던 當時한 班에는 5~6名의 編入生들이 있었는데, 先生님은 質問에 對答을 못하는 學生이 있으면 으레 “學生 編入生이지?”하고 물으셨다. 나는 先生님의 그런 期待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어도 英語工夫만은 열심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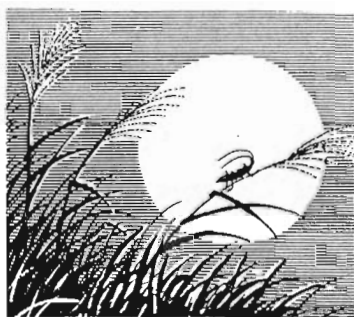
先生님에게서 英語의 많은 것을 배웠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分詞構文에 관한 先生님의 名講義이다. 내가 以南에 와서 지금까지 英語로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先生님의 德分이다.

3月 13日後 先生님은 마음이 變하셨는지 學校를 그만 두시고 咸興市民靑 委員長이 되시더니 곧 中國語와 英語의 實力을 認定 받으셔서 平壤으로 불리워 가셨다.

몇년전에 國際會議에 以北代表로 나오신 先生님의 모습을 여기의 텔레비에서 보았는데 그때에 比하면 몸이 나신것 같았다.

그後 얼마 안있어서 先生님의 逝去消息을 新聞에서 읽었다.

弟子로서, 또 後輩로서 지금은 삼가 陳忠國先生님의 冥福을 빌 뿐이다.



## 雜 感 三 題

### 금강초롱 이야기

高 庚 式(31회)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식물중에 금강초롱이란 아름다운 이름의 도라지와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이 있다. 경기도 일부에도 있기는 하나, 주분포지는 설악산 이북으로 금강산을 지나 함경남도 삼방 지방에 까지 이른다. 나는 평양에서의 학생시절 李巖鉉교수 지도하에 금강산식물채집시 처음으로 본적이 있고, 요즘에는 거의 매년 꽃이 필 때가 되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주관하는 관찰산행에 초청받아 여러가지 식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금강초롱은 보는 기회가 많아졌다. 동문중에서도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금강초롱은 대개 알고 계실 줄 믿는다.

초롱모양의 맑은 청자색꽃이 줄기 끝에 한개씩 달려 밑을 향해 늦은 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 피는데 골짜기의 응달에서 무리지어 자라기도 하나 그리 흔하지는 않다. 출처 “원색한국식물도감”(1988, 도서출판·아카데미, pp 500)과 “야생식물 생태도감”(1993, 우성문화사, pp. 511)에는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이 식물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글은 찬(讚) 금강초롱만을 하려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2년전에 나는 한국식물 분류학회의 어느 분으로부터 이북에서 발간한 식물도감을 증정받았다. 자세히 말하면 책이름이 “식물원색도감”이고 저자는 김현삼외 3명, 낸곳이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인쇄소는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2년 7월 1일, 발행 1988년 7월 10일이고, 값이 얼마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종이의 질은 여기 신문지보다 좀 나올까 말까할 정도이고 그림의 원색선명도는 일간지의 원색사진 보다 훨씬 못하다. 며칠 동안 읽어 보니 나름대로 애쓴 흔적도 많았다. 특히 학술용어 등은 서양의 것이 일본을 거쳐 번역되어 도입된 한자식 용어를 우리같이 그대로 여과없이 쓰는 일은 없고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풀어쓰거나 “주체적으로” 새로 만든 것이 많았는데, 전문적이 되므로 예를들어 말할 수는 없으나 억지스럽고 어색한 것도 많았다.

특히 식물의 이름도 분단이전부터 쓰고 있던 것이 달라져 있었다. 어느나라나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나 일반대중사이에서 그 모양이나 용도등에 따라 놀이나 생활속에서 소박하게 자연스럽게 식물이름이 붙쳐지는 것이다. 달래, 파리, 민들레, 씀바귀 등등이 모두 그런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불알꽃, 머느밀셋개, 도독놈의 갈고리, 중대가리풀, 심지어는 소경불알같은 이름도 있다. 비속적이라 여길지 모르나 자연스러운 이름이며 일본이나 영미권의 식물이름에서도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모두가 그 나라 사전에 실리는 어엿한 국어이다.

또한 우리나라 식물이름에는 유달리 “개”라는 접두어가 붙은, 즉 개고사리, 개양귀비, 개해당화, 개싸리, 개밀 등 무려 250여

종을 넘는 그런 이름이 있다.

접두어 “개”가 붙지않는 것에 비해 약용으로 쓸수 없거나 맛이 없거나 꽃이 이쁘지 않거나 등 하여튼 못하다는 뜻으로 쓰여지는 선인들의 “발견”이며 “지혜”인 것이다. 그 반대로 특히 “유익”할 때는 “참”이란 접두사를 붙이는 경우도 많다. 참나무, 참나물, 참싸리 등과 같이 말이다. 그 밖에 모양이 서로 비슷할 때는 “아재비”라는 접미어를 붙이거나 “너도” “나도”라는 접두어를 붙인다. 국어사전에 많은 종이 실어 있으니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북한에서는 식물이름 정화전투라도 하였는지 위에서 예를 든 것 같은 식물이름은 모두 고은(?)이름으로 고쳐져 개불알꽃이 작란화로 며느리밑씻개가 가시덩굴여뀌로 도독놈의 갈고리가 갈구리풀 등으로 정화(?)되고 “개”라는 전치어는 완전히 일소되었고 “아재비”란 접미사가 붙는 이름도 거의 없었으나 “나도” “너도”만은 살려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체적”으로 그렇게 했었으리라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이북식물도감의 최대결작은 역시 금강초롱에 귀착되는 것 같다. 다 알다 싶이 생물종의 학명은 국제적이다.

금강초롱의 학명은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이다. 금세기초부터 평생동안 한국식물을 연구한 일본학자가 이 식물을 발표할 당시의 주한일본공사 하나부사란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여 그러한 학명을 설정하고 일본이름도 하나부사소라고 발표한 것이다.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르면 한번 정해진 선취권이 인정되는 식물의 학명은 학술적인 잘못이 없는 한 그 이름이 싫다거나 발음이 어렵다거나 현대어가 아니라든가, 기타 여러가지예를 들어

“~일때는 바꿀수가 없다.” 학문상의 혼란과 혼돈을 막기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니 우리의 특산식물인 금강초롱은 어쩔 수 없이 학명이 하나부사야 일쑤밖에 없다.

이북 식물도감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사실은 싫다는 것이 이유겠지만, 금강초롱의 학명이 ‘금강산니아 아시아티카’로 되어 있는데 대해 놀라움과 함께 이 글을 통해 저자에게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해 맞이 않는다.

“주체성”앞에는 국제규약도 마음대로 바꾸는 그들과 플루토늄이 어찌니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무 일이라도 같이 논의하자면 보통이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또 알았다.

나도 나름대로 주체성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전기 줄저에서의 금강초롱의 학명은 여전히 하나부아야 아시아티카이다.

## 시간이야기

“시간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다. 칸트나 베르그송같은 철학자들은 선형적시간에 대해 사색을 하였다. 뉴턴은 절대적 시간이 일정하게 흐른다고 생각하여 고전역학을 탄생시켰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의 길이는 관측자의 운동상태나 만유인력의 장에 의해 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심리학에서의 시간은 시간지각에 근거하므로 항상 비가역적으로 한 방향에만 일어나는 것이나 이론물리학에서는 시간변수란 가역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들 인간을 비롯한 생물에서의 즉 “생물학적으로”이란 어떤 것일까, 생물의 감각 중에는 시간을 감지하는 능

력이 없으므로 외계에서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척도로 하여 이를테면 낮과 밤의 교대나 4계절의 변화를 가늠하여 하루니 일년이니 하는 시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생물의 몸속에도, 그것이 고양이든 지렁이든 할미꽃이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몸속에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메카니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환경조건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것일까.

시각에 따라서는 생물학적 문제를 초월하여 사회제도, 정치체제 심지어는 종교적인 분야로까지 문제를 확대하여 사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넓게 생각하면 한이 없다. 좁게, 작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어쨌든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 성숙하고 노화하는과정에서 새끼를 낳고 새끼가 다시 다음 새끼를 낳는 세대교대도 시간에 의존하는 현상의 하나이다.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을 반복하여 증식하는 세포주기도 그 하나이다.

이러한 생물의 시간 현상을 물리적인 시간의 척도로 측정해 보면 천문학에서 별의 운동을 측정하는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좀 만화적이야기 이기는 하나 지금부터 몇년 후 M월 D일, H시 S초의 명확성의 위치는 즉 좌표는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단 몇초후의 내 위치는 즉 좌표란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남중시절 존경하는 생물학선생님에게 들은 소박한 시간개념인데 그후 내게는 상반되는 문제에 부딪혔을때 우선 제일먼저 이런 시간 개념을 생각하



는 버릇이 생겼다.

생물중에서도 동물은 개체의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일반적으로) 물리적 시간과 생물적 시간의 대응이 잘 된다. 예를 들어 성숙이나 노환의 시간을 보면 불규칙한 분포도 있지만 개략 인간의 경우는 십수세에서 성적으로 성숙하여 제아무리 애써 봤자 100세이전에는 대부분이 죽는다.

그러나 식물은 그렇지 않다. 환경조건이 적당치 않으면 언제나 종자나 포자의 모양으로 휴면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즉 몇십년, 몇백년을 동면 인간으로 냉동되어 있었으면 하는, 그러나 이지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욕구를 식물은 자연스럽게 이루고 있는 것이다. 흙속 깊이 묻혀서 몇 년이나 몇십년을 잠자는 식물의 종자는 흔하게 있다. 고고학의 발굴에서 출토된 식물종자를 발아시킨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어떤 동면한 종자가 성숙하여 개체가 되어 그 증손자 세대와 같이 살고 있는 셈이다.

또 한가지 더욱 재미있는 것은 동물의 개체는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식물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의 개체가 낡은 세대의 개체위에 마치 벽돌로 굴뚝을 쌓는 것 같이 공간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낡고 죽은 세대와 새로이 살아가는 세대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말이다. 인간이나 동물을 기준해서 생각하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나무란 대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어떤 나무는 생물학적 시간의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오래 살고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리곤주 및 워싱턴주등 미국 서북부의 제한된 해안산지에서 자라는 세쿼이아덴드론이나 호주에 자

생하는 위칼립투스속같은 나무중에는 높이가 100미터를 훨씬 넘는 것도 많거니와 세퀘이어덴드론 중에는 수령으로 3,000년 이상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부터 자라고 있는 개체도 있다. 우리나라 정2품 소나무같이 애칭으로 개체명이 붙어 있는 것도 있다. 필자가 본 것은 레이니어 국립공원에 자라고 있는 “제네럴 샤먼”이었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는 통상 온대지방에서는 일년에 한개씩 생기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학자들과 식물학자, 기상학자 등 관련학자들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의 나이테가 반영하는 당시의 연대적 환경조건이 성경에 적힌 내용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 차 이야기

잠자기 전에 진한 차한잔 마셨더니 밤새 잠을 못이웠다.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는 등의 이야기는 흔히 듣는다.

진한 차든 커피든 졸음을 쫓게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 성분이란 엽차와 커피 모두가 함유한 “카페인”이란 것이 조사결과 알려졌다.

식물에 미량이나마 함유되어 특별한 생리작용을 이르는 한 무리의 화합물이 있다. 알카로이드라 불리우며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물질이다.

카페인 외에 담배의 니코틴, 양귀비 열매에서 적출되는 모르핀, 키나나무껍질에서 뽑아내는 말라리아의特效약 키니네, 후

추의 매운 성분 페파민, 다래나무 열매의 액티닌, 독말풀에서 채취하는 아트로핀, 돌쩌기에 함유된 아코니틴, 감자 싹에 함유된 솔라닌, 세포분열시 염색체의 수를 배가시키는 성분인 사프란의 콜히친 등등은 모두 식물의 유독성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분의 대부분은 적당량을 사용하면 약제로서 유효하다. 그 “적당”을 금을 그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요즘 가전제품에 퍼지(fuzzy)제어라는 방법을 도입한 새로운 상품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가정용 물건만이 아니라 공공시설, 예를 들어 지하철의 운전제어 등에도 퍼지이론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퍼지라하면 애매하다, 모호하다라는 말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컴퓨터라하면 1과 0으로 나타내는 신호에 의해 흑이면 흑, 백이면 백으로 명확하게 논리연산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현실 사회에는 오히려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이 더 많이 존재하므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문제해결에는 그 애매모호만 점을 적절히 나뉠대로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것이다.

차이야기를 하자면서 이야기가 자꾸 옆길로 빠져드는 것 같은데 요는 흥분제나 이노제로서의 약리작용이 있는 카페인성분의 차나 커피는 성분은 같을 지라도 색깔, 향기, 맛의 차이는 누구나도 바로 알 수 있다.

엽차는 차나무의 어린 잎으로 만든다. 신록일 때, 따낸 차의 어린 잎을 증기로 찌서 부드럽게 한 것을 껌어 말리면 녹차이다. 烏龍茶는 유명하다. 따낸 차를 곧 찌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면 잎속에 있는 효소가 작용하여 잎의 푸른성분이 분해되어 갈색으로 변한다. 이것으로 만든 것이 홍차이다. 생산양이나 맛에서 립톤이란 브랜드가 특히 유명하며 또한 가장 대중적이다. 나는 이것을 제일 좋아한다.

이러한 제조공정의 차이가 제품성분도 변화시키고 맛이 다른 차를 만든다. 그러나 목적 성분인 카페인, 짧은 맛의 타닌, 맛이 좋은 아미노산, 감미로운 당분, 그 밖에 비타민 등은 함유량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파지적이며 뚜렷한 선으로 구분될 수 없는데에 차맛 삼매의 경지가 있는 것이다.

커피는 건조시킨 커피나무 열매를 볶은 다음 갈아서 가루로 한 것으로 부터 침출액을 적출한다. 커피는 산지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는데 코페아 아라비카라는 이름과는 달리 에티오피아에서 기원하였다. 어느 것이든 마시기 직전에 커피원두를 갈아서 끓이는 과정에 좋은 향기와 맛을 내는 비법이 있다.

차는 끓는 물의 온도가 풍미나 맛에 관계되지만 이것은 제조공정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

충무로에 각종 커피원두를 파는 집이 있다. 남미산과 아프리카산 원두를 사서 함께 갈아 야밤중에 알코올램프로 후라스코에 끓인 물을 비커에 부어 만든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 대신 죠니를 약간 많이 타서 마시는 것이 몇년전 부터의 내 취미이다.

그러노라면 글쓰다 막혔던 발상도 다시 생겨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 天才是 創造的 才能이다.<칸트>



鄭源石(32回)

신작로 건너 성천강으로 향하는 회추막길 안에 높은 나무대문 집이 있다.

한낮에 문이란 문은 죄다 열리고 인적이 없는 마당에는 개만이 길게 들어누워 꼬리를 흔들었지만 제삿날에는 식구들이 다 모여들어 밤새 벌이는 잔치 같았다.

넓은 정지는 광추리와 소쿠리와 합지가 사방을 메우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 앉은 어마이와 아제와 작은 집 식구들의 난장판은 나전구가 밝아질수록 손길이 바빴다.

송편 속을 넣읍세 귀를 맞춥세 귀지 모수리 찌고 녹두지지미 지지고 호박전 고기전 산적을 부치고 두부를 뒤비고 나물을 삶고 무치고 대합을 볶게 삶고 구운 은어 가시를 바르고 편육을 썰고 실고추 입힌 폐육을 썰고 겨울에는 꿩고기 뼈 다지는 소리 모두 말없이 부산한데 뒤란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시켰다. 이순이도 귀미도 정희도 간나들은 종일 국 끓이라 물 길어오랴 불지피랴 땀나무 나르랴 잡은 닭 털 뽑으랴 아궁이 앞에서 웬통 떠날 틈이 없었다.

외할마이는 머리수건을 쓴채 정지 아랫목에 앉아 차례대로 일을 나누어주고 음식이 수북히 담긴 광추리와 소쿠리가 켜켜

이 쌓일 썸이면 한밤이었다.

둔지 식구들도 왕재네도 보고룻집 식구들도 모두 닥치고 자리는 두런두런 옛말이 한창 꽃피는데 길건너 창애네 아maid는 술이 거나해지면 바가지 내놓읍세 바가지를 받아선 저고리 등에 찢러넣곤 짝아진 소매를 흔들며 주름진 얼굴에 금니 번득거리며 장죽 한대 꼬나물고 어이어이 덩실덩실 곱사춤을 추었다.

자정이 넘어 제사드리고나면 잔치 때 차일을 쳐서 손님을 받던 마당에서 과줄집 할마이 연신 손이 닳도록 손바닥을 비벼 제문을 외우며 소지하는데 할마이 손끝에서 날아오는 지폐는 불타오르며 공중 높이 떠돌다 사라져갔다.

신작로 건너 성천강으로 향하는 회추막길 그 안의 나무대문집에는 지금도 외갓집 식구들이 살고 있다.

전쟁통에 목숨 하나 건지려 남으로 피난간 식구들은 가족을 그리다 그리다 쓸쓸히 객사하고 온갖 재산 다 버리고 빈곤 속에 한이 맺혀 울다 가고 그리고 어이없이 비명에 간 식구들도 모두 옛날처럼 오손도손 앉아서 웃는 모습이 어스름 속에 오롯한데 내 귀는 멀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웬 일일까 외하나바이만 언제나처럼 실눈으로 나보고 웃으시는데 안타깝도다 소지할 후사는 끊겨 없구나. 이제 인생은 사위고 가버린 사람은 돌아오지 않느니 이제 나 또한 가고나면 그 회추막길 외갓집을 누가 있어 또 기억하리.

1994. 6. 16

## 의사도 만류한 해외여행



金 東 一(32回)

유럽여행이 소망이었던 나에게 기쁜소식이 날아들었다. 영국 주재 대우전자에 근무중인 사위로부터 2세 出産을 助力해줄 겸 해 유럽관광을 우리 내외에게 초청해준 것이었다. 초청에 접한 나는 소원이던 유럽관광이 이루어지게 됨을 배우 기뻐하였으나 문제는 건강에 관하여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 경변증으로 진단받고 20여일 입원생활에서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時點이었기에 그리고 계속 통원치료中이었기에 초청 소식에 접한 가족들은 여행길을 한결같이 반대하였다.

主治醫는 금연, 금주를 철저히 준수하며 영양섭취와 과로를 피하고 절대안정을 유지하도록 철저한 주의를 요하고 여행은 절대금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生에 한번밖에 없을 좋은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고 결심한 고집을 아무도 꺾을 수는 없었다.

일정대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우리 내외는 김포공항을 떠나 London向길에 올랐다. 자녀들의 걱정을 머리에 두며 기내에 자리한 내 자신도 솔직하게 기쁨보다도 不安을 씻을 수 없었다.

당시로서는 구소련과 항공협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이라 알래스카 앵커러치를 경유하는 20시간의 비행은 참으로 不安하였으나 예정시간에 London Gatwik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리고 40여일 영국에 체재하는 중에는 그런대로 건강도 좋은 편이었다.

어마도 그곳 사람들은 먹지 않는 소꼬리, 족탕을 매일 같이 먹었고 술 할줄모르는 사위집에서 투병中에도 걸이지 않고 마시던 술도 자연스럽게 금주하게 되었으니 건강이 좋아질 수 밖에 없었다.

체영中에도 건강을 염려하는 딸의 권유로 그곳 병원 진찰을 받았으나 진찰한 의사는 매우 좋은 건강상태이며 술, 담배만 금한다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는 말에 너무나도 기뻐다.

그러나 아직도 술, 담배를 금치 못하는 자신이 밋기만 하다.

내가 영국체재중에 우리 김재원총회장님의 비보를 한국일보를 통해 접하였을 때 한동안 비애에 젖었으며 海外에서나마 故人の 명복을 빌었을 뿐이다.

체재하는 동안 딸의 배려로 이웃 몇나라도 두루 돌아보았으니 소원은 푼 셈이었지.

귀국길은 다행이도 구소련과의 항공협정이 체결되어 Mosow 上空을 통과하는 Non-stop 10시간의 항로여서 不安을 떨칠 수가 있었다.

40여일간의 여정에서 무사히 귀국하여 집에와 보니 반가운 우리 32회 동창회의 엽서가 와 있었다.

모두 염려해 주던 동창들이 너무 반가웠으며 영국물이 그리 좋았나 하고 축하해 주는 동창들이 참형제보다 고마웠다.



건강이 유지되는한 용기를 내어 다음해에는 동남아 5개국 관광도 하겠다.

건강은 장담못하듯 얼마후 심장판막증이라는 심장병의 진단을 받고 다시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정기통원 검진을 받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2년을 계속하다보니 이제는 항상 생에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죽음이 멀지 않은 것만 같게 느껴진다. 재미없는 이야기는 여기서 접고 총동창회에 나가 항상 느끼는 바는 우의를 뜻구며 애교심을 함양하는 교가를 부를 수 없다는 아쉬움이다(교가는 있으나 왜정때의 노래를 왜말로 부를 수 없기에). 교가는 그렇다 하고 동창회라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동창회가 제정이 간절한 심정이다. 동창중에 누구라도 가사를 지어준다면 기꺼이 曲를 맡을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먼저 죽어도 자랑스런 함흥고보 동창의 한사람이었다는 이름은 曲과함께 하리니.

1994. 6. 23

일산 신도시 한아파트에서

❶ 音樂은 最良의 學藝이다.

거기서는 音符가 言語에 生命을 불어 넣는다<루-터>

## 33回

- ◎ 咸鏡道 사람 ..... 李 七 煥(33回)
- ◎ 停年退職 ..... 徐 潤 煥(33回)
- ◎ 水平思考方式(공트) ..... 李 大 鍾(33回)
- ◎ 歲月은 흘러가는데 ..... 朱 宣 淳(33回)
- ◎ 『都市가스』小考 ..... 廉 昌 錄(33回)

## 咸鏡道 사람



### 李 七 煥(33回)

알래스카 사람이란 말이 한동안 유행된 적이 있다. 즉 咸鏡道 사람의 代名詞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알래스카는 原來 러시아領이었다가 1837년 미국에서 7백20만달러를 주고 사가지고 그후 미국의 49번째 州가 된 땅이다. 그러면 왜 咸鏡道 사람을 알래스카 사람이라 하였을까?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추운 북동쪽에 있으며 咸鏡道도 역시 韓國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그렇게 불리어졌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한편 전라도 사람을 칭하여 또한 하와이 사람이라고 한다. 태평양상 미국의 서남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미국의 50번째 州가 된 땅이다. 남쪽에 있는 전라도 사람을 하와이로 칭한다면 북쪽에 있는 咸鏡道 사람을 알래스카로 칭할 때 두개 道는 한국에서 이방인 格인 칭호를 갖고 있는 道이다. 이 두개 道가 명예스러운 명칭을 얻었다고 자위한다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렇지않기 때문에 이야기 꺼리가 된다.

전라도를 “하와이”라고 칭하는 뜻은 잠시 제쳐 놓고라도 咸

鏡道를 알라스카라고 굳이 칭하는데는 어떤 숨은 뉴앙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威鏡道 사람은 氣質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즉 고집이 세다. 그리고 자기 자량이 심하다. 論理 追求를 좋아한다. 인색하다. 自己本意다. 함흥에서 있었던 한 토막 이야기를 옮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威鏡道 氣質의 한 斷面으로 비춰질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함흥에 “고애뽕”이란 싸움쟁이가 있었다. “고애뽕”이란 고양이 뽕이란 이야기이다.

이 사람은 한번 싸우면 상대가 지쳐서 항복할 때까지 싸우는 함흥의 名物이었다. 싸움을 잘 한다고 하는 것보다 싸우면 어떤 경우는 오히려 상대에게 두들겨 맞고 터지고 엉망진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날 또 달려가서 싸움을 다시 걸고 나온다. 또 두들겨 맞으면 다음날에도 다시 도전하러 간다. 끝에 가서는 상대가 지쳐서 오히려 두손을 바짝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다. 이렇게 싸우는 경우를 두고 威鏡道 사람을 옛부터 泥田鬪狗라고 표현한 것은 一理가 있다. 이 사람이야말로 泥田鬪狗 처럼 싸운다. 威鏡道 사람은 끈질긴 성격을 갖고 있다.

6·25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威鏡道로부터 南下하여 남쪽 여성들과 결혼한 경우가 많다. 威鏡道 사람을 男便으로든 이들 부인들 말에 의하면 그들 男便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하는 말에 공통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威鏡道 사람은 愛妻家가 많다는 좋은 공통점이 있는 반면 부부간의 對話에 있어서 이것이 對話하는 것인지 아니면 싸우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이 어려운 정도로 對話시 음성이 높아서 얼핏보면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 싸움을 하는 듯 보인다. 그들은 때로 너무나 세심하다. 그냥 듣고 넘길만한 일도 꼬치 꼬치 그 이유를 캐 묻고 따지기를 잘한다.

이런 경우 아내 되는 사람은 머리가 터질 듯 지끈 지끈 아파 약방에 가서 약이라도 사먹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아이들과의 對話 通路가 막히고 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정서에 둔감하고, 나머지 子女들은 아버지의 엄한 태도와 음성 그리고 멧없는 핀잔과 잔소리에 아연질색하고 만다. 오손 도손하게 유모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話術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소위 요즈음 新世代가 이런 스파르다式 교육을 좋아할리가 없다. 그러다가 子女들이 조금이라도 언짢은 눈빛을 흘리면 그때를 놓칠세라 어느덧 高聲이 天井을 뚫을 듯 높아져서 집안이 터져 나간다. 「여보 당신을 누가 威鏡道사람이 아니라고 할까봐 그렇게 威鏡道사람 티를 내요」하는 마누라가 반박이라도 하는 경우 그는 한층 더 큰소리를 낸다. 어느새 한 家庭은 大戰爭터가 되고 만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大戰爭터가 되는 것도 아니며 사소한 일이 그 성격탓에 불안간 그렇게 되고만다. 「威鏡道 사람들이여! 좀 반성하소서」하고 말하고 싶은 心情이다.

과연 이러한 缺點투성만이 威鏡道 사람을 표현한 全部인가? 그렇지 않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다. 威鏡道 사람이야말로 個性이 뚜렷한 사람들이다. 첫째 청렴결백한 사람들이다. 大韓民國 將星중에서도 가장 청빈한 장군도 威鏡道 出身의 모장군이다. 그렇다면 과연 威鏡道 女性은 어떠한가? 威鏡道에는 美人들이 많다. 옛날부터 南男北女라는 말은 威鏡道女性을 두고 한 말이다. 그 피부색깔에 南쪽 男性들은 침을 질질 흘리며 놀랄 것이다. 흰 피부에 약간 붉으스레하면서도 맑은 살결은 피둥 피둥하고 야들 야들한 우유빛 살결이다.

6·25事變 當時 南下한 女性들이 그렇게 많은 苦生을 했어도

술장사 하는 威鏡道 女性은 보기 드물었다. 그들의 生活信條의 健全性을 엿볼 수 있다. 社會活動面에 비친 威鏡道 사람들의 모습을 엿보면 그들은 惡과 妥協할 줄 모른다. 不正을 보고 참을 줄 모른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부패가 발을 붙일 수 없다. 만약 부패한 생각을 하는 上官이 있다면 그 上官과도 勇敢하게 갈라설 수 있는 勇氣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出世에 支障이 많다. 만일 우리 社會가 제대로 될려면 오히려 청빈하고 不義와 妥協할 줄 모르고 강직한 威鏡道사람이 官界에서 出世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公과 私를 嚴格히 區分하는 사람들이다. 正義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기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中心이 되어 官界를 움직인다면 오늘과 같은 부패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다. 北靑 사람들이 日帝下에 서울에서 물지계를 지면서 子女들을 大學까지 공부시킨 이야기는 韓國사람이라면 다 인정하는 事實이다. 그래서 威鏡道 親陸會에 장학회가 많은 理由를 그런 연유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일생동안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냉면 장사로 一生을 보낸 威鏡道의 80세 노할머니가 수십억원을 장학기금으로 社會에 기증한 신문기사는 威鏡道 사람들의 氣質을 그냥 그대로 나타낸 美談이다.

그들의 生活態度는 검소하다. 英國의 現 總理인 메이저 총리가 총리되기 십년전에 입던 구 스타일 코트를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그냥 입고 다니다가 英國의 한 양복점에서 메이저 총리에게 새로 유행된 코트를 기증하겠다고 한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렇듯 검소한 태도는 威鏡道사람들의 검소한 태도와 같

이 어울리는 이야기다. 그들은 낭비할 줄 모른다.

社會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아까운 재산이라도 아낌없이 社會에 받치는 사람들이다. 咸鏡道 사람은 氣質이 특수한 것처럼 그들의 嗜好도 特殊하다. 그들이 좋아하는 기호食品에는 “아바이 순대” “함흥냉면” “식혜” 등이 있다.

“식혜”라고 하면 南쪽 사람들은 “막걸리” 같은 것으로 얼핏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咸鏡道 “식혜”는 생선에 고추가루와 마늘을 넣고 무를 채로 쳐서 넣고 젓 담그듯 만든 발효식품의 일종이다. 요즈음 南쪽 사람들도 “식혜”를 즐겨 먹는다.

이번에는 經濟的 시각에서 그들을 관찰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그들은 計算이 正確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財閥이며 某大學 총장으로 계시던 咸鏡道 어른이신 이분이 한번은 길가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는 광경을 본 사람이 있었다. 그가 전한 말에 의하면 택시 타고온 총장이 운전기사와 택시요금에 대한 언쟁이 생겼다. 말할 필요도 없이 총장의 체면이 이만 저만 손상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몇푼 안되는 돈 부당하게 支拂안하는 생각이 이해할려면 理解가 가는 점이 더 많다고 본다. 따질 것은 따진다는 것이 咸鏡道 사람의 氣質이다. 그들은 급한 性味를 가지고 있다. 한국 역사에서 태조 이성계는 咸鏡道태생이었으며 이곳에 이성계의 한토막 일화를 옮겨 볼까 한다. 이성계는 말을 잘 타기로 유명하다.

이성계에게 가장 자랑할 만한 빠르고 영리한 말 한필이 있었다. 어느날 이성계는 말과 활로쓴 화살과 어느쪽이 빠른가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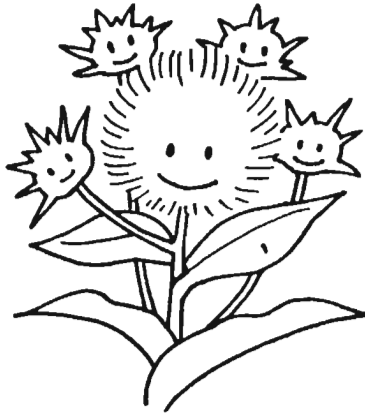
를 제의하였다. 한쪽에서는 활을 쏘고 이성계는 말을 타고 목표점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목표점에 와 보니 화살이 먼저 와서 꽂혀 있었다. 이성계는 화가 나서 그자리에서 자기가 차고 있던 검을 뽑아 그말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화살이 날아와서 그 목표점에 꽂혔다. 그 화살이 바로 이성계 말과 경주한 화살이었고 먼저 화살은 과거에 누가 쏜 화살이었다는 이야기이다.

威鏡道 태생인 이성계의 급한 性格을 나타낸 이야기는 역사 속에 하나의 일화로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威鏡道 사람을 여러 角度로 분석했을 때 그들은 강인하다. 개성이 강하다.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른다. 검소하다. 근면하다. 향학열이 높다. 그리고 사회 봉사적인 희생정신이 있다. 公과 私를 엄격히 구별할 줄 안다 등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全體의인 實像은 과연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한번 음미해 보자.

그들은 투명社會를 만들수 있고 투명社會에 살 수 있고 투명社會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 社會에서 그들의 長点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社會는 거짓이 판치는 부패社會는 물러가고 官紀가 바로서고 德性이 社會 전반적인 분위기를 덮어주고 화목하고 온화하며 동양미가 듬뿍 풍기는 社會가 될 것이다. 英國이나 日本같이 신사도를 존중하는 社會 그리고 친절이 넘치는 社會가 될 것이다. 매일 같이 신문의 社會面을 어지럽게 장식하는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은 威鏡道 사람의 맑고 깨끗한 점만을 이 社會에 옮길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威鏡道 사람의 缺點은 멀리 버리고 좋은 점을 가까이 옮겨서 國家萬年大計를 세운다면 우리나라 앞길에 曙光이 빛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威鏡道 사람들이여! 그대들 앞에 온 겨레들이 많은 期待를 걸고 당신을 반가이 맞을 날이 꼭 오고야 말 것이다. 나는 이날이 오기를 빌며 오늘도 기도를 올리는 바이다.」 아멘.



## 停年退職(꿈뜨)



### 徐潤煥(33回)

#### 글머리에

우리 말은 참으로 아름답고 表現性이 매우 풍부하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그러함을 實感치 못하는 것도 現實이다. 그래서 國語辭典의 通讀을 권하고 싶다. 여기 우리 아름다운 낱말로 掌編을 엮어 본다. 누구나가 國語辭典없이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辭典을 펼치십시오. 아름다운 말들이 반짝이는 별들처럼 수북합니다.

삼월의 밝은 햇살이 창가에서 알랑거리고 있다. 아침나절도 지난나보다. 이덕보씨는 자리속에서 쪽 기지개를 켜다. 느긋한 解放感이 幸福을 주어내고 있다. 이렇게시리 이덕보씨는 停年退任의 첫날을 맞이 했다.

배시시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지금 몇 신지 아세요?”

중등끈을 한채로 큰딸 혜숙이가 방으로 들어선다. 엇그제까지 턱받기를 하고 나비잠을 자던 아이가 벌써 큰아기가 되고 말며

리아이라 벌써 가선이 지고 있다. 애비의 눈이 아니더라도 예쁘다. 이 여식의 가름한 얼굴에 어떠한 人生이 새겨질런지.

“아버진 진술집도 아널텐데 이게 뭐요”

나무라는 투지만 아버지에게 대한 따뜻한 정겨움이 微笑로 번지고 있다. 어저께의 退任式에 진술로 나갔다가 술자리에서 엉망이 된 양복이 벗어 놓은 채로 허깨비처럼 쭈그리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술만은 바치는지라 어제의 送別宴에서 건너 주는대로 약비나게 마셔댔던 것이다. 한 밤중에 자리끼도 여러번 마셨다.

지금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 느긋한 充足感으로 醉氣의 여운을 만지작거리면서 가슴이 뿌듯해 진다. 지나간 바쁜세월에 묻혀 거의 잊혀져 가던 기억들이 알알이 영글면서 테구루루 구른다.

十室九空의 悲慘을 겪으면서 硝煙彈雨속에 散華한 戰友들이, 靑春의 낭만을 안고 거닐던 西湖의 도래굽이, 한쪽의 그림 같은 高·曾祖를 모신 산소의 도래솔 風景이, 자먹질하며 물수제비 뜨며 놀던 어린時節이 走馬燈처럼 스쳐간다.

서른해 남짓한 公務員生活을 무사히 마쳤으니 어떻든 찼답다. 이덕보씨는 너울가지는 좋으나 매듭지어 짜르는 맛이 없다고 하여 남들이 무릎태라고 하여도 무릎태인양 自處하여 스스럼이 없고 중노미 한테도 하대를 쓰지 않는 위인이었다. 이런 것들은 부주에 따른 人間性의 문제지 能力을 평가하는 尺度는 될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든 그를 나무거울로 여겼음인지 萬年課長으로 지나왔다.

그는 술자리라하여 아랫사람에게 지시거리지 않으며 치떨어

서 놀음차를 아끼지도 않았다. 논다니가 아이를 낳은 적이 있어  
움이 있다거나 되모시라 하여도 싫어하는 내색이 없었다. 그리  
고 술은 좋아 한다고 덮어놓고 술값을 내는 털집이 될 정도로  
어리석지도 않다. 그는 술에 허발하다고 하나 함부로 염치질 하  
는 일은 결코 없었다. 職員 한사람의 술턱이 어찌다가 너무 비  
싸게 나갈 때는 本人이 마다 하더라도 절반정도는 도리기로 처  
서 돈을 거두는 자상함도 지녔다.

그는 平素에 아랫사람에게 우쭐거리거나 나자리 보지 않고  
태없었다. 갈광질광한 教育制度로 말미암아 암클을 익혀 社會에  
내던져진 풀기 같은 생무지들에게 발종지시해 주곤 했다. 公務  
員社會에서 흔히 있는 배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름성도  
있고 썰레놓기를 잘하여 아랫사람들로부터 도꼭지 같은 信賴를  
얻어 따르는 직원들이 많았다.

봄이 가고 녹음이 짙어지고 뭉게구름이 화닥닥 소나기를 뿌  
리고… 그적게 비가 왔어도 벌써 花壇이 마른다. 庭園에 나비물  
을 끼었으면 花草들은 갈매지고 금시에 生氣가 돋는 것 같다.  
신발을 지르시고 전지가위로 삭정이나 도장지를 잘라 내면서  
庭園樹의 모양새를 다듬는 이덕보씨의 生活은 가위 悠悠自適하  
다고 할 만하다. 오래사람들은 판이한 그를 부러워 하기도 했  
다.

落葉이 가을의 노랑 빨강 소식을 전하면서 훌쩍훌쩍 떠난다.  
이만하면 실컷 쉬었다. 半年을 아낙군수로 지냈으니 이제부터  
뭔가 해 보아야지. 그러나 잡은게 없고 잡힐 손도 없으니 여기  
저기 용집이 생기도록 돌아다녀 보지만 별 뽀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집주름이라도 해 보아야지 햇덧이라 하루가 후다닥 지

나가련만 이덕보씨에게는 그지 없이 느릿느릿하게 느껴지곤 한다. 남은 그를 매팔자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빈둥거리는 삶이 차츰 그의 가슴을 구세먹는다. 暗鬱의 버캐는 쌓여가고 輾轉하는 깊은 밤에는 더욱 비감해지는 것이다. 自身이 잔챙이나 쟁마리처럼 느껴지며 자꾸만 모래끝 같은 人生이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政權이 바뀌거나 무슨 무슨 淨化委員會가 생길 때마다 많은 同僚들이 고삿고기로를 물러나야 했다. 그 중에는 가납사니들도 있었지만 특탁치는 바람에 억울한 사람도 많았다. 이덕보씨는 무룡태로 여겨진 것이 도리어 복이 되었음인지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으며 그러나 선머리에 서거나 비나리치지 않은 탓인지 昇進도 느릿느릿 했다. 그 당시의 그 사람들은 지금 뭇을 하고 있을까. 이제까지 무심했던 회오가 질금거리면서 와 닿는다. 겨울이 왔다. 大地는 딸 「프로세로피나」와의 離別을 슬퍼하는 大地의 女神 「케라스」의 悲痛으로 꿈 꿈 얼어 붙었다. 몸도 마음도 溫氣가 그림다. 雪花가 핀 유리窓 넘어 앙상한 줄거리들을 보면서 빨가벗기운 自身을 보는 것 같은 幻想에 사로잡힌다. 명색만의 손 씻임이라도 좋으니 일을 하고 싶은 欲望이 해감의 번짐과도 같이 일어난다.

점심을 찬밥을 토렴하여 때운 어느날 이덕보씨는 거울속에 비친 自己모습에 깊은 嫌惡感에 빠졌다. 56年間の 苦難의 量이 얼굴에 깊은 골을 일구어 놓았고 어깨는 나이테의 무게를 지탱한 고달픔으로 노골적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30余年이라는 忍從의 세월이 그의 모습을 짓누르고 있다.

苦惱를 잉태한 時間은 어디까지 이어지며 糞탕물 자국처럼

채진 세월이 언제면 바래질까. 家長의 우울이 전염된인지 집안은 칙박은 廢家처럼 스산해 가고 이래서 그의 感性은 홀태처럼 야위워져만 갔다. 무료한 하루를 보내라치면 오쟁이 진 지아비처럼 갑갑하고 그렸음인지 갑자기 백발이 성성해진 것 같다.

“남은 탄말 쓰기로도 바둑이나 장기를 둔다고들 하는데”

자기 바둑에는 전벽이니 지질하기 그지없다.

겨울꼬리와 같은 추위가 거리에도 집안구석에도 남아 있는 二月의 어느날 신문의 求人欄을 보면서 무료한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때르릉…」전화벨이 울린다.

“이덕보씨 택이지요. 아 이선생님이십니까? 저 박송배입니다. 알아 보시겠습니까? 네에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여쭙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내일 아침 열시쯤 종로三街의 「가고파」다방으로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몸집이 자그만하고 까무잡잡한 얼굴이지만 영롱한 눈빛의 젊은 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일숨씨가 척척 시원스럽고 눈치가 빨라 性格이 이덕보씨와는 반대되지만 아구가 잘 맞아 옴살같이 지내 남들이 떠앗머리 좋은 동기간 같다고 하였으며 고스락에 발벗고 애써 준 일이 있었지만 착실한 박송배가 그때 무슨 마가 썩었는지 用度係를 맡으면서 가재친 돈을 橫領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입금치 않은 사실이 하필이면 김국장한테 그만 피새나고 말았다.

아내의 解產費用이 좀 모자라서 임시 변통을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公金橫領이니 「不名譽除隊」가 불가피해 졌다. 이덕보씨는 직속 上司란 처지기도 했지만 아까운 젊은이가 하찮은 실수

로 목이 달아나는 것이 안되어 그를 데리고 김국장自宅을 찾아갔다. 김국장은 자라목이어서 別名을 멧돼지라고 불렀고 別名 그대로 저돌적이며 골풀이를 잘하고 엉너리라곤 티끌 만큼도 없는 그런 위인이었다. 그전에도 하도 안정없이 굴어 任官同期인 이덕보씨하고 티격난적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푸쩍없고 트레바리인 멧돼지는 怒氣등등하여 아예 깎살리려고 들었다. 이덕보씨는 막무가내로 밀쳐 들어가 부개비잡히다시피하여 겨우 용서를 받아 준 일이 있었다. 그에게는 가끔 그런 뱃짱이 있었다. 아무튼 그 後 박승배는 다른 部署로 자리를 옮기고 나중에 소문에 듣자니 피새내는 上司와 다투고 직장을 그만 두고 장사질을 한다는 것까지 소식을 들은적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이덕보씨는 가고파에 들었다. 「비창」이 열심히 슬픔을 무쳐내고 있었다. 1年前의 미쓰쑤도 미쓰吉도 바뀌고 낯설다. 난로의 불길을 찬찬히 들여다 보고 있노라니 人生流轉을 느끼면서 자기처지를 곱씹는다.

“일찍 나오셨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맞보기에 까만 도스킨洋服으로 단장한 박승배가 사지코트를 왼팔에 걸치고 事業家다운 너그러운 微笑로 인사하는 것이다. 正刻 10時다. 기억의 表面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그때의 박승배의 모습을 찾을 길 없다.

“이課長님 아니 이선생님. 이선생님의 소식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그만한 工場을 引受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선생님께서 별다른 計劃이 없으시다면 工場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마 工場長인 셈이지요. 하기야 從業員이라야 스물여남명에 불과합니다만 맡아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月給은 20萬원으로 될런지요. 적습니다만 초창기라 좀 참으시면  
형편이 나아지는대로 늘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박송… 朴社長.”

이덕보씨는 저도 모르게 말이 더듬어 나왔다.

“별말씀 다 하십니다. 참 그때는 고맙습니다. 멧돼지가 대  
단했죠. 두고두고 그때의 신세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工場  
을 돌리려면 앞으로 2個月間 準備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履歷書를 갖고 오셨는  
지요.”

박송배는 이덕보씨가 건너는 이력서를 받고서는 內容이야 불  
필요도 없다는 듯이 봉투채로 안주머니에 넣더니 ○○株式會社  
代表理事 朴崧培로 된 송배를 건너다 준다. 그러면서 “죄송합니  
다만 5月부터 出勤하시기로 하고 그간의 月給은 半額으로 쳐서  
20萬원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하하”

“원 천만에. 고맙소”

이덕보씨는 새잡는 사람이라도 있는 듯이 주위를 살피고 나  
서 鄭重히 돈봉투를 받으면서 늘췌 金額에 감격스러워 한다. 박  
송배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뭔가 일을 할라치면 본 때 있게 해  
됐지. 이제까지 편편하기만 하던 이덕보씨의 마음에 活氣찬 주  
름이 잡히면서 기쁨을 昇華시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간다. 밤이 이슥해 질수록 安女史의 마음에 걱정이  
더해 간다. 남편의 歸家時間이 늦다. 특히 요즈음은 失業人生이  
어선지 죽어지내면서 끼니 때를 어기는 일이 없었다. 어찌다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대포라도 한잔 할양이면 전화로 미리 알리  
던 양반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연락이 없으니 말이다. 걱정이 앞



선다. 子正이 훨씬 지나서야 골목길에서 귀에 익은 ‘못가는 신세’가 들린다. 술에 취한 이덕보씨의 노래가락이다. 安女史는 안도의 숨이 쉬이자 이양반이 하고 슬그머니 화가 치미는 것이다. 그녀는 곤드레가 된 남편을 부축하면서 허구리를 짝 꼬집는다.

“아야야 미안미안…”이라 한줄로만 알았는데 느닷없이

“이 종간나, 스나를 어떻게 알구 까부냐”라고 고함을 지른 것이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남편의 기세 사나운 욕지거리에 安女史는 그저 어안이 병병해질 따름이다.

초생달이 내려다 보고 싱긋 웃고 있었다.

아무리 지질한 時間이라도 술이란 알콜로 태우면 금시에 훨훨 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人間의 역사와 더불어 깊게 쌓인 本能과 無意識을 일구어 놓고 意識에서의 굴레를 벗게 한다. 그래서 술마시고 술에 먹히는 習性을 익히게 한다. 安女史는 오히려 씩씩해진 男便의 사나이다운 거친 행동을 「보담고」 침실까지 걸부축한다.

寢室의 빨간 電球는 赤裸裸한 人間의 욕망을 되받아 密室의 색깔로 재련하고 그래서 남너는 卑猥한 웃음을 지으면서 幾萬年이나 지나쳐온 쾌락의 疲勞를 느끼는 것이다.

엊그제까지 침울하던 이덕보씨는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떠난다. 조리치고난 것처럼 얼굴이 해맑다. 「工場管理」를 펴놓고 열심히 적바림하거나 가끔 식구들과 실없는 농담으로 웃기도 한다. 집안이 모처럼 명랑해졌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으나 어쩔든 남편의 두름성이 되살아난 것이 껍이나 다행스럽다.

오늘을 고비로 앞으로는 큰 추위가 없겠다는 기상예보가 있

던 三月의 어느날 아침 낮선 두 사나이가 이덕보씨를 집으로 찾아 왔다.

“박송배를 압니까”라는 질문에 그는 식구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얼른 형사들을 따라 나섰다.

박송배를 어떻게 아느냐, 최근에 만난 적이 언제며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으며 어떻게 했느냐 등등 박송배와의 관계를 미주알고주알 캐묻는 것이다. 박송배는 허정이며 교묘한 열개로 남의 財産을 橫領하려다 덜미가 잡혀 手配中이라는 것이다. 이덕보씨도 연류된 의혹이 있어 조사한다는 것이며 그의 이름이 알게 모르게 이 사기사건에 크게 이용됐다는 것이다. 원 이럴수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내 일은 왜 이렇게 삐끗거리는가. 傷處감은 봉대에 번지는 핏자욱처럼 말못할 憤怒가 끓어 오른다. 견딜수 없는 自己嫌惡가 스물스물 온몸을 적신다. 질노랑 안개가 덮이면서 그의 意識은 밑으로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여보 여보 하는 소리와 함께 크레졸 냄새를 느끼면서 눈을 떴다. 이마에다 냉수뼉질하면서 걱정스레 내려다 보고 있는 아내의 눈이 축축히 젖어있다. 아내의 손이 뻗치더니 살며시 손을 잡는다. 30年 가까운 풍진속에 살아온 손이 이끼처럼 축축하다. 슬픈 미소를 띤 安女史의 붉은 물방울 한방울이 주루룩 흘러 내린다. 아아 이여자에게도 남편을 위한 눈물이 있었고나 이덕보씨도 아내의 손을 되잡는다.

사랑과 회한의 눈길로 萬感을 교차시키면서 한동안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빙긋 웃었다.

人間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등에 지고 살아나가는 宿命을

안고 있다. 다만 사람에 따라 삶과 죽음의 差異가 있을 따름이다. 이제 知天命이니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야지. 삶은 이미 지나온 過去, 앞으로 죽음의 意味가 점점 그 濃度가 더해가는 것도 사실이며 이것은 外面한다고 될 일도 아니며 外面을 하여서도 안될 일이다. 나의 죽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까. 病床에서의 생활은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죽음의 意味를 곱씹게 하는 말미를 준다.

五台山, 속사리戰鬪에서 슯한 주검을 보았고 죽을뻔 살뻔한 고비가 그 몇번이었던가. 죽지 않는 목숨도 어찌할 수 없지만 험상 궂은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될 노릇이지.

봄이면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으며 春眠을 즐기듯이... 가을이면 落葉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 듯이... 여름이면... 겨울이면... 그 나름대로 福있는 죽음이 있을 것이며 어쩡든 모짜르트의 소나타를 들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福된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는 이덕보씨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꾸준한 努力과 誘惑을 물리칠 수 있는 克己心이 있어야 하는 법. 「스스로가 지키려고 할 때 貞操가 價値가 있는 것」이며 健康 또한 지키려고 不斷히 努力하는데 건강이 있는 것이다.

그는 退院하면서 지난 한 달 남짓한 나만의 즐거웠던 祕密을 만지작거리면서 나만의 출렁이던 가슴이 텅하고 비여진 것을 느낀다. 어릿광대로 登場하였던 自己自身에 苦笑를 禁치 못하면서.

## 『水平思考方式』



### 李 大 鍾(33回)

지난 歲暮에 年賀狀을 받았다.

三十余年 다니던 직장을 停年退職한 親舊로 부터였다. 우리도 벌써 그런 나이가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니 우리 동창들도 平生을 몸 바쳐온 職場을 停年으로 떠나서 휴가분 하면서 어쩐지 쓸쓸함을 느끼는 無期限長期自家休暇를 받은 사람이 많아졌다.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럴때 健康을 해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 아니나自身을 위하여 思考의 轉換과 유연성이 必要하다 싶다. 七十年代初 日本出場時 機內에서 읽을 거리로 손에 넣은 책이 『水平思考方式』이란 冊이었다. 當時 韓國은 경제계획 실천을 위한 工業化 과정의 도약기였고 二次 Oil속크를 겪은 때인지라 日益成長과 試練도 받은 變動하는 때였다. 思考의 전환과 發想의 變化가 要求 받을 때였다. 冊의 題目도 재미 있었고 內容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從來의 思考는 垂直思考方式으로 一次元, 二次元, 三次元的 數理的 垂直思考라 어떤 時點과 격변과 돌발적 상황과 환경에서는 벽에 부딪치고, 이런 수직사고방식에

서는 向後的 社會經濟的 變化에서, 即 複合的 變化에 적응치 못하고 후퇴할 것이며 垂直的思考에만 依存할 때 人間은 化石化할 것이다.

기업운영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여 三次元을 넘는 水平思考方式이 要望되는 時代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水平思考方式을 쉽게 理解하기 爲하여 예를 몇 가지 들어 본다면 會社에 通勤버스가 세대있다.

한대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저히 두대로서는 퇴근 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급히 통근차를 구할 수도 없다. 이럴때는 男과 女 1:1의 비율로 두대의 통근차에 나누어 태우는 方法을 쓴다면 가능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를 좋아할지 모른다. 밀착되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한정된 엘리베이터를 가진 빌딩에 많은 사람을 동시에 초칭하였다. 많은 혼잡이 예상된다.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증설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로비 四方에 거울을 설치한다. 사람들은 옷매무새를 보게 되고 여인네들은 거울 앞에 오래 머물것이다. 엘리베이터 혼잡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길을 하나 두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개의 회사가 마주보고 있다. 바라보니 상대회사에서 중요한 戰略간부 會議가 열리고 있다. 급작스런 일이라 도청할수도 없고 方法이 없다. 垂直思考에만 依存하면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 비디오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현상후 농아학교 선생에게 보인다면 그 입술 놀림에 依하여 會議內容을 어느 程度 完全 解讀할 수 있을 것이다. 水平思考方式이 要求된다. 대체로 이런 內容의 冊이었다. 나는 섬유제품 수출업을 평생 하다

보니 자연히 젊은 사람들 속에서 매일 보내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잘 보고 있으면 젊은이라고 다 젊은 것은 아니다. 젊은 老人群像들이 많다. 업무진행에서 固定관념에 젖어 있고 매사를 공식적으로 한 테두리에 가두고 있다 보니 몇년이 지나고 직책은 올라가고도 업무진행에 영 變化가 없고 점점 硬直化 되드니 끝내는 化石化 되고마는 직원이 몇 생긴다. 그러니 自然히 스트레스, 노이로제, 우울증, 소화불량 등 現代人의 現代病에 걸리고 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는 절름발이 人生이 되고 마는 것이다. 發想의 전환과 思考의 유연성 긍정적, 적극적 사고 즉 수직, 수평사고방식이 必要한 것이다. 독일통일에 관하여 물은 記者들의 질문에 독일의 콜수상 自身이 말하기를 '韓國統一은 今世紀內에 가능할지라도 독일통일은 二十一世紀에 한참 들어서야 可能할 것이다' 라고 말한지 불과 1년도 안 되어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었으니 그 누군들 수직사고에 바탕을 두었을 때 想像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토키카, 그라스노스트, 즉 그의 水平思考方式的 思考의 전환의 結果이며 그 產物로 十月혁명 이후 거의 世紀에 걸친 소련공산당의 붕괴를 가져왔고 세계 냉전구도를 종식 시킨 結果로 나타났다.

나는 나름대로 한오백년은 살아 볼 생각이다. 우스개 소리로 내 나이 올해는 百八十이라고 말한다. 내가 호주의 양치기로 태어났다면 평생 양의 궁덩이나 보면서 아무런 변화 변동도 없이 살았을 것이다. 우리 世代처럼, 우리 同窓들처럼 억압, 解放, 體制, 言語, 思想, 격돌, 격변, 이별, 사랑, 증오, 기다림 등이 뼈에

사무친 세월을 겪은 世代는 없었을 것이다.

태어나니 日帝 植民地下였다. 우리말 代身 日語常用을 강요 당하고 第二次世界大戰, 原子폭탄, 解放, 소련군 진주, 露語, 共產主義, 유물사관, 6·25, 同族상쟁, 故鄉을 떠나 父母 兄弟와 이별, 國軍入隊, 수색대, 生活, 삶과 죽음, 헐벗고 굶주림, 암흑과 實存主義, 방황, 美軍과 英語, 초코렛트, 주잉검, 李承晩 政權과 4·19, 장면 정권, 5·16, 朴正권, 12·12, 5공, 6공, 아시안게임, 올림픽, 남북회담, 소련 붕괴, 北方진출, 中國修交, 소련과 國交等等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소용돌이와 변화 속에 살았으니 平凡한 양치기의 한代를 三十年이라 친다면 百八十은 살아온 셈이다. 우리 同窓도 다 그렇다고 말하여도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歲月은 어떤가?

今世紀內에 서울 뉴욕을 二時間대에 비행하는 초음속항공기가 등장할 것이며 서울 釜山간 두 時間대의 고속 전철이十分마다 서울역을 출발할 것이다. 白血病, 암, 에이즈는 정복될 것이고 自家用헬기는 고급주택가의 位置개념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大學은 願하면 모두 갈 수 있고 직업은 현재의 八千種類 水準에서 二萬種 정도로 多樣多種化 될 것이다. 統一된 우리 나라는 南北 合하여 九千萬의 人口가 될 것이며 中國東北三省(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과 소련 중·근동에 사는 우리말 사용하는 조선족을 合친다면는 一億二千萬의 巨大한 한글경제권이 形成될 것이다. 二十一世紀의 中間에는 옛 고구려 땅이었던 위 東北三省도 우리나라에 속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 틀림없다. 그럴 때 내 나이는 몇이나 될 것인가? 각설하고 앞으로의 一年은 과거의 몇 십년에 해당하는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變化 속에서 유일사상만을 고집하고 代 물려 忠誠하자는 不變唯一을 固執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世代는 또 한번 統一이라는 벅찬 가슴 터지는 환희의 물결을 맞이하고 우리 同窓會도 母校의 터전에서 화려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變化의 時代를 그 새로운 물결을 헤쳐나가자면 化石化, 硬直된 思考에서 탈피하고 새 봄에 돌아나는 새로운 나무 순처럼 수직, 수평사고만이 아닌 思考가 必要하다. 미래학자의 말에 依하면 高度의 기계化된 文明世界에서 가장 소중하고 비싼것은 결코 黃金이 아니라 좋은 추억과 밝은 미래를 가진 사람의 多感한 정서라 했다. 즉 高度의 文明世界에서는 정서결핍증이 人生을 공허하고 無意味하게 한다는 것이다.

낭만적인 삶, 긍정적인 삶, 용서하는 삶... 지난 세월의 짝 짜이고 쪼들렸던 직장 生活에서 못다한 人生살이를 보다 새롭고 멋있고 깊이 있고 무게 있는 人生을 이제야말로 장중하게 펼쳐 볼 때이다.

往復이 안되는 片道の 人生기차표를 사서 탄 列車! 어둡고 긴 터널도 지나고 굽이 굽이 가파른 준령도 숨차게 넘었다. 서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계절을 음미하며 정말 一年을 지난 세월 十年보다 더 값지고 알차게 앞을 보고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보자. 흰 머리 휘날리며 母校에서 同窓會를 가져보자. 親舊들도 만나보자.

새 해에 年賀狀을 보낸 親舊에게!



## 歲月은 흘러가는데



### 朱 宣 淳(33회)

나는 열 아홉 살이 되던 겨울에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정든 고향땅을 떠나야만 하였다. 6·25동란이 막바지에 이르던 1950년 12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서 홍남항을 철수하는 UN군의 수송선 LST의 후간판에 쫓그리고 앉아 멀어져 가는 고향산천을 하염없이 바라 보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반세기 가까운 기나긴 세월이 흘러 간 것이다. 옛말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건만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 갔으니 강산이 변해도 몇 차례나 변하였겠지.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허무하고 한스럽기만 하다. 先代에서는 36년간이나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설움 받고, 지금 우리는 반세기에 이르도록 고향 잃은 실향민이 되어 슬퍼한다. 실향민이 겪어야 하는 단절의 세월은 애통과 悔恨으로 이어지는 눈물의 세월이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면 슬퍼서 울었고 자식새끼 키워 남부럽지 않게 살만하게 되니 불효의 한이 사무쳐서 울었고 옛날이 그리워서 탄식하였다. 春夏秋冬사계절은 변함없이 찾아 오건만

고향 찾아 갈 길은 기약이 없고 늘어나는 것은 백발이요 주름이다. 그래서 세월은 流水와 같다고 한 것일까. 고향의 城川江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유유히 동해바다로 흘러가고 있겠지. 강물도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인생도 흘러간다. 그러나 한결같이 잇을 길 없는 것은 不孝의 恨이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 세상에서 언제나 그림고 포근하고 편안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고향일 것이다. 나는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뛰놀던 내 고향 뒷동산과 나의 집을 잇을 수가 없다. 그곳은 부모님이 계시던 곳 내 마음의 성지이며 사랑의 숨결이 샘솟는 영원한 파라다이스이며 주옥같은 추억들이 자국 자국 남겨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그 곳은 찾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아득한 북한 땅 함경남도 홍남시 호북리 산골짜기 마을이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오직 자식에 대한 사랑과 농사일 밖에는 모르고 계신 소박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농민이었다. 언제나 논밭에 나가 손발이 다 터지도록 열심히 일만 하였다. 과수원의 사과 한 개도 꿈쩍이 아끼고 계란 한 알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추운 겨울이 닥쳐오면 아버지께서 소달구지를 끌고 명태를 가득 싣고 와서는 내장을 빼어 간유를 말들고 명란젓, 창난젓을 담고, 나무에 걸어 동태로 말려 겨울내내 반찬거리로 하였다. 그 옛날에는 전기불도 없어 조개 껍질에 간유를 담고 숨 심지에 등잔불을 밝혔다.

차가운 북풍에 문풍지 울어대는 기나긴 겨울밤 어머니는 등

잔불 밑에서 삼(蔴)을 삼고 계셨다. 어린 나는 화롯불에 동태는 알을 구어 먹고 어머니께서 들려 주시는 춘향전, 심청전과 많은 옛날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으며 겨울밤을 보냈다. 날이 새면 논뜨락 얼음판에 나가서 빙고(썰매)타고 보애(팽이)치고 누런 콧물을 흘쩍이면서 고드름 따먹고, 메뚜기 치기와 제기차기를 하면서 하루 해를 보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우리 집은 어느새 꽃대궐로 변하였다. 사과꽃, 복숭아꽃, 배꽃이 만발하여 벌떼가 날고 꽃 향기 그윽하였다. 부모님은 아지랑이 피어 오르는 밭에 나가 밭고랑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황소는 한가로이 쟁기를 끌고 간다. 해가 중천에 이르면 밭 모퉁이에 둘러 앉아 함지에 담아 온 채비미(비빔밥)을 맛있게 드신다. 논(水田)의 맑은 물에는 올챙이 헤엄치고 뒷동산에는 뽕국새 울고 아이들이 버들피리 꺾어 붙던 평화스럽고 아늑한 마을이었다.

여름이 오면 우리 과수밭은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성하게 무르익고 어미 닭이 병아리 떼 이끌고 뜰 안을 헤집고 다닌다. 누님들은 봉선화 꺾어 손가락 예쁘게 물들이고 나는 황소 올라타고 들에 나가 개구리 잡아 구어 먹고 냇가에서 쇠치네(미꾸라지) 잡아 가두고, 밤이 되면 마당에 모기불을 피워 놓고 멍석을 깔고 온 식구 둘러 앉아 꾸짖한 저녁밥상을 함께 하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면서 여름밤을 보냈다.

가을이 오면 곡간에 가득히 곡식을 건어 들이고 겨울 채비에 분주했다. 붉은 태양이 함홍평야를 물들이며 지평선에 질 때까지 부모님은 밭에 나가 추수를 하신다. 하얀 베적삼이 땀에 흠

백 젖도록 일만 하시는 부모님을 지켜 보면서 나는 철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누님들이 국민학교에 다닐 무렵 나는 아침마다 학교에 따라 간다고 울며 쫓아 갔다. 한번은 학교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옷을 훌랑 벗겨 놓았는데도 벌거벗고 학교에 따라가서 교실 창 밖에서 맴돌았다. 농사일 하시던 어머니는 아이가 없어 졌다고 온 마을을 찾아 다니며 애태우신 일이 있었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집세기 신을 신고 십여리의 산길을 걸어서 열심히 다녔고 8·15해방 다음 해에는 어렵지 않게 관북지방의 명문인 함남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숙했던 나는 공부보다는 늘 소설책을 탐독하였고 현실에 적응 못하고 회의적이었으며, 생각은 엉뚱한 곳을 헤매이고 있었다.

공산주의 교육이 싫었고 꿈과 낭만이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찾아가고 싶었다. 열 여섯살이 되던 1947년 초 나는 무단결석하고 가출하였다. 어쩌면 그 일이 불행의 씨앗이고 방랑벽의 시초였는지도 모른다. 책상 서랍에 장문의 편지를 써 놓고 부모님 몰래 도망쳐 3·8선을 넘어 서울에 갔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육촌형을 찾아가서 나의 호연지기를 설명했으나 호되게 야단만 맞았다.

좋은 부모슬하를 떠나 실업자와 거지 떼가 득실거리는 서울에 무엇하러 왔느냐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이틀 밤을 자고 나서 다시 3·8선을 넘어 함흥에 되돌아 가게 되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험한 산길을 넘고, 기차에 숨어 타기도 하면서 20여일만에 함흥에 다시 도착하니 영락없는 거지꼴이었다. 너무 창피하여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산길을 걸어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웃 마을 과수원 집의 사나운 개에게 다리를 물려서, 절룩거리면

서 간신히 집까지 걸어 갔다. 숨을 죽이고 안방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어마이!”하고 목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소리를 하니 금방 알아 차리고 “이기 뉘기야!”하면서 어머니는 두 손을 벌리고 맨발로 마당에 쫓아 나온다. 개에게 물렸다고 하였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바지 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독을 빨아 주신다. “이 간나 새끼야! 占을 쳤드니 바람에 날린 나비, 천리 밖에 가 있다고 하드라”고 말하시면서 수 없이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더운 밥과 국을 끓여 밥상을 차리고 야단이였다. 아버지께선 담임선생을 찾아가서 감기로 결석했다고 사과 드리고 나는 시치미 딱 잡아 떼고 다시 등교하였다.

힘하고 넓은 세상을 경험한 나는 한 동안 암전한 학급 아이들이 어리게만 보였다. 그 어느 해 늦가을 함흥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숙을 하던 나는 추석을 맞아 밤늦게 집으로 찾아 갔다. 달빛 어린 사과나무 밑에서 나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어째서 이제오니…”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거친 두손으로 나의 손목을 이끌었다. 그리고 꼭간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항아리 속에 깊숙이 넣어 두었던 운동화 한켠레를 꺼내며 손에 쥐어 주셨다.

6·25사변이 일어나고 많은 젊은 이들이 인민군에 끌려가고 또 죽어갔다.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반격을 개시하여 1950년 10월에는 국군이 함흥지방에 입성하였다. 모두 태극기를 흔들며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해 12월에 접어들면서 중공군의 대공세로 전황은 다시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도 나는 어머니께서 차려 주신 밥상을 대하고 앉았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어렵게 장만한 찻장을 참기름으로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밖에서는 UN군의 헬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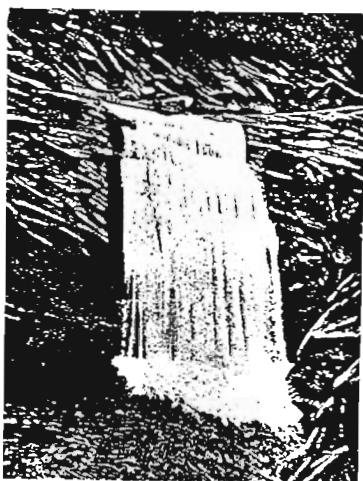
리가 설 새도 없이 들려 오고 어쩐지 불안스럽기만 하였다.

“어마이, 대포 한방 떨어지면 다 날아 가는데 무슨거(무엇을) 그렇게 닦고 있소!” 통명스럽고 버릇 없는 불효자식의 한 마디에 어머니께서는 몹시 화가 나셨다. “이 간나 새끼야! 무슨 소리를 하니!”하면서 야단을 치고 흘겨 보신다. 나는 밥숟가락을 놓고 일어 섰다. 그리고는 龍興에 있는 큰 누님 집에 다녀 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다. 마을 어귀에서 뒤를 돌아 보니 뒷동산 마루턱에 아버지께서 서 계신다. 어데가느냐고 손짓하고 계셨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하여 나는 부모님과 생이별하였다. 피난민 대열 속에 끼어 홍남향으로 밀려 갔고 정처 없는 피난길을 떠났던 것이다.

그후 많은 세월이 흘러 갔다. 거제도 피난생활, 6년여의 군대생활, 30년의 공직생활, 어렵고 힘겨운 날들이 많았지만 다 참고 견디어 나갔다. 나의 괴로움과 슬픔은 불효의 한이다. 이세상에서 나를 꿈쩍이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오직 한분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작별인사 한마디 못하고 사진 한장 간직하지 못하고 어이없이 떠나 온 불효의 한은 긴 세월이 흘러가도 풀 길이 없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다 빼앗기고 이자식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긴 세월 얼마나 애타게 보내었을까? 추석이 오고 설날이 되어도 멍하니 북녘아늘을 바라볼 뿐이다. 빛 바랜 흑백 사진처럼 문득 떠 오르는 그 때 그 시절의 그리운 모습들... 허공속에 묻어 버리고 잊어 버리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다.

나는 이제 환갑, 진갑 다 지난 인생 길에 접어 들었다. 틈만 나면 산에 오른다. 스쳐 가는 바람소리에도 고향집이 떠 오르고

소나무 냄새, 풀 냄새에 문득 고향 뒷동산이 생각나고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들려 오는 새소리에 鄉愁를 느낀다. 죽기 전에 한번만 꼭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 내 고향, 내 집터에 다시 가고 싶다. 엎드려 통곡하며 불효를 용서 받고 싶다. 그리고 유구히 흘러가는 城川江물에 쌓이고 쌓인 恨을 말끔히 흘러 보내고 싶다.



## 『都市가스』小考



### 廉昌錄(33回)

#### 1. 머리말

저는 단천군産이며 함남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국민학교 4학년때 咸興錦町小學校(해방후 盤龍으로 개명)에 轉學한 덕분에 오늘날 33回 막내 동창의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전통의 함남중학 출신임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남달리 가스와의 많은 因緣을 갖고 살아온 것으로 생각된다. 근간 정부의 에너지 多邊化시책이나 環境保全시책추진으로 공해가 거의 없고 사용이 간편한 도시가스(천연가스)가 「21세기 연료」라고 불리울 정도로 온국민이 選好하면서 전년대비 40~50%씩 급격히 공급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는 현재 首都圈과 大田지역에는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그외의 지역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를 氣化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스분야에서는 LPG/Air 도시가스로도 부르고 있다. 정부의 장기수급계획에 따라 1996년말까지 전국 대도시는 LNG로 공급



전환할 목표를 갖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배관공사(配管工事)를 실시중에 있다. 이에 도시가스와의 인연을 되새겨보면서 도시가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므로서 가스화시대에 살고 계시는 同窓여러분의 日常生活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써보기로 하였어오니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는 바이다.

## 2. 도시가스와의 인연

1·4후퇴 당시 누구나 겪었듯이 흥남부두에서 LST에 몸담고 어렵게 어렵게 越南하여 비록 1년의 짧은 기간이긴 했으나 최전방에서 용맹을 떨치며 신나게 싸웠고 戰友들의 목숨을 수없이 앗아간 首都師團 26연대에서 凍傷에 시달리는 열악한 환경의 졸병생활을 負傷으로 명예제대하기에 이르렀다. 우여곡절끝에 상이군인정양원(서울)에 기식하면서 겨우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고 當時 公務員 등용문이었던 修習行政員시험을 거쳐 취직하여 21년간을 근무한 곳이 상공부였다. 공무원시절이던 1965년도에 일본국의 東京가스(주)에서 1년간 연수하게 되면서 가스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는 지금부터 85년전인 1909년 11월에 서울의 용산에 有煙炭을 가지고 코크스가 主製品. 부산물로 나오는 석탄가스로 가로등과 취사용연료로 공급하여 오다가 2차 대전時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서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再開를 검토할 수 밖에 없었던 시기에다 그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관제로 본인에게 연수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東京가스에서

나 한국측에서 볼 때에도 도시가스 분야의 海外研修 1號를 기록 하게 된 셈이다. 도시가스와 두번째로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사)한국도시가스협회”에 들어간 것이라 하겠다. 동협회는 전국에 있는 28개 도시가스회사들을 會員으로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나는 이곳에 10년간을 근무했으며 이어서 가스 시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가스전문건설협의회”에 옮겨 일하고 있으니 분명 나와 도시가스와는 인연이 적지 않았다고 自評할 수 있을 것 같다.

### 3. 도시가스 소개

도시가스라함은 수도물을 City Water라고도 부르듯이 PLant에서 석탄, 유류, LP가스, 천연가스 등의 原料를 가스化하여 Pipeline(導管)을 통해 가정이나 빌딩, 상가, 공장 등 需要家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City Gas 또는 Town Gas라고 한다.

또한 가스는 모양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도관속에 숨어 있다가 부르면 대령하는 형상으로서 그야말로 「生活을 지탱해주는 숨은 主役」이라 해도 過言이 아닌 것이다. 도시가스는 그간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오늘 날에는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와 LPG, Naphtha가 일반적으로 도시가스原料로 쓰여지고 있다.

가스라고 하면 보통 容器에 담아 쓰이는 LPG나 導管에 의한 LNG를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공업용 가스, 순수가스, 반도체가스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옥시젠, 니트로젠, 헬륨, 알곤 등 50여종의 특수가스가 국내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는 현재 두가지 즉, LPG(액화석유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와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가 사용되고 있다.

이중 LNG는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그 부피가 약 600분의 1로 감소하며 영하 162°C의 超低溫상태가 되므로 LNG는 수송과 저장이 편리한 반면에 초저온에 견딜수 있는 특수한 기술과 자재 등이 요구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氣體상태로 還元시키는 氣化作業(저장시설에서 도시가스社나 발전소에 보낼 때 시행함)이 필요하다. 기화된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비중 0.62) 공기중에 쉽게 확산되므로 安全한 연료라고 불리운다.

가스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12년 영국 런던에 가스회사가 설립되면서 부터이고 우리 人類가 가스를 이용한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기원전 3,000년 세계 4대문명발상지의 하나인 중국대륙의 製鹽공업에 천연가스를 대나무로 만든 管에 사용하였던 사실이 알려져 왔고 소련 백크地方의 조이스터교寺院에서는 2,500년 이상의 오랫동안 천연가스의 불꽃이 예배와 信者의 火葬에 사용되기도 했다. 근대적인 가스산업은 석탄가스에 의한 가스燈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나 1908년 電氣의 발견으로 電球가 등장하고부터 가스는 주로 열에너지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석유화학 발달에 依해 석유에서 효율적으로 가스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고 소규모프랜트로서도 가능하여 원가절감에 매우 有利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와서 천연가스이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1964년 Pipeline에만 의존하던 천연가스수송에 특수선박건조에 의한 海上수송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사업은 지금으로부터 85년전인 1909년 서울의 용산에 韓國瓦斯(株)가 설립, 석탄가스공장이 가동되어 가스燈으로 첫 點火式을 가진것이 가스이용의 효시였으며 이어 1935년에 서울의 마장동에 京城電氣회사(지금의 한전)에서 역시 코크스爐에 의한 가스제조시설이 건설되어 그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를 취사용으로 공급하다가 2차대전시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기록에 의하여 가스등 점화식을 가졌던 초기의 월간전등요금 이 2원50전인데 비하여 가스요금은 1원으로 매우 저렴하였었다. 해방후 도시가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2년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서울市營으로 납사 改質方式의 가스제조프랜트 (50,000m<sup>3</sup>/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부터 였으며 현재는 서울도시가스(주)에서 이를 인수, 운영하고 있다. 그후에 1980년 대한도시가스(주), 1982년 부산의 부산도시가스(주), 1983년 광주의 해양도시가스(주) 등 전국의 주요도시에 도시가스社가 설립되므로써 현재 전국에 28개도시가스회사가 운영중에 있다. 이중 서울의 5개 회사, 인천과 경기지역의 2개사와 대전 1개사 등 8개사는 LNG도시가스를, 기타는 전부 LPG 기화방식에 의해 도시가스를 공급중에 있는 바, 1996년말까지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의 대도시는 LNG로 공급전환될 예정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국 LNG간선망계획」이 수행되고 있다.

도시가스의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가스보급확대시책과 도시가스사업자를 비롯한 시공업체, 기기 메이커와 유관기관들의刻苦의 노력에 힘입어 '80년말 공급가구수 10만가구, 공급물량 14백만m<sup>3</sup>(10,500Kcal/m<sup>3</sup> 기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것이

'93년말 현재 공급가구수는 280만가구에 공급물량은 3,029백만 m<sup>3</sup>(LNG로 환산해보면 245만톤에 해당)을 공급하였으며 전년대비 44%증가로 매우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93년도의 우리나라 LNG의 소비량을 참고로 살펴보면 도시가스용에 185만톤, 발전용에 252만톤으로 모두 437만톤에 이른다. '93년도의 도시가스공급량을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가정용(취사·난방용) 62.5%가 가장 많고 업무용 16.9%, 산업용 14.5%, 영업용 3.0% 및 열병합발전용이 3.2%이다. 그리고 '9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소비량중 도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90%에 該當한다.

한편 도시가스사업에서 중요한 시설로는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공급배관(導管이라고도 부름) 즉 Pipeline인바 '9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가스배관길이는 총 41,909km로서 사업자자산에 속하는 本管과供給管이 7,878km, 需要家 資産인 團地內 供給管과 家庭管의 길이는 34,031km이다.

도시가스를 새로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하면 供給管의 설치계획이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가스공급이 가능하다면 도시가스회사에 등록된 시공업체중에서 그 공사를 맡을 회사를 지정받게 된다. 設置費用은 시·도에서 정하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확인후 산정(算定)하게 되며 이때 설치비용산정 내역서가 적정한지를 필히 확인한 후 동의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으나 節次를 잘 몰라 도시가스회사에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자와 설치계약을 하여 본의 아니게 부실시공이나 공사비과다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하

는 사례가 不無한 실정이오니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지역은 가스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변지역, 가스관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도시가스회사측의 도시가스공급계획지역이며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를 희망하더라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는 도로가 굴착하고 포장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 가스관이 있는 지역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거나 암반등으로 배관공사가 곤란한 지역을 들 수 있다.

끝으로 “도시가스 안전사용”요령 몇가지를 부언하기로 한다.

#### 〈사용전〉

- 불을 켜기전에 카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가스가 연소시에는 많은 空氣가 필요하므로 창문을 열어 실내환기를 시킵니다.
- 연소기 주위에 불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 〈사용중〉

- 점화용콕크손잡이를 천천히 돌려 點火시키고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합니다.
- 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콕크가 열려 있으면 가스가 새어 위험합니다.
- 조리시에는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지 않는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 사용중에는 가급적 자리를 비우지 맙시다.

#### 〈사용후〉

- 점화콕크잡이와 중간밸브를 꼭 잠구어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중간밸브 및 계량기 전단밸브가 잠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평소점검〉

- 연소기 불구멍이 막혀 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해두어야 합니다.
- 호스와 이음새부분에서 혹시 가스가 새지 않는지 수시로 비눗물이나 점검액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하절기 휴가등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차단 밸브를 잠구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사고로부터 보호합니다.



## Ⅲ部 會則 各 名簿 편집後記

---

1. 同窓會 會則
2. 同窓會基金 贊助金 內譯
3. 任員 및 期幹事 名單
4. 同窓會員 名簿
5. 海外同窓 名簿
6. (詩와글) 作故者 名簿
7. 편집後期



## 會誌編輯室

郵便番號：100-230

서울 中區 水標洞 47-6 (天樹빌딩 1008號)

鄭哲周稅務士 事務所  
本會監事(第29回)

電話番號：274-0928, 266-8305~6

F A X : 266-8306

# 咸興 高等普通學校(咸南中學) 同窓會 會則

##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咸興高等普通學校(咸南中學校)同窓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但, 地方에 支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三條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는 同時에 協調 團結을 公高히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 (1) 會員：私立咸興高等學校, 私立咸興高等普通學校, 官立咸興高等普通學校,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 咸南公立中學校 및 咸興中學校 卒業者와 同校에 在學한 者로서 同期幹事의 推薦에 依하여 任員會가 認定한 者.
- (2) 特別會員：母校에 在職하였던 教職員

## 第二章 任 員

第六條 本會의 任員과 그 職務는 다음과 같다.

- (1) 會 長 1名  
副會長 3名  
監 事 1名  
總 務 1名  
副總務 1名
-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全般을 管掌하며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務를 分擔한다.
- (4) 會長 有故時 最年長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5) 總務는 會長의 指示에 따라 會務全般을 總括運營하고, 財政 會計事務를 管掌한다.
- (6) 副總務는 總務를 補佐하고 本會의 諸般 書類를 保管 管掌한다.
- (7) 監事는 本會의 運營, 財政狀況을 隨時監査하여 會長과 總會에 報告한다.

第七條 本會는 本會發展에 有功한 會員中에서 名譽會長 및 顧問 若干名을 推戴할 수 있다.

第八條 本會의 任員은 定期總會에서 選任한다.

任員 有故時는 任員會 및 期別幹事合同 會議에서 選任한 任員이 殘餘期間동안 會務에 參與하고 次期總會에서 認准을 받는다.

第十條 各 期間의 會務連絡을 위하여 期別幹事 1名式을 選定하여 任員會에 報告키로 한다.

### 第三章 會 議

第十一條 本 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다.

- (1) 定期總會：每年 十月에 開催하고 歲入歲出의 承認 任員選出 會則改正 및 主要 案件의 承認
- (2) 臨時總會：任員會 및 三十名以上 會員의 要請이 있을 때 開催한다.
- (3) 任 員 會：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였을 때 隨時로 召集할 수 있다.

- (4) 幹事會：各期別幹事の會議로서任員會의要請으로開催할수있다.

#### 第四章 財 政

- 第十二條 本會의 經費는 贊助金 및 總會時 會費로 充當함을 原則으로 한다.
- 第十三條 本會의 基金은 會長 名義로 公認 金融機關에 豫置한다.
- 第十四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十月一日부터 翌年 九月三十日로 한다.

#### 第五章 補 則

- 第十五條 本會則 第二條의 支會를 設置하고자 할 때는 該當支會의 會則 및 會員名簿를 任員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十六條 本會의 會計에 關한 收入 支出은 任員會의 決議로 處理하고 此를 總會에 報告하여 追認을 받는다.
- 第十七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 出席委員 3分の 2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 第十八條 本會則 未備點은 任員會의 決議에 依據 處理키로 한다.
- 第十九條 本會則은 通過된 날부터 施行한다.
- 制定 一九七〇年 十月 二十四日  
改正 一九八四年 十月 九日

## 同窓會基金 贊助內譯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基金造成 沿革은 同窓會誌 第4號에 서 記述하였음으로 省略한다.

다만 各會員들이 贊助한 誠金은 科目을 基金으로 設定하였으나 實은 基金造成을 爲하여 特別히 募金하였다기 보다 定例行事인 同窓會定期總會, 野遊會와 다섯번에 걸친 同窓會誌 發行時에 必要한 諸般 經費를 돕기 爲하여 그때 그때 뜻이 있는 會員들이 낸 贊助金이 大部分이다. 이자리를 빌어 그 會員들에게 다시한 번 感謝드린다.

同窓會를 더 活性化하기 爲하여 92년부터 始作한 春季野遊會는 定期行事로 定着되어 이에 따른 經費等を 감안할때 一定額의 基金이 積立되어 그 基金運用으로 充當할때이니 많은 會員들의 協助를 바란다.

1994年 9月 30 日 現在까지 贊助받은 內譯은 다음과 같다.

# 同窓會基金 贊助內譯

(1994. 9. 30現在)

贊助金總計 51,641,544원

## 1. 個人別

姓 名	回期別	金 額	備 考	姓 名	回期別	金 額	備 考
李 東 準	1	50,000		朱 仁 鎬	21	1,400,000	
姜 洙 만	6	190,000		劉 喆	21	200,000	
金 載 元	9	70,000		元 勳 基	21	100,000	
李 東 沂	10	130,000		李 相 胤	21	200,000	
金 連 珪	16	900,000		李 英 環	21	100,000	
崔 昌 植	16	50,000		朱 軫 淳	21	200,000	
金 漢 范	17	230,000		趙 在 衡	22	1,620,000	
朱 永 在	17	100,000		朴 東 昂	23	2,730,000	
趙 漢 龍	18	1,250,000		韓 信	23	130,000	
崔 英 植	18	50,000		金 瑛 河	23	400,000	
朱 槿 源	19	620,000		任 是 彬	23	200,000	
金 河 駿	19	60,000		朱 圭 演	23	200,000	
洪 澄 杓	20	3,230,000		朴 昌 均	23	200,000	
全 世 經	20	120,000		李 漢 淳	23	100,000	
權 泰 弘	20	50,000		趙 誠 福	23	50,000	
金 興 洙	20	820,000		崔 宗 相	23	50,000	

姓名	回期別	金額	備考	姓名	回期別	金額	備考
李世得	23	100,000		劉秉千	25	100,000	
金斗墳	23	100,000		劉炳敏	25	100,000	
徐正溶	23	50,000		金珉河	25	50,000	
周喜銓	24	950,000		金仁鶴	25	50,000	
金廷圭	24	200,000		金熙宰	25	50,000	
高明元	24	200,000		朴鼎憲	25	50,000	
柳炳極	24	400,000		劉長得	25	50,000	
廉仁必	24	900,000		趙成國	25	50,000	
韓時坤	24	600,000		崔浩益	25	50,000	
朴泳馥	24	300,000		韓相豹	25	50,000	
金性均	24	100,000		韓承五	25	50,000	
崔昌彬	24	100,000		韓鼎變	26	1,030,000	
韓承銀	24	100,000		河洪權	27	550,000	
韓學綸	24	100,000		元章煥	27	900,000	
金東勳	24	100,000		劉 綱	27	1,100,000	
黃炳峻	25	100,000		金明壽	27	100,000	
朴承咸	25	60,000		金允善	28	130,000	
盧庚昞	25	230,000		李命英	28	100,000	
權宅淵	25	100,000		宋榮冕	28	50,000	
金銀式	25	100,000		趙東喆	28	280,000	
金昊麗	25	100,000		魯一協	28	100,000	

姓名	回期別	金額	備考	姓名	回期別	金額	備考
金鳳湜	28	310,000		李 河	30	100,000	
鄭哲周	29	630,000		申裕恒	30	100,000	
金熙國	29	100,000		全龜淵	31	105,000	
趙 鎰	29	200,000		金致敬	31	500,000	
林舜均	29	200,000		金明哲	31	400,000	
韓鎮慶	29	200,000		都址石	31	100,000	
韓錫元	29	100,000		朱繪淳	31	100,000	
金光浩	29	100,000		全 泰	31	100,000	
李善植	30	1,400,000		朴炳哲	31	100,000	
李元鏞	30	850,000		金 陽	32	100,000	
朴溶夏	30	650,000		朴勝宰	32	50,000	
李鎬汪	30	100,000		鄭在銓	32	50,000	
高明三	30	300,000		李大鏞	33	200,000	
白昞烈	30	300,000		李七煥	33	100,000	
李寅華	30	600,000		金桂淑		505,000	名單別項
韓相淇	30	100,000		外 26名			
崔嘉鳳	30	100,000		小 計		34,630,000	

其他贊助者：5回 金桂淑，趙澤元，6回 朱源，7回 姜錫福，金世偉，朴洋煥，金昌洙，9回 朱翼淳，咸泰元，11回 朴忠鎮，12回 朱元鏞，13回 金鼎鉉，14回 安容彪，16回 金聖河，18回 朱庚雲，19回 朴旻會，20回 金明植，文哲，22回 李舞益，崔龍煥，23回 崔敏煥，朴晶浩，李雙杓，24回 金泰錫，金鉉五，28回 邊道燁，金鉉鎬 以上 27名



## 2. 回期別

回期別	金 額	備 考	回期別	金 額	備 考
15	150,000		27	1,420,000	
16	100,000		28	1,080,000	
19	150,000		29	1,200,000	
20	250,000		30	1,490,000	
21	750,000		31	1,270,000	
22	330,000		32	1,290,000	
23	550,000		33	1,185,000	
24	850,000				
25	920,000				
26	550,000		小計	13,535,000	

### 3. 在美洲 同窓 個人別

姓 名	回期別	金 額	備 考	姓 名	回期別	金 額	備 考
馬 鍾 國	8	\$ 120		韓 世 鎬	29	\$ 100	
金 子 勲	15	230		朴 浩 高	29	100	
金 滄 次	15	400		金 淳 郁	29	130	
都 相 禧	19	30		金 在 楨	29	80	
韓 大 淑	20	700		金 培 石	29	50	
金 壽 永	20	200		金 弘 杓	29	100	
金 時 產	21	80		金 雄 植	29	150	
朱 翰 裕	21	20		韓 萬 燮	30	170	
文 相 駿	21	130		高 勝 榮	30	200	
玄 鳳 學	23	150		曹 秉 均	30	50	
金 應 浩	24	200		金 恭 根	30	80	
金 秉 萬	26	30		趙 哲	30	20	
李 桂 衡	26	80		申 森 熙	30	30	
吳 病 惠	26	20		李 仁 根	30	50	
金 澤 濟	26	100		黃 載 鎮	31	100	
金 東 萬	26	30		朴 炳 元	31	150	
曹 圭 榮	27	50		韓 碩 惠	32	50	
朴 昭 會	27	100					
李 英 得	28	20					
金 和 極	29	100		小 計		4500	
李 通 燾	29	100		換 算 額		3,476,544	

## 任 員 及 期 幹 事 名 單

任員區分	回期	姓 名	住 所	電話番號
名譽會長	1	李 東 準	松坡區 蠶室5洞 住公아파트 518-806	423-1630
會 長	23	朴 東 昂	江南區 開浦洞 449-3 現代아파트 202-803	576-3636
副 會 長	21	朱 仁 鎬	城東區 杏堂1洞 320-10	295-2225
副 會 長	24	韓 時 坤	麻浦區 鹽里洞 23	716-5587
副 會 長	27	劉 鋼	松坡區 蠶室洞 住公아파트 522-303	413-3276
監 事	29	鄭 哲 周	江東區 吉洞 新東亞아파트 6-105	483-0019
總 務	30	朴 溶 夏	城東區 玉水4洞 現代아파트 101棟 202號	297-9821
副 總 務	31	金 明 哲	城北區 長位洞 225-8	916-8712
幹 事	8	朱 洛 璋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1 갑천장	(032)45-1018
幹 事	10	李 東 沂	경기도 의왕시 학의1동 438-2	(0343)53-3048
幹 事	13	蔡 永 福	陽川區 木洞 王子아파트 10-201	646-4144
幹 事	14	安 鎔 彪	恩平區 녹번동 82-2	389-1392
幹 事	15	蔡 奎 燦	恩平區 津寬內洞 299-74	359-5489
幹 事	16	金 斗 漸	西大門區 弘恩洞 338-165 코룽빌라 1棟 308號	358-5364
幹 事	17	金 漢 范	鍾路區 紅把洞 19-1	737-2080
幹 事	18	韓 翊 洙	道峯區 放鶴洞 新東亞아파트 9棟 701號	956-3210
幹 事	19	朱 槿 源	城北區 城北洞 97-28	742-2337
幹 事	20	金 宗 海	恩平區 佛光洞 221-1	387-2258
幹 事	21	元 勳 基	恩平區 龜山洞 210-31	355-8792
幹 事	22	金 祐 燮	松坡區 梧琴洞 9-3	402-0198
幹 事	23	朱 圭 演	江南區 開浦洞 住公아파트 224棟 306號	576-4977

任員區分	回期	姓 名	住 所	電話番號
幹 事	24	韓 時 坤	麻浦區 鹽里洞 23	716-5587
幹 事	25	韓 承 五	道峯區 水踰5洞 412-140	902-2309
幹 事	26	韓 鼎 燮	西大門區 北阿峴洞 189-42	362-5824
幹 事	27	尹 元 基	城東區 中谷洞 259-23	467-8992
幹 事	28	金 鳳 湜	永登浦區 汝矣島洞 水晶아파트 A-903	782-3559
幹 事	29	鄭 哲 周	江東區 吉洞 新東亞아파트 6-105	483-0019
幹 事	30	白 晒 烈	中區 獎忠洞 2가 55	277-0564
幹 事	31	金 明 哲	城北區 長位洞 225-8	916-8712
幹 事	32	金 仁 和	道峯區 번3동 88-7	942-7109
幹 事	33	金 基 元	鍾路區 東崇洞 市民아파트 13-103	762-9698

## 回期別 名單

### 第 1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李東準	138-220	松坡區 蠶室5洞 住公아파트 518-806	423-1630		

### 第 2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韓泰然					

### 第 4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尹範模					

### 第 5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吳正根					
李廷浩					

### 第 6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楨龜	110-542	鍾路區 昌信2洞 640-249			

海 外

姓名	住 所	電話
李鍾奎	在美	

第 6 回(新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 聲 遠	430-060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7-801	0343)44-8402	研究室	521-0801

第 7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趙 啓 聖	301-060	大田市 中區 銀杏洞 72	254-5400		
蔡 洙 崗		公州			

第 7 回(新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姜 錫 福	110-042	鍾路區 樓下洞 236	737-4342		752-9739
金 世 偉	135-091	江南區 三成2洞 147-12	556-3386		

第 8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 鍾 偉					
朴 在 極	470-920	楊平郡 江下面 成德里		養蜂業	
李 經 濟					
趙 永 星					
朱 洛 璋	449-050	水源市 長安區 영화동 441 감천장	(032)45-1018		

海 外

姓名	住 所	電話
金 仁 燮	在美	
金 龍 涉	在美	
池 鏞 夏	在美	
馬 鍾 國	17060 KING JAMES WAY #520 GAITHERSBURG. MD 20877 U.S.A	

第 9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 述 奎	133-093	城東區 金湖洞 2街 487			
咸 泰 元	130-020	西大門區 西小門洞 53-2	752-1932	북창병원	
朱 翼 淳					

第 10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 聲 近	137-061	瑞草區 方背1洞 917-4	585-0268		
金 淳 業	137-073	瑞草區 瑞草3洞 1506-79瑞草빌라 나-202	585-2255		
金 正 中	138-240	松坡區 新川洞 잠실 장미아파트 30-601	412-6013		
朴 俊 基					
劉 正 學					
龔 鎮 河	137-040	瑞草區 盤浦洞 盤浦아파트 20-310			
尹 鍾 杰					
李 東 沂	437-090	경기도 의왕시 학의1동 438-2	(0343)53-3048		
咸 錫 玖					
蔡 熙 甲	157-012	江西區 禾谷2洞 396-9	602-0722		

第 11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姜 澤 璜					
金 基 燮					
金 弘 鎭					
金 炯 澤					
李 壹 教					
李 在 玉	301-111	大田市 中區 龍頭1洞 20-20	256-6938	충남합동법률사무소	26-9736
金 永 商	110-450	中區 新堂洞 214-29	352-2289		
黃 起 然					
金 塾					

海 外

姓名	住 所	電話
都 遠 涉	在美	

第 12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李 升 圭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三扶아파트 9-1303	782-5167	서울대명예교수	
金 廷 鶴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아파트 80-201	542-2824		
文 希 樂					

第 13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 鼎 鉉	122-050	陽川區 新亭洞 313 木洞아파트 907棟 402號	645-3759		
李 大 林	140-190	龍山區 厚岩洞 334-2(6/1)	754-8525		
蔡 永 福	158-050	陽川區 木洞 501 왕자아파트 10-201	646-4144		
李 英 植					
黃 東 駿					

第 14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安 鎔 彪	122-020	恩平區 녹번동 82-2	389-1392		
李 秉 植					
黃 德 駿					



第 15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 佶 熙	140-140	龍山區 西界洞 53-20	542-6883		
朴 俊 燮	136-054	城北區 東仙洞 4街 359-2	94-9875		
金 永 燮	473-870	南楊州郡 조안면 능대리	(0346)66-4555		
蔡 奎 燦	122-120	恩平區 津寬內洞 299-74	359-5489		

海 外

姓名	住 所	電話
金 基 應	144-14 38 AVE. #4C FLUSHING, NEW YORK 11354 U.S.A.	718-939-1713
金 子 勳	2-54 149 ST. WHITESTONE, N.Y 11357 U.S.A.	718-352-9439
金 滄 次	232B WASHINGTON AVE FORT LEE N.J. 07024	201-585-0813

第 16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姜 穩 求	157-040	江西區 鹽倉洞 242-11	694-5611		
金 斗 漸	120-100	西大門區 弘恩3洞 90-5 백련빌라 102號	358-5364	세운고예사	267-0431
金 弘 集	430-081	安養市 호계1棟 일신아파트 3-501	(0343)57-0225		
金 麟 河	476-820	京畿道 楊平郡 양서면 국수3리	(0338)72-7439		
方 成 勤					
韓 建 淑					
韓 弘 林	401-040	仁川市 東區 송현동 東部아파트 2-1103	(032)764-8022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 星 奎	6547 E. MARENGO DR. ANAHEIM CA. 9280 U.S.A.	
劉 漢 鳳	610 S. CARLYN SPRINGS RD. WOODLAND HILL #228 ARLINGTON, VA 22204	703-578-3173

第 17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漢範	110-092	鍾路區 紅把洞 19-1(舊名金鑄八)	737-2080		
朱永在	621-170	慶南 金海 양산	(0523)83-5375	仁濟大學金海캠퍼스	
韓昌淑	137-040	瑞草區 新盤浦洞 韓信2次아파트 108-402	533-1595		
韓萬燠	600-091	釜山市 中區 大廳洞 1街 38		문화옵셀사	
高允明	235-900	江原道 三陟郡 道溪邑		中央病院	
文昌沼		釜山市			

第 18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完龍	140-030	龍山區 二村洞 302-86 빌라맨손	797-6995		
金寅彪	130-080	東大門區 里門洞 346-51	962-6588		
朴謙會	140-111	龍山區 元曉路 1街 17-8	713-1150		
徐永昱	135-270	강남구 도곡동 도곡現代아파트 2-303	563-6320		
李中性	132-030	道峯區 雙門洞 現代아파트 101-604	906-9036		
趙漢龍	110-340	鍾路區 益善洞 91	765-3577		
朱東雲	110-012	鍾路區 平昌洞 345-76	352-4295	鍾路2街朱東雲 X레이醫院	735-0559
崔英植	137-040	瑞草區 盤浦洞 1-8 京南아파트 11-1002	537-1919	浦項硅砂鑄山事務所	73-6146
韓蒙淑	122-070	恩平區 驛村洞 75-25	359-0480		
韓翊洙	132-023	道峯區 放鶴洞 新東亞아파트 9棟 701號	956-3210		
韓宗鎬	464-890	廣州郡 五浦面 능평리 수리고을 515-1	(0342)44-2916		

第 19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永濟	427-010	果川市 中央洞 67 住公아파트 1017-302	502-7920	카톨릭의대 명예교수	
金河駿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진주APT C棟 1110號	786-1573		
朴旻會	135-120	江南區 新寺洞 534-24	542-3293		
朴炳원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아파트 33-305	542-4505		
李湧墳	435-050	金浦市 금전동 住公APT 101-715	(0434)93-3190		
李在亨	137-170	瑞草區 廉谷洞 265	573-4089		
朱槿源	136-020	城北區 城北洞 97-28	742-2337	한국자동차 보 협(주)	273-9350
韓景鎮	131-040	瑞草區 盤浦洞 新盤浦APT 101-408	594-7688	연세약국	302-1579
韓 榮	121-240	麻浦區 延南洞 561-8	322-2718	부친보건소	6-0018
韓弼夏	140-210	龍山區 漢南洞 740-3	793-6970	고려대명예 교 수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鄭相禧	882 BEAR CREEK COSTA MESA, CA P2626 U.S.A.	401-943-2598
文錫垠	日本 高知縣 幡多郡 大目町 大角 國民診療所	

第 20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權泰弘	137-060	瑞草區 方背洞 삼호아파트 3-610	591-2447	한일합동 법률사무소	755-4538
金宗海	122-041	恩平區 佛光1洞 238-105	387-2258		
金亨穆	134-060	江東區 蓮村洞 住公아파트 408-403	482-2463		
金興洙	137-060	瑞草區 方背洞 883-10 황실아파트 305	585-3003		
朴管鎮	134-060	江東區 蓮村洞 住公아파트 106-404	483-0247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朴 演 珽	135-110	江南區 압구정동 미성APT 1-1205	546-5156		
白 萬 吉	403-130	仁川市 北區十井1洞 여원아파트 나-103	435-9391		
徐 光 洙	121-190	麻浦區 倉前洞 402-18	332-1307	서광수소아과	
李 基 炯	110-080	종로구 무악동 65-3 연립45동 24호 地下	392-3670		
林 炳 書	601-062	釜山市 東區 凡一洞 870-15	89-4066	현대치과의원	68-7352
曹 圭 福	150-050	永登浦區 新吉洞 4915-3	833-8974		
崔 玉 德	100-454	中區 新堂4洞 346-159	252-3860		
洪 滢 杓	110-290	鍾路區 仁寺洞 98 第一빌딩	732-3148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李 壽 永	261 EAST MKIN ST. BERGENFIELD NJ. 07621 U.S.A.	
崔 潤 換	日本 神戶市 東灘區 住吉山水 8-22-15	078-1257
韓 大 淑	STATION. A OGDENSBURGN, N.Y. 13669 U.S.A.	315-393-3000
金 泳 鍾	200, S. OLIVE ST. #202 LOSANGELES, CA. 90012 U.S.A.	
孫 俊 得	7679 PRIMM SPRINGS RD PRIMM SPRINGSTENNE 38476 U.S.A.	

第 21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 敦 鉉	121-012	麻浦區 阿峴 2洞 343-7	364-0875		
元 勳 基	122-060	恩平區 龜山洞 27-24 예일파크 303	355-8792		
李 相 胤	442-380	水原市 東區 遠川洞 81-6 法典빌딩 203	6-1508	법률사무소	(031)211-6115
李 英 環	150-080	永登浦區 道林洞 186-9	833-9593	이범의원	
全 明 洙	402-013	仁川市 南區 崇義3洞 88-1 아르메리아	(032)887-8795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朱仁鎬	130-071	城東區 杏堂1洞 320-10	295-2223	보건병원	587-1597
朱軫淳	133-192	城東區 紫陽洞 691-8 한양자양빌라 203	447-7752	한강성심병원	671-0958
韓喬石	138-240	松坡區 新川洞11 장미아파트 28-201	423-4241		
韓東允	402-022	仁川市 南區 龍峴2洞 삼익아파트 2-1001호	(032)882-2667		
劉 喆	425-180	安山市 本五洞 872-26 宇成아파트 101-1203	(0345)407-4890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時彥	1919 CITRON ST. #590 HONOLULU, HAWAII, 96826 U.S.A.	808-941-6567
安省信	39 POLAND PLACE STATEN ISLAND, N.Y. 10314	218-983-1987
李林學	4194 YUCULTA CROSCENT, VANQUOVER, BC. V6N, 3R5 CANADA	604-263-0366
李 虎	大阪市 八尾市 東山本新町 8丁目 221	6-752-2126
朱翰裕	2701 TANAGER DR WILMINGTON, DE 19808 U.S.A.	302-995-2904
申允稷	PROF DR MED PAULÖ HIRAYAMA KEGEL STRASSE 2D-7520 BRUCHSAL WEST GERMANY	

第 22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聖翰	156-010	銅雀區 新大方洞 우성아파트 113-1702	848-8061		
金禧庚	135-230	江南區 逸院洞 674	573-8031		
金祐燮	138-130	松坡區 梧琴洞 9-3	402-0198		
金東輝	183-200	松坡區 文井洞 150 올림픽 패밀리아파트 227-1505	400-7758		
廉元德	189-230	蘆原區 下溪洞133블럭 靑丘아파트 9-1301	978-8678		
申泰燦	139-230	蘆原區 下溪洞132블럭 現代아파트 105-808	979-1423		
安 森	135-086	城北區 普門洞 6街 118	95-3903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柳 炯 容	430-070	安養市 東安區 범계동 신동아 아파트 903-607	(0343) 87-9909		
趙 在 衡	156-031	銅雀區 上道1洞 7-22	814-2059	코리아통상회장	279-1635
趙 成 植	100-450	中區 新堂洞 346-452	252-9077	학술원회원	
崔 龍 煥	137-040	瑞草區 方背洞 신동아아파트 1-1402	585-0274		
韓 暉 洙	430-070	城南市 盆唐區 書院洞 三星示範아파트 131-1101	(0342) 701-0491		
洪 昌 杓	430-070	安養市 新村洞 무궁화아파트 707-603	(0343) 81-8743		
洪 德 熙	157-040	江西區 鹽倉洞 264-27三星하나름아파트 A-909	651-7048		
李 炳 一	697-090	濟州島 西歸浦洞 호근동 921	(064) 39-4903		
金 景 植	730-020	慶北 구미시 도량동 679구빈아파트 101-1508	(0546) 54-7252		
金 龍 聲	152-110	九老區 宮洞 93 水宮母子院	612-6736		
金 周 炯	136-033	城北區 東小門洞 3街 60	926-4923		
姜 鎔 根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文 相 駿	148 BRETTON WOODS DR. CRANSTON R.I, 02920 U.S.A.	401-944-3319
李 基 億	516 W APPLE TREE RD. GLENDALE, WI 53219 U.S.A.	414-351-2298
徐 甲 承	CLARENDON COURT APT #905 4500 N. CLARENDON IL 60640 U.S.A.	
金 虎 吉	日本國 名吉尾市 千鐘區 田代町4寶普通 116-10 メヅソ 月宮殿 2928	052-722-0777
黃 石 峰	917 S. BRONSON AVE LOS ANGELES CA 90019	401-944-3319
徐 昌 仁	日本國 仙台市 中江町1丁目 20-3(泉山昌仁)	262-6826
朱 乾	日本國 東京都 港區 麻布 21橋居留民團本部	323-8086,454-4910

第 23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仁浩					
金斗墳	641-380	창원시 월림동 효성 가든아파트 A-303	(0551)86-1561		
金瑛河	435-042	군포시 산봉2동 14브릭 백두(동성) 아파트951-403	(0343)91-6334	김병현변호사사무실	733-3959
朴東昴	135-241	江南區 開浦1洞 現代2次아파트 202-803	576-3636		589-0023
朴晶浩	425-070	안산시 월파동 447 한양아파트 18-703	(0345)401-0546		
朴昌均	139-202	蘆原區 上溪6洞 住公아파트 205-206	931-4809	광산업	
徐日揆	422-090	富川市 南區 피안동 동신아파트 5-101	(032)343-9779		
徐正溶	157-240	江西區 空港洞 665-8	(0683)82-3362	경우엔지니어링	767-5446
宋基澈	135-100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아파트 64-201	542-0022		
沈澤高					
楊仁窺	430-030	安養市 박달동 신원빌라 20-301	(0343)46-1467		
李燮杓	600-081	釜山市 中區 보수洞 1街 116	(051)256-8125		
李世得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아파트 87-703	544-4226	미술연구소	544-2059
李漢淳	138-225	松坡區 蠶室洞 27住公아파트 518-1007	415-6946		
任昱彬	427-040	果川市 별양동 7 住公아파트 406棟 1003호	502-6692		
鄭良殷	449-910	용인군 구성면 파목리 현대하이츠 빌라나동 202호	(0331)283-0727	서울대학교	744-6483
趙誠福	139-240	蘆原區 孔陵洞 329-30 신일빌라 가棟 105號	972-7173		
朱圭演	135-240	江南區 開浦洞 住公아파트 215-401	576-4977		
崔宗相	403-080	인천시 북구갈산동 361-4 미동아파트 104-1301	(032)518-7338		
崔宗仁	137-062	瑞草區 方背洞 976-27 원창빌라 101호	587-5320		
韓 信	430-060	安養市 판양洞 現代아파트 7-1005	(0434)44-1614		
黃忠炫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曾鎬	314 WINDSAR RUAD GREENVILLE N.C 27834 U.S.A.	919-756-7716
金鐵洪	在美	
玄鳳學	95 ACORN RD WATCHUNG, N.J. 07060 U.S.A.	201-755-5421
林陽均	19 CARPENTER AVE NORWOOD N.J. 07648 U.S.A.	201-784-3890

第 24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姜基喆	427-050	果川市 富林洞 住公아파트 802-1005	503-1398		
高明元	427-050	果川市 富林洞 住公아파트 803-607	502-3889	단국대학 명예교수	797-0581
金東勳	427-040	果川市 別陽洞 住公아파트 507-506	502-5930	서울대工大 명예교수	877-2808
金性均	157-240	江西區 空港洞 4-49	665-0302		
金廷圭	183-130	松坡區 梧琴洞 現代아파트 36-1004	403-5601		
南哲祐	300-230	大田市 大德區 비내洞 정남빌라 가302	(042)624-1126		
朴聖熙	137-070	瑞草區 瑞草洞 20-1 三益아파트 2-302	556-7196	(주)마영기업 이사	585-1041
朴泳馥	139-200	蘆原區 上溪洞 1078 現代2次아파트 202-904	934-6814	현당서예학원	742-1331
廉仁必	137-131	瑞草區 良才1洞 18-16 現代빌라 205호	579-9146		
柳炯極	110-540	鍾路區 昌信洞 447-12 유미빌라4층	762-6663		
周愨鎗	120-180	西大門區 滄川洞 500-8	334-1797		
崔 雄	402-130	仁川市 南區 동춘동 925-7 쾌우아파트 108-702	(032)815-4930	서울工大 명예교수	
崔 皓	411-350	高陽市 마두동 794 강촌마을 우방아파트 810-301	(0344)903-4695		
崔昌彬	134-240	松坡區 新川洞 장미아파트 12-707	413-3096		
韓承銀	138-240	松坡區 新川洞 진주아파트 1-410	423-1325		
韓時坤	121-090	麻浦區 鹽里洞 23	716-5587		
韓學綸	132-105	道峯區 彌阿5洞 1264-138	988-1872		
黃圭錫	445-940	京畿道 華城郡 장안면 석포리 334-1	(0393)58-1055	화성목장	
黃炳峻	135-280	江南區 大峙洞 미도아파트 101-1004	567-0054		



## 海 列

姓名	住 所	電 話
金應浩	1600 CENTER AVE, #11G FORT LEE.N.J. 07024 U.S.A.	201-947-0016
金雲澤	428 S.WALE #2 VILLA PARK IL. 60181 U.S.A.	708-941-0492
姜基喆	12305 MOSEL TERRACE GAITHERSBURG MD. 20878 U.S.A.	301-869-2542

## 第 25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權宅淵	156-020	銅雀區 大方洞 362-1 大林아파트 104-1501	825-2582		
金珉河	476-800	京畿道 楊平郡 楊平邑 白安里 366-5	(0338)71-5355		
金建述					
金相熙					
金聲進	137-041	瑞草區 方背洞 883-10 황실아파트 A-302	582-1277		
金世翊	122-080	恩平區 新寺洞 349-17	373-9646		
金銀式	156-070	銅雀區 黑石洞 50-35	814-0303	의료보험聯合會	705-6108
金仁鶴	156-070	銅雀區 黑石洞 198-41	814-6576		
金吳麗	134-012	江東區 吉洞 390-4	483-5121		
金熙宰	110-513	鍾路區 明倫3街 1-973	762-4970		
盧庚昞	135-010	江南區 論峴洞 44-9	542-3345	차 일 병 원 장	274-2131
朴鼎惠	463-050	城南市 益唐區 書峴洞221-3	0342)701-3847	건국대 명예교수	445-0061
劉秉千		慶南金海市		인천대학 명예교수	
劉炳敏	678-800	慶南 合川郡 合川邑 合川里 592-3	(0599)32-0514	영 남 의 원 장	(0599)31-2579
劉長得	138-200	松坡區 문정1洞 17-2 미성빌리101	449-6248		
李圭元	136-050	城北區 東仙洞 4-87	923-8834	현대문예사 대표	926-0348
李亨白					

趙成國	133-120	城東區 聖水洞 2街 49-78	464-1907	조약국경영	
趙程崙					
趙栽高					
崔浩益	120-100	西大門區 弘恩洞 277-135	302-8050	대한이화목사 서장	265-4385
韓相杓	135-242	江南區 開浦2洞 12都市開發아파트 305-1108	451-0896		
韓承五	132-072	道峯區 水陸5洞 412-140	902-2309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永郁	R.M.6.B-10 BEDGE 10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BETHESDA, MD 20014, U.S.A	
徐甲成	1534 ALEXANDER ST. HONOLULU, HAWAII U.S.A.	
吳正喜	2034 AVILACHINE QUEBEC H8T TV. CANADA	
劉秉千	#2650 PINE VIEW WEST BLOOMFIELD MICHIGN, 48033 U.S.A.	

第 26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李瑛煥	121-020	麻浦區 孔德洞 105-138	713-3472		
李元鐸	137-071	西草區 瑞草1洞 우성4차아파트103-801	523-0249		
金鍾麟	152-080	九老區 高尺洞 52-88	612-0086		
朴一均	422-090	富川市 南區 괴안동 동신아파트 6-102	(032)343-2587		
石東壽	134-079	江東區 明逸洞257住公아파트 904-905	481-2282		
柳榮海	122-020	恩平區 녹변동 131-75	355-8933	현대백리점서연구소장	389-1501
李三悅	138-220	陽川區 木洞 13團地 1331-1102	649-3625	제일 병 원 고문	274-1231
林祥榮	301-150	大田市 中區 太平洞 1街 64	889-8424	북 지 의 원 장	525-4578
陳一憲	641-091	慶北 昌原市 南陽洞성원1차아파트113-507	(0551)82-6368		

崔華聖	139-200	蘆原區 上溪洞 住公아파트 1027-405	468-0149		
韓炳瑚	135-280	江南區 대치동 935-29	567-2111		
韓荃淑	150-040	永登浦區 堂山洞 강남맨션 24-404	676-4112	서울대 경영교수	
韓鼎燮	120-190	西大門區 北阿峴洞 189-42	362-5824	現代엔지니어링교관	746-7860
洪德永	403-012	城東區 玉水洞 現代아파트 104-702	295-8706		
洪鉉燾	157-030	江西區 登村洞 636-1	694-9212		
黃圭石	158-055	陽川區木5洞 목동아파트 3단지 306-301	648-2172		
姜甲東					
金炳善					
盧永吉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澤劑	2518 SMITHFIELD RD, CHARLOTTERNA VA, 22901 U.S.A.	804-971-8060
朴在彬	CHAI BPARK MD. 7103 PILLA PLACE HONOLULU. HI 96825 U.S.A.	808-395-2270
孫陽鳳	16 RIDGE WOOD RD, FORT MADISON, IOWA 52627	
安景烈	#2129 HOLLISTER TERR GLENDALE, CA. 91206 U.S. A.	818-545-7037
吳炳憲	115 VERMOUNT COURT METAWAN N.Y. 17747 U.S.A.	908-290-0517
李根虎	19524 VALDEZ DR TARZANA. CA 91356	818-344-5798
李柱衡	#247 CAMELOT DR. MORGANTON, N.C. U.S.A.	704-437-0493
李浩敏	#14561 SWEETAN ST. IRVINE CA, 92714 U.S.A. 23 CHOATE IRVINE CA, 92720 U.S.A.	714-563-0774 5
權鏞城	3008-N UNIVERSITY AVE. PEORIA. IL. 61064 U.S.A	309-658-3219

第 27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明壽	137-070	瑞草區 瑞草洞 三豊아파트18-1007	591-9201	崇実大學校名譽教授	585-2709
金鎔柱	500-042	光州市 北區 中興2洞 345-12	523-8742		
南燦佑	100-450	中區 新堂洞 366-77	235-5199	로직크오트메이슨	720-0400
朴澈善	743-955	慶北 尙州郡 洛東面 洛東里 772-1	(0562)32-7733		
邊 焄	140-030	龍山區 東部二村洞 작곡가빌라맨션 1503	794-6941		796-9567
沈鳳燮	140-201	龍山區 梨泰院1洞 청화아파트 2-1106	793-6883	카톨릭의대 명예교수	771-7600 (주)2583
安 滉	120-103	西大門區 弘恩3洞 西江아파트 B-302	357-0742		
廉聖龜	138-225	松坡區 蠶室 5團地 504-1504	419-5408	보례양조 고문	583-7391
元章煥	130-020	東大門區 清涼里1洞 미주아파트 7-403	964-0455	삼원상기빌딩대표	966-7829
劉 鋼	138-220	松坡區 蠶室洞27 住公아파트 522-303	413-3276		
尹元基	133-221	城東區 中谷洞 259-23	467-8992		
李炳國	121-250	麻浦區 성산동 255-7	336-9376		
李洙灝	137-040	瑞草區 盤浦本洞 盤浦아프타 84-104	599-3323		
李鴻範	614-101	釜山市 釜山鎭區 堂甘1洞 262-59	805-2949	유성의원원장	(051)805-2949
張元龍	607-062	釜山市 東萊區 溫泉洞 럭키아파트 18-605	553-8152		
趙誠國	122-020	恩平區 녹변동 152-75	355-3232	울산실업 고문	753-1628
朱炳七	602-055	釜山市 西區 土城洞 4街 16	242-8866		
朱舜五	301-010	大田市 中區 오류동 삼성아파트 1-1208	(042)525-2977	大田大學校圖書館館長	(042)252-0251~3
河烘權	110-054	鍾路區 社稷洞 181	736-2303	화이어산업 사장	777-7741
韓淳輔	133-070	城東區 杏堂洞 128-496	292-0521		
韓泓模	135-280	江南區 大峙洞 902 東亞아파트 다803	562-5712	미성의원원장	265-7866
洪昌麟	137-070	瑞草區 瑞草洞 新東亞아파트 2-707	556-5194		
金光一	134-020	江東區 千戶洞 214-47 경량 연립 B-303	478-8691		
朴昭會	110-012	鍾路區 平昌洞 435-2 山井빌라 3층	379-4315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盧興德	MR.H.D. NO 6700N 57TH 5TR EET. BETHANY OKLAHOMA 73008, U.S.A.	
朴照會	RED #2 PUJANAM CONNETICUT U.S.A.	

第 28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高景榮	430-505	安養市 동안구비산동 삼호아파트 16-1002	(0343)85-6993		
高明東	137-130	瑞草區 良才洞 7-57 良才 現代빌라 301호	573-2802	고명동 치과의원	753-3362
金東鳳	464-800	京畿道 廣州邑 京安4里 36-68	(0347)61-2810		
金鳳湜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32 水昌아파트 A동 903호	782-3559	대韓요트협회	777-1510
金浙煥	200-092	春川市 孝子2洞 655-7 16통 4반 성심약국	(0361)57-0931		
金翊南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漢森 아파트 B-603	780-7414		
金允善	110-062	鍾路區 新門路2街 105	736-8357	발전서역(주)대표이사	737-1421
金在乾	480-070	議政府市 新谷洞 269	(0341)3-1107	대일모피공업사	(0351)3-5200
金鍾殷	133-100	城東區 玉水洞 466漢南 하이츠빌라 1-205	298-0815	가톨릭의대명예교수	771-7600
金鉉鎬	130-650	清涼里 郵遞局 私書函 133號	805-3600	한국교육행정연구원장	929-4465-6
南相昊	140-220	龍山區 普光洞 260-6 주미아파트 707號	795-2485		
魯一協	110-012	鍾路區 平倉洞 296-25	379-6798	숙명여대 大學名譽教授	714-9390
毛麒喆	701-120	大邱市 東區 芳村洞 강변타운 106-305	(053)92-7578		
朴承棒	133-193	성동구 자양3동 587-7	458-6325		454-9706
朴英傑	402-020	仁川市 北區 신곡동 現代아파트 311-1304	883-2702	인하대 교수	(032)82-1321
朴在勳	134-070	江東區 明逸2洞 (住公)아파트 911棟 1007號	478-0108		
朴載陽	217-050	江原道 東草市 靑鶴洞 486-48 8/2	(0392)33-2248		
申道均	427-050	군포시 산봉동 수리아파트 820-2502	503-6393		

嚴仁植					
吳哲求	136-020	城北區 城北洞 166-2	762-1725	육자정영연구소	263-2501
吳聖昱	560-020	全州市 안산구 慶國洞 1街 88	(0652)84-4602	圓光大學教授	(0652)84-7174
劉衡均	137-060	瑞草區 방배동 90-8	533-7295		
尹治玉	151-051	冠岳區 奉天洞 670-24	889-4170	(株)裕農機電	(032)672-7901
李樂斌		全南	676-2076	의사	
李命英	136-103	城北區 貞陵3洞 716-183	914-9338	성균관대명예교수	762-7634
李三龍	550-130	全南 麗水市 西橋洞 857			
李漢祚	134-090	江東區 上一洞 173 三星빌라 9-204	474-5920	서강대학교행정학교수	
李鎬燮	614-053	釜山市 釜山鎮區 양정3洞 394-33		양정성심병원	
張成荀	425-070	安山市 율곡동 現代아파트 204-301	(0345)401-6117	화실경영	534-8986
鄭元浩	130-011	東大門區 清涼里1洞 미주아파트 1-907	966-1245		
趙東喆	134-060	江東區 蓮村2洞 住公아파트 313-802	471-6210	택신통산(주)사장	486-1923-4
朱赫淳	430-042	安養市 石水2洞 럭키아파트 3-903	(0343)72-8067		
曹翼奎	137-270	江南區 道谷洞 東新아파트 라동 1101호	562-2449		
韓炯周	133-100	城東區 玉水洞 한남하이츠아파트 2-1002	297-4548	한형주의원	923-8811
全鳳翊		釜山市			
蔡憲哲	600-091	釜山市 中區 大청동 1가 9-90	427-0626	東空國稅事務所	427-9422
崔宇教		城南市			
崔仁鎬	150-010	永登浦區汝矣島洞 51 三益아파트 A-706	780-7480	주한오스트리아 대사관상무관	732-7330
太範植	138-220	松坡區 蠶室洞 86 亞細亞선수촌아파트 11-603	413-7510	건설진흥공단	332-5334
韓鳳鍾	121-240	麻浦區 延南洞 509-13	324-2501		
韓忠錫	120-020	西大門區 미근洞 117-2	362-5359		
洪亨淳				牧師	
洪鉉杰	121-040	麻浦區 桃花洞 536 정우아파트 1307호	712-1780	作曲家	
黃慶鎮	422-020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부력 그린타운 308-702	(032)322-6391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 庚 彦	在美	
金 燮 楨	11024 24TH NESEATEL, WA 98125 U.S.A.	260-363-3063
尹 允 燮	6438 HAZELTIME, #5 VAMNUYS, CA, 91401 U.S.A.	
李 英 得	5 KETCHAM COURT EAST NOUTHPORT N.Y.11731 U.S.A.	
李 徹 男	在美	
李 夏 國	在美 LA	

第 29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高 憲 榮	100-400	中區 쌍림동 155-1	265-5159		
金 光 浩	608-010	釜山市 南區 남천도 비취뜰손아파트 215-605	(051)622-4245	(주)별미음식부사장	(051)469-0473
金 炳 宇	302-171	大田市 西區 갈마동 쌍용아파트 2동606호	526-8837	한남대학	(042)629-7360
金 鳳 舜	133-010	城東區 종익동 263	292-3474		
金 北 之	120-092	西大門區 홍제동 82 홍제한양아파트 106-901	737-9742		
金 載 範	156-050				
金 正 宰	138-200	松坡區 문정동 43-15	402-2935		
金 熙 國	461-180	성남시 수진동 4773-4	(031)751-0066	(주)삼보사장	
南 萬 松	137-040	瑞草區 盤浦洞 한양아파트3동 803호			
孟 厚 彬	138-220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1단지 56-105	414-5174		
文 昌 基	132-012	도봉구 도봉2동 625-21	997-5094	햇빛산빌딩	997-5091
朴 升 鐸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B동 407호	780-0779		
白 萬 鍾	433-800	의왕시 내손동 624 포일주공아파트 115동 407호	(0343)21-4997		708-4141
白 昌 烈	134-023	강동구 천도3동 54-9 36/7	478-6528	현대해상화재보험	

徐昌政	158-072	양천구 신정2동 목동아파트1402-1101	648-3692		
鲜于碩河	138-180	松坡區 삼전동 91-3	423-0759		
宋徽林	135-240	江南區 開浦洞 現代아파트 101-1101	575-1083	세익통상(주)사장	547-7629
柳吉鏞	139-230	노원구 하계동 11-2BL, 현신아파트 1-705	974-8131		
柳憲一	612-050	釜山市 해운대구 재송동 310-113	(051)809-1082		
柳澤鐘	133-092	城東區 금호동 2街 501-93	234-0015	문성사	263-0615
李甲杓	122-050	恩平區 갈현동 463-16 진양빌라 303호	355-6227		
李求輪	137-070	釜山市 금정구 서2동 산27-14	(051)523-1687		
李炳杰	139-202	노원구 상계6동 주공아파트 305-602	931-4591	학원	938-9323-8
李盛茂	217-060	속초시 교동 613-33 설악현대아파트 103-204	(0392)635-9454		
李垣植	132-202	道峯區 청4동 26 삼계동아아파트 5-1003	992-0006		
李殷鳳	132-075	道峯區 수유5동 408-18	902-3692		
李技遠					
李仁錫					
李鎭九	151-050	冠岳區 奉天洞 637-72	886-6757		332-9329
林舜均	135-280	江南區 대치동 미도아파트 105동 302호	567-4479		
林鐘一	139-200	蘆原區 上溪洞 住公아파트 120-203	991-6669	한국유선TV	278-8881
張之煥	137-069	瑞草區 方背本洞 中央아파트 가동901호	591-0951	우선중고등학교교장	613-2731
全龍珠	100-095	中區 南大門路 5가 690	776-2444		
鄭景鍾					
鄭炳殷	421-012	富川市 소사구 삼곡본2동 739-8	(032)611-0684		
鄭哲周	134-010	江東區 吉洞 160 新東亞아파트 6棟105號	483-0019	정철주세무사사무소	274-0928 266-8305~6
鄭治島	137-070	瑞草區 瑞草洞 1648-3	582-2146		
趙英濬					
趙鎔	139-220	노원구 중계본동 동진아파트 105-903	931-0782	조일치과의원	762-8785



朱 格					
朱東雲	158-050	양천구 목동아파트 534동 1405호	649-9050		
朱相彦	427-040	과천시 별양6동 주공아파트 507동 804호	504-0411	聯合通信	3983-454
千歲林	156-060	甯雀區 본동 126-15	814-3401		
崔萬楨					
崔錫勳	136-037	城北區 東小門洞 7街 115-3	928-8385		
崔學洲	152-054	九老區 九老4洞 313-128	855-1445		
韓錫元	134-090	江東區 상일동 삼성빌라 9동 202호	427-5380	한원실업사장	511-5173
韓昇煒	121-230	마포구 망원2동 465-19	336-3883		
韓依天	137-062	瑞草區 方背2洞 948-20	584-0386		
韓鐵慶	110-550	鍾路區 승인동 1051	234-9037	한진경제부과의원	923-5043
韓春熙	110-280	鍾路區 苑西洞 74-3	744-3570		
韓鴻吉	606-081	釜山市 영도구 동삼1동 276-15	(051)49-7961	해동주학	412-2456
洪 逸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現代아파트 24동 1105호	542-7309		
咸性求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淳都	1275 15TH ST., #5L FORT LEE, N.J. 07024	210-224-0346
金雄植	5288 ROCK PORT ST. COLUMBUS. OHIO. 43220	614-457-2079
金在楨	4521 N.WILDWOOD AVE. MILWAUKEE. WISCONSIN 54211	414-692-3610
金楨殷	在 브라질	
金和極	35-11 149TH PL FLUSHING N.Y. 11354	718-461-8372
朴浩高	4 SUMMER FLElds CT. LUTHERVILLE, MD-21093	310-244-1111
李權燮	206-14 EMILY RD. BAYSIDE. N.Y. 11360	718-352-7060

李芳秀	780 S.LORRAINE BLVD. L.A. CA. 90005	213-939-7057
李培石	407 BOHL DR. MARIETTA. OHIO. 45750	614-373-6294
李通堦	244 N. MAIN ST. SPRING LARE. N.C. 28390	919-864-4310
張聖洛	319 DOVER CENTER ROAD BAY VILLAGE, OHIO 44140	216-892-6940
韓世鎬	2960 GRAND CONCOURSE 4B. BRONX.N.Y. 10458	212-933-5190
韓在壽	1209 LAKE ST. NO. 401 LA CA. 90086	213-386-6091
陳炳珍	2034 N. MIRASOL ST. SANTA ANA CA. 92701	714-547-2437
韓 極	42913 VIA VALPARAISO FREMONT CA. 94536	510-623-9181

第 30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高明三	138-150	松坂區 방이동올림픽선수촌아파트310-503	403-5279	서울대공대수 명예교수	880-6481
權甲周	133-220	城東區 中谷洞 258-3	466-6431	광한기업회장	319-2351
金光彬	121-100	麻浦區 노고산동 40-13	715-4374		
金斗燦	110-054	鍾路區 社稷洞 164-26	736-2243		73-6087
金冕燮	133-110	城東區 성수동 1街 668-10	464-6951	현양대명예교수	296-0013
金炳建	120-110	西大門區 연희동 133-26	324-5010		
金秉喆	137-060	瑞草區 方音洞 725삼호아파트 다동 601호	534-1300	국제산업교육협회	608-1491-5
金秉浩	110-521	鍾路區 명륜1가 5-61	745-1313		
金始源	110-460	鍾路區 연건동 44-12	764-5208		
金信根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廣복아파트 3-306	780-3494	서울대학교약학 과 명예교수	880-7865
金榮注					
金龍澈	136-062	城北區 敦岩2洞 413-3	922-9290	성균관대영문과교수	760-0249
羅雲龍	136-030	道峯區 雙門洞 75-23	992-4175	서울대학교대학 평년교수	877-0910
都相豹	423-033	광명시 철산3동 주공아파트 1324-1102	614-9807		

朴世雄	459-030	경기도 송탄시 이춘동 381	(0333)62-6871		
朴溶夏	133-100	城東區 玉水洞 4 現代아파트 101棟 202號	297-9821	세무회계사무소	980-3100
朴垣相					
朴定仁	135-010	江南區 三成洞 홍실아파트 6棟 1005號	545-2521	한국국제해상보험(주)	756-0384
邊成煥	132-010	道峯區 道峯洞 서울가든아파트 2-407	954-8523	승의여전교수	754-7606
白昞烈	100-392	中區 장충동 2가 55	277-0564		
申裕恒	461-030	城南市 盆唐區 盆唐洞 35셋빌마을 동성아파트207-403	(0342)701-2647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延河龜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아파트 120-901	548-2179	외교정책자문의원	566-8026
吳承泰	472-140	미금시 경내동 산873 진주아파트 103-29	(0346)591-7519	동대교회목사	762-7584
兪 焄	137-040	瑞草區 盤浦洞 盤浦아파트 79棟 402號	553-2411	서울경제대학원법학연구소	880-5624
柳承敦	157-200	강서구 가양2동 경동아파트 103동 606	659-1541		
尹東榮	120-110	서대문구 연희동 동진빌라 4-201	332-7864	대한전선공업(주)	851-6651
元炳昨	138-130	松坡區 오금동 대림아파트 3棟 1404號	409-2789	경희대문리대명예교수	
李元鏞	133-210	城東區 廣肚洞 148-3	457-4898		
李圭喆	612-061	釜山市 海雲臺區 변여1동王子아파트 15-405	(051)523-7106		
李相元	135-280	江南區 大峙4洞 896-9(圭汶)	569-1979		599-3379
李圭煥	480-050	京畿道 漣川府市 龍峯洞 46 현대아파트 104동 194-101			(0351)848-9194
李南杓	133-200	城東區 九宜洞 548現代2團地아파트210-1404	445-7255	한양대영문과교수	292-2111
李承奎	139-050	노원구 월계동 534-43	918-7860		
李時默					
李演熙	463-020	城南市 盆唐區 수레동 24 양지마을 변영아파트 526-1702	(0342)711-4455	대한전선공업대표	851-6652
李寅華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아파트 23棟 402號	543-1943	출판빌딩대표	273-6611
李 河	135-010	江南區 논현동 120-3	547-1692	아하내과원장	547-1692
李鎬植	132-103	道峯區 미아3동 258-164 태양빌라지층 2호	983-8582	밥 슬 통 상	
李鎬汪	110-510	鍾路區 東崇洞 129 光明住宅 E棟 1號	762-1192		
林滢彬	133-200	城北區 九宜洞 543 현대아파트 211-004	446-7331		

鄭林植	411-800	京畿道 고양시 성사1동 144	(0344)62-6473		
趙雄善	413-870	京畿道 파주군 천현면 대능리 94	(0348)958-0319	삼성상회대표	
朱泰河	300-120	大田市 東區 용운동 住公寓 202-1103	(042)284-3414		
崔嘉鳳	156-072	銅雀區 鶴성2동 한강현대아파트 105-303	816-8924		
崔聖珉	120-160	西大門區 大新洞 124-12	392-5709	이화여대문리대 명예교수	360-2176
崔哲根	122-050	恩平區 갈현洞 300-47	355-0085		
韓萬燮	305-333	大田市 유성구 오운동 99 한빛아파트 117-1101	(042)861-9671		
韓均弼	136-100	城北區 貞陵2洞 226-46	914-4255	대동상고교장	742-1133
韓相洪	135-230	강남구 일원동 목련터온금호아파트 101-201	226-3396		
韓震	150-073	永登浦區 大林洞 大林아파트 2-101	833-3205		
韓台龍	139-220	노원구 중계동 111부력중계1단지 市廳아파트 114-1103	979-1808		(0333)62-8839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姜禮根	23 LAGUALDIA AVE SALTEN ISLAND N.Y. 10314 U.S.A.	718-370-1503
金恭根	5536 FOREST LANE BRECKSVILLE OHIO 44141	261-838-4188
金元謙	23 MICHIGAN AVE WINNIPEG. MANTIOBA CANADA R3 T3V1	204-269-1952
金庚台	3651 HEATON RD HUNTINGTON VALLEY P.A 19006	
高勝榮	1464 ST. NICHOLAS AVE. N.Y. 10033 U.S.A.	212-923-2611
朴永鎬	7. QUILL PEN WAYY WARREN N.J. 07060	201-647-5777
申森熙	237 PALM ST. WASHIWA HAWAII 96786 U.S.A.	808-621-8145
李仁根	327 REVES AVE TRENTION N.J. 08610	609-888-2488
梁昶摸	6614 NORIT SACRAMENTO CHICAGO III 60645	312-465-2115
李性白	13629 BELLEROSE DR CHANETLLY. VA 22021	703-263-2157
趙秉均	6067 CAROL DR. INDEPENDENCE OHIO 4431	216-524-9635
趙哲	6010 NORTH LAWNSDALE AVE CHICAGO. ILL 60659	312-588-1177
李炳榮	Q15 C3 JARDIN PEPROPLIS QUIADAMT. BRASIL	65-321-0767

第 31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郭 東 守					
高 庚 式	152-050	九老區 구로동 현대연예인아파트 202-304	863-4563		
高明鎬	630-520	慶南 馬山市 함성동 85-19	(0551)99-4748		
金 敎 誠	411-020	경기도 고양시 신원당마을 801-210	(0344)64-2489		
金 明 哲	136-141	城北區 장위1동 225-8	916-8712	연 합 통 신	3983-455
金 聖 斗	135-090	江南區 삼성동 142의 5	554-4062	농 장 경 영	
金 聲 鎬	150-054	永登浦區 新吉 4洞 214-5	833-5489	김성호외과의원장	833-5957
金 東 勳	135-280	江南區 大峙洞 국제아파트 2-203	555-4720		
金 洙 脚	440-022	水原市 장안구 정자도 633	(0342)701-3344	SKC 쿨라닉크	(0331)42-8180
金 宇 泳	120-090	서울西大門區 弘濟洞 315-7 서울아파트117	(738)7722/5239		
金 英 鎮	402-012	仁川市 南區 崇宣2洞 장미아파트 나동 106호	(032)682-9509	M.T.C(주)	777-5127
金 永 俊					
金 永 煥		경기도 동두천시			
金 雄 基	422-100	부천시 남구 역곡동 205 석영아파트 7-103	(032)342-5196	연 오 당 약 국	969-5855
金 載 昆	402-202	仁川市 南區 주안2洞 617-2(30/4)	(032)862-5382	파아당아메칼원원장	(032)421-0937
金 潛 浩	121-230	麻浦區 망원동 412-1 삼화아파트 102호	335-43030	코리아나투어(주)대표	318-6417-9
金 哲					
金 致 敬	405-232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273번지 삼정빌딩	(032)465-9306	경희호병원전대교수	961-0848
金 泰	132-074	道峰區 수유4동 576(8/4)	993-8758	서울대비대교수	880-7481
盧 敬 鎮			(0343)92-1023		
都 相 默	435-042	君津市 상본2동 력키합아파트 1128-802	(0343)92-1023	인현교교교시	886-6251
都 址 石	158-070	東大門區 장안1洞 394-1	245-1363		
朴 道 一	602-022	釜山市 西區 南富民2동 434(27/5)	(051)243-6870	성 진 화 학	(051)332-2421
朴 炳 哲	135-090	江南區 三成洞 혜정아파트 12棟 503호	545-9390		

朴永洙	425-021	安山市 安山1洞 696-12	(0345)409-7211	풍천금축(주)회장	552-6071
朴鎰忠	134-010	江東區 吉洞 404-5	484-4939	한국대영물과교수	445-0061
朴祚烈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示範아파트 8棟 56號	780-3534	극작가	
朴虎冕	461-360	城南市 사송동 501	(0342)723-7574	농장경영	
裒聖喆	612-082	釜山市 해운대구 반송2동 풍전맨손 406	(051)532-1724		
安壽敏					
辛應夏	614-021	釜山市 釜山鎭區 梵天1洞 858-19	(051)646-9930	태원섬유공업대표	(051)646-8649
梁柱龍	330-090	天安市 쌍룡동 쌍룡현대아파트 103동-102호	(0417)553-7366		
柳榮龜	136-110	城北區 吉音洞 1078-1	988-3993	육영구외과의원장	982-5625
柳俊馨	133-080	城北區 응봉2次대림아파트 102-1105	296-6115	원리구급 교문	5591-810
李達全	700-431	大邱市 中區대봉1동 청구맨손A-602	(053)425-1928		
李東準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한성아파트B-908	782-1735	타자이 무역	783-7031
李炳泰	138-150	송파구 방이동 89오림픽션수촌아파트 301-1033	401-2347		
李政基					
李柱成	233-820	江原道 정선郡 신동邑 조동 13里 291-4	(0373)73-7322	함백정미소사장	
李熙高	430-08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샘마을 현양아파트 119-305	(0343)36-9004	대한보이러(주)	704-7611-3
林 浩	609-392	釜山市 금정구 장정2동 505-111 온촌파라다이스빌라3차 508	(051)517-0344	在HONGKONG	782-6963
李璣堉	132-070	道峰區 수유3洞 189-4	992-7734	加平현리농장경영	(0356)85-0762
李東元					
全龜淵	430-060	안양시 관양동 現代아파트 12-1204	(0343)84-5088	안양중앙병원장	857-1771
全承鎬	122-030	은평구 대조동 204-20	384-9845		
全夏鎬	121-240	麻浦區 연남동 487-410(20/6)	334-0719		
全弘烈					
鄭漢祐	122-080	恩平區 신사洞 29-53	303-0106		
曹源根	135-230	강남구 일원동 수서재구 11부력 복원아파트101-1503	459-7989		
朱秉德	100-400	中區 쌍림동 182-3	279-4426	KOREA SILICON	764-2863
朱源道	122-100	恩平區 구파발동 120-3	352-8112	(주) 흥진	817-4547
朱 一	137-070	瑞草區 瑞草洞 현양아파트 2-1006	537-4322	한국기술개발금융과장	730-3132
朱鎭淳	411-820	고양시마두동 796장촌마을 현경아파트 703-201	(0344)908-4621	商業	274-2459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崔景默					
千景煥	604-060	釜山市 沙下區 舊平洞 삼성주택 15호	(051)262-0741		
韓東柱	635-830	京南 昌寧郡 이방면 장청리 7-2		지성병원원장	
韓日熙					
韓熙邦	601-016	釜山市 東區 草梁6동 757-10	(051)467-0676	제일다방	(051)463-8245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權鎮均	TIMBER TRAIL DEKALB ILL. 60015 U.S.A. Prof. DEPT OF ECONOMICS NORTHERN ILL. UNIV.	815-756-9745
金德勳	MICHIGAN U.S.A.	
金東榮	29 BARRINGTON #A BAKERFIELD. CA 93309, U.S.A.	805-398-0485
金亨述	13202 BERWICK AVE, BATON ROUGE LA. 70815(C.P.A)공인회계사	504-275-2086
朴炳元	38 CHURCHILL DR. LONGMEADOW MASS. 01106 U.S.A.	413-567-9317
徐甲敏	R. 76. WALLUPE CIR. HONOLULU, HI. 96822 U.S.A. PROF, UNIV. OF HAWAII COLLEGE OF B.A.	808-373-4081
徐泳煥	8134. IVAN RELB DRIVE. HPISTON. TEXAS 77040, U.S.A.	713-466-1385
楊炳春	日本 京都市 中區 壬生東大竹町 17-1	075-811-2209
李英鎬	83. N. MOUNTAIN RD. WILBRAHAM. MASS. 01095, U.S.A PROF. SPRING FIELD COLLEGE	413-596-4691
李元鏞	29. SHELDON ST. ARDSLEY.N.Y. 10502. U.S.A. PROF. OF PHYSIES, COLOMBIA UNIV.	914-693-0004
李培善	430 SOUTH FULLER AVE. APT. 4J L.A.CA 90036, U.S.A.	213-938-5031
李致和	5325 MALVERN AVE, A.P.T-C BULNA PARK CA 90621 U.S.A.	714-670-7258
李哲敏	6044 S.W. KNIGHTS BRIDGE DR. PORTLAND, OREGON 97219 U.S.A.	503-246-2560
李哲範	1769 S. HLOT AVE, LOS ANGELES, CALIFORNIA 90035 U.S.A. 서울연락처(이범의원)	213-836-8373
崔千德	3448. W. 171ST STREET. TORRANCE, CA. 90504 U.S.A.	213-515-6112

姓名	住 所	電 話
韓相涵	LOS ANGELES, CALIF. U.S.A.(서울연락:형)	543-2427
黃載鎮	15PENN. BLVD. SCARSDALE, N.Y. 10583 U.S.A. 서울연락처(미림무역)777-5127	914-472-2753

第 32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姜顯珏	612-011	釜山市 海雲臺區 中1洞 1376-13	72-2347		72-2347
姜 俊	137-049	瑞草區 盤浦洞 구반포아파트 50-501	599-0424		778-6119
高昌岩	135-230	강남구 일원동 수서지구택지개발지구 12브릭 샘터마을APT 107-604	495-9335		
金桂碩	427-070	果川市 중앙동 住公아파트 117-206	503-6243		
金東一	411-370	고양시 주엽동 46 강서마을 동신APT 409-1304	(034)911-1078		
金炳三					
金炳鉉	133-080	城東區 응봉동 대림아파트 6棟 403號	294-5242		
김관형	130-011	東大門區 清涼里1洞 美洲아파트 4-313	966-1087		
金錫定	427-050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916棟 504號	966-1087		
金晟楨	430-030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우성APT 105-1502		외항선장	
金壽喆		강원도 속초시			
金仁涉	131-200	중랑구 면목동 542-8			
金寅哲		강원도 춘천			
金仁和	132-063	도봉구 번3동 88-7	942-7109		999-1057
金萬奎					
金晚均					
金成昌					
金在鉉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金泰鳳					
金兌洪	110-080	鍾路區 무악동 연린주택 68棟 201號	737-4430		
金熙康	134-160	松坡區 삼정동 57-10	413-2794		
朴東塾	607-110	釜山市 동래구 거제동 한양아파트 3-403	865-7302	풍산금속	865-6930
朴承宰	110-170	鍾路區 견지동 85-54	732-1100	샘표식품	996-7111
朴亨坤		釜山市			
朴亨載		釜山市			
孫政達	463-050	城南市 盆唐區 書峴洞 292 임광APT315-1401	(032)702-6842		
徐康洛	131-140	중량구 묵동 174-4	971-4455		
徐星進	133-191	城東區 자양동 220-74	457-9333		
徐廷守	607-061	釜山市 東萊區 溫泉1동 425-16 용호단독주택 105號	445-9677	영진사	
宋政雄	463-070	城南市 盆唐區 야탑동535 탑마을 대우APT 212-102	(052)706-7100	남대문유성 상가대표	752-2054
吳成基	461-340	京畿道 城南市 오양동 247	717-0817	도시정미Co	
吳成吉					
元俊熙	121-220	麻浦區 합정동 389-26	324-8553		
禹宗均	132-108	道峰區 미아 8동 316-8 41F	984-0668		
俞東在	421-200	京畿道 부천시 오성구 원종2동 132-1 수정아파트512	(032)673-0285		
柳榮潁	137-060	瑞草區 方背洞 908-9 유림B/D4F	586-7070		
柳玉培					
李庚厚	156-032	銅雀區 상도동 321-2	842-0585	아식스 대리점	685-4841
李均	121-110	麻浦區 신수동 147-12	716-4012		
李相龍	133-110	城東區 성수 1가 685-201	465-6409	성수종합 상가대표	
李昇陽	425-170	안산시 성부동 한양APT234-1507	(0345)405-1246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李承均	132-041	道峰區 倉1洞 삼성APT 108-404	995-3313	주 한 미 대 사 관	
李令載	132-072	道峰區 수유2동 237-17	993-9963		
李龍澤		성북구 정릉동			
李長得	607-080	釜山市 동래구 연산동	82-3439	만 세 의 원	
李澈和	135-120	江南區 신사동 현대맨손아파트 2-102	544-0827		
李熙烈	156-032	銅雀區 上道2洞 22-52	817-3615		
尹明鎭	430-070	안양시 동안구 평창동 13브릭 꿈마을 건영APT 304-501	(0343)21-0719		
尹榮洙					
田春三	158-070	양천구 신정동 목동APT 1024-1204	649-9505		
鄭允廷	122-040	서대문구 불광동 미성APT 5-1110	387-7594		
鄭在銓	435-044	군포시 산본동 수리현양APT 813-302	(0343)95-6135		
趙耀燮	135-280	江南區 대치동 은마아파트 20棟 101號	556-0843		
趙鐘南	157-221	江南區 방화1동 453-9 칠성아파트 302號	664-3567		
鄭源石	137-060	瑞草區 方背洞 일광아파트 5棟 706號	584-5187		
鄭浩鏞	121-090	麻浦區 염리동 8-48	715-0020		
朱洙烈	608-010	釜山市 남구남천동 협진태양맨손 2-902	622-4012	제 과 점	863-8640
秦正洙	137-040	瑞草區 盤浦洞 신반포 17차 333-804	537-0467		
崔慶明	110-350	鍾路區 운이동 98-78 가든B/D	765-2233	최 치 과	
崔夏禎	132-062	道峰區 번 2洞 435-52	981-7964	구 상 산 업	
崔熙仁	151-011	冠岳區 신림1洞 1600-3	856-3392	서 울 대	
崔炯英	411-800	京畿道 고양군 원당읍 주교2리			
崔洪昶	134-070	江東區 明逸洞 고덕 現代아파트 15-702	478-0326	성 동 여 실 고	
韓明均	404-230	仁川市 西區 가정동대동그린빌라 15-102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韓錫彰	135-240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13-402	574-1618	주택은행	
韓龍彬	156-010	銅雀區 신대방동 632-27			
韓梳淑	403-022	仁川市北區신곡동 255-1 뉴서울 A101-1301	(032)523-8972		
韓泰欽	158-050	양천구 목3동 318-30	643-9396		
黃忠漸					
韓敏相	151-061	冠岳區 봉천11동 180-488	877-2429		
金 陽	405-234	仁川市 남동구 간석4동 간석우성A3-806	428-0088	한국복합유리공업 영업상무	783-2737
朴河基	411-810	경기도양군 지도읍 령선3리 대호연립202	974-0136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武燦	KIM, MARTINM, 3600 STOCKER ST LA CA 90008	213-735-6297
金映昭	KIM, CHUL WOO 34 KRISTIN PI OLD TAPPAN NJ 07675	201-768-1468
郭俊求	KWAK, CHUN KU, 1231 BURHAM THORPE ROAD WEST OAKVILLE ONT L6J42 CANADA	416-842-3910
金泰進	在美	
朴永鐸	在美	
朴漢雄	在 제네바	
裴英德	BAE, MARKY 8535 W KNOLL PR #101, SA, CA 90069	213-657-0745
李東輝	LEE, DONG HEE 28431 GRATION. AV ROSEVILLE MI 48066	
李龍墳	在美	
尹康德	YOUN KYONG DUK 128 CARBERNETT CIRCLE REXDALE ONT M945AL CANADA	416-743-3634
尹鎬成	YUN, HO SONG, 4305 W.SPELVEDA BLVD TOKTANCE CA 90505	213-779-3415
李黃勳	LEE, HWANG HUN. 2857 S. VICTORIA AVE. LOSANGELES.CA 90016	213-933-6809

姓名	住 所	電 話
趙世英	在美	
韓東明	在美	
韓碩愚	60 HUNTER AVE. ST. IVES SYDNEY 2075N.S.W.AUSTALIA	
黃普鉉	在 우루과이	
朴齊極	在 LA	

第 33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姜東求	138-229	송파구 잠실본동 선수촌아파트 10-503	414-9789		
康海園	122-020	恩平區 녹번동 29-16	387-5504		
金亨培	110-010	鍾路區 신영동 214-64	355-9776		
金相龜	157-019	강서구 화곡본동 1114-5 기원 B/D 201	792-0406	(주)서창기공 · 사 장	692-3705
金基元	110-510	鍾路區 東崇洞 시영㉠ 13棟 103號	762-9698		
姜在錫	133-190	城東區 자양동 216-21	446-1588	강의원원장	948-7047
金賢修	131-201	중랑구 면목1동 239-4/6	433-6638		
金相球	135-281	江南區 大峙洞 선경㉠ 12棟 1102號	556-7192		
金鳳澤	140-200	용산구 이태원동 20-19	793-8620		
金福燮	612-021	釜山市 해운대구중2동 住公㉠34-306	(051)72-3786		
高守鎭	131-200	중랑구 면목동 66-1	434-6132		
吉明源	120-170	西大門區 대현동 121-21	363-8740		
宋榮達	136-102	城北區 정릉 2동 203-1	919-5891		
徐潤煥	411-820	교양군일산읍대현리19-8 미주㉠ 나동410	(0343)976-0104	영화컨설팅	739-2531
申光熙	430-060	안양시 관량동 396-1 다㉠ 10-702	(0343)78-0444	신치과원장	765-3803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申漢均	121-160	麻浦區 상수동 329-5	322-6312		
申鳳淵	139-221	노원구중계1동 7부력 우성㉠ 103-801	931-7401	신창중학교 교사	
申東虎	100-450	중구 신당2동 395-3	233-4142		
孟秀哲	421-190	부천시중구고강동세보미㉠ 가동 515	(032)674-6420		
朱宣淳	151-059	관악구 봉천 9동 635-285	877-7915		
全集鐘	609-393	釜山市금정구장전3동은천화목타운701호	(051)202-0893		
劉昌根	423-060	광명시 하안3동 주공㉠ 809-405	893-8108		
劉國培	134-070	강동구 명일동 309 삼의㉠ 203-53	484-6006	정심환 의원원장	275-8786
李七煥	121-220	麻浦區 합정동 392-5	336-2394	美GE社 상임고문	738-8195
李大鍾	132-072	道峰區 수유2동 535-8	993-8219	(주)해양심유 부사장	252-3101
李元鐘	120-110	西大門區 연희동 170-127	336-2537		
李城南	100-340	중구 산림동 116	275-8725	성원정 미술장	
李長弘	422-050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243-93 삼익세라믹㉠ 101-501	(032)344-0416		
林錫賢	609-350	釜山市 금정구 청룡동45-1 아카데미빌라 401호	(051)508-2686	부산대학 상대교수	
廉昌錄	427-060	과천시 과천동 373-1	502-3724		
尹炳陽	120-110	서대문구 연희동 200-71	334-1769	에양종합 건축사무소	552-4079
朴丙楨	137-040	瑞草區 新盤浦洞㉠ 3地區 한신 34-502	532-0797	(주)신농 대표이사	856-4300
朴弘植	421-170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0-5 부촌3次㉠가 405	(032)679-5357		
朴溶郁	132-105	道峰區 미아5동 476-11	988-2786	동국대부 속중교사	245-4112
朴泳址	403-011	仁川市 北區 富平1洞 大林㉠ 3-105			
朴寅赫	122-050	은평구 갈현동 517-191 선일비라 101	382-9151	일본관광 진흥회	
朴長根					
朴茂連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話	現 職	電話
崔熙仿	130-050	東大門區 회기동 7-3	966-0801	한국실리콘 제조사장	(0346)63-3823
韓永喆	608-020	釜山市 남구 대연동 1734-20	(051)66-2966	한국호진 공업대표	(051)323-4531
韓洙觀	130-050	東大門區 회기동 16-19	965-7813	대광고교 교감	926-5296
韓澈柱	404-252	仁川市 西區 加佐2洞 진주 <sup>㉠</sup> 6-403	(032)573-7725	한국종합 영상대표	274-0749
韓承學	150-093	永登浦區 문래동 3가 1 국화 <sup>㉠</sup> 2-1103		제등의원 장	855-0978
韓龍大	130-990	동대문구 휘경동 183-103	965-6702	오송건축 대표	
韓旭燮	600-094	부산시 중구 대청동 66-32			
韓元松	133-210	城東區 廣場洞 極東 <sup>㉠</sup> 4棟 901號	452-1854		
韓賢根	681-230	울산시 중구 북정동 67	(052)43-1527		
柳東洙	140-240	龍山區 西水庫洞 241 新東亞 <sup>㉠</sup> 3-202	794-2626	서울대 대교수	
尹在敬	138-160	松坡區 가락동 미성 <sup>㉠</sup> 5棟 901號	412-5008		
魏成國	700-444	大邱市 中區 남산동 2466-1 보성향실 <sup>㉠</sup> 108-502	(053)254-2301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權炳池	BYUNT JE. KWON 9922 ACACIA AV 14 GARDEN. GROVE CA. 92641. U.S.A.	
金澤洙	在美	
宋錫根	7719 IVYMOUNT TERRACE PHOTOMAC MD. 20854 U.S.A.	
李炳錄	在美	
崔昌松	15 COPPER BEACH FARMINGTON, CONN 06032	203-677-8363

## 在美洲 同窓會員 名單

### 任員名單

任員區分	回 期	姓 名	電 話 番 號	備 考
顧 問	8	馬 鐘 國	(301) 809-4157	
顧 問	15	金 子 勳	(718) 939-2591	
顧 問	15	金 基 應	(718) 939-1713	
會 長	15	金 滢 次	(201) 585-0813	
副 會 長	20	李 壽 求	(201) 385-9123	
”	23	玄 鳳 學	(201) 755-5412	
”	29	朴 浩 高	(301) 244-1111	
總 務	30	高 勝 榮	(718) 352-9087	

### 在美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名單

回期	姓 名	英文名	故鄉	職 業	電 話 番 號	現 住 所
8	馬 鍾 國	Chongguk Mah	吉州		301-869-4157	17060 King James Way, 520 Gaithersburg, Md 20877
15	金 基 應	Ki Duk Kim	咸興		718-939-1713	144-14 38th Ave., #4c Flushing, N.Y. 11354
15	金 子 勳	Ja Hoon Kim	咸興	醫博		2-54 149th St. Whitesone, N.Y. 11357
15	金 滢 次	Hyung Cha Kim	咸興		201-585-0813	232B Wasington Ave Fort Lee, N.J. 07024

回期	姓名	英文名	故鄉	職業	電話番號	現住所
16	劉漢鳳	Han Bong Yoo	雄基		703-578-3173	610 S. Carlyn Springs Rd. Woolland Hill. #228 Arlington, VA 22204
19	都相禧	Sang Hee Toh	興南	醫博		882 Bear Creek Costa Mesa, CA 92626
20	李壽永	Soo Young Lee	西湖		201-385-9123	261 East Main St. Bergenfield, N.J. 07621
20	韓大淑	Dae Sook Hahn	俗厚	醫師	315-393-3000	Station A Ogdensburg, N.Y. 13669
20	孫浚得	Choon Duck Son	洪原	醫師	615-670-5942	7603 Primm Spring Road Lyles TN 37098
20	金泳鍾	Young Chong Kim	咸州 川原		213-620-9446	200 S. Oliver ST., #202 Los Angeles, CA 90012
21	金時彥	Si Un Kim	咸興		808-941-6567	1919 Citron St., #510 Honolulu, HI 96826
21	安省信	Sung Shin Ahn	咸州		218-983-1987	39 Poland Place Staten Island, N.Y. 10314
21	朱瀚裕	Han Yu Joo	咸州	事業	302-995-2904	2701 Tanager Dr. Wilmington, DE 19808
21	黃石峯	Suk Bong Hwang	慶源		213-936-9026	
22	文相駿	Sang Joon Moon	咸興		401-944-3319	48 Brettonwoods Dr. Cranston, RI 02920
22	李基億	Kiuck Lee		教授	414-351-2298	516W. Apple Tree RD Glen- dale, WI53217



回期	姓名	英文名	故鄉	職業	電話番號	現住所
23	玄鳳學	Bong Hak Hyun	咸興	醫博	201-755-5412	95 Acorn Road Watchung, NJ 07060
23	金會鎬	Joong Ho Kim	咸興	理博 教授	919-756-7716	314 Windsor Rd. Greenville, NC 27834
23	林陽均	Yang Kyun Rhim	西湖		213-386-2214	1017 So Berendo. Ave #5 Los Angeles, CA 90006
23	金鎮洪	Chin Hong Kim				
24	金應浩	Eung Ho Kim	新興	醫師	201-947-0116	1600 Center Ave, #11G Fort Lee, NJ 07024
25	劉秉千	Beong Cheon Yu	忠北	文博 教授	313-681-0005	2650 Pineview W. Bloomfield, MI 48033
25	徐甲成	Kap S. Seo	興上		808-839-6417	3215 Ala Ilima St. #A812 Honolulu, HI 96818
25	趙程崙	Jung Ryun Cho	北齊		301-366-2107	601 Wyanok Ave., #322 Baltimore, MD 21218
26	李柱衡	Choo Hyung Lee	咸南	醫師	704-437-0493	247 Camelot Dr. Morganton, N.C. 28655
26	權鎮城	Jin Sung Kwon			309-685-3219	3008 N. University Ave. Peoria, IL 61604
26	金澤濟	Taik Chae Kim	高原	醫師	804-971-8060	2518 Smithfiled Rd. Charlottesville, VA 22901
26	吳炳憲	Byung Hun Oh	鍾城	貿易	201-290-0517	115 Vermont Ct. East Matawan, NJ 07747

回期	姓名	英文名	故鄉	職業	電話番號	現住所
26	李浩敏	Ho Min Lee	咸興		714-559-0774	33 Choate St. Irvine, CA 92720
26	李根虎	Keun Ho Lee	北齊	事業	818-344-5798	19524 Valdez Dr. Tarzana, CA 91356
26	孫陽鳳	Yang Bong Shon				
27	朴昭會	Sow Hey Park	長津	醫師	203-928-4447	196 Liberty Highway Putnam, CT 06260
28	李英得	Young Duk Lee	新興	會社員	516-261-5117	5 Ketcham Ct. E. Northport, N.Y. 11731
28	尹允燮	Yun Sup Yoon	新興		818-988-9038	6438 Hazeltine, #5 Van Nuys, CA 91401
29	朴浩高	Hosurl Pak	咸興	事業	301-244-1111	4 Summer Fields Ct. Lutherville, MD 21093
29	韓世鎭	Se Ho Han	咸興	醫博	212-933-5190	2960 Grand Concourse, 4B Bronx, N.Y. 10458
29	金和極	Abraham Kim	咸興		718-461-8372	35-11 149 Place Flushing, N.Y. 11354
29	金淳郁	Sun Wuk Kim	咸興	醫博	201-224-0346	1275 15th St. #5D Fort Lee, NJ 07024
29	李權燮	Kwonsup Lee	咸興		718-352-7060	206-14 Emily Rd. Bayside, N.Y. 11360
29	金雄植	Ung Sik Kim	咸興	醫師	614-457-2097	5288 Rockport St. Columbus, OH10 43235

回期	姓名	英文名	故鄉	職業	電話番號	現住所
29	金在楨	Zae Zeung Kim	咸興	醫師	414-962-3610	4521 N. Wildwood Ave. Milwaukee, WI 53211
29	李培石	Bae Suk Lee	咸興	醫師	614-373-6294	407 Bohl Dr. Marietta, OH 45750
29	李通燾	Tong Hoon Lee	新興	醫師	919-864-4310	224 N.Main St. SpringLare, N.C 28390
29	李芳秀	Bang Soo Lee	新興		213-939-7057	708 S. Lorraine Blvd. Los Angeles, CA 90005
29	陳炳珍	Byung Jin Chin			213-385-6608	2034 N. Mirasol St. Santa Ana, CA 92701
29	韓在壽	Chae Soo Han			213-386-6091	1209 S. Lake St., #401 Los Angeles, CA 90006
29	張聖洛	Song Nak Chang			216-892-6940	319 Dover Center Rd. Bay Village, OH 44140
29	韓極	Geuk Han			510-623-9181	42913 Via Valparaiso Fremont, CA 94539
30	朴永鎬	Young Ho Park	咸興	醫師	201-647-5777	7 Quill Penway Warren, NJ 07060
30	高勝榮	Seung Yung Koh	咸興		212-923-2611	1464 St. Nicholas Ave. New York, N.Y. 10033
30	申森熙	Samuel H. Shinn	興南	教師	808-621-8145	43 N. Colonial Heights Troy, N.Y. 12180

回期	姓名	英文名	故鄉	職業	電話番號	現住所
30	金康台	Kyong Tai Kim	咸興	醫師	215-947-4652	3651 Heaton Rd. Huntingdon Valley PA 19006
30	曹秉均	Byoung Gyun Choh	洪原	醫師	216-524-9635	6967 Carol Drive Independence, OH 44131
30	李仁根	In Kun Lee	定平		609-888-2488	327 Reeves Avenue Trenton, NJ 08610
30	李性白	Sung Baek Lee	咸興		703-263-2157	13629 Bellerose Drive Chantelly, VA 22021
30	趙哲	Chui Cho	咸興	技師	312-588-1177	6010 N. Lawndale Ave. Chicago, IL 60659
30	金恭根	Kong Keun Kim	咸興	醫博	216-838-4188	5536 Forest Lane Brecksville, OH 44141
30	姜禮根	Rae Keun Kang	咸興		218-370-1503	23 Laguardia Ave. Staten Island, N.Y. 10314
30	金元謙	Won Kyim Kim	北蔭	教授	204-269-1952	23 Michigan Ave, Winnipeg Manitoba, R3T 3V1 Canada
30	柳承敦	Seung Don Yu	咸興	事業	215-885-1201	2227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50
30	李炳榮	Byung Yung Lee	新興	事業	65-321-0767	Q15 C3 Jardin Pepropolis Quiaba Mt, BRAZIL
30	梁昶模	Chang Mo Yang	咸興	事業	312-465-2115	6614 North Sramento Chicago, IL 60645

回期	姓名	英文名	故鄉	職業	電話番號	現 住 所
31	黃 載 鎮	Jay G. Hiwang	忠南		914-472-2753	15 Penn Blvd. Scarsdale, N.Y. 10583
31	徐 甲 敬	Kap Kyung Seo	興上	教授	808-373-9485	76 Wailupe Circle Honolulu, HI 96821
31	朴 炳 元	Benjamin Park	咸興	醫博	413-567-9317	38 Churchile Drive Longmeadow, MA 01106
31	崔 千 德	David C. Choe	咸興		213-515-6112	3488 W. 171 st St. Torrence, CA 90504
31	李 致 和	Chie Hwa Lee			714-670-7258	5325 Malvern Ave. ㉠-c Buena Park Ca 90621
31	李 哲 範	Chul Bum Lee			213-836-8373	1769 S. Holt Avenue Los Angeles, CA 90035
31	李 培 善	Bae Son Lee	咸興		614-373-6294	407 Bohl Drive Marietta, OH 45750
31	徐 泳 煥	Yung Hwan Seo			713-466-1385	8134 Ivan Relb Dr. Houston, TX 77040
31	李 元 鎭	Won Young Lee	咸興	教授	914-693-0004	29 Cheldon Ardsley, N.Y. 10502
32	韓 東 相	Donald Han			213-461-8806	5188 Spencer St. Las Vegas, CA 89119
32	金 武 燦	Martin M. Kim	咸興		213-735-6297	174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8
32	李 黃 燦	Hwang Hun Lee	咸興		213-735-6297	1740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8

回期	姓名	英文名	故鄉	職業	電話番號	現住所
32	尹 鎬 成	Ho Song Yun	咸興	事業	213-779-3415	4305 W. Spelveda Blvd. Torrance, CA 90505
32	裴 英 德	Young Tok Pae	咸興		213-657-0745	8535 W. Knoll Dr., #101 Los Angeles, CA 90069
32	郭 竣 求	Chun Ku Kwak	咸興		416-842-3910	1231 Burnham Thorpe Rd. W. Oakville, Ont., CANADA L6J4Z8
32	尹 慶 德	Kyong Tuk Yun				
33	崔 昌 松	Chang Song Choi	咸興	醫師	203-677-8363	15 Copper Beach Farmington, CT 06032



靑髮우거진클에자남다누엇다  
 紅顏을어티두고슬골만무쳤난이  
 羞지바勸하리입스니그를슬허하노라  
 白湖林惺

여기 李朝의 詩才 林白湖의 詩한首 새겨 앞서간 同門任들 생전모습을 그리면서 失鄉의 異域에 묻힌 孤魂앞에 삼가 고개 숙여 冥福을 빕니다.





## 作 故 者 名 單

### 第 2 回

金文憲 金明學 金化燮 金禮鎬 尹相德 盧炳瑚  
林在苑 韓國簿 朴海龍

### 第 3 回(舊制)

韓澤柱 李範海 李之鎬 李英一 李種英

### 第 4 回(舊制)

朱幹欽 金載鼎

### 第 5 回(舊制)

韓昌源 朴重剛 金桂淑

### 第 6 回(舊制)

韓參淵

### 第 6 回(新制)

崔榮根 姜洙玟 李鳳寅 朱源

### 第 7 回(舊制)

韓桔容 咸興基 李在鵬 崔炳島 朴興陽

### 第 7 回(新制)

韓道淑 韓鎮億 林壁榮 蔡洙岡

第 8 回(以下 新制)

金昌洙	金濬鉉	崔正憲	張錫林	張永相(舊興萬)	
崔在緯	崔浩英	盧鍾九	朱德淳	柳載昊	金龍背
池鏞夏					

第 9 回

金基漸	金信遠	李鎬亨	朱洛瓚	朴台三	高承晉
金相涉	金載元				

第 10 回

金應錫	金義昌	金昌善	宋相益	朴義鉉	吳昌淑
南相協					

第 11 回

金永鎮	金明鎮	金致源	南鳳淳	盧忠吉	朴文燦
朴用善	方亨練	宋義鏞	李炳逸	李東洙	李應麟
尹明海	鄭致鎔	趙容昊	韓明功	韓湖石	朴忠鎮
朴源誠	張鉉稜				

第 12 回

金鏞千	朱之鎬	朱元鎬	崔弼憲		
-----	-----	-----	-----	--	--

第 13 回

姜龍彬	金教寅	文天洙	安壽吉	李潤生	張仁奉
朱葉	韓吉鎬	金竣宋	李炳六	韓鐘韶	

第 14 回

廉禮寬 俞孝植

第 15 回

金道俊	李永昊	李求翰	李弘均	李祖甲	李成洙
李容成	李永秘	金信德	趙來春	韓麟植	李寬英
李日赫	高聖均	金熙春	盧瑞玉	咸潤根	

第 16 回

秦承國	申明燮	韓秉子	太學基	朱洙元	朱鍾式
金連珪	金聖河	李東秀	崔昌集		

第 17 回

林重治 (舊重玉)	李祥生	盧鍾閑	金智赫	金禹涉
-----------	-----	-----	-----	-----

第 18 回

玉文鉉	朴範集	柳炯達	韓祥鳳	沈澤星	李寬燁
李泰榮	金義鉉				

第 19 回

金炳七	金生賓	金松瑩	金秀行	金益浩	金鍾浩
金楨軫	金漢奎	金亨泰	金豪南	朴鵬榮	申泰實
李明煥	李秉泌	李致德	張衡武	全榮林	韓秀會
朴燦國	朱基鍾				

第 20 回

文哲	邊普燁	申東俊	李昌協	全世經	鄭宗殷
----	-----	-----	-----	-----	-----

朱忠墳 崔淳祚 太廈基 韓 楡 黃載駿 金明植  
咸 哲 金世龍

第 21 回

韓台集 李東機 林根燦 李基鍾 朴東振 金昇奎  
柳培殷 金鏡煥 崔昌奎 韓近淑

第 22 回

金亨信 金載璉 李 槿 秀 朴聖煥 申衡均 申鉉和  
全銘鶴 朱榴鎮 朱鍾喆 韓秉濠 韓讚植 張榮國  
張準楨 金旻奎 金東成 孔守範 韓 湧 韓鎮洙

第 23 回

金教吉 金基壁 金南鶴 金東炫 金桑根 金泳杰  
金佐謙 徐載卿 尹士榮 李仁勳 李延輯 崔相國  
崔儀憲 崔熙澤 韓鎬權 李光薰 韓東湖 崔敏煥  
池昌龍

第 24 回

金鍾鳳 盧永達 朴文卿 李基赫 金鉉五 趙在龍  
崔溶憲 韓錫武 韓永根 洪鉉基 玄斗映 金泰錫  
韓錫範 李漢國 金聲壖 魏在珪

第 25 回

文 虎 朴承咸 秦秉洛 朱姮斗 洪 相 趙 曄

第 26 回

申南均	李學守	金熙燦	李錫衡	李禎敏	玄斗鎰
禹一	韓炳喆	梁泰鱣	金秉萬		

第 27 回

韓錫聲	千宗玉	玄鳳燕	韓栽永	曹圭榮	丁基范
韓明珠					

第 28 回

金教一	金泳八	金鎔九	朴吉淵	邊道燁	宋守根
劉大植	李密森	邊永根	林珍珠	金鐸	宋永冕
盧惠圭					

第 29 回

金秉熙	金潤鎬	金鎮鎬	文杓周	辛基壽	安永吉
楊仁道	李東哲	韓相喆	李楨得	張炳九	韓祥珏
윤용철	玄斗正	徐尙旭	陳伯林	都重浩	李正昊
安震	이달음	金弘杓	朴在炯		

第 30 回

高昊式	金泳夏	金英根	金寬植	朴壽淵	朴哲
李始鐘	張時珍	鄭俊	趙弘汀	陳國永	韓增鎬
盧甲炳	崔昌杰	金聖治	金基南	崔斗吉	金永善
張亨龍	李昌植	孔麟洙	金汶一	崔華國	金容海
金昱	金善植				

第 31 回

高 羲 哲	李 弘 根	林 鳳 來	弼 珠 光	韓 泳 運	金 玉 金
韓 秉 極	李 城 洙	金 弘 潤	盧 善	徐 三 澤	安 培 植
梁 泰 龜	劉 濬 成	嚴 鎔 洙	李 相 稷	李 星 九	李 容 均
朱 鍾 和	崔 德 俊	崔 燦 在	魚 演 昌	權 由 周	金 周 鉉
李 鳳 植	李 柱 七	白 庚 鍾			

第 32 回

金 聖 南	金 載 坤	池 一 權	金 致 浩	崔 心 煥
-------	-------	-------	-------	-------

第 33 回

吉 明 河	李 遠 鍾	崔 琳 活	任 縞 彬	朴 淳 三
-------	-------	-------	-------	-------

## 편집을 끝내면서

지난 여름은 史上 유례없이 유난히도 찌는듯 무더웠던 나날들이 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들은 朴會長께서 맡겨준 중책을 다하기 위하여 會誌편집실에 모여 비지땀을 흘려가며 어렵게 모아진 70余편의 원고를 정리하는 한편 각종 추억의 사진 삽화와 圖案 등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놓고 벽찬 가슴에 衆智를 모아 면밀히 구상하면서 會誌편집에 착수 하였다. 原稿교정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紙面의 한계에 부딪쳐 더러는 이번호에 신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겼다.

우선 本誌가 충실한 內容에 훌륭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값지고 유익한 글들을 써 보내준 國內·外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여기 이 會誌의 탄생을 위하여 업무에 바쁜 사무실을 그 산실로 제공하고 손수 遷至하는 원고를 접수 정리하면서 회의 소집과 보충자료 수집등에 物心양면 헌신적으로 공헌해준 본회감사 鄭哲周同門을 비롯하여 함께 힘을 모아 산파역을 다해준 편집委員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특히 이번에 지난 동창회의때 의결한 새이름 「盤龍」으로 거듭 태어나는 우리 會誌를 빛내주기 위하여 表紙畫(염원)을 내어준 세계 畫壇의 巨擘 金興洙 畫伯과 標題를 써준 海東의 名筆 玄堂 朴泳馥 두 同門에게 깊은 謝意를 表한다. 그리고 母校의 옛 校歌(日語)를 우리말로 옮겨준 韓承五同門과 애초부터 會誌의 表紙畫로 쓰여온 母校의 심볼마크 螢雪圖를 그려준 李鎬植同門에게도 새삼 감사하고, 함께 校正을 맡아 도와준 金



瑛河, 韓學綸 두同門에게도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이 冊을 上梓  
함에 있어서 찌는 더위도 아랑곳 없이 주야로 애써준 三一文化  
社 宋德榮사장과 담당 직원들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한  
다.

여기 考閱이 未盡하여 허물이 없지 않은 점 同門들과 독자  
여러분의 叱正과 敎示를 바랄 따름이다.

1994. 9. 8. 白露날 編輯室에서  
編輯委員 劉鋼, 鄭哲周, 朴溶夏, 金明哲 同門들과 함께  
韓 時 坤 積 攄



## 同窓會 連絡處

會長室 589-0023, 589-0025

朴東昂 會長

編輯室 266-8305~6, 274-0928

鄭哲周 監事

總務室 980-3100, 981-3900

朴溶夏 總務

## 盤 龍

---

1994年 10月 5日 印刷

1994年 10月 10日 發行

편집및  
발행처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組版및  
印刷 三一文化社

登錄年月日 1989. 2. 14

---

非賣品(會員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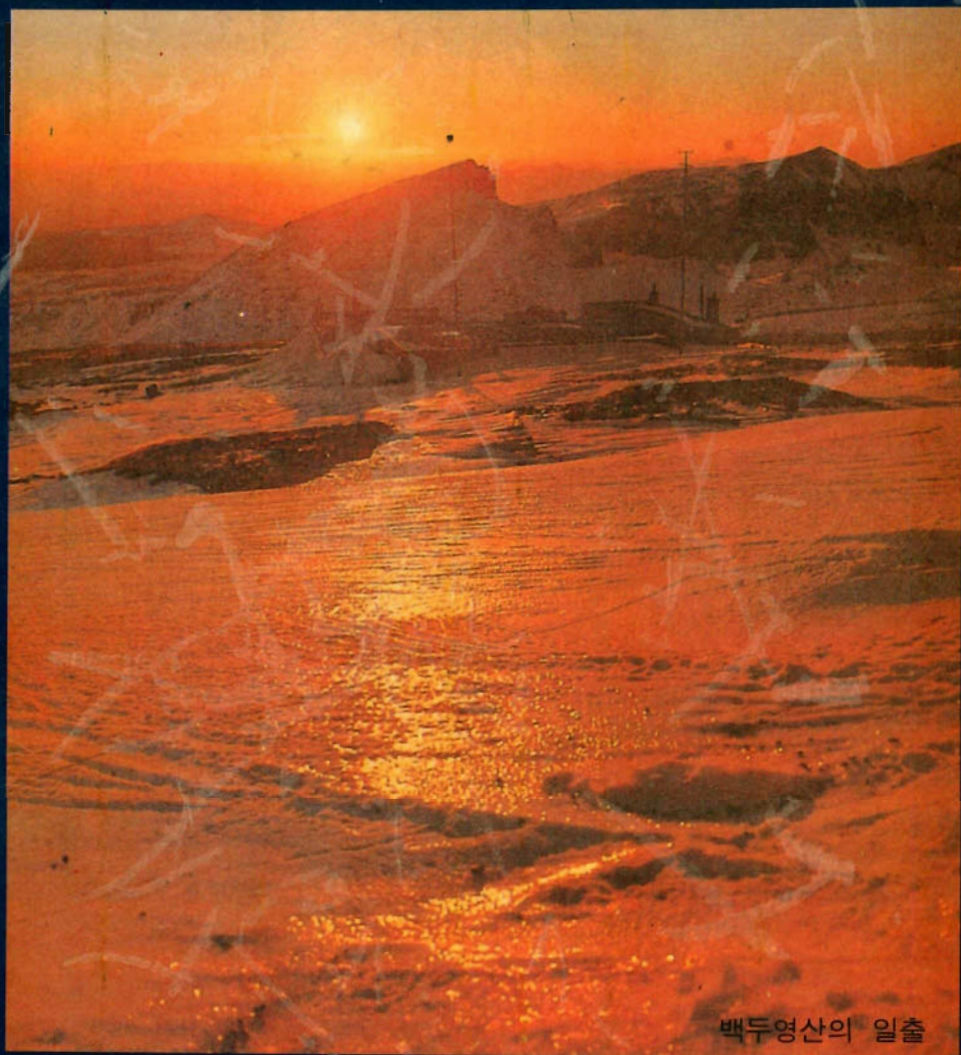












백두영산의 일출